

일제강점기 경기도민의 생활 I

- 매일신보 1910~20년대 기사 발췌 -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기획



일제강점기 경기도민의 생활I

- 매일신보 1910~20년대 기사 발췌 -

| 일러두기 |

1. 해방 전의 경기도와 현재의 경기도는 <참고>의 비교 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이 다르다. 먼저 경성부와 인천부는 각각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되어 경기도로부터 분리되었다. 또 전쟁과 분단으로 개성부, 개풍군, 장단군(일부는 파주시 관할구역), 연천군의 북부 지방은 휴전선 이북에 속하여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한다. 고양, 양주, 광주, 시흥, 부천, 김포의 일부는 서울에 편입되었고, 강화군 전체와 부천의 많은 부분은 인천에 편입되었다. 수도권 위성도시의 발달로 양주, 광주, 시흥, 수원 등은 여러 자치단체로 분할되었다. 이런 까닭에 이 책에서는 당대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2. 이 자료집은 매일신보의 기사를 추출하여 현대문으로 옮긴 것이다.
3. 이 책은 김종식(아주대 교수), 최재성(청암대 교수)이 공동 작업하였다. 짝수 연도는 김종식이, 홀수 연도는 최재성이 맡았다.
4. 1930~40년대는 2021년 상반기에 『일제 강점기 경기도민의 생활』Ⅱ 로 출간할 예정이다.

<참고>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 비교 일람표

해방 전	현재
가평군	가평군
고양군	고양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광주군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김포군	김포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부천군	부천시 / 일부 지역 서울 · 인천 · 시흥 · 안산 편입
수원군	수원시 오산시 의왕시 화성시
시흥군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안성군	안성시
양주군	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양평군	양평군
여주군	여주시
연천군	연천군 / 일부 지역 휴전선 이북
용인군	용인시
이천군	이천시
파주군	파주시
진위군(평택군)	평택시
포천군	포천시
장단군	(일부 지역 파주시 편입 / 나머지 휴전선 이북)
개성부	휴전선 이북
개풍군	휴전선 이북
20개	31개

* 해방 전의 경성부, 인천부, 강화군 제외

| 책머리에 |

일제강점기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독립운동사와 일제의 정책사 중심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물론 독립운동사와 정책사도 알아야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당시 이 땅에 살았던 대부분의 민중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떠오른다. 오늘날 대중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당대 생활사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경기도 지역 생활사를 서술하기 쉽지 않다. 연구도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 마저도 정리된 것이 없다. 이 책을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당대 자료를 모아 지역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것을 시간 순서에 따라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당대 생활사에 대한 갈증을 우선 해결하도록 하는 일이 이 자료집의 역할이다.

당대 자료는 우선 신문·잡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가운데 매일신보는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중단 없이 발행되었다. 이는 3.1운동 이후 1920년에 발행되기 시작하여 1940년에 폐간된 조선·동아일보 등 다른 한글 신문과 구별되는 점이다. 다른 한글 신문들과 달리 시종일관 발행된 이유는, 바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기 때문이다. 일제는 매일신보를 그들의 선전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매일신보는 일제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공백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발행되어 경기도의 여러 일을 실었기 때문에 좋은 자료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

매일신보 경기도 기사 중 생활사와 관련된 기사만을 추출하고, 그것을 현대문으로 바꾸어 입력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게다가 지면의 제약이 있어서 우선 1910~20년대로 한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매일신보 기사 중 생활사와 관련된 기사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데 기준이 필요했다. 그래서 목차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했다. 생활사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당대 사람들이었기에 먼저 안구, 농민, 상인 등을 맨 앞 부분에 배치했다. 아울러 사람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으므로 농업, 상업, 공업, 축산업, 임업, 부업, 어업 등의 항목을 설정했다. 한편 인간

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나 인간의 존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건, 의료, 위생, 자연재해, 가축 전염병 등도 무시하지 않았다. 식민지라는 당대 생활 환경에 비추어 통제와 선전, 인력과 자금 동원도 추려내었다. 그밖에도 생활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추가해서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식민지 조선의 생활사를 기대하고서 이 책을 대하는 분들 가운데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내용이 단편적이고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만한 내용들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 첫걸음이라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2020년 9월

김종식·최재성

1부 주제 분류

1. 인구.....	10
2. 농민과 농업.....	13
3. 상인과 상업, 시장, 물가, 도량형, 무역.....	30
4. 광공업, 공산품, 회사.....	35
5. 축산업.....	38
6. 임업, 산림.....	45
7. 부업.....	49
8. 어업, 수산업, 제염.....	57
9. 교육.....	60
10. 보건, 의료, 위생.....	75
11. 자연재해, 가축 전염병.....	87
12. '교화'와 이재민 구호.....	94
13. 세금과 예산.....	101
14. 교통, 통신.....	105
15. 금융과 금융기관.....	111
16. 지주와 농회, 소작인과 소작료.....	114
17. 통제와 선전.....	115
18. 지방제도, 지방사무.....	121
19. 인력과 자금 동원.....	126
20. 종교.....	128
21. 문화와 체육.....	129
22. 수도, 난방, 전력.....	131
23. 토지.....	133
24. 민족운동.....	135

Contents

1. 가평.....	138
2. 개성, 풍덕.....	142
3. 고양.....	230
4. 광주.....	245
5. 김포, 양천, 통진.....	252
6. 부천, 부평.....	266
7. 수원, 남양.....	274
8. 시흥, 과천, 안산.....	310
9. 안성, 양성, 죽산.....	319
10. 양주.....	333
11. 양평.....	346
12. 여주.....	354
13. 연천, 삭녕, 적성, 마전.....	360
14. 용인, 양지.....	366
15. 이천, 음죽.....	373
16. 장단.....	383
17. 파주, 교하, 문산.....	391
18. 평택, 진위.....	403
19. 포천, 영평.....	415

2부 지역 분류

1. 인구
2. 농민과 농업
3. 상인과 상업, 시장, 물가
4. 공업, 공산품
5. 축산업
6. 임업, 산림
7. 부업
8. 어업, 수산업, 제염
9. 교육
10. 보건, 의료, 위생
11. 자연재해, 가축 전염병
12. '교화'와 이재민 구호

13. 세금과 예산
14. 교통, 통신
15. 금융과 금융기관
16. 지주와 농회, 소작인과 소작료
17. 통제와 선전
18. 지방제도, 지방사무
19. 인력과 자금 동원
20. 종교
21. 문화와 체육
22. 수도, 난방, 전력
23. 토지
24. 민족운동

1부

주제 분류

1. 인구

경기도 일본인 영농자 통계에 따르면 인원 114명, 투자액은 79만여 원, 면적은 4만 5천여 정보, 과천에 22명, 부평에 16명이고, 투자액은 수원군에 43만여 원이다. (1911.07.29)

제2회 동척이민 배치 지방은 수원군 60호, 용인군 20호, 합 80호이다. (1911.10.05)

최근 일본인 19,060호, 67,018인, 조선인 302,892호, 합 1,489,119인, 외국인 1,500호, 4,270인이다. (1912.11.16)

1913년 중 경기도의 해외 도향한 조선인 총수 26명, 그중 하와이로 건너간 사람 6명, 블라디보스토크에 7명, 상해 9명, 캘리포니아주 1명, 봉천 1명, 브라질 1명, 마닐라에 1명이다. (1914.01.09)

경기도 관내에서 호구를 조사했다. 일본인 호수는 2만 4천 10호에 남자가 4만 5천 678인, 여자는 4만 1천 631인이다. 조선인의 호수는 31만 5천 493호에, 남자가 83만 691인, 여자가 78만 2천 146인이다. 중국인의 호수는 937호에, 남자가 3천 124명, 여자가 509명이다. 기타 외국인 호수는 157호에, 남자가 194명, 여자가 250인이다. 전년도에 비해 호구가 774호, 인구는 7천 799인이 증가했다. (1916.05.24)

경기도 내 외국인은 총 4,377명인데 그중 중국인은 3,987, 영국인 91, 미국인, 176, 러시아 15, 프랑스 31, 이탈리아 11, 독일 48, 그리스 7, 스웨덴 5, 벨기에 2, 스위스 3, 덴마크 1명이 있었다. (1918.08.02)

1922년 경기도 인구수는 180만 8,000여 명이다. 조선인 호수 226,257호 인구수 1,706,617, 일본인 호수 24,047호 인구수 95,903, 외국인 호수 178호 인구 558이다. (1922.03.23)

경기도에서 자살한 사람과 거리에 버려져 죽은 아이의 수는 80명에 달했다. 버려진 아이는 남자 16명, 여자 20명 총 36명이고, 자살한 사람은 목을 맨 사람 19명, 물에

몸을 던진 사람 12명, 독약 22명, 할복 1명 총 44명이고 원인 대부분은 빈곤 및 신병이었다. (1922.05.23)

12월 말까지 경기도 관내 일본인-조선인 결혼자 수 조사 결과 일본인 남자와 조선인 여자 결혼 12, 조선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 결혼 27이고, 조선인으로 일본인에 入夫 혼인한 자가 1인이다. 그중 1922년 중에 결혼한 자는 3인이다. (1923.04.30)

경기도 관내 1923년 12월 말일 호수 369,163호, 인구 1,851,018인, 전년과 비교하면 호수 8,752호, 인구 32,770인이 증가했다. 일본인 호수 26,140호, 인구 남자 52,622인, 여자 49,726인, 계 102,348인, 조선인 호수 340,510호, 인구 남자 896,021인, 여자 849,097인, 계 1,745,119인, 중국인 호수 2,319호, 인구 남자 6,998인, 여자 980인, 합계 1,978인, 기타 외국인 호수 198호, 인구 남자 258인, 여자 315인, 합계 573인이다. (1924.02.29)

1923년 경기 관내 사망자 수는 대략 41,827명으로 1922년도와 비교하면 1,314명 감소했다. 1923년도 사망자 수에 비교하면 출생 수가 25,340인이 많다. 주 사망 원인은 신경병, 다음으로는 소화기 병. 호흡기병이다. 2, 3월에 사망이 많고 11월이 적다. 연령은 1세 미만, 5세 이상~10세 미만이 많고 10세 이상부터 점차 감소, 40세 이상부터 다시 증가한다. (1924.04.18)

경기도청에서 국세조사에 대해 7월 14일부터 5일간 관내 각 군청의 내무, 서무 양 주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안에 임시국세조사부를 두고 중촌 사무관을 부장에, 재무부장과 경찰부장을 부부장에 임명하여 경찰과 군청원이 협력하여 국가적 사업에 종사하게 된다. (1925.07.07)

경기도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선인은 348,289호, 1,803,978인이다. 일본인은 27,734호, 111,758인이다. 중국인은 1,830호, 8,726인이다. 기타 외국인은 156호, 467인이다. 합계는 378,009호, 1,924,948인이다. 작년의 인구 조사에 비하면 조선인이 약 4,800호, 27,000인이 격감했다. 일본인은 2푼 7리, 외국인은 2푼 8리가 증가했다. 이같이 조선인 인구가 격감한 것은 처음 있는 상황으로, 그 주요한 원인은 1925년 대수해 이래 각 군부 주민들의 생활상에 동요가 생겼으며, 수해 후에 이를 복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살길을 찾아 간도나 각지 여러 곳으로 흩어진 것

으로 보이는데, 경성을 위시해 인천, 고양군 등에는 인구가 다소 증가 되었으나, 그 외 각 군은 전부 인구가 감소했다. (1928.03.17)

경기도 내의 인구는 1926년에 183만 1천 223인이었던 것이, 1927년 현재에 180만 3천 997인으로 약 2만 7천여 명이 감소했다. 종래 조선 내의 각도를 통하여 인구가 매년 증식하는 현상은 있었으나, 감소하는 일은 전무한 바다. 또 세계 각국을 통하여 보건대, 인구의 증가율에 증감은 있지만, 이렇게 인구가 실수로 감소하는 경우는 전쟁 또는 돌림병이 유행하지 않고서는 예가 없다. 지금 도내의 인구가 1년 내에 그 실수의 15%나 감소한 것은, 도내 주민의 장래를 위해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의 여가에 따라서는 실로 우리 조선민족 전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가볍게 넘기지 못할 문제다. 인구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자면, 1) 경성은 원래 벼슬아치들의 일족으로 각도 인사들이 운집하여, 생산능력은 전무하였고 각 지방의 물자를 받아 살고 있었다. 그러다 시대가 변화해 벼슬아치와 그에 기생하던 사람들이 본래의 농장 혹은 선조의 묘지 근처로 이사하였고, 경성 부근의 각 군의 주민들이 경성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2) 이전에 경성 거주민의 일용물자가 경기도 각 군의 시장을 통해 왔었으나 최근에 경성으로 직접 유통하게 되었다. 3) 경기도는 조선의 중앙으로 인세^{人世}에 피하지 못할 극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경기도 주민들이 경성의 삶이 안락하다는 풍문을 듣고 경성으로 이주를 원하게 되었다. 4) 경기도는 수천년 동안 정치문화의 중심이었고 그동안 전야^{田野}의 개간과 자연계의 이용이 비교적 발달했다. 이에 개간할 남은 토지가 부족하다. 5)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에서 이전의 생활을 누리기가 어려워져 외지로 이주를 선택한 것이다. (1928.03.18)

경기도의 도내 인구 총수는 37만 8천 9호의 192만 4천 948인 중 일본인 11만 1천 758인, 외국인 9천 193인이다. 그들이 가진 직업은 농촌에는 농림과 목축업이 가장 많아 100인 중 66인이다. 도시에서는 상업과 교통업에 100인 중 13인이고, 공무와 자유업이 100인 중 7인이며, 공업이 100인 중 5인, 어업이 100인 중 1인, 기타 유직업자가 100인 중 6인이다. 그 외 직업을 신고하지 않은 자 및 무직업자가 100인 중 2인으로 그 총수가 3만 8천 590여 명이다. 부형이나 혹은 기타의 부조^{扶助}를 받아 생활하며 놀고 있는 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928.12.10)

경기도에서 조사한 1928년 말 현재 도내 호구 통계에 따르면, 조선인 35만여 호, 인구

181만여 명, 일본인 2만 7천여 호, 인구 11만여 명 등이다. 전년 동기에 비해 8분의 증가이다. 증가된 곳은 경성, 인천, 고양, 개성 등지이며, 기타 지방은 다소 감소되었다. 원인은 도내 서부 지방의 한재^{旱災}와 남·서선의 한·수재로 직업을 찾아 도시로 집중해 온 관계이다. (1929.03.17)

2. 농민과 농업

경기도청에서 곡종^{穀種} 개량을 위해 작년(1910년) 봄에 음죽, 여주, 이천 등 군에 벼 품종을 배부하여 농작하도록 했는데 그 성적이 양호하여 간색^{看色}하기 위해 벼 1되씩을 경기도청으로 납입했다. (1911.01.20)

경기도청에서는 1911년도에 농업실습원을 모집하여 수원군 농업모범장에서 6개월간 교육 후 각 부군에서 모범적으로 농업을 실시케 할 계획인데, 각 부군에서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1911.02.22)

경기도청에서 고구마 재배 장려 목적으로 시범 농가에 1천 관^貫의 종자와 비료를 공급했다. (1911.05.21)

경기도청에서 빈민 구제용 식량 공급 방법으로 감서^{甘藷}(고구마) 심기 계획에 따라 6월에 각 군에 종자를 배부했다. (1911.07.04)

경기도청에서 맥작^{麥作}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년에 비해 약 4할의 증수를 보였다. (1911.07.07)

양평군의 피제거 면적은 4,160정^町 1반^反, 피의 양은 47,180관^貫, 교하군은 1,140정 4반, 6,988관이다. (1911.09.15)

경기도 거주 청국인 농업 경영자 호수는 206호, 인구는 874인이다. (1911.10.01)

1913년도 경기도 맥작은 총 작부 반별 66,180정 4반, 실수액 625,384석, 전년보다 작부반별이 2푼 1리, 수확량이 1할 3푼 4리가 증가, 감소는 영평, 가평, 이천, 여주, 음죽, 죽산, 남양, 양천, 파주, 마전, 증감은 안산, 김포, 이외 24부군은 모두 증가했다. (1912.01.13)

각 군의 1912년 보리농사는 종자를 개량하고 기후가 알맞았고, 기타 거름을 많이 한 결과, 쌀의 발육이 매우 양호하고, 앞으로 재해의 염려가 없어 평년에 비하면 1할 5푼 이상의 수확을 얻을 예정이다. (1912.06.19)

근자에 토지개량 보조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에 의하면 경지에 관개수공급의 공사를 하는 자에게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한다. 희망자는 도장관에게 기술원의 파견을 청하며 설계자의 교부를 받고, 공사의 시행에 관해 도장관이 지휘 감독한다. 보조금은 공사 준공 후에 교부하나 공사의 진척 상 필요한 때는 그 일부를 전도하고, 준공하면 준공계와 공비 정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하부를 청구하면 준공 검사를 하다가 개공함을 명하거나 보조금 감액할 수 있다. 규정 위반, 부정 행위, 이유 없는 공사 중지 등의 경우 보조금을 취소하고 일부 혹은 전부를 반납케 한다. (1912.09.07)

도청 관내에서 각 부군과 금융조합이 1912년 11월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하는데, 일정은 개성, 양주 11월 5일~9일, 연천, 안성 11월~14일, 양주, 수원 15일~19일이다. (1912.10.27)

도청에서 1912년 4월분에 관하 36군 2부의 농사 실습원 각 1명씩을 선발해 수원 농림학교 내에서 농사에 관한 과정을 교수한 바 오는 11월 2일 수료식을 거행한다. (1912.10.31)

부군연합 농산물품평회는 여주와 개성 2개소에서 1912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다. 수원 170점, 진위 160점, 남양 226점, 안산 117점, 용인 250점 출품했다. (1912.11.02)

2일 수원 농림학교에서 농사실습원 종료식을 거행했다. 종료원 수 38명으로 경기 각 군으로부터 1명씩 추천해 지난 4월에 입학했다. (1912.11.02)

1912년 11월 5일 경기도청 내 선화당에서 경성, 수원, 인천 방면의 농회원 86명을 소집해 제1회 추계총회를 열고 농사개량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다. (1912.11.05)

장단 및 관내 일반에 산출되는 특산 대두에 개량 장려에 노력하는데, 1913년 춘기에 개량종 대두 선종^{選種} 면은 480면, 호수 14만 5천여 호, 수량은 1만 백석 이상이다. (1913.06.28)

경기도 관내 1913년 조신력^{早神力} 보급 면적은 1만 1,954정을 웃돌았고, 최고는 수원에 4,950정, 진위에 1,686정이고, 남양에 천 정, 용인에 849정이다. (1913.07.19)

경기도에서 인천, 영평, 광주, 김포, 통진, 수원, 진위, 남양, 개성과 기타 11개소에 퇴비사를 설치하고 그 재료비로 각 5월씩 보조금을 부여했다. (1913.09.21)

경기도의 낙화생^{땅콩}은 1912년도 작부 면적 4정 3반에 수확 51석 6두, 1913년도 수확량은 6정 1반에 79석 2두이다. (1913.09.28)

독농가, 동척이민 등에게 순회 교수 지도의 도급 강습회를 시행한다. 도에서 357원을 보조하고, 강습회 43곳, 전습생 남 87명, 여 89명인데 각 군에서는 도급기를 다수 구입해 장려했다. (1914.01.24)

모범적인 소작농민 1,379인에게 쇠스랑^{備中鋤} 700개, “사벳” 700개의 개량 농구를 농사 독려로 배포했다. (1914.01.28)

채종전 성적, 채종묘 42개 13정 7무 1보, 수확고 421석 8두 9승, 반당 수량 3석 3두 4합 채종전^(옥도) 2개소 6반보 수확고 12석 3두 5승, 반당 2석 5승 8합, 채종전^(대두) 5개소 1정 7반 4정 6보, 수확고 16석 2두 5승, 반당 9두 3승 3합이다. (1914.02.19)

경기도에서는 농가 편리 도모를 위해 연중행사라며 책자 수천 부를 일반농가에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1914.02.19)

예전부터 경기도에서는 우량농작물 종자 정선을 독려해 이장이 마을 내 대두 소유자 10~15인으로 조를 이루고 감독자 1인을 두어 정선^{精選}에 노력한 결과 광주에서 선종한 호수 10,734호에 566석 8승, 마전은 1,550호에 116석 1두에 달한다. (1914.02.19)

경기도에서는 조신력 10석, 석백 8석, 백출 9석 등 합계 36석을 가까운 시일 내 발송할 것이다. 1913년 배포량에 비하면 약 5할이 증가했다. (1914.03.07)

최근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관내의 도급기는 관청에서 배포 수여한 것이 총 3,460대이다. (1914.03.20)

관내 각 군의 대두 소출 총계는 작부 반별 37,370정 5반, 수확고 248,515석, 이를 구별하면 불립^{不粒} 선종의 작부반별 20,266정 6반, 수확고 128,288석, 남알 선종의 작부 반별, 17,110정 9반, 수확고 120,226석, 성적이 양호하다. (1914.04.01)

도청에서 1913년도 지방비로써 과수묘목과 채소 종자 파종 성적을 조사했다. 과수 사과묘, 포도묘 각 군 수산생과 독농가에게 배부 식부 후 가뭄으로 인해 약 2할 내외의 고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 기타는 성적이 양호하다. 채소는 무, 배추, 호박 등을 배부했으나 재배법을 잘못된 결과 실패, 가뭄으로 열충이 생겨 피해가 크다. (1914.04.07)

중요 농산물 대두 수량을 증가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일반 인민에게 농한을 이용해 종자 선택을 장려한 결과 태품이 12,635석 8두, 선종량은 약 21,000정보이다. (1914.04.16)

수원, 개성, 금곡, 연천 각 은사수산장에서 농사강습소생을 모집, 교수하는 중인데 권업계에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농사강의록을 편찬, 발간해 강습생에게 1부씩 주고 장래 실행 상에 참고하게 하였다. (1914.04.30)

도청에서 농사 순회교사 업무에 관해 농사순회 교사 근무 규정에 의해 권업장려 방침을 지도, 계발하고 은사수산장, 공립보통학교, 간사농업학교, 금융조합, 국유지소작인조합 등에게 연락해 원만한 업무를 계획하라 했다. (1914.05.02)

1914 맥작상황은 파종 이래로 적당한 강우와 비교적 높은 온도로 대개 발육이 양호하며 지금 모두 5, 6부 이상 생장했다. 농민의 수확 예상은 평년작 이상이고, 가뭄, 기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년작 이상의 수확을 보일 것이다. (1914.05.02)

도청 보조에 의해 설치한 수원군의 감자^(고구마) 묘포는 4월 중부터 모판을 제작했는

데 호미질 방법이 좋고 생육이 양호해 지금 묘 길이가 4~5치에 달해 오는 20일경부터 제1회로 모를 빼낼 예정이다. 각 군에서 이를 모범해 모판 설치를 경쟁하고 있다. (1914.05.10)

일본인 이주 증가, 경성, 장단, 삭녕 등 각 군에서의 정밀한 지주와 점업자의 조사로 인해 1913년도 12월 말일 현재 경기도 관내 농업자 호수는 233,874호, 인구는 1,156,528인으로 전년에 비해 호수 8,378호, 인구 66,530인이 증가했다. (1914.05.13)

며칠의 강우로 관수가 풍부해 경기 관내는 지금 삼앙이 성행해 본년은 수도 작부반별이 작년에 비해 확대할 것이다. (1914.07.01)

경기 농사장려회에서 지난달 23일 제4회 총회 결의에 기초해 오는 8월에 각 농지 사음을 소집해 농사강습회를 개최한다. (1914.07.03)

가뭄으로 삼앙하지 못하던 지방도 이번 강우에 모두 삼앙하는 중으로 10월까지 경기 관내 전부가 종료될 것인데 평년에 비하면 약 10일 정도 이른다. (1914.07.08)

감독 지도하에 유사한 리와 동을 1구역으로 해 농가의 본업인 미작의 개량으로 시작해 점차 부업에 이르게 할 방침으로, 경기도에서 수원 지동, 부천 간촌리, 안성 진현리, 여주 당우리, 진위 면촌리 외 6리, 개성 연산리, 시흥 소하리를 모범 농촌으로 지정했다. 개량도종의 보급, 전답 중 9할을 점해 그 생산량으로 4천여의 뚝자리와 가마니를 제조해 자가용 외 시장에 판매한 것이 300여 원에 달한다. (1914.07.09)

경기도에서 수년 확대하는 사방공지를 이용해 콩, 잡곡류의 혼농을 장려해 각 농민은 이 경작을 시험하는데 생육이 꽤 양호하다. (1914.07.18)

도청에서 은사 수산비로 4월에 감자 2,400관을 구입해 전도에 감자 종자를 배부했다. (1914.07.21)

작년의 댐 수축을 거의 완성했으므로 올해에는 보의 수축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양주, 부천, 장단,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용인, 수원, 안성, 진위의 약 30개소에 수축을 시행하고, 1개소에 300원의 보조를 줄 예정으로 지금 각 후보 지점에 대해 실행조사 중이다. (1914.07.22)

올해 경기 도작상황 조사에 따르면 수확예상은 작년에 비해 약 15만 석의 증가를 보일 것이다. 각종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온도의 적절함으로 보고 있다. (1914.09.21)

경기도에서는 내년 가을에 개최할 기념 공진회의 준비로 11월 중 각 지역에서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을 공개하였다. (1914.10.06)

도작 예상량은 수도, 육도를 합해 조선 전체 12,156,995석인데, 경기도의 제2회 예상은 140여 만석이다. 9월 중순에 풍수해를 입은 지역이 있어 처음 조사보다 60,177석의 감소가 있다. 작년에 비하면 2할 6리의 증가를 보여 풍작이라 할 수 있다. (1914.11.07)

경기도 농사 경영상황 및 투자액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투자액은 총 136,824원이다. 농사 경영은 논 42,070, 밭 33,256, 임야 1,214이고, 경영 방법은 자작이 484, 소작이 42,070이다. 1년 생산량은 213,800원 58전이다. (1914.11.13)

경기도내 5군에 걸친 장단 대두의 수확은 약 5만 석인데, 현재 약 2만 석을 반출했다. 가격은 폭락하여 4원으로 방매되는데, 생산 당초 가격 8원에 비하면 5할의 저하이다. 경작조합에 대한 한호농공은행 자금대출액 6만원에 대해 약 3만 원을 결제하고 잔액은 날마다 다소씩 결제되는 중이다. (1915.01.17)

경기도에서는 작년 7월 임시는자금으로 각 원산지로부터 소채 종자를 얻어 관내 보통학교 농업학교 금융조합 및 일반 독농가로 하여금 시험 재배하게 했다. 무청蕪菁은 가뭄과 해충으로 밭아 생육상 장애가 있는 곳이 있으나 성적이 대개 양호하여 재래종에 비하면 수익이 많고 품질이 상위에 있다. 다만 지부芝罘 배추는 재배 기술이 미숙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1915.01.22)

사과, 배, 복숭아, 포도의 과수를 5무畝 이상 경영하는 자는 경기도 235명이고, 면적은 410정 6무보畝步이다. (1915.04.16)

경기도에서는 1914년 추수에 미곡 중에 적미 제거를 장려했기에 관내각처에 3천 본 이상을 추발한 결과, 그 양이 8천 544석 4두 7승에 달했다. 이 종자로 각 농가는

1915년에 약 1만 4천보의 채종답採種畝을 설치하고 그 소득은 1916년 용으로 남겨두었다. (1916.01.07)

경기도 은사금 사업으로 감자와 마령서 배포를 실시했다. 감자는 200 뿌리를 배포했는데 5천명이 받아갔고 작부반별作付反別 한 것은 5만 4천 정보, 수확과는 14만여관이 었다. 반당 수확은 153관이다. 마령서는 총수가 3천 뿌리였고, 모종을 배포할 때 받아간 자가 1,800여 명 이었다. 15,000정보에 작물을 심었고, 47,000관의 수확이 있었다. 이 두가지 작물은 조선인의 식량으로 사용하기 알맞으니 금년에도 약 오천원의 예산으로 각 면에 묘상을 확보 뒤 배포하라고 명했다. (1916.02.01)

경기도에서 설립한 농사장려회가 도내 각 군에 지회를 설치하여 다음 3월경에 이사회를 열고 이후 방침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다. 임원은 장관을 고문으로, 백장 이완용을 회장으로, 조중응 자작 송병준 자작이 부회장을 맡았다. (1916.02.01)

경기도 관내에 위치한 농사장려회의 군 지회는 20개소인데 회원수가 4천 8백 16명이다. (1916.02.25)

경기도 관내에 위치한 개량농구 상황을 조사했다. 도급기稻扱器가 8천 884개, 제연기製延器 6천 49개, 인사籾篩 1천 169개, 일본식 당기唐箕 1천 284개, 쇼벨 2천 765개, 덕초德鋤 286개, 송원검松原鎌 4천 904개, 비중초備中鋤 3백 73개, 비후리肥後犁 29개 등이 었다. (1916.04.03)

경기도 은사 제사장恩賜製絲場으로부터 횡빈橫濱 시장에 판매된 생사生絲는 100근에 1,305원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금회 분은 제3회의 이출이고, 전부 9곤櫛이며 매매가는 6,800원이다. 생사는 전부 미국에 수출될 예정이다. (1916.04.09)

경기도에서 전답 면적을 조사했다. 수원 내 전의 면적은 10만 6천 120평, 답의 면적은 10만 1천 263평, 대밭의 면적은 19만 6천 165평 잡종지의 면적은 147평이었고, 이에 대한 세액은 1,877원 11전이였다. 개성의 전 면적은 121만 958평, 답의 면적은 18만 4천 7백 77평, 잡종지의 면적이 1만 8천 246평이고, 세액은 7천 4백 6원 49전이다. 조선인 소유지는 전이 2만 5천 730결 803속, 답이 4만 3천 5결 912속, 대가 2천 9백 49결 160속, 잡종지가 367결 308속이다. 이에 대한 세금은 71만 5천 528원 79

전이다. 일본인 소유의 땅은 전이 1천 9백 65결 225속, 답이 1천 9백 65결 111속, 대가 119결 906속, 잡종지가 69결 516속이었다. 이에 대한 세금은 2만 9천 838원 48전 이었다. 외국인 소유는 전이 15결 922속, 답이 64결 121속, 대가 6결 944속, 잡종지가 1결 669 속이니, 그 세금은 953원 18전이다. (1916.05.05)

경기도 농사장려회 제 6회 총회가 3일 오후 2시 도청내 선화당에서 개최했다. 회장 이완용 백장, 부회장 송병준 자작 이하 지회장 28명 회원 17명이 출석했다. (1916.05.05)

경기도에서 관내 농업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일본인의 호수는 1,754호, 6,660인이다. 조선인은 245,885호, 1,216,344인이다. 중국인은 160호이며 461인이다. 프랑스인은 1호 3인이다. 농사에 종사하는 자 중 전업하는 자와 겸업하는 자, 지주, 소작, 자작 등을 구별하면, 전업 호수는 22만 5천 8백 84호, 겸업 호수는 2만 1천 916호이다. 지주는 7천 912호, 자작 호수는 3만 1천 427호, 소작호수는 11만 5천 361호, 자작 겸 소작호수는 9만 3천 100호이다. (1916.05.26)

경기도 맥작 예상고를 조사했다. 대맥은 53만 2천 910석이고, 소맥은 14만 2천 520석이다. 작년의 실제로 거뒀던 소맥은 12만 847석이고, 대맥은 47만 2천 29석이었다. (1916.06.03)

경기도 관내에서 우량품종의 채종답전^{稗種畝田}은 본년도에서 수도^{水稻} 220개소 66정보, 적미 50개소 약 5정보, 육도^{陸稻} 30개소 약 9정보, 대두 80개소 약 24정보 등이다. (1916.06.20)

경기도에 위치한 본년의 대두, 소맥 등의 농황을 조사했다. 대두는 파종 후에 비가 많이 내려 줄기가 허약하고 가늘어 염려스럽다. 작황이 양호하다고는 하나 앞으로의 기 후에 농사의 성과가 달렸다. 소맥은 작년 겨울 한기가 적어 생육이 양호해 풍작을 예상했는데,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씨앗이 불량하고 침수가 있었다. 대체로 소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는 하나, 실제 수확량의 예상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1916.08.17)

경기도에서 본년 대소맥^{大小麥}의 실수량을 조사했다. 작부반별 8만 3천 174정 4반보, 수확고는 65만 2천 546석이다. (1916.11.08)

경기도 관내 각 군의 개량 농구 보급상황을 보면, 1916년에 犂(쟁기) 217, 鍬(가래) 3,451, 洋● 9,122, 쇠스랑 148, 관개용 수차 10, 도급기 12,667, 인접구 2,037, 당키 2,038, 만석 1,293, 연직기 10,543대이다. 쟁기는 미간지 개간용으로 이주민 부락에서 사용하는 것과 도 당국의 장려에 의해 비후 리肥後犁를 구입 사용하는 자가 증가하는 고로, 가래는 삼덕초, 비중초 등의 사용이 편함을 알고 일반 농민의 수요를 환기한 고로, 도급기는 당국에서 1,196대를 각 군에 배부하여 이 사용을 장려한 결과로 농민이 스스로 구입 사용하는 자가 격증한 고로, 인접기, 당키, 만석 등은 시장에서 현미 거래가 많은 결과 각자 구입한 것이 대부분을 점했고, 연직기는 그 개량 입 및 연의 수요 증가에 따라 각자 구입한 것이다. (1917.03.01)

1916년 12월 말 경기도 관내 농업 종사자수는 일본인 1,729호, 6,943인, 조선인 244,103호, 1,263,094명, 중국인 188호 671명, 기타 외국인 1호 3명이다. 이를 전년 말과 비교하면 호수에서 1,779호 감소인데, 이는 주로 시가지 부근에 거주하는 농업자가 이전 또는 전업轉業한 결과에 기인한다. (1917.06.08)

경기도 논답의 패발상황(피를 뽑는 일)에 대해 공개하면 전체 농가 218,399호 중 201,138호가 실시하였다. (1918.01.31)

경기도에는 7180의 화전이 있다. 숙전되거나 금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땅들도 있다. 그런 땅들에 대한 정리방침을 세우고, 화전을 정리 당한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보상해 주기로 한다. (1918.02.27)

경기도에서 작년까지는 감저 보급을 위해 종자를 배부하였는데, 올해는 감저가 식용보충에 유리하다는 사실로 인해 종자를 공동구입할 일까지 생겼다. (1918.04.13)

경기도 경지면적 현황에 따르면 논 1,958,245반, 밭 1,884,566반이다. 이 안에 자작논은 509,728반이고, 밭은 595,275반, 소작논은 1,489,291반이다. (1918.05.19)

경기도에서 미두검사를 실시하였다. 쌀 검사에서 2,261섬 중 1,806미가 합격했고, 불합격 이유는 건조불충분, 협잡물 등이었다. 콩 검사에서는 23,597섬 중 19,680이 합격했고, 불합격 이유는 포장 불완전, 협잡물 등이었다. (1918.05.21)

경기도 대두의 발아 상황은 강우량이 적당해서 해충피해만 없으면 그 생산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918.07.06)

경기도 도작 상황으로 다소 수해가 있었지만 문제될 만한 정도는 아니고 해충의 발생도 없었다. 하지만 이즈음에 있는 벼멸구의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1918.08.02)

경기도의 대두 작황은 모를 심은 이후 날씨도 괜찮고, 비도 적당히 내리고, 병해의 발생도 적기 때문에 많은 수확이 예상된다. 그 수는 440,678석이다. (1918.09.03)

경기도 속작^{粟作} 상황은 날이 좋고 비도 적당해 줄기와 잎이 잘 자랐다. 폭우로 수해를 입은 곳을 제외하고는 양호하기 때문에 수확의 예상은 172,048석이다. (1918.09.04)

경기도 도작 상황은 홍수로 인해 일부 피해를 보고 9월에는 기온이 낮아졌으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수확 예상량은 1,895,878석이다. (1918.09.28)

경기도의 맥작 상황은 대맥 작부 6,068,727반, 소맥 220,444반, 나맥 13,815반이고 수확량은 대맥 542,963석, 소맥 135,089석, 나맥 8,185석이다. (1918.11.03)

수확 예상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온 저하가 조금 있고 열병의 피해가 있었으나, 날씨가 대체로 순해서 벼의 숙성이 양호하다. 수확 예상량은 1,817,517석이고, 작년과 비교하면 1할 6푼 1리의 증가를 보인다. (1918.11.05)

경기도에서 미두검사를 실시했다. 백미 8,500개 중 합격 미는 903개, 대두 28,207개 중 합격 두는 27,415개였다. (1918.11.28)

경기도의 미두검사 수는 현미 39,880석, 백미 902석, 대두 40,540석이었다. (1918.12.12)

미두검사 결과 현미 39,880개 중 합격 26,028개, 불합격 13,850개였고, 백미는 합격 164개, 대두는 40,545개 중 합격 35,028개, 불합격 5,517개였다. 불합격의 원인으로서는 건조 혹은 포장 불량과 협잡물이 섞인 것 등이 있었다. (1918.12.20)

1918년중 경기도 관내 과수 우량품종 재배 및 수확성적을 보면, 재배품종은 홍옥, 국광, 왜금, 축, 유옥 기타 계 22만 5천 82본^本, 수확은 21만 9천 507관^貫이다. (1919.04.27)

경기도 관내 각 미곡 검조소에서 검사한 미곡수량은 현미 4만 8천 818석이다. 그중에 합격된 것이 3만 9천 739석이다. 백미는 192석이고, 22석이 합격이다. 대두는 13만 9천 261석인데, 12만 6천 945석이 합격이다. (1920.02.16)

작년 경기도 관내의 면화 작의 상황을 조사했다. 육지면이 90반이고 재래면이 2천 427반으로 합계 2천 437이다. 수확고는 육지면 2천 983근이다. 재래면은 87만 6천 132근이다. 반당수량은 육지목 33근, 재래목 25근이다. (1920.02.16)

작년 8월 경기도 관내 대두 양품의 실수를 조사했다. 장단 1만 1천 504정 6반, 단천^{斷天} 605정 6반, 그 실수는 장단 5만 4천 528석, 단천 2천 538석, 합계 5만 6천 966석이다. (1920.03.19)

경기도 관내 연초 경작 현황을 조사했다. 경작 인원은 일본종^{日本種} 357인, 터키종 480인, 재래종 6만 3천 88인이다. 그 반별은 일본종 88정 2반, 터키종 33정 2반, 재래종 1천 819정 6반, 수량은 일본종 2만 979관^貫, 터키종 2천 837관, 재래종 30만 1천 854관이다. (1920.03.31)

경기도 관내에서 수도 파종을 이르면 20일 전후부터, 늦으면 5월 상순까지는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진위, 수원지방은 작년의 가뭄피해에 종자 벼가 없어 곤란한 상태인데, 경기도청의 알선으로 도내 각지에서 양종^{良種} 40석을 공동으로 기부해 각지에 배포했다. (1920.04.18)

금년 10여 년만의 대풍작으로 농민들은 기뻐하고 있다. 수원 지방의 일반 농작물 성적은 매우 뛰어난데, 그중에서 쌀이 가장 풍작이다. 일반 농민은 매우 기뻐하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축제로 종일토록 즐거워하고 있다. (1920.10.02)

경기도 맥작 상황을 조사했다. 대맥은 86만 72반^反, 소맥 27만 1천 570반, 나맥 1만 5천 713반이다. 수확량은 대맥 70만 2천 959석, 소맥 18만 1천 282석, 나맥 9천 381석이다. (1920.11.08)

경기도에서는 기술자 회의에서 산미의 개선에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모대 파종기에서 주로 적미의 粒選 도태를 勵行하기로 했다. 각 검사소로부터 인원을 연합하여 도내 각 군에 기술원을 출장케 한다. (1921.05.11)

경기도 각 군 적미 제각除却 지도독려 결과 수량 33,286석 1승으로 선출한 적미 134석 9두 1승 6홉이다. 가령 1반보에 6승의 벼를 종자로 제공한다고 하면 51,476정보는 적미가 없는 좋은 종자에 의해 작부作付할 차례次第이다. (1921.07.04)

경기도 관내 11월 1일 기준 수도水稻 예상 수확량은 162만 1,269석으로 전년 대비 1할 1푼 1리의 감소이다. (1921.11.04)

경기도 관내 미두검사 성적은 다음과 같다. 현미 검사 총수 4,9274개 중 합격 47,717개, 불합격 1,527개, 중백미 검사총수 39개 중 합격 39개, 대두 검사 총수 33,406개 중 합격 32,633개, 불합격 773개이고 불합격원인으로는 건조불량, 협잡물 등이 있었다. (1922.02.27)

경기도 특용작물 중 목화에 대해 육지목화는 467반으로 수확량은 27,942근이고, 재래목화는 43,720반으로 수확량은 2,433,084근이다. (1922.03.10)

경기도의 맥작 예상량은 작년에 비해 약 2할의 감소로 원인은 가뭄으로 인한 생육불량 때문이다. (1922.05.27)

최근 조사에 따르면 면화 재배를 하는 면적은 증가하여 4,000보 이상에 달했다. 그러나 수확량은 반당 60근이었는데 면적량 증가에 비해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개선에 전력을 기울여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1922.06.26)

수해를 받은 경기도에서는 각지에 시찰원을 파견하여 조사 중인데, 약 1할 내외의 145만 가량의 감수가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1922.08.15)

7월 이래 계속된 폭우로 인해 경기도 관내에 농작 피해는 600만 원에 달했지만, 이후 천기가 다시 회복되고 농작에 적당한 방법을 취하자 올해 또한 풍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양은 1,602,700석으로 작년보다 훨씬 풍작이라고 한다. (1922.09.26)

추분 당일 경기도 수도 예상 수확량은 1,662,000석으로 전년에 비해 1푼 1리의 증가를 보였다. (1922.11.02)

경기도작상황은 침수와 유실 등의 피해가 있어 비관하였으나 그 후 천기가 회복되어 개화기를 무사히 지나 상황이 양호했다. 덕분에 풍작이 되었고 전년 실적에 비해 증가를 보였다. (1922.11.11)

경기도 관내 1개년간 농작물에 대한 금비 수량은 219만 7,315관, 금액은 36만 5,157원이다. 품종은 건어, 임유박, 어부魚脯, 호마유박, 골분, 황마유박, 잠용蠶蛹, 유산암모니아, 과린산석회 등이다. (1923.04.14)

경기도의 이앙 상황을 보면, 강우 부족으로 6월 15일까지 식부植付는 3할 4푼에 불과하다. (1923.06.27)

경기도 관내 본년 도작은 그 발육이 양호하여 평년작 이상 예상하여 약 167만석 가량 예상한다. 작년도에 비해 13만 7천석 증수이다. (1923.09.22)

경기도 도작은 9월 23일 추분일 현재 수확 예상량은 166만 5천여 석으로 전년 대비 8푼 5리의 증수이다. (1923.09.28)

1922년 경기도 관내 미, 맥, 두류, 기타 잡곡의 생산 총량은 308만 3천여 석이다. 인이 1일 4홉씩을 소비한다면 도내 인구 182만 3천여 인의 총 소비량은 약 267만 석이다. 42만 여석의 잉여이다. (1923.10.12)

경기도 관내 이천, 여주, 광주 각 군에서 생산하는 판매용 면화는 조선제면주식회사에서 매수하기로 결정되어 12월 9일 이천군 읍내시장, 10일 광주군 경안시장, 12일 여주군 읍내시장에서 제1회의 매수를 행한다. (1923.12.04)

경기도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각 군의 농사장려회로 하여금 단기 농사강습회를 개최한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0개 군에서 약 7백 명의 강습생을 모집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1911년 이래 강습 종료자는 8,111명이다. (1923.12.29)

1923년도 경기도 대두 실수고는 489,417석으로 전년에 비해 약 2,000석의 증수이나 작부반별 82,000여 정보에 할당하면 반당 6두에 불과해 장래 재배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1924.02.08)

최근 수리조합의 설립 청원 건수가 비상이 격증했고, 수리조합에 대한 '분요'가 곳곳에서 일어나 당국은 앞으로 절대로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라 한다. 1923년 말까지 인가한 경기 수리 조합 수는 9개, 영리면적은 6,582정이다. (1924.03.16)

경기도 산미 개량을 위한 면채 종답 면적은 전년도의 420정보가 본년도에 580정보로 증가했다. (1924.04.08)

경기도에 있는 면작지도 상황은 매년 4월 중 군 재근 기술원, 조합기술원의 독려 하에 공동으로 파종을 행한다. 지도 동 수는 11동, 작부면적 약 420정보, 경작 호수는 762호이다. (1924.05.11)

1924년도 경기 맥작은 연초 이래 따뜻한 기후와 겨울의 강우로 보리 발육이 좋아 작년에 비해 적어도 1할 이상 증수를 예상한다. (1924.05.12)

경기 보리 예상 수확고는 544,978석으로 전년 증감보합 3분 5리 증가이며 밀 수확예상고는 129,238석으로 전년 대비 7분 1리 증가했다. (1924.05.31)

경기 관내 금년 벼 모내기 상황은 매우 이상적으로 6월 15일까지 논 총면적의 약 70%, 14만 정보에 달할 것으로 전년 동기 34%에 비하면 거의 2배를 종료했고, 7월 4,5일까지 군 대부분의 이식을 종료할 것이다. (1924.06.26)

경기도 종묘장 면작과 관내 일반 작황은 4월 25일 파종 후 생육이 양호했다. 11일, 13일의 우박 피해로 인해 폐지된 것도 있으나 일반적 작황은 매우 양호하다. (6월 22일 하지)(1924.06.29)

경기도의 개량 농구 수는 품구 6,017, 동력 전기 도급기 31,821, 수차 212, 연직기 17,842, 쟁기 30, 제승기 2,128이다. (4월 말) 민간에서 실제 농업에만 이용하는 발동기는 32마력으로 9대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관내 4군에 동력 농구 이용조합을 조직

해 소형 동력을 구입, 공동 이용해 현미 제조의 모범지가 되게 할 계획으로 지방비에
서 2,000원을 보조한다. (1924.07.11)

적당한 강우로 순조롭게 6월 10일 69.4%의 경기 관내 모내기가 종료되었다. 비교적
높은 지대도 올해는 모내기를 하여 12, 13일까지 전부 종료될 것이다. (1924.07.12)

경기 본년 생산 누에고치는 춘잠 13,837석, 하잠 729석, 추잠 2,575석 합 17,141석
으로 작년 15,557석에 비해 약 10%, 1,584석의 증수를 보였다. (1924.10.28)

경기 추잠의 장려가 부진해 방침을 개정해 1. 누에떨기를 8월 20일 전후로 한다. 2.
품종은 3월 교잡종 03. 특히 동부 북종을 채용한다. 4. 반드시 개량 잠구를 이용한
다. 등을 장려한 결과 본 추잠 누에떨기 수는 1만석 28매, 누에고치 2579석, 작년에
비해 440석 증가했다. (1924.10.31)

산미 개량을 선전하기 위해 진위군 외 4군 산업단체 연합으로 12월 4일부터 3일간 진
위, 평택에서 표미 품평회를 개최한다. 품평회에서는 산미 조제 개량에 관한 표어를
상금을 걸고 모집하고, 활동 사진, 현미 조제개량 장려 탐, 동력 농구 작업 실태, 연합,
공립 학교 생도 학예품 전람회 등을 설치한다. (1924.11.27)

1924년 경기도 관내 미 생산고 조사 결과 粳(메벼)쌀 137만 9천여 석, 糯(찰벼)쌀 7만
6천여 석, 육미陸米 9천 4백여 석, 합계 146만 5천여 석으로 전년 대비 9푼 5리 감수減
收이다. (1925.02.11)

1924년도 경기도 면작은 5,788정 6반보로 수확량은 322만 9,605근이다. 전년에 비
해 10,829근 감소이다. (1925.02.28)

경기도에서는 산미개량 선전 목적으로 종자벼의 수선水選 단책短冊 묘대의 장려 등 상
황을 크게 선전한다. (1925.04.09)

경기도 면화 지도리指導里는 23개 129개 리인데 경작 예정 반별은 176정 3반 7무보,
경작인은 1,173인, 4월 24일부터 5월 2일에 걸쳐 파종을 완료했다. (1925.05.10)

1925년도 경기도 관내 광주 외 5군의 면작조합 예산 총액은 9362원이다. 광주군 면작조합의 2,033원이 최다하고, 양주 1,862원이 그 다음이고 용인의 1,235원이 최소이다. (1925.06.03)

11월 1일 현재 경기도 내 제2회 쌀 수확 예상량은 155만 2천여 석으로 전년 실수實收에 비해 6푼 7리, 즉 9만 6천여 석의 증수增收이다. (1925.11.06)

각지 추수는 반半을 넘어섰다. 추수 때마다 일어나는 소작쟁의도 경기도에서는 자취를 볼 수 없다. 쟁의가 없는 원인은 '병작'이라는 그중 공평한 타작을 하는 데 있다. 금년은 대홍수가 있었으나 작물이 성숙될 때에 일기가 좋아 면화와 밀을 제한 이외에는 수도水稻, 大豆, 대맥大麥에서 작년보다 증수하게 되었다. 수도水稻는 현미로 계산하여 155만 2천 8백 석을 예상하는데 3회나 거듭되어 틀림이 없을 것이라 한다. (1925.11.25)

조선농회령에 의해 각 군에서는 농회창립에 전력을 다했으며 25일 시흥 농회창립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회원 수는 279,976명이었고 평의원 수는 616명이다. 회원이 제일 많은 곳은 수원으로 28,644명이었다. (1926.03.28)

경기도에서는 1925년부터 특용작물은 가정공업용 또는 약용으로 상당재배 해놓았는데, 그 재배면적은 청마靑麻 434, 곤마菰麻 2천128, 기류杞柳 98, 제충국除蟲菊 6으로 그 수확은 청마 7천 274관貫, 곤마 1천 590석, 기류 8천 35관, 제충국 45관이다. (1926.05.28)

경기도 관내 6월 말 현재 모내기는 총면적의 83.6%였다. 7월 8일 오후부터 강우가 시작되어 늦어도 10일까지에는 19만 9천여 정보 전부 종료할 것이다. (1927.07.14)

경기도 농회에서 산미증식에 따라 비료의 자급책을 강구하기 위해 녹비 재배 지도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원군 일형면 영화리, 진위군 송탄면 신장리, 안성군 삼죽면 덕천리, 이천군 부발면 신원리, 부천군 계양면 굴현리의 5개소 15정 1반 9무에 '헤아리벳치'를 재배케 한다. (1927.07.17)

경기도 농회에서 8월 2일부터 4일간 도 회의실에서 권업모범장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작, 전작, 비료, 병충해 및 통계에 관한 농사강습회를 개최한다. 군, 군농회 기술원, 농장 등의 희망자가 약 70명이다. (1927.07.29)

경기도 농회에서 남부 주요 미산지인 수원, 진위, 안성, 이천, 용인 5군을 1구역으로 하고, 수도水稻 개량 증수 품평회를 계획 중이다. 본년 출품 점수는 288점이다. 각 군 모두 가급적 다수를 자군自郡이 점할 예정으로 지도에 열중하고 있다. 전년도 다수 기록은 이천군의 반당 9석 2두 1승 2홉인데, 본년은 10석 이상을 관측한다. (1927.07.30)

총독부의 토지개량계획에 대한 수리사업은 개간, 개척 등에 비해 예상 이상 진척이다. 1928년 한해旱害를 당한 이래 수리 사업열이 현저히 고조되었다. 1929년도부터 1931년도까지 인가될 가망이 충분한 것으로 기공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전 조선에 116 조합인데, 경기도는 그중 8조합이다. (1929.01.24)

1928년도 미곡 실수實收는 151만 7천여 정보, 수확량 천 3백 50만여 석이다. 전년 수확량 1천 7백 20여만 석에 비하면 378만여 석 감수減收이다. 경기도 수확량은 116만여 석이다. (1929.02.06)

근래 보기 드문 가뭄으로 큰 감수減收를 예상했던 경기도 잡곡, 두류豆類, 특용 작물의 농작 수확은 예상보다는 성적이 좋다. (1929.02.21)

조선내 논 매매가격은 토지개량사업 발흥에 따라 양등昂騰한 것도 있고, 저락低落한 것도 있다. 조선식산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대체로 1단보에 평균 상등지 210원, 중등지 140원, 하등지 70원이고, 경기도는 상등지 178원, 중등지 90원, 하등지 81원이다. (1929.03.23)

경기도농회에서 채용하는 녹비는 ‘헤아리벧취’와 자운영인데, ‘헤아리벧취’는 채용한 역사가 오래지만 아직 그 실효를 얻지 못했으나 국부적으로는 다소 실효를 얻은 곳도 있어 장래에는 다대한 촉망이 있을 것이므로 남부 10군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다수확 품평회를 개최할 것이다. 품평회를 통해 녹비에 대한 일반 농민의 주의를 환기함이 다대할 것이다. (1929.05.06)

경기도내 전작田作 수확물에 대해 경기도 농무과 조사에 따르면, 예상 수확량은 大豆)

45만여 석, 속粟 15만여 석으로서 작년도 수확량에 비해 대두는 1할 7푼 5리의 증수增收, 속은 9리의 감수減收이다. 군별로 파주, 개성의 속粟과 안성, 파주의 대두가 불량한 이외에 대체로 평년작 이상이다. (1929.09.11)

조선농회에서는 4월에 현대에 적당한 농업 표어를 현상 모집했다. 9월 30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1등 “내 땀은 내 양식, 거름더미 찢더미”(여주 김만홍), 2등 “평화의 빛은 농촌으로부터”(이천 소천팔구십)(1929.10.02)

금년도 수·륙도의 제2회 추수 예상(11월 1일 조사)은 166만 5천여 석으로 제1회 예상(9월 23일 조사)보다 6푼 5리(11만 6천여 석) 감소이며, 작년 실 수확 116만여 석에 비하면 약 4할 1푼(48만 2천여 석)의 증수이다. 최근 5개년 평균 실수 155만 2천여 석에 비하면 약 7푼 3리 증수이다. 금년은 대체로 평년 이상이다. 발육 경과로 보면 대체로 늦벼가 시원치 못할 뿐이며, 한재, 충재蟲災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도내 주요 산지인 수원, 진위, 용인, 안성 4군의 수도는 평년작 이하이나 육도만은 평년작 이상이다. (1929.11.13)

1930년도 신규 농사개량자금은 전년보다 약 150만 원 증가로 12월 17일 도별 분배금이 결정되었다. 경기도는 동척 14만 7천 원, 식은 44만 원, 합 58만 7천원이다. 조선 전체는 750만 9천 원이다. (1929.12.20)

3. 상인과 상업, 시장, 물가, 도량형, 무역

경기도청에서 인민의 청원에 따라 시장 개설 일자를 다음과 같이 인허했다. 풍덕군 북면 대릉리 한교시장(4. 9일), 풍덕군 동면 영정포시장(5. 10일), 광주군 성내시장(4. 9일). (1911.02.16)

농상공부 축탁深田千太郎이 도량형 실시에 관해 경기도 관하 각 군 순회 강화회를 실시한다. (1911.02.18)

농상공부 축탁澤田千太郎이 도량형 실시에 관해 2월 21일부터 경기도 관하 각 군 순회 강화회를 실시한다. (1911.02.21)

경기도청에서 도량형 신 기器 보급에 관해 부윤 군수에게 심득서心得書를 발송했다.
(1911.09.21)

우육 수요의 증가, 일반 물가의 등귀에 반한 경향, 작년의 풍작과 각지 철도, 수도 도로 등의 여러 공사로 의한 농가의 경제적 여유, 매각희망자는 감소하고 반대로 구매 희망자는 증가하는 일 등으로 인해 우가가 올랐다. (1912.05.19)

경기도 관내 77개 시장의 7, 8월 시장 상황을 보면, 8월은 삭녕군에서 1개소가 휴시休市했음에도 7월에 비하면 화물 집산이 증가하여 방매放賣 가액이 1,676원 88전이다.
(1913.10.02)

구력 세말의 시내 상황, 미곡과 성냥의 가액이 박에 비해 10의 2할이 내려감, 금융의 유통은 상당히 균등한 상태, 시장 물화 중 북어, 김이 가장 물가가 뛰었고 역서는 정가 이상이라도 구하기가 어렵다. (1914.01.24)

경기도 관내 시장 조사를 실시했다. 시장의 총수는 남대문 시장이 110개소, 우시장 1개, 연간 매매고는 농업 33만 2천 446원, 직물 22만 2천 29원, 수산물 136만 9천 563원, 축류 136만 8천 563원이었다. 이상의 합계는 745만 8천 948원이었다.
(1916.04.05)

경기도 관내 각종 도량형기 교부 및 판매 상황은, 1917년 1월 이후 6월까지 누계 교부 21,167,175원, 개수 85,651인데, 그중 판매량은 금액 20,014,090원, 개수 74,384이다. 6월 중 실적 내역은 도기 교부 2,341개, 금액 373,100원, 판매량 2,821개, 금액 444,525원, 양기 교부 1,323개, 516,350원, 판매 3,495개, 1,104,300원, 형기 교부 309개, 1,308,100원, 판매 341개, 1,167,760원이다. (금액 단위에 오류가 있는 듯함)
(1917.08.31)

1920년 11월 경기도 내 각 검사소 성적은, 현미 검사총수 39,074가마에서 1등 합격 1,186가마, 2등 4,042가마, 3등 28,593가마, 특등 42가마, 계33,863가마, 불합격 5,211가마, 불합격 비율은 1할 3푼. 불합격 원인은 품질 및 건조 2,021가마, ●미 13가마, 적미赤米 261가마, 협잡물挾雜物 1,181가마, 포장 1,367가마, 용량 168가마이다. 중미 총수 4,179가마에서 3등 합격 461가마, 불합격 3,718가마, 비율 8할 2푼, 불합

격 원인은 포장 1,019가마, 용량 2,699가마이다. 대두 검사 총수는 78,212가마에서 1등 합격 166가마, 2등 1,148가마, 3등 75,499가마, 계76,181가마, 불합격 1,399가마, 불합격 비율 1할 8푼, 불합격 원인은 품질 1,214가마, 협잡물 79가마, 포장 106가마이다. (1921.01.11)

경기도 경찰부에서 간상배의 폭리를 경계하기 위해 각 방면으로 물건값을 조사했다. 보안과장^{今野}은 “물가의 조사는 완료되었고, 속히 실행할 텐데 경찰부에서 책임을 맡아서 행할 것은 이발료, 숙박료, 하숙료, 인력거삿전, 자동차삿, 음식점 기타 당국에 허가를 받는 종류의 것이요. 기타 식료품으로부터 포목●리라든지 잡화류 같은 것은 상업회의소에서 각 조합과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물가를 상당히 결정하여 폭리를 탐하지 않게 함이 제일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1921.04.07)

경기도 보안과에서 물가조절책에 대해 제일 먼저 빈민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는 이발료와 목욕집으로부터 삿전을 내리기로 권고하여 목욕집은 이미 7전으로 내렸고, 이발값도 일간 확정될 터인데, 금야^{今野} 보안과장은 이번 것이 낙착이 되면 제일은 월세 집 놓고 받는 여인숙, 하숙옥, 우유집 등으로 손을 댈 터라고 한다. (1921.06.17)

경기도의 곡물검사성적을 공개했는데 현미검사 수는 49,274, 중백미 검사 수는 33,406이었고 각각 특등부터 3등까지 분류했다. (1922.02.16)

경기도의 무역 상황을 보면 수출은 110,000원이고 수입은 1,200,000여 원의 증가를 보였다. (1922.05.20)

고무신의 수용 예상 수량 및 판매가격을 조사했다. 총 286,295족이고 가격은 308,294원으로 일본에서 경성으로 수입되고 그것이 각지로 공급되는 구조다. (1922.08.25)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부정 계량을 바로잡기 위해 각 파출소에 공중계량기를 비치하게 할 예정이다. (1922.10.05)

경찰부에서는 물가조절에 대해 의논을 했다. 그 결과 목욕탕, 인력거, 이발소, 일본의 국수, 우유 등에 대해 가격을 내리도록 권고할 것이라 했다. 자발적 감하를 기대

할 것이고 그럼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다고 발표했다.
(1922.11.05)

경기도 상업과에서 행하는 상공 업기본조사는 크게 진보했으며 진위군 이하 6개 군의 상·공·농의 상황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마쳤고, 다른 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며 곧 발표할 것이다. (1922.11.13)

경기도 관내(경성, 인천 제외) 20시장의 1922년 중 거래액은 584만 9천 원으로 1921년에 비해 약 13만 원이 증가했다. (1923.02.05)

7월중 경기도 관내 어시장 매매액은 수량 11만 8천여 관, 금액 13만 8천여 원이다. 중요한 것은 鰯(노어), 鰵, 鱈(농어), 민어, 鰺(준치) 등이다. (1923.08.19)

4월 중 경기의 곡물검사 성적은 현미 29,636입 중 불합격 2,263입, 백미 168,516입 중 불합격 20입, 대두 200,090입 중 불합격 73입이다. 작년 동기에 비교하면 현미 12,591입, 백미 59,145입 증가했고 콩은 별반 증감이 없다. 주요 도착지는 오사카에 현미 21,253입, 백미 160,383입, 대두 17,034입, 합 198,670입, 동경에 현미 6,108입, 백미 2,338입, 합계 8,446입, 시모노세키에 대두 1,176입, 모지에 대두 1,383입, 시미즈에 백미 772입, 오타루에 백미 74입, 요코하마에 백미 150입을 이출했다. 수출은 즈푸에 20입, 대련 2,442입, '대진' 114입, 청도 1,585입이다. 일본 시장 수요는 계속 증가해 판로가 확장됨에 따라 수이출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1924.05.16)

1923년도 경기 곡물검사 총수는 현미 331,492입, 백미 1,693,417입, 대두 333,189입, 합 2,258,098입이다. 전년도의 현미 224,811입과 백미 914,837입, 대두 341,499입, 합 1,481,140입에 비교하면 대두 8,310입이 감소했으나 현미가 106,681입, 백미 778,580입, 합 885,261입, 즉 7할 8보 증가했고 검사 총수 876,953입, 즉 5할 7보 증가했다. (1924.05.26)

5월 중 경기 곡물검사는 현미 15,886, 백미 152,437, 대두 11,783, 합 180,106입으로 작년 11월 신 곡출 연기로부터의 누계 현미 294,584, 백미 1,261,393, 대두 258,019, 합 1,813,996입이다. 검사합격품의 이출지는 오사카 현미 11,383, 백미 138,036, 대두 9,172, 동경 현미 3,975, 백미 3,805, 백미 나고야 164, 시미즈 1,200,

고베 2,365, 고치 550, 대두 시모노세키 1,875, 모지 634, 다렌 2,844, 청도 1,982이다. (1924.06.15)

주요지 6월 중순 곡물 평균 시가는 현미 3등 30원 84전, 백미 1등 36원 76전, 콩 3등 17원 10전이다. (1924.06.25)

7월 경기 관내 우시장 58개소에 5,583마리가 나와 매매는 3,063마리로 매매 가액이 158,846원이다. 전년 동기에 비교하면 시장에 나온 수는 1,613마리 감소, 매매 322마리, 매매가액 30,873원 증가했다. 7월 1일 이후 각 군이 일제히 우적 정리를 실시해 매매 제출이 필수가 된 결과로 밀매매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소 1마리 평균 매액은 최고 수컷 140원, 암컷 77원, 성우 수컷 69원, 암컷 51원이다. (1924.08.25)

26일 경기도 곡물검사 표준사정회를 열었다. 조정위원장 이하 관민 30명이 참석했다. 관청 측 16명은 곡물조정 관계자, 곡물조정소 직원이고, 관민 측 14명은 곡물검사조사지의 유력자다. (1924.11.27)

종래 경기 관내 계량형 단속에 의하면 곡류, 설탕, 채소, 육류와 기타 일용품의 두량, 저울 눈을 틀리게 계량하는 부정 상품이 매년 평균 1,000건 이상에 달한다. 이번에 경성, 개성, 인천, 수원외의 중요한 파출소 38개소에 되, 저울을 비치하고 일반 공중에 게 자유로이 사용하게 했다. (1924.11.27)

경기도 조사 결과 현미 1석당 1924년 32원 20전이 35원 20전으로, 대두 18원 50전이 23원으로 등귀했다. (1925.01.26)

경기도에서 관내 물가 조사에 착수하여 일용잡화와 일용식료품에 대한 현상 물가 조사는 마쳤다. 6월 2일 제일 문제중인 이발소조합장, 목욕집조합장을 불러다가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장(금야)이 약 한 시간 동안 영업상태와 기타에 대해 물었다. 일본인 측 이발소조합장과 목욕집조합장, 조선인 측 이발소조합장 등이 출두했다. 영업자 측 주장으로는 아무리 하더라도 더 내릴 수는 없다고 했다. (1925.06.03)

최근 조사에 의한 경기도 관내 시장 총수는 108개소이다. 매매총액은 69,880,916원이고 13년도 수입에 비하면 2,900,000원의 증가를 보인다. (1926.05.11)

경기도 관내 도량형기 검사는 6월 6일부터 집행한다. 만일 검사를 회피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엄중 처벌한다. (1927.06.05)

한발과 수해로 최근 쌀은 각 지역 모두 하락해 유이출은 활기를 보여 재고 쌀이 현저히 감퇴했다. (1927.07.30)

경기 관내 군부 6월 시장 취인액은 농산물 48,000여 원, 수산물 12,500여 원, 직물 27,000여 원, 축류 96,700여 원, 잡화 38,000여 원 합 202,700여 원이다. (1927.08.01)

앞으로 13~4일 지나면 시흥, 광주 방면의 소산지에서 배추와 무가 운반되어 올 것인데, 금년은 풍년이므로 작년보다 약 1할 가량 쌀 것이다. (1927.10.25)

4. 광공업, 공산품, 회사

본년 상반기 회사 설립 상황 허가 신청수 19건, 이외에 전기에 전의 미료해 본기로 이월 8건, 그중 허가 12건, 기타는 불허가 1건, 신청 각하 3건, 전의미필 10건, 진달미필 1건이다. (1912.11.19)

산업적 공장이 증가해 최근 경기도 공장 수는 240개소로 연간 생산액은 1,459만 1,767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공장 150개소, 생산액 약 111만 6천 원이 증가했다. 직공 18인 이상이던 것이 개정되어 50인 이상이다. (1914.06.23)

고양군 신북면 본동리에 거주하는 조선업을 생업으로 하는 60여 호 주민들에게 일본 식 신형 배 만드는 법을 강습할 예정이다. (1916.02.15)

경기도 관내에 위치한 최근 회사 및 공장 수는 350개 이상이고 그 종류는 연초회사, 공장류 미소, 과자, 제분소, 도기, 제조소 등이다. (1916.05.23)

경기도의 광업 현황은 총 34,587,347평에서 100평 평균 842원 91전의 수익이 있으며 종사자는 일본인 73명 조선인 1,197명이다. (1918.02.08)

경기도에서 일반공업은 오로지 개인의 경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당 국은 장래공업원료의 증가장려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1918.03.12)

경기도 관내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회사 설립 허가된 것이 10사, 공칭자본금 483만원이다. (1919.02.26)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관내의 회사 수를 조사했다. 본점이 도내에 있는 것이 87개 사이고, 공칭자본금이 4천 675만 5천원이다. 불입자본금이 1천 65만 7천 106원이다. 조선을 주요한 업무지로 정하고 조선 외에 본점이 있는 회사는 30사다. (1920.01.31)

1920년도 경기도 내 부군의 조선 주조량은, 탁주 면허 인원 6,498인, 제조 장수 6,496개. 예상 석수石數 10만 5,116석 7두 5승 8홉. 약주면허인 631인, 제조장수 631, 예상 석수 1만 4,419석 3두 3승 8홉. 증류주 면허인원 및 제조장수 488, 예상 석수 4,928석 8두 9승 9홉이다. (1921.01.17)

경기도에서 공무원 20명을 소집해 주류의 검사 방법 등에 대한 강습을 10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1922.01.12)

경기양조조합에서는 사업의 개선발달을 위해 강습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는 약 20명이고 강습회가 끝난 후 각자 제품을 만들어 비교하는 품평회도 가질 계획이다. (1922.03.05)

최근 경기도 공업의 상황을 보면 직공은 184명에서 233명으로 49명의 증가를 보였고, 공장은 25곳으로 2의 증가를 보였다. (1922.05.04)

경기도의 최근 공장 상황을 살펴보면 총 공장 수는 947개이고 그 자본은 27,944,000여 원이다. 1개년 생산가격은 61,194,000여 원이다. (1922.09.02)

경기도 지방 특산 공산물은 거의 동업 또는 임의조합을 설치하고 제품의 개량 및 판로의 확장 또는 생산품의 검사를 행하는데, 생산액은 년 9천 4백만 원으로, 약 7할은 공장 공산품, 3할은 부업 공산품이다. (1923.04.15)

작년 경기도 관내 동식물성 유지 생산 상황은 돼지기를 생산액 13,269관, 가액 9,346원, 소기를 120,675관, 87,091원, 들기를 2,024관, 152,634원, 참기를 2,334관, 234,634원, '곤마유' 420관, 37,368원, 콩기를 50관, 3,000원, 동백유 60관, 120원, 제조공장은 12개, 자본금 49,400원, 종사 직공 43인,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 6대 12마력이다. (1924.04.08)

경기도 양주 품평회가 오는 30일부터 3일간 공회당에서 개최하고 11월 1일부터 포상 수여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진열품은 된장, 자유, 청주, 소주, 재제주, 약주, 조선 탁주, 초능 일천여 점이다. 종래는 병에 넣어 동업자들만 보게 하였으나,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경기도 재목과 주최로 이 회를 열게 되었다. 이번에는 특히 양조업자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제조의 내용도 전람케 하여 각 가정의 무인까지 양조의 방법과 지식을 연구하게 하고 동시에 요리 용구까지 전람하게 하여 일반가점을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더라. (1926.10.29)

1926년도 1년간 경기도 공산액은 전년보다 668만 원 증가한 7,969만 원이다. 그중 격증한 것은 완초 자리甕, 일본 장유 미소, 맥분 등이다. 신규 산품은 인조 얼음, 죽렘, 화장수, 직뉴織紐, 대리석 세공 등이다. (1927.07.05)

8월 6일 도내 소주 제조업자 27명과 관계 관청 당무자들이 모여 소주제조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조합장은 도 재무과장이고, 이사 2명 중 1명은 도 세무과장이며, 감사 7명 중 1명은 경성부 세무과장이다. (1927.08.09)

경기도 내 각종 회사의 수효는 263개소이다. 1년 동안의 순이익금은 919만원이다. 그중 적립금은 137만 원, 자본금 51만 원, 나머지 146만 원은 일반 주주에게 배당한다. 세금으로는 17만 원, 불입자본금 1천 원에 대해 1년 동안 겨우 3월 60전으로 아직도 매우 저렴한 편이다. 공칭 자본금 천원에 대해 1년 동안 소득이 27원이고, 불입 자본금 1천에 대한 소득이 47원으로, 전체를 통해서 보면 불입자본 천원에 대해 1년에 6푼 내외로 일본내 회사에 비해 나쁘지 않다. 그 외 외국인 경영 법인소득은 1년에 282

만원, 회사가 해산되어 청산 소득이 1만 4천여 원이다. 불경기인 요즘에 비교적 양호하다. (1927.08.18)

경기도 세무과에서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내 철도연선에 있는 80여 곳에 조선주 제조장의 품평회를 개최한다. 조선주는 날로 그 산액이 늘어나고 있고, 대규모 공장도 설치되었다, 그 설비의 개선을 촉진하고, 주류의 품질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구조와 설비가 우량한 것은 도청에서 표창할 계획이다. (1927.09.29)

경기도 제1회 시판 양조품 심사회 및 조선주조장 심사회의 심사가 종료되어 10월 29일 경성구락부에서 조선주조장의 표창식을 거행했다. (1927.10.30)

5. 축산업

도청에서 관내 축우 개량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본녕는 수소 10, 암소 50를 매입했다. 현재 소로 사육치 아니한 각 독농가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고, 한편 우량한 축우를 소지한 자에게 1개년 14원의 보조를 주어 매각을 방지해 직접 간접으로 서로 기다려 소의 개량보급을 도모하기로 했다. (1912.09.04)

도수 규칙 시행 세칙에 의해 도장 설립지는 1등 개성, 수원 2등 양근, 안성, 이천, 평택, 오산, 여주이다. (1912.09.11)

도수장 설치 구역과 개수이다. 통진 2, 광주 13, 포천 15, 양천 1, 과천 6, 여주 15, 양천 1, 과천 6, 여주 7, 김포 1, 시흥 5, 이천 8, 개성 5, 안산 2, 양평 11, 장단 5, 남양 1, 영천 2, 파주 5, 죽산 5, 마전 2, 교하 2, 양성 1, 삭녕 2, 수원 12, 양주 31, 적성 3, 용인 7, 고양 9, 가평 8, 교동 1, 양지 3, 영평 8 (1912.09.22)

소의 수는 양주 6,032두, 수원 4,886두, 돼지는 삭녕 4,991두, 양주 16,980두이다. (1912.09.22)

도청에서 지난 9월분 관내 가금 상황을 조사해 총독부로 수보함, 소 77,170두, 돼지 38,350두, 닭 212,878두, 말 1,491필, 검은말 382필, 산양 85두이다. (1912.10.12)

경기도 관내 양계사업이 발흥하여 종란^{種卵}의 배부를 신청하는 자가 속출하여 수급 부족사태가 생겼다. (1913.05.06)

경기도청에서 개성축산조합에 1,200원, 파주·광주축산조합에 840원씩 보조했다. 소 규모의 시흥·영평 2조합은 금년에는 보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목하 출원 중인 포천 축산조합은 전의^{詮議} 중이다. (1913.05.24)

경기도는 강원도에서 조선 우^牛 최우량종 12두를 구입했는데, 그중 4두는 개성축산조합에, 4두는 파주축산조합에, 2두는 광주축산조합에, 기타 농사에 열심히 한 자 교하군 1두, 양지군 1두를 각각 무상 대부했다. (1913.08.23)

동척회사가 경기 관내 1부 3군 19면의 소작인에게 대부한 소는 총 343두, 소의 질병 구제를 위해 보호조합을 조직했다. 1913년 2~11월 모우의 질병에 12두 중 2두만 폐사, 10두는 치료했다. 4두의 질병우를 전부 폐사한 이전에 비하면 성적이 매우 좋음, 조합비, 치료비 등 총당거출금은 382원 30전이다. (1914.01.22)

1914년도 4월 10일 지금의 경기 관내 가축 수 조사표; 수컷 소 40,960두, 암컷 소 56,840두, 말 1,955두, 당나귀 321두, 돼지 57,220두, 산양 262두, 날짐승 288,253억, 전년에 비하면 소 17,670, 말 107, 당나귀 100, 돼지 4,923, 산양 98, 닭 17,424가 증가했다. (1914.04.15)

목초 장려를 위해 본년 축산조합과 수산장에 파종할 “루사”와 적백 클로버 등의 목초종을 무상배부한다. (1914.04.25)

3월 중 이천, 시흥, 개성 등의 도살 수는 소 931두, 암소 307두, 수소 624두, 돼지 1,118두, 암컷 568두, 수컷 550두, 개 28두, 암개 74두, 수개 4두이다. (1914.05.05)

축산조합의 주도로 각 지역에서 축산품평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914.10.10)

경기도에서는 축산의 개량이 중대한 문제임을 알고 3개년 계획을 세웠다. 현재 경기도의 소는 97,800마리이고 1년에 태어나는 소를 24,000이라 가정하면 내년에는 121,800두에 달한다. 이에 1년에 도살하는 수를 15,000이라 하면 수출입할 소는 8,800마리이다. 현재 소의 가격은 암컷 30원, 수컷 50원이다. (1914.12.25)

경기도에서 각 부윤 군수에게 통첩했다. 축우 증식을 위해 3세 미만의 송아지와 애벤 소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1915.01.21)

경기도에는 23년 전부터 축산조합을 조직케 하여 고양, 강화를 제외한 전 군에 18개 소가 있다. 기술원도 18인이 주재하고 있다. 축우 수는 약 12만 1천 두이다. 도 기수가 순회일을 정해 소의 질병을 치료한다. 축산농가는 목초 또는 야초의 예취 또는 동기 건초를 80~100관 저장한다. 도는 본년(1915)부터 각 조합을 독려하여 1조합마다 목초의 묘포장 약 7~8무보씩을 설치하고 조합비로 도로부터 다소의 보조금을 주고 목초의 번식을 행케 할 계획이다. (1915.05.20)

최근 조사 결과 경기도 축우 수는 106,005두이다. 소유우는 62,006두, 관리우는 43,999두이다. 병합 당시 농가 100호에 30두가 현재는 45두로 증가했다. (1915.11.06)

경기도 경무부에서 20일부터 10일간 각 분견소에서 경찰 주재소장을 소집하고 도수屠獸에 관한 강습회를 개최한다. (1916.02.09)

경기도 경무부에서 관내 각 헌병 분견소에서 도수屠獸에 관한 강습회를 개최한다. (1916.02.15)

1916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 관내 19군(2부, 고양군 제외) 60개의 시장에서 소 매매 39,187두, 12만 4,642원, 송아지 매매 24,887두, 27만 1,153원이다. (금액은 서로 바뀐 듯하다)(1917.03.13)

1916년 말 경기도 관내 구우계 총수 150개, 계원 12,634명, 계 조직 이래 구우수 4,791두이다. (1917.07.07)

경기도 축산계에서 5년 계획으로 돈종豚種 개량을 기도하는 중인데, 1917년 4월 1일

관내 재래종이 6만 4천여 두, 개량종(버크셔종)이 7,394두 등이다. (1917.07.28)

경기도 양돈계획을 보면, 공동 구돈계의 조직, 종돈의 배부, 종모돈의 충실 및 제한, 사료의 충실 및 개량장려 모범리의 조성, 품평회의 개최이다. (1917.11.11)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버크셔종을 양돈 장려돈종으로 하였는데, 민간에 있는 요크셔종을 조사했는데 버크셔랑 성적이 같았다. 따라서 요크셔 또한 장려돈종으로 선정하는 관련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1918.01.24)

경기도 내의 건초저장현황을 조사하였는데 92,206호에서 9,448,157만큼 저장하였고, 1호 평균 103을 저장하고 있었다. 작년에 비해 3,799호 1,077,918만큼 증가하였다. (1918.02.06)

최근 조사한 경기도 가축 수의 현황은 소 107,218, 말 1,391, 노새 70, 당나귀 394, 돼지 68,333, 산양 230, 면양 98, 닭 392,493이다. (1918.03.19)

경기도 양돈에 관해 당국은 버크셔종을 이입해 개량증식을 장려하였으나 예정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돼지의 수는 60,373마리인데, 그중 개량종은 7,383마리에 불과하므로 다시 5년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1918.05.04)

경기도에는 원래 개를 기르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공포되었다. (1918.05.12)

경기도의 축산업에 대해 그 판매액은 1,078,934원이고 주요한 축산물은 소가죽, 소기름, 돼지털, 돼지기름, 벌꿀, 꿀벌, 아교 등이 있다. (1918.05.25)

경기도 축우 상황을 보면 출산 22,991마리, 사망 802마리, 타살 3마리, 도살 50815마리이다. (1918.06.19)

세포에 있는 목장에서 몽고양을 양육하였는데, 그 성적이 좋아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각각 배부하기로 하였다. 이는 몽고양의 보급을 위한 계획이다. (1918.07.05)

경기도는 지방비로 씨닭을 축산조합에 배부하고, 조합은 그것을 용인, 포천 양군에 40쌍씩 240마리를 배부하였다. (1918.07.18)

경기도는 개량돈종을 5년 계획으로 배부 중인데, 올해 배부 수는 138마리이다. 일반 농가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23년 전에 비하면 재래종은 겨우 15~16원의 수익이지만 개량종은 8~90원의 수익을 낸다. (1918.08.07)

경기도에서는 양계 보급 5개년 계획에 대해 씨닭을 배부 중이었는데, 올해는 2,000마리를 배부했다. 성적이 양호하고 3년째 실행되었기에 각 지방의 대부분 계란 생산은 계량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판매가 계획 중이다. (1918.08.07)

경기도 관내 개량돈 사양 증가 계획은 1,917~8년간 증가수 19,284두, 1919년 31,009두, 1920년 49,754두, 1921년 79,747두이며 도당국에서는 이 5개년도에 개량돈 276두를 배부하여 개량돈 증가를 장려할 방침이다. (1919.08.15)

경기도에서 축우畜牛의 통계를 조사했는데, 생산된 모우牝牛가 1만 758마리이고, 폐사한 모우가 1천 198두이며, 박살撲殺한 모우가 1만 6천 201마리다. (1920.03.19)

경기도 관내 각 군의 축산기술원을 소집해 4일간 타합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1922.01.26)

경기도에서는 4일간 각 군의 축산기술원을 소집해 축산기술사무에 관한 협의회를 연다고 했다. (1922.02.28)

경기도에서는 축산기술원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하였던 일이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개최한다고 하였다. (1922.08.03)

경기도의 가축시장 매매 상황은 다음과 같다. 시장 수 51, 출장두 수 5,707이며 전년도보다 3,945 감소, 매매두 수 2,166이며 전년도보다 1,234 감소, 매매 액수 141,747원이며 전년도보다 17,606원 감소했다. (1922.09.09)

경기도 내 현재 가축시장은 56개소로 12월 중 개시한 시장은 48개소이며 총 개시일

수는 270일이다. 매매 거래수는 성우^{成牛} 3,172두, 가격 15만 7천여 원이며, 송아지 1,979두, 4만 3천여 원이다. (1923.12.25)

축산개량 증식에 관해 군 기술원 협의회를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첫째 날 지사 훈시, 관내 사정의 청취, 도내 각 양돈 계조합장을 집합해 협의가 있었다. (1924.02.07)

경기도에서는 축산장려사업의 일단으로 각 군 축산조합의 연계를 보호하고 지방 생산물을 중앙에 모아 중개 기관이 되게 하여 종래 지방에 순회하는 간상배를 배제하기 위해 각 군 축산 동업 조합으로 경기도축산연합회를 조직했다. 회장은 내무부장으로 부회장은 농무과장을 추대한다. (1924.03.04)

작년 12월 말 경기도 관내의 우유착수장은 총 19개소로 사육우는 외국종 수컷 22마리, 암컷 314마리, 조선종 수컷 5마리, 암컷이 42마리, 합계 383마리이고, 착수 우유수량은 2,517석 8두에 달했다. (1924.03.30)

1923년 중 경기도의 종축계급의 공급 상황은 총 가액이 74,000여 원에 달한다. 판매수는 돼지 1,768마리, 가액 18,572원, 닭 14,787마리, 가액 32,731원, 종란 28,863개, 가액 2,605원에 달한다. 판매선을 구분하면 돼지는 관내 1,079마리, 관외 327마리, 닭은 관내 5,523마리, 관외 5,947마리, 종란은 관내 18,885개, 도외 3,708개이다. (1924.04.06)

경기도에서는 매년 다수의 경비를 각 군 축산 동업조합에 보조해 종우 체질개선을 노력하는데 올해 597마리에 75마리를 증치하고 노령 소, 체질 불량 등 150마리를 갱신할 계획으로 필요 경비 20,550원을 계산했다. 1~20일 관내 12군의 종모우 597마리를 도청 기술관이 출장해 정밀 검사를 행했다. (1924.05.01)

경기 관내 20군의 축산동업조합의 1923년도 총예산은 122,688원으로 종모우 증치로 인한 지방비 보조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24,433원 증가했다. 주요 세입은 판매 중개 수수료 98,368원, 조합비 39,000원, 지방비 보조 24,450원 등, 세출 중 사무비 31,867원, 사업비 154,048원으로 주요 사업비는 종축비 56,096원, 매매 중개비 34,628원, 급료 11,395원, 이외 1,000~6,000원의 위생비, 품평회비, 강습회비, 사료

개량비, 표창비, 축산물판매 알선비 등이다. (1924.06.14)

경기도 축우취인상황을 보면 우시장은 55개소이며 시장 개시 연일수는 208일이다. 축우취인의 출장두 수는 11,077두이며 내매매두 수는 5,551두, 가격은 323,365원으로 1두 평균 67원이다. 작년에 비하면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26.04.07)

경기도 각지에서 축산품평회가 열리는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수원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신농리에서 개최한다. 가평은 25일부터 26일까지 읍내리에서 개최한다. 안성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안성공립보통학교내에서 개최한다. 진위는 오는 11월 중에 서정리에서 개최한다. (1926.10.18)

경기도에서는 축우증식계획을 수립하고 1928년 4월부터 20군에 축우 공제^{共濟}를 실시했다. 현재는 재원 관계로 손해액의 1/4 내외 정도까지 공제하게 되었다. 그 재원은 군^郡축산동업조합의 조합비 1인당 1년 30전이던 것을 1928년도부터 50전으로 개정하고 그 증액^{增額} 20전을 공제금에 충당하기로 했다. 조합원 10만 3천 8백여 인 중 8천여 인은 조합비가 체납되었다. 그 외 9만 5천여 인에 대해 1개년 공제자금 1만 9천여 원을 징수하여 사용케 된다. 1928년 4월부터 각 군 축산동업조합에서 일제히 축우 공제부에 등록을 개시하고 6개월 후부터 공제금을 교부했다. 그간 공제금을 교부한 것이 88두, 2,100원에 달했다. (1929.02.14)

경기도 축산동업조합과 그 연합회에서 1928년 10월부터 사망 우^牛 1필에 대해 소우 10원, 중우 20원, 대우 30원씩을 지불했다. 1929년도부터는 국고금에서도 소우 1원 30전, 중우 2원 50전, 대우 3원 70전의 보조를 받게 되었다. 작년 10월 이후 412두, 6천 7백여 원이다. 지불액은 작년 10월과 금년 6월을 비교하면 10배 이상을 돌파했다. 군별로는 개성, 수원의 40두가 최고이다. 경기도에서 이 제도 창설 이후 함남, 황해, 평남 등에서도 따라하게 되었다. (1929.07.14)

6. 임업, 산림

경기도장관은 식림사업이 현재 급선무임을 알고 우선 지방비로써 각군에 모범 묘포^{묘圃}, 모범 조림을 경영하여 식림사업을 성대히 할 계획을 수립했다. (1911.01.11)

경기도청에서 ‘기념수 재배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1911.02.15)

경기도청에서 1911년도부터 조림 및 묘포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소용 인부를 1만 7천 2백인으로 어렵하고 총독부에 보고했다. (1911.02.24)

경기도청에서 ‘기념수 재배규정’을 2월 27일부터 각 부윤 군수에게 1건씩 발송했다. (1911.02.28)

각 부군에서 양묘사업 특지자 10명씩을 모집해 실제적 기능을 오는 34월 약 60일간 교수함, 실습장은 수원, 경성의 묘포로 충용한다. (1912.01.13)

본년 관내 묘목상황 조사표에 의하면 수원군 묘포 백양 12,420본, 각 부군 묘표 합 60,055본이다. (1912.11.28)

도청에서 죽림 증식의 목적으로 조사를 행했는데, 여주, 안산, 죽산, 양성, 시흥 5군에서 12개소 3정 1반에 불과, 여주에서 1장 4~5척의 성장을 보였으나 이외에는 모두 합해 4~5척에 불과하다. (1912.12.12)

경기도청에서 수원^{水源} 함양과 삼림의 보호, 남벌 방지를 위해 산림계를 권장 중인데, 연천, 마전, 음죽, 가평, 양지, 풍덕, 양주 각 군은 각각 설치인가를 얻고 기타는 기획중이다. (1913.06.25)

경기도 지방비 조림사업은 1월부터 5월까지 인공조림이 경성부 두모면과 양주군 망우리면 아차산 103여 정의 면적에 적송, 력^{력櫟}, 밤, 니세아카시아, 포플라, 시호지, 은행 등 27만 5,500본인데 천연조림은 9정 2반 1무이다. (1913.07.25)

경기도 관내 민영조림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나 아직 양묘 설비가 불충분하여 도청 배부 묘목을 청구하여 조림하는 상황이다. (1913.09.18)

작년 춘계에 시행한 경기도 기념수는 고사로 인한 손해가 밤나무 2할, 니세아까시나무 1할 5보, 백양 1할 2분 소나무 1할 7보, 가래나무 1할 등, 작년 계속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성적이 양호하다. (1914.01.11)

도에서 식림 조장을 위해 봄에 일반 인민에게 하부할 묘목 총수는 1,256,868본, 그 중 상수리나무 678,500, 니세아까시나무 262,000, 시호지 23,000, 밤나무 60,000 백양수류 184,000, 구루마모도맘 6,000 외 특별 하부는 동종류 37,368, 각 부군에서 신청수가 많아 예정 수를 초과했다. (1914.01.13)

경성부청에서 각 부 면사무소에 조선인을 임업전습생으로 몇 명을 선택하게 했는데, 생활 곤란자들이 능력과 관계없이 전습 6개월의 임금에 끌려 뽐히고자해 지원자가 많아 처리가 어렵다. (1914.01.16)

본년부터 종묘, 잠종을 유상배부함, 각 군 사무소에서는 지원자 조사 후 은사 수산장으로 회동해야 한다. (1914.02.11)

도청에서 본년도부터 관내 인민에게 대해 상묘와 잠종을 유상배부하기로 결정했다. (1914.02.24)

2년도의 묘포 성적, 소나무 외 20종 파종, 총 파종량 9석3두7승9합, 성묘 297,240본, 유묘 1,271,440본 합계 1,568,680본, 판갈이 86만본 중 성유묘 468,850본 산출, 삼목 195,000본 중 133,700본, 그 중 이번 봄 조림준비로 가을에 굴취한 것은 303,040본, 이외는 봄에 굴취할 것, 묘포에 배양한 도장관 관저의 채취 상수리나무 종으로 생산한 모 6,100본은 성육이 양호해 간장이 9부~1척2촌이다. (1914.03.04)

경기도 내 과수 재배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복숭아나무가 19만 1천 6백 40그루, 배나무가 15만 3천 104그루, 감나무가 7만 4천 9백 20그루, 사과나무가 24만 6천 680그루, 포도나무가 20만 4백 19그루였다. (1916.02.27)

경기도에서 본년 과수성적을 조사했다. 기온이 과수에 좋지 않았으나, 과수의 상황은 양호한 편으로 보인다. (1916.06.16)

경기도 내 임야 면적은 715,000인데, 성립지는 222,000, 나무가 다 크지 않은 곳은 412,000, 나무가 없는 땅은 81,000이다. 이중 성립지 이하의 임야에 매년 나무를 심을 것이며, 최대한 빨리 계획이 실행되도록 할 것이다. (1918.02.24)

경기도에서는 3월 15일부로 임야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해당 지역의 땅 주인들은 면에서 신고용지를 받아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한다. (1918.03.17)

신무천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식수행사가 열렸다. 다양한 관인들이 참여하였으며 약 1,500그루의 묘목을 심은 뒤 운동회가 열렸다. (1918.04.05)

경기도에서는 식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묘목을 배부하는 규정을 공포하였다. 배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918.05.04)

경기도에서는 사방공사보조규정을 발포하였다. 황폐산야에 사방공사를 시행하고, 숲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모밭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1918.05.04)

경기도에서는 숲을 만들기 위한 묘의 밭을 설치하였는데 수원, 이천, 양주에 설치하였다. (1918.05.05)

경기도에서는 숲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 봄에 심을 묘목들을 배부했다. 적송, 당송 등 그 합계는 35만 개다. (1918.11.25)

경기도 관내 임야조사회 부칙 제2항의 지구地區로 고양, 시흥, 부천, 수원, 진위, 김포, 강화, 파주, 장단, 개성, 양주 11군을 지정했다. (1919.01.16)

경기도에서는 조선임야조사회에 신고서 제출기한을 도道 고시告示로 변경했다. 광주군 일원과 양평군 일원은 3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다. (1919.04.02)

1920년도 중 경기도내 약 6천 정보의 산이 났다. 식산국장이 각도에 산불예방의 선전지를 배포하도록 통첩하여 경기도에서도 한글과 일본어 선전지 1만 장을 작제하여 관내 각 군 경찰서, 소학교, 보통학교에 발송하여 배포케 하였다. (1921.03.18)

경기도에서 4월 3일에 제11회 기념 식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당일이 우천이면 익4일 오후 4시 반에 거행한다. (1921.03.26)

경기도에서 사정중이던 진위, 김포 임야 사정은 전부 완료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군청에서 사정부를 공람케 한다. 임야 안에 있는 전답도 포함하여 진위는 1만 3,752정보, 김포 1만 2,882정보이다. (1921.11.27)

사지 조사회에 의해 조사 및 측량을 하지 않은 임야 및 임야 내 토지를 소유한 자들은 기한 내에 측정 신고서를 써서 토지소재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922.05.26)

경기도에서는 숲을 만드는 목적으로 묘수를 배부하고자 하는데, 희망자는 9월 말까지 각 군에 신청하면 된다. (1922.08.29)

경기도 관내 모범림 조림한 마을은 124개소, 땅 280정보, 나무 1,032,000그루이며, 기념림을 심은 마을은 206개소, 땅 135정보, 나무 463,000그루이다. 그 종류는 적송, 조선송, 아카시아 등이 있다. (1922.09.17)

본 가을에 있는 임업용 종자의 결실 상황을 보면 적송 2,006석, 흑송 183석, 낙엽송 21석, 밤 16,284석, 개암나무 222석, 아카시아 571석, 졸참나무 6,292석, 기타 1,608석이다. (1922.12.03)

경기도 관내 임야조사는 1917년 착수해 8년을 경과해 작년 12월 연천군을 최종으로 종료하고 20일부터 도청회의실에서 임야조사 종료식을 거행했다. (1924.02.22)

작년 경기 관내 삼림의 주 피해 원인은 송충이로 국유, 공유, 사유림을 합해 78,000정보, 피해액 692,000여 원, 다음으로 화재 피해면적 830정보, 피해액 23,200여 원, 그 다음은 도벌, 오벌 면적은 160정보, 금액은 2,800여 원, 풍수해 면적은 4정보에 불과하며 피해액은 30여 원에 불과하다. (1924.05.06)

경기 관내 6월 말 학교림은 총 291교 중 1,047교에 대한 1,802정보로 다음 봄까지 총 식부 종료 면적 803정보, 나무 259만 본인데 다음 봄에는 신계획에 의해 묘포 조림을 실행한다. (1924.08.19)

경기도에서는 상목桑木 자작 자급을 극력 장려하여 매년 각 지방에서 접목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개최 개소수 32개소 개최일수 119일, 전습인원 689명, 전습중 접목 본수는 약 38만 천 본에 달한다. 전년에 비해 배액倍額의 증가에 이르렀다. (1925.06.03)

7. 부업

수원군 남부 외 22면 연합 도급稻穀 전습회에 310인, 오산지부 전습회에는 29인, 공향면 외 연합전습회에는 180인, 안중장지부에는 284인의 전습생이 있었다. (1911.02.04)

3월 13일부터 경기도청 안 전 내부 토목과에서 잠업 강습회를 개강했다. (1911.03.14)

경기도 관내 각 수산장에서는 춘잠春蠶의 사육을 마치고, 하잠夏蠶의 사육을 개시했다. (1911.06.29)

각 은사수산장에서 지난 여름부터 상묘 양성에 착수해 이미 100여만 매를 재배해 봄에 뽕나무 심는 때에 각 수산장 전습 수료자 약 350인에게 1인에 3천 매 내외로 적어도 12만 보씩 뽕나무 밭을 개척하게 했다. (1912.01.09)

1913년도 경기도 하잠 수획량 총 사육호수 1,637호, 소립수 957매 실제 수견 287석, 전년 대비 사육호수 924호, 산견액 164석 곧 3할 3분 3이의 증가했다. (1912.01.16)

도청 권업과에서 지난달 이래로 기획중인 제1차 연직과 가마니 제조전습 개황은 경성부와 37부군을 첫 번째로 4회에 나누어 일정을 정하고 전습케 하는 중이다. 인원은 군은 14인, 부는 20인, 전습 기계는 총 366대이다. (1912.02.03)

도청에서 각 부군의 잠업 강습회를 개최했다. 3월 4일부터 5일간 각 은사 수산장의 수료자 또는 잠업 강습소와 부습소 등의 졸업생 60명을 선발, 모집해 본년도 각 부군에서 실행할 작잠공동사육조합의 교사로 충용할 목적으로 조교사를 강습할 것이다. (1912.02.04)

관내 각 수산장의 종업생 중에서 국유 미개간지를 받아 양잠과 농사를 경영하고자 뽕나무 심기, 양잠 도구를 정비하는 자가 많다. (1912.02.25)

도청 권업계에서 잠업 강의록 책자 1,600부를 편간해 강습원에게 배포했다. (1912.02.27)

지난 2월 27일부터 4일간 진위군 외 7군에서 제1차 잠업 강습회를 개최했다. 요즈음 조선인 사이에서 잠업에 대한 열성이 발흥해 각소의 강습원이 예정 이상에 달한다. (1912.03.01)

도청에서 4일부터 잠업강습회를 열고 잠업강습소, 수산장의 졸업생을 강습한다. 희망자가 많지만 장의 설비상 70명으로 제한하고, 졸업생은 치잠공동사육장을 사용한다. (1912.03.02)

도청에서 개최한 잠업 강습회가 종료하고 수료생 76인은 치잠 공동사육사업에 종사한다. (1912.03.10)

2월 27일~3월 21일에 이각 부군에서 단기 잠업 강습회는 강습생이 1,905인, 기간은 3일 내지 4일로 실행했는데, 강사는 각 수산장의 예원이 충용했고 해당 강습 입장 자격은 만 16년 이상의 남자 또는 여자 중 한글을 아는 자이다. (1912.04.13)

관내 잠업 공동 사육소로 인하된 것이 50개소인데, 모두 조합 조직으로 하고 도청에서는 잠종 4천 매, 잠연 5천 매를 사업 보조로 하사했다. 기술원의 급료로 적당한 보조금을 줄 것이고, 내년에는 공유 뽕나무 공원을 위해 상묘를 무료로 하사할 것이다. (1912.05.30)

각 수산장과 부업자 등의 사육 중인 여름누에는 모두 사면 중인 것이 다수를 점하여 낚씨가 점점 좋지 않는데 일반 사육의 성적은 양호하다. (1912.07.28)

연화병 중 병독이 있고 까마귀, 까치, 메추라기 등이 번식해 잠업 장려를 위해 당국에서 예방구제법에 관해 연구 중이다. 사양에 적당한 지방은 풍덕군 부면 공산리, 용인군 하동면 모전리, 장단군 대위면 나중리이다. (1912.09.05)

북부 은사수산장에서 개최하는 경성부 외 4군 연합의 농산가금품평회에 모인 사람은 약 2,000명으로, 수산장에서 조선인에게 생사 직물을 교수하고, 생사의 수이입을 금하고, 일반의 수업 관람을 허가했다. (1912.11.22)

도청에서 관내 일반 농민의 부업 장려를 위해 농한의 시기를 맞아 각 부군에 방직기계 5대씩을 배부했다. (1912.12.06)

내무부장이 각 은사수산장에게 양잠조합설치준칙에 의해 영구적 조합을 설치하고 유잠 공공사육을 중시한 결과, 봄, 여름, 가을 3기를 통해 93개소를 설치해 종래 압박한 사육법을 개량했다. (1912.12.13)

양지, 용인의 2연초경작조합에 대한 탁지부 저리자금 공급이 있었다. 2,700원을 공급하여 용인군내에 본년 9월까지 조합창고를 건축하고 10월부터 창고사업을 경영할 예정이다. 경작자금으로 양지 조합원 335인에 대해 4,607원을, 용인 조합원 711인에 대해 7,080원의 저리공급을 행했다. (1913.07.10)

1914년도 사육할 잠종 제조 수, 업자 5,353인, 28,342매를 제출하고 개량종은 춘잠 16,417매, 하잠 2,517매, 추잠 4,087매 계23,061매, 재래종 춘잠 5,271매, 재래종은 총 제조고의 약 1할 8분에 불과하다. (1914.03.04)

상묘배부수 접목묘 319,089본, 실생묘 2,302,675본, 양잠조합과 수산자 기타 학교 등 특종자에게 무상배부하고 그 외 일반 당업자에게는 유상배부, 잠종배부수 7,977매, 모두 은사수산장의 생산인데 무상배부가 5,196매, 나머지는 일반 당업자에게 유상배부할 것이다. (1914.03.25)

경기도에서는 1912년에 농가 부업을 고취하는 동시에 연입제조 전습을 개시, 대부분의 연작기로 1913년 중에 제조케 한 연입 제조액은, 직기 3,075대로 연 9,822매, 입 1,5354매, 합계 2,5176매이다. (1914.03.28)

경기도에서는 각 수산장을 통해 일반 당업자에게 금년에 사육할 하잠종 약 3천 매를 배부했더니 이른 사람은 이미 누에가 생겼다. (1914.07.01)

경기도 내 하잠의 누에떨기가 전부 종료되었는데, 춘잠을 종료하는 동시에 비가 연일 내려 거듭 하잠을 발생시켜 이후 격변이 없으면 본년 하잠은 춘잠에 비해 좋을 것으로 일반 잠업가들이 낙관하고 있다. (1914.07.09)

경기도에서 일반당업자에게 배부한 본년 사육의 하잠종은 총계 2,300매인데 기후가 좋으면 산견액은 500석에 달할 것이다. (1914.07.14)

하잠사육이 꽤 양호해 지금 이른 것은 누에올리기를 종료했는데 산액은 500석 내외가 될 듯하고 이후의 산견은 부군 은사수산장, 농업기술원 주선 아래 공동 판매로 널리 일반에게 판매할 것이다. (1914.07.24)

도에서 설치한 연천 풍혈은 온습도가 이상적인 화씨 37도이고, 저축 잠종 1,500매는 15일, 20일 2회에 수출해 누에의 발생도 양호했으므로 적극적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조선의 풍혈은 이를 합쳐 3개소이다. (1914.07.25)

경기도에서 장려한 양잠 실습이 올해 시행되었다. 실습에 필요한 사료는 생도들이 채집하거나 집에서 가져와야 했다. 시행 학교 수는 공사립학교 합 40개, 실습생은 1,297명이고 수잠량은 15석 정도였다. (1914.11.08)

경기도 1914년 양봉 실적은 사양飼養 호수 2,129호, 소상수 4,557개, 봉밀 산액 26,371근, 가액 7,339원, 밀랍 산액은 1,246근, 가액 1,246원이다. (1915.03.24)

경기도 관내 54개 학교에서 실습생 2,300명이 양잠을 실시했다. 소립掃立한 것은 봄, 여름, 가을을 합쳐 108문이고 수견收繭한 것이, 1,009석 2두 2승 6합이고 가격은 약 769원여였다. (1916.02.01)

경기도 내의 양주, 연주, 수원, 개성 등지에서 잠종 제조고(蚕種製造高)를 개최한다. 제조자 총원은 7명이고 제조고의 봄 누에(春蠶)는 1만 3천 6백 80매, 여름 양잠은 1천 7백 30매, 가을 양잠은 4천 3백 39매, 총합계가 1만 9천 7백 56매였다. (1916.02.16)

경기도 관내의 양봉 상황을 조사한즉, 사양호(飼養戶)의 총 수는 2,204고, 벌집의 수는 4,990이며, 벌꿀의 생산량은 217석 8두 9승이고, 매액은 8,019원이며, 봉(蜂) 산액은 1,221원이었다. (1916.04.27)

경기도에서 봄 잠업 상황을 조사했는데, 기후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성과가 양호했다. (1916.05.31)

경기도 관내의 여름누에 소립(掃立)시기는 다음 7월 5일부터 개시된다. 그 매수는 2천 300매에 불하(不下)했다. (1916.06.16)

경기도 관내 누룩 생산 상황은, 주산지는 고양, 강화, 광주 3군이다. 제조 판매량은, 자가용 1년간 제조 14,765석, 군내 주류제조용 소비량 6,041석, 관외 이출량 7,582석, 중요한 제조장은 373개소이다. (1917.09.04)

장단(14일), 개성(15일), 가평(16일), 포천(18일)에서 가을 잠견 공동판매를 실시한다. (1917.09.14)

경기도청에서 관내 승입(繩入) 제조장려 목적으로 1917년도 은사금으로 보조하여 20 군에 650대의 연직(筵織) 기계를 배포했다. 수원, 진위, 안성, 고양, 장단, 강화군에는 도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군의 기술자와 함께 제조방법을 지도하여 그 형상의 통일을 기했다. 도내 10개소에 승입조합을 발기하여 관내 제품을 감독하고 판매케 할 것이다. 최근 곡가 등귀에 따라 승입 등의 가격이 등귀하여 이것을 부업으로 하는 농민이 증가했다. 수원, 강화군에서는 연내 약 100만 매의 가마니를 제조하고, 오산의 소읍에서도 본년 내 약 10만 매의 제품을 만들어 성적이 좋다. 현재 시세로 1반보에 벼 30원의 수확에 짚은 15~6원의 산출이 있는 계산이다. (1917.12.21)

경기도 잠종제조상황으로 제조자는 87명, 춘잠 종은 54,682개, 하잠 종은 3,712개, 추잠 종은 15,292개 총합 73,686개이다. (1918.05.10)

경기도의 고치 판매 현황을 보면 공동판매 2,925개, 개인판매 4,437개 총합 7,362개 이고 판매액으로는 공동 200,612원, 개인 240,618원 총합 441,230원이다. 1개당 평균 59원 93전으로 팔렸다. (1918.05.16)

경기도 내의 춘잠 상황으로 누에가 알을 깨는 시기가 되어 뽕나무 잎을 양호하게 준비했지만, 기후가 저온을 보여 어린 누에의 보호를 위해 밤에 상당한 보온이 필요하다고 했다. (1918.05.16)

경기도 은사금 사업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잠업강습을 남자에게만 시키던 것을 여자에게도 시키게 하였고, 지방사업과 은사금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던 잠업을 모두 은사금사업으로 통일하였다. (1918.05.17)

경기도의 춘잠 상황으로 알에서 나온 누에의 수는 34,923개인데, 그 경과가 좋고 뽕나무 잎도 이번에 한파의 피해를 입지 않아 아주 양호했다. 따라서 작년보다 약 806개의 증가를 보였다. (1918.06.13)

용인에서 누에고치 공동판매가 개시되었으며 종류별로 특등~4등까지 가격을 나누어서 거래되었다. (1918.06.30)

경기도의 하잠 상황은 6월 하순부터 새끼누에를 키워 7월 10일까지 마무리를 할 것인데, 발육상태가 양호하다. (1918.07.14)

제 2회 춘견공동판매가 열렸다. 등급을 매겨서 가격을 달리해 팔았다. (1918.07.18)

경기도는 경부고등잠업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경기도 회의실에서 잠업강연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1918.08.11)

경기도는 추잠의 수확이 완료되어 공동판매를 실시하도록 했다. (1918.09.03)

경기도에서는 잠종제조소에서 잠종의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9월 5일부터 잠종 수부를 개시한다. (1918.09.05)

경기도에서는 9일부터 19일까지 추잠공동판매를 실시한다. (1918.09.15)

경기도 추잠상황을 보면 누에를 사육하는 호수는 9,370호이고, 수확량은 신종 34석, 내지종 2,693석이다. (1918.11.11)

잠종제조상황은 제조자는 67명이고 춘잠 58,248개, 하잠 6,050개, 추잠 30,894개로 총 95,192개다. (1918.12.19)

경기도 봄 잠견 공동판매는 이미 대체 종료했으나 양평, 강화, 진위, 포천, 안성의 5개 소에서는 근소한 나머지 견을 취집하여 18~19일 양일에 걸쳐 공동판매를 행하고 종료했다. (1919.07.20)

경기도청에서 3월 1일부터 잠업기술원회가 개최되었다. (1920.03.04)

경기도내 추잠秋蠶 상황을 조사했다. 사육호수 6천 829호, 잠종소립蠶種掃立 7천 572매, 견산액繭産額은 376석이다. (1920.10.25)

경기도에서는 각 군 춘잠 약 4,400석의 입찰을 시작한다고 했고, 참가인은 9명이다. (1922.06.10)

경기도청 감독 하에 있는 잠종업조합의 조합장(송궐)과 서기(서호석)가 위탁판매금 3천 4백 원을 횡령 소비하였다는 사실로 조합원 산상장차량 외 7명이 본정서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1923.07.26)

경기도 1922년 11월부터 1923년 10월까지 생산량은 새끼 448만여 관貫, 가마니 308만여 매枚이고, 금액으로 약 100만 원이다. 소농가의 부업으로 중요한 지위를 점한다. 도내 10개 군에 승입조합을 설치하여 생산품의 검사, 판매, 원료 짚의 알선 등 활동을 한다. (1923.12.29)

1922년도 경기도 관내 20군의 양잠조합 세입 결산 합계는 38,378원여로 전년에 비해 9,715원 증가, 세출은 33,548원여로 전년도에 비해 9,624원 증가했다. 주요 세입은 조합비 사용료, 수수료, 잡수입, 전년 이월금 수입 지방비의 용도 지정보조금으로 사용

료, 수수료는 19,373으로 최고액이다. 주요 세출은 직원급료, 사무비, 사업비, 회의비로 사업비(양잠 순회지도, 잠구 구입, 상원 품평회, 접목 전습 잠견 공동 판매 알선 등) 19,203원여가 최고액이다. (1924.01.20)

1923년 경기 양잠 성적은 소립(누에떨기) 매수 46,613, 산견(생산된 누에고치) 석수 15,557이다. (1924.01.21)

명치 43년 수견액은 1,170여 석에 불과했으나 작년도는 사육 호수 46,610여 매, 수견액은 약 15배인 15,550여 석에 달하고, 본년도에는 호수 2,200호 누에떨기 6,400매, 석수 3,600석의 격증이 기대된다. (1924.03.11)

1923년 중 경기도 관내 9군의 승입조합에서 검사한 수량은 가마니 합계 1,291,976매, 새끼 37,553속으로 작년에 비해 가마니 약 5만 매, 새끼는 약 27,000속의 증가했다. 판로는 도내의 소비를 위주로 강원, 황해, 평남, 부산 등에 이출됨이 많으며 청도, 만주 지방에 새로운 판로가 개시되었다. (1924.03.12)

경기도에서는 올해 예년과 같이 각 군의 생산 춘잔검을 공동 판매로 한다. 지정 판매 입찰은 6월 1일 도청에서 시행한다. (1924.05.31)

경기 관내 춘잔검 공동판매는 6월 6일 개시해 말에 종료했다. (1924.07.13)

경기도에서 보통학교의 생도를 통해 가정에서 양잠 취미의 보급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점차 전잠田蠶 실잠室蠶 구具등의 설비와 함께 양잠 열풍이 왕성하게 되어 본년 춘잠은 학교에서 함께 기르던 자가 보통학교 44교 소학교 1교에, 소립교掃立校수가 45교 수校收 견繭 16석 2두 4승의 1천 74원에 달하다. 가정에서 양잠한 자가 보통학교 29교 소학교 1교, 소립교의 수는 102교수, 견 3석 6두 6승에 1천 800원에 달하였다. (1926.09.11)

경기도 관내 7월 승입검사성적 중 승繆은 검사총수 2,027속束, 합격 1,745속, 입뽕은 곡용穀用 4말들이 검사총수 15,637매 중 불합격 1,129매 등이다. (1927.08.19)

경기도의 가마니 생산은 증가했는데, 1925년 수해지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해 많은 기

대機臺를 배부한 결과 1927년 11월부터 1928년 10월까지 검사성적을 보면 429만 매에 달했다. 1928년에는 가뭄 이재민 구제를 위해 지방비에서 기대 8,400대, 바디(篋) 2,500개를 배부하였고, 먼비 또는 지주 등으로부터 구입 배부한 것도 많아 금후 생산은 6백만 매는 산출(産出)할 것이다. (1929.01.10)

경기도내 초등학교 양잠실습 상황은 최근 실습지의 정비(整備)를 따라 점차 충실해졌다. 특히 재상(裁桑) 양잠이 아동의 작업에 적당하며 단기간에 수확할 수 있어서 제일 흥미 있는 실습이라고 환영을 받는다. 금년 춘잠 성적이 양호하여 실습한 학교는 공립보통학교 97교, 사립 보통학교 2교, 소학교 1교 계 100교이다. 수견액(收繭額)은 505관 920문치, 판매대금 3,152원 16전이다. 수입금 중 종묘(種苗) 대금을 지불한 후 잔액은 실습한 아동에게 분배, 저금시키거나 혹은 박람회 견학이나 기타 수학여행비의 보조로 쓰도록 하는 등 극히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1929.09.27)

8. 어업, 수산업, 제염

목포에서 인천에 이르기까지 구역에는 조(鰯)(도미), 하(鰈)(새우) 등, 인천에서 안동현에 이르기까지 구역에는 조기, 약(鰍)(멸치) 등을 잡는데, 조기, 멸치 등은 조선인의 수요가 많고, 도미, 멸치 등은 일본에 수출 또는 재주(在住) 일본인의 수요에 공급하였다. (1911.07.07)

연안에서 오는 20일부터 어업의 실습을 행한다. 실습생은 10명으로 각 부군으로부터 선발하고, 두 척의 연습선으로 새우, 붕어, 농어 등의 어업을 실습할 것이다. (1912.05.11)

음정포의 석수어 어기는 4월 말부터 약 1개월간이므로 어선은 오월 하순에 전부 퇴환했고 어획액은 2만 원에 달한다. (1912.06.12)

수산 장려의 방법으로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실습생 30명을 선발해 1척은 조어선, 1척은 안강망으로 1척에 5명씩 3기 교대로 나누어 타게 하고 경기도 연안에 출동 실습

중인데 성적이 양호하다. 작년에는 수당금을 목적으로 한 종사자도 있었는데 본년은 모두 열심히 연구해 실습기가 경과해도 하선치 아니하고 연구 희망자가 있어 허가해 항상 실습 중인바 장래 독립 어업경영의 목적이다. (1912.09.04)

경기도청에서 매년 조기 어기漁期에 수백만 원의 어획이 있어 1913년도에 4월 2백여 척을 전라북도 칠산바다 부근에 출어케 했고, 그중 100여 척은 점차 황해도 연평도 부근에 출어하는 중이다. (1913.05.01)

염업지로 유명한 남양군에는 염전 67만 4,428평, 가마수 1,028부썰, 당업자 1,003인이 있고, 안산군에는 6만 2,995평, ●9부, 141인이 있다. 이외 부업으로 김포, 인천, 부평, 통진, 강화 등에도 산재하여 장래 발달할 여지가 충분하다. 사용하는 송염은 1개년 약 '이백육천오'(?) 속썰, 가액 9만여 원이다. 임업에도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분료燃料과 제염법의 개량 방법에 대해 묵하 조사중이다. (1913.07.10)

어업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1913년도에 강화, 인천, 수원, 김포, 통진, 풍덕의 어업가에 대해 보조금 1,000원을 지출, 그물 15, 어선 6척을 새로 지어 시험 고기잡이 결과 모두 상당의 성적을 거두었다. (1914.03.01)

도청에서는 어업실습 제1기생을 인천 근해에 파견해 실지 어업에 종사하게 했고, 졸업기에 제2기생을 교부했다. 5월 20일~6월 30일까지 물고기 잡는 도구 등을 사용하고 1인 평균 18원여 분배금이 있다. (1914.07.21)

경기도의 산업과와 수산부가 금년 어업 상황을 살핀 즉, 배 3척으로 1척에 4인이 타서 6개월간에 3회 출어하였다. 연인원에 대해서는 36인이다. 포획어류는 포로鮑鱸, 석수어石首魚등이다. 어획이 가장 높았을 때 수익이 581원 73전이였다. 작년의 356원 49전에 비하면 어획량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1916.01.07)

경성어시장, 용인수산주식회사, 경성일지구수산주식회사, 인천수산주식회사의 총 매각고의 수량은 각 1만 1천 737관이고 매각이 4만 2천 870원 5전 1이였다. (1916.02.20)

경기도에 현재 제염이 허가된 곳은 강화, 김포, 부천, 시흥, 수원, 진위 6개군이며, 염

전 면적이 1만 3천 6백 47평, 염부수는 6백 13개, 염정수는 1천 6백 52개인데, 1년의 제조근 수가 6백 82만 4천 근이고 이에 종사하는 제조자가 1천 102인이다. (1916.03.09)

경기도에서 5월 중순부터 어업전습(漁業傳習)을 열었다. 전습생은 전습선 3척을 사용하여 전습 실지로 떠난 상태이며, 본월 말에 강습을 종료할 예정이다. 지2기생으로 10명을 모집 중에 있다. (1916.06.21)

경기도 수산계에서 총독부의 위탁을 받아 시험적으로 동계 어업을 한다. 비용은 총독부 보조와 도(道) 지방비에서 지출하고, 어장은 덕적도와 백아도 부근이다. 어선 2척을 사용하여 1월 30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한다. (1917.02.06)

1916년 경기도 관내 어업 상황은 일본인 통어자(通漁者) 출어선수 262척, 승조(乘組) 인원 682명, 어획고 71,232원, 조선인 관외 통어자 출어선수 183척, 승조인원 649명, 어획고 25,360원, 관내 재주자(在住者) 출어선수 712척, 승조인원 9,395명, 어획고 220,764원이다. 주요 어장은 인천 부근, 팔미도 부근, 한강 입구, 강화도 부근, 덕강, 임진강 등이다. (1917.04.11)

경기도 내 허가한 어업의 수는 39건이고, 한강과 임진강 등의 어업구역이 있었다. 주로 잡은 고기는 송어다. (1918.06.14)

경기도의 식염 소비량은 6,943,711되로 전국의 6할에 해당한다. 용도별 12종에 사용되었고, 식염의 종류는 4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1922.04.10)

경기도 지방비 사업의 어업 전습소는 작년 5월부터 6개월을 2회로 매회 3개월 간 조선인 어업자 자체 12명을 3척의 실습선에 나눠 태워 인천을 근거지로 경기, 황해, 충남 3도의 연해를 어장으로 전습을 행했다. 서선 지방에 고기가 잘 안 잡히고 어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획금이 1,980여만 원에 달해 받은 수료자 24명에게 분배해 어업 자금에 충용하게 하고 어선 구입 시 100~300원의 지방비 보조를 하부해 수료자들은 부천군을 중심으로 우량한 어촌을 형성하고 있다. (1924.02.03)

1923년 경기도 관내 염 소비고는 주로 의류제조용, 침장용으로 관영 천일제염

4,338,827근, 조선 재래 전열염 12,502,502근, 수이염 38,718,516근으로 수해로 인해 작년에 비해 약 200만 근 감소했다. (1924.04.12)

1924년 경기도 관내 어획량은 총액 61만 7천여 원이다. 종업자는 일본인 422인, 출어 선수 125척, 조선인 7,754인, 어선 828척이다. (1925.04.09)

9. 교육

12월 15일 이내로 경기도 학령아동을 조사하라 했으나 호적법이 실행되지 못해 조사가 곤란하다. 민적조사를 행할 때 조선인에게 인두세를 매긴다하여 인구를 은폐하는 자가 비일비재하다. (1910.11.06)

교동보통학교와 죽산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장 등이 경기도청에서 실지 견습한 후 부임했다. (1911.06.09)

경기도장관 檜垣直右이 순시하다가 학도 중 성질이 순량하여 교사의 명령을 잘 복종하는 자를 조사하여 상품을 급여하라고 3원씩 기부했다. (1911.06.14)

경기도 내무부장이 각 부윤 군수에게 관내 공사립 보통학교 일반 직원의 이력을 6월 내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통첩했다. (1911.06.15)

경기도 내 일본인이 설립한 학교수는 15개였다. (1911.06.23)

경기도 관내 일본어 야학회 수는, 전문으로 설립한 것이 22곳, 부설한 것이 25곳, 학생수는 1,727명이다. (1911.06.30)

경기도청에서 각 공사립 보통학교에 실업교육 실습으로 양잠과 짚신 작업을 장려했다. (1911.07.21)

공사립 보통학교 조선인 교사 13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경기도 주최 강습회가 열렸다. (1911.07.27)

경기도에서 1911년도부터 관내 각 군에 교육상의 시설로 순회 교수^{教授}를 개시했다. 제1기는 8월 말일로써 종료하였고, 제2기 사업은 9월 1일부터 착수했다. 제1기의 사업은 주지^{主事}가 사립학교 및 서방^{書房}의 조사 시찰에 불과하고, 제2기는 시찰 결과 유망한 서방 및 사립학교에 대해 순회 교사가 10일 내지 1주일간에 교수하여 일반 보통교육의 지도를 할 방침이다. (1911.09.13)

도청에서 관하 각 군에 소재하는 일본, 조선인의 학교 수, 생도, 교원 수를 조사해 일본, 조선인을 구별했다. 조선인의 기설 공립보통학교 17, 신설 29, 교원 수 223, 남학도 5,577, 여학도 528, 사립학교 230, 교원수 1,869, 학도수 11,830명이다. (1912.01.13)

지금까지 각 부군에 순회교사를 파송해 교육 사무에 종사하게 했는데, 이번에 순회 강습의 방법을 바꾸어 하나의 군내에 5개소의 강습소를 설립, 가까운 서당 생도를 모집해 1개소에서 1개월의 5일 이상 일본어를 강습하기로 결정했다. (1912.01.27)

1910년 말에 공립보통학교와 같은 것이 17교에 불과했으나 임시 은사 이자 5분의 1 반은 보통학교의 경비에 충용했고, 은사금 이자를 기초로 국고, 지방비의 보조학교재산의 수입 등을 합해 1911년에 11교 45년도에 20교를 증설했다. 개성군 2교, 타 지역의 각 군에 1교 이상이고, 사립학교는 용인, 안산, 삭녕, 영평, 마전, 적성, 양주를 제외한 각 군에 그 수가 103교, 그 중 59는 종교학교, 사립학교는 병합 전 일시 남설했으나 유지, 경영의 어려움이 생겨 근래 크게 감소했다. 앞으로도 증감할 모양으로 서당도 각 군에 그 수가 1,500에 생도 1만 1,794를 수용 중, 최근에는 일본어 보급이 성행한다. (1912.08.13)

공립보통학교 48교, 사립보통학교 2교, 사립고등보통학교 2교, 공립실업학교 11교, 사립실업학교 1교, 사립학교 103교이다. (1912.08.13)

최신 공립보통학교교 수는 48교, 사립보통학교, 사립고등보통학교 각 2교, 공립실업학교 12교, 사립실업학교 1교, 사립학교수는 203교, 공립보통학교는 명치 43년 말에

겨우 70교에 불과했으나 한일합병의 결과 은사금 이자 5분의 1반은 보통학교의 경비에 충용케 하고 은사금 이자를 기초로 국고, 지방비 보조의 향교 재산의 수입을 합해 44년도에 11교를 신설하고 45년도에 20교를 신설, 개성군 2교, 기타의 각 군 1교 이상, 사립학교는 용인, 안산, 삭녕, 영평, 마전, 적성, 양주를 제외한 그 수가 203교이다. (1912.10.30)

도청 내무부장이 각 부윤군수에게 요즘 연소한 자제가 사치에 빠져 학자를 낭비하고, 부형을 속여 악한 벼를 사귀어 불량하고 학업을 소홀히 하는 등 악풍의 경향이 나타나 재학자와 졸업자를 주의시켰다. (1912.11.15)

공립소학교 20교,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학급 148, 교원 177, 재학생도 남3,760, 여 3,320, 합7,602, 본학기 입학자 2,732, 퇴학자 1,241, 출입의 빈번이 없으므로 자연히 수년 재학수를 증가할 것이다. (1912.11.16)

도청에서 13일부터 2일간 공립소학교장회의, 16부터 2일간 공립보통학교장회의를 선화당에서 개최해 교육발전의 안건을 협의할 것이다. (1912.12.05)

13~14일 공립소학교장의 회의 개최했다. 안건은 장관훈시 지시 사항, 자문사항, 각 학교장 제출문제협의, 훈시 또는 강활, 정황보고 등, 16~17일 공립보통학교장 회의 개최, 안건은 소학교장 회의와 같다. (1912.12.12)

경기도 내 상업학교 4, 농업학교 7인데, 이번 모집 정원은 520명이고, 지원자는 1,360명, 합격자는 361명이다. 그중 보통학교를 거친자는 202명, 거치지 않은 자는 159명이다. (1913.05.04)

경기도 각 학교는 1910년 349교, 아동수 1만 322인이던 것이 1912년 말에는 2,115교, 아동수 47,182인으로 증가했고, 경비는 19만 969원에서 68만 7,924원이 되었다. (1913.09.24)

작년 12월에 개최하려던 도내 소학교장회는 오는 1,516일경 3일간 개최한다. (1914.01.08)

도청에서 학교장을 소집해 협회를 개최, 19~20일 소학교장회의, 21~23일 보통학교장 회의를 개최한다. (1914.01.16)

경성부청에서 각 부군 면장에게 수원 농림학교에서는 본과 제1학년급생도 약 40명을 모집하니 관내 일반에게 주지해 지원자를 권유 응시하게 함, 자격 만 15세 이상 25세 이하, 학력이 있는 자, 건강하고 품행 단정, 재학 중에 탈린 식구가 없는 자, 전답 2정보 이상 소유자 또는 그 자제 등, 입학원서 제출기한은 3월 25일까지 농림학교에 도달케 해야 함, 시험은 4월 1~2일 오전 8시, 시험과목은 (산술) 사칙소수, 분수, 비례, 일본어, 독서, 받아쓰기, 회화, 한문, 한문 번역 등이다. (1914.02.19)

1914년도 2월 말 경기 관내 학사 상황을 조사함, 공립보통학교 수 합 50개, 직원 조선, 일본인 262명, 학도수 8,121명이다. (1914.04.01)

내무부장의 명의로 인천, 수원, 안성 외 각 부군에 부군폐합에 따라 공립보통학교 설립 설정에 그 예정 구역을 군의 구역과 동일하게 본월 말일까지 총독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라 했다. (1914.04.15)

학교조합 조합원 수는 학교조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해 도장관이 인정하는데, 안성, 이천 관하 학교 조합들은 모두 조합원 500 미만으로 승인, 기타는 각 부윤, 군수의 보고로 승인함, 학교조합 1. 조합원 500미만, 독도 학교 조합 외 17학교 / 학교조합2. 조합원 500이상 2,000미만 수원, 개성 / 학교조합3. 조합원 1만 이상 2만 미만 인천 / 조합원 4만 이상 경석학교조합 이다. (1914.04.19)

도청에서 관내 교육 보급을 위해 각 부윤 군수에게 1913년 말 서당, 교사, 기타 학동수를 조사하게 하였다. (1914.04.30)

1913년도 서당 조사표에 의하면 합 1,980개, 교원 수 2,918명, 학아 남 16,867명, 여 131명, 경비 82,076원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서당 167개, 아동 2,260명이 증가했다. (1914.05.20)

도청에서 각 공사립보통학교 교원 중 지원자를 소집해 하기 강습회를 개최했다. 강습원은 공립보통학교 교원 54명, 사립학교 43명으로 전례대로 오전 중에 각 학교에서 교수하고 오후에는 강습회로 내참한다. (1914.07.09)

경기도 관내 학교의사에 대해 수원은 자혜의원에게 기타 각 학교는 공공의사와 경찰 의사에게 학교 위생을 의탁하기로 결정했다. (1914.07.25)

경기도에서는 새로 발포된 사립학교 규칙에 따라 6월 29일부터 3일간 도청 선화당에서 관내 사립학교 교원검정시험을 행한다. 수험자는 약 30명 예정이다. (1915.06.27)

경기도청에서 순회문고를 개설하고 관내 각 학교의 교사 청구에 응답했다. 문고에 있는 서적의 종류는 대개 교육에 관한 것이다. (1916.02.11)

경기도 학무부에서 관내에 위치한 조선인 공립 보통학교 교장 회의를 구내 선화당에서 개최한다. (1916.02.11)

경기도 관내 공립학교장 회의가 구내 선화당에서 열렸다. 학교장이 85명, 순회교사, 고등여자학교장, 고등전수학교장, 기타 합쳐서 104명이다. (1916.02.29)

경기도청에서 관하 각 사립학교의 현황을 조사했다. 일본인의 교육은 공립학교 15개 소고, 남자 교원이 25명, 여자가 7명 합계 32명이다. 입학자는 남자가 344명, 여자가 115명, 합계 459명, 중퇴자는 남자가 192명, 여자가 11명, 졸업자는 남자가 92명, 여자가 29명, 합계 121명이다. 경비 수입은 2만 1천 693원, 지출은 3만 1천 692원이다. 이외 공립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 공립경성학교, 사립경성재봉여학교, 사립실수재봉여학교 등은 사립학교 규칙의 인가를 받지 않아, 게재하지 않았다. 조선인의 교육상황은 학교 수 일반에 921, 종교에 71교, 합계 64교이다. 교원 수는 일반에 남자가 331명, 여자가 61명, 외국 남자가 18명, 외국 여자가 10명 합계 681명이다. 생도수는 일반에 남자가 6천 313명, 여자가 676명, 종교에 남자가 3천 646명, 여자가 2천 339명이며, 합계 1만 2천 965명이다. 경비는 일반 7만 8천 217원이고, 합 18만 4천 880원이다. (1916.06.11)

경기도청에서 각 부군의 공사립학교 졸업생도의 취직별표를 만들었다. 공립보통 52교에 졸업자는 남 1천 129명, 여자 84명이다. 그중 가업에 종사한 자가 남자 61명, 여자 54명이다. 관공서, 은행, 회사원이 남자 90명, 기타 각 교에 입학한 자는 관립고등 보통학교에 남자 57명, 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 13명, 농업학교에 남자 6명, 상업학교에 남자 36명, 공업학교에 남자 3명, 간이실이학교에 남 144명, 사립 일반에 남자 120

명, 종교에 남자 21명, 여자 3명이다. 기타에 남자 30명, 여자 3명, 사망에 남자 4명 여자 1명이다. 사립보통학교 5개 졸업자 남자 43명, 여자가 49명이다. 그중 가업에 종사한 남자가 12명, 여자가 20명이다. 관공서와 은행, 회사에 취직한 자가 남자 5명이다. 관립학교에 입학한 자는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에 1명이다. 실업학교에 입학한 자 중, 농업에 남자 1명, 상업에 1명, 공업에 1명, 사립 일반에 남자 20명, 여자가 20명, 종교에 남자 4명 기타에 여자 1명이다. 기타 간이·공립·농업·상업·공업 등 24개 학교에, 남녀 졸업생을 합치면 총 수가 204명이다. 그 중 가업에 종사한 자가 122명, 관공서와 은행 회사원에 51명이다. 관립학교에 입학한 자가 고등보통학교에 5명, 실업학교에 입학한 자는 농과 1명, 상과 5명, 간이실업학교에 3명, 사립 일반에 9명, 종교에 3명, 야학에 1명, 기타 3명, 사망에 1명이다. 졸업생 총수는 1천 557명이다. 가업에 종사한 자와 관공서, 은행, 회사 등 기타에 취직한 자가 1천 67명이다. 공사립 학교에 입학한 자가 348명, 사망한 자가 6명, 보습학교에 수료한 13명, 잠업전습소에 입학한 자가 2명 등이다. (1916.06.16)

경기도 관내에 위치한 조선인을 조사했는데, 일본어를 초해_{初解}하는 자는 남자 1만 4천 548인, 여자 1천 897인이다. 회화에 지장이 없는 자는 남자 8천 14인, 여자 713인이다. (1916.06.21)

경기도에서 5월 29~31일에 사립학교 교원시험을 거행하는데, 수험자는 21명이다. (1917.05.24)

경기도 사립학교 교원시험 합격자는 10명인데, 조선인 8명, 일본인 2명이다. (1917.06.06)

1917년 4월 말 경기도 관내 사립학교 상황, 학교 수 136교, 학급수 466개, 교원 남 449, 여 99, 생도 남 7,655명, 여 2,773명이다. 경비는 214,190원이다. (1917.06.08)

1917년 ●월 1일 경기 관내 서당 수 2,444개, 교원수 2,552, 생도수 남 23,807인, 여 309인, 합 24,116인, 경비 1●1,282원이다. (1917.06.10)

경기도에 있는 조선인 교육사립학교의 상황은 현재 일반 학교는 73개, 종교학교는 46개이며 전체 119개 중 폐지할 학교는 일반 학교 19개, 종교학교 8개다. (1918.01.22)

3월 31일까지 경기도 내의 공립 간이농업학교가 8개 폐교된다. (1918.02.03)

경기도 공립보통학교에 대한 결산은 다음과 같았다. 학교 수 60, 학급 수 248, 생도 수 10,387이며 유지경비는 216,187원 96전이였다. (1918.03.24)

경기도 내의 사립학교 수는 일반학교 68, 종교학교 42 합계 111개다. (1918.07.25)

경기도에서는 하계휴업을 이용해 강습회를 열었다. 보통학교장강습회와 사립교원강습회가 열렸으며, 과목으로는 조선어, 박물, 일본어, 산술, 교육 등이 있었다. (1918.07.25)

경기도에서는 9월 26일부터 사립학교 교원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원자는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18.08.31)

경기도에서 사립학교 교원시험을 시행하였는데, 수험자 수 11명 중 합격자가 6명이었고 6명 중 현재교원인 사람은 4명이였다. (1918.12.15)

‘3면 1교’라는 총독부 학무국 방침에 대해 경기도장관松永은 1919년도부터 8년간 ‘2면 1교’ 방침을 취해 관내 60여 개 보통학교를 140여 개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1919.01.13)

경기도에서는 9월 25일부터 3일간 도청에서 사립학교 교원시험을 시행한다. 지원자는 1915년 6월 발포 경기도령 제8호를 참조하고 9월 20일까지 소할 부군을 경유하여 원서에 50전의 수입인지를 첨부貼付하여 도청에 제출해야 한다. (1919.08.17)

1919년 8월 말 기준 경기도 서당 총수 2,481개, 교원수 남 2,492명, 여자 12명, 생도 남 25,192명, 여 230명, 경비 22,509원이다. (1919.09.21)

조선 내 학교의 증설 예정인데 경기도의 학교는 다음과 같다. 이천군에 죽남공립보통학교, 부천군에 소래공립보통학교, 강화군에 길상공립보통학교, 수원군에 송산공립보통학교. (1920.09.28)

개성군 고려청년회에서 동회 관내 간이상업야학교를 설립하고 본 월 16일부터 개학할 예정이다. (1920.10.16)

보통학교 수업연한 연장은 4월 신학기부터 실시되는데, 경기도 내 85개 중 부군 소재지의 주요 학교만 학급을 증가하고 기타는 점차로 6년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1921.01.15)

경기도의 1920년 12월 25일 현재 학교 상황은, 소학교 총수 44, 학급총수 252, 총독부 교원양성소 출신 교장 5, 훈도 52, 동 출신이 아닌 교장 39, 훈도 118, 촉탁 교원 6, 합 220명, 소학교 직원 정수에 비해 3명의 부족이다. 보통학교 총수 82, 학급총수 298, 양성소 출신 교장 일본인 5, 조선인 2, 훈도 일본인 16, 조선인 135, 부훈도 조선인 17, 양성소 출신이 아닌 교장 일본인 73, 조선인 1, 훈도 일본인 6, 조선인 30, 부훈도 조선인 50, 촉탁교원 일본인 4, 조선인 48, 계 일본인 116, 조선인 289인, 보통학교 직원 정수에 비해 과부족이 없다. 그중 조선인 부훈도 37, 촉탁 6인은 경기도 교원양성강습소 출신이다. (1921.01.17)

총독부 학무국에서 일본 유학하고 돌아온 학생들을 조사했다. 관서, 학교, 은행, 회사 등의 취직을 하여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그 대우 또한 상당한 우대를 받는 터이다. 그 사상 혹은 거동은 온순하고 확실하며 흠점이 없으나 그중에는 몇 사람의 중요 인물도 있다. 조선 안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학력의 정도 여하에 의지하여 다소 다른 점이 있으니 대개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경기도 귀환 유학생의 수효와 1920년 10월 현재 취직상황은 다음과 같다. -관공리 사비생 7, 관비생 4, 계 11. -교원 사 29, 관 7 계 36. -은행회사원 사 42, 관 5, 계 47. -상업 사 11, 관 1, 계 12. -농업 사 11, 관 무. -의사개업 사 8, 관 2, 계 10. -임대업 사 2, 관 무. -학생 사 2, 관 무. -전도사 사 2, 관 무. -목사 사 2, 관 무. -목장 사 1, 관 무. -신문기자 사 2, 관 무. -점원 사 1, 관 무. -치술업(齒術業) 사 1, 관 무. -기타 사 2, 관 1, 계 3. -무직 사 38, 관 무. 불명 사 7, 관 1, 계 8. -합계 취직자 사비생 169, 관비생 20, 총계 189명이다. (1921.01.25)

경기도에서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양정고등보통학교에서 도내(道內) 보통학교 촉탁교원강습회를 개최했다. 강습교원으로 제3종 교원시험 급제자는 부훈도에 승임(陞任)케 하는데, 강습생은 조선인 촉탁교원 25명이다. (1921.02.01)

경기도에서는 2월 15일 관내 중등과정 이상의 학교장 회의를 소집한다. 관내 중등 이상 학교는 32개교이다. 일본인 교장은 8명, 조선인 교장 12명, 외국인 교장 12명이다. (1921.02.05)

2월 1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내 중등학교 정도 이상의 사립학교 교장회의가 개최되었다. 순서는 지사 훈시, 주의사항, 학교장 의견진술, 학무국장 연설 등이었다. 참석 교장은 32명이다. (1921.02.16)

경기도에서는 3월 5일 관내 공립보통학교 교원에 대해 조선어 제1차 시험을 행했다. (1921.03.06)

1920년 말 경기도 관내 조선인의 일본어 해석자 조사 결과 보통회화에 능한 자는 남자 16,926명, 여자는 2,361인, 조금 해득하는 자는 남자 34,551명, 여자 6,886인이며 이를 총인구에 비하면 100인에 대해 3인의 일본어 해득자이다. (1921.04.15)

학무당국에서는 각 부군에서 부군 공사립학교 교원의 협동 연구, 협●수양회가 자발적으로 발흥함을 장려하는지 경기도내에서는 저번에 개성, 장단, 파주 3군내 연합, 부천군내 등에서 연구회가 개최되고, 연천군에서는 3월 6일 발회식을 거행했고, 진위군에서는 3월 11일 평택보통학교에서 발회한 바 교원 20명의 출석이 있었다. 수원군 내 공사립학교 교원협동연구회가 3월 13일 수원 보교에서 발회했는데, 50여명의 교원이 출석했고, 경기도 학무과장이 참석했다. (1921.03.14)

3월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소학교 및 보통학교 교원 제3종 시험에 30명의 합격자가 있었다. (1921.04.14)

1920년중 경기도 내 각 학교의 동맹휴교는 11번이고, 생도 수는 1,078명이며 날짜는 39일이다. 처벌은 퇴학이 32명, 정학처분 174명이다. 야소교학교의 6번이 가장 크고, 기타 공립 2, 천도교 1, 종교 1이다. 이유는 교사 배척이 4, 조직설비의 개선이 7, 특히 종래 서양인 학교(야소교 학교)에 대해 조선인 학생은 항상 숭경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작년의 6회는 모두 조직의 개선과 설비의 충실 등이 이유인 것은 조선인 학생이 교육에 대해 자각하여 온 일이라고 당국자는 말한다. (1921.04.24)

경기도에서는 관내 소학교 및 보통학교 교원 10명을 선발하여 연구단을 조직하고 제1회는 광도고등사범학교에서 2주간 교무를 연구케 한다. 도 시학(視學)이 동행하여 5월 14일 출발한다. 귀임 후에는 곧 경기도 주최로 경성, 인천, 수원, 여주에서 연구보고회를 개최한다. (1921.05.10)

경기도 내 13개 학교에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 등본을 하부했다. (1921.10.29)

소학교 및 보통학교 교원시험을 시행하는데, 시험 희망자는 3월 5일까지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22.01.26)

경기도 내 조선인 중에서 일본어 해득자 수를 조사했다. 보통회화가 가능한 사람은 남자 22,503, 여자 3,100이고 조금 이해하는 사람은 남자 37,303, 여자 6,215로 합 70,148명이다. 전체 인구에 비하면 약 4% 정도다. (1922.03.26)

경기도에서는 사범학교 및 상업학교의 개교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 내년도에는 학교건물에 대한 건설을 종료하고 생도들을 모집할 예정이고, 상업학교를 먼저 세운 후 사범학교의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1922.03.31)

경기도의 올해 학교경비 조사를 보면 부과금이 906,499원, 사용료 및 수수료는 151,182원, 재산수입은 1,002,870원으로 합계 2,060,556원이다. 보통학교 수는 100개이고 학급 수는 554개, 생도 수는 20,935인즉 한 학교당 비용은 9,854원, 한 학급당은 1,812원, 한 생도당 33원 80전이다. (1922.06.11)

경기도의 고시로 4월 1일부로 여러 공립실업학교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1922.07.04)

관내의 실업교육에 대한 발달을 위해 경기도가 신설계획을 수립한 도립상업학교는 6,000평의 땅에 지어질 것이며 지금은 토지와 주택을 매입 중이다. 올해 계획예산금액은 약 120,000원이다. (1922.09.05)

1923년도 도(道) 예산 중 보통학교 증설비도 포함되었는데, 도 예산은 극도의 긴축방침을 한 결과 대체 증설안은 중지 상태이다. (1923.01.20)

교육의 개선 진보를 목적하고 7월 26일 경기도 내에서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가들과 부내 일반 관민 유지 300여 명이 경성공회당에서 모여 경기도교육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경기지사를 회장으로 추천하고 내무부장과 한성은행 두취(한상환)를 부회장으로 추천했다. 이회는 조선교육회의 지회로서 도내에 있는 각 군부의 교육회 분회를 통괄한다. (1923.07.28)

경기 관내 공립보통학교수는 107교, 교원 남 581인, 여 79인, 생도 수 남 24,759인, 여 3,612인이다. 사립보통학교수는 9교, 교원 수는 남 129인, 여 31인, 생도수는 남 1,206인, 여 1,754이다. (1923.09.14)

총독부 학무과 조사에 의한 조선인 교육의 경기 사립학교는 현재 학교 81교, 설립 1교, 폐지 4교이다. (1924.01.14)

경기도 조선교육령 실시 상황을 청취하고, 특히 작년 11월 국민정신 진작의 조서 어하사의 천황의 뜻 관철에 대해 각 학교의 실행 상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 제반의 지시를 위해 6일부터 3일간 경성 수송동 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도내 각 공립학교장 184명을 소집해 회의를 한다. (1924.02.29)

경기도에서는 1924년도부터 시찰위원의 제도를 설치하고 사람을 선발하고 5일 임명 발표가 있었다. (1924.04.08)

지난 번 총독부에서 보통학교 창가, 가사를 모집해 당선자, 가사, 제목, 등수 등을 보 도했다. 조선어로 2등 당선된 제목은 ‘나물캐기’ 이다. (1924.04.10)

경기 경찰부 조사에 의하면 경기 유학생 수는 일본 유학 451명, 중국 53명, 미국 36명, 독일 8명, 프랑스 3명, 영국 2명, 스위스 1명, 시베리아 1명 합 555명이다. 작년 동 경 지진 이후로 일본 유학생이 감소했으나 대체로 해마다 증가하며 외국 유학, 여자 유학생이 늘어가고 있다. (1924.05.12)

근래 각 중등 정도의 모든 학교에서 동맹휴학이 빈번한데 이에 대해 경기 학무과장은 ‘생도들의 맹휴는 더운 여름의 학기시험을 피하고자 하는 소수 불량분자의 선동으로 교사의 식견, 인격 문제는 구실에 불과해 정당하다 할 수 없고 각 지방 학교와 연락하

여 보통학교의 아동에게까지 맹휴를 강요하기도 하므로' 각 관공사립학교에 명령해 연중행사와 같이 유행되는 악습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침이라고 한다. (1924.07.02)

경기도 교육회에서 26일 수송동 공립보통학교에서 제2회 총회를 개최한다. (1924.07.26)

경기 공립사범학교 특과 추기생 40명 신규 모집에 지원자가 347명에 달해 2일부터 입학시험을 받기 시작했다. (1924.09.03)

경기도 시행의 소학교, 보통학교 교원 시험은 제2종, 제3종은 11일부터 4일간, 제1종은 6일간 수송 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시행한다. 수험인원은 제1종 남 19, 여 18, 제2종 남 53, 여 32, 제3종 남 57, 여 40, 계 176인이다. (1924.10.12)

경기도에서 관내 공립보통학교 재직 조선인 훈도, 이전의 부훈도, 소학교, 보통학교 교원 제3종 시험 합격자 중 20명을 선발해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경기 공립사범학교에서 강습회를 개최한다. (1924.11.03)

경성에서 개최하는 내선만 연락 교육대회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축사가 있었다. (1924.11.27)

경기도에서는 보통학교 입학난 구제 목적으로 특수교육기관을 시설하는 각 지방의 강습회, 야학회 등 73개소에 100원 내지 30원의 범위로 경기도지방비 중에서 총액 5천원을 보조한다. (1925.03.01)

경기도 주최로 도내 17명의 여교원으로 연구단을 조직하여 6월 3일부터 17일간 예정으로 경도, 대판, 내량 등의 학술연구를 한다. (1925.05.31)

경기 관내 각종학교는, 소학 정도 207교, 중학교 및 고등보통학교 10교, 고녀 및 여자 고보 9교, 전문학교 10, 사범학교 2, 실업학교 10, 실업보조학교 기타 78, 합계 346교이다. 교원은 3,173명, 생도 10만 3천여 명. 총경비 637만여 원이다. (1925.08.28)

경기도 중등학교장협의회에서 각 학교 합격자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불합격자에게 너무나 재미없는 영향을 주고 따라서 비극을 일으키는 일도 없지 않다하여 금년도 경성중학을 시작으로 일본인 학교에서는 합격통지서를 발하기로 했다. (1927.03.06)

경기도 중등학교장협의회가 3월 3일 종료되었다. 그들이 각기 제출한 사항도 학무당국에서 심의 중이다. 제출 사항 중 심의 결과 불원간에 실시코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생도의 풍기 취체 여행(勵行)에 관한 것, 2. 하기, 동기 휴가 통일, 3. 입학시험 기일을 늦추고 합격자 발표 방법 변경, 4.교과서의 통일. 학생 풍기 취체는 학생 신분으로 활동상설관, 음식점, 기타 각종 경기장 출입, 열차 통학 중 열차 내 불량행위 등이 있어 학교 외에 감독구역을 정해 감독주임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한다. (1927.03.06)

3월 14~5일에 경기도회의실에서 10개 보통학교장의 협의회가 있었다. 도 학무당국과 교장들의 제안은 1. 졸업생의 환경 조사에 관한 건, 2. 직업지도에 관한 건, 3. 공려회 조직에 관한 건, 4. 수양에 관한 건 등이다. 도 학무과에서 보통학교 졸업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특히 10학교를 선택하여 금후에는 매년 350원의 보조를 주어서 시험적으로 행할 것이다. 매년 도내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는 5천 명의 지남침이 되어 전 조선 보통학교 졸업생의 모범이 될 것이다. (1927.03.22)

경기도금융조합연합회 주최 전선금융조합 주산경기회가 5월 5일 식산은행 회의실에서 있었다. 먼저 경기도 내 각 금융조합 선수의 경기를 행하고, 다음으로 전선(鮮) 주산경기회로 옮겨 경남북, 충남 외 각 도로부터 선수가 다수 출석했다. (1927.05.09)

경기도 관내 공립 중등학교는 16개교, 학급수 166, 직원은 남자 230명, 여자 36명, 생도수는 7,133명, 공립보통학교는 139개교, 922학급, 직원은 남자 806명, 여자 136명, 아동수는 남자 40,494명, 여자 ,7940명, 공립실업보습학교는 12개교, 24학급, 직원은 74명, 생도는 500명, 각종 사립학교는 중등학교 15개교, 86학급, 직원 수는 218명, 생도수는 2,979명, 사립보통학교는 22교, 162학급, 직원은 남자 146명, 여자 63명, 아동수는 남자 3,830명, 여자 3,847명이다. (1927.05.28)

경기도에서 8월 2일부터 14일까지 도 사범학교에서 정기 소학교보통학교 교원 검정시험을 시행한다. 수험자는 제123종을 통틀어 283명(일본인 남 9, 여 47, 조선인 남 195, 여 33)이다.

이는 여성이 자각_{自覺}된 반증과 취직난을 증명함이다. (1927.07.29)

21일부터 수송동 공립보통학교에서 개최한 경기도 하기 강습회는 청강생 600인 이상, 증서 수여자 490인으로 27일 종료되었다. (1927.07.31)

경기도 관내 각 보통학교 교원 중에서 실과_{實科} 교원 1명씩을 모아 8월 12일부터 청량리농업학교에서 농업과 강습회가 개최되었다. 8월 30일까지 종료했는데, 수강인원은 53명이다. (1927.08.31)

경기도 보통학교와 소학교 교원시험은 8월 중에 거행했다. 제1종에 46명이 수험하여 3명이 합격되었고, 제2종 157명 중 21명, 제3종 45명 중 8명이 합격했다. 그중 일본인은 남자가 제1종에 1명, 여자가 제2종에 6명이다. (1927.09.29)

경기도 학무과에서 금년 한해로 일반 농가 경제가 궁핍해져 도내 각공사립 보통학교의 퇴학 아동들이 많아질 것을 염려하고, 각 학교에 통첩하여 퇴학생 유무의 조사를 집행하는 중이다. 아직까지는 별로 이 같은 현상을 볼 수 없으나, 학무과에서는 11월 들어서 퇴학생들이 상당히 있으리라 관측하고 우려하는 중이다. (1928.10.07)

새로 제정된 '1면 1교제'에 의해 1929년도에 경기도내 신설될 공보교는 대개 14교의 예정이다. 14교는 전부 군 지역에 신설할 방침이다. (1929.02.02)

1926년부터 경기도에서 농업 계발을 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한 지도_{指導}학교가 성적이 양호하다. 이후 해마다 증설하여 현재 도내 18교가 있고, 생도수는 315인에 달하여 매년 성적 향상 중이다. 생도 1인 1반_反당 수확고는 평균 보통농가 1인의 수확고의 배 이상이나 되어 지도학교의 필요를 공인_{公認}하게 되었다. 경기도에서는 1929년도에 지도학교 5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1929.02.19)

1929년도에 경기도에 보통학교 14교 신설을 위해 경상비 1만 7천 원 보조를 받고, 임시비 약 14만 원 중 절반가량은 도 예산, 각 군 기부, 기타를 모집하여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촌경제 궁박과 근년 가뭄과 수해로 생활이 쪼들려 과연 수만 원의 금전 각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1929.02.24)

3월 1일 개최된 도평의회에서는 초등학교 수업료 전폐 혹은 경감에 대해 논란이 되었다. 그 취지는, ‘우리의 살림살이로서는 자제의 전도前途를 위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보통학교 수업료 70~80전이나마 과중한 동시에 나날이 피폐되어 가는 농촌의 경제 상태에 비취 도저히 자제를 공부시킬만한 자력資力의 여유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수업료를 철폐하라. 그리하여 초등교육을 보급하고자 하는 오늘에 유산계급의 자녀에게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고 무산계급의 자녀들에게도 배울 기회를 주어 계급적 교육의 결과를 나타내지 말고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이 초등교육 보급의 혜택에 균점均霑하도록 하라’이다. 3월 12일 관선 도 평의원 개성 공성학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의 찬성을 구해 경기도 당국에 제출하고, 수업료 전폐 혹은 40전 이하로 줄이라는 적극적 운동을 개시했다. 다시 일반의 시청을 끌게 되는 한편 전 조선적으로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제안자 공성학은, “금년부터 실시되는 1면 1교제에 의해 신설되는 지방은 점차 빈약한 곳입니다. 현재로서는 70~80전의 수업료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중도에 퇴학하는 등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사실이 속출되는 오늘날, 수업료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없이 점차 빈약한 지방에 학교만 신축한다고 하면 지방자도 없을뿐더러 계급적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초등교육 보급의 정신에 위반될 것이니 1면 1교제의 실시보다도 먼저 수업료 전폐 혹은 경감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운운. 이에 대해 경기도 학무과장古市은, “조선의 현재로서 수업료 전폐 혹은 경감은 응당한 요구인 동시에 당국으로서도 그리하지 아니하면 초등교육 보급에 큰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내의 수업료는 인천의 1원을 최고로, 최하 50전까지를 징수하는데 경성, 인천을 제외하고 지방만 이를 60전 평균으로 징수한다고 가산假算하면 1년에 4만 5천 3백 60원이나 예산이 감소되니 이에 대신할 만한 재원을 구할 수 없는 동시에 본부(本府)에 보조를 청구한다 할지라도 본부에서는 1면 1교 주의로 매진하는 고로 보조를 하여줄 만한 여유도 없을 것이니 이 문제에 대하여는 도에서만 고려하는 외에는 도리가 없는 관계상 난문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운운. (1929.03.14)

8월 13일부터 1주일간 경기도 학무과에서 시행한 초등교원 검정시험 지원자 1종 57명, 2종 113명, 3종 40명 중 합격자 28명 명단이 10월 24일 발표되었다. 1종 6명(일본인 1명), 2종 15명(일본인 4명), 3종 7명이다. (1929.10.26)

10. 보건, 의료, 위생

경기도 경무부에서는 2월부터 흑사병(黑死病) 방역을 위해 각 동리로 하여금 자위단을 조직하고, 연안(沿岸)의 경찰서 및 주재소원으로 하여금 용인(甬人) 수명씩을 사역하여 밤낮으로 연안에 보초를 서게 했다. (1911.02.10)

경기도 경무부에서 흑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자위단을 조직케 하고, 연안 파견의 헌병 순사는 순시할 때에 혹은 자위단으로 하여금 쥐잡기를 하도록 했다. (1911.02.17)

경무부의 위생강습회를 도청 내 선화당내에서 개최했다. 회원은 각 경찰서, 헌병대로부터 선발한 순사, 헌병 23명으로 2주일간 위생법, 전염병 예방방법, 소독실습, 약물취제, 유해품 감정법 과목 등의 강의를 있었다. (1912.01.16)

지난 달 이래로 도청에서 경찰관을 소집해 위생 강습회를 개최해 지난 달 28일에 종료했다. 일반 강습원의 성적은 극히 양호하다. (1912.02.02)

경기 전염병 현황은 적리(이질) 13, 장티푸스 8이다. (1912.09.03)

수원 자혜의원에서 의원을 날을 나누어 지방에 파송해 순회 진단한다하여 도청에서는 각군에 미리 통지해 오는 28일과 10월 3일 장단, 10월 5일과 9일 파주, 11일과 13일 교하, 15일과 19일 통진, 21과 23일 김포, 25일과 29일 양주이다. (1912.09.22)

일기가 점점 화창한 때를 당하여 일반이 위생을 주의할 것으로 각 경찰서에서 청결방법을 시행코자 일반 인민에게 지휘하는 중인데, 그 시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집터와 밭 가옥의 안팎을 청결케 소제할 일, 2. 다다미와 기명과 공구와 의복을 햇빛에 쏘이고 또는 마루 밑을 소제할 일, 3. 누습한 마루 밑을 아무쪼록 통기가 되게 하며, 누습함이 심한 때는 마른 흙과 석탄재로써 균일하게 펴 일, 4. 경찰관리가 지휘하는 우물은 청결하게 칠 일, 5. 우물물이 흐르는 곳과 집안 수도를 자주 소제하고 또는 파상한 곳이 있는 때는 개축함을 더할 일, 6. 변소나 쓰레기 적치한 곳을 소제하고, 파상한 곳이 있는 때는 다시 고칠 일, 7. 물 버리는 개천을 자주 치고, 파상한 곳이 있는 때는 고칠 일, 8. 이상 각항을 시행함을 인하여 생긴 오예의 물건을 처치함은 경

찰관리의 지휘를 좇을 일, 9. 이상 각항 외에 경찰관리가 지휘하는 사건을 준행할 일 (1913.04.08)

수원 자혜의원에서는 의사 수 명이 출장하여 순회진료를 시행한다.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흥, 부평, 강화, 교동읍내에서 실시한다. 진료를 받을 환자는 자력이 없는 일본인(부운, 헌병, 순사의 증명을 요함)과 조선인에 한하며 기타에게는 규정한 약값을 받는다. (1913.09.18)

남부사무소에서 소관 공동묘지에 풍치림을 양성하기 위해 각종 묘목 10,500본을 도청에 청구했다. (1914.01.17)

벽지의 산파 보급을 위해 각 도 자혜의원에서 매년 5개월간 속성 산파를 양성하기로 했다. 경기 산파 입학원 6명은 헌병순사의 부녀자로 산파 부인을 둔 헌병순사는 필요 지방에 재근하게 할 방침이다. (1914.01.23)

수원 자혜의원에서 여러 의원이 관내 순회 진료를 행하는데 일정은 2월 21~28일 여주, 3월 3일~14일 양평, 3월 18~27일 광주이다. (1914.02.06)

공동묘지규칙실시 준비가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1914.02.27)

경기도의 묘지규칙 시행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14.03.01)

1일부터 묘지규칙 시행과 함께 묘지 내에 구역의 등급을 두어 이용료를 징수, 1평에 1등 4원 이내, 2등 2원 이하, 3등 무료, 묘지 내에 동축 또는 종교 상을 위해 일정 구획을 둘 때, 분묘의 면적이 1평을 초과할 때 등의 이용료는 1평에 1등 6원 이상, 2등 4원 이하, 3등 2원 이내, 화장료는 15세 이상 4원 이내, 15세 이하 2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인가한다. (1914.03.20)

경기도에서 6월 1일부터 20일, 20일간 헌병 경찰 관리에게 위생사무 강습을 개최한다. (1914.05.16)

경기도에서는 최근 동물전염병의 발생이 있는데, 축산조합에서는 이를 최대한 방지중이다. (1914.10.21)

경기도 경무부에서 공의公醫, 경찰의醫, 각 대·서장隊署長을 소집하여 전염병 예방회의를 개최했다. (1915.06.22)

경기도 관내 각 면 위생조합 총수는 95개인데, 1915년도 세출입 예산은 세입 58,653원 87전, 세출 57,539원 10전이다. 세입 초과액 1,114원 77전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한다. 1조합 평균 예산액은 세입 617원, 세출 605원이다. (1915.08.27)

수원 자혜의원은 1915년도 제3회 순회 진료를 한다. 11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도내 각 군이다. (1915.11.02)

경기도 내무부에서 28일 오전부터 경기부내 각 경찰서 위생주임 경부 각 경찰관에게 성홍열을 예방연구 회의 진행을 명령했다. (1916.01.28)

본년 1월부터 3월까지 모든 경기도 관내에 종모우種牡牛의 종부種付 상황을 조사한 즉, 종모우는 38두이며, 종부모우는 884두다. 1개우 1두 월 종모우가 약 8두 모우에, 종부한 차교此較이다. 보호 종두우는 현재 115두이며, 종부모우는 2,344두인데, 차를 1개월 평균으로 하면 종모우 1두가 약 7두의 모우에 종부한 차교此較이더라. (1916.06.02)

경기도 경무부 위생과에서 전염병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6월에 장티푸스腸窒扶斯에 걸린 일본인은 23명, 조선인 12명, 적병赤病에 걸린 일본인은 2명, 조선인 5명이다. 7월에 장티푸스에 걸린 일본인은 7명이고 적병에 걸린 일본인은 1명이다. (1916.07.05)

경기도 경무부는 모르핀과 코카인 등을 주사하고 또는 주사 받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령이 내려졌다. 이는 이번 중독자 수용소가 설치된 이후로 치료되어 나가는 자나, 또 기타에 대해 일절 중독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916.08.10)

경기도 경무부가 경성부와 본영 종로경찰서와 협력해 모르핀 중독자를 수용소에 수용했다. 17일에 수용환자는 130명에 달하였는데, 이 중에 퇴원한 사람은 68명이다. 18일에 다시 모르핀 중독자를 검거를 했는데, 본영 경찰서에서 30여 명, 종로경찰서에서 40여 명을 검거해 수용소에 보냈다. (1916.08.22)

인천, 경성, 여주, 개성, 양주, 수원 등 조선 각처에 콜레라가 유행해 환자 다수가 발생하는 바, 현재 환자가 수백 명에 달하고 그 상황이 매우 참혹했다. 이에 당국은 위생 책임을 가지고 밤낮으로 예방에 종사하나, 사람들이 위생에 주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방역을 못하고 있다. 이에 일반 주민은 위생을 중요시하고 전염병 예방 소독에 관한 법령 및 경찰과 관원의 명령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16.09.26)

경기도에서 콜레라가 종식된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부터 25일 오전에 이르기까지 경성부에서는 호역환자가 1명도 추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지 고양군에서 의사 환자 1명이 발생함에 불과하다. 경성부에서 환자는 83명 중 일본인이 12명, 조선인이 71명이다. (1916.10.27)

3월 5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경무부에서 관내 각 헌병대 각 경찰서 위생취급주임을 대상으로 위생강습회를 열었다. (1917.03.16)

6월 4일부터 실시될 산파産婆 간호부 시험 출원자는 38명인데, 그중 미국인이 3명이다. (1917.06.02)

경기도 제5회 산파간호부 시험 합격자 24명에게 6월 7일 구내 선화당에서 합격증서를 수여했다. 산파는 일본인 11명이고, 간호부는 13명 중 조선인 5명이다. (1917.06.08)

1917년 1월부터 6월 20일까지 경기 관내 전염병 환자 발생 수, 적리赤痢 일본인 26명, 조선인 9명, 외인 1인, 장티푸스 일본인 49인, 조선인 78인, 발진티푸스 일본인 3인, 조선인 24인, 성홍열猩紅熱 일본인 48인, 조선인 4인, 중국인 1인, 디프테리아 일본인 64인, 조선인 11인, 외국인 1인이다. (1917.07.06)

원서대로 보통학교에서 작년에 아편 중독자를 치료한 바 있었는데 성과가 좋았다. 올해에도 중독자 10명을 학교에 수용하고 치료하기로 하였다. (1918.05.28)

처음 중국에서 발생하여 일시 창궐을 극했던 콜레라는 점점 남하하기 시작하여 조선 내에 침입한 지 수 주週만에 여러 곳에 창궐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도는 환자 27명, 사망 11명이다. (1919.09.04)

경기도청에서 콜레라 예방에 관해 9월 5일부 도령 제8호로 전염병예방령 제17조에 의해 발표하고, 즉시 시행했다. - 개성군 송도면에서 건강진단 또 사체검안을 행할 사
事, - 개성군 송도면 방면에서 제례 공양 흥행 또는 집회 등의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할
사, - 천파리 천근 유역 전부에서 어로 유영 기타 하수汚水 및 정수井水를 사용함을 정
지할 사(1919.09.08)

시흥군에 일본인 1명, 개성군에 33명 콜레라 발생했다. (1919.09.12)

경기도지사는 10월 3일 도령 제11호로써 콜레라예방령 제7조에 의거 당분간 임진강
지류 한탄강의 연천군 영근면 전곡리 서편과 임진강 본류와 합류점되는 남쪽 유역 전
부 또는 경성부 마포 동서쪽 한강 지류에서 고기잡이하는 것과 물 사용을 금지했다.
(1919.10.05)

콜레라 유행으로 경부선 평택, 성환 양지兩地의 도선장에서도 도보 여객의 검역을 개
시했다. (1919.10.12)

악성 감기 유행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12월 25일 관하管下에 유고와 예방 심득서를 발
했다. (1919.12.27)

지난 호역 창궐이 조선 전도의 인심을 전율케 했는데, 본년은 천연두가 창궐해 각처
에 참혹한 해를 끼치고 있다. 경무국 위생과의 조사를 보면 처음 발생 이래 조선 전도
의 천연두 환자는 약 7,000인에 달하고, 매일 새로 발생하는 것은 100여 명 씩 계산되
어, 천연두가 점점 만연해지는 조짐이 보인다. 그중 가장 심한것은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평안남도 4도이다. 본년의 천연두는 이전에 보지 못한 악성인바, 그 전파되
는 것과 증세가 심하다. 경무국 위생과에서는 각도에 종두 등의 예방 방법을 전달하였
다. 당국자는 “금년의 천연두의 악성은 매우 놀라우며, 평택, 밀양, 부평 등지에서 천연
두 환자를 발견한 일이 있는데, 조선인이 천연두를 경솔히 보는 경향이 있어 매우 놀
랍다. 어떤 지방에 가본즉 석회를 물에 풀어서 손바닥에 바르고 그것을 흰벽에 찍어
두는 걸로 예방이라 하며, 또는 깊은 산골에 있는 눈을 풀어 물을 만든 후 찹쌀을 혼
합하여 술을 만들고 다시 소주로 만들어 가지고 매일 한 잔씩 마시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미신을 믿고 종두를 하지 않으며, 지금도 병이 완치되지 않은 자가 전차와 기
차로 여행하며 전염병을 옮기고 있으니, 일반인은 특히 주의하라”고 했다. (1920.05.10)

지난 16일에 경기도 제3 부장이 각 경찰서 서장에게 콜레라에 관한 통첩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근일에 일본 신호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였으니 관에서 부산에서 출발한 배의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환자의 발견에 최선을 다하며, 만약 건강이상자가 발생할 시 의사에게 그 상태를 빠르게 알려 전염병 예방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1920.06.21)

근일 일본 내지와 안동현 방면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 날마다 사람이 상하고 있다. 조선의 지방에서도 언제 병이 발생할지 모르니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이 빈번하고 인구가 조밀하면 더욱 염려가 되는 고로, 경성부에서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인쇄해 배포했다. 먼저 냉수와 얼음 같은 찬 것을 먹지 말고, 고기, 채소, 생산을 날로 먹지 말며, 익지 않은 과일을 절대로 먹지 말고, 배 속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콜레라에 걸리기 쉬우니 소화가 잘되는 것을 먹으며, 배가 고프다고 너무 과식하지 말고, 배가 차면 설사가 나기 쉬우니 절대 차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배를 내놓고 다니지 못하게 하며, 쓰레기 버리는 곳을 청결히 날마다 소독하고, 석회를 뿌리도록 하며, 파리는 사방으로 날아다니면서 썩은 물건을 주둥이와 손발로 만지고 다니니 파리통과 파리채를 항상 놓고 날마다 파리를 잡도록 하며, 음식 그릇은 항상 덮어 두어서 파리가 덤비지 아니 하게하고, 또 사람의 손가락 끝도 역시 불결한 것을 만지니 항상 청결히 씻는 동시에 입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만약 몸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의사에게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1920.06.28)

경기도 내 3부 위생과 모씨가 말하기를 “현재 방역이 비상히 곤란한 상황이니, 특히 어떤 사람은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숨겨두고 신고하지 않아 이번과 같이 일시에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전염병 예방 전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전염병 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것과, 교통 차단한 곳을 몰래 벗어나 도망치는 자는 벌금과 기타 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1920.08.11)

경기도의 콜레라 환자는 김포군, 강화군에 12명, 연천군에 1명, 양평군에 3명, 수원군에 3명이다. (1920.08.29)

조선 전도에서 콜레라가 창궐 중인데 경기도는 환자가 8,242, 사망이 620이다. (1920.09.04)

경기도지사는 1월 20일부로 유행성 감모 및 성홍열에 대한 예방 유고를 발하고, 24일

부 도보道報로 게재했다. (1921.01.24)

경성부와 도청 위생 당국에서는 대대적 선전과 예방을 계획하여 도 제3부에서 붉은 빛으로 인쇄한 선전지에 “성홍열, 유행성 감모의 예방은 마스크 사용과 예방주사를 함에 있다”는 등 내용의 문자를 한글과 일본어를 합해 박은 1만 매를 인쇄하여 배부한다. (1921.02.05)

경기도 위생과장이 새로 임명되었는데, 전염병이 유행하더라도 사망률을 적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1921.04.23)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 주최로 탑골공원에서 위생 전람회가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1921.07.05)

경기도 내에 홍역이 유행하고 있으며, 1월의 홍역 발생자 수는 15명, 사망자 수는 5명으로 밝혀졌다. (1922.01.31)

경기도 경찰부에서 부내 변소 개량 및 분노 문제 조사계획으로 각 호의 변소 수효와 사용 인원을 조사하였는데, 조선인의 위생 의식이 점차 좋아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1922.09.29)

작년래의 천연두는 악성으로 각 군에 전염이 심하여 용인군은 70명에 달하여 관내 총환자 수는 5백 명을 돌파했다.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는 매일 평균 10명이 고, 악성으로 6/10은 사망한다. (1923.02.24)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각 군 경찰서에 명령하여 5월 24일부터 하기 위생강습회를 개최하게 하여 경찰관, 면리원 위생 등을 도모한다. 중요 사항은 1. 전염병의 조류, 증세態勢와 전염경로, 2. 교통차단과 격리의 구별, 3. 소독 방법과 약품의 용해, 4. 전염병 환자 사자의 취급과 소독 상의 주의, 5. 지방병의 조사비 청구의 건 등이다. (1923.05.27)

경기도에서는 6월 5일 간호부 시험을 거행했다. 지원자 28명 중 결석자 3명이고, 조선인은 1명이며 외국인 4명, 나머지 일본인이다. (1923.06.06)

간호부 시험 결과 8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외국인 여자 4명과 일본인 11명이 합격했다. 산파 시험 결과 조일인 21명 중 조선인으로 한신광, 윤영자, 박복남 3명의 여자가 합격했다. (1923.06.09)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6월 15일부터 제1회 파리 잡는 날로 부내 각 경찰서 비번 순사까지 소집하여 위생조합과 유지자를 독려하여 호별 권유하고 소학교 보통학교 생도에게는 기 1만 5천 개를 배포한다. (1923.06.15)

경기도 경찰부에서 이발 영업자 취체규칙을 새로 시행한 후 그 영업자는 그 영업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현재 영업자 중 경성과 인천의 이발업자에게 시험을 보이기로 했다. 10월 3일 필기시험과 5일 실기시험이다. 접수 마감 결과 일본인 45명, 조선인 58인, 중국인 2명이다. (1923.09.28)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추기 종두를 시행한다. 주의할 것은 조선종두령이 시행된 후 첫째 해이므로 이제부터 종두 받을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보호자를 과료에 처하는 규정이 새로 생긴 것이다. (1923.10.26)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제2회 위생전람회를 11월 5일부터 연천, 의정부, 포천에서 각 이틀간 개최한다. 진열품은 모형과 실물이 100여 점이고, 음식물 위생, 전염병 예방, 학교 위생, 산아産兒에 대한 지식 등이고 야간에는 콜레라, 두창 예방 등의 활동사진이다. (1923.10.31)

경기도 위생과에서 내년 파리 전람회를 개최해 일반의 위생 사상 향상시키고자 진열품을 모으고 있다. 여러 종류의 파리의 성질을 연구하고 전염병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조사해 일반에 참고가 되게 하며 첫 여름을 당하기 전에 개최하고자 한다. (1924.01.31)

경기도 의생은 580인이다. (1924.02.16)

경기 관내 발진티푸스는 점차 만연해 용산, 인천에서 발견되고 26일 파주에서 1명이 발견되었다. (1924.02.28)

경찰부 보안과에서 관내 예기, 창기, 작부의 영업 햇수를 조사했는데, 예기는 최고 9년 2명, 창기는 7년 1명, 작부는 2년 3명이다. 그 합계는 예기 540명, 창기 493명과 아녀자 3명, 작부 3명이다. 예창기의 원적지를 조사해보면 경기도는 기생이 341명, 창기 113명이다. (1924.03.30)

경기도 이발시험은 3월 31일에 종료했는데 수험자 251명 중에 조선인은 138명이다. 시험기일은 4월 13~23일에 행하며 필기 수험자는 13일에 필요 물품을 휴대하고 경기도청에 출두해야 한다. (1924.04.09)

올해부터 경기 관내 이발업자에게 이발시험을 시행한 후 무자격자는 영업을 정지시킨다. (1924.08.21)

최근 10년 동안 경기 관내 전염병 환자 총 12,928인, 사망자 7,031인이다. 1920년 콜레라로 인해 사망자 수가 2,910명으로 가장 높다. 10년 동안 장티푸스가 5,740명, 사망자 1,244명으로 제일 많다, 사망률은 호열자 75%, 두창 30%, ‘지부테리아’ 27%, 성홍열 26%, 적리 24%, 염병 22%, 발진부사 20% ‘파리지부스’ 9%이다. 비교적 사망이 많은 것은 조선인은 감추는 폐단이 있기 때문이다. (1924.08.31)

경기 위생과에서 올해 제2회 산파 간호부 시험을 기생한다. 10월 20일 간호부 시험, 21일 산파 학술시험, 23일 실지 시험을 행할 것으로 원서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924.09.13)

경기 경찰부에서 경찰관의 가족의 부업으로 조산부 양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조산부 강습회를 개최하고, 산파수험 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원자는 12월 15일까지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1924.11.09)

관내 올해 전염병 환자 총 1,677명이다. 사망자 295명, 완쾌 1,274명, 나머지 현재 환자 108명이다. 작년 3,116명에 비교하면 감소했다. 작년에 천연두가 유행했던 까닭에 감소한 듯하다. (1924.12.18)

경기도 위생과에 있는 산전직흥, 하원영조가 편찬한 ‘묘지설치요의’는 출판 1개월 내에 초판 수천 부가 전부 팔리고, 재판再版에 부쳤다. 공동묘지제도가 생긴 후로 조선사람이 얼마나 묘지문제에 고통을 받아 온 것을 용이容易히 추측할 일이다. (1925.01.17)

자혜의원 명칭을 4월부터 도립의원 또는 도립병원으로 고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1925.01.27)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11일 부내 각 경찰서 위생계 주임을 소집하여 해빙 후의 시내 하수 청결 방법과 기타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협의를 한다. (1925.03.11)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술을 먹고 졸도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감정하여 알아내는 기계를 사들였다. 수은주형 혈압계라는 것이다. 그 도수가 혈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아 150도 이상 올라가는 사람은 언제 거꾸러질는지 알 수 없으니 경계해야 한다. 경도제대 추장 의학사가 발명한 것이다. (1925.04.08)

경기도 위생과에서 파리 박멸을 일반에게 장려하기 위해 총독부 위생과 기사村田昇清가 극히 통속적으로 파리 정벌의 창가를 지어서 村岡樂童이 작곡하여 인쇄한 것을 교수재료로 관하 각 학교에 배부하여 유용하게 이용하라고 통첩했다. (1925.05.25)

장티푸스는 수해 당시를 전후하여 가장 창궐하였으며 현재에도 부내에 178명, 군지역에 113명의 환자가 수용되어 있다. 6월 이후 발생 환자 수는 6월 209명, 7월 195명, 8월 272명, 9월 149명, 합계 925명, 경성부 562명, 군 지역 363명이다. 사망자 수는 경성부 117명, 군지역 73명이다. 1월 이후 누계 환자는 1,166명, 사망자 226명이다. 작년 환자 884명에 비해 280여 명 증가이다. (1925.10.04)

경기도 관내에서 9월 중 발생한 장티푸스 환자는 153명에 달한다. 그 밖에 이질과 기타 전염병 발생 수는 88명이다. 금년까지 발생한 전염병 환자 수 누계는 1,114명이다. (1925.10.10)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청량음료수의 수요기가 가까워오므로 제조소와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취제를 하는 중인데 성적이 일반으로 양호하며 아직 화학적 검사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위생시험소에서 시행할 것이다. (1927.04.22)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에서 관내 경기도 일원에서 제조하는 사이다와 라무네와 기타에 대해 4월 23일부터 불량 여부를 검사한 결과 48종 중 하나도 불량한 것을 발견치 못했고,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작년에 팔다 남은 것이라 한다. (1927.05.26)

경기도 6월 중 전염병 발생 수는 모두 1,101명(경성 포함)인데, 연천에 114명, 포천에 70명, 광주에 63명, 이천에 57명이다. 종류는 발진티푸스 536명, 장티푸스 261명, 성홍열 171명, 디프테리아 65명, 이질 58명이다. 작년보다 584명 감소이다. (1927.07.12)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산파학 강습회를 개최한다. 정원은 20명이고, 9월 20일까지 원서 제출하는데, 보통학교 졸업 정도이면 입학할 수 있다. 2~3년간의 성적을 보면 이곳에서 강습을 마친 자는 대개 산파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보아 매우 양호하다. (1927.09.06)

경기도 위생과에서 9월중에 집행한 간호부와 산파 지원자 시험에서 조선 여자 8명과 일본 여자 20명이 합격했다. 10월 4일 입소식을 거행했다. 강습회 기간은 6개월이고 강습이 끝나면 다시 지원에 의해 간호부 또는 산파의 시험을 보여 합격자에게 개업을 용허容許한다. 종래에는 간호부나 산파 지원자를 대개 경찰관의 아내에게 국한하였던 것을 이번에는 전폐하고 가정 부인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1927.10.05)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8일 이발사시험을 거행했다. 지원자는 조선인 33명, 일본인 1명인데, 결시자는 3명이다. (1927.10.09)

경기도 관내에 발진 장티푸스는 그 후 더욱 창궐하여 재작년 3월 포천군에 10명 연천군에 9명(2명 사망) 기타 1명으로 모두 20명이 병에 걸렸다. 이로서 환자의 총수는 148명에 달하였다. (1928.02.06)

경기도내 발진 장티푸스는 더욱 창궐하는 형세로, 5일에 여주에는 7명, 양평에는 5명이 새로 발생했다. 그 중 사망자는 11명이고, 6일까지 각 군에 현재 환자수는 다음과 같다. 광주 40명, 양주 26명, 포천 44사명, 양평 5명, 여주 7명, 연천 9명이다. (1928.02.07)

경기도 도내의 발진 장티푸스는 현재 다소 종식되는 모양이었으나, 9일에 포천에서 9명, 광주군에서 2명의 신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총 환자는 231명이고, 시내에도 이미 병에 걸려있는 환자 6명 외에 10일 오전 또 1명이 발병해, 모두 7명의 환자가 있다. (1928.02.13)

경기도 관하 군부郡部의 발진 장티푸스 에 걸린 사람이 추가로 발생했다. 17일에 인천 부와 부천군에 7명, 포천군에 5명, 여주군에 4명, 양평군에 3명, 그 외 경성부에 1명 합계 2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17일까지의 발생환자 통계는 345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28명, 완치자는 54명이다. (1928.02.19)

경기도 군부郡部의 발진 장티푸스 환자는 22일 양주에 24명, 구천에 3명, 양평과 여주, 경성부내에 각 1명씩이다. 23일에는 연천에 3명, 파주에 3명, 경성부내에 4명의 환자가 발생해 발생환자의 총수는 415명에 달하였다. 그동안 사망자는 35명이며, 완치자는 86명이다. (1928.02.24)

경기도는 4월 초부터 종두를 실시했으며, 5월 말까지 할 예정이다. 경성부, 인천부, 개성, 수원, 영등포 기타 각군등 각지 방면의 경찰서에서 종두를 실시한다. 경성부 2만 3천인을 필두로 도내 전부에서 15만 2천명이 종두를 받았다. (1928.04.18)

경기도는 조선의 중심이면서 또한 경성, 인천등지의 현대적 도시가 있어서 모든 것이 궁벽한 향촌에 비하여 모든 설비가 문화적으로 되는 중이며, 위생사상도 일반적으로 철저히 보급되어야만 하는데, 실제로는 예상 이상으로 낙오되어 국민보건상으로 보아서 도저히 적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다. 이는 물론 우리의 생활이 너무도 궁핍하여 증병에 걸리더라도 의약은 커녕, 미음조차 먹을 수 없는 현상이라 한다. 그럼으로 이에 착안해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다전 의사多田醫師, 표약제사倭藥濟師, 조수1명, 경관 3명씩 조를 만들어 순회진료를 행하며, 위생전람회, 위생사상을 가진 선전 영화회를 각 군에서 개최한다. 가평 읍내에서는 9일 10일 양일동안 순회진료를 실시했는데, 9일에 320명, 10일에 250명으로 합계 570명의 환자를 발견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570여명의 환자 중에서 공의公醫의 진찰을 받은 사람은 극히 근소했다. 이는 참으로 새심塞心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주방위 위생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부郡部에서는 공의와 의생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도 완비치는 못하나, 그래도 구급이 될만한 영도程度인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인 바이며, 원인은 대개 위생사상이 보급되지 못하며 병을 숨기는 악습이 있는 까닭이라 하겠으니, 순회진료는 금후로도 계속 하겠다”라고 했다. (1928.09.14)

1928년중 경기도 전염병(장티푸스, 이질, 성홍열, 발진티푸스, 디프테리아, 유행성 뇌막염) 통계를 보면 총수 5,036명으로 그중 803명이 사망하고 12월 31일 현재 235명의 환자가 있다. (1929.01.13)

장티푸스 창궐 1주기를 앞두고 1월 15일 경성부 각서^{各署} 위생주임회의가 개최되었다. 예방 방법 협의 결과 1.분변검사, 2.야채소독 방침을 결정했다. 결국 장티푸스의 예방은 비료에 있다 하여 금후 이의 연구를 하기로 했다. (1929.01.17)

경기도 위생과에서 시내에 부정 매약상^{賣藥商}이 많아 그 피해가 적지 않으므로 7월 4일부터 제조업자 취체를 개시했다. 동시에 여름철 보건을 위해 일반 음료수 제조 판매업자의 취체도 개시했다. (1929.07.05)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윤씨⁽³⁷⁾라는 여자는 9월 22일 오전 11시경 황금정³정목에서 전차를 타고 가다가 토사하여 일대 소동을 했다. (1929.09.24)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 조사에 따르면, 금년 10월과 작년 10월의 전염병 발생 및 사망 비교에서 대체로 보아 금년은 장티푸스와 디프테리아 발생수가 많으며 사망자수가 일반적으로 적은 것은 금년 유행병은 대체로 순성^{順性}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위생과장^(주방)은 “앞으로 주의할 것은 현재 발생 추세로 보아 장티푸스, 성홍열, 디프테리아로서 어린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성홍열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1929.11.06)

1929년 11월중 발생한 도내 전염병 발생자수는 294명으로 작년 11월에 비해 53명의 증가이고, 사망자수는 64명으로 55명에 비해 9명의 증가이다. 그중 장티푸스가 심하다. (1929.12.10)

11. 자연재해, 가축 전염병

경기도에서 1910년 8월 28일 홍수의 피해를 조사해 사망 2명, 가옥 유실, 침수 및 논밭의 유실, 침수로 농작물의 피해액은 810원의 내용을 내부 보고했다. (1910.09.10)

경기 각 군은 지난 날 동풍으로 인하여 화곡이 자고하여 손해가 많았다. (1910.09.17)

7월 1일에 남양군 우정면, 통진군 봉성면, 안산군 군내면 등지에 낙뢰하여 농민 3명이 즉사했다. (1911.07.09)

경원선은 지난 18일 청량리-창동 간, 창동-의정부 간 4개소가 침수하여 열차가 불통되어 동일 중에는 개통의 소망이 없고, 완산가도는 경성-의정부 간 의정부의 남방 20정의 지점에서 3백 정보가 침수해 도보자는 철도선로를 왕래하고, 의정부의 동방 약 20정의 지점 완유가도에서 하수가 범람해 의정부-송우리의 교통이 두절됨, 의정부-양주는 겨우 철도선로를 통행하며, 장단군 고량진 간 구가장, 삭녕-연천 간, 서호라-금천 간은 침수로 인해 교통이 전부 두절되었다. (1912.07.20)

경기도에서 관내 각 공립보통학교와 간이●●학교에 도작稻作 해충 표본을 제작케 하여 교수자료에 제공코자 각 부윤 군수에게 해충표본 제작을 통첩했다. (1913.09.26)

경기도내 참새 구제 성적은 171만 8,952마리를 죽였고, 알 채취수는 136만 1,291개이다. (1913.10.01)

작년부터 경성 이남 지방에 잔디등에가 발생했는데, 본년은 다행히 아직 발생이 없으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청에서 27일부로 각 부군에 대해 예방 통첩을 내렸다. (1914.08.01)

경기도 지방에 호우가 내려 인명 피해, 가옥 피해, 교량과 도로 유실 등 수해를 입었다. (1915.07.28)

7월 24일 전후 경기도 관내 대홍수 피해상황은, 사망 37명, 부상 13명, 행방불명 4명, 가축 사망 51, 행방불명 11, 가옥 유실 38, 손궤損壞 149, 침수가옥 14,111호, 피해 예상액 51,952원, 전답 매몰 침수 유실에 따른 피해 예상액 48만 7,300원, 기타 택지, 산야, 도로, 제방, 철도, 교량, 철교, 전주電柱 도괴倒壞 산붕山崩 등의 매몰, 유실궤, 침수, 파손에 따른 손해 예상액 약 18만 천원이다. (1915.08.25)

1915년 수해로 경기도 인명 피해는 사망 37명, 부상 12명, 행방불명 3명이다. 가옥 유실 44호, 전파 164호, 반파 352호, 마루까지 침수 688호이다. (1915.10.09)

경기도에서는 본년 9월 각 군의 참새 잡기에 노력했는데, 어미 및 새끼 참새 330만 1천 960마리와 알 209만 7천 765개를 포획했다. (1916.12.14)

경기도 지방에는 4월말부터 약 40일간 강우(降雨)가 없어 거의 모내기가 불가능하고, 묘(苗)에는 간신히 고사(枯死)를 면하고 있다. (1917.06.17)

가평군 관내 및 장단군 일원에 야도충(夜盜蟲)이 발생하여 조, 수수, 稗(粟), 제비보리의 피해가 심해 피해 면적이 460정보이고 피해예상액은 6,900원이다. 도에서는 군 직원, 기술원을 피해지에 출장케 하여 경찰 헌병 직원과 협력하여 경작자로 하여금 논밭에 도랑을 파고, 포충기를 사용하여 포살케 하는 중이다. 피해가 격심하여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는 곳에는 秋蔴(가을파종 품종), 蕎麥(메밀)을 파종케 했다. 황해도 재령군 관내에도 같은 해충이 발생했다. (1917.08.11)

8월 10일 호우로 우량 52밀리미터인데, 부족이 없는 우량(雨量)을 얻었으므로 수확은 예년과 같은 풍작을 예상한다. (1917.08.12)

1917년 1월부터 7월까지 광주, 가평, 강화, 진위, 김포, 양주, 이천군에서 참새와 그 알을 잡았다. (1917.09.09)

경기도에서 해충구제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높은 자를 선발해 1등 10명, 2등 30명에 대하여 각기 상품을 수여하였다. (1918.04.05)

경기도를 중심으로 충북까지 농업용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용수가 풍부하지 않아 간신히 물을 대고 있고, 10일내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1918.06.14)

모내기를 하려면 비가 많이 와야 하는데, 올해는 강수량도 적고, 해가 강해서 사람들이 그 시기를 놓치고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저 비가 내리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1918.06.23)

경기도의 식부 상황은 이전에 가뭄으로 용수가 부족하였는데, 비가 내리게 되어 7월 안에는 전부 모내기를 끝낼 수 있었다. (1918.07.06)

전국적으로 8일간의 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었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가옥이 침수되고, 우편과 교통이 마비되었다. (1918.07.11)

수해로 인해 철도에 피해가 있었으나 크지는 않았다. 경인선은 잠시 두절되었고, 경부선과 경원선은 일시 불통되었으며, 급행열차들은 대정착이 있었다. (1918.08.17)

용문산에서 큰 비로 인해 홍수와 함께 산이 붕괴되며 산에 있는 인가를 끌어내어 주민이 여럿 사망하였다. (1918.08.29)

경기도 관내 발생한 유행성 아구창에 대해 축산주임은, ‘병든 소의 수는 3월 21일 120두였으나 점차 회복기에 들어서 거의 종식되는 터이다.’라고 말했다. (1919.04.09)

경기도 관내 조사 종료 결과 8월 5일 기준 가뭄 피해는 수도水稻 6푼, 육도陸稻 1할 8푼, 조 1할 1푼, 콩豆 1할 2푼, 소채 1할 1푼, 면 6푼이다. (1919.08.18)

경기도청에서 기수를 파견하여 연초경작상황을 조사 중이다. 지난 번 강우와 26일의 강우가 있으나 가뭄 피해가 심해 용인, 광주,의 주산지에서 56할 쯤 감수 예상이다. (1919.08.27)

3일 밤 이래 대 폭풍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은 경기도 권업계 주임이 각 군으로부터 전보를 통해 보고받은 바, 이천은 3푼, 수원,은 사소하다. (1919.09.06)

경기도내 비교적 가뭄 피해가 극심한 안성, 수원, 진위, 부천, 파주, 이천의 6군에서는 저리로 농사자금을 차입하여 이재민을 구호할 필요가 있다. 자금 차입에 관해 도청에 신청 중인데, 도에서는 당해 군수 혹은 서무주임을 소집하여 15일 이를 협의했다. (1919.12.17)

경기도청에서는 7월 7일부터 수해상황을 조사했다. 특히 관내 북부 여러 군의 피해가 막심한데, 피해 사망자가 일본인 1인에 조선인 16인, 부상자 조선인 5가^家, 돼지가 404마리 죽었다. 행위불명이 178, 주거지 유실이 48호, 전궤全潰 367호, 반궤半潰 605호, 상상침수床^上浸水 일본인 8,684호, 조선인 5,776호, 외국인 17호, 기타 건물전궤 6호, 반양半壤 81호, 상상유수床^上流水 739호, 답유실沓^失 271정 3반反 매몰埋沒 542정

침수 1만 4천 107정 6 반퍽, 작물피해 44만 176원, 전유실 278정 3반, 매물 177정, 침수 7,819정, 일반 작물 피해 118만 4천 661원, 도로 피해 9천 825원, 매물과 유실 4천 34간 등이다. (1920.07.28)

경기도 소 유행성 감기는 더욱 창궐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본월 초순 황해도 지방으로부터 침입한 것으로 이태 파주, 개성, 고양 등 군에 유행하여 점차 남하 상황을 보이고 현재 거의 각 부군에 유행을 보인다. 경과 는 대개 경이輕易하여 경증은 2~3일, 중증은 1주일 이내에 전치全治하고 다른 합병증을 발병치 않은 이상 폐사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다. 발병하면 발열, 감식 또는 절식, 운동기 고장 등으로 인해 농경, 운수 상 직접 간접으로 손해를 입는다. 경기도 내무부장은 치료 및 예방 상의 주의에 관해 도내 일반에 상세한 통첩을 발했다. (1921.10.02)

경기도는 이번 호우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정도를 조사하고, 각 군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비가 많이 왔으나 그 시간은 짧았으므로 의외로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1922.07.24)

7월 23일 오전 10시 보고에 따르면 경성-목포간 1등 도로 수원 유천교가 15칸 가량 파괴되어 그 부근 철도 가설교로 통행하며, 평택-온양간 3등도로 평택교가 다리목이 파괴 유실되어 통행이 두절되었으므로 도선을 준비중이며, 평택-장호원간 3등도로 대덕면에 깊이 5천, 길이 약 100칸이 유실되어 통행 두절이다. (1923.07.24)

7월 20일 이태 호우로 인해 경기도 관내 12등 도로 교량, 암거暗渠의 파손 개소 및 이 복구비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도로파손 124개소, 공사비 48만 5천여 원, 교량은 201개소, 공사비 65만 8천여 원, 암거는 328개소, 공사비 18만 7천여 원이다. (1923.08.16)

6월 7일 오전 8시 53분에 인천축후소에서 미진을 관측했다. 추정 진원지는 인천 남동쪽 5리 반의 지점이다. 이 지진은 지상에 손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다. (1925.06.09)

7월 16일 오후에 양자강揚子江 상류에 있던 저기압은 17일 아침에는 상해上海 북부에 있어서 조선 중부로 흐르는 중이다. 이로 인해 조선 중부에는 큰 비가 내리고 그 외에는 대개 적은 비라도 내리는 중인데 겨우 날빛을 보는 곳은 국경 방면 일부밖에는 없

다. 비는 다시 수일동안 더 내리겠다. 경성측후소에서 발표한 17일 아침부터 오후 1시까지 한강 상류 지방에 내린 평당^{坪當} 우량^{雨量}은 다음과 같다. 광주 20,130작^작, 이천 24,422작, 연천 25,071작, 의정부 18,117작, 양평 22,692작, 인제 37,783작, 단양 21,228작. (1925.07.18)

7월 23일 경기도 경찰부 발표 제3보에 따르면 사망 194명, 전파가옥 537호이다. (1925.07.24)

경기도 관내 금융조합의 수해 손해 정도는 조사 중이다. 피해 금융조합의 회수^{回收} 불능은 연기한다는 의미이고, 저리자금 융통은 없다고 한다. (1925.08.12)

경기도 수해 이재민은 또 다시 구조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많다. 날은 추워지고 돈벌이 할 길은 적어지고 물가는 비싸게 되면 악화가 된다.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경성부를 제외한 전 도에 그 같은 사람을 조사한 결과 8백여 명에 달한다. 그들은 공연히 도회지에 가야 산다는 뜬소문만 믿고 경성부내와 수원 등지로 몰리는데, 최근까지 경성시내로 들어온 것만 4백여명이다. (1925.09.12)

7월 17일에 내린 비로 인해 양주에서는 제방이 무너졌으며 약 50정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천과 광주도 역시 수해를 입었는데, 자동차는 물론 오인마의 교통도 전면 두절되어 우편물의 배송도 정지되었다. (1926.07.19)

연일 호우로 전국 각처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수원의 수해가 가장 심각하다. 수원에서 침수된 집이 약 200호고, 제방파괴가 100간이다. 평택에서는 8월 2일에 팔척이 증수되어 전답 침수가 3정보고 도로파괴가 250간이다. 이천에서는 8월 1일 오전 3시경부터 비가와 도로가 침수되어 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1926.08.03)

지난 4일 오후부터 경기도내에 수해가 발생했는데, 양주와 이천의 피해가 특히 심하다. (1926.08.06)

경기도에서는 부진자 발생 만연의 우려가 있어 부진자 구제를 실시했다. (1926.08.21)

경기도 금년 보리 흉년, 발육상태 대불량, 원인은 괴천후, 지난 겨울의 큰 추위와 요새의 추위가 원인, 심한 곳은 여주와 이천, 농촌에 절박한 문제이다. (1927.05.14)

7월 11일 이후 장맛비가 중부 이북 일대에 모양없이 내렸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강원, 황해, 평안남북도 등에 적지 않은 수해를 당하게 되었다. 한강은 14일 밤까지 30척 가량 증수될 예상이다. (1927.07.15)

경기도 관내 충해蟲害는 예년보다 심하지는 않다. 부진자, 면충, 야도충이 발생하여 각 군에서 도 농무과에 매일 보고를 한다. 부진자는 전도를 통해 창궐하여 모든 주요 작물을 해치고, 면충은 과수원을 해치고, 야도충은 연천, 양평 등지의 밭곡식田穀을 해친다. (1927.08.09)

연천, 포천, 여주, 이천 등지에는 짚벌레葉卷蟲 피해가 적지 않다. 다행인 것은 더 이상 피해는 없다. (1927.08.18)

작년 경기도에서 송충松蟲의 자양滋養 가치를 발견하고 시식회까지 개최했는데, 이제 한층 더 송충의 자양가치를 실용화시키는 동시에 송충 구제를 장려하기 위하여 경기도 삼림조합중앙연합회 주최, 조선산림회 후원하에 송충 식용 요리법을 현상 모집한다. 더욱이 이 목적은 일반 농민에게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상금은 1등 1인 50원 등이고, 기한은 9월말이며, 규정은, 응모자는 서로 실험하여 농민에 적당한 조리법이라는 자신이 있을 것 등이다. (1929.05.05)

최근 가뭄으로 수원, 용인, 김포, 강화, 연천 등 각 군에 부진자가 발생했다. 도농회에서는 8월 1일부터 ‘부진자의 구제’라는 선전문 4만장을 도내 각군에 배부하고, 5일부터 7명의 조사원을 파견하였다. (1929.08.05)

1929년 9월 초순경부터 축우의 유행성 감모가 발생하여 남선 일대부터 시작하여 약 1개월만에 황해, 평안, 함경까지 만연되었다. 10월 5일까지 경기도 농무과에 보고된 관내 현상은 고양 900, 광주, 200, 김포 350, 강화 300 개성 350, 수원 407, 포천 250, 이천 400, 안성 400, 진위 500, 부천 160의 약 4천 두로 기타 아직 보고가 도착하지 않은 곳까지 합하면 약 7천두가 된다. 병세는 약해서 폐사한 소는 4두이고, 2~3일 내지 4~5일 지나면 낫는다. 도 농무과 축산계에서는 “감염된 경로는 도내에서는 김포군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호남선으로부터 바다를 거쳐 들어 온듯하다.”도 말했다. (1929.10.06)

12. ‘교화’와 이재민 구호

1910년 8월 29일 병합 당일의 일자로 경기 효자 154, 절부 106인이다. (1910.11.05)

경기도장관 회원직우^{檣垣直右}가 8월 29일에 반포한 조칙에 의하여 각 부군의 사환미를 면제하고 그 액수를 조사하여 내무부와 탁지부로 보고하게 했다. 쌀이 4,919석, 보리가 1,367석, 적두^{赤豆}가 40석, 조가 36석, 금액이 2원이었다. (1910.12.15)

경기도 경무부에서 2일 6일 관내 반족^{班族} 166명, 유생 114명에게 은사금 사령서를 나눠주었다. (1911.02.08)

은사금을 받고서 풍덕군에는 선정비, 양성군에는 기념계를 설치했다. (1911.11.19)

경기도에서 하부한 1911년 관내 효자 은사 은상금은 287명에게 2,780원, 환과고독 구휼금은 6,239명에게 21,707원이다. (1912.01.14)

내무부에서 정무 상에 참고할 일이 있어 각 관내의 반족유생의 자녀 8세 이상부터 15세 된 자를 조사 수보하라 하여 관내 각 파출소가 지금 조사하는 중이다. (1912.06.21)

경기도 내무부장은 각 부군청에 일반 인민에게 법령 기타 사항을 주지하는 각 부군면의 게시장에 기한이 경과된 게시, 필요하지 않은 게시, 종이의 파열로 서사가 불명함 등 불결하고 관청의 위신을 손실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게시장을 정돈하라고 했다. (1912.10.29)

도청에서 일본, 조선인 실업공로자를 조사수보하라 하니, 총 54명으로 조선인 42명, 일본인 12명이다. (1912.12.06)

우량한 동리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하부^{下付}하여 적극적 농사개량상 제반 시설을 하게 하여 다른 면리에 모범이 되게 하고 면면 경제의 기초를 확정케 할 목적으로 작년에 수원군 남부면 지리에 모범촌을 설치했는데, 그 성적이 양호하여 본년도에 개성, 인천, 여주, 안성, 진위, 이천 등 6개소에 설치하기로 하고 동리를 선정중이다. (1913.05.30)

각지 보통학교에서 번갈아가며 개최 중인 환등 응용 통속 강화회는 각지가 함께 약 5~600명 이상의 입장자로 성황을 이룸, 지금 가평, 안산, 파주, 장단 등 각 공립보통 학교에서 개최 중이다. (1914.04.15)

근래 시대의 변천과 함께 그 양풍(良風)이 일소되어 사회가 점점 경박해 감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작년 여름 이후 민풍의 진흥을 꾀하여 양로(養老)와 빈궁자를 구제하며 조혼(早婚)의 폐를 바로잡기 위해 리 또는 소부락을 단위로 하여 각지에 공조회라 하는 것을 조직케 했다. 작년 중에 광주군 6, 양주군 9, 가평, 양평, 안성 각 1개소, 강화 각 2개소의 설치를 보았다. 이 설치 이래 규칙 취지에 따라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축하금을 주고, 관례(冠禮) 때에는 주연을 폐하여 저축금으로 하는 등 점차 그 효과가 현저해지는 고로 경기도에서는 그 증설을 장려하는 중이다. 이번 연천군에서는 9개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역원 전형 중이다. (1919.07.08)

경기도청에서는 가뭄으로 관내 도작 예상이 평년작에 비해 평균 6할에 불과하고, 농민은 소작인이 다수여서 지주와 절반 소유하게 되어 겨우 3할에 불과하므로 곤궁(困窮)을 호소한다. 11일에 권업, 지방, 서무, 관방 등의 주무자가 협의했는데, 구제방법에 대해 권업과장은 모종의 사업을 일으켜 노동임금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했다. (1919.09.15)

경기도 지방과장은 가뭄 피해민의 구제책에 대해 설명했다. 소할(所轄) 군수 보고에 따라 농가호수 33만여 호 중 18만여 호는 1년을 통해 자가 소득에 의해 생활할 수 있으나 5만여 호는 내년도 수확 전에 상당한 구제방법을 강구치 않으면 자활하기 어렵다. 식료의 최소한도 1인 1일 평균 속 3홉으로 견적할 때 6만 3천여 석, 환산가격 190만여 원이다. 이외 일상 생활비를 요망하는 고로 이를 더할 때는 더욱 그 액은 거액에 달한다. 이에 대해 가뭄 피해민의 구제책으로 각지에 노은(勞銀)을 살포하며 또는 지주를 활동케 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지방 주민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결국은 국고 보조를 바라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이다. (1919.10.01)

총독부는 지방교화 시정선전 등 사업에 착수코자 하여 각도에 통첩했다. 경기도에서도 1921년도 예산에 ●5만원을 계상하여 착수할 예정이다. 도 이사관(山內忠市)은 “경기도는 지방과에 수명의 축탁원을 두고 도내 각지에 출장케 하여 지방개량 시정 중지(施政衆知)의 선전을 행하며 활동사진 혹은 환등 또는 축음기 등일 이용하여 민중교화

에 다할 터이며, 금년도는 촬영기 등도 구입하였으며 또 수시로 명사를 초빙하여 각 지에 강연하여 면·리의 이원(吏員) 유력자를 모아 지방개량 사회 사업강습회를 열며 도면리원을 선발하여 일본 우량 정·촌(町村)에 촉탁하여 실무를 가르게 하며, 지방 청년회 기타 사회적 단체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방의 장로 선행자 등의 표창을 행하며 또 70~80명의 관광단을 조직하여 여러 차례 일본 우량 정촌 등을 시찰케 함으로써 점차 지방 개량의 실(實)을 거두기로 노력하며 지방과(地方課) 중에 조사부를 두어 지방 개량 사업 진전의 모양을 조사하고, 항상 이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얻으리라 생각한다” 운운 (1921.02.17)

경기도 시정(施政) 선전용 활동사진반은 사회교화 순회강연을 개최한다. 강사는 도참여관, 이사관 등이고, 용인, 여주, 양평, 이천, 안성군 등이 대상 지역이다. (1921.08.16)

경기도 주최 사회교화 순회강연회는 23일 여주군 금사면 이포공립보통학교 교정에서 개최되었다. 청강자는 각 면장, 각 구장, 면협의원, 도평의원, 학교조합 평의원, 기타 지방유지 약 650명이다. 학동(學童), 기타 관람자 총수 약 2천명에 달했다. 24일 이천군 신둔면사무소 논산 뒤 산 중턱 경사지에서 개최되었다. 청강자는 면내 공직자 및 유림 기타 각 지식계급의 유력자 약 150명이다. 일반 관객이 약 2천 5백명에 달했다. (1921.08.30)

경기도 주최 사회교화순회강연회는 8월 26일 안성군 죽산공립보통학교 교정에서 개최했다. 청강자는 240명이다. 저녁 8시부터 활동사진을 영사하여 10시에 종료되었다. 관람자는 약 2천인이다. 27일에는 안성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청강자는 약 6백여명이고, 저녁 8시 활동사진 영사에는 관람자 약 5천명이다. (1921.09.02)

경기도 참여관 김윤정이 이끄는 8월 26일과 27일에 열린 강연회 내용은 총독부 시정 방침이고, 활동사진은 농사개량에 관한 것이다. (1921.09.02)

경기도 사회교화 순회강연은 10월 18일부터 포천, 영평, 연천, 양주, 의정부이다. (1921.10.15)

경기도 사회교화강연이 11월 25일 가평읍내, 26일 청평리, 29일 광주읍내, 30일 구천면 상일리에서 있다. (1921.11.22)

경기도 내에 지방개량사업을 위해 총독부에서 사업단체의 대표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다. (1922.01.14)

경기도에서는 관내 각 부운에게 절약의 취지로 흰옷보다는 검은색 옷을 입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때도 안탈 것이고, 빨래하기에 더 수월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1922.12.21)

경기도 사회과에서 도내 부락민의 자치적 문화지도를 위해 여러 필요 자료를 모집, 조사 하는 중이다. (1924.01.29)

경기 사회과에서는 도내 농촌에 지리적 부락을 단위로 공조회를 설치, 독려하고 농무과와 협력해 고통 교화, 근면, 저축의 풍속을 일으키며 부업의 장려하는 중이다. 작년 10월 이래 새로 설치된 공조회는 28개소다. 지금까지 성적이 양호한 2개의 청년회, 1개 부인회에, 3개 공조회 유사단체에 도지사로부터 표창했다. 우량단체에 지방비로 50~100원씩 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이다. (1924.04.09)

9월 21일부터 5일간 경기도 주최로 인천 임해학교에 지방개량 강습회를 개최한다. 자격은 부군 선출자 2명, 부 군속, 학교 직원, 유지로 강사는 동양대학 교수 외 다수이다. (1924.08.03)

경기도에서는 하사받은 구휼금 650원을 수해 피해지에 각 배분했다. 사망자 5원, 유실가옥 1호에 1원 70전, 전궤 가옥 1호에 1원으로 배부했는데 사망자 합계 31명 155원, 유실가옥 합계 96호 163원 10전, 전궤가옥 328호 328원이다. (1924.08.19)

대정 8년 이래 초유의 화재로 피해를 본 경기 12군에 대해 세무과에서 11월 말일까지 전부 처리를 종료해 면세 총 면적 7,000정보, 면세액 22,000여원, 면세자 5,800여명이다. (1924.12.13)

경기도와 경성부에서는 시간 준수 포스터를 “피차에 시간을 여행(行)합시다.” “때를 존중히 여행(行)합시다.”라는 표어를 각각 넣어서 각 관청과 학교에 배부하여 일제히 이날에 기념을 기하여 시간에 대한 강명을 굳게 주기를 기약한다. (1925.06.10)

경기도에서는 각 군 향교 재산을 이용하여 각 군 주최로 지방개량강습회를 개최하여 각 군 내에 있는 청년중에서 중견이 될만한 인물을 소집하여 3~5일 동안 강습하고, 강사로는 군청 또는 금융조합, 경찰서의 임원 중에서 전문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교수케 한다. 포천, 시흥, 수원 등지는 이미 종료하였고, 8월 20일부터 장단, 가평, 진위 각 군에 시작한다. 고양과 부평은 향교재산이 없어 할 수 없으나, 그 외 각군은 연중행사로 금후 매년 춘하추간에 계속 개강한다. (1927.08.19)

경기도에서는 3단체를 모범단체로 선정하여 총독부에 보고했다. 3단체는 다음과 같다. 파주군 임진면 주남동 순후회, 부천군 문학면 부민회, 진위군 오성면 오성면부인회. (1927.08.27)

천재, 수재, 충재蟲災, 풍재, 한재, 상재霜災가 연속적으로 발생해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에 대해 농무과에서는 계속해서 닥쳐오는 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금후 일반 농가의 생활장해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도내 각군의 농업기술원들을 소집하여 28일과 29일 양일에 공립보통학교 안에서 재해대책에 대한 실행상의 협의회를 개최한다. 그 대책으로는 이미 농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일반 농가로 하여금 호맥蒿麥을 많이 심게 하고, 다가올 봄의 식량을 예비하게 하는 동시에, 또 승입繩入 제조와 기타 부업을 많이 장려하여 농촌의 경제상태를 완화시키고, 그 한편으로는 내년 종곡種穀 공급에 대한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하여 두었다가, 내년에 일반에 공급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승입繩入판로에 대해서 총독부와 협의해 조선은 물론 일본과 기타 대련大連등지에도 판매할 예정이다. (1928.09.28)

별항別項 한해旱害구제토목공사에 대해 경기도 토목과장은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재민구제를 주안으로 하는 것이기에, 재료가 많이 드는 교량공사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농민들이 가장 하기 쉬운 토공으로 도로공사, 제방공사 같은 것을 크게 할 작정이다. 그러하여 공사시작은 해방 후 봄부터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928.10.07)

경기도에서의 사회사업은 사회실정에 비해 아직 도저히 충실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도, 부, 군, 면등의 재력이 차등의 시설을 충분히 할만한 이유가 없는 것과, 또 한가지는 사립연대의 책임을 가지고 자선 사업에 뜻을 두는 독지가篤志家들이 매우 드물어서 족히 사회의 요구를 충족할만한 시설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내에 현존한 차등 단체들은 비록 그 수요는 많지 않고 또 규모에 있

어서도 크다고 할만하지 않지만, 건실한 방면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사업으로는 도시사회사업과 농촌사회사업의 양방면이 있어, 도시사회사업은 구빈을 위주로 하고 농촌사회사업은 방빈을 위주로 한다. 도시와 농촌 합쳐서 총 84개의 사회사업단체가 있다. (1928.12.10)

경기도에서는 중점을 두고 있는 사회사업으로는 아동 보호사업이 있다. 가난한 아동의 양육을 목적으로 부내 신교동 총독부 제생원 양육부를, 천연동 영아부, 명치정(明池) 천주교회 영아원, 3관통검창보육원 경성지부, 옥인동 재단법인 경성보육원, 권수동 학원부의 시외에서는 고양군 연희면 구제군육아 ‘홈’과, 인천 천주교당 부속 고아원, 수원군 수원면 성공회 고아원등 9개 보육원이 있다. 그 중 역사가 제일 오래된 것은 명치정 천주교회 영아원이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 명치 21년 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조선의 가련한 여자 아이들을 무수히 양육하고 교육시켜 왔으며, 현재 수용 중인 여자아이만 145명이다. 총독부 제생원 양육부는 명치 44년 가을에 창립된 이래 많은 아동들을 양육하고 가르쳐 왔으며, 현재 아동만 202명이다. 그 중 97명은 동리에 맡겨두었고, 23명은 농장에 출근하게 하는 중이며, 아동들은 보통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또 땡아부에는 눈멀고 귀먹고 말 못하는 가장 불행한 불구 아동만 모아놓고 그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학문을 가르쳐 주고 있다. 눈이 먼 아이에게는 침구, 안마, 제봉등을 알려주고 있다. 1913년에 창립하였으며, 졸업생이 65명이고 현재 수용중인 아동이 105명이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사회사업으로는 노동보호사업기관이니, 조선과 같이 노동권이 독립되지 못하고 또 노동자들의 자기잇속을 옹호하는 건실한 단체가 없어, 노동보장이 없는 곳에서는 보호사업이 극히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1922년 7월에 창립된 부내 종로 3정목 화광교원 직업소개소와 노동자숙박소를 비롯해 동년 8월에 창립된경성부 직업소개소외에, 1920년 8월에 창립된 인천부 직업소개소와 공동숙박소, 또 인천 기독교 청년회에서 명치 44년에 창립한 직업소개소가 있다. 이 소개소들은 구직자들에 대해 취직 알선과 집 없는 노동자들에게 숙박하게 하는 것이 그 사업의 내용이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1928.12.11)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중요 사회사업으로는 주택보호사업도 있다. 세상에는 고달픈 몸을 조금이라도 편히 쉴만한 집 한 채도 없이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빈민에게 헐가, 또는 무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부내 재단법인 보린회를 위시해 고양군의 경성부영광희주택, 황실중심사무료주택등이 있다. 보린회

는 1922년 가을에 창립한 것으로 관리자는 박영효 후작이다. 경성부영광회주택은 작년 12월에 창립했으며, 독지가 심희양씨의 지원을 받아 경성부에서 관리 중이다. 1호당 월세는 30전이나 15전만 월세를 받고, 나머지 15전은 저금을 시키고 있다. 황실 중심사무료주택은 작년 6월에 창립한 것으로 빈민자에 한해 무료로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 사업은 구료기관이다. 병들었으나 약 한 첩 써보지 못하는 모든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 또는 돈이 없는 행려병자들을 위해 무료로 병을 봐주고, 고쳐주고, 약까지 시혜를 하는 것이다. 경성제대부속의원 시료부를 위시해 의전부속의원 시료부외, 수원, 개성 등의 독립 의원시료부와, 시내 자병원시료부, 용산 경서불교자제회실비진료부, 행려병인수용소, 남대문동 세브란스 병원시료부, 찬화병원시료부, 개성군 남성병원, 인천군 인천병원시료부, 인천불교의전원등 10개소가 있다. (1928.12.12)

농촌의 계발과 진흥은 무엇보다도 긴밀히 필요한 사업일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당국의 지도장려아래 방빈과 교화를 목적으로 호주 또는 주부들로 여러가지의 단체를 조직하고, 지방 중심 인물을 양성하기 위해 해마다 지방강습소와 교화단체의 간부를 일본우량농촌에 파견하여 그 시설을 견학하게 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성적 우량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비로서 사업자금을 보조하고 또는 표창하여 농촌장려에 힘쓰고 있다. 또 문맹타파에도 힘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주군의 40호밖에 안되는 어느 리의 사람들은 모두 문맹이었으나, 동리 유지 윤원세씨가 주도하여 금요청년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일반 동민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야학을 설립했다. (1928.12.13)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시내 각 서쪽과 협력하여 조선박람회 앞두고 범죄방지와 도시의 체면을 완전케 하고자 6월 18일부터 19일 아침까지 부랑자 3백여를 검거했다. 각각 원적지를 조사 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되어 도별로 대를 지어 순사가 도보로 각자의 고향까지 데려다 주고자 출발했다. (1929.06.20)

13. 세금과 예산

경기도청에서 지방비 부과금 부과규칙을 개정 반포하는데, 시장세는 1등지에 월세 175원, 2등지 120원, 3등지 75원, 4등지 40원, 5등지 30원으로 정했다. (1911.01.20)

경기도 재무부장櫻井이 납세 독려 등을 위해 2월 18일부터 27일까지 수원, 용인, 양지, 이천, 여주, 음죽, 죽산, 시흥, 부평군을 시찰했다. (1911.03.01)

공전영수원들이 공금을 사사로이 써버리고 도주하는 일이 많아 경기도 재무부에서 각 부군에게 특별 단속하도록 통첩했다. (1911.03.01)

도청에서 개정한 도장세 도축세의 결과 도장세에서 10,697원 도축세에서 9,582원 증수할 예정이다. (1912.12.05)

경기도 관내 각 군 사환미는 그 운용 이식의 길이 불완전하므로 이번 사환미 전부를 매각하여 군수의 명의로 확실한 은행 또는 우편국에 예입하여 이식과 보관을 하게 하며, 사환미 본래의 주지(主地)에 바탕하여 농민 보호 증식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에게는 확실한 담보 하에 대부할 것을 결정했다. (1913.03.01)

1914년 1월 말 경기 지방비 부과금 수입 상황, 조정액 28,544원 수입액 27,397원 미수액 2,146원, 천원에 대한 수입분 수 990이다. (1914.04.02)

1913년 12월 말일 주세 총액, 제1류 주는 36,946원, 제2류 4,373원, 제3류 240원, 대정3년 1월 말일 총액은 제1류 38,091원, 제2류 3,865원, 제3류 234원, 작년에 비하면 1,100여 원의 증수가 있다. (1914.04.17)

경기도 과세지의 결수는 75,201결 76부 1속, 그 외는 미터로 계산한 택지가 413,803 평방미터인데 세액이 7,487,253원 36전 6리(결세)와 1,170원 1전 1리(택지)이다. (1914.07.09)

경기도 2기 호세조사에 따르면 총 호수 238,247호 중 가옥세를 내는 호수는 57,761

호이고 그 금액은 35,737원 5전이다. 극빈 등 기타 원인으로 면세 호수는 8,168호이다. (1914.12.11)

미가폭락으로 인해 각 지방은 납세에 곤란을 느끼는 양상이지만 경기도에서는 속히 징수준비를 해서 10일까지의 징수성적은 전체 4할 6푼 3리이다. 납세 기간은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전부 납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14.12.16)

경기도 관내 조세성적을 조사했다. 조정제액(調定濟額) 70원에 대해 수입은 70원이었다. 시가지세(市街地稅)의 조정제액은 20만 3천 549원에 대해 15만 8천 258원의 수입이다. 호세는 7만 3천 479원의 조정제액에 대해, 7만 3천 118원의 수익이다. 가옥세는 조정제액 4만 7천 181원에 대해 4만 1천 184원의 수입이다. 주세는 조정제액 8만 9천 615원에 5만 4천 920원의 수입이다. 연초세는 조정제액 25만 2천 434원에 대해 22만 8천 752원의 수입이다. 광업의 조정제액은 9천 962원이고 수익은 8천 562원이다. 소득세의 조정제액은 4천 453원이고 수익은 4,453원이다. 잡세는 조정제액 4천 325원이고, 4천 65원의 수익을 얻었다. (1916.11.14)

1917년 2월 말 경기도 관내 납세조합 총수 98개, 가입 인원 53,338명, 저축액은 128,662원 98전이다. 인출액 121,070원 20전 중 납세에 충당한 액은 121,023원 29전이다. 저축 잔액은 7,582원 78전이다. (1917.05.02)

1916년도 제2기 지세 체납(滯納)은, 인원 9,857명, 세액 5,417원 83전이다. 원인으로 빈곤으로 인한 것 1,029명, 789원 9전, 태만에 의한 것 2,461명, 2,701원 60전, 금책(金策)이 여의치 않은 것 5,965명, 153원 84전, 이상 외의 원인 103명, 132원 78전이다. (누락 1,639.77원)(1917.05.02)

경기도 1917년도 제1기 호세(戶稅) 체납(滯納) 상황은, 체납세액 607원 5전, 인원 4,047명이다. 태만에 인한 것 1,387명, 208원 5전, 빈곤에 인한 것 1,047명, 220원 5전, 금융불여의(不如意)에 인한 것 1,064명, 159원 60전, 납부인 부재 또는 전임(轉任)에 인한 것 58인, 8원 70전, 납부인 불명 또는 사망 및 소재 불명에 인한 것 13인, 95전, 고지서 배달 불능에 인한 것 4명, 60전, 교통 불편 지연에 인한 것 51명, 7원 65전이다. 포천,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안성, 진위, 수원, 강화, 파주, 장단의 11군은 모두 납기 내에 완납했다. 제1기분 조정액 36,925원에 대해 체납액은 1.6%이니 전년 동기 3.2% 대비 감퇴했다. (1917.06.24)

1917년 9월 10일 기준 경기도 1916년도분, 1917년도 소속분 국세 체납원인을 보면, 체납인원 24,157명, 세액 74,767원이다. 그중 독촉장 발부 23,563인, 74,460원, 재산차압 11,357인, 세액 29,362원, 처분결행징수 5,078인, 세액 19,879원이다. (1917.09.28)

경기도에서 12월 7일부 도령^{道令} 제10호로써 정·동·리 유^有 재산관리규정을 발표하여 동일부터 시행했다. 정동리유재산은 부윤 또는 면장이 관리하고, 부동산은 공공용 이외 5개년 이내 기간으로 임대하고, 곡류는 1개년 이내 기간으로 대부한다. (1917.12.09)

경기도의 주세에 대한 근황은 제조장 19,000개, 정석 수 86,792, 세금은 ,77723원 55전이다. (1918.02.19)

경기도 지방예산은 작년보다 약 4만 원이 증가했고, 총액은 85만 원에 달했다. (1918.03.02)

경기도 지방부과금은 지세부가세, 시가지부가세, 시장세 등으로 1,255,034원에 달했다. (1918.03.03)

경기도는 소득의 양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붙여 거두었다. (1918.03.23)

경기도세입출예산은 총 883,674원으로 전년도보다 67,442원의 팽창을 보였다. (1918.05.01)

경기도의 연초세액에 관해 연초 소매가격은 6,026,358원 21전, 세액은 602,635원 7전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소매가격의 인하와 생활 정도의 향상 때문으로 보인다. (1918.05.12)

경기도 면의 기본 재산을 조사하면 면의 수는 218, 논수입 3,368원, 밭수입 2,241원, 집터수입 326원, 산림수입 362원, 잡지수입 166원, 건물수입 3,975원, 현금 15,855원, 기타수입 11,421원이다. (1918.06.14)

경기도의 가옥세 상황은 갑종 21,981호에 세액 52,040원 40전, 을종 41,620호에 세액 30,442원 80전, 총 63,601호에 83,483원 20전이다. (1918.11.03)

경기도의 호세 상황에서 호세를 내는 수는 248,359호이고, 그 세액은 37,253원 85전이다. (1918.11.30)

경기도의 올해 지방비 예산 총액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으며, 새로운 사업으로는 잠종검사, 상업학교 신설 등이 있다. (1918.12.29)

경기도에서는 관내 1918년산 엽연초로 거래 전 재해에 의해 두드러지게 변질된 것 및 상초 또는 2번초에 대해 과세 가격을 추가 결정했다. 양주, 연천, 포천, 양평, 여주, 이천, 안성, 수원, 파주의 9군에서는 30전이다. (1919.04.05)

물가 등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여러 세금을 올리는 중이다. 경성 수도는 국비로 경영되고 있는 형편인데, 당국에서는 작년 11월 20일에 수도세 인상을 발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금 인상을 말하면서도, 경기도 도청은 당국의 수도세 인상 결정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바도, 전해 들은 바도 없어 낭패에 빠진 모양새이다. 경기도청은 수도로 수납 고지서를 종전의 요금대로 써서 배부하고 있었는데, 만약 인상한 수도세로 세금을 거둔다면 일 개월에 2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920.01.16)

경기도 각 군 지세 제1기분 수납 성적은, 12월 31일 현재 조정액 59만 9,822원에 대해 수입액 54만 144원이다. 수입비율은 실로 9할로 양호한 성적이며 타도에 비할 수 없다. 완남 군은 양주, 가평, 안성, 수원, 부천의 5군이고, 그 다음은 광주 97.3, 연천 98.6, 이천 98.3, 용인 98.5, 진위 96.6, 시흥 97, 김포 91.9, 강화 91.9%이다. 가장 불량한 곳은 양평 63, 개성 66.8%이다. 파주, 장단 등도 개성과 함께 종래 조세수납성적이 양호했지만, 이번에 모두 60~70%을 보인 것에 대해 제2부장은 다소 시국(時局)민심의 동요 때문으로 의심할만하다고 했다. (1921.01.08)

12월 31일 기준 경기도 각 군 역둔토 수입 징수 성적은, 조정액 29만 9,621원에 대해 입액 21만 6,926원으로 수입에 비해 비율 7할 2푼 4리이다. 대략 보통의 성적이다. 완남 군은 없고, 가장 양호한 군은 안성, 부천, 시흥, 수원군이고, 가장 불량한 군은 개성, 고양, 포천군이다. (1921.01.08)

세제정리 결과 본년부터 창설된 국세 영업세의 징수상황은 7월분 징수예정액 22만 7천원 중 7월 말일까지 21만 원의 징수를 보아 종래 부세 또는 면세에 비해 배가(倍加)한 상태이다. (1927.08.24)

본년 신설 자본 이자세 예상액은 31만 7천 원인데, 경기도 6월 말까지 실수액은 9만 원으로 양호하다. (1927.08.24)

10월 8일 경기도청에서 도내 납세 우량면 46면에 대해 도지사가 표창장과 상품(천막 또는 저울)을 수여했다. 수원군 장안, 우정, 정남, 향남, 동탄면 등이다. (1927.10.08)

소와 2년 현재의 징수상황을 조사했다. 작년에 비해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경기도의 세수는 다음과 같다. 조정제액(調定濟額) 833,330원, 수입제액(收入濟額) 833,330원 이다. (1928.01.21)

14. 교통, 통신

안성가도 진위군 병파면 경부철도 평택역으로부터 양성, 안성, 죽산, 음죽 등 각 군을 거쳐 여주군 읍내에 이르는 20리의 도로는 7월 안에 폭 2칸 내지 2칸 반으로 개수 완성했다. 강화가도 시흥군 하북면 영등포 경부철도 정거장으로부터 양천, 김포, 통진 등 각 군을 거쳐 강화군 강화읍에 이르는 13리 4정은 폭 2칸 내지 3칸을 4월 안에 개수 완성했다. 수원도로 수원군 안중시장으로부터 진위군 서정리 정거장 간 수원군내 도로 2리 16정 37칸 중 2칸은 5월 10일에 개수 완성했다. (1913.08.31)

수원, 이천 등지의 가도 수선공사는 1913년 12월부터 3년 3월까지 종료했는데 공역한 경기도 인민 인부가 43,167명, 임금이 17,048원 10전에 달했다. 효과는 이전에는 우마차의 통행이 어렵더니 이제는 인력거, 우마차, 자동차까지도 편리하게 교통하고 제반 물자의 운반이 편리 또는 신속해졌다. (1914.05.20)

공사 중이던 1등도로는 최근에 완공 되었는데, 경성에서 출발하여 광주, 수원, 여주를 거쳐 충청남도로 이어진다. (1914.09.26)

경기도 각 지역의 수해를 입은 도로의 보수공사의 비용은 약 11,000원에 달했다. 기타 국도공사에 대하여는 경성부터 수원에 달하는 도로가 완성되었다. (1914.12.08)

경춘도로는 5월 15일 개통식을 하는데, 이 도로는 폭 3칸, 연장 220리이다. 그중 160리는 경기도, 60리는 강원도에 속한다. 이 공사는 강원도는 1912년부터 1914년까지 3개년간, 공비는 4만 4천 원(일부는 국고보조), 경기도는 1912년부터 2년간 공비는 3만 3천 원(일부는 국고보조)이다. 그밖에 총독부 직영 공사 약 9만원, 합계 16만 7천 원이 들었다. (1915.05.13)

의주가도는 7월 말 개통예정이다. 기존 2칸 도로가 있으나 새로 도로를 개착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1914년부터 3개년 공사로 경기도에서 3만원, 파주군에서 1만 5천 원, 합 4만 5천원의 공사비로 시작한 것이다. 경성으로부터 경기 황해의 도계 영북리까지 40리 통계 190리의 공사이다. (1915.05.21)

조선경편철도주식회사에서는 새로 2개 노선 철도 부설 허가신청을 했는데, 8월 18일부로 허가 지령이 있었다. 한 노선은 평택으로부터 장호원을 거쳐 음성, 여주에 이르는 노선이다. 또 하나의 노선은 조치원으로부터 청주를 거쳐 충주에 이르는 선이다. (1917.08.21)

경기도의 남양우편국은 11월 10일까지 폐지되고,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의 우편국도 같은 날 폐지된다. (1918.11.10)

경기도 제3부 보안과에서 자동차 운전수 면허시험을 실시했다. 수험자 40명 중 한 여자가 있었다. 전주읍 출신의 최인선이라는 사람인데, 현재는 경성에서 투숙 중이다. 공주 공립보통학교 졸업생으로, 작년 11월 5일에 황금 자동차 상회내 자동차 학교에 입학해 본년 1월 5일에 3개월 강습을 끝내고 다시 동교의 연구과에 입학해 연습했으며, 시험 성적이 우수했다. 최인선은 조선에서 최초로 여성 자동차 운전수가 되었다. (1920.03.19)

경기도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매년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4월에 정기 검사의 준비로 지난 2월에 임시 검사를 행했다가, 기한을 연기해 이번 달에 검사를 하게 되었다. 검사는 10일 부터 작일까지 실시된 것이 자동차 180대이며, 바퀴가 불완전 한 것은 미리 운전정지를 하였다. (1920.05.13)

경기도청에는 20일부터 자동차 운전수 시험을 실시했다. 수행자는 76명이고 수험자를 반분해서 첫 조는 21일에 시험을 보고, 나머지는 22일에 보기로 했다. (1920.06.23)

경기도 제3부에서는 1월 24일에 자동차 운전시험을 시행했다. 수험자는 조선인 19명으로 운전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시 25일에 학술시험을 봐서 합격자에게 면허장을 하부했다. (1921.01.27)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에서 5월 말에 조사한 관내 자동차 수는 관청용 32대, 자가용 32대, 임대 자동차 60대, 화물자동차 2대, 관청용 화물자동차 3대, 합계 194대이다. (1921.06.15)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며칠간 눈이 많이 쌓여 교통에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집집마다 문 앞의 눈을 치우도록 시켰다. (1922.01.13)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매월 한번 씩 지원자 수에 의해 자동차 운전수 시험을 집행하는데 이번 수험자는 지방에서 올라온 여러 명을 포함 30명이다. (1922.03.23)

경기도 경찰부에서 관내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시내 200대 차량에 대해 검사했으며, 차체가 불결하거나 운전에 지장이 있을만한 자동차에 대해 허가증을 반환시키도록 하였다. 허가증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차체를 다시 수선해 와야한다. (1922.04.06)

전차 관련 규칙이 새로 생겼는데, 그 요점은 승객의 주의이다. 승객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되고, 전차에 뛰어오르거나 내리지 말아야 한다. 이를 어기는 승객에게는 벌칙이 내려진다. (1922.04.30)

경기도 관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철도사고는 사망자 9명, 부상자 1명이고 전차사고는 사망자 4명, 부상자 111명이다. 자동차 사고는 사망자 0명, 부상자 31명이고 기타 부상자 14명이다. 철도사고는 점점 줄어가는 추세인데, 자동차 사고는 반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1922.06.18)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경기도 내에 있는 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를 시작했는데, 시내 160대 기타 70대 총 230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후 부족한 점이 보이는 차는 운전 을 중지시켰다. (1922.10.17)

겨울이 되어 얼음을 만들어 그 위에서 노는 것이 유행이 되었는데, 이는 교통에 크게 방해가 되므로 경찰서에서는 이를 금지시켰다. (1922.12.18)

경기도에서는 토목사업장려규정을 발포하여 1~3등 도로의 상시 유지, 수선 또는 교량, 제방 및 그 부속물에 대해 유지 보존에 노력하며 또는 재해 방비를 하여 특수한 공로가 있는 단체로 그 효적^{効績}이 현저한 것을 뽑아 상을 주기로 했다. 이번 1차로 5개 단체에 각각 상품을 수여했다.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민(대표 정철구), 수원군 음죽면, 수원 소방조, 여주군 청년회, 시흥군 서면 일직리민(대표 심명택) (1923.04.05)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에서는 추기 자동차 운전수 시험을 10월 29일과 30일에 훈련원에서 집행한다. 지원자는 약 50명이다. (1923.10.27)

경기도 보안과에서 매년 4월, 10월에 자동차 정기 검사를 행하는데 근래 영업용의 자동차 차체가 불완전하여 지난번부터 임시 검사를 행했다. 검사한 22대 중 합격은 1/3에 불과하다. 개성에서는 엄밀히 단속해 불미한 점이 있는 자는 차체 사용 정지 또는 영업 허가 취소를 행할 것이다. (1924.03.10)

최근 인력거부들이 승객에 대해 규정 이상의 요금을 청구하는 일이 있어 경기 경찰부에서 단속 방침을 세워 우선 경성 시내 및 인천부의 인력거에 대해 착수하기로 했다. (1924.03.11)

경기 경찰부 조사에 의하면 5월 중순 관내 자전거 수는 15,730, 인력거 2,055, 우마차 1,814, 짐수레 18,461, 자가용, 마차 3, 총 18,046대이다. 관청용 자전거는 362, 인력거 3, 우마차 55, 짐수레 414대이고, 회사용 자전거 877, 인력거 136, 우마차 81, 짐수레 848대이다. 개인용 자전거는 14,522, 인력거 1,916, 우마차 1,751, 짐수레 1,307대이다. (1924.05.27)

경기 경찰부에서는 교통정리에 관한 건을 부내 각 서장에게 통지했다. 교통이 빈번한 도로 15곳에 교통정리구역을 지정하고 보도와 차도 구별, 안전지대와 서행구역, 좌측통행 포스터를 도로 곳곳에 붙이고, 노상 유희 등 교통 방해 행위, 노상에 차마를 버려두거나 일하는 것, 도로변에서의 대소변 단속 등의 교통 정리를 실행한다. 교통정리 경관의 교양을 훈련해 절대 불순한 언행을 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친절히 지도하고 부득이한 경우 손으로 가리켜 지도하게 한다. 9월까지 4개월 동안은 매월 10일을 교통선전일로 정해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비번 순사를 전부 소집해 일제히 교통 단속을 하게 했다. (1924.06.10)

경기 경찰부에서 6월부터 4개월간 매 10일마다 교통선전일로 정하고 각 경찰서 및 기타 단체와 연합해 좌측통행, 도로 단속 규칙을 선전한다. 오늘은 특히 대대적으로 선전 포스터 5,000매를 인쇄해 시내 곳곳에 붙이고 교통선전 문구를 넣은 시간표 30,000매를 만들어 보통학교, 소학교 학생에게 배부했다. (1924.07.10)

경의선 문산-장단 사이는 마정리천 약 1마일을 제외한 곳과 장단-개성은 25일부터 개통되고 문산-장단 불통구역은 도보, 도선으로 연락해 26일부터 세 대의 열차를 운전했으며 불통 구역은 28일 개통된다. (1924.07.27)

경기 관내 짐수레 약 2,000대, 종사자 수천 명이다. 유지 몇 사람이 하우마차조합을 조직하기로 계획중이었는데 이번에 50여 명의 찬동자를 얻어 서명 날인해 도지사에게 조합허가원을 제출했다. (1924.09.16)

경기 관내 1924년도에 자동차 287, 인력거 1,926, 하차荷車 11,505, 하우차荷牛車 5,969, 하마차荷馬車 1,342, 객마차客馬車 21, 합계 21,050대로 전년의 22,303대에 비하면 1,252대의 감소이다. 원인은 자동차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인력거가 감소되고, 짐차는 재계의 불경기로 현저히 그 수요가 감소됨이다. (1925.03.09)

경기도 보안과에서 시행 중이던 자동차운전수 시험은 5월 10일에 마치고, 14일에 발표가 있었다. 수험자 142명 중 합격자 40명이다. (1927.05.16)

최근 1년간 전보電報 수입액은 217만여 원이고, 경기도는 61만여 원으로 2할 8푼이다. (1927.08.03)

1월 28일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에서는 자동차취체규칙을 위반한 총독부 운전수(보판승)와 경성전기회사 운전수(한창원) 2명에게 각 1개월의 취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보판승은 1월 16일 오전 3시 40분경 취중에 운전하다가 다른 차의 측면에 충돌했고, 한창원은 12월 29일 오후 6시 경 운전 부주의로 소아 1명을 치어 죽게 했다. (1929.01.29)

경기도 보안과에서 작년 1년간 시행한 자동차 운전수시험은 모두 8회인데, 응모 인원은 1,896명, 수험자 1,611명이다. 여자운전수는 수험 6명 중 5명이 합격했다. (1929.02.27)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빈발하는 교통사고 방지와 불량 운전수 엄벌을 목적으로 13명에게 7일(속도위반), 10일, 20일, 30일, 3개월(중상, 사망)의 취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929.05.04)

교통사고 빈발과 번잡으로 경기도 보안과에서 위험표지판을 증치증치한다. 위험 36, 좌회전 23, 우회전 21, 교량 8, 철도건널목 7, 3거리 2 등 모두 97개를 도내 주요처에 증치한다. 특히 50미터 앞에서 주의시키기 위해 주의처로부터 50미터 못 미친 곳에 세운다. (1929.08.08)

전 조선 각 우편국에서 취급한 전보 발착수는 최근 1일 평균 32,691통이다. 이를 조선 인구 천 명에 대해 1일 평균 1.7통에 상당한다. 그중 경기도가 7,841통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천명 당 4.1통이다. (1929.10.24)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에서 11월 5일~12월 10일 간 시행할 자동차 운전수 면허 수험자 신청을 10월 30일 마감했는데 지원자는 8백 명에 달했다. (1929.11.01)

철도국에서 영국 '젠치넬' 차량회사로부터 사들인 증기동차 2대는 용산 공장에서

꾸미는 중인데, 1대는 마쳤으므로 11월 25일 제1회 시운전을 행한 후 12월 1일부터 경인선에 배속하기로 했다. 이 기동차는 64인승으로 종래 경인간 40분 내지 55분의 소요 시간을 30분 가량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조선 최초의 초속력이다. (1929.11.23)

경기도내 자동차업자 70명이 11월 23일 명월관에 모여 경기자동차협회를 조직했다. (1929.11.25)

얼마 전에 시운전을 하여 양호한 성적을 얻은 '센치텔'식 신형 기동차는 12호로, 12월 5일부터 경인선의 임시열차로 1일 3왕복의 운전을 하게 되었다. 경성-인천 간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이다. 나머지 11호 기동차 1대는 군산-이리-전주 간을 임시열차로 8일부터 운전을 시작한다. (1929.12.04)

15. 금융과 금융기관

경기도 장단지방금융조합과 장호원금융조합이 11월 6일과 9일에 각각 개업하였다. (1911.12.03)

경기도 관내 금융기관은 은행 본점 지점 출장소 20개소, 금융조합 19개소이다. (1913.09.24)

지방금융조합은 본년도에 신설한 용인, 삭녕 조합을 합해 총 21개소, 근래 동산저당 위탁판매 등의 신청 증가로 창고가 필요해 본년도 6조합분 6동을 건축했다. 장단 문산포, 양주, 포천, 연천, 삭녕 6조합으로 하여금 장단 기타의 9군에 대두 경작 자금을 공급, 생산 대두의 위탁 판매를 행함, 공급 자금 총액 29,112원, 위탁판매 대두 총수 8,153석, 수원 외 20개소 금융조합원 수 7,323인, 대부 총액 422,469원, 총액 240,089원, 현재 대부액 182,366원, 위탁판매 수급고 74,466원, 공동 구입고 4,423원, 조합원 저축예금액 4,464원, 인원 3,316인이다. (1914.04.11)

경기도에서 27일부터 3일 동안 지방 금융조합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80항의 자문사항에 대해 회의할 예정이다. (1914.12.27)

경기도 관내 2개군의 저축 상황은, 조합단 수는 379개고 조합원 수는 10만 2천 3명이고, 저금액은 20만 2천 159원 59전 1이었다. 그중 찾아간 돈이 8만 4천 8백 81원 16전 2이고, 저금액고가 15만 9천 96원 53전 6리였다. (1916.02.05)

경기도의 24개 금융조합의 현황은 조합원 10,669명, 이익금 79,457원, 현금 12,966원 대부금 282,712원 49전이다. (1918.04.26)

경기도 내 지방금융조합 23개의 조합원 수는 10,966명이며 현금은 15,512원 56전 5리, 이익금은 13,246원 11전 5리다. (1918.08.04)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금융조합은 예금이 비상히 팽창했는데, 소요騷擾중 현금은 자택에 뒀은 위험하다 하여 금융조합 예금자가 극증劇增한 까닭이다. (1919.04.16)

경기도금융조합연합회에서 금융조합사업에 대한 각 조합 이사 및 회원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 본년 1월부터 매월 3회씩 “순보”를 발행하여 각 조합에 배포한다. 재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예금 및 대부금 모두 매월 증가의 추세를 보인다. 연합회 이사는 “경기도에 있는 금융조합사업은 전도 유망하여 계契 등과 같은 금융도 미구(未久)에 금융조합의 손에 옮겨올 것으로 장래 1천만원 가량의 대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한다. (1921.08.23)

경기도 금융조합에서 주요업무성적을 발표했는데 차입금은 2,274,530원, 예금은 357,493원, 대부금은 3,621,●21원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를 보였다. (1922.01.18)

금융조합 연합회의 경기도 예입금 847,000원, 식산은행 예치금 131,000원이다. (1924.01.16)

작년 12월 말 경기도 내 금융조합 수는 촌락조합 29, 도시조합 10 합계 49로 조합원 수는 32,630~40인이며 그 중 8할 8푼은 촌락 조합원이다. 출자금은 1,606,780원의

로 정부 하부금이 298,700원, 적립금이 353,609원, 예금이 2,667,838원, 차입금이 3,781,975원, 대출금은 6,217,960원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대부액은 촌락금융 138원, 도시금융 50,070원이다. 요즈음 금융조합의 취지 보급되는 예금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월 말에 비해 261,442원 증가했다. (1924.02.01)

3월 말 금융조합 각 연합회 예금액은 월 상반기 결산 결과로부터 지방 농가의 종자, 비료의 매입 시기를 맞아 다수의 예금 인출, 조합의 매입 자금 대출로 인해 격감했다. 경기도 연합회 예치금은 3월 말 1,226,000원인데 월 상반 비교 1,112,000원 증가했고, 식산은행에 예금한 것은 449,000원 증가했다. (1924.04.14)

경기 금융조합 이사회 개최 즈음 식산은행에서는 종래의 방침을 바꿔 은행 내에서 식은 관계 사항을 29일 협의하기로 했다. (1924.05.30)

경기도 관내 금융조합 상황은, 최근 미가 참락^{慘落}으로 자금 회수가 다소 지연되는 까닭에 농가 창고의 필요를 느낀다. 현재 조합의 창고를 이용하는 자는 전부 상인으로 농가는 창고료 및 금리 관계로 미가^{米價}가 1원 오르더라도 3개월 고입^{庫入}함은 채산 상 불리하다. 따라서 실제 농가가 창고를 이용함에는 당국의 보조가 필요하다. (1925.12.02)

최근 조사에 따른 경기도 관내 금융조합은 대략 54개 조합이 있고 조합원 총 수는 32,840명이다. 출자금은 1,011,459원이고 차입금은 3,621,438원에 달하며 예금 총액은 5,250,000원, 대부금총액은 7,362,980원에 달한다. (1926.04.22)

현재 금융조합연합회 대부금 총액 3,603,319원 중 정기 대부금은 1,951,326원, 특별 대부금은 770,000원, 단기 대부금은 811,660원, 연부가 대부금은 52,746원이다. 금융조합대부금에서는 총액 7,362,953원 중 토지자금 2,955,787원, 상업자금 2,232,447원, 우마자금 856,368원, 공업자금 201,056원 기타 688,041원이다. (1926.05.21)

16. 지주와 농회, 소작인과 소작료

경기도청에서 국유지 100평에 대한 소작료를 상중하 3등으로 제정하고, 1911년 가을부터 금전으로 수납하도록 했다. (1911.05.05)

경기도청에서 국유지 소작료에 대해 민유지 소작료에 비해 1할 저감低減하고 금납金納할 방침을 결정했다. (1911.05.28)

경기도청에서 조선농회 개성지회에 지방비로써 150원의 보조금을 하부했다. (1911.06.15)

도청에서 농사를 개량, 장려할 목적으로 장려회 규약을 발시했다. 해당 회의 임원을 회장은 이완용백작으로 부회장은 송병준으로 선정했다. (1912.07.13)

도청에서 저금장려의 방법으로 국유지 소작조합에게 국유지 소작료와 민유지 소작료와의 차액에 비해 저렴한 차액을 저금시키는 것을 이번 가을부터 착수한다. (1912.10.27)

경기도 대지주회 제2회 총회는 5일부터 개회해 회장 이완용 백작, 부회장 송병준 외 50여 명이 참석해 토지개량, 기타 건에 대해 협의했다. (1912.11.05)

농사장려회장 이완용 백작은 회원에게 소작인에게 배부하기 위한 개량 도종을 도청에 의촉해 공동구입 후 배부하려하니 개량 묘종 석백 또는 조신력의 수효를 5일까지 제출하라 했다. (1912.11.29)

경기도 관내 대지주 단체 농사장려회에서 30정보 이상 소유 지주 57명이 5,020원을 각출하기로 결정했다. (1913.08.30)

명치 44년 5월 경기도 고시 제1호의 역둔지 소작료 금액은 1914년분부터 개정된다. (1914.03.15)

관내 1913년도 12월 말일 현재의 국유지 소작인 저금상황을 조사했는데 소작인의 총수는 25,237인, 저금총액은 30,780원, 성적은 전년에 비해 우량하다. (1914.03.20)

양지, 진위, 개성, 여주 외 13군의 국유지 소작인 조합원 수는 전기 말에 3,791명, 본 기간에 가입원은 774명, 탈퇴인원은 240명, 현재 인원 수는 4,325명이다. (1914.05.03)

국유지 소작인 저금액은 1914년도 3월고는 총인원이 10,824명, 저금고 25,612원, 21전, 1인 평균액이 1원 27전이다. (1914.05.05)

경기도 농사장려회는 강화, 가평, 광주, 용인 4군은 지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16군에는 권장 중이다. (1915.03.18)

경기도 농사장려회 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에 이완용과 송병준은 유임되고, 부회장 고故 조중응 대신 조진태가 당선되었으며 이사 5명의 증원이 있었다. (1919.11.15)

9월 4일 경기도 농회의 설립이 인허되었다. 사무소는 경기도청내에 설치한다. (1926.09.06)

경기도 내 민간 소유 토지 10만 정보의 소유자는 31만 5천 명이다. 그중 5정보 이상의 소유자는 15만 명이다. 1919년도 5정보 이상 소유자 15만 명, 이하 23만 5천 명에 비해 5정보 이상 소유자수는 변동이 없는데, 이하 소유자수는 6천 5백 명 증가를 본 것이다. 그 원인은 대개 국유지 불하와 신 개간사업의 진척에 의한 바가 많을 것으로 경기도 세무과장은 짐작했다. (1929.09.03)

17. 통제와 선전

음력 새해를 앞두고 절도 등의 폐를 막기 위해 경기도청 경무부에서 1월 10일부터 3개월간 특별경계를 시행하였다. (1911.01.07)

경비기관(헌병 분견소, 순사파출소)을 종래의 밀집제도에서 분산제도로 변경하고 경찰 측에 서는 10월 1일부터 실시했다. (1911.10.03)

요즈음 경무 총감부와 경기도를 제외한 이외 12도 경무부에서 경부시험을 집행했다. 총감부에 수험자는 도청과 경기 각 서 경기도관내 각 서에 총원 15명이다. (1912.12.07)

경기도 경무부에서 순사보는 될수록 양반 유생 내에서 채용하는데 일반 인민에 비해 성적이 양호하였다. (1913.06.01)

관내 경찰서 8, 순사 주재소 43, 순사 파출소 8, 청원순사 힐소 48, 헌병분대 7, 헌병 분견소 10동, 파견소 41동, 출장소 43이다. (1914.01.10)

3월 동경에서 개최할 대정박람회 출품물로 농산물 97점, 광산물 20점을 지난 4일 발송, 홍삼 20점은 홍삼조합에서 직접 농산공부에 송달할 것이다. (1914.02.05)

3월 20일~7월 31일 열리는 동경 박람회의 관계 역원, 출품인, 출품물에 대해 철도 운임을 낮추었다. (1914.02.08)

7월 13일 경부 특별 임용 고시 학술 시험이 시행된다. 총감부, 경찰서, 각 분서와 경기도경무부 관내의 응시자는 총감부에서, 기타는 편의상 각도 경무부에서 응시하는데, 응시자는 조선인 순사로 3개년 이상 근속하고 정근 증서를 가진 자이다. (1914.05.24)

경기도에서 결정한 공진회 단체관람은 도에서 각 군별로 관람 일정을 작제作製한 후 순차 관람을 하게 하기로 정했다. (1915.07.07)

경기도 단체 관람 총수는 약 3만인 이고, 1일에 천 명씩 예정으로 경성 체재일수는 1일~3일이다. (1915.07.13)

경기도 관람 예정인원은 32,700인(경성부 제외) 중 일본인 400인은 38회로 나눠 관람한다. (1915.08.29)

경기도 관내 공진회 단체관람자는 25,044인인데, 숙박자는 19,633인이다. 숙박은 명치정 선린상업학교 구舊 기숙사이다. (1915.09.08)

경기도 경무부에서 2월 28일부터 순사보 채용시험을 실시 중인데, 체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125명이고, 현재 학술시험을 시행 중이다. (1917.03.02)

경기도 경무부에서 3월 1일에 시행한 순사보 시험은 수험총수 250명 중 46명의 합격자가 있었다. (1917.04.08)

경기도 경무부에서 순사 후보 46명을 선발하여 4월 13일 입소식을 거행했다. 순사보의 교육은 경관연습소에 위탁했다. (1917.04.14)

경기도 경무부에서 관내 각 경찰서에서 19일에 순사 및 순사보의 통역 겸장 어학시험을 시행했다. (1917.12.20)

경기도 소방대에서는 대원들을 소집하여 경기도 훈련원에서 추계소방검열을 실시할 예정이다. (1918.10.11)

경기도에서는 (중략) 각 군에 자위단自衛團을 조직하고 양민을 서로 도와가며 경거망동을 경계하여 써 소요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선량한 민중을 애호를 목적으로 군내 유력자 또는 군참사 등으로 단장 또는 위원을 정하고 경찰 관헌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중이며, 23일 전부터 지난 번 소요되었던 촌락과 평일에 불량하였던 촌락 등에 순회 강연을 하고, 회개하는 자는 극력 권유하여 단원이 되게 했다. 그 규약은 다음과 같다. 1. 본단은 서로 삼가고 경계하여 경거망동을 막고 촌락의 평화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본단은 자위단이라 칭함 3. 본단은 구역 안에 거주하는 호주로서 조직함 4. 단원은 그 가족과 용인傭人으로 본 규약을 준수케 할 의무가 있다 함 5. 본단에 단장과 위원 약간 명을 둬 6. 단원은 망동에 참가치 않기를 서약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자로 함 (1) 망동을 계획하고 또는 이에 참가하는 자가 있는 때는 계고(戒告) 제지(制止)하고 근처 경찰관헌에 급보함 (2) 협박 또는 선동 등 불온한 문서를 발견하는 때는 즉시 군수, 면장 또는 근처 경찰관헌에 제출할 일 (3) 망동을 하는 자 또는 거동 수상한 자가 있는 때는 그 도주할 것을 막고 일변(一邊)으로 근처 경찰관헌에게 급보할 일 (4) 폭동이 일어나는 때는 군청, 경찰관서, 면사무소 등을 원조하여 그 진무에 노력할 일 7. 단장과 위원은 때때로 구역 안을 순시하여 민정을 사찰하고 그 상황을 면장에게 통보할 것이요. 본단은 비용을 받지 않으며, 군청 또는 경찰관헌의 지휘 감독을 받을 일. (1919.06.02)

경기도 경무부 관내 대·서로부터 선발되었던 사찰반 20여 명은 소요 일단락이 된 고로 24일 해산식을 거행했다. (1919.07.26)

경기도에서는 1월 26~7일에 경성 경관교습소와 수원, 개성, 포천 3경찰서에서 조선인 순사 채용시험을 행했다. 지원 수험자는 경성 280명과 3경찰서 170~180명이다. 채용 예정수는 60~70명이다. 제3부 당국은, 근래 경제계의 부진으로 각 방면 사업의 축소와 상점 폐쇄 등에 의해 해직, 방직^{방직}자가 많다고 했다. 당국에서는 학력, 상식, 인물, 경력, 근본으로부터 용모, 풍채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선택한 후 채용한다고 한다. (1921.01.28)

총독부 경찰관강습소 제5기 순사강습생 1부, 2부생 140명은 2월 28일 졸업과 함께 배속되었는데, 경기도에 63명이다. (1921.03.04)

8월 4일 오전 맹렬한 비를 무릅쓰고 경기도 경찰부의 소방대 연습과 경관대 기마교련이 집행되었다. 일본 경시청 경관강습소장이 130명을 인솔하여 참관하고, 기타 공중의 참관자도 수백명에 달했다. (1921.08.05)

경기도 순사교습소에서 16일 신입순사 51명의 입소식을 거행했다. (1921.09.17)

경기도 순사교습소에서 27일 교습생 47명에 대해 수업증서 수여식을 행했다. (1921.12.30)

경기도 내에 평화기념동경박람회 시찰단을 조직 중이고, 그 수는 370여 명에 달했다. (1922.02.09)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관내 각 경찰서에서 40명을 소집해 형사 강습을 실시했고 8일에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1922.06.09)

경찰부에서는 소방수 22명을 새로 채용해 각 지령장까지 내려주었는데 그중 조선인이 11명 일본인이 11명이었다. (1922.07.12)

연말이 다가오며 시내와 시외에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회의

를 거쳐 비번순사까지 놓지 않고 전원 총출동으로 엄중한 경계를 설 것이라 하였다.
(1922.12.13)

경기도경찰부에서는 강도, 절도 범인 수색과 범죄 예방에 대해 여러 가지로 연구 중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범죄 발생시간으로 하루 24시간 중 어느 때에 범죄 발생이 많은지를 조사하여 1년간 경과를 본 후에 가장 건수가 많은 시간에는 일층 노력코자 하여 시간별로 강절도의 발생건수를 기입할 양식을 만들어서 경성 시내 각 경찰서에 배부하여 이에 1년간 것을 기입케 하기로 하여 1월부터 새로 발생하는 강절도 건수를 기입하기 시작했다. (1923.01.12)

음력 정초를 앞두고 경기도 경찰부에서 각 경찰서에 지휘하여 2월 10일부터 비상경계를 개시한다. (1923.02.08)

경기도 경찰부에서 21일 부내 각 경찰서 사법주임회의를 열고자 각 서에 통달해 소집하기로 했다. (1924.01.19)

경기 경찰부의 형사별과 을종 강습은 13일~26일 개시해 동경 경시청 강력범계장을 초빙해 총독부 각 과장과 함께 교수할 예정이다. (1924.02.11)

경기 경찰부에서 형사 양성을 위해 2일부터 순사교습소에서 6개월의 장기간 형사강습회를 개최해 관내 각 서에 근무하는 우수한 형사 23명을 소집해 강습을 시키는 중이다. (1924.06.04)

7월 2일부터 3일간 예정으로 경기 각 경찰서장회의를 도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1924.06.25)

오늘부터 문패를 붙이는 도령을 실시했다. 그동안 각 경찰서에서 모든 집에 문패를 붙이라고 주의시켜 대부분 2치 이상, 길이 5치 이상의 규칙에 따라 문패를 붙였으나 월세, 전세를 놓은 소유자 중 가옥 소재지 번지가 기재된 문패를 미부착한 사람이 있어 오늘 이후로 문패 미부착자는 20원 이하 과태료, 벌금에 처한다. (1924.07.01)

경기 경찰부 경무과에서 26일 조선인 순사 시험을 행했다. 정원 44명 중 11명은 조

선보병대에서 특별선정하고 나머지 33명을 시험으로 선발한다. 응모자는 550여 명을 우선 일본어 시험으로 학과 낙제를 시키고 우수자만 계속 시험을 치르게 했다. 일본어 시험에 400여명 낙제했으며 응모자 중에는 상당한 학교를 졸업한 자도 많다. (1924.10.27)

경기도 형사과에서는 과학적 범죄가 해마다 증가되므로 1920년 7월 이래로 지문에 의한 수색방법을 연구해왔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의열단, 좌경주의자, 기타 제령(制令) 위반 사건 등 범죄자의 지문 등이 1,4790여 매이다. (1925.01.14)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순사와 순사부장의 판임관 유자격자와 경부, 경부보를 선발하여 4월부터 제6기생의 강습과 본과생으로 입소시킨 후 고등경찰사무의 강습을 개최한다. (1925.01.29)

경기도 조선인 순사 제6기 강습생의 졸업식이 5월 31일에 동 강습소에서 있었다. 졸업생은 48명이며, 우등생은 3명이다. (1925.06.01)

경기도에서는 월급 49원 이상의 고급순사를 정리해고하기로 했다. 고급순사를 정리한 후 급료가 적은 순사를 채용하여 인건비에 여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경기도 내 퇴직자의 수는 100여 명에 달했다. (1926.03.04)

경성 시내 각 은행에서 4월 22~23일 문을 열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민간에 유언비어가 유행할 염려가 있으므로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소관 각 경찰서에 취체하도록 엄명했다. (1927.04.23)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서 사진 카드와 명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사진 카드는 이미 5천 2백 수십 매, 씨명카드는 6만 2천여 명에 달한다. 그중 고등경찰관계 요주의 인물도 2천여 명이나 모았다. 도(道) 형사과에서는 23일부터 개최되는 경찰부장 회의에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전조선 각 경찰서에 이와 같은 설비를 완성케 하도록 할 것이다. (1927.05.17)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6월 20~21일 소관 각 경찰서의 계원을 회의실에 모아 지문강습회를 개최한다. (1927.06.15)

7월 1일부터 동경에서 개최되는 조선박람회에 경기도에서 물품을 출품했다. 강화 도에서 만든 이조 도자기, 개성 특산 고려 인삼, 강화 화문석, 자개 벼루집 등이다. (1927.06.28)

경기도에서는 도 평의회 개회를 기회로 12월 3일부터 구내에 도세(道勢) 참고품을 진열 하고 출석자의 비판을 구하고, 오후에는 출석자를 경성구락부로 초대하여 도내 생산 물의 시식회를 개최한다. (1927.12.04)

가을에 개최될 조선박람회에서 각도별 특산물 건축 평수가 배정되었다. 경기도는 휴 계실 50평이다. (1929.01.22)

18. 지방제도, 지방사무

탁지부에서 전 한성재무감독국 고원의 신분을 조사해 경기도 장관에게 통지했다. (1910.10.27)

경기도청에서 일본, 조선인 판임관의 석차를 정하기 위해 도청과 각 군 관리의 등급을 조사 중이다. (1910.11.08)

경기도에서 각 부군면의 개수와 이름을 조사를 명령했다. (1910.11.22)

회원(檣垣) 장관이 경기도 관내를 순시하는 중에 면장과 각 뜻이 있는 지사들을 소집해 병합 당시의 총독의 유고를 부연 설명했다. 성상폐하의 일시동인의 성의를 상세 설명 하고 또 일천칠백만원 수산 사금(授産賜金) 용도 등을 설명했다. 그 설명을 다 들은 사람이 삼백 명에 달했다. (1910.11.23)

경기도청에서 각군수에게 각 관내의 면동리의 각 명칭과 숫자를 시급히 조사 보고하 라고 내무부 훈령을 내렸다. (1910.12.06)

경기도 내무부장 중대노정웅(中大路正雄)이 도장관 대리로 관하를 시찰하는데 참여관 유혁로가 동행했다. (1910.12.10)

경기도 장관이 도의 각 군수가 수산장을 설립하는 일에 대해, 조사보고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촉훈을 내려 더욱 정실하게 조사할 것을 명했다. (1910.12.15)

경기도청에서는 군사령부의 통첩에 의해서 관하 각군수에게 군내의 수운의 편리여부와 인부의 임금이 각 리마다 어떻게 다르고 각각의 풍속에 관한 상황을 조사 보고하라고 명했다. (1910.12.27)

경기도청에서 몇 개 군의 참사를 5월 22일 임명했다. (1911.05.23)

경기도청에서 양평·남양·파주·삭녕·고양·부평·김포·진위·강화·용인·과천군의 참사를 임명했다. (1911.07.27)

도청의 부군 서기회의는 12~13일 총감부 사원이 출장해 회계사무를 강습하고 14일부터 자문하고 지시사항을 이해했다. (1912.03.14)

도청에서 집행 중이던 조선인 판임 문관 시험은 대부분 종료했는데 어제 오전 일반 시험인에게 구술시험을 행했으므로 시권을 수정해 오늘 내일 사이 총독부로 제납 후 고시를 낼 것이다. (1912.09.05)

경기도 재무부 서기 최선경은 병으로 인해 사면을 청했으므로 군청 일반 관리가 월급 100분의 1을 수합해 기념품을 만들어 동료에게 주었다. (1912.10.08)

부군폐합 따른 면폐합, 종래의 면수 492를 폐합해 253 즉 절반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1914.01.25)

4월 1일부터 시행할 부군폐합에 따라 현재 492면 중 240면을 폐합해 252면으로 개정하기를 결정하고 총독의 승인을 얻어 3월 중순에 도령으로 발표하는 동시에 동리의 폐합도 발표할 것이다. (1914.02.25)

경성은 현재 18면 내 8면을 6면으로 폐합해 고양군에 편입, 인천부의 13면 중 12면을 7면으로 폐합해 부천군을 신설해 편입, 충남 평택군으로부터 3면을 진위군에, 평택, 삭녕의 3면을 강원도 철원군에 편입했다. (1914.03.15)

도청에서는 27~29일 부윤 군수의 회의를 개최 예정, 각 부윤 군수에게 신칙해 의견서를 제출하라 했다. (1914.04.18)

부윤, 군수회의에서 상세히 폐합 후의 모양을 청취했는데, 각 부군은 모두 지장 없이 군정과 면사무를 진행하며 민심도 각지가 평정해 모두 업무에 안도하고 있다고 한다. (1914.05.03)

경기도에서는 각 군 서기 39명을 소집해 마을 지도에 관한 강습회를 개시하기로 했다. (1914.10.20)

10월 1일부로 경기도 내 3개 지정면(수원면, 송도면, 영등포면)에 일본인 면장이 임명되었다. (1917.10.03)

10월 25~26일 경기도 도,부,군 참사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도 전체에 걸친 자문회의는 처음이다. (1917.10.25)

경기도에서 3월 8일부터 13일간 조선인 군서기 강습회를 개최한다. (1920.02.20)

경기도청에서 다가오는 8일부터 13일간 조선인 군서기 강습회를 개최한다. 강습과목은 세무업, 임업, 토목교육, 고전, 등이다. (1920.03.04)

경기도 관내 조선인 군서기강습회가 지난 8일 오전 9시부터 개최되었다. (1920.03.09)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면장 및 면서기로서 조직된 시찰단은 단원이 36명, 인솔자가 6명이다. 5월 16일에 출발하여 26일간 예정으로 광도, 대판, 경도, 내량, 삼중, 애지, 정강, 동경, 기옥, 회목, 장야현 각지를 시찰한다. (1921.05.09)

경기도에서는 지방비로써 관내 면리원(面吏員)을 일본의 우량 정촌(町村)에 위탁하여 강습

할 방침으로 조사중이다. 1.위탁 강습원은 15명으로 조선인인 면리원 중에서 지정면에서 각 1명, 기타 면에서 12명을 선발, 2.위탁 강습원은 대개 1군·정·촌에 2~3명 이내로 하고 지정면의 이원(二員)은 정에, 기타면의 이원은 촌에, 위탁 강습기간은 3개월로 하여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4.위탁 강습원에게 1인당 50원씩 급여하는 외에 여비 54원 합계 2백 원을 급여한다. (1921.08.23)

경기도공립학교직원 일본인시찰단은 단장 인솔하에 여러 지역을 시찰·관광할 예정이다. (1922.05.02)

2월 13일부터 경기도에서 개최된 지방개량 강습회 및 군속(郡屬) 강습회원은 부군속으로 일본인 8명, 조선인 27명, 면리원으로 일본인 1명, 조선인 13명, 기타 유지로 일본인 1명, 조선인 5명이다. (1923.02.19)

경기도 제3회 평의회가 3월 2일 오전 개최되었다. 이번 평의회는 비로소 일반에 공개되었다. 개회시간은 10시부터인데 평의원은 좀처럼 모이지 않아 11시에 개회되었다. 난로 옆으로 둘러서서 불이나 쪼이고 쉴는 의원들은 너무 냉담한 체했다. 의장 時實 지사는 개회연설을 했으나 통역 때문에 시간이 배 이상 허비했고, 의미도 긴장함을 결했다. 일반 방청석에는 한 사람의 방청객도 없었다. 지방과에서 방청객을 제한하기 위해 방청객의 명함을 보아서 들이게 하고, 방청인 심득(心得)까지 만들었는데 헛된 노력이었다. (1923.03.03)

경기도에서 4월에 정촌(町村) 사무 강습을 위해 자성(茨城), 내량(奈良), 자하(滋賀), 강산(岡山), 좌하(佐賀), 궁기(宮崎)의 각 현에 파견한 면리원 24명이 3개월의 강습을 마치고 돌아왔다. 7월 23일 이들 일동을 도청에 집합케 하여 사무강습 상황 및 기타 감상담이 있다. (1923.07.22)

경기도에서는 22일 도회의실에서 도, 부, 군 연합 주산경기회를 개최한다. (1923.10.08)

조선인 군속 1명씩 20명을 소집해 14일~20일 도청회의실에서 지방행정사무 강습회를 개최한다. 강습과목은 지방행정, 사회사업, 산업, 교육업, 위생 등이다. (1924.01.13)

도지사는 경기도 평의회원 후보자 선거를 행할 부군과 후보자의 원수, 선거 기일을

22일 부도 고시 제4호로 고시를 발시했다. 고양, 광주, 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안성, 진위, 수원, 부천, 파주, 장단, 개성 등 각 2명으로 선거 기일은 부천군 3월 15일, 기타 부군 3월 22일이다. (1924.02.23)

경기도에서 도, 군, 묘포, 삼림 보호조합 등의 기술원으로부터 일본 임업 시찰단을 선발해 5일 일본으로 출발했다. (1924.04.12)

경기도에서는 일본의 우량 부락, 우량 청년단, 처녀회, 사회사업 등의 활동 상황을 견학하기 위해 각 군 각 면장, 청년회, 공조회로부터 1~2명씩을 선발해 5월 1~30일 후쿠오카, 히로시마, 오사카, 동경 각지를 시찰하게 하며 1인에게 25원씩을 보조한다. (1924.04.12)

1921년 이후 경기도에서 지방비 사업으로 관하 우수 면리원을 선발, 일본의 우량 정촌에 파견해 정촌 사무의 위탁강습을 행하게 했다. 올해는 20명과 면비로 10명을 후쿠오카, 구마모토, 야마구치, 효고, 아이치, 시즈오카 6현에 파견하기로 해 18일 일본으로 향한다. (1924.04.28)

7월 상순에 경기도 관내 부윤군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924.06.20)

지방비 세입출 예산 등에 대한 내용으로 경기도에서는 14일간 평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1926.02.04)

전형중인 경기도평의원(민선, 관선)은 4월 1일 아침 도지사로부터 발표되었다. (1927.04.02)

경기도평의원 공성학이 제출한 공립보통학교 수업료경감에 관한 의견서와 기타 3~4의원이 제출한 도내 도로망 완성에 대한 건, 경인간 1등도로 개수에 관한 건, 구 한강 인도교 교가체(橋架替)에 관한 건, 중등 정도 학교 증설에 관한 건 등에 대해 경솔히 할 수 없다 하여 위원 부탁으로 하기로 되어 의원 중 10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13일 평의회 폐회 후 계속하여 오후 4시 40분부터 경기도 재무부장실에서 개최했다. 의논이 백출(百出)하여 결국 중등학교 증설에 대한 의견서만은 철회하기로 하고 기타 전부는 가결하는 동시에 도 당국에 대해 이의 실현을 촉진하도록 결정하고, 10시 반 경에 폐회.

14일 평의회 석상에서 위원회의 경과보고가 있는 후에 만장일치로 각 의원도 이를 채택결정하기를 가결하였으므로 의장의 명의로 지사에게 건의하여 가급적 속히 실현하기로 하였다. (1929.03.15)

19. 인력과 자금 동원

1911년 8,9월부터 경기도청에서 착수한 연천-토산간, 안성가도, 홍천-양평간의 도로 개수 공사는 11,12월에 차례로 준공할 터인데, 현재 부역인수는 수만명이다. (1911.10.29)

우편저금은 내지인의 저금(인원 37,967인, 저금고 1,001,797원, 1인 평균 26원)이고 조선인의 저금은 인구의 8푼에도 못 미치는데, 최근 장려의 결과 크게 증가해 조선인 저금 인원은 20,679인, 저금고 84,554원, 1인 평균액 4원 8전 9리이다. (1912.09.25)

군수는 인부 7,324인을 사역해 동군 읍내면으로부터 수원군에 이르는 도로 연장 4리 10정, 폭2간2척을 수축하고 풍덕군수는 1,297인을 사역해 동군으로부터 개성군에 이르는 판로 175간, 폭2간을 준공, 용인군수는 3,600인을 사역해 예정 3등도로 연장 19리, 등외 도로 48리를 연장했다. (1912.11.01)

1912년중 경기도내 각 부군 경영도로 수축공사는 연장 130리 14정, 부역 출역인부 총계 475,070인이다. (1913.02.06)

의정부 연천 간 11리의 도로개수공사를 지난 10월부터 수축해 조선인 약 1만인을 사용해 금년 1월에 완료함, 청평, 조운, 가평 교량 공사(연장 189간)는 오는 10일에 전부 준공됨, 공사비는 25,000원이다. (1914.01.10)

조선인 우편저금, 경기 인원 86,712, 전년에 비해 증감 904할 증가/ 금액 196,216원, 전년에 비해 증감 545할 증가했다. (1914.04.26)

일본과 독일이 함께 전쟁을 시작한 이후, 전장에 나가있는 군인에 대한 기부가 있었다. (1914.10.17)

경기도 관내 저축상황을 보면, 1914년 12월 말 현재 조합 단체수는 345, 조합원 수는 95,517인, 저금액은 15만 3백 원 66전 3리이다.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수원 39,949원, 가장 적은 곳은 가평 1,057원 90전이다. (1915.05.26)

경기도 관내 계 또는 조합 수는 373, 조합원 14만 450인, 저금액 16만 5천 원, 저축 물품은 조쌀, 백미, 대맥, 대두 등이다. (1915.06.11)

1915년 7월 말 현재 경기도 관내 근검조합 단체수가 356 조합원 94,889명 저금액 179,946원 33전이고 인출액은 68,114원 82전 2리이다. (1915.11.04)

1915년 10월 현재 경기도 관내 저축상황은, 조합단체수 358개, 조합원 96,964인, 저금액 192,014원이다. (1915.12.12)

명치明治신궁 신영新營에 대한 봉찬 헌금 신청에 12월 말일로서 마감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30,846원 19전 5리이고, 입금은 29,092원 9전 5리이다. (1917.01.16)

1916년 중 경기 관내 도로공사 부역상황은, 부과총인원 1,501,958명, 환산액 560,306원이다. 1호당 평균 2인, 5푼 4리, 최대 부과수 30인, 최소 부과수 1인, 부과 성적 1,504,950인이다. (1917.08.10)

최근 경기도 관내 우편저금상황은, 일본인 63,873인, 금액 2,007,092원, 조선인 148,360인, 391,240원이다. (1917.08.18)

경기도에서 관내 저축기관의 통일을 위해 근검저축조합규약준칙을 제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저축조합은 근검 저축의 미풍美風을 함양함으로써 목적으로 하고, 하군何郡 하면何面 근검저축조합이라 칭하고, 그 사무소는 당해當該 면사무소 안에 이를 두고, 조합장은 면장에게 촉탁하고, 조합원은 부업에 의하여 얻은 수익收益의 몇 부部 및 수확기에 가 수확물의 몇 부部를 저축하는 의무를 갖는 것으로 하고, 또 조합원은 저축 금품을 위원에게 송부하고 위원은 매월 2회에 이를 취전取繼하여 그 달 15일 이전의

것은 그 달 20일까지, 16일 이후의 것은 다음 달 5일까지에 저금통지서 또는 예금통장을 더하여 조합장에게 송부할 것으로 함. 그런데 조합원의 저금은 공과, 역둔토 대부료, 산업자금, 불시不時的 재해, 기타 유익비有益費에 충당하기 위해 조합장이 필요로 인정한 경우를 제除한 외는 불려拂戻치 않을 것으로 하고 조합의 감독은 소할所轄 군수가 이에 당當한다 함이다. (1917.11.29)

경기도관내 금품저축상황에 대한 최근 조사를 공개했다. 359명이 저축했으며 현금은 236,777원에 물품환산금액은 30,9096원 90전이라고 한다. (1918.01.10)

20. 종교

경기도청에서 2월 4일 각 군수에게 훈령을 내려 사직단社稷壇 제사를 모두 폐지하도록 했다. (1911.02.05)

각군 십오본산 주지들은 중부 박동의 각황사 주무와 의견이 불합하여 서로 반대했다. 지난 달 28일 홍월초라 하는 중이 십오본산 주지를 대동하고 각황사로 회동하여 간친회를 설행해 지금부터 서로 반대하지 말며 동일하게 불교를 진행하자고 한다. (1912.08.02)

1923년 12월 말 경기도 관내 조선인 설립 사찰 수는 183개소로 승려 수는 1,145인이며 비구니는 395인으로 합 1,540인이다. (1924.02.28)

경성기독교청년회 농촌사업부의 성적을 보면, 이미 학교가 설립된 농촌은 고양군에 9곳, 시흥군에 10곳, 광주군에 2곳, 양주군에 7곳이다. 이미 한글을 깨우친 생도가 천여 명에 달하며 수업 중에 있는 생도는 8백여 명에 달한다. (1927.04.29)

조선 각지에 기독교청년회가 농촌교육에 착수한 지 2개년이 되었다. 이번에 새로 산업신용조합을 이미 농촌사업이 시작된 곳에 세우기로 계획했다. 시흥군에 2곳이 신

설되어 회원이 80명, 광주에 1곳, 30명, 고양에 1곳, 회원 40명이 되었다. 이 조합이 특색은 회원끼리 돈을 내어서 조합을 세운 후 돈을 꾸어 쓰는 데는 담보가 없이 신용으로 쓰게 되며, 대신 회원이 되려면 회원 전체의 가결可決을 받아야 입회할 수 있다. (1927.04.29)

21. 문화와 체육

경기도청에서 관하 각 부윤 군수에게 통첩했는데, 각 사찰에 소재한 보물 목록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1911.02.19)

개성, 장단, 파주, 교하, 풍덕이 연합해 농산물 품평회, 학예품 전람회를 5일부터 개성 제1공립보통학교에서 설행함, 농산물, 공사립학교 생도의 서화, 작문류 등 다수를 차려놓았다. 여학생의 수예품은 신세계를 개진한 듯 뛰어나다. 7일 본도장관, 군수들이 참석해 포상수여식을 거행했다. 환영을 위해 교문 앞에 큰 녹문을 설치, 경찰서에서는 순사를 파송해 관람인을 보호, 교직원, 일반 생도는 안내 담당, 대화정 제1은행은 5일부터 천년된 고려자기를 포함한 고물품을 진열함, 완상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1912.11.07)

경기도 관내 도서관의 근황을 조사했다. 경성남미창정사립경성도서관은 화한서和漢書 1만 5천 564圖, 양서 188種, 1개년간에 있는 개관開館 일수는 303일이고, 열람 인원은 5천 4백 20인이다. 열람료는 77원 기타 수입 399원이다. (1916.06.06)

경기도에서는 하계휴업을 이용해 보통학교의 조선인 여교원을 위해 경성공업전문학교에서 염색, 세탁 등에 관한 강습회를 10일간 연다고 했다. (1918.07.24)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경기도인(김형욱, 석진형 외)의 발기로 4월 16일 광주 수기옥공업회사에서 경기도인회 발기총회를 개최했다, 출석회원이 70여 명이였다. 본회 목적은 광주 부근의 경기도인을 망라하여 호상 친목을 도모하고 본도인의 환난구제, 경사치하,

풍속개선 등이다. 입회금 1원, 월 50전이다. 임원 선거를 하여 회장에 김형옥 등 여러 임원을 선출했다. (1921.05.04)

광주光州 경기도우회에서는 5월 2일 공업회사에서 임원회를 개최했다. (1921.05.10)

매일신보 주최 척사擲槊대회가 3월 2일 관수동 국일관에서 열렸다. 1등상은 포천군 소흘면 상송우리 박기현이 차지했다. (1923.03.04)

경기도직원으로 조직된 광화光化수양단에서는 8일 오후 3시부터 식당에서 국민체조 연습을 시작했다. (1923.12.09)

경기 도청 출입 기자단은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14사 기자 16명이 출석해 협의하고 불원에 간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924.02.18)

7월 활동사진 ‘필름’ 총 504권, 28리 55간 2척이다. 상설관 극장 개시로 인해 6월보다 매우 증가했다. (1924.08.09)

체육회 주최의 제4회 전국 정구대회는 25일 결승전을 끝마쳤다. (1924.09.27)

경기도 내 발행소가 있는 일간 신문사, 일간 통신사 사원의 외교기관을 설치하기 위해 친목을 취지로 구락부를 조직해 6일 조선포텔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1924.11.08)

보안과에서 12일 활동상설관 주인들을 소집해 영화 검열, 기타 사항에 대해 지시했다. 선전 포스터의 전주 부착을 금지하기로 했다. (1924.12.13)

조선부인 기예사는 와이셔츠와 에이프런의 강습회를 개최하였고 희망자 60명 중 36명을 선발하였다. (1926.05.07)

양주정구구락부에서 9월 4일 통례에 따라 양주, 연천, 포천 3군 연합정구대회를 의정부 공립심상소학교 코트에서 개최했다. (1927.09.11)

조선 명산품 투표가 9월 30일 마감인데, 9월 27일까지 경기도 명산품 투표를 보면,

소사 복숭아(34,349표), 양주 밤(7,014표), 월곡리 고구마(3,614표), 연천 (3,169표), 강화 화문석 (1,846표), 인천 장유(1,058표), 순대(1,077표) 순이다. (1927.09.29)

조선 명산품 투표가 9월 30일 마감 결과 경기도 명산품 투표를 보면, 양주 밤(57,255 표), 소사 복숭아(53,917표), 월곡리 고구마(4,997표), 연천 (4,291표), 순대(2,212표), 강화 화문석 (1,925표), 장단 (1,755표), 인천 장유(1,305표) 순이다. (1927.10.11)

경성방송국 청취자수는 최근 7,936명의 가입자인데, 그중 경기도는 4,986명이다. 라디오상商은 금융업자, 신탁업자와 출자에 의해 월부賦 가설의 편법을 사용하였으므로 개국 2주년 기념방송까지는 가입자 1만을 돌파할 것이다. (1929.01.18)

22. 수도, 난방, 전력

총독부 토목국에서 수도사무소에서 45년도의 사업으로 공중 급수관 증설 공사를 본도에 위탁했으므로 6월 8일 황금정통의 급수 본관 시설 환체, 기타 보조 관리 공사에 착수했다. (1912.11.19)

경기도에서 상수 사용자의 각호 조사를 순행조사 중에 있는데, 급수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많은 효과가 있었다. 조사는 본월 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1916.06.13)

경기도 수도과에서는 경인수도 확장의 계획으로 1920년 8월 경 연천군 영근면 신답리에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고 이론理論 마력 2,265마력, 경성 도착마력 1,274마력으로 하는 공사설계서를 총독부에 제출하고, 공사비 257만 원을 1921년도 예산에 계상하기를 신청했으나, 각 방면의 세출 다액으로 이 계획을 연기했다. (1921.01.15)

경기도에서는 연료 절약 목적으로 온돌 개조를 연구하여 관내 보급에 노력했다. 이번에는 관외에까지 보급할 목적으로 4월 24일 개조온돌강습회를 개최했다. (1923.04.25)

경기도 경찰부에서 개조온돌 보급을 위해 경찰서장 회의에서 제의한 결과 개조온돌에 사용할 부엌 아궁 덮개와 연돌 덮개를 값이 싸도록 일수 판매업을 만들게 하고, 공인의 샅전도 표준을 정해 받게 하며, 그 외 여러 가지 일반 편의를 도울 방침을 제정중이다. (1923.05.06)

경기도청에서 개량온돌 보급을 위해 5월 21일 경기도청 구내 광장에서 제2회 개조온돌 강습회를 개최한다. 개조온돌 모형을 설비하여 상세한 설명을 할 계획이다. 선전문 5만 장과 포스터 1천 장을 인쇄 중이다. (1923.05.18)

5월말 현재 개량온돌 보급 상황은 경성 제외 일본인 511호, 조선인 7,532호이다. 금년 내 실행 예정 수는 일본인 2,501호, 조선인 65,619호로 총호수의 2할 8푼이다. (1923.06.21)

경기도 개조 온돌 보급상황을 보면, 일본인이 649간, 조선인이 28,855간이다. 관공, 학교와 그 직원의 주택, 도지사, 각 부장, 과장의 관사에도 온돌을 만들 터이다. 오는 부업품 공진회에는 모형을 출품하여 조선 전도에 보급을 장려하리라 한다. 개조비용은 1간에 2~3원 가량으로 재료가 자기에 있으면 아주 조용히 될 수 있으며 직공은 소할 주재소에 말하면 샅전도 싸게 주선해 준다. (1923.09.24)

11월 말 현재 개량온돌 호수는 69,280호로 칸수는 13만 6,452칸이다. (1923.12.01)

경기도에서 관내 일반에 장려한 개량 온돌은 작년 말 통계에 의하면 개량된 호수 약 83,127호, 개량된 부엌 아궁이 수 약 168,301개이다. (1924.02.03)

경기도 관내에 1923년 생산된 목탄 총량은 백탄 445,000여관, 흑탄 215,000관인데 주 생산지는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장단군이다. 현재 '資村'의 공급이 부족해 해마다 생산량이 줄어 이 추세대로면 56년 후에 매우 부족해지므로 당국에서 영림보호 시설을 구비해 임상 회복의 방침을 취할 것이다. (1924.02.11)

경기 목탄 생산 742,280관이다. 주요산지는 연천, 포천, 가평, 양주, 개성 부근으로 생산품은 우차, 철도로 대부분 경성 부내로 공급된다. 목탄 중매상에 의해 사업 자금으로 일부 대금을 선용하게 하여 잔액은 현품 수여 때 지불하며, 선금을 필요치 아니

한 생산자에게는 매매결약을 체결해 현품수여와 동시에 금액을 지불하는 관습이 있다. (1924.03.04)

23. 토지

탁지부 토지조사국에서 부평, 양천, 김포, 통진, 강화, 교동의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 관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관리를 극력 보호하라고 했다. (1910.11.27)

경기도청에서 관하의 각 군수에게 토지·가옥의 증명, 매매, 전당, 집행에 관한 수수료를 제정해 종속히 보고하라고 했다. (1910.12.21)

부평, 양천, 김포, 통진, 인천, 시흥, 안산, 과천, 용인, 양지, 양성, 죽산, 광주 등 각 군에 파견된 임시토지조사국 소속 측량원을 극력 보호하라고 경무통감이 명령했다. (1910.12.24)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소유권 조사를 마친 곳은 부평, 양천, 김포, 통진, 강화, 교동, 시흥, 과천, 안산, 인천이고, 1912년 3월 내로 완료할 곳은 광주, 남양, 수원, 진위, 양성, 안성, 죽산, 양지, 용인이며, 1912년 1월에 조사에 착수할 곳은 여주, 이천, 음죽이다. (1911.12.03)

본 기간 내에 국유미간지 대부의 허가 7건, 면적 707정보, 불허가 30건, 대부청원 수리 145건, 전기로부터 이월 39건, 합계 184건 내 조사 진달을 종료한 것 59건, 125건은 위임 권한으로 본도에서 처분할 것과 실지 조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 (1912.11.19)

수리보급 도모를 위해 도내 20개소를 선정해 1개소 약 3백 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지난번 제언 수축에 대해 실지 측량조사 중임, 과천, 안성, 죽산, 양지 4군에 대해 8개소의 조사가 종료했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지금 결빙기라 오는 봄 해빙기에 급속히 완성에 노력할 것이다. (1912.12.11)

12월 27일 임시토지조사국 공시로 토지소유자 및 강계를 사정^{査定}했다. 대상지는 수원군 남부면 내 남창동 매향동 교동 산루동 일부, 구천동 일부, 매산리 일부, 북부면 내 북수동 보시동 군기동 신평동 장안동. 개성군 서부면 내 관전리 일부, 남부면 내 구리개리 일부, 미조정리 일부, 광장리 일부, 도조리 일부, 동부면 내 경방리 일부, 태묘리 일부, 팔자동리 일부, 북부면 내 지파리 이정리 예빈리 성가리이다. (1913.12.28)

토지매매와 임대와 평균가격, 논 상등 80원(지세 16전 4리), 중 50원(19전 8리), 하 30원(16전), 밭 상등 50원(24전), 중 25원(24전), 하 7원(4전), 택지 상 50원(20전), 중 12원(20전), 하 5원(2전 4리), 임대 논 상 8원, 중 5원 50전, 하 2원 81전, 논 상 4원 62전, 중 2원 40전, 하 1원, 택지 상 3원 33전, 중 1원 5전, 하 40전이다. (1914.03.20)

경기도에서는 토지조사의 전부를 종료하고 이를 인계할 예정지를 공시했다. (1914.12.12)

지금까지 조사 결과 소유권이 모두 확정된 곳은 수원, 개성이다. (1915.01.13)

토지조사를 종료한 구역에서는 총독부령으로 부동산등기령 시행 발포로 4월 1일 실시 예정인데, 그 구역은 시흥군, 부천군, 김포군, 강화군이다. (1915.03.18)

토지대장은 4월 1일부터 실시된다. 제1회 지방은 시흥, 김포, 강화, 부천이고, 7월말까지 실시될 지방은 진위, 안성, 수원, 용인, 이천, 여주, 광주이다. (1915.05.11)

경기도에서 작년도에 금 10,500원의 보조금으로 토지개량 사업된 제언 및 보의 수축을 하여 근일에 모두 준성^{竣成}되었다. 양주군 3, 김포군 1, 포천군 2, 고양군 1, 여주군 1, 이천군 3, 양평군 2, 가평군 1, 부천군 1, 광주 안성 각 1, 용인 수원 3, 합계 23이다. 제언 3, 보 20이다. (1915.05.19)

경기도장관은 임야 이외 토지조사에 관한 발표를 했다. 지역 내에서 임야 이외의 땅을 소유한 사람은 기간 내에 신고서를 써서 소재의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918.12.28)

경성, 인천, 수원, 개성 각 시가지의 과세 시가지 면적은 2,100정보이다. 그중 택지 1,270정보, 경지 800정보, 기타 약 30정보이다. 조선인이 1,200정보인데 27,300인으로 나누면 1인 평균 132평이다. 일본인이 850정보인데 5,100인으로 나누면 1인 평균

500평이다. 외국인은 90정보인데, 370인으로 나누면 1인 평균 730정보이다, 한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소유한 면적은 약 150정보이다. 외국인 대 조선인은 5대 1로 '통계로 본 조선인의 궁상'이다. (1927.02.27)

24. 민족운동

경기도 제3부 발표에 따르면 1920년도 중에 시국을 표방하고 범죄한 총 건수가 217건, 인원수는 708인이다. 살인한 자가 17명, 방화한 자가 2명, 금품을 강탈한 자가 226명이며 그 금액이 24,922원이다. 군자금 또는 애국금을 모집한 자가 60인이며, 그 금액은 42,505원이다. 불온문서를 배포한 자가 111인, 기타 시국을 표방하여 범죄한 자가 247인이다. 그중 검거한 수는 175건, 인원수는 634인인데, 살해가 16인, 건수가 16건, 폭탄 41개, 금품 강탈이 176인, 군자금을 모집한 자가 40명, 비밀결사가 86인이다. 압수한 물건 중에 폭탄이 30개, 육혈포가 20자루, 장난감 육혈포가 2자루, 육혈포 탄자가 548개, 기타가 715점이다. 사건 발생 건수는 217건, 검거된 것은 175건, 검거되지 못한 건수가 32건이며 인원수는 708명에서 검거된 것은 630명이니 검거되지 못한 인원수는 74명이다. (1921.02.13)

경기도 관내에서 작년 중에 맹파鬻鬻사건이 27건이고, 금년 들어 5건이다. 순진한 노동문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요, 대개는 한때 감정과 정당치 못한 이해관계나 혹 공장 감독 개인에 대한 감정 등으로 일반의 동정을 이끌만한 것은 한둘에 지나지 못한다. 당국자는 “장차 간섭을 엄밀히 하여 흑막을 발견하면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형법에 비취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했다. (1925.03.06)

중국인 노동자(콜레)는 참을성 많고, 능률이 많으며 품삯이 험한 탓에 전초 조선 각 방면 사업계에서 다대한 환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조선인 노동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인천항을 거쳐 조선 각지에 침입한 통계를 보면, 1916년 전후로부터 1921년까지 매년 1만 명 내외로부터 1만 4~5천에 불과했으나 1922년에 2만 3천명을 돌파하여 1923년에는 2만 8천명 1924년에는 2만 9천여 명을 기록했다. 금년에는 사업계가 부

진함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10개월간 누계가 2만 2천 명을 돌파하고 연말까지에는 작년에 못지않은 숫자를 보일 형세이다. 과거 10개년간 누계를 보면, 18만 명에 가까운 통계이며 그동안 귀국한 10만 명을 제외하면 현재 8만에 가까운 쿨리들이 조선의 방방곡곡 밥줄을 끊고 있다. 그 위에 국경 방면과 서해안 각 항구의 통계를 모두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진다. 조선인 노동계는 장차 더 어떠한 참경을 이루고 말지 두려운 사실이다. (1925.11.02)

조선의 노동쟁의는 1921년 이래로 증가 상태에 있었으나 작년에 형세가 역전되었다. 그 원인은 노동자의 수효와 공장의 수효가 준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늘었음에도 노동 가치를 싼값에 파는 중국 노동자들이 자꾸 침입하여 일반 노동계에 큰 위협을 주므로 공연히 하등의 이익이 없는 노동쟁의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한다는 자각이 생긴 경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위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등의 배후에 있던 조선공산당원들이 거의 검거된 관계라 볼 수 있다. (1927.05.15)

11월 14일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는 부장 이하 몇 명이 모여 비밀회의를 했다. 탐문한 바에 따르면, 얼마 전에 일어난 모 중대 사건이 확대되는 동시에 모종 불온문서가 시내를 물론 전 조선 각지에 비밀히 배포된 형적도 있어 모처로부터 오는 통신은 거의 전부 압수된 일까지 있었는바 아마 이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하며 수일 전부터 경찰 당국에서 시내 각 학교에 대해 일종 감시 태도로 오는 것도 이 사건에 관련한 것이 아닌가 한다. (1929.11.15)

광주학생사건은 경성, 개성, 인천, 평양, 함흥, 원산, 춘천, 경성鎭城, 동래 등 각지 학교에 민족적 감정을 격발하는 불온문서가 배포되고 이에 따라 동맹휴학, 만세소동 등이 일어나는 한편 신간회와 기타에서도 이것을 선동 혹은 간섭하여 그 형세가 저지할 바 모르므로 각 서에서 경찰이 활동을 개시하여 대규모의 검거가 있었다. 경무국으로부터 일부를 발표하고 기타는 게재금지를 했는데, 12월 28일 해금解禁함에 이르렀다. 12월 12일 개성송도고등보통학교로 맹휴가 옮겨 수습할 수 없게 되어 임시휴교를 안할 수 없게 된 것이 경성을 제除하고 지방으로서는 최초의 운동이다. 그 뒤를 이어 개성학당, 상업학교, 개성공립상업교 등에서 맹휴사건이 일어났다. (1929.12.29)

2부

지역 분류

1. 가평
2. 개성, 풍덕
3. 고양
4. 광주
5. 김포, 양천, 통진
6. 부천, 부평
7. 수원, 남양
8. 시흥, 과천, 안산
9. 안성, 양성, 죽산
10. 양주
11. 양평
12. 여주
13. 연천, 삭녕, 적성, 마전
14. 용인, 양지
15. 이천, 음죽
16. 장단
17. 파주, 교하, 문산
18. 평택, 진위
19. 포천, 영평

1. 가평

1) 농업

가평군의 주요 농작인 보리와 밀이 몇 해 전부터 최근까지 가뭄으로 인해 황색을 보여 일반 농민이 이에 대해 수확이 줄 것을 우려하는 중이다. (1914.05.15)

가평군청에서 경내 농민의 농업을 개량 발전할 취지로 농사장려회를 조직해 17일 발회식을 거행했다. (1914.05.21)

2) 토지

측량업 종사자 김영호(28, 외서면 감선리)는 1913년 4월 중 손재손, 손남산, 손행길(조종면 석사리) 등에게 전답 측량의뢰를 받았다. 측량 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증명을 의뢰한 후 속여서 인장, 비용을 맡아 1913년 9월 중순에 송주섭(37, 동면 장고길)과 소유증명서류를 횡령하려고 3명의 도장을 속여 군수에게 증명을 얻었다. 송씨를 경성에 보내 박한영(경성 중부 관자골)에게 소개해 박씨의 명의로 일본인에게 400원을 득채하려 했는데 실지 측량을 하려 하자 김씨, 송씨가 별로 측량할 것 없다고 거절했으나 의심이 들어 비밀히 실지로 측량하다가 그 전답 소유자 되는 손모에게 발각되어 즉시 잡혀 징역 8개월에 처했다. (1914.02.26)

3) 상업

가평군수 이승평이 가평군 대북리에 시장을 개설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업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경기도청에 인가를 신청했다. (1910.12.10)

4) 공업

가평군에서 제지조합 설립을 신청했다. (1913.08.28)

가평군 성주황 외 26명이 제지업에 종사하여 제지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9월 11일부로 인가되었다. (1913.09.16)

경기도의 제지는 처음에는 부업 수준이었지만,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발전이 필요하다. 이에 가평에서는 20~28일까지 1회 제지품평회를 개최하였다. (1918.04.02)

5) 부업

단기 잠업강습회는 지난달 27일부터 강습회를 열어本月 1일에 종료했는데 강습원 25명, 가평군 학교 3학년생 30명이 시간 외에 강습과 방청하여 잠업의 흥미를 환기했다. (1912.03.07)

가평군은 양봉의 적지이다. 농민 전부가 부업으로 양봉을 한다. (1913.07.03)

6) 교육

가평군 사립 가보학교에서 도 장관이 기부한 3원을 학생 3명에게 1원씩 나눠줬고, 학생들은 우편저금했다. (1911.06.20)

가평군 이승조와 동군 헌병분견소 山川傳次郎의 찬성으로 구 순사주재소에 일어아 학회를 설치하고 개교식을 거행했다. 관민, 보통학교 생도 150여 명이 회집해 성황을 이루었다. (1910.10.27)

7) 민원

가평군에서 화천 가는 ‘화천가도’ 문제로 군청 측과 인민 측에 분규가 일어났다. 종래 화천가도 치도治道 공사비를 면민이 부담했다. 이제 이 도로를 개수하는데, 기정 선로대로 하면 교량 가설 4곳, 전답 손해가 40정보이다. 만일 선로를 변경하여 남종천 동쪽으로 개정하면 다리 가설도 없고, 전답 손해도 없어서 인민의 부담이 적을 것이라 면민들은 선로 변경을 면사무소와 군청에 진정했다. 면장은 면민의 이해 사실을 군청에 보고하지 않고, 군청에서는 기정 방침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며 소관 주재소에 의뢰하여 인민을 위협하고 부역을 강제했다. 이에 인민 측은 면민 대표 24명을 선정하여 도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923.04.10)

8) 여성

가평군 외서면 신촌동 김용이⁽²⁵⁾가 1911년 12월 이기순^(19, 경성 중부 전동)과 혼인함, 본가로 가 돌아오지 않는 부인을 데려가기 위해 경성 북부경찰에 청원해 경부가 설유함, 이기순이 “나는 조선에서 자격있는 여자인데 남편은 집안이 가난해 아내에게 의식을 넉넉히 변통해줄 능력도 없고 또는 외모도 좋지 않고 어리석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고, 오늘날 밝은 법률도 인권을 어찌 유린하겠냐”하며 설유를 따르지 않았다. (1914.02.15)

9) 미신

한 사람이 발진병에 걸려 사망했는데, 이웃사람이 그 집에 불을 놓았다. 이유는 전염병을 앓던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르면 전염병 귀신이 달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926.05.22)

10) 헌병보조원

12월 23일 오후 7시경에 가평군 파견소의 헌병 상등병(上山右兵衛)와 헌병보조원(정광섭, 이동근)이 가평 북방 약 6리 되는 화악리 부근에서 의병장 연기우를 사살했다. (1911.12.28)

11) 위생

가평 최운만은 동대문 밖 어떤 숙소에서 잔 뒤 재귀열에 걸린 듯 했다. 이에 동대문 밖 480호에 대해 검진했으나 재귀열 환자는 1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운만은 다른 곳에서 걸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1918.02.24)

가평에서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해 경기 위생과에서 방역법을 강구하고 위생기사를 출장시켜 일반민에게 혈청 예방주사를 해 병균 박멸을 계획하는 중이다. (1924.08.27)

12) 재해

19일 가평 북한강 수량은 약 5척 가평천은 약 4척으로 감수했고, 가평 파견소 관내 길이 2칸 이상의 교량 7개소를 유실했고, 가평에서 경성으로 통하는 도로 중 약 30칸을 유실했다. 18일은 청평천- 재구령-가평 간을 교통이 불능했으나 오늘은 도보로 교통할 수 있다. (1912.07.21)

가평군에서 보리 흑수黑穗(깃부기) 뽑기에 나서 현재까지 284정 6반 5무畝, 뽑기 양은 134관 873수이다. (1913.06.15)

가평 공립보통학교 소속 학교림에서 송충이가 발생해 중순부터 학교 직원, 생도가 구제해 포획충약 6만 5천을 모두 태웠다. 다른 삼림에도 발생해 피해 정도, 구역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 (1914.05.20)

가평군 하면 상판리 지방에 1일부터 산돼지 7, 8마리가 무리 지어 다니며 곡식을 해쳐 산 위에 파수막을 짓고 현등사 부근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출몰해 송아지를 물어 가 구제방법을 연구하는 중이다. (1914.07.26)

한강 상류 청평천은 8월 1일 오전부터 수량이 격증되어 가평 방면은 위험하게 되었다. 오전 8시에 8미터 94밀리미터, 9시에 9미터 25밀리미터로 증수되었다. (1923.08.02)

한강의 증수는 21일 오전 9시 12척 5촌이었으나 한강 상류 가평에서 10시경 약 19자 5치 불어나 밤에 상당한 증수가 예상된다. 가평 증수가 용산 한강 근처로 흐르는데 약 12시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1924.07.22)

가평은 7월 11일 오전 6시에 23척 7촌 6푼이 증수되었다. (1925.07.12)

한강 상류 가평, 여주 방면 수량이 점차 줄어 27일 가평 19척 1촌 4부, 여주 17척 8촌으로 한강 수량도 감소할 것이므로 용산, 마포 등지에 더 이상 위험이 없을 것이다. (1927.07.28)

2. 개성, 풍덕

1) 인구, 지방행정

개성군 동부면의 현재 호구를 조사했다. 조선인 8천211호에, 남자가 1만 9천 423인, 여자가 2만 9천 594인이다. 일본인이 386호에, 남자가 717인, 여자가 666인이다. 중국인은 18호에 남자가 76인, 여자가 1명이다. 기타 외국인이 30호 14인이다. (1920.04.12)

개성군 송도면 국세조사로 조선총독부에서는 6월 25일 송도면내 13정에 조사원 70여명을 임명했다. (1925.07.05)

개성군 중부·남부·북부·서부 면장이 성적 우등으로 경기도장관으로부터 상여금을 받았다. (1911.07.04)

금월 22일 배의학교 내에 군면회를 열고 소관 내 도로 개축에 관한 사항과 그 지역 토지 가옥에 대한 규칙을 설유함(1912.06.25)

시가지 4부면을 개성면으로, 11리를 13정으로, 동은 동본정, 원정, 남은 남본정, 남산, 정궁정, 경정, 서는 서본정, 대평정, 북은 북본정, 대화정, 지정, 고려정, 만월정으로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12.11.20)

양주군수로 재근하던 고원식은 개성 군수로 전임되어 7월 7일 오전 11시 경의선 열차로 부임할 때 각 관청 관리와 공립보통 제12학교 생도 5백여 명, 각 면리장, 상민商民 일동이 출왕 영접했다. (1913.07.10)

7월 25일 풍덕군 관내 각 면장 협의회가 열렸다. (1913.08.14)

13면 면장을 모집해 10일 본년 제1회 면회를 개최했다. 사항은 근검저축의 정도, 음력정월을 가까이 한 면민의 경제와 농사 개량 조합 조직의 상태, 계시장 정리, 춘기 식목, 뽕나무 신청 상황 등이다. (1914.01.13)

13면 면장협의회를 개최, 농사개량종 배부, 도로 수선, 공동묘지 기한의 절박함, 면내 주류제조담배판매 무면허자 단속, 과세 호수조사 사지증명에 관해 설유하고 주임농사 순회교사의 묘포정황 설명이 있었다. (1914.02.13)

군수 고원식은 24일에 서면 입연직조전습수료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틀 간 출장했다. (1914.02.28)

부군폐합으로 풍덕군이 개성군에 부속되어 제반 문서 정리 인계를 위해 재무서기가 26일 풍덕군청에 출장 시무하는 중이다. (1914.02.28)

개성군청에서는 풍덕군 부속 실시된 제1회로 군 13면장과 구풍덕군 8면 면장을 회집, 13일 협의회를 개최, 양군 폐합에 대해 상호 친목 등을 장시간 훈유하여 주의시켰다. (1914.03.15)

실업계에 저명한 합명회사 개성사에서 13일에 군청 면장 협의회를 이용해 개성, 구 풍덕 면장 20여 인원, 군청 직원, 금융조합, 척식회사, 은사수산장 직원을 북부면 동량 박우현 집으로 초대, 두터운 정을 사례하며 춘기 농사 개량의 가장 필요한 인조비료를 확장하기로 누누 설명한 후 성대한 만찬이 있다. (1914.03.18)

부제 시행에 따라 개성, 수원 등의 시가지정명을 변경하게 되어 4월 1일 부고시로 발표했다. (1914.03.31)

군청에서 10일 면장들을 군청으로 회집, 면폐합, 기타 문서정리, 도종개량 등 16조, 근검저축조합 규정 17조에 대해 훈유했다. (1914.04.12)

1912년도부터 설립했던 공려 저금조합과 원 풍덕군 부자저금조합을 양군 병합 이후에 개성군청의 장려로 양 조합을 합칭해 ‘저축조합’이라 하고 군 내에서 대대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1914.05.07)

개성군 송도면장 전임 이후 일반 조선인 측의 희망을 들으니 면장의 임무는 민간과 직접 관계가 많으므로 일본인 면장으로는 언어, 풍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편점이 많다 하여 면내 유력한 조선인으로 공천, 선정하기 갈망한다. (1919.09.23)

개성군 송도면장과 직원 일동은 1월 15일 토요일에 부면장 환영회와 신년회를 거행했다. (1921.01.18)

지난 22일 개성군청에서 면장들을 회집해 수해로 인한 향교 토지 피해 조사, 보조에 대한 장시간 협의가 있었다. (1924.08.24)

12월 31일부로 개성군 대성면장에 그 면에서 10여 년을 면서기로 근무하던 이성우가 임명되었다. 그는 평소에 수리사업과 기타 산업 방면에 매우 유의^{留意}했다고 한다. (1925.12.30)

개성, 함흥에 대한 부제 시행은 1929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관제 개정 기타 준비가 필요하여 7월 이후가 될 예정이다. 부운 봉급 기타 경비도 9개월 예산으로 청구했다. (1929.03.14)

개성 부제 실시는 10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으나 금년도 실행예산 긴축으로 십중팔구 실시될 가망이 없으므로 공도면평의원, 개성실업협회 부회장이 7월 19일 정무총감, 내무국장, 이재과장을 방문하여 원안대로 실시해 줄 것을 진정했다. (1929.07.20)

개성군 송도면협의회원 선거는 11월 20일에 거행되는데, 유권자는 950인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 16인이 감소했다. 그중 조선인이 789인, 일본인 106이다. 선거할 협의회원은 14인이다. 조선인 측에서 종래 종로 이상 출마하던 경향이 금년부터는 일변^{一變}하여 신진청년이 다수 출마하고자 맹렬히 운동 중이다. 표면에 나선 후보자는 임한선, 이영우, 김영택, 공성구, 최대현 등이다. (1929.10.26)

2) 농업, 농민

개성지방의 맥작은 예년보다 약 15%의 증수^{增收}를 본 모양이라 인민은 비상이 희열했다. (1911.06.24)

근일 개성군에서 인민들이 연초 경작에 대해 면허도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 경기도청에서 부운, 군수에게 단속하도록 통첩했다. (1911.09.16)

농회에서 고을 농산물을 진열하기 위해 만월대에 진열소를 새로 건축할 예정으로 예산은 200원, 착수시역은 3,4일 후로 결정했다. (1912.06.02)

도청에서 본년 춘기에 관하 각 부군에 개량 도종과 감자 등을 배부했다. 풍덕군은 개량 도종 석백을 경작한 자가 12인, 파종 면적은 3,570평, 성적이 양호해 재래종에 비해 수확이 증가할 예상이므로 농민이 그 좋은 종자임을 확신하고 내년도에는 석백종을 청구 경작할 자가 증가할 모양이며, 감자의 재배 평수는 320평, 파종량은 2만5천, 이를 구별하면 일반보의 수확고는 236관이다. (1912.08.18)

동부면 팔자동 백광규는 과수재배 방법을 수십 년 전부터 연구해 기타 식목 양잠에 각항 사업한 결과 지금 개성군 동부면 태묘리 황학동 등지에 각종 묘목을 다수 재배해 염한 값으로 방매하는데 사러오는 자가 끊이지 않는다. 묘목의 종류와 수효는 오복도와 천일도 각 2,000주, 칠선도 1,500주, 감홍도 5,00주, 반시도 1,500본, 감인도와 풍산도 각 500본, 감향도 2,000본, 상후도와 진홍도, 벽옥도, 홍매, 벽매 각 500본, 수밀도 1,000본, 합계 20,000여 본이다. (1912.09.08)

풍덕군 농계원이 농업개량발달을 도모해 상호의 이익을 증진하며 함께 공동의 미풍을 함양하는 목적으로 일반 농민으로 하여금 농계를 조직하고 지금 실시하는 중이다. 계원수는 737명, 계전은 343원, 계장은 군수의 명의로 우편소에 보관하고 향 5개년을 저축해 이배증식을 도모한다. (1912.10.29)

개성군 북부면 지파리 파천 거주 이종식은 10여 년 전에 금천군 관동에 배나무 천여주를 재배하여 45년 전부터 매년 5~6백 원의 이식이 있고, 서부면 남교 거주 김용권은 수년 전에 영북면 길수리에 배나무 수만 주를 재배하여 작년부터 약간의 결실이 있고, 같은 마을 거주 김용성은 선죽교 부근에 사과나무 수백 주를 재배하여 얼마 전부터 생재가 있다. (1913.04.11)

개성군에서는 금융조합과 협의하여 읍내 남부면에 조합원 중 13명을 선정하여 비료개량계를 조직하고 규약을 만들고, 퇴비사厩肥舍의 건설에 착수했다. (1913.05.11)

1909년 한국정부 보조금을 받아 창립된 조선농회 개성지회의 사업인 개성군 북부면 이정리의 과수원은 현재 면적이 2,684평이고, 재배과수 주수는 포도 477주, 배 117

주, 사과 157주, 복숭아 144주, 계 892주이다. 심은 것은 모두 일본에서 이입한 것이다. (1913.06.03)

풍덕군 농민계에서 농가 부식물 장려를 위해 고구마 재배를 보급하기 위해 올해 봄에 고구마 200관을 구입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 이주민에게 위탁 발묘發苗중이더니 지금 우량한 성묘가 된 고로 농민계원 719명에게 각 10본씩 분여했다. (1913.07.10)

군수 고원식은 서무계 서기 신현식, 축산조합 기수를 대동하고 기존 풍덕에 가서 기존 군청 구내에서 중,남,서 3면장, 이장, 일반농민, 부녀 총 300여명을 회집해 농업 개량에 대한 환등회를 개최, 다음날 16일 면장, 이장, 일반 인민을 소집해 농업개량, 납세의무, 도로교량, 근검저축, 기타화재예방, 위생주의를 장시간 훈유했다. (1914.03.20)

제2공립보통학교에서 본년도 농업실습지를 신설, 일반 학생에게 실습시키고자 도청에서 과수와 제주 종자를 무상배부함, 장단 대두 2합, 어저귀靑麻 2합, 무 1합, 연茹 11합, 사과 20본, 배 20본, 호박 소량, 낙화생 1승, “무변” 1합, 완두 1합, 포도 20본이다. (1914.04.01)

각 면에 단책형 못자리와 해충, 잡초 구제를 시행하기 위해 군서기 박순근, 이연식, 백두현, 신현직 등이 1주간 예정으로 출장했다. (1914.05.30)

개성군 16면 내의 보리 수확 예상은 작년에 비해 10분의 1~2할은 감축되었다. (1914.06.16)

군청에서 10일 모범면장 표상장과 맥작입수품평회 수여식을 겸행해 품평회에서 22명에게 포상했다. (1914.07.14)

개성군의 배추종자 값이 폭등했다. (1915.07.01)

개성제1공립보통학교내에서 1월 5일부터 개성군 주최로 농사장려회 총회를 열기로 했다. 현회원1백여명과 내빈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1916.01.13)

개성군에서 농산물품평회가 11월 10일부터 열릴 예정이다(1920.11.10)

개성군 대성면, 광덕면, 청교면, 남면등지의 풍덕수리조합은 재작년 총독부에서 실시 설계까지 한 조합인데, 그 창립위원회를 개성에서 개최하고, 팔십^八 경기도 농부과장을 위시해 우도^{宇都} 궁기사, 덕강^{德江} 개성군수, 매전^{梅田} 개성군세무주임등 12인이 열석^{列席}하여 공정학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1928.10.28)

6월 3일 풍덕읍내 공립보통학교 뒤 송악산정에서 풍덕수리조합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산정^{山頂}은 수리조합의 몽리구역을 전망함에 가장 좋은 장소로 조합장(공성학), 토지개량부장(송춘), 개성군수, 경기도 농무과장, 토지개량주식회사 전무 등의 축사가 있었다. (1929.06.06)

개성군 대성면, 광덕면 내 몽리면적 1,700여 정보의 수리관개사업은 올봄 풍덕수리조합 성립으로 공사비 65만 원으로 기공, 1931년 3월 완성할 예정이다. 그중 대성면 지내리, 산귀리, 고군리 3개리 중 250여 정보는 출선하여 1930년 관개수의 혜택을 입게 되므로 퇴비의 장려, 녹비 ‘해아리벳치’의 재배, 소작인의 설치 및 시험답, 모범답의 계획 등 산미개량증식에 힘쓰는 중이다. 그중 1개리에 2명씩 6명을 선발하여 모범 소작인으로 하여 선구자가 되게 하는 동시에 다수확 경작을 하게 하여 전반에 시범할 계획도 수립했다. (1929.12.08)

3) 지주, 토지

농회 개성지회 주최로 개성실업 담화회를 개성 지역 소학교에서 열었다. 일본, 조선인 100여 명이 모여 농사, 기타 실업에 관해 연설 담화를 하고 저녁에 해산했다. (1912.02.27)

개성군수는 11월 30일 대지주 50여 명을 공립 제일보통학교로 회집^{會集}하고 농사장려회를 조직했다. (1913.12.02)

장단, 풍덕군의 동의를 얻고 또 각 지주단체의 협의를 행해 경기도 농사장려회 개성지회를 설립해 종자의 개량, 비료의 보급 등 소작인 지도 계발에 전력하기로 설립 인가를 청했다. (1914.01.07)

12일 개성군청에서는 풍덕군 금성진 교량 가설의 연구방침을 계획하고자 개성 대지

주 20여 인을 군청으로 회동, 양군 군수와 양군 헌병대분대장과 분견소장이 설유했더니 이의 없이 원만히 결정되었다. (1914.02.15)

부호 김원배(동부면 경방리 개곡)의 집에 돌입한 강도가 체포됨, 규율에 의해 금품 기증이 금지되어 있어 경찰서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할 방법이 없어 김씨는 이번 공공사업에 2,000원을 기증, 200원 사립정화여학교, 100원씩 제1, 제2보통학교, 심상고등 소학교, 사립개성학당, 소방조, 위생회, 600원 개성보승회, 600원 남부 대통 도로 확장 공사비이다. (1914.03.05)

개성군 농사장려회가 제1공립보통학교 내에서 개최되었다. (1916.01.18)

개성군 농사 장려회에서 20일부터 여자 공립 보통학교에서 총회를 개최했는데, 출석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후 12년도 사업보고 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회비 부담 변경의 건을 통과했다. (1924.02.23)

개성군 지주간담회는 12월 4일 송도면 누상樓上에서 개최되었다. 지주 출석자가 약 50명이었다. 회의 안건은 도작稻作 개량에 관한 건, 양잠 장려에 관한 것 등이다. (1925.12.08)

사면 광정리 광정포 초생지와 우사지 2반 3무 16보는 동리 사는 김화준에게 허가해 기한은 1922년 8월 16일까지로 세금은 매년 50전씩으로 정했는데 성공 후에는 영위 부여했다. (1912.09.04)

풍덕, 장단군은 1913년 1월부터 시가지 이외 토지조사에 착수해 9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준비조사에 착수했다. 특별히 개성군에서 풍덕, 장단군 토지 소유자가 많음, 토지소유자는 일자 안에 토지 신고를 제출하고 지주 총대를 한 동리에 두 명씩 선정해 제출하고 경계 불명한 곳은 즉시 각각 조사했다. (1912.12.22)

지난달 17일부터 시가 지적도 조사부를 열람하게 하여 소유권, 경계 등을 열람하고 이의자는 공시 기간 만료 후 60일 내로 고등 토지조사 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입을 것이다. (1914.01.18)

시가지 부동산 증명 증기시행령에 대해 1일부터 지방 법원 개성지청에서 사무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1914.05.06)

토지조사가 완성된 후 개성군청에서는 지주의 소유권 보존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각 면별 토지조사부 지적도의 종람(縱覽)을 실시한다. (1915.12.01)

개성군청에서 토지소유자의 조사부 지적도(地籍圖) 종람을 특허하였는데,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종람건수가 모두 7만 8천 필 중 1만 4천 필에 불과하다. (1915.12.14)

4) 교육

1911년 5월에 총독이 개성 순시할 때 각 학교에 기증한 5백 원을 품행 방정한 우등 졸업생에게 포상금으로 주기로 결정했다. (1911.07.04)

풍덕군 중면 동강리 사립중립학교는 창립 3년이 지났으나 출석 학도가 10인에 불과해 포병 파견 소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설득해 지금 출석학도가 97인에 달해 학교 건물이 부족할 지경이다. (1912.01.18)

공립보통학교에 재근 훈도와 강정식이 도내 4부 사숙과 바깥 마을 개성리 유능리 등지로 순회해 유치생도, 수백 명을 매월 6차씩 본군 기존 사립 광명학교 내로 회집해 일본어, 산술을 교수했다. (1912.02.13)

보통학교는 종래 공립 1교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사립이었던 3교를 합해 1개소의 공립을 설립해 공립 제1, 제2라 칭한다. (1912.03.10)

승명학교 졸업생도 우등생은 박한선, 이상열, 김상규, 박상건, 송기학, 임천경, 급제생 윤의구, 박점룡, 양정근, 야학부 우등생 이응림, 장광한, 이증량, 안상훈, 백성학이다. (1912.03.29)

승명학교에서 지난 일요일 졸업 증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각 관리, 학부형제가 다수 참석했고 기부품도 많았다. 작년에 사내 감독이 기부한 금액으로 각 생도에게 우수상품을 급여했다. (1912.03.29)

이전에 기본금의 부족과 인민의 반대로 학교를 설립하지 못했던 개성군 하남면 후석리 비미동 양지학, 양창화, 양지후 3명은 1월에 사숙서제를 학교로 수리하고 비양학교라 한 후, 청년을 다수 모집, 교수는 그 고을 박성학으로 고빙하고, 국어, 산술과 등을 교수한다. (1912.05.04)

사립 배양학교에서 지난달 휴학 시험을 보이고 지난 4일 성적을 발표했다. 학교 임원 일동과 학부형들이 다수 연조한 상품을 각 우등 급제생에게 시상한 후 교장 교사와 기타 찬성원들이 생도 일동에 대해 학문의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해산했다. (1912.07.30)

하남면 사립 배양학교 심상과 생도 양수복⁽¹⁰⁾은 교감 양재후의 맏아들로 4살부터 가정에서 수학하다 8세에 학교 입학, 작문 습자가 수십 명 생도 중 제일이며 풍우한서를 불관하고 결석이 없다. (1912.08.20)

동명 사립 동흥학교를 설립한지 수삼년에도 학생이 340명에 지나지 않아 적전리 현병소장이 몸소 돌아다니며 가유호세해 학생이 수백 명에 달하게 되었다. (1912.08.20)

명망가로 지칭받는 풍덕군 참사 장범수와 박도진은 사립학교를 건설해 사립중립학교라 명칭했다. 본년 4월 총독부 인가를 받고 교사의 설비, 교수의 방법, 생도의 훈련 등 방법이 타 학교를 능가하며 특히 교사의 청결, 기념수 식재 시행에 있어서 타 사립학교에 모범을 보였다. 지난달 말부터는 일반 생도에게 초혜 제작을 장려해 대금을 저축하게 해 지금 6원임, 1인분 80전이다. (1912.09.06)

사립학교 교장이 된 공전영수원 양재화는 2월에 교사 백성학을 연빙했고 생도가 30여명에 달하며 추기에 인동초목수를 모집해 야학과 설립, 일본어와 한문을 교수함, 매야에 학생이 5~60명에 달한다. (1912.11.22)

개성 제1보통학교 증축공사는 10월 말경 준공될 터이고, 제2보통학교 신축공사는 11월 말경 준공될 듯하다. (1913.10.21)

17일 공립소학교내에서 환등회를 개최했다. (1914.01.19)

군청에서 공립소학교 훈도, 제1공립보통학교 훈도 일등을 회집해 서명 낭독식을 행했다. (1914.02.15)

북부면 정화여학교에서 21일 학부형회 겸 생도연습회를 개최했다. 여학생 111인과 학부형, 각 관청 관리 200여 명이 회집, 관람자 천여 명, 자녀교육의 방법, 잠업의 필요 등을 설명해 학부형회를 갖고 생도 111명이 근학가, 부모은덕가 등을 부르며 생도 연습회를 가졌다. (1914.02.25)

개성학당에서 27일 제10회 졸업식과 수업증서 수여식을 거행함, 졸업생도 25명, 기념촬영이 있고, 정화여학교에서 제2회 졸업식을 거행, 각 관청 관리, 학부형이 참석, 관람자가 6,700명에 달했다. 졸업생 15명의 증서수여식을 거행, 교장에게 유명한 4언절 1수씩을 지어 16첩의 비단 병풍 1기를 만들어 올리고 현옥남명은 은제 옛 그릇 1좌를 올림, 학생과 직원 일동의 기념촬영이 있었다. (1914.04.01)

기존 풍덕 공립보통학교에서 지난 25일 제2회 졸업식을 기존 군청 내에서 거행, 관공리, 학부형, 신사 약 780명이 참석, 졸업생 고상익 등 7인이 증서와 상품을 수여, 교내에 학급 성적품을 진열해 일반에게 관람케 했다. (1914.04.02)

개성 군수 고원식은 23일 유지자, 실력가 24인을 북부 채하동으로 초대해 다화회를 설행해 여자 교육 발전을 위해 정화여학교 교실 1동 증설과 기타 잡다한 지출 방침을 협의했다. (1914.05.24)

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은 과반 만기로 임면이 있고,本月 20일 군청 내에서 새롭게 피선된 제원에게 사령서 전달식을 거행했다. (1914.07.24)

개성군내 3개 사립학교 하기방학이 6월 말과 7월 1일 실시되었다. (1915.07.01)

개성군내 공립보통학교는 9월 1일, 한영서원은 8월 25일, 호수돈여숙은 9월 1일, 미리흙여학교는 9월 6일 개학 예정이다. (1915.08.24)

개성 호의숙(好義塾)에서 21일 오후 8시에 충교예배당에서 제4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호의숙은 현재 학생이 33인에 졸업생은 30인이다. (1916.03.25)

사립 개성 학당에서 24일 오후 10시부터 제12회 졸업식을 거행한다. 졸업생은 25인 인데 주간 학생이 14인이고 야간학생이 10명이었다. (1916.03.26)

개성의 북부사립호수돈여숙은, 제일공립보통학교, 공립제이보통학교, 정화여학교에 등에서 졸업식을 거행한다. (1916.03.28)

개성에서 사립 한영서원의 제10주년 기념식이 충교예배당에서 거행되었다. 축하 및 윤치호씨의 축사후에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1916.10.15)

개성군 동면장 고두연은 관내 면민의 몽매함을 깨우쳐주기 위해 면에 노동야학회를 설립했다. (1916.11.26)

24일 개성 제이第二공립보통학교 제5회 졸업식이 있었다. 졸업생은 39명이다. 24일 오후 사립 정화여학교 제5회 졸업식이 있었다. 졸업생이 13명이다. 25일 공립보통학교 제8회 졸업식이 있었다. 졸업생 남자 77인, 여자 15명, 간이상업학교 졸업생 23명이다. (1917.03.27)

경기도에서 설립할 개성상업학교는 중등과정의 조선인 교육기관으로 이미 그 공사에 착수하여 본년(1918)도 안에 준공을 하고, 경기도립 상업학교로 4월부터 생도의 입학을 허가하여 개교할 것이다. (1919.01.16)

개성군 사립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장王來은 부득이 당분간 임시휴업하고 일반 생도로 각각 귀성케 했다고 학부형에게 통첩했다. (1919.03.17)

공립 개성상업학교는 3월 15일 인허 지령이 났다. 입학자격자는 인천상업학교와 같이 각 공립보통학교 졸업생이다. (1919.03.19)

개성군 공립상업학교는 4월 15일 가假 교사校舍되는 북본정 정토정교회소 북쪽 인근 야소교회당 안에서 개교식을 거행했다. 도장관 이하 중요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1919.04.18)

개성여자공립보통학교 설치 원願은 18일 총독부 고시로 인가 발표되었다. (1919.09.21)

개성군 제일 공립보통학교에서는 11월 28일부터 2일간 모자회(母姊會)를 열고 학생의 수예품 성적을 학부형에게 전람케 했다. (1919.12.02)

개성고등보통학교 교생 150여 명이 수학여행을 위해 당교직원 일동의 인솔로本月 22일 역에서 기차를 타고 여러 학교를 견학하고 24일 귀교할 예정이라고 한다. (1920.05.22)

노동대회개성지부에서 6월 21일 오후 4시에 평회원회를 개최하고, 회의한 결과 야학을 개설하고 일반평회원의 각 과를 교수하기로 했다. (1920.06.25)

노동대회개성지부에서 야학을 설립하는데, 이와 관련된 개회식을 7월 1일 오후 8시에 실시했다. 당일 입학지원자가 30인이다. (1920.07.04)

개성송도보통학교에서 17일 오후 7시에 학예회와 학부형회를 개최한다. (1920.11.20)

개성군 제1, 제2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선정이 있었다. (1921.01.29)

2월 5일 오후 개성 충교예배당에서 교육 관계자 일동이 모여 “현 조선사회의 급선무는 남자교육이 가한가 여자교육이 가한가” 문제로 가편과 부편으로 나눠 토론을 했다. 청중은 2백여 명이었다. (1921.02.08)

개성군 청교면 고남리 빙철동은 백여호 촌락으로 남산서당만 있다. 작년경 안희진이 교사를 자청하여 학교과정으로 열심 교육하여 일반학생 지원자가 60여 명에 달한다. (1921.03.05)

개성 사립 송도고등보통학교에서는 5월 24일 수학여행을 개최한다. 1학년생 150명은 3일간 평양 진남포 등을, 2~3년생 80여 명은 3일간 원산항을, 4학년 20여 명은 4일간 예정으로 대구 경주 등지를 견학한다. (1921.05.12)

경성 재류(在留) 개성학생친목회는 13년 전 설립되었다. 금년도 하기 귀성을 이용하여 남본정 중앙예배당 안에 남녀 하기 강습회를 개설했다. 8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남자부 야학, 여자부 주학(晝學)으로 자격 갑반 고등보통학교 3년급 과정 영어(3권 회화), 수

학(태수), 을반 고등과 1년급 정도 영어(1권습자) 수학(산술)으로 하여 동 회원 및 송도고등학교 교사들이 교수 중이다. (1921.08.06)

민립대학 기성을 위해 개성군에서는 고려청년회에서 각 단체와 협의하여 발기인을 선발했다. 특별히 단체 이외 유지인사의 발기로 민립대학을 후원하기로 했다. (1923.01.10)

개성군 공립상업학교에서 3월 16일 제3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국가합창, 칙어봉독, 증서수여 후 교장 회고報告, 경기지사 고사告辭 등이 있었다. 졸업생 28명 중 우등생 6명, 개근생 4명이다. (1923.03.21)

제1공립보통학교에서는 9일 아동 학예회를 개최해 23종의 창가, 아동극을 개연했고, 제2공립보통학교에서는 11일 학예회를 개최해 50종의 유희창가, 체조 등을 개연했다. (1924.03.12)

개성군 북면은 1,200여호의 거주지인데 아동 초등의 교육기관이 부족해 면장, 협의원 구장, 유지자들의 발기로 작년 10월 면민 대회를 열고 6,000여 명이 찬동해 기성회를 조직해 자발적 기부금 3,000여 원을 은행에 적립하고 군 당국에 진정했다. 17일 군수, 서무부장이 현장에 출장해 터를 시찰, 확정하고 24일부터 부지 정리에 착수했다. (1924.04.29)

21일 개성 정화여자보통학교에서 창립 제15년 기념식과 교장 김정혜의 15주년 근속 기념 축하식을 거행했다. (1924.06.23)

개성 고려여자관에서 28일 중앙 유치원 재봉과, 요리과, 주야학 각 과 생도의 학예품을 전시해 일반 시민들이 관람했다. (1924.07.01)

개성 관내 공사립학교 훈도, 부근 군 학교 훈도를 연합해 지난 24일부터 5일간 공립 상업학교에서 강습회를 개최했다. (1924.08.26)

개성 사립 호수돈 여자고등보통학교, 미리흙 여학교 등 3개 학교에서 연합해 학예품 전람회를 열고 6, 8일 일반에게 관람하게 했다. 경성 진명, 숙명 여자 고등 보통학교와

제1, 2 고등여학교의 출품도 있었다. (1924.09.10)

개성군교육연구회에서 국어과 지도연구를 실습케 했다. 2월 14일 경기도 국어과 시학위원의 고평^{고평}을 받고 군내 공사립 교원 73명에게 모범적 지도방법을 참관케 했다. (1925.02.17)

개성여자공립보통학교에서는 10월 4일 추기 운동회를 기회로 이 학교 후원 이사들이 9월 22일 조회시간에 이제부터 백색 저고리, 흑색 치마, 백색 양말에, 백색 운동화, 땀기는 자색 토주^{토주}를 드리며 가급적 토산물을 사용하도록 설유했다. (1925.10.03)

개성 제2공립보통학교 훈도 신태인은 다년 근무하던 중 8월에 학교를 사직하고 김정훈이 겨영하는 재단법인 사립 정화여자보통학교에 출근한다. (1925.12.19)

개성여자공립보통학교 교장^{井澤}과 훈도(진서립)는 여러 방면에 수완을 발휘하며 열심 근무 중이다. (1925.12.30)

개성군 영남면에서 매년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장양 도씨가 대정12년부터 동면내 용흥강습을 설립하고 보통과정을 교수하게 했다. 강습소 강사는 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한 김성열 군과 제2공보를 졸업한 박명천 군으로, 아동 교육에 매우 열심이다. (1926.05.26)

지난일 개성 제2공립보통학교 후원회에서는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926.06.06)

개성군 전광삼의 장남 전용석은 개성제2공립보통학교의 자기반 담임선생에게 지독한 매를 맞고 혼절하고 말했다. 지난 6월 1일 전용석이 학교에 등교해 1교시 수업인 국어를 배울 때 담임선생 최준선은 교수시간에 국어를 잘 못외운다는 구실로 무수히 난타했다. 또 화학시간에는 품행이 단정치 못한다는 핑계로 벌을 세우겠다고 용석에게 오라고 했는데, 어린 용석은 선생이 너무나 무서워서 선생에게 가지 못했다. 그러자 선생은 용석의 귀를 잡아 당겼는데, 약 한 치가량의 충상을 내고 다시 운동장 가운데서 아카시아 나무로 전신을 무수히 난타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용석은 혼절까지 했는데, 선생은 발길질로 등을 밟아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할 만큼의 충상을 주었다. 이에 학부모와 일반 사회에서 엄중한 항의와 주의를 주었는데, 학교당국은 최준선에 대

해 처벌을 내리겠다면서 아직 행동이 없어 학부모와 일반사회가 매우 분개 중이다.
(1926.06.28)

개성공립상업학교 제5회 동창회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동교내에서 개최한다. 동일에 간친회도 한다더라. (1926.09.21)

개성 제2 공립보통학교에서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동교 강당에서 제 18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생 159명 중 상급학교 지원자가 88명, 취직자가 33명, 가사 39명이었다. (1928.03.26)

개성동본정 제2 보통학교의 강당은 건축청부업 마증유씨의 손으로 기공되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1월 30 지방 유지를 초대하여 성대한 상동식을 거행했다. (1928.12.02)

5) 교화, 선전

개성학회 임원 임동전, 김덕수, 장용섭 등이 '동포의 지식을 발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관 안에 신문잡지 종람소(縱覽所)를 설치하려 소관 경찰서의 인허를 얻어 창설했다. (1911.02.08)

풍덕군 각 면·이장 등은 3월 31일에 명륜당에 모여 빈민에게 주어진 은사금을 기념하여 선정비를 각 리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1911.04.14)

북부 괴동의 김정혜는 20년 전에 남편의 초상을 당하고 절행을 지키며 나무도 하고 밭도 매어 시부모를 봉양하며 가족을 구제하고 근히 생활하는 데 보는 사람마다 그 부인의 절행을 칭송한다. (1912.05.08)

지난 25일 제일공립 보통학교 안에서 교육위생, 권업에 관한 환등회를 설행했다. 무대금으로 각 관리, 훈도, 생도가 다수 참여했고 기타 남녀의 관람자가 모여서 인해를 이루었다. (1912.05.28)

북부면 예빈리 입동의 고려병원에서 지난 10일 환등회를 열고 유지 신사와 각 학교 임원, 생도를 다수 초대해 무료 관람케 했다. (1912.06.12)

서면장 한영순은 각항 공문을 알아보기 쉽게 번역해 일반민에게 설명하고, 매일신보 구람을 권유했다. (1912.07.17)

군수 박우현은 군내 군외 13면이 매일신보를 청구 애독한다. 서면의 장한영은 광정리 신대동 유지신사 박화용과 협의해 관내 각 동리에 매일신보의 구람을 권유해 구독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 (1912.08.17)

관덕정 남정에서 총독부 촉탁이 조선어로 풍속 진흥, 산업장려, 유년 아동의 가정교육, 근검저축에 대해 장시간 강연했다. 도청에서는 본도 농업 순회교사가 각항의 농산물 심는 법, 해충구제, 추수 등의 강연이 있는데, 군참사 류원표가 강연한 시말을 계속 상세한 담화로 잠시간 해설해 일반 방청 남녀의 의문이 없도록 했고, 방청자가 남녀 6,7천명에 달했고 공립 소학교 안에서 환등회도 설행했다. (1912.09.06)

군수 최태현은 본보의 구람을 열심히 권유한 결과, 해군 분매소로 청구하는 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1912.11.14)

군청에서 31일 제1공립보통학교 내에서 일반인민의 근검저축의 장려와 농사개량, 양잠도해, 제국실업장려 사상을 흥기하고자 환등회를 개최했다. (1914.01.31)

22일 제1공립보통학교 내에서 유지 신사, 면리장 300여 명을 회동해 교풍회를 실시, 교풍장선조합 규정준칙을 제정, 종래 폐풍을 교정하고 양품미숙의 발양, 친목융화, 공익 도모, 근검 저축 등 10장 24조를 규정, 조합장은 각 면장으로 마을대표는 면내 덕망이 높은 자로 선정했다. (1914.02.25)

10일의 기차박람회 관람자 영접을 위해 신문사에서 개성역 측에 장소를 준비하는 중이다. (1914.05.02)

개성 동면 면장(고두찬)은 인민의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 면내 인민에게 매일신보 구독을 권유한 결과 지금 면에는 구독자가 이전과 비교해 다수이고 신청대금 체납자에게는 자담 지불해 구독이 끊기는 일이 없게 했고, 면내 극빈자 38호에게 올해 제1기 호세 5원 70전을 자기의 사비로 납부하고 38인에게는 일절 면세했다. (1914.05.08)

개성군 고려청년회 주최로 1월 22일 오후 7시부터 개성좌에서 강연회가 있었다. 강사와 연제는 군수 산본기삼랑의 '청년의 각오'와 김창제의 '금석의 조선과 우리의 책임'이다. (1921.01.26)

개성군 유림시찰단은 귀환 이후 그 문화 및 시찰 소감을 일반 지사에게 선전하기 위해 관하 16면^面 사무소 및 공·사립학교로 순회강연을 행했다. (1921.05.23)

7월 12일 개성 충교 엽윳청년회 주최로 일본 유학생의 강연이 있었다. 연사는 공진태, 고한승, 진장섭이다. 청중은 2천여 명이다. (1921.07.17)

재^在동경 불교청년회 순회강연단 일행 4명이 평양을 거쳐 7월 24일에 개성에 도착했다. 25일 개성좌에서 고려청년회 총무 사회로 강연회를 열었다. 연사는 강성인, 주영방, 신대호 등이었고, 청중은 4백여 명이였다. (1921.07.28)

개성 중앙 예배당에서 28일 '엠피윳'청년회(Epworth League) 주최로 특별 대강연회가 있었다. 강사 철학 박사 이관용이 '국민이 무엇이냐'의 주제로 장시간 강연했는데 청중 500여 명이 만석을 이루었다. (1924.07.02)

개성 북본정 중앙회관 청년부에서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고려사^{高麗史}' 강좌를 무료로 개강한다. 강사는 박이양이다. (1925.06.28)

개성군에서는 향교사업으로 지방개량 강습회를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영남면 관음사에서 개최한다. 지방교화, 농촌개량 상 중심인물을 양성할 목적이다. 강습원은 약 20명이고, 강사는 경기도에서 파견한다. (1927.07.22)

도로수선에 기부한 사람들에게 도청으로 포상장과 증품을 배부했다. (1914.07.15)

총독부에서 조선 물산 공진회 임원을 조직하기 위해 13일 본 군청에 통첩해 당지 유력 재산가로 조선, 일본인 각 1인씩 뽑으라 해 장야보와 박우현이 공진회 평회원으로 선정해 상부에 보고했다. (1914.08.18)

시정5주년기념공진회 사업을 협찬하기 위해 개성군의 조선인 일본인이 협찬회를 구성했다. (1915.05.22)

개성 농림학교 생도 96인은 14일 오전 8시 입경하여 경기도 지정여관에 투숙했다. (1915.09.15)

6) 문화, 여가, 체육

개성경찰서에서 일반직원을 위해 경찰협회에서 오락기관을 설치하고 2월 19일부터 시행했다. (1911.02.18)

경성의 신문 통신 기자단 중 유지는 10월 7일 개성의 명승고적을 순람巡覽하고 귀경했다. (1911.10.08)

박군수, 경찰서장, 타 유지자의 발기로 명승사적지의 보존, 식수, 도로 수축 등을 목적으로 개성 보승회를 조직하고자 한다. 기부금을 모집한다는데 이미 수백원의 기부 신청이 있어 본년부터 3년간 만월대, 선죽교 등지에 앵두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고 유람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1912.02.07)

철도공원의 복숭아꽃은 가장 유명한 경치로 오는 5일(공일) 즈음이 가장 구경할만한 시기이다. 이에 남대문과 개성 사이에 임시 열거를 왕복케 하고 찾값은 반값으로 하고 단체 신청은 2, 3일 전에 가능하며 만원이 되면 거절한다. (1912.05.01)

보승회에서는 오는 5월 5일의 철도 관도열차의 유람객을 접대할 계획으로 채하동, 선죽교, 만월대 등에 휴게소를 설치하여 접대한다고 한다. (1912.05.01)

유지 신사 모씨는 고을 남녀의 문명사상을 발전시키고자 남녀 200여 명으로 경성관광단을 조직해 곧 경성으로 올라가 관람한 후 수원, 인천 등 각 처를 유람하기 위해 지금 군청, 경찰서와 협의 하는 중이다. (1912.05.09)

보승회 회원 모씨는 지난번 관도회에 참여하고자 내려간 경성 인사를 접대하느라 수고하였음으로 군참사 우상훈, 류원표의 발기로 접대위원들을 북산 채하동 산정으로 초대해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 (1912.05.11)

동부 경방리의 김원배는 작고한 생부의 회갑을 위해 지난 8일에 풍덕군 도선암에서

백미 5섬, 500원을 드려 불공했다. 매우 휘황찬란해 남녀의 구경꾼이 대략 만 여명에 달해 경찰관이 출장해 보호했다. (1912.05.14)

개성관광단과 발기인들, 역장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18일에 북산 부산동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고 종일토록 즐겼다. (1912.05.21)

명승지 보존을 위해 조직한 보승회에서 선죽교, 만월대의 비랑, 부근 도로 교량을 새로 수리하고 버드나무, 앵두나무, 단풍나무 등 천연 매를 심었다. 지역 각 고지에도 연속하여 수리할 예정이다. (1912.05.30)

조장중, 박희대 등의 주관으로 남부면 육정동에서 “성미단” 신연극을 설행했는데 관람자가 다수이다. (1912.05.31)

유지 신사들이 명승고적 보호를 위해 조직한 보승회가 29일에 철도국으로부터 100원의 기부를 받았다. (1912.05.31)

중부 누동의 후작 이해승의 일행 7인은 지난 1일에 경의선 열거로 개성군에 도착해 경덕궁, 선죽교, 송양서원을 관람하고 개성군보승회에 20원, 세 곳의 수직하는 사람에게는 각 1원씩을 주고 지난 3일 오후에 상경했다. (1912.06.06)

4부에 전래하던 군자정, 호정, 관덕정, 반구정의 4정의 유래 습관을 쫓아서 동부 호정의 발기로 각 정자에 통문을 돌리고 불원간에 네 정 활랑들이 모여 편사에 성한 놀이를 짓기로 준비하는 중이다. (1912.06.09)

개성군 동부 팔자동리 마곡 등지에 노동자들이 다수 작반하여 옷놀이와 잡기에 득실이 많고 도로 통행에 크게 방해가 된다고 함(1912.06.09)

19일이 구력 5월 5일 천중절이라 유래 습관에 의해 명승지 경덕궁에서 일반 부녀의 추천회를 열었다. 경성, 장단, 파주, 풍덕, 연천 마전, 적성, 금천 등지에서 온 관광 유람 부녀가 약 4,5천명에 달해 헌병 경찰 관리의 주밀한 보호가 있었다. (1912.06.21)

조선의 “산두도감”은 잘못된 풍속으로 개성군 북부면 예빈리 입동에 있는 음률회사

에서 지난달 30일 도장동의 “산두도감”은 60월에 달한다. (1912.07.05)

남북촌 모씨는 음사회를 개설하고, 북부면 괴천과 남부면 도화동과 명승지 금계형에 모여 약간의 술과 안주를 먹으며 풍월을 읊조려 청한한 노래를 짓는데 모두 희호세계의 사람이라고 칭송했다. (1912.07.06)

4부 4정에서 편사가 성행해 지난 10일에 4사정 활랑들이 동부면 호정에 모여 승부를 견단하고 있는데, 남북촌 신사 사모는 음력 4월 29일에 음사회를 실시하고 유쾌한 노래를 차리기로 협의했다. (1912.07.12)

곡가 상승으로 인해 임시 정지했던 연흥사 혁신단 일행은 오늘 밤부터 ‘선탐후개’를 다시 개연한다. (1912.07.16)

남부 구리개의 고등연예관은 도로확장으로 인해 헐고 재건축해 전후 제도가 진행 중으로, 날씨가 청명해 본월 이내에 준공될 것인데, 새로 건축하며 크게 개량해 2층에도 뒷간을 양편에 설치하고 기타 설비도 모두 화려하게 했다. 새로 개연하는 동시에 유명한 활동사진과 재밌는 여흥으로 일반 관람자의 취미를 돕고자 계획 중이다. (1912.07.26)

북부면 리정리 입암에 사는 이기세는 신연극을 설행할 목적으로 일본 경도에 두류하는 중이다. (1912.07.26)

어떤 사람들은 지난 21, 22일에 동부면 경방리 보선정에서 중포라 하는 편사를 성대히 설행했다. (1912.07.26)

사동 연흥사 혁신단 일행의 신연극은 날로 진보해 사회의 모범 기관이고 보통학교라 할만한데, 밤마다 인산인해를 이룬다. (1912.07.26)

원각사 유광관에서 흥행하는 활동사진은 이전부터 사진 전부를 일체 바꾸어 활동하는 데 과연 불만하다. (1912.07.26)

서부면 관전리 소로동 등지에는 경찰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富田이 연극장 집을 일층 확장했다. (1912.08.20)

고등연예관에서는 지난 8월 30일에 개관을 하려했는데 어대장 마치고 전까지 근신하기 위해 정지되었고, 개관할 일자는 다시 광고할 것인데 개관하는 날에는 전부 불을 켜 줄 것이다. (1912.09.06)

23일에 수원 농림모범학교 교사 2명, 생도 30명이 공일을 이용해 소풍 와서 개성 각 처 명승지를 관람하고 하루를 묵고 24일 오전 돌아갔다. (1912.09.26)

청년파일단은 청년학원의 경비 군졸함을 애석히 여겨 오늘 밤에 연주회, 예제 '정렬탐험'을 선행한다. (1912.11.05)

개성좌 유일단은 재작일부터 매일 흥행하고, 화려한 극장, 활발한 배우, 도구의 신선함이 가히 각 지방 연극계에 제일 특색이 될만하다. (1912.11.07)

서부 소로동 개성좌 유일단은 '비파성', '상사린'이라는 연제로 흥행했다. 완고의 구습을 파탈하며 현행 신식의 연속한 배우로 일반 관람하는 남녀의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1912.11.22)

개성좌에서 흥행하던 유일단 일행은 사동 연흥사에서 근일 여러 각본으로 흥행하는 중인데, 일반 배우가 모두 서어함이 없고, 그 중 여장한 김도원의 태도와 남장한 이기세의 정대, 안광익의 자세는 가히 연극에 첫손가락으로 꼽아줄만하다고 일반관람자의 평론이 자자하다. (1912.12.10)

개성군 남대문 내 서랑에 거주하는 오경옥은 10여 년 전부터 사진을 공부하여 7~8년 전에 서랑에 2층으로 사진관을 건축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수삼년 전부터는 매년 1월이면 반액으로 하고 있어 밥먹을 시간이 없다 한다. 오경옥은 일본어에 능통하고, 소방대장을 겸했다. (1913.02.01)

개성보승회에서 명승지와 고적을 지도하기 위해 표목과 게시판을 세웠는데, 아이들이 장난으로 글자를 지웠다. (1913.03.26)

개성군 남부면 구리죽리 잡화상 장명순의 모 김영복 외 25명의 중등中等 상인의 처와 딸로 구성된 관광단이 15일 개성을 출발하여 경성을 관광하고 18일에 개성으로 돌아갔다. (1913.04.19)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주최 밤 줍기 대회 광고. 10월 5일 일요일에 개성에서 50여석의 밤을 무료로 제공하는 밤줍기 행사를 한다는 광고이다. (1913.09.26)

경찰서 협회에서 15일에 회원과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기예회를 준비했다. (1914.01.18)

개성군에는 각 처에서 관람객이 끊이지 않아 명승고적에 만월대, 선죽교, 채하동, 부산동 송양서원, 관덕정, 경덕궁, 철도공원 이외에도 여러 곳을 일반 관람에 편하게 하기 위해 도로를 새롭게 함, 황해도 해주의 일본인은 마차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1914.02.15)

서소문 밖 태평관을 고적지 선죽교로 옮겨 이전 태평관과 유사하게 건축하는 것에 착수했다. (1914.03.14)

물화소개조합에서 춘기 운동으로 8일 동업자 60여 명이 술과 안주로 북부면 영춘대에서 상춘이 있다. (1914.04.10)

개성좌에는 수일 전부터 혁신단 임성구 일행이 신연극을 흥행하는데 매일 극상이 좁은 듯하다. (1914.04.11)

경성, 인천 각 지방에서 흥행한 신파혁신단 임성구 일행은 월 초부터 개성에 내도해 개성좌에서 흥행할 때 다수 관람자의 박수갈채와 환영이 있었다. 걸인 17명을 선죽교로 회집해 새 옷 상하의 1건, 초혜 1족 등을 분급하고 기념 촬영하여 교서, 교동에 관광자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당일 밤 개성좌에서 본고에 연재되던 '눈물' 비극을 흥행했다. (1914.05.09)

보승회에서 만월대, 경덕궁에 수목을 수천 본을 심고 건물 2동을 건축한것에 대해 일본 상동국에서 은배 1개를 하사했다. (1914.05.21)

개성에서 매년 각 사정에서 협의해 편사를 쏘는데 올해는 상중이라 아직 거행하지 않았다. 국장을 지낸 후 음력 5월 초성으로 거행한다고 각 사정 한량들이 사원을 조직해 매일 회집해 연습하는 중이다. (1914.05.21)

북부 한영서원에서는 수학여행 평● 시찰차로 교사 9명, 생도 52인, 자원자를 선출해 27일 열차로 출발했는데 3일간을 순람하고 돌아온다. (1914.05.29)

21일 경성 황조정 사원 20여 명이 개성에 도착해 22일 호정에서 연합 활쏘기 대결을 거행했다. (1914.07.24)

단오일에 개성군 경덕궁 안에 여항^{閭巷} 부녀가 모여 그네타기를 개최한다. 본년에는 은사수산장 생도 48명이 그 수산장 뒤 수양 속에서 그네타기를 개최하고, 내왕객으로 하여금 춘잡 사육과 고치따는 성적을 마음대로 구경하도록 했다. 요리점과 음식점 조합원은 태평정 철도공원에서 씨름대회를 열었다. (1915.06.15)

경성조선관에 개성의 구파연극단이 공연을 1주일간 공연을 해서 흥행에 성공했다. (1916.03.15)

개성 사립 한영서원학숙 청년회에서 2월 23일 오후 7시부터 북부 예배당에서 음악회를 개최했다. 군청, 재판소, 헌병 관리가 다수 참석하고, 일반 방청자 6백여 명에 달했다. (1917.02.27)

경성 사립 배재고등보통학교 직원 16명, 생도 327명이 5월 16일 개성에 가서 오후 2시부터 사립 송도고등보통학교 생도와 동교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개최했다. 관광자가 인산인해였다. 17일에 대흥산성, 박연폭포를 유람하고 18일에 귀교했다. (1917.05.19)

경성사립보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위해 직원 8명, 생도 94명이 6월 7일 개성에 가서 오후 3시부터 사립 송도고등보통학교 생도와 동교 운동장에서 야구대회를 하고, 8일 대흥산성, 박연폭포. 9일에 두문동 등지 시찰하고 오후에 귀교했다. (1917.06.12)

6월 23일 단오절을 맞아 개성 경덕궁에서 그네뛰기 행사가 있었는데, 금년은 가뭄이 심해 예년의 4할의 경광^{景光}을 줄이고, 약간의 군중만 있었다. (1917.06.27)

금강산 유점사 53불 중 작년 봄에 17불상을 도난당했는데, 그 중 1개가 개성 고물상에서 발견되고 범인 1명도 체포되었다. (1917.06.27)

개성군 관내 고적古蹟 조사를 위해 총독부 축탁谷井濟一이 8월 2~7일 출장했다. (1917.08.05)

개성군 경찰서에서는 연래 아동들의 폐습으로 삼오 무리 지어 가로상 척전擲錢의 악풍이 있으므로 통행 및 풍속의 방해가 있어 아동들의 척전을 엄중 단속하니 그 부형들은 극히 주의할 일이다. (1919.02.27)

해삼위조선인학생음악단(단장 이강) 일행 7명이 5월 13일 황주로부터 개성에 도착하여 저녁에 개성좌에서 연주회를 열었다. 16일에 인천방면으로 향하여 출발했다. (1921.05.16)

개성재향군인분회에서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개성좌에서 기생연주회를 개최한다. 11월 17~18일에는 조선인 예기가, 19일에는 일본인 예기가 연주한다. (1921.11.19)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에서는 그 학교 뒷산 우천 체조장을 건축 중 고려 주조 청동자기(화로, 화병, 마등자, 주전자, 세면기 등 십수 종)를 발견했다. 그 학교 참고품으로 진열될 터이다. (1923.06.21)

지난 6월 송도고등보통학교에서 운동장 터를 닦던 중 땅 가운데 한 길 깊이 되는 속에서 발굴된 유물(금으로 된 바가지, 술병 1개, 대야 3개, 화병 1개, 향로 1, 화로 1, 鑑 1조의 8점)은 그 후 보안과의 지시로 개성경찰서에 보관했다. 8월 20일로 보안과로 옮겨 총독부로 보내기로 되었다. 전부 고려 말기의 것인 듯하며 발굴된 장소는 만월대를 상거相距하여 동쪽으로 약 5정 가량되는 조그마한 언덕이다. (1923.08.21)

4일에 개성의 청년 문사가 모인 녹파회에서 동인의 창작을 몇 개씩 모아 정가 1원 30전에 단행본 '성군'을 발행했다. (1924.03.10)

개성 철도공원은 약 30만 평의 넓은 동산이 전부 복사꽃과 벚꽃으로 차 있다. 개성 전기회사에서 나무 사이에 수십 개의 전등을 설치했다. 2, 3일 전부터 유람객이 격증해 밤낮으로 대성황을 이룬다. (1924.04.23)

수년 동안 개성 유지자들은 서화 연구회를 조직해 서화가 우석 황종하 형제를 중심

으로 학생을 다수 양성했다. 매일신보 개성지국, 각 신문지국의 후원으로 북본정 원장대 예배당 적서화 연구회에서 제1회 전람회를 5월 3~5일 개최한다. 10여 세 아동의 작품 100여 점도 출품한다. 전람 종료 후 전북 특지가의 초청으로 황종하, 동생 황용하는 군산으로 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조선 순회 전람을 개최할 계획이다. (1924.05.01)

개성 공립 심상소학교 고등과 생도 20여 명은 5일 원족회를 거행해 목적지는 1대 명승지 박연폭포이다. (1924.06.08)

개성 흥업회 주최로 남대문 누상에서 수백 점의 출품작으로 제2회 사생화 전람회를 개최해 8~30일 오전 10시~오후 6시 개장했다. (1924.07.02)

개성의 송악산 아래 거주하는 두 사람이 명현 이목은, 한류향, 정포은이 모여 놀던 곳으로 한류향의 후손 명필 한석봉의 친필로 3인의 사적을 기록해 새겨 오늘날까지 내려온 남봉암을 중국인에게 400원을 받고 팔아 나눠 가져 모두 매우 비난하고 있다. (1924.07.16)

개성 연락회 음악 무도단 일행 남녀 12명은 올해 수해 구제로 여름에 각지를 순조하고 21일 개성에 도착해 매일신보 사리원 지국, 조선일보 지국, 봉산청년회 후원으로 구락부에서 음악무도회를 열었다. (1924.08.24)

개성 원예회 주최로 1924년 11월 2일부터 대화정 정복사에서 국화 대회를 개최했다. (1924.11.05)

개성탐광회 주최 예술사진 전람회는 2월 15일 송도면사무소 누상樓上에서 무료로 개최했다. (1925.02.17)

개성에서 10여 단체가 발기단이 된 개성수해구제회는 8월 1일 북본정 중앙회관 대강당에서 동서東西음악대회를 개최했다. 양악洋樂의 고운 곡조와 조선 고가古歌 '줄풍류' 등을 진행했다. '우리 기술단奇術團도 동정 출연을 자원했다. 동정금은 380여 원이었다. (1925.08.04)

지난 20일 오전 11시경 개성대화정 118번지 중도고마태中島高馬太라는 일본 사람의 집

뒤의 공사장에서 땅을 파다가 중량 50근 가량되는 불상 1개를 파내었다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가량이나 된 고물이다. (1926.06.23)

개성중앙체배당내에 성경학원주최로 중앙회관에서 지난 6일 8시부터 음악유희대회를 개최했다. (1926.08.10)

지난 17일 오후 8시부터 개성 중앙회관에서 열린 김문보직자부처독창회(金文輔直子婦妻獨唱會)가 대성황리에서 대환영으로 오후 9시경에 무사히 폐회했다. (1926.09.20)

경기도경찰부 주최로 개최되었던 무도대회에서 우승기를 가지고 온 개성경찰서에서 지난 17일 장단, 파주, 경찰서를 초대해 무도회를 개최했다. 필사의 노력을 다하여 싸운 결과 개성에 근무하는 김재출이 1등이고 동서의 박봉성이 이등이고 복전정용이 3등이었다. 대회가 끝난 후 동서 교련장에서 성대한 연회가 있었다. (1926.10.01)

5월 8일은 음력 4월 초파일이므로 매일신보사는 수년 전부터 해오던 ‘개성관도회’를 개최한다. (1927.04.29)

매일신보사는 매년 개성 습물대회를 개최했으나 적년, 재작년 2년은 하지 못했고, 금년은 10월 2일에 하고자 한다. (1927.09.25)

매일신보사에서는 개성습물대회를 10월 9일에 개최한다고 광고했다. (1927.09.29)

경성여자미술학교 주최, 개성여자교육회 후원으로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개성좌에서 조선 정악대회를 개최하여 시들어가는 조선음악을 고취한다. (1927.11.29)

하남면 후석리 비미동 비양학교는 지난 26일에 학부형제의 찬성으로 면내 국사정에서 운동회를 거행, 각 부형과 고을 창릉포 해관 감세소장이 참여했다. (1912.05.04)

일본 유학생으로 일어가 유창하며 우편국 사무원, 탁지부 주사의 이력을 가진 개성의 이기세는 조선의 구연극을 근심하다가 소개로 일본 경도에 유명한 배우 靜間와 교섭이 되어 3,4년간 신연극을 연구했다. (1912.05.28)

중부 사동 연흥사에서 흥행하던 혁신단 임성구 일행은 일주일 동안을 쉬다고 매일신보에 광고를 냈고, 오늘 밤부터 다시 개연한다는데, 흥행할 연극은 ‘제가 지은 죄는 살지 못한다’이다. (1912.06.12)

남부면 도조리 김윤청의 집에서 유숙하며 성미단의 신연극을 설행하는 모 배우들은 입장권을 방해하여 금전을 얻어 매음하고 식주인의 밥값은 주지 않아 그 행위를 모두 비난했다. (1912.06.12)

남북촌 연극장에 밤마다 출입하는 여자들은, 첩, 기타 매음녀들, 난류배로 ‘모조합’이라 불리는 자들로 여자석에 혼잡해 비패한 행위가 많아 좋은 풍속이 악한 풍속으로 변하겠다고 격렬한 비평이 있다. (1912.07.03)

남부면 천정동에서 흥행하는 흥원사 일행은 북부면 리정리의 정화여학교의 학비 군졸함을 애석히 여겨 지난 11일에 연주회를 거행하고, 당일의 수입금 전부를 학교에 기부했다. (1912.07.16)

남부면 육정동에 두류하는 성미단 연극장에서 19일 갑자기 중지하고 일반관람자와 싸우다 관람자의 입술과 이가 상했다. (1912.07.23)

남부면 도조리 육정동 김윤희의 집에서 신응진 등 일행이 ‘이화단’ 이라는 신연극을 본월 6일부터 설행하는데, 경성의 어떤 사회원들은 공일을 승극해 경의선 열거로 다수 내림 관람한다. (1912.09.10)

남부면 도조리 육정동 연극장에서 27일부터 기생조합에서 기생연주회를 설행했는데, 매월 관광객은 3~400명에 달하고 각 지역에서 연조금이 다수이다. (1912.10.01)

혁신단에서 청년 학원의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오늘 밤 서승어덕이라는 연제로 연극을 흥행한다. (1912.10.17)

경성 혁신단 임성구 일행이 개성에서 출연한 지 1주간에 매일 입장자 5~6백 명이다. (1915.11.07)

개성고려청년회원으로 조직된 신파극은 연일 연습을 행한 후 3월 29일부터 2일간 개성좌에서 흥행한다. (1921.04.01)

개성 고려청년회에서 10월 10일 소인극素人劇을 흥행하기로 예정했으나 대운동회 준비 관계로 26~28일로 연기했다. (1921.10.25)

개성 고려청년회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소인극을 흥행했다. 상업가 유지들의 의연義捐으로 수입금이 454원 70전이였다. 제일 특색은 당지 기생계에서까지 의연이 있었다. (1921.11.02)

수원과 개성에 1개씩 흥행장이 있다. 작년 총 입장 인원은 수원 1만 5천여 명, 개성 4만여 명이다. (1924.02.14)

개성 북본정 중앙회관에서는 6월 20일 오후 8시부터 송도고등보통학교 학생으로 조직된 기독교청년회가 도서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인극素人劇 대회를 열었다. 다수의 동정금이 있었다. (1925.06.23)

모 학교의 생도들이 운동, 체조보다 자전거 타기만 위주로 하여 자전거 타기가 학업보다 앞선다는 비평이 있다. (1912.05.25)

4부 4정이 시합한 편사는 크게 기악으로 창을 하고, 3번 쏘았는데 등부면 호정에 연승하여 일시정지 했다가 다시 호정에서 각 사정으로 격서를 돌리고 다시 한 번 쏘아서 승부를 결정하기로 협의했다. (1912.07.07)

개성군 사립 한영서원에서 18일에 만국 주일학교 총무시찰단을 환영하는 취지로 4부 내 주일학교를 연합하여 춘기운동회를 성균관 내에서 거행했다. 교사이하 임원, 서양인 남녀 20여 명, 한영서원 남학생 2백여 명, 호수돈여학교생 140명, 동남부 주일학교 생도 140명, 내빈은 정화여학교 생도 80명, 일반 관람자는 2천여 명이다. (1913.04.22)

개성군 공립보통제12학교에서 10월 12일 성균관 앞뜰에서 연합운동회를 거행했다. 관람자 수 수천 명이였다. 공립심상소학교에서 10월 17일 철도공원 안에서 운동회를 열었다. (1917.10.20)

이번 개성청년회에서 야구단이 왔는데, 금 202일 오전 10시부터 배재학당 운동장에서 조선체육회와 경기를 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4시부터 천도교청년회와 경기를 한다. (1920.07.22)

개성학생친목회의 대운동회는 7월 26일 송도고등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사령장의 방포放砲 3발 아래 남녀 회원 및 시민 등은 대운동을 개시했다. 장거리 경주를 마친 후 30여 종의 경기를 마치고 그 후 특별히 조직된 가장행렬로써 수삼천명의 관람객을 상쾌하게 하고 해산했다. (1921.07.30)

송도 고등보통학교 5학년 생도 35명의 가을 원족으로 9일부터 장단 화장사, 원통사, 대흥산성 박연폭포를 견학하고 11일 귀교했다. (1924.10.13)

3일 전국 체육데이에 개성은 공사립 7개 소학교 연합으로 5일 만월대 앞 제2백홍삼장에서 운동회를 열고 교육 관련 단체 주최로 체육 운동에 관한 강화, 선전 등을 행할 것이다. (1924.11.04)

경성 고려구락부와 개성 태극단의 야구 경기가 8월 15일 송도고등보통학교 그라운드에서 열렸다. 경기 결과 고려구락부가 13대 10으로 승리했다. (1925.08.19)

개성군 교육회 주최로 경성여자고보 재근 최문선 선생을 청래講來하여 9월 12일, 13일 각 공사립학교 교원에게 체육 댄스를 강습했다. (1925.09.20)

10월 17일 송고운동장에서 개성상우회 주최로 전(全) 개성시민 육상경기대회를 열었다. 관객 수천이 참관했다. (1925.10.20)

개성 열도공원에서 개성 고려청년회 주최 시민대운동회가 오는 20일에 열린다. (1926.06.06)

개성상우회에서 오는 31일에 부지 은도공원 '그라운드'에서 개성상민대운동회를 개최한다. (1926.10.27)

4월 22일 개성에서는 송도고등보통학교와 개성학당 사이에 학생 축구전이 벌어져 송도고보가 승리했다. 송도고보생 백여 명이 22일 저녁 6시 반경에 개성학당 생도 6명

을 습격하여 부상을 시켰다. 개성경찰서 경관대가 출동하여 폭행학생 15명을 체포, 취조 중이다. (1929.04.24)

개성군 송도면에서 대전大興기념사업으로 시행 중이던 공설운동장은 전부 준공되어 10월 19일 개장식을 거행했다. 면적은 1만 2천 평이고, 동대문 안에 있다. 또 개성체육협회 발회식을 겸행했다. 관중은 만여 명이었다. 시내 초등 중등학교 및 각 청년 단체 등의 각종 대항 경기가 있었다. ‘릴레이’, 정구, 야구 등의 기념운동회도 있었다. (1929.10.22)

7) 위생

개성군 거류민회에서 화장장을 신설하는 데 보조금을 기부한 자에 대한 표창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1911.01.27)

개성군 북서면 가동리에서 급사자急死者 4명과 병자 5명이 발생하여 조사한 결과 장티푸스가 많았다. (1911.02.11)

개성군 사는 김대현 등이 개성군에 자혜의원 지병원을 설치해 주기를 도청에 청원했다. (1911.02.22)

1907년에 미국인 이위만, 배선명이 설립한 남성병원은 각 처에서 내도해 치료하는 자가 1년에 5000여 명이며 의사, 간호부, 서기 겸 제약사, 사무원과 고용직 공무원 등 12인의 임원을 두어 일반 환자를 치료한다. 또는 경성 제증원에 남자 2인을 파송 유학시켜 수업한 후에 동 병원의 의사로 임용한다. (1912.02.04)

춘계 대청결을 지난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시행한다. (1912.04.18)

각 방면에 있는 위생통 옆에 쓰레기가 쌓여 도로로 못 다녀 교통이 불편한데 이것은 위생조부가 부지런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낭자하다. (1912.05.02)

동부 대활동 사는 홍재관의 딸 홍소사는 학질로 기운이 허약하던 중에 금계랍(鈣ナ 염, 해열 진통제)을 많이 먹고 죽었고, 동부 정동 김모의 집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1912.05.23)

고려병원 의사 이창우는 북부 정곡에서 개업했다가 사무실이 협소하고 간병실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예빈리 입동으로 이주하고 병원을 일 층 확장했다. 외국 졸업 의사 이만규 씨를 고용해 8부 병자의 치료를 시술해 일반 병자가 몰려든다. (1912.05.28)

피병원을 동부면 경방리 금현에 다음 달 하순에 준공할 것이다. 경비는 경무총감부에 서 500원, 도청에서 500원, 유지인사의 천원, 합 2천 원이다. (1912.05.30)

지나간 30일 경찰서장이 시내 조선 일본인의 예기 영업자 21명을 불러들여 창기가 관내를 떠나 다른 곳으로 놀러 가는 경우 본서에 신청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건강 진단을 받게 하고, 대접은 친절하도록 하고, 영업처소를 청결하게 하라고 함, 손님 중 아직 어린 자가 있으면 권유해 도로 보내게 하고 의심스러운 자가 있으면 경찰서로 보고해 각별 주의하라 했다. (1912.06.02)

동부 백운동의 최경중은 다리 아래의 풍창으로 고생한지 6년인데 아들의 효성으로 지난달 고려병원의 치료를 받아 약을 쓴지 일순만에 쾌차함, 아들의 효성과 고려병원 묘방과 의사 이창우의 시술을 모두 칭송함(1912.06.09)

위생조합 총무장 野普는 경찰서장의 시달에 의해 지난 12일부터 파리 구제를 위해 승취지(따리잡는 약칠한 종이)를 다수 구입, 값을 줄여 발매하고 포승한 것을 특가로 매수하기로 장려하는 중이다. (1912.06.16)

위생조합에서 금년도에 파리를 잡기 위해 파리 잡는 종이 오십 장을 사서 각 인민에게 나누어주니 잡은 파리의 수효가 많아 파리 잡는 종이의 수입이 삼백 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부면 한천동에서 수입이 제일 많다. (1912.06.28)

동부면 풍교 등지에 유명한 시야의원에서 의원 후정에 입원실을 한층 깨끗하게 수리하고 치료하는 처소를 각기 구별했다. (1912.07.06)

새로 건축한 피병원이 준공되어 어제 낙성식을 거행했는데, 각 관청은 경찰서에서 인도하고 각 위생 조합장과 구장들은 위생 조합에서 인도하여 다과로 향응했다. (1912.07.07)

경찰서장은 본월 8일 순사 일동을 소집해 무더위에 노동자들이 옷통을 벗고, 밤에 길가에서 자고, 아이들이 의복을 벗어 햇빛을 받는 것은 위생에 큰 방해가 있으니 일체 엄금하라 했다. (1912.07.12)

위생조합에서 지난 6월 13일 파리 잡는 종이의 발매한 수효가 5천 개로, 지금까지 파리잡은 종이가 걷어들인 것은 3200개, 마른 파리로 사들인 것은 8말 두되 5홉이다. (1912.08.01)

위생조합에서 피병원을 새로 설립하고 위생을 한층 더 주의하자 전염병 앓는 자가 아직 하나도 없다. (1912.08.09)

경찰서에서 지난번 하기 위생 대청결을 실시하려다가 천황승하로 인해 정지하고, 재작일부터 실행하라고 각 면리장에게 지휘했다. (1912.08.11)

일반인민들이 해산 후에 태를 태워 각 방곡에 버려 그 악취가 위생에 방해되어 경찰서에서 동부면 경방리 섬암, 서부면 관전리 구군 정황토관, 북부면 리정리 당교동 3곳에 태를 불태우는 장소를 지정했다. (1912.08.11)

위생조합을 조직하며 사부 내에 시장 5곳을 설치해 수입액으로 경비를 보용하고 유지 신사가 연조해 수합하여 동부면 경방리에 피병원을 건축하며 사부 내에 공동변소 28개소를 설치했고, 기타에 쓰레기통 수백 개를 설치해 위생조 인부에게 청소하게 했고, 개천과 다리를 수축해 시가지를 확장했다. (1912.08.15)

경찰서에서는 전염병 걸린 자가 기차를 탈 때에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은 후 타게 하며 기차에 오르고 내리는 때에도 검사 단속이 엄격하다(1912.08.29)

남대문 안 대화정 대화교 서천 변에 있는 우물은 근일 전염병이 발생해 음료 사용을 엄금했다. (1912.09.01)

남녀혼인에 사용하는 수모 등 신체를 청결히 하며 위생을 주의할 목적으로 조합을 조직해 이발조합과 합동하고 수수료는 일치하게 정했는데 신랑의 집에서 1원, 신부의 집에서 50전씩 받기로 신청했다. 지금 이후로는 수모 등 무리하게 욕심내는 버릇이 없어질 것이다. (1912.09.06)

북부면 지파리 하표천은 음료수로 가장 양호하다고 인정하고 도청에서 백 원을 기부해 청결토록 건축하고 각지의 음료수도 모범하라 했고, 지파리에서도 보조금 70원을 기부하기로 내정했다. (1912.09.07)

성가리 예빈리 진려관, 2일 지파리 리정리 송양관, 3일 동부시야의원, 4일 도조리(조정래) 장약진의 방, 5일 광장리, 구리개리, 동현 김춘흙의 방, 6일 일본인 북부면, 서부면 개성 소학교, 7일 일본인 동부면, 남부면 개성학교 조합, 8일 서부면 일동과 면장 김형식의 방, 9일 신촌동, 덕암동(정동), 10일 정동, 영전동 고동, 대문동, 11일 대원동, 12일 빙동, 화곡동에서는 동장의 방에서, 13일 조동에서 선죽교까지 동대문 성균관 앞까지 일정으로 종두를 시행할 것이다. (1912.09.25)

위생조합에서 6월 30일 파리 잡는 종이 7,500매를 매장 2전씩 팔았다가 파리가 가득 붙은 후에는 매장 1전씩에 사들임, 9월까지 사들인 수는 3,840매이다. (1912.10.03)

북부면 예빈리 입동 잡화상점 뒤에 거주하는 김익봉이 청약을 장복하다가 누차 경관의 엄칙을 당한 일이 비밀비재한데 요즈음 약값이 군색한지 금침까지 방매하려했다. (1912.10.03)

유지의사 모씨가 한의약에 대해 취체규칙과 약 쓰는 법에 필요함을 준수할 목적으로 강연회를 설립하기로 방금 협의 중이다. (1912.10.03)

추기 종두를 시행하는데 아이 부모들이 봄에 이미 종두를 시켰으니 또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피하기만 하니 의원에서 정한 기일을 어기지 말고 일정한 장소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1912.10.04)

북부면 서랑에서 이발 영업하는 한홍식은 9년 전부터 이발하는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발하는 자가 별로 없을 때라 넉넉지 못했으나 부지런히 일하더니 마침 새로운 때를 만나 영업이 확장됨에 이발자가 끊이지 않음, 이발조합에는 부조합장, 소방대에는 대장을 겸임한다. (1912.10.09)

경성 종로에 있는 의수당 정상약품 판매부는 이번에 강장포혈제로 하여 순수한 개성인삼으로 천수종의 신약을 제조 판매했다. 전매과로부터 원료를 받고 최신약학

의 방법을 효칙해 전문학자에게 조제케하여 각 방면으로부터 호평을 전하는 중이다.
(1912.11.06)

남부면 야교 도수장은 일본, 조선인 3~4명이 건축했는데, 본월 중순 위생조합에서 매수하기 위해 경성경무부에 출원서를 제출했다. 위생조합에서 매수하면 일 층 더 확장 될 것이다. (1912.11.28)

읍내 우물이 95곳, 극히 양호한 우물 57, 그다음이 28, 음료에 적당하지 못한 우물 10곳, 경찰서에서 일일이 조사 후 57개소에는 '음료수에 적당함', 28개소에는 '끓여먹으면 적당함', 10개소에는 '음료에 적당하지 못함' 표목을 세웠다. 정수를 사용할 때 우물 돌 위에 서서 길어가는데 신에 묻은 진개가 우물로 들어가면 청결치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 (1912.12.27)

개성군에서 화장장을 개정했는데, 동부면에는 전 목청릉 뒷산, 서부면에는 관전리 한천동 뒷산, 남부면에는 경덕궁 뒷산이다. (1913.03.11)

개성경찰서에서는 조선인 변소 개조가 위생상 시급한 사항으로 1912년 5월을 기해 그 개조를 명했으나 소기의 성적을 거두지 못해 금년 3월 하순부터 5월 14일까지 6,050호의 개조를 마치고, 작년에 완료한 375호와 합계 6,425호의 보급을 이뤘고, 아직 남은 것은 347호이다. (1913.06.03)

개성위생조합에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파리 잡는 종이 매수한 것이 1천 장이고, 파리 사들인 것이 1말 8되이다. 파리 한 홑에 5전이고, 파리잡는 종이 1장에는 5리이다. (1913.06.27)

개성군 남부면 구이개리 대흥동 위생구장 백남진, 북부면 이정리 개문암 위생구장 김윤정은 위생 사상의 노력이 현저하여 개성위생조합에서 포상과 상금을 받았다. (1913.10.25)

13일 대화정 약방에서 화학 전문 대가의 연구로 발명된 최신식 소화 약제를 시험하고자 상시장 공터에 화장을 가설하고 인화물, 석유, 건초 편목을 비치한 후 점화했다. (1914.02.18)

1913년도의 소방예비 기증자 박우현 외 53명, 위생비 기증자 채복겸 외 19명에게 기특한 사상을 표하기로 목배 25개와 상장 51엽을 송부함(1914.02.28)

1일 공동매장규칙이 시행됨, 사망자의 병 상태, 진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신고한 후 면장의 경유로 공동지를 지정한다. (1914.03.12)

의생면허 신청자 20명 중 21일까지 면허장을 받은 19인, 개 중 의생회를 설립, 매월 2회 강연회 개최, 연찬방법 규정, 감독은 경찰서장, 고문은 의학사 시야수길, 강사는 조선의학진사 이창우, 회장은 김유규, 부회장은 최재훈, 거의 규정해 당서에 의뢰를 신청했다. (1914.03.23)

개성군에서 양약 행상의 명칭으로 양약 발매의 경품권을 이용하고 이익을 얻고자 촌민 수백 명을 회동했던 사람들이 헌병의 허가장이 없이 사행한 정족이 발현되어 단속을 당했다. (1914.04.01)

공동묘지 실시 후로 혹 19인 혹 11인의 단체로 성균관 뒤 산기슭에 특별 공동지를 설립하고자 한다. (1914.04.12)

경찰서에서 춘계 종두를 시행하기 위해 위생조합에 장소와 일자에 대한 시달이 있었다. 장소,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각 병원, 사무소, 대표 민의 방 등에서 춘계 종두를 시행한다. (1914.04.29)

올해 새로이 조직되는 의생조합원 20여 명은 규칙을 제정한 후 제1회 간친회를 본월 3일 북산 부산동 소정에서 열어 조선, 일본인 의사 의생 등이 다수 회집했다. (1914.05.06)

개성에서 각 봄 이래 홍역이 발생해 2차 중병도 위험하고, 초여름 이후로 사망이 늘어 각 면역소에서 사망신고, 이장 허가로 인해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1914.06.09)

수원 자혜의원에서 개성으로 출장, 순회진료해 1일부터 송양서원에서 일반환자에게 진료, 약료를 무대금으로 널리 구제할 때 환자 수는 남 398인, 여 484인, 제일 많은 병증은 소화기병 292, 호흡기병 98이다. 이에 대해 4일 공립제2보통학교에서 관리, 신사, 생도 수백 명을 회집해 의원의 위생강연이 있다. (1914.07.10)

지식교환, 학문연구의 필요를 강연하고자 10일 경찰서 구내 위생조합부실에서 의생 강연회가 있었다. (1914.07.14)

장마기에 일반인민의 위생을 주의하고자 관내 각 시장에 경찰서 직원을 보내 부패한 과물을 다수 압수, 소각하고, 악취 제거를 위해 경성 본정 약월 상점에서 방취기 2백 개를 주문해 각 기생 음식점에 분급, 배치했다. (1914.07.15)

북부 남성병원에서 지난 수요일 간호과 제1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1914.07.28)

경찰서에서 이번 가옥 청소 이후에 임시 청결 방법을 시행해 음료수, 푸주의 더러운 흙 등을 청소해 병독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15~20일 경사들이 검사하는 중이다. (1914.08.18)

개성군 김홍상이 남대문통에서 6월 10일부터 개성의원을 개업하고 환자를 구호한다. (1915.06.15)

개성경찰서에서 파리, 모기를 잡기 위해 파리 잡는 기구 1개씩을 피병원 부근 가호家戶에 일일이 무료배부했다. (1915.07.24)

개성 남성병원 주임의사 이창우는 5월 경에 옛 고려병원 자리에 독립적 의원 회춘원을 열었다. (1915.07.24)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수원 자혜의원에서 개성 송양서원에 가업소를 설치하고 일반 환자에 대해 순회진료를 실시했다. (1915.08.01)

개성군내 의생회에서 7월 25일 위생조합 내에서 강습회를 열고 지식을 교환하기로 경찰 촉탁의宮崎金藏를 초빙했다. (1915.09.02)

개성경찰서에서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추계 청결을 실시한다. (1915.09.08)

개성의 남성병원 의사 윤진국이 남본정 중앙지에 분원을 냈다. (1916.02.04)

개성 경찰은 음력 보름에 경찰들을 사복으로 순찰하게 해서 우물에 밥을 넣는 자 십 수명을 잡아 넣었다. 우물에 밥을 넣는 이 같은 행위는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물을 부패하게 하여 순찰했다고 개성 경찰은 설명했다. (1916.02.22)

개성에서 위생조합의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총 21명이 참가했다. (1916.04.08)

개성군 경찰서에서는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춘계 대청결을 시행한다. (1917.04.05)

개성위생조합에서 포승捕繩을 장려할 계획 중인데, 송도면사무소를 거쳐 일반에 지휘 하되 6월 11일부터 파리 1회에 5전씩으로 예고했다. (1917.06.12)

개성경찰서에서 춘계 청결법을 시행한다. 4월 15일 대화정 서본정 태평정 남산정, 16일 남본정 궁정 경정, 17일 동본정 원정 지정, 18일 북본정 만월정 고려정이다. (1919.04.13)

개성경찰서에서 5월 21일 관내 각 요리 음식점 숙옥업자宿屋業者의 건강진단을 했는데, 유병有病으로 인정한 자 60여 명 중 치료불응자 10여 명을 출두케 하여 치료를 행했다. (1919.06.10)

21일 개성에 의사疑似 콜레라 환자 1명이 발생했다. (22일 발전) 개성에 발생하였다는 콜레라 환자는 22일에 검진 결과 음성으로 결정되었는데, 점점 남쪽으로 전파할 형세가 있으므로 엄중히 경계 중이라더라. (22일 발전發電 (1919.08.25)

8월 31일 개성군 송도면 고려정 장씨부인(31)은 콜레라에 걸려 곧 사망했다. 검사 결과 1일 오전 진성 콜레라로 판명되었고, 그 후 1일에 환자가 14명 발생하여 9명이 사망하고, 2일 2명이 발생하여 그중 일본인 1명이 즉사했다. 처음 발생 이래 3일간에 17명에 달하고 사망자 11명이다. 경기도 경무부에서는 개성경찰서를 단속하여 일부 교통을 막고 크게 소독하며 엄중 경계 중이다. (1919.09.03)

3일에 당국에 도달한 각 지방 콜레라 보고에는 개성 신환자 3명이다. (1919.09.05)

9월 2일 정오까지 상황. 8월 31일 개성에 돌발한 콜레라는 그 후 더욱 창궐 되어 이를

간에 19명의 환자를 내고 그중 12명은 사망했다. 발생지는 개성을 연관한 사천(砂川, 임천강 지류)의 상류 송도면 고려정에서 환자의 더러운 물건을 사천에 씻은 형적이 있는데, 환자는 부녀자뿐으로 그 병독은 자못 맹렬하여 발병후 6시간 만에 사망하므로 전격성電擊性 콜레라로 가장 두려운 콜레라이다. 그 계통은 알 수 없으나 신의주로부터 보균자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사천에는 각처의 우물이 있어서 먹는 고로 위험이 적지 않아서 경찰에서는 우물물을 떠 가는 것과 사천에서 흐르는 물을 사용치 못하게 했다. (1919.09.05)

9월 3일과 4일 동안 4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여 그중 1명이 사망하였고, 더욱 만연할 의심이 있으므로 시내 각 공사립 학교에서는 모두 임시 휴학을 했다. (1919.09.06)

개성군 송도면 사무소에서 9월 5일에 상담역 회의 결과 피병원癘病院을 확장하기 위하여 면 경비 중 2천 100원으로 병원 북쪽 인근 37평 5홉의 터에 가假 격隔 쌍실을 증축하고 특별환자 20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1919.09.10)

개성의 콜레라는 다시 횡행하여 환자는 41명이 되었다. 12일에 다시 5명의 신환자를 냈다. 처음 발생 이래로 사망자가 31명이다. 점점 악성으로 변해 점점 창궐하는 중이다. (1919.09.14)

개성 이북 콜레라가 점점 창궐하므로 개성정거장에서는 신의주정거장에서 하는 것과 같이 여객 검역을 집행하려고 약 5백 명을 수용할 만한 임시 수용소를 짓기로 하고 개성 이외에서 내리는 여객에 대해서는 8시간 내지 12시간 동안을 머무르게 하고 검변을 시행할 계획을 결정하고 건축 계획 중이다. (1919.09.14)

개성역 구내에 건축할 임시 개성검역소는 사무실, 의사실, 격리실, 변소, 세면소, 대변 받는 곳 등 건평 478평 2홉이며 공사비는 2만 원이다. (1919.09.18)

개성 시내에서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콜레라 환자 53명 중 사망자 38명, 입원 후 완치자 3명, 현재 입원환자 12명이다. (1919.09.19)

개성경찰서에서 콜레라 예방을 위해 파리 1되에 1원의 대가로 매상하므로 민간에서 극력 구제하는 중이며 여항閘港 각 동에서도 유지의 발기로 콜레라 구축 기도제를 거행하는 중이다. (1919.09.19)

18일 현재 개성 콜레라는 누계 57명, 사망 41명, 북면 13명, 청교면 4명, 영남면 1명의
신환자가 발생했다. (1919.09.20)

개성검역소에서는 북으로부터 오는 승객에 대해 예방주사 2번 이상의 증명서가 있는
자 외에는 전부 하차케 하고 검역을 한다. (1919.10.17)

10월 19일 기준 콜레라 개성군에 2명 발생, 1명 사망이다. (1919.10.21)

개성검역소는 10월 31일 폐지 결정되었다. (1919.10.31)

개성군에는 작년 이때 있었던 유행성 감기가 다시 유행한다. (1919.11.20)

개성의 콜레라는 종식되었다. (1919.11.25)

개성경찰서에서는 12월 4일에 순사를 명하여 관내 하수 도랑 소제방법을 시행케 했
다. (1919.12.10)

개성군 증서면 토경리 부근 70여 호의 한 촌락에서 요사이 천연두가 발생해 점점 퍼
지는 중이다. 아이, 어른의 사상자가 17명에 이르고 있다. (1920.04.26)

개성 경찰서에서 위생계 주임이 관내 의생 일동을 소집해 전염병 예방에 대해 지원과
주의를 당부했다. (1920.06.30)

개성 경찰서에서 7월 2일에 관내 의생 일동을 소집하고 전염병 예방에 관해 서장의
훈시와 위생계주임의 주의와 경찰의 강화가 있을 예정이다. (1920.07.01)

개성 경찰서에서 8월 154일 오전부터 관내 기생조합소원 및 기생 일동에게 예방주사
를 시행하였고 계속해서 각 음식점과 기타에게 예방주사를 시행하였다. (1920.08.17)

개성군 남면 창릉리 강성원, 강병보, 김노미 3명이 콜레라에 걸려 28일에 사망했다.
(1920.09.01)

개성군 남면 창릉리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 2명 사망했다. (1920.09.03)

개성군 각 면에 9월 6일까지 콜레라에 걸린 환자는 28명인데 그 중에 15명이 사망했다. (1920.09.08)

개성경찰서에서 3월 12일 관내 음식업자 일동을 개성좌에 소집하고 위생에 관해 서장의 훈시와 주의가 있었다. 당업자는 이에 주의하여 방옥, 변소의 청결, 타구뚝, 소화기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1921.03.16)

개성군 경찰서에서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춘기 청결 방법을 시행한다. (1921.04.24)

개성군의 한철호는 여러 해 경성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 개업이 승인되어 남본정 향동(개화관 자리)에서 내과의원을 개설하고 전문으로 진료한다. (1921.07.04)

개성군 동본정 위생조합에서는 본 조합규약에 의거 8월 20일 청교면 보선정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1923.08.22)

개성경찰서에서는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시내 각 정에 추기 대청결을 시행한다. (1923.09.19)

10일부터 1주간 개성 경찰서 연무장에서 여러 자혜의원 의사들이 격일로 출석해 개성 의생 27인을 회집해 위생 강연회를 개최하는 중이다. (1924.03.14)

개성군 송도면 13정내 춘기 청소는 15일부터 시작해 26일에 종료된다. (1924.04.14)

개성 경찰서장은 수해지 선후책 강구를 위해 각 주재소 수석 순사를 소집해 대청결 실시의 정황을 서술하고 몇 가지 사항을 지시했다. 군수도 출석해 관내 수재 정황에 관해 협의했다. (1924.08.07)

개성 경찰서에서 7일부터 5일간 관내 각 정에 추기 청결법을 시행한다. (1924.10.07)

수원자혜의원 개성출장소를 4월 1일부터 독립시켜 설비를 갖추는 동시에 의사, 약제

사, 간호부의 인원을 증가시켜 수원 자혜의원과 동일한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시료 施療 구역은 개성, 장단, 파주와 황해도 금천, 연백 등지로 1개년 경비는 4만 7천 원이다. (1925.01.27)

개성군 송도면 각정에서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춘기 청결을 실시한다. (1925.04.22)

개성군 송도면에 있는 이발업자와 면외面外에 있는 이발업자간에는 요금에 대한 경쟁이 극렬했다. 7월 1일부터는 경쟁 당시 요금 15전하던 것을 30전으로 올리고 시외 이발관에서는 25전으로 하기로 했다. 양 이발조합원 간에는 양 조합이던 것이 한 조합으로 단결되었다. (1925.07.05)

개성 자혜의원은 4월 1일부터 경영방침을 경기도에서 하기로 되어 명칭을 도립 개성 의원으로 했다. 신청사를 신축하면서 지난 17일부터 정식 진료를 개시했다. 9월 6일 신청사 낙성식을 거행한다. (1925.08.30)

개성군 송도면 추계 중두는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시행한다. (1927.10.03)

개성경찰서에서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송도면 13정에 춘계 청결을 시행한다. (1929.04.09)

개성경찰서에서는 조선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송도면 각 정의 임시청결을 실시한다. (1929.08.19)

개성의 장티푸스는 1월부터 8월까지 6명이었는데, 10월에 이르러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여 11월 5일까지 22명의 발생을 보았다. (1929.11.13)

8) 종교

개성의 기독교청년회에서 지난 3일부터 미구회를 열고 16일 개성 장노교회당에서 총회를 열어 교무를 정리하고, 재작일에는 기독교청년회에서 미구회를 열어 경신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1910.09.16)

어제 교인이 감소하는 일에 대한 선후책, 정신적 교화를 통한 조선인 포교에 대한 문제로 열린 선교사 집회에 감리교의 외국선교사 44명이 출석했다. (1910.09.17)

야소교 감리교파는 지난번 개성에서 대회를 개최했고 장로파 목사는 본일 선천에서 대회를 개최했다. (1910.09.20)

경성 재류 외국 선교사의 주최로 종로청년회관, 각 교회에서 장로교, 구세군 각파가 전도를 행했다. 신입회한 조선인의 신도가 일천수백에 달해 개성과 중요 지역에서 대거 전도를 시작했다. (1910.11.02)

남대문 문루에서 지난 9일 오후에 장단 화장사 주지 이지영 화상은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강사 이원경, 김응규, 송계봉 등으로 장시간 강연하였는데 방청 인원이 다수였음 (1912.06.12)

작년 개성군 영북도 대흥사 주지 이송하는 그 절에 있는 부처와 석등롱 220원어치를 팔아먹고 절을 다시 수리한다고 기부금 372원을 모집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헌병 분대로 피착되었다. (1912.06.12)

군수 박씨의 발기한 지난 19일부터 5일간 개성 관덕정에서 어평복의 기원회를 개최하는 중인데 내회자는 각 종파의 승려 이외 관민 다수이다. (1912.07.30)

불교종가, 진종, 정토종, 직언종, 조동종 등 네 불교에서는 천황의 어환에 대해 지난 28일 고을 관덕정 정결한 곳으로 가서 연합기도회를 설행해 각 관청 관리가 다수 참배했다. (1912.08.01)

북부면 예빈리 서랑에 새로 건축한 구세군영은 달포 전 준공되었고 8일에 낙성식을 거행했다. (1912.09.10)

조동종가 포교소에서 20일 밤에 고내목대장과 부인 양씨의 추도법요에 참배했고 22일에는 피안법요로 설교함, 고야산 교회소에서는 21일, 23일, 26일 사흘을 매일 오후 8시로 피안법요를 설교한다. (1912.09.25)

문묘석전제는 유래로 매년 음력 29일 초정일에 거행, 제관 일동, 유생 등이 3일 입제해 전날 초혼에 반열 제사를 지낸, 본년 춘기 제형은 오전 10시에 차비관 일동, 공립학교 훈도, 사숙학교장, 신사, 생도가 입제해 정오에 제례를 행하기로 군청의 지휘가 있다. (1914.03.01)

20일 정오 군수 이하 각 차비관, 유생, 공립학교 훈도, 사숙학장 100여 명이 문묘석전대제를 거행했다. (1914.03.05)

2월에 남부 동현 등지에 야소교 예배당학교 1동 건축을 시작해 경비 5,480원으로 준공하고 본월 12일 남녀 수천여명이 회집해 봉헌식을 거행했다. (1914.07.15)

개성군 만월정 사는 정능파는 그 부친의 사후 극락 인도를 위해 서문 밖 월광사에서 4월 24일에 재齋를 열고 불공을 드렸는데, 관광객이 5백여 명이었다. (1915.04.28)

개성에서는 1년중 대명절로 제일 즐겁게 여기는 날이 음력 사월 초파일이다. 음력 사월 초가 되면 각 상점하는 사람들은 물품을 성비盛備히 장만하고 각 상점 문에는 전간목과 같은 장죽에 오색 비단으로 감고, 여러 깃발을 내걸고 여러 가지 등燈을 단다. 백리 상거樞近 인근 고을 장단, 파주, 풍덕, 교동, 토산, 금천, 연안, 배천 등지 남녀가 구름같이 모인다. 금년에는 상업회의소가 각 상점과 영업가에 지휘하여 일층 더 굉장히 하여 상업을 발전하는 데 돕도록 예비중이다. (1915.05.18)

개성 진봉산 도선암에서는 8월 23일에 북본정 재력가 황욱의 사후 세계를 인도코자 하여 3백 원과 다수한 부속물로 설재設齋한다. 관광 남녀가 극히 많았다. (1915.08.24)

개성군 야소교耶蘇教 각 예배당에서 5일간에 걸쳐 일반 교인과 방관자가 운집하여 예수 탄생제를 성대히 거행했다. 25일 오후 7시에 동부 주일 유년학교에서 목사의 기도찬미, 유년 학생의 기예 유희가 있었다. (1915.12.28)

개성군 일본조합기독교회에서 청년수양회를 조직하고 도서종람소를 설치하며 회보를 발간하고 야학부를 설치하여 전문과 영어, 한어, 음악, 보통과 국어(일본어), 부기, 역문譯文, 산술, 성경 등을 교수한다. 11월 16일부터 매월 제3토요일로 정기한다. (1917.11.08)

개성군에는 오랜 관습으로 음력 설날 이른 아침부터 부근 각 사찰 승려들이 탁발하였는데, 최근 법규의 정칙(定則)과 승려 지식의 점진으로 이 관습이 절멸(絶滅)되었다. (1919.02.07)

개성군은 매년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기념을 행했는데, 금년은 상기(喪期)중이므로 폐지했다. (1919.05.09)

개성군 서본정 본원사에서 5월 7일(7월 4일 8일) 오후 2시에 각 종(宗) 협회의 주최로 석가탄강 봉축 및 강연회를 개최했다. 사립 개성학당 공립 심상소학교 생도, 군인, 조일인 남녀 150여 명이 참석했다. (1919.05.11)

개성군 문묘 직원 진병집씨가 정몽주 사원의 공영에 기여가 막대해서 금자를 증여 받았다. (1920.04.03)

개성군에서는 문묘 장의(掌儀) 후보자 선거에 대해 1920년 12월 26일 유림 관계자 70여명이 승양서원 강당에 모여 장의 선거 투표 방법을 시행하여 8명이 피선되었다. (1921.01.01)

개성군 대흥성 안에 있는 운흥사 승려 3명이 당국의 인가도 없이 그 절을 중수한다고 칭탁(稱託)하고 개성 시내 각 실업가와 각 상점, 여염집으로 돌아다니며 쌀과 돈을 강청하다가 일전에 경찰서에 검거되어 각각 구류 27일에 처해졌다. 그 외 의심점이 있어 계속해서 심문중이다. (1921.01.31)

개성군 문묘에서 음 2월 6일 오전 10시에 석전제를 거행했다. 유림 40여 명, 학교 직원, 생도 83명이 참석했다. 명륜당에서 경학강의와 음복이 있은 후 오후 1시에 돌아갔다. (1921.03.19)

개성군 유림계의 사업으로 승양서원에 강습회를 설치하고, 매년 480원의 경비로 전임교사 1인, 촉탁교사 2인을 초빙하여 공립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보통학교 입학연령이 초과하고 다른 학문 수양의 길이 없는 자 등을 주로 하여 한문을 수학하기로 약 50명을 모집했다. 한문을 경(經)으로 하고, 일본어 산술 등을 주로 가르친다. 또 사립 자체로 당지 공립보통학교 우등졸업자 중 경성관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사범과를

수학하고 장래 교육에 종사하고자 하며, 학자금 지불에 곤란한 자에게 학자금을 급여했다. (1921.03.20)

개성 문묘 장의 8인중 조두식 사망으로 4월 1일 송양서원에서 일반 유림의 투표로 보결자를 선거하여 동면 백전리 김세영을 선정했다. (1921.04.05)

개성군 야소교 신도측에서는 장로파 목사 김익두를 초빙하여 5월 1일부터 1주간 부흥회를 개최했다. 신도 외 일반 청중 및 환자(病者) 매일 출석자 8~9천 명에 달했다. 전치자(全治者) 219명, 현장 입교(入敎)자 8백여 명이다. (1921.05.12)

개성군 유림측 경영으로 송양서원 내에 설립된 강습회는 생도 50명을 모집하여 6월 14일 개회식을 거행했다. (1921.06.17)

개성군에서 신사예년제를 10월 20일 오전에 거행했다. (1921.10.23)

개성군 문묘직원 박규대의 사면 후에 후보자 추천을 위해 9일 송도면 누상에서 군수 이하 유림 26명이 열석하고 투표로 삼망 추천한 후 군수의 의견을 붙여 당국에 천거 임명하기로 했다. 이후 군수가 조서 봉독식에 제한 의식과 고유훈시를 일반에게 전달했다. (1924.02.11)

9일은 음력 2월 4일 상정일로 전 조선 각도 각군 문묘에서 석전대향을 일절 거행하는 연례이다. 개성 문묘에서는 당일 오전부터 각 헌관, 선비들이 입제해 엄숙한 제례를 종료하고 순차적으로 퇴출해 명륜당 내에서 효열, 독행자 3인에 대해 표창식을 거행했다. (1924.03.)

개성 문묘 사성 후보자 선발을 위해 22일 문묘 장의 8원이 군청 내에서 군수 입회 아래 투표를 행했다. (1924.08.24)

개성 문묘사정 후보자를 투표했는데 산내 군수가 전 군수 산기를 시켜 최고점자에게 차점자에게 양보하라고 강권했다. 종래 최고점자만 도청에 보고했는데 이번에 군수는 최고점자 이외에 차점자도 보고했다. 일반 유림을 무시하고 몰래 책동 하는 태도가 많아 분개한 유림들이 당국에 탄원을 준비 중이다. (1924.09.23)

개성 문묘당 일동은 유림의 여러 후보자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묘 사성 후보자가 ‘자관직선’됨은 일반 유림의 수욕이라며 9일로 일절 사직원을 제출했다. (1924.10.13)

개성군 문묘 사성司成 공성학의 사임으로 10월 5일 송도면 누상樓上에서 군수¹¹의 통첩에 응해 중요 유림 46인이 회집했다. 후보자 선거를 협의하고 투표방법으로 시행했다. 진병집이 34점을 얻었다. (1925.10.07)

9) 자연재해, 동물피해

남부 미조정리 동곡 등지에 검은 개 한 마리가 극히 사나워 일반 행인과 동리 아이들에게 위협하다. (1912.05.03)

영북면 고덕리 백석동 근처에 큰 표범 두 마리가 대낮에 들 가운데로 돌아다녀 일반 농민들이 크게 근심하는 중이다. (1912.05.26)

양근 현병분전소 관내에는 송충이가 발생하여 점차 만연하는 조짐이 있어 지금 구제하는 중이다. (1912.06.09)

개성군 남부면 광장리 훈련원은 예전부터 유래하던 기지로 구한국시대에 무과를 시취하던 곳이다. 18일 장마로 인해 전부 전복되었다. (1912.07.24)

지난 7일 폭우로 시냇물이 넘쳐 서부면 관전리 지동 이성호의 아들^④이 배다리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떠내려 가는데 배다리의 신명설^⑮이 건져냈다. (1912.08.09)

개성군에서 참새 잡기를 장려했는데, 9월말까지 매월 1호에 5마리씩 잡아 납부하게 했다. (1913.06.03)

개성군은 몇 개월동안 가뭄이 심해 개천의 물이 끓기고, 우물이 고갈해 밀, 보리, 채소의 발육이 좋지 않아 농가의 걱정이 크더니 그저께 오전 1시부터 먹구름 아래 적당한 강우가 내렸다. (1914.05.21)

그저께 오전부터 폭우가 내려 하천이 순식간에 범람해 도로 13척 이상에 달하고, 도

로변 가옥은 침수되어 주민들이 피난하는 중이다. 북부부터 남부까지 고려교, 중교 등이 모두 추락했다. (1914.08.11)

수해 조사 결과, 홍수 피해액은 총 65,417원이다. 가옥 침수 파손 1,500여호, 소방부 1명 중상, 유실된 소 1마리, 익수한 아이 2명을 구출했다. 각 면의 피해는 아직 미상이나, 영북면의 신수한 도로, 경성으로 통하는 신축 도로도 떨어져 나갔다. 원 풍덕 중면 창내리, 동강리 증수로 모두 산등성으로 올라갔다. (1914.08.15)

새로 건축한 현암산정이 준공되어 16일 일요일에 당지 관공 직원, 신사를 다수 초대해 낙성식을 거행하려했는데, 홍수로 도로가 떨어져 나가 내빈의 통행이 불편해져 1주일 후에 거행하기로 협의했다. (1914.08.18)

경기도 개성에 대호가 나타나 이영수의 집에 침입했다가 퇴치당했다. 호랑이는 남산정 부근으로 도망갔다. (1916.02.29)

개성군 남면 지방에 늑대의 출몰이 빈번하여 그 피해는 약 2개월에 30명에 달하는데, 그중 7명은 죽었고, 기타 가축도 많이 손해를 당했다. 개성분대에서는 7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청교면, 광답면, 남면 수우리, 광덕면 육척리 등지를 돌아다니며 사냥을 했다. 헌병 하사 이하 23명, 물이꾼 3,085명, 포수 31명으로 어미 늑대 5마리, 노루 3마리, 고양이 2마리, 여우 2마리를 잡았다. 남면 수우리 지방에는 20여 마리 늑대가 아직 사는 모양이므로 곧 2차 사냥에 나선다. (1919.07.25)

개성군에서는 봄 무렵에 강우가 빈번하여 파종, 삽앙插秧의 시기가 적의했다. 그러나 7월 5일 강우 이래 50일간 한 방울의 비가 없어 벼, 기장, 조, 콩의 고사는 물론하고, 들에 청초가 없으며 냇물에 누런 마름이 생기고, 우물에 먹을 물이 말라 민심은 자못 시끄럽다. (1919.08.19)

개성군에서는 21일 오전 진신縉紳 부로父老 50여 명이 승양서원 안에 모여 고례古例에 따라 기우제를 거행하기로 협의한 후 대흥산성, 박연폭포, 사직단, 오관산, 송악산에서 즉일 거행했다. (1919.08.24)

3일 오후 7시부터 돌연 폭풍우가 크게 일어나 도처에 수목이 부러져 넘어지고 시가의

기왓장이 날아 내려지며 전등에 고장이 생겨 시가市街는 줄지에 암흑세계를 이뤘다. 청교면 고남리, 덕암리 부근에 전신주가 많이 부러지고 농작물의 피해가 다대하며 각지와 전신 전화가 두절되는 증 미증유의 폭풍우였다. (1919.09.06)

10월 17일 오후 7시부터 전뢰 폭우로 전 시가지는 정전되었다. (1919.10.21)

개성군 증서면에 근래 늑대의 출현이 빈번해 촌락의 어린아이와 돼지, 개의 피해가 많심해, 개성군의 경찰서의 지휘 아래 토벌을 시작했다. (1920.06.29)

개성군 지방 부근으로 여러 달 한발旱魃이 심했는데, 6월 28일 오전 2시부터 세찬 비가 내렸다. (1921.07.03)

동경지방 진재震災구제책을 협의하기 위해 개성 군수는 9월 7일에 각 면장을 소집 협의했다. (1923.09.11)

개성군 송도면은 6일 오후 공직자 및 각 신문기자 등을 초청하여 의연금 모집에 관한 협의회가 있었다. 그 방법은 일본인 측 최저 1천 원, 조선인 측 최저 4천 원인데, 조선인 측 모집은 호별할戶別制 13등에 해당하는 시내 거주 제씨諸氏를 방문 모집하며 그 모집구역은 4구이다. 각 구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위원을 배치했다. (1923.09.12)

개성 시내 출신자로 동경 부근에 거류 학생 및 기타를 합하여 약 50명인데, 이들 가족은 그 안부에 대해 우려 중이다. 송도 면에서는 그 동정을 조사하며 제반 구호를 피하기 위해 면리원을 파견하게 되어 11일 오후 급행열차로 면서기(甞강구기)가 출발했다. (1923.09.16)

애국부인회 개성위원부에서 이재민 위문품을 모아 우선 9월 12일 오후 부산 잔교 진재구조 사무취급소로 일본인 의류 1,831점, 조선인 의류 1백 점, 가격 약 1천 5백 원 어치를 발송했다. (1923.09.17)

동경에 파견된 송도면서기가 무사한 학생 공진항 등 25명 명단을 전보했다. (1923.09.25)

개성에서 폭우로 냇물이 급격히 증수되어 시내 청상천과 연못 연안의 가옥 300여호가 침수되었고 계속된 비로 물이 계속 불어나 경찰서장 이하 서원이 총출동 해 각 부서, 소방대와 인명구조에 착수했다. (1924.07.22)

개성 시내 침수 가옥은 4,599호로 마루 침수 가옥이 1,942호, 마루 아래까지만 침수된 가옥 2,657호, 유실가옥 2, 3호, 무너진 가옥 21호, 사망자 4명이다. (1924.07.23)

23일 다시 폭우로 개성 가옥 600여호가 침수되고 부인 2명이 익사했다. (1924.07.25)

19~20일의 폭우로 개성방면 지파리천, 양장천 제방이 무너졌다. 가옥이 무너지고 교량이 파손되었다. 마루 위 3자 까지 침수된 집이 많고 주민들은 지붕 위나 언덕으로 피난했다. 20분 가량 전등이 전부 꺼지기도 했고 익수자도 수명이다. 손해는 50만원에 달한다. (1924.07.25)

개성 부근 이재민은 전부 남대문 누상 개성학당 등 고지대로 피난했다. 개성서에서 의용조 소방대와 인명구호하고, 도로 부근에 그물을 쳐 유실되는 가구를 방지했으며 위생인부들은 이재자에게 음료를 제공했고 개성 고려 청년회는 피난민을 수용해 밥을 지어 구조에 노력했다. (1924.07.25)

마루까지 1,942호, 마루 아래까지 침수된 가옥 2,657호, 무너진 가옥 11호, 고려정, 만월정 등의 저지대는 마루 위까지 침수, 대평통 십천교는 교량이 유실 되었고, 이외는 전부 석교라 유실되지 않았지만 파손되어 통행은 위험하다. (1924.07.25)

개성 관내 각 면에 '부전자' 발생했다. 논 1반보에 대해 석유 1승 5합씩을 떨어뜨리기로 하고 21일 송도면 내 대지주 150명을 면사무소로 소집, 협의해 구제 방법 5개조로 24일부터 실행했다. (1924.08.28)

개성군 송도면에서는 작년 7월 23일 큰 홍수로 8백여 호의 침수 가옥과 4~5명의 사망자를 내게 된 것을 크게 염려하여 10월 경부터 군수와 면협의원의 성력(誠力)을 기울여 총독부와 경기도청에다가 송도면에 사방(砂防) 공사를 착수하도록 해달라는 수속을 청원했다. 금년 4월 경 허가를 얻었으므로 즉시 사방공사를 국자동(國子洞), 쌍폭동, 송악산 등지의 개천 근원지의 부근 산에 부대를 판 곳을 한 편으로 떼를 입히고 방축을

모아 출수^{出水}의 염려가 없도록 한다. 금년도에 총경비 2만 3천 원을 지출케 하고, 이 모양으로 5년 동안을 계속하게 되면 11만 5천 원의 사방공사비를 산출케 된다. 준공 일자 1930년 4월 중순 경이다. 11만 2천 7백 원을 국비로 하고, 2천 3백원을 송도 면에서 부담한다. (1925.06.25)

개성에서 열린 동서음악대회 당일 수입금(입장권 판매와 의연금) 5백여 원에 대해 8월 6일 고려청년회관에서 위원회를 열고 처리방침을 토의했는데, 경성기근구제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1925.08.10)

지난 24일에 한발^{旱魃}이 막심하여 농작물이 전폐할 참경^{慘境}을 걱정하여,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군수의 주장으로 청교면장이 진봉산에서 돼지 머리 2개로 기우제를 실시했다. (1926.06.27)

1월 24일 오후 3시 18분 경에 개성군 일대는 약 50초 동안의 지진이 있어 창문과 사람 몸이 흔들리는 정도였다. (1927.01.26)

개성군 북면 이소리에는 10월 상순에 원인모를 병에 걸려 죽은 소가 있었다. 그후 31일까지 사이에 전염성이 맹렬한 기종증^{氣腫症}에 5마리가 걸리고 점차 만연될 염려가 있어 경기도 위생과에서 예방주사액을 보내 11월 11일부터 이소리를 중심으로 부근 3백여 마리 소에 예방주사를 시행할 것이다. (1927.11.10)

8일 오후 12시부터 9일 오전 4시까지 개성부근에 폭우가 내려 하천이 범람해 개성 여러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가호가 800호, 도유^{倒遺} 가옥이 8호다. 다행히 사망한 사람은 없었다. (1928.09.10)

10) 교통, 통신

개성군 증서면 발포리 사는 백원기는 개성군 각 포구에서 도선업^{渡船業}을 경영할 목적으로 규칙을 제정하여 경기도 경무부에 청원했다. (1911.01.12)

개성군 남문 안으로부터 남부와 북부 간 도로를 확장 개축하기 위해 실지 측량을 종료하였고, 공사비는 인민 중 만원 자산가 80명을 6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은 250원, 6등급은 30원을 걷어 지출하기로 했다. (1911.09.27)

개성 시가도로 및 구거溝渠 개수改修 공사 비용 마련을 위해 9월 16일 군청에서 경찰서장 임석으로 조일인朝日人 중 중요한 자를 소집하여 협상했다. 그 결과 조선인 측에서 5,320원, 일본인 측에서 천원을 각출하기로 했다. (1911.10.01)

어제 북부 시가의 도로를 확장을 위해 군수 박우현과 경찰서장이 상업회의소에서 도로에 관계된 자 93명을 불러놓고 오늘부터 15일 이내로 집 헐기를 시작하라고 했다. 관계 인민이 모두 응락했다. (1912.05.30)

북부 도로는 개수할 필요가 있어 유지의 기부금 1,500원을 개수에 충용해 29일부터 공사에 착수해 15일 내 준공할 예정이다. 금회 공사에 “취제”할 가옥은 12호, 일부 없앤 것이 82호이다. (1912.06.01)

도로 확장이 날로 새로워 일반 행인도 편리하고, 인력거 영업자들도 타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고무 인력거를 다수 사들이는 중이라고 한다. (1912.08.07)

경찰서에서 관내 인력거 영업자를 일체 소집해 영업자의 주소, 성명, 연령과 인력거의 복장 청결 관한 규칙 13조건을 만들어 분급하고, 경찰서의 검사 허가증을 받은 후에 영구히 준수하고 일체 위반 행위가 없게 하라고 훈유했다. (1912.08.27)

각 관청 관리와 일반 인민이 선제폐하의 대장에 봉도식을 거행하기 위해 관덕정 도로를 일 층 확장 수리하고 석유 장명등도 설립했다. (1912.09.13)

동부, 북부 이미 도로확장이 준공되었고, 곧 서부 도로 확장에 착수하는데 남쪽 길을 먼저 착수한다. (1912.10.31)

18일 경찰서에서 중서면 양탐용(15)을 잡아 심문하는 중인데, 양탐용은 14일에 정거장 근처 철도선로에 돌을 쌓아 남쪽으로 가는 열차의 진행을 잠시 정지케 했다. (1912.11.24)

궁정 등지에서 4일 경의선 열차와 돌 신는 정차가 부딪혀 기관이 파상되었으나 승객의 위험은 없었다. (1912.12.08)

3월 14일부터 기존 풍덕군 군중면 읍내리 금성진 교량 가설공사에 착수했다. (1914.04.02)

원 풍덕 읍내리 금성진 교량 가설을 착수했다. 21일 준공을 고했으므로 25일 개통식을 거행했다. 헌병소장, 군서기, 학교장, 우편소장, 면리장, 기타 유지자 등 약 250여명이 개회식장에 모였다. (1914.04.29)

개성우편국에서 전화가입자로서 지급 통화를 신청한 19인에 대해 9월 7일 추첨이 있었는데, 당첨인은 10명이다. (1921.09.11)

개성은 하천 개축 문제로 공직자 회의를 개최해 지파리 개울을 넓히고 밑을 파고 축대를 쌓기 위한 공사비 50만 원을 정부, 경기도로부터 보조받고자 송도면장, 도 평의원, 면 평의회원, 군수 등이 지난 31일 상경해 경기도와 총독부 토목부에 진정했다. (1924.08.02)

개성운업회의 주최로 5월 30~31일 개성 철도공원 대광장에서 자전거 경주회를 열었다. 개성, 경성, 장단, 수원, 연백, 사리원 등지의 선수가 참여했다. 첫날은 예선하고 이튿날 결선했다. (1925.06.03)

개성군 송도면은 면영面營 버스 계획을 7월 31일 면 협의회에 자문안 토의 결과 원안 전부를 그대로 가결했다. 사용 차수 2대, 운전구역 5구이다. (1929.08.02)

11) 인삼

전매국 개성출장소에서 4월에 인삼경작 장려의 방편으로 삼포參圃 경작자를 고용했는데, 그중 5명에게 금품을 수여하고 표창했다. (1911.09.15)

조선총독부 전매국 개성출장소의 1911년도 수삼 수납사무는 10월 3일부터 15일까지 전부 종료했다. 수납 근수는 7,719근, 경작자의 배상금액은 36,760원 5전, 1근 배상금은 4원 76전 2리, 전년에 비하면 약 1할의 고가이다. (1911.10.20)

인삼 병해 예방법 강습회는 76명에게 강습 증서를 수여하고, 그 중 60명에게 전매국

에서 병해 예방 위원을 명하여 이번 봄 이식시기에 각지로 파견해 소독 등의 예방 작업에 종사하게 한다. (1912.03.07)

전매국 개성 출장소에서 12월 2일부터 인삼경작자와 그 자제, 종업자 100여명을 모집해 인삼 병해 예방법의 강습을 행했다. (1912.03.07)

사세국 출장소의 장려로 인삼 경작자가 증가하여 작년의 총 작부반별 80만 정도가 본년에는 70만 정도로 증가해 150만 정도가 되었다. (1912.04.25)

5월 1일 개성 사세국 출장소에서 관하 인삼 경작 장려로 경작자에게 대한 포상 수여식을 거행할 것인데 각 신문 통신기자도 초대한다. (1912.04.25)

본일 개성에서 인삼경작자 포상수여식에 수여할 자는 묘포경작자 15명, 정식법 경작자 2명이다. (1912.05.01)

삼업조합에서 척박출품의 백삼은 지난 17일 농상공부에 송하를 제로 했는데 23일경에 조합 서기가 동상해 출품의 진열과 인삼탕제조 등의 준비를 행하고 있다. (1912.09.20)

형사 순사보 김두환은 일본인 순사 모씨가 경성 중부 파동에 거류하는 청인 왕보산에게 편지를 해 홍삼을 사달라 했다는 말을 탐지하고 고을에 있는 청나라 사람 수삼명을 우선 포박해 경찰서에 가두고 작일에 또 경성으로 올라와 경무 총감부 순사보 김석진 북부경찰순사 최재호의 협력으로 왕보산을 잡아 북부 경찰서로 가두고 홍삼 두근까지 압수했다. (1912.09.22)

사세국 출장소에서 본월 1일부터 인삼 수납에 착수해 21일 종료했는데 예정액 6천근에 달한다. (1912.10.24)

전매과 개성출장소의 인삼은 근래 간신히 수납을 종료하고 제조에 착수했다. 본년 성적은 여름에 비해 강우가 많고, 다른 해보다 가물어 냉기가 습래해 생육을 방해하고 병해로 예상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으나 홍삼제조 예정액 5,500근을 제조해 약 6천근을 얻을 소망이다. 인삼은 약 1만근에 달할 것임, 작년 작황이 우수해 홍삼 수량

의 약 2/3에 달했으나 본년 성적이 비교적 불량해 홍삼은 약 1/3에 그쳤고, 본년은 홍삼으로 하고 선택을 엄중히 해 제품은 작년에 비해 우량하다. 인삼 잎 이용 방법에 대해 작년 연구한 결과 액기스로 제조함에 양호한 성적을 보여 본년부터 잎은 모두 액기스로 제조하기로 했으나 본년 기후 관계상 가물어 낙엽이 되어 예정한 분량을 제조하지 않는다. (1912.10.24)

중서면 여릉리 이석환은 만월대 부근 중국인 양복걸에게 35원 가치 홍삼을 팔고, 양복걸은 홍삼을 사조했다. 사기죄도 발현되어 징역 4개월, 벌금 150원, 이석환 징역 6개월, 벌금 50원에 처했다. (1912.11.09)

김종렬, 양석작, 김중호가 동부면 경방리 이병익의 집에서 김성녀, 우성녀를 사용하며 홍삼을 사조했다. 경찰서 형사에게 포착됨 4일 판결에 김중호 징역 8개월, 벌금 2백 원, 김종렬 징역 6개월, 벌금 150원, 양석작 징역 4개월, 벌금 100원, 김성녀, 우성녀 벌금 50원에 처했다. (1912.11.09)

삼업조합원으로 척식박람회에 출품자 중 포상을 수여한 자는 금상패 손봉상 은상패 유성학, 이조일 동상패 이견우, 김낙정, 김영린, 포상자 이여환 외 3명이다. (1912.12.25)

사세국 개성출장소에서 9월 10일부터 홍삼제조에 착수했다. (1913.09.26)

사세국 개성출장소에서는 홍삼제조소 증축 필요가 있어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계상했다. (1913.12.14)

사세국 개성출장소에서 조제를 마친 홍삼을 정리중인데 23~4일 경에 전부를 삼정물 산주식회사에 인도하되 그중 일부는 중국에 수출하고, 나머지는 당분간 출장소 창고에 예입 보관한다고 한다. (1913.12.19)

사세국 개성출장소의 홍삼 및 미삼尾參은 24일 삼정물산에 인도를 마쳤다. 그중 홍삼 3,400근(가격 13만 3,500원)을 중국에 수출코자 25일 적하하여 26일 인천 선편으로 지부芝罘에 향했다. 지부를 거쳐 상해로 회송되어 음력 12월에 출시케 된다. (1913.12.26)

개성 인삼은 조선에서 품질이 가장 좋아 몇 해 전부터 나라에서 만드는데, 홍삼으로

절만한 좋은 것을 가려 만들고 각기 봉지를 지어 싸는 것이 여인의 공삼 직공이다.
(1914.01.09)

개성 삼업조합에서 2,400원을 총회에서 결의해 지금 총독부에 인가신청 중임, 인가 즉시 동경에 사람을 보내고, 삼포의 주요 흙은 25일에 발송할 것이다. (1914.02.17)

부군폐합실시의 결과 행정구획 기타에 변경이 생겼다. 홍삼전매법 5조에 의해 인삼의 특별경작구역을 경기도에서는 개성, 장단으로 결정, 3월 1일부터 실시할 것으로 총독부 고시 제52호로 발표했다. (1914.02.26)

5월 1일 사세국 개성출장소에서 인삼경작자 포상수여식을 거행했다. (1914.04.30)

1일 사세국 개성출장소 구내에서 제4회 경작자 포상수여식이 개최했다. (1914.05.03)

개성군 삼업조합에서 일본 대정 박람회를 시찰하기 위해 조합장 손봉양과 박봉진, 김익환, 김득동, 이문용 등이 10일 개성역에서 출발했다. (1914.05.13)

홍삼전매법 제8조에 의해 1914년 수삼 수확 조정의 기일을 개성 8월 10~31일, 장단 8월 20~31로 정해 어제 관보로 발표했다. (1914.08.11)

사세국 개성출장소에서 5월 1일 인삼경작자 포상수여식을 거행했다. 1등상 3명, 2등상 1명, 3등상 5명, 4등상 6명이다. (1915.05.06)

개성삼업조합에서 본년도 준비자금을 요하는 시기가 되었으므로 조합회의를 열고 20만원의 자금 차입을 결의하여 전매과를 거쳐 인가 신청 중인데, 내월 초순 한호농공은행에서 대출하기로 하고, 상환기일이 된 전년도 대출자금 중 15만원은 전부 상환했다. (1917.03.11)

탁지부 전매과 개성출장소에서 4월 27일 인삼경작자와 고용인에 대해 제9회 포상수여식을 거행했다. 경작자 1등상은 손봉상 외 15명, 고용인 1등상은 김관석 외 4명에게 포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1919.04.29)

개성군 인삼경작자 포상식을 본년 4월 오후 1시 재무출장소에서 거행했다. (1920.04.27)

고려인삼 판매업에 명망이 있는 이영진 등의 발기로 12월 5일 임가삼업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명칭은 고려삼상조합이라 하고 그 취지는 가격의 균일과 품질의 선량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합원이 되는 자에게 한하여는 조합의 기금으로 금 1백 원씩을 선납케 하고 정관을 통과했다. 당일 참석자는 10여 인이다. (1921.12.12)

경성 전매지국 개성출장소에서 25일 인삼경작자 표상수여식을 거행하고 벚꽃이 만개한 철도공원에서 원유회를 개최했다. (1924.04.27)

개성 인삼 작부 총판별은 1,593,573평으로 피해 입은 삼포는 38,455평으로, 유실 3,638평, 최다 피해는 올해 식부한 1,200평과 채굴할 600평 내외에 불과해 올해 인삼 제조 수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1924.08.06)

개성 북본정에서 백삼 장사하는 왕씨는 홍삼을 밀조해 50근을 매도 계약하고 회승관 중국 요리점에서 모여 술상을 벌이다가 미리 망을 보고 있던 서원에게 체포되어 밀조 홍삼은 전부 차압당했다. (1924.10.13)

개성 인삼계는 재하在荷의 박薄으로 가격이 점점 등고騰高한다. 1개월 전에 비해 1할 내지 1할 5푼의 등귀를 보았다. 당분간 이 시세가 유지될 것이다. (1925.06.05)

종래 16관 1포에 80~90원하는 인삼이 170~80원으로 폭등했다. (1925.09.18)

전매국 개성출장소의 인삼수납은 매년 9월 상순부터 시작되는데, 한천으로 인삼 생산에 타격이 있어 매우 우려 중에 있다. (1926.06.23)

개성전매지국 관할구역 내 인삼은 9월 12일부터 채굴을 시작하여 14일부터 수납을 시작했다. (1927.09.16)

전매국 개성출장소에서 550명의 직공을 사용하여 9월 16일부터 11월 20일에 홍삼 제조를 종료했다. 소요 원료 수삼은 15만 4천여 근에 달하며 제조된 홍삼은 4만 천 5백여 근이다. 예정에 비해 6푼 9리의 증제이다. (1927.11.29)

개성의 김득중은 공모범 5명과 함께 시상점공영삼업사市商店共榮蔘業社 이기형으로 부터 백삼 300근을 구입했다. 이후 홍삼을 밀조하다가 발각되어 취조 받고 있다. (1928.04.26)

개성군 송도면 손종환, 문한주, 진병삼, 김대옥등 4명이 지난 9월 26일 새벽 3시경에 동면의 박덕환의 집에서 홍삼을 밀매하다가 붙잡혔다. 현장에서 홍삼 600여 개와 수삼 500근, 시가 2만여 원어치를 압수했다. 수삼은 백삼제조장에서 교묘히 빼온 것이 라고 한다. (1928.10.07)

개성군 송도면에서 인삼 장사를 하는 허원은 박승달, 강만성등과 함께 공모해 권덕삼 의 집을 빌려서 홍삼을 밀조하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수삼 200여 근 을 압수당했다. (1928.10.19)

12) 동원

풍덕군에서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8천 4백여 명의 부역으로 개성군 경계로부터 풍 덕읍을 거쳐 영정포에 이르는 도로를 개수했다. (1911.05.28)

북부 시가를 확장하기 위해 새로 건축하는데, 군내 인민이 집집마다 부역함으로 그 준공이 곧 완료 될 듯 하다. (1912.07.02)

풍덕과 황해도 해주 통행로 확장을 위해 공역에 착수함, 군수 박우현은 몸소 출장 현 시해 매일 역부가 천여 명에 달한다. (1912.12.13)

시가지 낙타교 밖 장단 경계 인접지역 까지 도로를 수선하는데 인부 18,000여명을 개 성군 송도면에 맡긴 바 어제 상업회의소 내에서 관리, 인민 대표 40여명이 회집, 협의 한 결과, 가옥 간 수로 계획해 갑종 가옥은 7등급으로, 을종가옥은 6등급으로 분배 되었다. (1914.06.16)

개성군에서 도로 수선에 대해 인부 부역 분배 건으로 송도면 이장들이 집집마다 돌 아다니며 설득해 역부를 징출하는데 다수 인민의 분쟁이 심하다. 동면 경방리 이 장(한병교)은 다년간의 노련한 수단을 이용해 사람들이 역고를 마다하지 않고 부역

중이다. (1914.06.16)

입태자立太子식 당일에 개성에서는 각 호에 제등提燈과 국기를 달게 했다. 각 학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배하식을 거행했다. 관민과 유지의 참열도 적지 않았고, 재향군인회 개성분회 역시 배하식을 거행했다. (1916.11.05)

개성군내 경의 가로京義街路 서쪽을 4월부터 수축공사에 착수하는데, 중서면 오정문으로부터 북면 청석관까지 3리 34정이다. 13면의 배정된 부과 인원수는 송도면 11,080명, 중서면 87,366명, 남면 101,016명, 서면 51,608명, 북면 58,104명, 영북면 66,816명, 영남면 62,640명, 임한면 7,368명, 흥교면 75,384명, 대성면 6,112명, 광덕면 5,656명이다. (1917.02.18)

고려정 진선사 사원들이 관왕묘 중수 건으로 당국에 여러 차례 교섭해 23일 송도면 남산정 구내 인민들의 모래, 돌 운반 부역원이 100여명에 달했다. (1924.05.26)

고을 학교 조합에게 하사한 진영이 지난 20일에 도착했다. 일선 관리일동과 시민일동, 공립보통학교, 사립 개성학당, 한영서원 남녀학생 수천 여명이 정거장에 나아가 맞이했다. (1912.05.22)

경찰서에서 노동자들의 잡기를 금하고 근검저축 사상 양성을 위해 작년 겨울부터 교부조합, 차부조합, 모굴인부조합에게 노동여가를 이용해 조합소에 모여 짚신을 만들게 하고 그 값을 저축하라고 명령했고, 순사로 하여금 감독한다. (1912.05.25)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조합에서 노동 여가 시간에 짚신을 만든 결과, 하루 짚신 4켤레 이상 만들어 200여 원 저금한 자가 있고, 서장은 군수와 의논해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이의정 등 8명에게 포상했다. (1912.05.25)

총독부 촉탁이 순회하며 제반 업무에 대해 인민에게 설유함을 듣고 풍덕군에서 저축조합을 설치했다. 저축조합에서 1개월 제작품 노끈 1만5천 파, 초혜 약 2천 족, 매액은 100원에 달한다. (1912.09.19)

제1공립보통학교에서 명치 42년 5월 개시 본년 9월 말까지 생도 400여 명 중 저금한

인원 255명, 부모친척 간에 받은 돈, 기타상여금, 노동비, 편물수예품 매각금 등으로 저축한 금액이 490여 원이다. (1912.11.01)

국유지 소작인의 저금상황, 동면 이현성 등 21인은 공합금 3원 50전, 서면 박세진 등 40인은 48원 73전, 영북면 강평성 등 9인은 90전 합계 53원 43전에 달한다. (1912.12.03)

개성군 납세조합은 7월 말 기준 456인, 저금액 129원 64전, 국유지소작인조합은 읍내 4부를 제하고 537인, 저금액 286원 91전이다. (1913.08.08)

개성에서는 유지자들의 찬동으로 저축의 명의로 조합이 종종 설립되어 개성 근검조합의 명의로 382원 31전, 공려저축조합의 명의로 191원 81전, 기타 원 풍덕 부자저금조합의 각종명이가 있다. 군청의 지도로 공려조합, 부자저금조합, 저축조합의 명의를 병합해 ‘근검저금조합’이라 하고 지금 인원이 326인, 총액 4,813원 88전 5리이다. (1914.06.27)

개성 북부 고려교가 작년 홍수 피해로 무너져서 개성군과 경찰서의 협의 결과 유력가 박우현, 진성렴, 김원배, 마문규, 김근용, 최기정, 손우●, 정재동, 이용직 등의 발기로 돈 8백원을 모아 수선 공사에 착수한다. (1915.08.19)

개성시까지 내에 북부 충교, 고려교는 얼마 전 상업회의소 내에서 관민 협의 결과 북본정, 지정, 만월정, 고려정의 거주 인사가 공동 부담이다. 화천교, 좌견교는 동본정, 원정으로, 오천교는 남본정으로 가설할 계획이다. 단 남본정 도교는 경의선 통로라 관민간 구처區處의 방침이 없다. (1915.08.31)

개성 제12공립학교와 각 공서에서 5월 7일 황태자 성년식의 축하를 거행하고 각 은행, 회사도 휴업했다. (1919.05.11)

황태자 어성훈의 길일인 26일 개성군에서 각 관아와 마을에서 국기를 게양해 경축의 성의를 올렸고 여자 공립 보통학교에서는 기념으로 아동 저금을 개시해 각 학부형에게 통지를 보냈다. (1924.01.28)

13) 재해 구호

풍덕군 중면장(이득로)이 5백원을 차입하여 면내 빈민을 구휼했다. (1911.06.04)

개성군 미상 영업하는 김태운은 지난 달 남부에 있는 예수교인과 기타 화재 피해자에게 20여원을 기부했다. (1911.07.28)

동부 대활동 박승규는 지난 17일 아내의 초상을 당했는데, 감당할 도리가 없어 북부 표천에 사는 양석채, 우수한이 부의를 얻어 장례를 거행하기로 했다. (1912.05.23)

남부면 도교통 쌀장사 김기현의 집에서 어떤 여인이 쌀 3되, 팥 1되를 사고 값 1원을 줄 때 뒤에서 누군가 돈을 빼앗아 도주하자, 여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자 구경하던 전 군수 김석영이 1원을 주고 그 곡식을 주어 보내라 했다. (1912.07.09)

전군수 김석영은 여전세말에 궁한 노인과 가난한 부녀에게 자선심으로 100원을 분급 구제했다. (1912.07.09)

하남면 후석리 배미동 양지학의 부인 이소사(33)는 빈궁한 자의 전곡 간청을 다 들어 주고, 금년 춘궁에도 빈민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일가 양태연의 상중 소기가 5월인데 가세가 빈한해 의탁할 곳이 없자 전곡을 연조했으며 동중 학교에서 매일신보를 독당해 대금을 판출하기로 자담했다. (1912.08.17)

하남면 후석리 공전영수원 양재화는 본년 제1기 빈민 호세를 자담 판납, 제2기 호세에도 702호 내의 인민, 300호의 호세, 45원을 기한 전 9월 내로 자담 필납했다. (1912.11.22)

동부면 태묘리의 이무경(14)은 조실부모하고 권연, 엿을 팔며 어렵게 살아가는데, 경성으로 올라가 팔다가 마땅치 않아 도로 내려온 것을 남대문 안에서 잡물전 장사 박성호가 측은히 여겨 보호해주었다. (1912.12.14)

풍덕군수(김영두)와 공립보통학교장은 월암리 부근에서 숙박하다가 어느 집에서 화재가 있어 일반 동민을 지휘해 소방하고, 소지한 여비로 이재민을 구휼했다. (1914.01.11)

1912년도부터 설립된 구제곡 저축조합은 올봄에 본 조합규약에 의해 면내 빈곤자에게 조 1석씩 27석을 대부하고, 기타 결인에게 조 2석 2두 5승을 무상 구급했다. (1914.05.24)

개성군 송도면사무소에서 음력 연말을 맞아 구제회 잔금으로 면내 빈민 81호에 백미 1두와 2원씩을 나눠줬다. (1919.02.07)

수해 구제로 개성 어린이 잡지 '셋별'은 18일 중앙 예배당에서 소녀 가극단의 가극무도대회를 연다. (1924.08.18)

14) 통제

남부 금현 등지에는 건장하고 젊은 결인들이 무리지어 경조사가 있는 집을 돌아다니며 민폐가 많아 경찰서에서 결인 수십명을 불러 들여 각 볼기 열대 썩을 때렸다. (1912.05.26)

북부면 지파리 김영락은 각 년 11월 경에, 이정리로 이사한 신고를 본월까지 안 해 벌금 1원에 처했다. (1912.05.31)

경부 이면근은 근무한지 여섯 해 동안 인민을 대할 때 제반 신식, 자세한 규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났는데, 경성 남부 경찰서 경부로 전임되어 관내 인민들이 아쉬워한다. (1912.06.20)

남부면 도교 등지에 있는 여관에 일전에 류인기 등 3명이 유숙했는데 숙박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발각됨, 지난 9일에 경찰서에서 여관주인을 호출해 엄중히 설유하고 벌금 3원에 처했다. (1912.08.11)

현병분대에서 조선인 통역 1명, 보조원을 모집하는데, 연령은 20이상 30이하로 친필 지원서와 이력서를 갖고 9월 5일 내로 분대에 출두하라 했다. (1912.08.28)

경찰서에서 당서에 근무할 순사보 채용시험을本月 22일에 당서에서 시행한다. 지원자들은 기한 내로 지원서와 이력서를 휴대해 당서로 출도하라고 했다. (1912.10.12)

남부면에 조정리 새염주골 등지에서 수일 전부터 철쇠 혹은 팽가리를 두드리며 야순을 하는데, 요란하면 도적놈들이 소리 없는 곳으로 갈테니 조용히 야순을 해야 유의할 것이다. (1912.12.28)

개성군 사세국 출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역부役夫 2명이 옷통을 벗고 노동하다가 행순巡巡사에게 발견되어 태형 10도씩에 처해졌다. (1913.07.26)

경찰서에서 순사보 시취함, 청원서는 28일 내로, 시취는 3월 5일이다. (1914.02.26)

경찰서에서 화재의 빈도수가 매년 증가해 1911년 이후의 화재 빈도수, 원인, 화재예방에 대해 각자 인지할 사항을 인쇄해 각 호에 배부했다. (1914.03.04)

서부면 관전리 이원주(23)는 대취해 천성녀를 구타 힐난한 일로 볼기 25대에 처했다. (1914.03.17)

개성군에서는 종래 12리를 13정으로, 구 통호를 번지番地로 변경하는 중이다. (1915.01.20)

개성군 헌憲 경찰 양청에서 취급하던 민적사무가 4월 1일부터 각 면역장으로 인계된다. (1915.03.17)

개성군 서본정 조창근과 청교면 배야동리 전유민은 지정, 마암 등지에서 화전을 경작할 때 화재가 일어나 초퇴草堆 5천평이 불에 타서 1일 구류에 처해졌다. (1915.04.28)

개성군 경찰서장은 조선인 순사보로 연구회 및 구락부를 전 선전續塵 도가都家 누상에 설립하고 비번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회집하여 법률 일본어 경제 산술 지리와 매일 신보를 연구 강습하고 마지막 1시간은 오락으로 임의 유희케 했다.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10전, 결석자는 20전이다. 회비 1개월 1원씩은 서장이 기부하기로 했다. (1915.06.20)

개성군 동본정 홍종열은 70 노부老父의 노동 소득으로 무위도식하고, 여항간 청년을 유인하여 사치에 빠지게 하고 빈곤케 한다는 여론이 있어 개성경찰서에 체포되어 취조중이다. (1915.08.03)

개성군의 이재원 등 4인은 도박범으로 잡혀서 태형 90대를 처벌받았다. (1916.02.11)

개성군 동면 백전리 헌병소장 강부국평이 부임 후 풍기취체를 실시했다. 무녀의 신의 등을 다수 압수해 불에 태웠고, 부랑자 15명을 하룻밤 가두었다 다음날 풀어주었다. (1916.03.10)

개성군 조관영(58)은 본년 1월부터 면허 없이 모르핀 중독자 9명에게 단연술斷煙術을 시행하고, 단연약제로 20원을 받고 팔아서 의생규칙위반으로 벌금 50원 처분을 받았다. (1917.05.26)

개성경찰서에서 12월 11일부터 부랑자 검거에 착수했다. (1917.12.15)

개성군 경찰서와 송도면역소에서는 일반 인민의 주의사항으로 화재예방 19조, 도난 예방 7조, 위생의 16조, 납세 기타 주의사항으로 다수 인쇄하여 요소처에 첩부貼付하며, 일반 인민에게 배부하여 아동 부녀로도 상세 주의케 했다. (1919.02.13)

개성경찰서에서 5월 6일 오후 10시경부터 서장 이하가 별안간 활동을 개시하고 이왕 시내의 주의注意 인물되는 부랑자와 다른 데서 들어온 불령자 검거에 착수하여 이튿날 7일 오전 6시경에 돌아왔다. 유죄 결정자 10명, 훈계 방환한 자 10여 명, 기타 취조 중 이다. (1919.05.11)

개성군 임억홍은 4월 26일 오후 1시에 모우牯牛 1두를 허락 없이 도살하다가 순사에 게 발각되어 소고기는 압수하고 벌금 30원을 물었다. (1920.04.29)

개성군 김재춘, 오택순, 박범회등 3명은 허가도 없이 4월 초부터 24일까지 인력거를 끌고 있는 것을 당지의 경관에게 발견되어 벌금을 각 4원씩 냈다. (1920.05.02)

개성군 시가지에 여러 사건이 발생하여 각 정동의 협의로 10가 작통하여 장정으로 야간 순회 경비를 시행할 터인데, 경찰 당국은 후원 준비를 할 터이다. (1921.01.22)

개성경찰서에서는 얼마 전 순사를 소집하고 시내 각 요리점, 음식점, 기타를 점검하여 부랑자를 많이 검거했다. (1921.03.14)

개성경찰서에서 검거한 불량자 30여 명 중 20명은 설유, 훈계, 방면하고 10여 명은 구류 15일에 처했다. (1921.03.17)

15) 공업

읍내에 소주를 만들어 영업하는 자가 많은데, 그중 질 나쁜 소주에 독약을 타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장사꾼들이 있다. 이는 위생상에 문제가 있어 경찰서에서 그 무리를 엄밀히 주목하는 중이다. (1912.05.28)

발동기 정미소가 없었는데 작년 5월부터 성가리 양성시에서 김일덕, 정달원의 주장으로 6마력, 석유발동기를 사다가 정미소를 확장해 설치했다. (1912.08.27)

문향사 주임 민진호가 새로 발명한 계향주는 품질이 매우 좋아 내외국의 찬성이 비상해 양조 법을 배우러 오는 자가 끊이지 않으며 각 지방에 지점 10여 소를 설립해 그 수출이 많다. (1912.09.17)

개성군에서 7명을 검거하여 취조한 결과 소주燒酒 조석수造石數에 대하여 175명, 세금은 150원의 탈세를 발견하여 목하 수색중이다. (1913.06.19)

7월 3일 송도면 사무소에서 조주업자대회를 개최했다. 당업자 4백여 명이 참석했다. (1917.07.06)

개성군 반도양복실습소에서 8월 1일 제1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생은 26명이다. (1921.08.08)

개성에 있는 송도고등보통학교 실업장에서는 4월 24~25일 상품진열관을 빌어서 실업장 소산所産인 개성직물 전람회를 개최한다. 실업장의 중요제품은 부인의 양복감, 아이들의 양복, 와이셔츠, 칼라, 양말, 운동복 외에 기타 116종의 직물이 있다. 원래 송고실업장의 설치 목적은 고학생을 위해 15년 전에 남감리교회의 선교사들의 힘으로 설립되어 오다가 선교사의 한 사람인 쥐 옛치 텔의 열성있는 원조로 약간의 기부를 모아 극히 소규모의 직물공장이 경영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80대의 직조기를 설치하고 130여 명의 고학생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 실업장의 제품이 24개국에 판로를

열게 되어 작년도 생산량은 35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송고실업장의 제품이라 하면 어느 곳이든지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주게 된 점과 머지않은 장래에 과연 조선 유일의 수출품으로 될 터이라 한다. (1925.04.22)

15년 전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에 온 이후 개성 고려정에 위치를 정하고 기독교를 선전함으로써 조선인 남녀의 교육 기관인 한영서원과 호수돈여숙을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약간의 돈을 미국 남 감리교회 선교부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일반 조선 청년남녀를 위해 선교도 하며 약간의 학생을 수용했다. 빈약한 조선인의 생활상태를 보고 전도 유망한 독학^{篤學}의 청년들이 학자^{學資}를 얻지 못하여 그들의 훌륭한 포부를 헛되이 해버리는 것을 통탄히 생각하여 당시 한영서원장 윤치호의 알선으로 이 학교 부속 기관인 실업장을 창립하고 수십명의 고학생을 수용하였다. 처음 수개년간은 선교부에서 순전히 금전을 지출하여 그들에게 매월 몇십원씩의 학비를 주었으나 그후 현재 실업장 주인인 미국인 선교사^(뎀 씨)의 제의로 최초에 10여 대의 직조기를 비치^{備置}, 사용했다. 그후 작금 양년^{兩年}에 40~50대의 직기^{織機}와 30여 대의 양말 기계를 비치하고, 기타 염색기, 정경기^{整經機} 외 수십의 부속기계를 비치하고 미국제인 연료자동 주식^{注式}으로 된 기관을 이용하여 터빈을 회전하므로 전기까지 발전하여 수백 대의 기계를 사용하게 되었다. 제품은 대개 외국인의 소용^{所用}에 적절하며 전부가 여름철 옷감이고 원료는 이집트면^綿에 독일 염료를 사용하여 명칭은 목면류이나 주단^{綢緞}에 흡사하다. 판로는 주로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리아 등지이며 판매점은 전세계를 통해 26개국에 산재해 있다. 판매방법은 통신판매이다. 작년도의 총 산출고는 약 45만 파운드, 가액 35만원 가량이다. 학생은 각지방의 교인의 자제이고, 오전, 오후 또는 야간의 3조로 되어 있다. (1925.09.14)

개성 소주품평회 포상수여식이 11월 21일 개성여자보통학교에서 거행되었다. 우등 김영환 외 1등 4명, 2등 17명, 3등 20명이 대상자이다. (1925.11.25)

10월 30일 부터 경기도에서는 도내 양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을 증가하게 할 목적으로 오는 10월 30일 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동안 경성공회당에서 경기도 양조품평회를 개최한다. (1926.09.30)

16) 상업

개성군의 약상藥商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경기도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1911.07.04)

선죽교의 내외국인과 관람하는 자의 편의를 위해 정선한 다과점을 새로 건축했다. (1912.06.06)

자전거 세전을 한 시간에 40전씩 받으니 각 세물에는 상당한 세금이 있는데 자전거는 1시간에 세전이 너무 많다고 비평하는 자가 많다. (1912.06.28)

시장에서 수일 이래로 쌀값이 올라 백미 한되에 32,33전으로, 장에 들어오는 쌀이 없어 일반민의 정황이 대단히 시끄러웠다. (1912.07.05)

시장 거리에 미곡 값은 하루에서 차례씩 올라 백미 한 되에 37, 38전, 좁쌀 한 되에 26, 27전 팔 한 되에 21, 22전이라 일반 인민의 정황이 대단히 시끄럽다. (1912.07.07)

폭등했던 쌀값이 지난 9일 밤에 비가 많이 온 결과 시끄럽던 인심이 평온해지고 쌀 1되에 31~32전, 즉 1, 2일 전에 비교하면 매 되에 5, 6전씩 떨어졌다. (1912.07.12)

북부면 성가리 심천동에 청국인 청요리점 희승관을 신설했는데 풍비함파 정결함파 제일이라 하여 청구자가 끊이지 않는다. (1912.09.12)

남대문 삼영상회 주무 이시우는 외국 각항 물화를 직수입해 발매해 봄부터 상업을 확장하기 위해 상회 안에 양제로 2층 집을 새로 건축하고 큰 자본금으로 크게 활동을 하고 있다. (1912.10.06)

개성군 대화정 삼영상회는 1912년 1월부터 12월경에 2층 양옥을 신축했다. 상회 주임(이시우)은 해외 각색 물품을 다수히 직수입하여 도매했는데, 음력 정월부터 소매부를 설치했다. (1913.02.01)

개성군 북부면 성가리 시장은 수년 전 창설되어 5천 원 예산으로 불원不遠 확장한다. (1913.04.22)

개성군 남부면 도교시장은 7월 8일에 북부면 정토종교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1913.07.06)

개성 옷장거리(상시장)는 매월 1, 6일에 매매하는데, 이번 음력 초6일장에 토산 장꾼들이 도교시장으로 옮기기로 했다. (1913.10.08)

개성군에서 장터 분쟁이 일어났는데, 옷장터에서는 ●●●를 다 쫓아내고 장꾼을 올라가니, 아랫장터에서는 장꾼의 청구함을 의지하여 가게를 일변 수리한다, 공간을 빌려준다 그리하였다. (1913.10.10)

개성군 장터 분쟁이 해결되었다. 옷장에서 이번에 가게를 새로 건축했는데 토산 장꾼들에게 불편한 곳이 있어 옷장터 주무主務하는 자에게 여러번 간청해도 듣지 않자 장꾼들이 분노하여 도교시장으로 내려오기로 작정하고, 도교시장에서는 장터를 한층 확장한다 했더니 옷장터에서 토산 장꾼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여 1일은 옷장에서, 6일은 아랫장에서 보기로 결정했다. (1913.10.14)

곡가는 백미 상 16원 30전, 중 15원 70전, 하 15원, 찹쌀 18원, 콩 10원, 보리 4원 80전, 밀 8원 50전, 참깨 22원 50전, 들깨 7원, 수수 7원 20전, 조 11원, 메밀 7원 등이다. (1914.02.15)

여사 영업자 심도섭은 부인 정성녀(25, 장단군 서면 전제궁리)가 내도해 숙박하는 것을 10여일 지나도록 숙박 신고를 제출하지 않아서 벌금 1원에 처해졌다. (1914.05.02)

개성군 시장에서는 경찰 당국의 지도에 따라 6월 11일부터 경성시장에서 사용하는 되로 통용하며 미곡의 가격도 이에 따라 사소하게 변경되었다. (1915.06.19)

4월 4일 개성 군·경 양청에서 상민 일동을 불러서 설유했다. 5일 아침부터 개시했다. 종로 근처는 이왕의 면목을 회복했으나 그 밖의 다른 촌락들은 그렇지 않다. (1919.04.07)

개성군 송도면에서는 6월 24일 시내 약종상(양약 한약)과 백삼 판매자를 소집하고 남산南鮮에 있는 대구, 대전, 전주 등지에서 행하는 약령시를 금년부터 개성에서도 행하기

위해 장소와 일자를 협의했다. 장소는 송도면 양성시장, 일자는 매년 1회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만 1개월이다. 송도면 경영經營으로 행하게 되었다. (1925.06.28)

개성 약령시 개설은 이번에 지사로부터 허가가 있었다. (1925.08.30)

개성군 송도면사무소 누상樓上에서 9월 11일 개성약령시 설립위원회를 열었다. 협찬회를 창설하기로 한 후 무기명 투표로 회장, 부회장을 선거했다. 회장은 박우현, 부회장은 손봉상, 강본풍회이다. (1925.09.14)

개성의 약령시는 날이 갈수록 출장 인원이 증가한다. 협찬회에서는 11월 24일 면사무소에서 역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자금 수만 원을 조달할 구체안을 결정했다. (1925.11.29)

17) 회사

5,6년 전에 모 재산가 20여 명이 창설한 남부에 있는 개성사는 1월에 북부의 재산가 이시우가 매수해 남대문 안에 새로 건설한 삼영상회는 곧 준공됨, 건축비가 4, 5천원에 달함, 내년 큰 창고를 건축할 예정이며 방장 5, 6개소의 대리점이 있고 경성, 평양, 대구 여러 곳에 지점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1912.12.13)

개성군에서는 유지 6명이 육일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황해와 평안도의 미간지未墾地를 개간하기로 했다. (1913.02.14)

개성사는 10만 원의 자본금으로 경영하던 중, 고정 자본 증가, 사무 확장으로 자본 증액이 필요해 각 사원의 출자액을 변경해 이번 자본금액을 20만 원이다. (1914.02.01)

개성전기주식회사는 4월 14일 제일공립보통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중역을 선출했다. (1917.04.18)

개성 부호 박우현 외 14명은 합자회사 고려삼업사 설립 계획으로 자본금 총액을 20만원, 박우현 외 3명을 무한책임으로, 10명을 유한책임으로 총독부에 허가 신청중이다. (1917.11.18)

개성에 본점을 둔 자본금 50만 원의 면포, 곡물 기타를 영업하는 조선인 경영의 합명 회사 개성사에서는 종전 업무에 운송업을 추가하는 일로 출원중이더니 7월 26일부로 허가 지령이 있다. (1919.08.01)

개성전기회사 제5회 주주총회를 4월 16일 제일공립보통학교에서 개최한다. (1921.04.13)

개성군 임익상 등 3인은 지난 여름 도토^토를 발견하여 청교면 덕암리 정동 등지에 제조소를 설립하고 고려 자기를 모범하여 송도 도기라 명명했다. 장인을 초빙하여 다수 제조중인데 그 품질이 정교하고 그 색이 비취, 고동^{古銅}, 황금의 3색채가 선명하고 가정용 기^器를 만드는데 그 성적이 극히 양호하다. 군수는 서무주임, 송도면장, 식산은행 지점장, 삼업사 지배인, 개성신문사장 등을 동반하여 현장을 시찰했다. (1921.09.27)

개성 유지 고한승, 최선익외 여러 명이 개성상사주식회사를 창립 중에, 지난 3일 부로 등기를 마치고 10일부터 개성 북본정에서 영업을 개시했다. 취급하는 영업과목은 종래 합영회사개성사에서 경영하던 것을 인계받아 각종 특약점과 대리점, 창고 업등과 특산물을 중개하여 현물로 매매를 가장 중요하게 한다. (1928.09.14)

18) 부업

개성경찰서장이 양돈장 설치가 필요하다 하여 의견서를 경기도청에 제출했다. (1911.02.16)

개성에서 조일인 유지들이 자금 3만 원을 들여 잠업협회를 조직했다. (1911.12.09)

잠업협회에서는 개성의 일본, 조선인 20여 명이 경비를 내고 본년부터 상묘를 재배해 과부, 부녀자에게 양잠의 전습을 가르치고 5년간 1천 명 이상의 양잠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1912.02.27)

풍덕군청에서는 지난 5~7일 잠업 강습회를 설행했는데 출석 강습생은 20여 명, 청강자 10여 명이 삼묘 2만 매의 하부를 청구했다. (1912.03.17)

풍덕군 중면 송산리 경기도 직영의 은사작잠 연습소를 설치하고 지난달 28일 개소식을 행함, 전습생 19명을 교육 중이다. (1912.08.10)

풍덕군 중면 송산리에 개설한 은사작잠 연습소는 올해 창시에 관해 7월 28일 개소식을 거행하고 수산자 33명을 수용해 지금 가을 작잠 사육을 실습중인데, 사양립은 윤엽수로, 수령은 5,6년생의 민유, 밀산 왜생립을 이용하는 면적이 10정보이다. (1912.09.05)

풍덕군의 젊은 면장 이득노는 잠업조합을 조직한 후 조합원을 지도 양잠하여, 수권이 다량이고 품질이 양호하다. (1912.09.06)

개성군에서는 관내 소작인으로 하여금 저축장려계를 조직하고, 종래 공동구우계 등도 그 사업으로 편입하고도 양금(養鰻)을 개시하여 농가 부업의 보급을 꾀했다. (1913.05.28)

6일부터 1주간 풍덕군 동면 영정리에서 제3회 제연 입 전습생 10명을 교수, 12일 영정리 사립보창학교 구내에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군수(김영두), 주임, 서기, 진본공립보통학교장, 헌병파견소장, 3면 면리장, 신사, 교직원들, 기타 수산자 등 합 90여명이 출석했다. (1914.01.18)

잠종상묘의 무상배부는 폐지되고 특별 배부의 외에는 모두 유상배부함, 군청에서 희망자에게 각 품종수량 대가 등을 기록해 신청서 제출을 요함, 유상배부 잠종 35매, 1매 45전 가량, 상점묘본 7만 본, 1본 1전 5이정량, 배부 방법은 상점묘본 1단보에 1,000본, 노상실생묘 1단보 2,000본, 매개인 측에 1,000보씩 작성 분급할 것이며 기한은 20일로 예정이다. (1914.02.18)

개성군 상도면사무소 직원 박영옥은 권업 장려를 실행하고자 인근 아동 18명을 모아 직리계를 설립하고 매월 1인당 짚신 4족씩 수합 발매하여 대금을 공동 저축하는데, 1919년 2월 1일부터 1921년 1월까지 금액이 150여 원에 달했다. 10개년을 기한하고 동심 협력하는 중이다. (1921.01.22)

개성 고려 양토장(養鰻場)에서 양토연구회를 조직하고 초보사업으로 양토강의록을 발행

했다. 부업장려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에게는 강의록을 무료로 제공하고, 종토種兔 분양도 할인하여 준다. 장래에는 제혁製革공장까지 설치하여 양토가에게 많은 편의를 도모하려 한다. (1925.10.23)

19) 전기

인가 800여 호, 인구 4만에 달해 변화지라 할 만한데 지금까지 전기등이 없었다. 일본인들의 발기로 전등회사를 창립하기 위해 주주를 모집하는 중으로 자본금액은 7만원 가량이다. (1912.10.31)

개성전기회사에서 전등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요금은 1개월 10촉광 90전, 6촉광 60전, 그 외 종량등 임시등에 대해 할인 차별이 있다. (1917.07.10)

개성전기주식회사는 개업 이래 호황을 보여 조만간 전력 부족을 보리라 하며, 당기 주주 배당도 상당액에 달한다. (1919.04.22)

개성전기회사는 개업한 지 2년인데, 12월 1일부터 줄연히 기계 고장이 생겨 수선기간 약 1개월간을 전력이 축소되므로 일반 수용가에 사의를 표하고, 전등 요금에 상당한 타협이 있기로 결정했다. (1919.12.10)

개성전기는 고장이 심한 바 10월 11일과 12일 양일에는 장시간의 고장으로 개성시는 암흑세계를 이뤘다. (1921.10.17)

개성일대는 지난 10일부터 전기 고장으로 밤이면 암흑 세계로 변하여 고난이 막심하다. 금번에 새 기계로 며칠간은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었으나, 완전한 설비와 원만한 공사가 안되었는지, 전기 계량부족으로 시간 시간마다 개성 남북부에 번갈아가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개성인의 불평이 높다. (1926.09.13)

개성음식점조합도 개성전기주식회사에 대한 불평^(12개)과 요구^(5개)조건을 내걸고 엄정항의를 제출하고 1월 25일까지 회답이 없을 때는 조합원 점등 4백여 등을 일제히 소등消燈하겠다는 최후 통고를 발했다. 중요 조건은 전등료 감액이니 10촉 1등에 1원이라 함은 전 조선을 통해 고가高價이고 또 전광이 미약하고 고장이 빈발하며 회사원의 오만 무례함이 최대 원인이다. 조합장^(이병찬)은 “조합원은 전부 석유등 4백여 개를 구

입하여 요구에 불응하면 소등할 각오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927.01.21)

개성전기회사는 경의선 장단, 문산역 소재지에도 점등설비를 하고자 체신국에 신청 중이었다. 이번에 허가되어 곧 점등을 개시한다. (1927.04.10)

개성전기주식회사는 종래 사업의 대확장을 계획하여 오던바, 금번에 50만 원으로 증자를 하고 불입금으로서 100킬로와트의 기력발전소를 설치하고 서흥에까지 설치할 목적으로 목하공사를 착착 진행중인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체신국에 인가 신청을 하였는바, 1원 10전씩으로 인가지령이 나왔다. (1928.10.05)

20) 노동, 노동운동

개성경찰서장齋藤金祐은 직업 장려와 노동자의 풍속 교정을 위해 모범이 될 만한 각 노동자 중 8명을 선발하여 1910년 12월 28일에 표창식을 거행했다. 군수(朴우원)와 더불어 사재를 내어 금 3원씩 증여했다. (1911.01.07)

개성 조선인 목수 니장泥匠 이목伊木 세공細工이 합동하여 관청의 허가에 의해 토목공사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1915.11.09)

10월 1일 오전 4시 40분경에 개성삼업조합 백삼白蔘제조공장에서 교대하는 조선인 여공 3천명이 입장하여 일을 시작코자 할 즈음 앞에 섰던 사람이 뒤에 밀려 넘어지면서 뒤에 섰던 사람도 엎어져서 3명이 즉사하고,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당했다. 이 공장에서는 샅전을 시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든 수효數로 주는 까닭에 새벽에 문을 열면서부터 앞을 다뒹 들이밀려 먼저 입장하려하여 사고가 발생했다. (1917.10.02)

경성유지자 김광제씨의 기타 발기로 조직된 아조선노동계를 조직했다. 생활, 교육, 질서 3대 요항으로 법률 범위 이내의 활동을 실시한다. (1920.06.03)

경성노동대회지부가 개성북본정에 위치하기로 하고 가정하고 사무 전반을 집행하는 바, 설립된지 불과 1개월 만에 입회지원자가 매우 많았다. (1920.06.11)

조선노동공제회 개성지회에서는 6월 19일 오전 2시에 총회를 열었다. (1920.06.23)

개성 청년 십수 명으로 새로 조직한 신파^{新派}연예단은 얼마 전부터 개성좌에서 흥행한다. 입장료 수입으로는 개성 노동대회와 노동공제회에 기부한다. (1921.01.11)

이번 쌀값 폭등으로 인해 품삯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10월 4일 전매국 개성출장소 홍삼제조소 직공 남녀 일동은 품삯을 올려달라고 동맹 파업하기로 의논한 결과 개성 지정 사는 김원룡(남직공)과 남산정 여직공 이용택⁽⁴²⁾ 외 4명이 주모자가 되어 선동했으나 동맹파업이 되지 못했다. 당시 주모 남녀 직공 6명은 축출을 당하고 일반 직공은 여전히 일을 한다. (1921.10.08)

개성역 구내에 있는 운송업조합사무소 안에서는 9월 15일 40여 명의 노동하는 자들이 회집하여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어 회칙, 기타 결의사항 외 위원을 선거한 후 산회했다. (1925.09.19)

5월 16일 개성 도립의원 신축공사에 종사하던 인부 약 30명이 노동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폭동을 일으켜 손에 호미와 몽둥이를 들고 건축 중이던 병원을 파괴했다. 원인은 공사 청부업자 중촌대길이 공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927.05.18)

개성군 송도면 남산정에 있는 개성고무주식회사는 60여 명의 여공으로 고무신을 만드는데, 6월 8일부터 임금문제로 동맹파업을 개시했다. 원인은 어른 신발 한 켤레 만드는데 샅전 4전과 아이 신발 한 켤레 샅전 3전이 적으니 다 올려달라는 것이다. 회사측과 직공측의 태도가 강경하다. (1927.06.13)

21) 동맹휴학

개성군 공립 상업학교 생도 일동이 동맹 휴교했다. (1919.11.20)

개성군 공립상업학교 생도 일동은 12월 1일부터 등교하고, 사립 송도고등보통학교 생도 일동은 12월 1일부터 개학한다. (1919.12.02)

개성학당 생도 2년생 약 50명이 지난 13일 아침에 일동이 책을 가지지 않고 등교 수업을 받지 않으며, 동맹휴교를 했다. 그 원인은 일본인 교사에 대한 불신임에서 생긴 듯 하고, 현재 교장은 학교에 부재중인 상황이라 한다. (1920.05.22)

개성 호수돈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지난 29일에 교사의 권고로 다시 등교하게 되었다. 친스레 교장은 모든 생도를 한 방에 모아 하나님께 맹세하고 사죄하라고 하자 생도들은 더욱 분개하여 듣지 않았다. 3학년 생도 이봉근, 고희오는 무기정학, 김희수, 김의재는 2주 정학을 당했다. (1920.07.04)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 생도들은 6월 9일부터 동맹휴교를 했다. 이 학교는 남 감리교 파에 속하는 종교학교로 얼마 전부터 선교사와 교사 배척운동을 해왔다. (1923.06.10)

개성학당 생도들이 교사 배척운동을 개시하여 11월 7일부터 동맹휴교를 계속 중이다. 학교 당국은 직원회를 열고 주모자 5명은 퇴학을 시키고, 나머지는 1개월간 휴학을 명령하여 그 후로도 계속한다 하면 전부 퇴학시킨다고 강경한 태도이다. (1923.11.15)

개성 송도 고등보통학교 4학년생들이 27일 영어교사 환목, 일어교사 고송을 갈아달라는 등 몇 가지 조목의 진정서를 교장에게 제출해 교장은 문제 해결 때까지 임시휴학을 명했다. 이튿날 3학년생들에게서도 조집이 있어 임시휴학을 명했고, 교장은 학생 요구 조건을 절대 불응한다 하여 학생들이 강경한 태도로 대항해 학교에서 3,4학년 학생 일동에게 무기정학을 명했다. (1924.05.30)

개성 송도 고등보통학교 3,4학년생도 동맹휴학 사건에 대해 학교 당국에서는 무기정학을 명했으나 3,4학년생도들은 퇴학원서를 제출했으며 5학년생들도 뒤이어 진정서를 제출해 5월 30일부터 하기 휴학을 명령하고 휴업식을 거행했다. 학부형 후원회 일동은 정기 총회 현장에서 교섭 위원 10명을 선정해 학교 당국과 생도 양방의 완화책을 강구하는 중인데 곧 해결될 듯하다. (1924.06.02)

송도 고등보통학교장 윤치호는 맹휴사건에 대해 학부형에게 학생 측의 요구 이유가 부족하고 휴학생의 태도가 불온당, 학생 본분을 망각했으므로 등교하겠다는 시말서를 제출하면 복교를 허락하고 주모자, 선동자는 퇴학을 명하고 8월 10일 개학은 기후관계로 9월 1일로 연기했다는 통지를 부기했다. (1924.07.26)

동맹휴학으로 분규를 거듭하는 송도 고등보통학교 1,2,5학년은 1일 개학일에 전부 등교했으나 3,4학년생은 한 명도 등교하지 않았다. (1924.09.03)

동맹휴학했던 송도 고등보통학교는 날마다 출석하는 학생이 늘어나 지금 거의 등교했다. 학교는 7월 25일 전에 시말서를 제출한 학생은 즉시 허가하고, 그 이후에 제출한 학생은 직원회 결의 후 등교 통지서를 보냈는데 될 수 있으면 전부 등교를 허락할 것이다. (1924.09.10)

지난 15일부터 개성학당 상업학교 생도 1동은 진정서와 탄원서 2통을 학교당국에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실시했다. 16일에 이르러 학교당국에서는 하기휴학을 고시하자, 생도 일동은 또다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제출한 진정서는 교장대리의 무자격과 학생에 대한 압박에 사직을 권하는 내용이다. (1926.06.19)

개성여자상업학교에서도 동맹휴학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상업학교라는 이름으로 생도들을 모집해놓고선 지금 와서 강습소라고만 해서 학생들이 크게 분개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일에 몇몇 조항을 요구하고, 30일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성학당상업학교도 동맹휴학이 발생했는데, 이 두 학교의 교장대리 추본등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독으로 답변할 수 없어 일본에 있는 교장과 상의하여 답변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추본등길은 일본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생도들에게 답변을 주지 않은 채로 30일이 지났다. 그 후 7월 2일에 이르러 교무주임 봉춘원삼랑을 시켜 '이 학교가 개성학당상업학교부속 강습소나 다름이 없는 학교이니, 너희의 요구는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으며, 동맹휴학자는 임의 퇴학 시키겠다'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이에 생도 일동은 크게 분개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겠다고 결의했다. (1926.07.09)

11월 5일 오후 2시경에 개성송도고등보통학교에서 선생과 학생사이에 일대 격투가 일어났다. 송고에서는 금년 봄에 발생했던 동맹휴학 이후, 학교 당국에 대해 태도가 너무나도 강경한 5학년 학생 5~6명이, 어느 연회석에 가서 약간 술을 마셨으며, 조건과 또 경성의 어떤 사회단체에 입회하였다는 이유 하에 퇴학 명령을 단행했다. 퇴학을 당한 5~6명의 학생들은 분함을 참지 못해서 학교로 달려가서 오학년 담임 선생 정모씨를 구타하는 일편으로, 싸움을 말리는 모 선생을 또한 구타하는 일대활극을 일으켰다. 학교 당국으로서는 제지할 능력이 없어 개성경찰서의 힘을 빌려 제압하려 했으나, 퇴학을 당한 학생들은 이미 동분서주하여 도망쳤다. (1926.11.08)

개성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생도들은 교장 미국인 예길수의 배척운동을 일으켜 12월 7일 생도 측으로부터 교장에 대한 결의문을 제출하고, 기숙사생 100여 명은 기숙사에서 퇴출했다. (1927.12.11)

개성 호수돈여자학교 생도들은 12월 12일로써 전교생이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했다. (1927.12.14)

송도고보 제3학년 학생 일동이 돌연 학교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12일까지 학교 측의 회답을 요구하는 한편, 그때까지 동맹휴학을 실시한다. 진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교장 임두화씨의 배척의 건, 2) 하야河野, 임구경林九經 양 선생의 배척의 건, 3) 교원 고빙雇傭에 관한 건, 4) 유도, 격검등 훈련에 관한 건을 속히 실시하게 할 건 4)지리, 역사, 설비를 충실히 할 건(1928.06.13)

22) 민족운동

지난 8월 20일 오후 6시 40분 특별열차로 미국 의원단이 개성역을 지나갈 때, 철도 근처에서 아이들이 만세를 불렀다. 주모자 2명을 검거한 뒤 그 아이들의 부형을 불러 설유하고 내보냈다. (1920.09.01)

최근에 개성 경찰서에 붙잡힌 한건단韓健團 일파 최봉진은 자신의 조부되는 개성 부호 최학우의 집을 동료 김명복과 공모해 8월 30일 오전 10시에 이창후, 김범산등 3명과 함께 권총 2자루, 단검 2개로 무장하고 한건단 불온문서 다수를 휴대하고 침입했다. 최봉진은 군자금 일천원을 제공하라고 협박했으나,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추후로 남산공원으로 돈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러다 9월 1일에 다시 최씨를 방문해 현금 오백원을 뺏어갔는데, 최씨는 후환을 염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건단 일당은 10월달에 다시 협박문을 보냈는데, 개성 경찰서에서는 이 소문을 탐문하고 미리 경계하고 있었다. 17일에 돈을 가지고 오라는 통첩을 받은 최씨가 한건단이 정한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한건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18일 오전 10시경에 김명복이 최씨를 방문하고 현금을 가지고 나가려는 순간 개성 경찰서 형사가 들어와 체포했다. 김명복은 권총으로 저항했으나, 그 집 유리창 1개만을 깨트리고 마침내 체포되었으며, 범죄를 공모했던 이들 역시 모두 체포되었다. (1926.10.22)

지난 24일 아침에 개성 경찰서 고등계에는 인천 경찰서로부터 소관 형사부장이 인솔한 2명의 형사대가 돌연히 나타나 개성서 고등계 형사들의 응원으로 대활동을 개시하여, 개성 계몽학원장 이경룡 이하로 학원관계자 여러 명을 위시하여 시내 각처에서 오후 5시경까지에 청년 6명을 인치하여 전부 검속^{檢束}하고 엄중히 취조 중에 있다. 그 후로도 형사대는 시내 도처에 있는 관계자들을 소탕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 절대비밀로 부치고 일절 함구불언함으로서, 자세한 바는 알 수 없으나, 소식통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인치^{引致}된 청년들이 인천에 거주 중인 청년과 연락을 취하여 모종의 비밀결사를 조직한 후 모종의 운동을 암암리 기획하다가, 인천 경찰서에 그 사실이 탐지되어 개성경찰서원과 공동으로 관계자 인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28.11.27)

인천에서 검거된 개성공산당 사건은 29일 취조를 마치며 18명 중에서 1명은 석방하였고, 파주의 4명은 불구속으로 12명을 치안유지법 위반, 방화, 강도 등으로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송치했다. (1928.12.02)

개성 공산당 사건을 취조한 모 경관은 “세상에는 공산당사건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떠드나, 이번에 검거한 개성공산당 사건은 도무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기왕 법률이 제정되었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송치한 거지, 기실은 법률이 없다 하면 소리질러 내보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하는 장난을 모방한 것 입니다. 그 흉내가 컸다고 그것으로 세상에서는 떠드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모 형사가 취조를 마치고 영취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더니, 그것이 무슨 도장이냐고 함으로, 그 형사는 농담으로 너에게 10년 징역을 시키라는 것이라고 했더니, 좀 감형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상식을 가지지 못한 어린아이들 인데 문제가 무슨 문제”냐고 했다. (1928.12.05)

10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개정한 개성공산당사건 공판은 계속 개정하여 심리했다. 11명에 대해 최고 징역 7년에서 최저 1년까지 구형이 있었고 판결은 28일에 한다. (1929.10.23)

개성공산당(일명 대중적색공산당)사건 피고인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판결 선고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있었다. 김봉철·서원표는 징역 7년이고,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1년 2명이다. (1929.10.31)

23) 청년

천도교청년회의 주최로 개성에 특별 대연설회를 실시했다. (1920.07.23)

개성군 동부교육회 의법청년회 수양부 주최로 1월 20일 오후 7시부터 예배당에서 강연회가 있었다. 연사는 김창제, 제목은 '만천하 청년에게'였고, 청강자가 백여명이었다. (1921.01.24)

개성군 남면 창릉리 창릉포는 호수가 백여 호에 술집이 20여 호이다. 유지 청년 최극렬 외 4~5인의 발기로 노동금주동맹회를 음력 정월 5일 야소교 예배당에서 창립 제1회를 개최했다. 금주 목적은 '권선징악하고, 동고상조하며 지덕체육을 배양하면 노동금주동맹회가 장차 진흥할 것'이다. 회장 이영렬, 총무 최극렬이다. (1921.02.21)

개성 고려청년회에서 그 회관을 건축하기 위해 회관건축기성위원회를 조직하고 진행 중이다. (1921.12.12)

개성 소년회에서 12일 고려 여자관에서 대강연회를 열었다. 연제는 '보이스카웃', '2세기 청년기상', '이상적 부부'이다. 입장료는 10전, 휴식 시간에는 축음기주악이 있었고, 기부금이 많았다. (1924.01.16)

4일 개성 철도공원에서 고려 청년회 주최 개성 군민 육상 경기대회를 개최할 것인데 오전에 경기 13종, 오후 19종으로 비가 많이 오면 익일로 연기한다. (1924.05.03)

개성 군내 한 청년이 사회 문제를 연구, 토의하기 위해 집회 '자유회'를 1일부터 창립했다. (1924.11.04)

개성 고려청년회와 '애플'청년회에서 이재민 수백 명을 중앙 예배당에 수용해 양식 공급에 노력 중이고, 위생에 관한 선전지 수천 매를 인쇄해 배부하는 등 활동 중이다. (1927.07.30)

24) 여성

북부 괴동의 절부 김정혜는 풍조의 변천함을 깨닫고 여성 교육을 권장하기 위해 사립 정화여학교를 설립, 4년 동안 몸소 교직에서 일하며 경비를 자담한 결과, 생도가 100 여명에 달한다. (1912.05.08)

서부면 관전리 육정동 황필원(26)은 본래 장단군에서 여러 백석하는 부자로 성질이 부랑해 작첩한 후 본실 김소사와 딸(9) 귀련을 축출한 후 돌보지 않았다. 김성녀는 어렵게 살아가며 딸을 개성 공립보통학교에 입학시켰는데 공부가 일취월장해 모두 김소사를 칭송한다. (1912.07.23)

북부 개성학당장은 여자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11일부터 여자과 1부를 증설했는데 12세 이하로 일본어, 산술, 수예품을 교육하기로 지원자 다수를 희망하고 있다. (1914.05.08)

10월 5일 개최될 애국부인대회를 앞두고 개성군위원부에서 신(新) 회원을 모집 중인데, 부면장 이한흥과 주진의 근면에 따라 입회자 2백 명에 달했다. (1921.09.26)

개성 여자 교육회에서 8일 제5회 정기 총회를 고려 여자관에서 열고 임원을 다시 뽑았다. (1924.11.11)

25) 소년운동, 어린이

1일 개성군 중앙 예배당에서 소년회 주최로 소년 문제 강연회를 개최했다. (1924.05.03)

개성군 송도 점원회의 주최로 4월 30일 개성좌에서 소인극회를 개최해 만원으로 60여원의 기부금품이 있었다. 5월 1일 중앙 예배당과 북부 예배당에서 어린이를 위한 축하회를 개최했다. (1924.05.03)

개성소년회는 8월 28일 소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회칙 개정과 임원 개선(改選)이 있었다. 앞으로는 입회 자격을 7세로부터 18세까지로 제한하고, 7세, 10세 된 회원에게는 회의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선된 임원은 대표위원 박광수이다. (1925.09.03)

개성의 소년단체 연합으로 5월 1일 어린이날 행사를 거행하려 했으나 비로 연기하여 6일에 송도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소년·소녀 1천여 명이 모여 어린이날의 선전비라와 기행렬을 했다. 축하식이 끝난후 개성 시내를 일주했다. 기념촬영과 기념동화대회도 있었다. (1927.05.09)

조선소년운동의 통일과 중앙집권적 최고기관 조성을 위해 7월 30일 시천교당에서 개최하는 조선소년연합회 발기대회에 개성 대표가 참석하기 위해 상경했다. (1927.07.30)

26) 소송

개성 사는 이호근은 변호사 장도, 김사집 양 씨를 소송대리인으로 동군의 박순림, 박우현등을 고소했다. 그 이유는 이호근이 피고 박순림을 처로 삼아 30년 전부터 동거하였는데, 20년 전에 순임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 생겨 집안의 살림을 하지 못하자, 이호근은 부득이 다른 곳에 집을 구해주고 순임을 거처케 하는 동시에 그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담해 주었다. 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서 추수한 것으로 순임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쓰게 한 뒤, 편의상 추수한 것의 처리를 순임의 친정집 조카 되는 박우현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박우현은 이호근의 토지를 멋대로 처분하려 했고, 이호근이 토지 증서를 가지고 있자 말소 처분도 신청하려 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1916.05.23)

개성군 임응남은 본래 백미 13두였던 소작료를 갑자기 한말 일곱 되 더 올렸다. 소작농 유진학이 이를 내지 못하자 그가 경작하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이작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유진학이 개성지청에 임응남을 고소했는데 승소했다. (1916.07.09)

개성군 동본정 우종호는 만주일보사장 정두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월 13일 지청 판사 담임으로 심리가 열렸다. 우종호는 만주일보사에 대해 지국보증금, 전에 낸 돈 또는 손해배상금 666원 92전의 청구를 했다. 피고 정두화의 변호인은 정두화가 만주일보사 사장이 아니라고 변론했다. (1921.08.17)

개성군 송도면 합자회사 개성사 대리代理 구정曄 변호사는 11월 3일에 수백만 원 부자 백남신의 아들 백인기를 상대로 소송액 5천 원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 소송을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의 보증으로 유신혁에게 5천 원을 꾸어줬는

데, 기일 후에도 지불치 않으므로 피고 백인기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했으나 차일 피일 응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921.11.05)

1922년 11월 3일 경성우편국 소속이고 개성우편국에 주재하던 전신 기공 藤井留吉의 감독 아래 개성군 송도면 원정 선죽교 공원 옆에 전신선 증설공사가 있었다. 하루 90전의 계약으로 왕인봉(21세)이 감독자의 명령대로 개성전기주식회사가 가설한 고압전선을 넘어서 전화선을 가설할 때 등정은 전화 나동선 裸銅線 끝에 숙마줄을 매어서 그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 매고 왕인봉은 숙마줄의 부분을 넘었는데, 전화 라동선이 고압선에 저촉되어 왕인봉은 전격電擊에 의해 즉사했다. 개성군 청교면 덕암에 사는 왕인봉의 처 文孀氏와 왕인봉의 부모는 나라(國)를 피고로, 그 대표자인 조선총독, 체신국장(포원구사령), 등정유길을 걸어서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경성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3인에 대해 합계 6천 원을 지불하며 또 판결이 나올 때까지 1년 5분의 이자까지 지불케 해 달라는데, 제1회 변론은 2월 2일이다. (1923.01.26)

개성 감전사망사고 사건에 대해 4월 6일에 쌍방에서 시담示談이 있는 결과 원고로부터 소송을 취하였다. 그 조건은 1. 피고 등으로부터 위자금으로 1,150원을 곧 원고에게 지불할 것, 2. 원고와 그 가족은 이 건에 대해 일체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1923.04.11)

개성 서면 연산리 민풍호는 주공삼이 경영하는 벽란 나룻배 소출에서 매달 25원씩 사립광신학교에 기부해 경비에 보태쓰게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올해 3월분까지만 지출했으므로 이후 20년의 6천 원을 25일마다 분배 지불하게 해달라고 기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24.07.30)

27) 신년행사

군청의 발기로 군청 일동, 13면 면장, 학무위원, 군참사, 축산조합 일동, 총계 40여 명이 신년 축하 겸 간친회를 10일 북부 송남관에서 개최했다. (1914.01.13)

개성군 송도면 면역소에서 신년을 축하하기 위해 관민 일동으로 명함 교환회를 조직했다. 1월 1일 오전 10시에 공립심상소학교 안에서 거행한다. (1915.12.28)

소학교에서 오전 8시부터 생도들을 인솔하여 개성 신사에서 참배했고, 오전 10시부터는 교내에서 관민 다수의 참석 하에 참배가 있었다. 신년축하 명함교환회 300명이 양폐하의 만세를 삼창하고 군인회 40여 명은 분대장의 훈시를 들었다. (1918.01.03)

개성군 송도면에서 1월 1일 공립심상고등소학교에서 명함교환회를 개최했다. 각 관청 회사 단체 조일인 신청자가 230명이다. (1921.01.03)

개성군에서 1월 1일 오전 공립심상고등소학교에서 신년축하회를 거행했다. 교장의 칙어勅諭 봉독, 학생의 기미가요 순서에 따라 참배를 한 후 종료했다. (1921.01.05)

4일 오후 야명루에서 일반 관민의 합동 신년 연회를 개최했다. (1924.01.08)

28) 식목행사

개성보승회는 각 명승지 통행 도로와 기타 도로변에 미국 버들 만 주 가량 재배할 예정이다. (1913.03.02)

개성보승회에서 시가 미관을 위해 남대문으로부터 선죽교에 이르는 9정町과 남대문으로부터 만월대의 19정町 사이에 벚나무 220본, 버드나무 150본을 식재했다. (1913.04.25)

개성군 송도면에서는 3일 기념식수로 대신궁 터 부근에 력欒 1,500주를 심었다. 각 관공서 중요 관리, 각 학교 직원 생도, 송도면사무소 임원, 대신궁 건축위원 관계자 일동 및 유지 등 2천여 명이 참가했다. (1917.04.05)

개성 제이공립보통학교에서는 4월 9일 기념식수하기 위해 훈도 인솔 하에 3~4학년 생도 80여명은 영남면 능리 산록에 가서 식수했다. (1919.04.13)

개성 제2공립보통학교에서는 4월 3일 오전 10시 교장 이하 직원 일동이 우등 생도 약간을 인솔하고 기념식수장 1만 8천평되는 송악산 동쪽 등성이를 시찰하고 송림을 점검한 후 오후 6시 귀교했다. (1923.04.08)

매년 4월 3일에 애립사상을 함양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봄은 동궁전하의 어성혼 기념으로 개성군 삼림보호조합 주최로 각 관공서, 학교, 은행, 조합 내선유지자를 망라해 개성 신사 경내를 선정해 기념식수를 거행하고 야유회가 있다. 회비는 1인 50전이다. (1924.03.31)

29) 기자단

개성군수小口忠市가 지난 8일 당지 각 신문기자를 야명루로 초대해 지방발전에 대해 동일한 취지를 선전하기로 했다. (1924.01.12)

개성 북본정 동아일보 지국에서 6월 18일 개성에 있는 한글 신문, 잡지에 재직한 기자를 망라하여 기자단 발기총회를 진행했다. (1925.06.23)

개성기자단에서는 7월 19일 북본정 기자단 사무소에서 월례회를 열고 여러 사항을 결의하고, 사무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1925.07.26)

30) 미신

경찰서에서 무녀들이 부녀를 유인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한다며 전재를 취하는 폐습이 치성해 지난 달 일반무녀를 소집해 기도용 기구를 몰소하고 실업에 종사하게 했다. (1912.01.06)

경찰서에서 작년 무당과 판수 등이 요술을 일병 소제했는데, 일전에 판수 2명이 흑세 무민하는 술법을 설행하다 발견되어 경찰서로 피착했는데 심사 결과 각 불기 다섯 대씩 때려 방송했다. (1912.08.15)

남부면 매조정리 새염주골에서 수일 전 동리 세 집에서 일시에 불이 나서, 3,4일전부터 4,5명이 발기해 돌아다니며 치성하겠다고 60전, 50전 내지 10전까지 걷어 음력으로 본월 23일에 치성한다고 했다. (1912.12.22)

개성 사부 관전리 한천동 이춘식의 친모 김성녀는 경찰서의 엄금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고 굿을 해준다고 주변을 매혹하여 돈을 받고 게, 밤 두말 등을 얻어먹은 일이 발각되어 15일 구류 당했다. (1914.01.20)

개성군의 오폭기는 55세된 무당인데, 4월 25일 오후 10시 30분경에 여러가지 과실과 떡을 놓고 굿을 하던 중, 순사에게 발각되어 즉결처분으로 벌금 15원에 처했다. (1920.05.04)

31) 관혼상제

남부면 광북리 관동 김창묵은 염지원(풍덕군 중면 광덕리) 셋째 딸과 1910년 9월에 결혼, 동거하는 중 김거제(삭녕군 북면 반상리 금간동) 장녀에게 또 장가 들고 신고하지 않아 민적 위반으로 벌금 2원에 처했다. (1912.05.31)

북부 예빈리 서곡의 박중현이 죽었는데, 경성에 있는 친구들이 정을 표하고자 동대문 밖 영도사에서 추도회를 설행할 것인데, 경성 및 개성의 동정을 표하려는 자들이 다수 참여를 희망한다고 한다. (1912.06.08)

동부면 개곡 전비서승 김려황의 장례는 23일인데, 각 관청 관리는 야다리까지 호상했는데 군수 박우형은 산상까지 이르렀고 일반 상민의 호상자가 수백명, 관광객은 남대문부터 야다리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912.09.26)

이전부터 인산 때이면 개성 인민 중 50명의 여사꾼을 뽑아서 인산 당일에 대여大輿 앞을 끄는 일이 전례였는데, 이번 인산 당일에도 개성 인민들이 대여를 끌기 위해 2월 11일 대표자 2명이 이왕직 장제계에 신청했다. 이왕직에서는 이번 인산의 여사꾼은 전부 민간에서 담당하기로 결정되었으니 경성상민봉도단에 가서 의논해보라고 돌려보냈다. (1919.02.13)

개성 상민으로 조직된 여사꾼 일동은 2월 16일 이튿날 아침부터 의식을 연습했다. (1919.02.18)

월남 이상재의 사회장이 거행된다는 소식에 각 지방에서 참가 지원이 늘어간다. 개성에서는 조선현무회와 청년회 체육반으로 경호대를 조직하여 김홍식의 인솔로 10여명이 참가한다. (1927.04.06)

32) 소방

북부면 이정리 홍문동 전소사 집에서 10일 유년 여아가 밥을 짓다가 불이나 소방대의 구호로 다행히 이웃집에는 연소하지 않았다. (1912.09.13)

개성경찰서장은 3월 5일 소방조 본년도 예산을 협의하여 위생비 합계 1,500원, 임시비는 775원으로 정했다. 임시비로는 운송거차 1좌, 물담는곳水溜 4~5개소를 신설하며 겨울동안에는 상비 소방 5인 설치했는데, 일본인 3명, 조선인 2명이다. (1913.03.08)

개성군 경찰서에서는 소방대 기계와 조부組夫를 13일 선죽교에 회동하고 서원署員 일동이 출장 훈련했다. (1915.08.17)

개성소방조에서는 1월 4일 오전에 소방수 및 급수부汲水夫 일동이 경찰서 구내에서 집합하여 출초식을 거행했다. 서장이 소방수와 급수부의 복장, 기구의 검열, 점검, 훈시를 하고 해산했다. (1921.01.07)

4일 개성군 소방조에서 연례에 의해 대화정 주천교 통광장에서 출초식을 거행했다. (1924.01.08)

개성 소방조는 10월 30일 추계 연습을 시행해 기계 검열, 실지 연습 등을 행하고 11일 철도 공원에 일반 내빈을 초대해 오찬과 소방조원의 운동경기 후 11일 폐회했다. (1924.11.07)

33) 시찰

수원농림학교 강습생 75명이 개성을 시찰하기 위해 13일에 도착했다. (1914.08.15)

개성군 문묘 재산으로 군청에서 조직된 일본 시찰단은 4월 18일 출발하여 3주간 예정으로 출발했다. (1921.04.22)

개성군 유림으로 구성된 시찰단 일행은 4월 18일 출발하였다가 5월 9일 도착했다. 역구내에는 각 관공서 유림 사회단체 6백여 명이 출왕 영접했다. 12시부터 신평관에서 환영회가 열렸다. (1921.05.12)

34) 수산장

개성 동부에 개성, 장단, 파주, 교하 4군 연합 수산장^{授産場}이 설치되었는데, 양반 유생의 자제 36명을 대상으로 양잠 양계의 수업을 개시했다. (1911.05.23)

개성군에서 은사수산장 중 작잠^{柞蠶} 사양림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장단군 경내 적당한 처소 유무^{有無}를 시찰할 서기 1명을 출장시키기 위해 경기도청에 인허 청원했다. (1911.05.26)

은사기념수산장에서 대자리, 가마니 제조기계 30대를 구입하고 일본인 20명, 조선인 1명의 교사가 연습생 14명에게 지난 11~17일까지 1주간 제조방법을 연습시켰고 기계는 연습생에게 대여한다. (1912.01.27)

35) 축산

개성축산조합에서 계종^{鷄種}을 개량하기 위해 구입하였는데 종계는 이미 산란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조합원에게는 무료로 배부하고, 비조합원에게는 10개 50전에 배부한다. (1913.07.03)

개성 축산조합은 목초를 재배하고 올해부터 그 종자를 배부해 각자 정원 또는 밭 독 등에 파종했다. (1914.05.01)

36) 친목회

개성학당에서 같은 교우로서 경향 각 관청에 재근하는 관리, 외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각자 지역 물정상황, 근무여부를 우편으로 상호 통신해 돈목의 뜻을 표하게 하는 교우회 규칙을 제정했다. (1910.10.25)

개성군 출신 재경학생在京學生 일동은 하기휴업을 이용해 개성 친목회를 조직했다. 친목회의 목적은 돈후^{敦厚}의 목적과 덕체지^{德體智}를 키우는 것이며, 당국의 허가를 받아 경성사립보통학교에 친목회 본부를 세웠다. (1916.08.06)

재경 개성학생친목회에서는 7월 25일 시내 중앙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여러 사항을 결의하고, 임원 개선^{改選}이 있었는데, 신임 외장은 왕창업이다. (1925.08.01)

37) 관리

개성군 남교 거주 김용성의 장남 김기선은 3월 31일로써 동경부 남다마군 서기에 임명되었다. 이는 조선인 최초이다. (1915.04.14)

38) 금융

한호농공은행에서 20일부터 2일간 은행누상에서 은행지점 출장소장(춘천, 강원, 개성, 공주, 충주, 대전, 논산, 청주) 회의를 개최했다. (1914.01.19)

39) 단체

개성의 사상, 사업단체수는 대략 16단체이다. (1925.09.02)

개성 시내 사상단체 중 자유회, 송도청년당, 형평분사 3단체는 9월 11일 자유회관에 20여 명이 모여 간친회를 열었다. (1925.09.15)

40) 대서인

개성군 대서업자 중 이번 사법대서에 입격한 자는 조선인 중 8인이다. (1925.05.13)

41) 보험

경성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찬조원 이원홍이 월 전에 도착해 각 관청과 사회, 상민, 시민에게 돌아다니며 권고한 결과 입참자가 수십 명이다. (1912.09.25)

42) 세금

위생 조합소에서는 도로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 고을 내에 땔나무 파는 장을 설립하고 나무, 짐, 숯장사들에게 매일 시장세를 받아 위생회 경비에 보용하기로 했는데, 세금은 마차에 3전, 쇠바리에 1전 5리, 한 집에 1전씩 수렴하기로 정했다. (1912.04.18)

풍덕군에서 1913년도 지세를 지난 12월 10일 개시, 22일에 전부 완납되었다. 북면의 회계원 박승권, 서기 민태일이 세금징수를 불과 10일에 양호한 성적을 이룸, 군청에서 1등 성적의 표창을 주었다. (1914.01.11)

43) 수도

개성군에서는 공중위생 등을 위해 1928년도부터 3개년 계속사업 총공사비 50만원 중 16만 8천 원, 3개년 상환(연리 8푼 5리)으로 식산은행에서 차입하기로 하여 내년 봄부터 기공하게 된다. 조선에서 군채(郡債)를 발행하는 효시이다. (1927.08.03)

44) 어업

개성군 임한면 정곶리 김홍제(28)는 게 80마리를 잡아다가 9월 9일 장단시장에서 팔려다가 경관에게 발견되어 과료 5원의 즉결 처분을 받았다. (1927.09.16)

45) 에스페란토

개성 고려청년회관 내에서 제1회 세계공통어강습회를 개최한다. 11월 1일부터 16일까지이고, 여자부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남자부는 8시부터 10시까지 회비는 2원이다. 11월 5일부터 16일까지는 일반학생을 위해 제2회 강습회를 같은 회관 내에서 같은 시간에 열고 특히 회비는 1원이다. (1923.11.08)

46) 역둔토

군청에서 역둔토 소작료 개정 취지를 설유하기 위해 11일 군청에서 송도면, 동면, 청교면, 영남면, 영북면, 진봉면, 12일 서면 사무소에서 서면, 북면, 남면, 13일 원 풍덕읍내에서 대성면, 상도면, 광덕면, 14일 임한면 사무소에서 임한면, 홍산면, 중면이다. (1914.04.10)

47) 재조일본인

개성재향군인분회의 춘계총회 및 분회창립 10주년 기념축전이 5월 1일 철도공원에

서 열렸다. 지부장은 회원 일동에 대해 군비에 관한 강화를 약 2시간 동안 했다. 이후 운동회는 수비대, 시내 각 공사립학교 생도의 경기가 있었다. (1921.05.06)

3. 고양

1) 인구, 이산

고양군 지도면 행주외리, 강매리 한강하류 일대 주민들이 매년 봄이면 수천여 원 어치의 북어와 잉어를 잡아 그걸로 생활했으나 금년에는 일기^{天氣} 관계로 고기가 조금도 잡히지 않아 먹고살 도리가 없으므로 남부여대^{男婦女戴}하여 각처로 흩어졌다. 그 어촌일대를 제외한 그 면내 농민들도 3,4년을 계속해서 수해가 있어서 춘궁을 당해 역시 남부여대로 떠나는 사람이 날로 많아진다. (1927.05.11)

2) 지주, 토지

고양군의 농사장려지회가 총회를 여는데, 사업결산보고와 사업간 협의 등을 위한 자리다. (1918.04.13)

고양군에서는 1월 27일 명월관에서 대지주 간화회(20정보 이상 소유 지주)를 개최했다. 출석 지주는 동척을 비롯해 40~50인이다. 기타 총독부 농무 관계 직원과 경기도 참여관이 열석하고, 고양군수가 설명하고, 협의사항으로는 마름의 폐습 개선과 소작인 품평회를 군면 또는 리에 적당한 방법으로 개최한다는 것이다. (1923.01.28)

고양지방에는 조금 부유한 사람의 집 전답 문권^{文券}을 훔쳐 가서 아무 장소로 돈 몇백 원을 가져오면 문권을 돌려주겠다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1911.01.17)

소유토지 증명 신청 소입비는 50전인데, 고양군 등지에서 토지소유권 증명할 때 군서기들이 농락해 5,6원을 받은 후에야 증명서를 출급해주어 민원이 낭자하다. (1910.10.13)

고양군 지주간화회에서 송중헌, 김기택, 이병기 등이 소작인에 대해 발언했다.
(1923.01.29)

3) 농업

고양군 원당면 거주 박이병은 1904~1907년 熊本縣에서 농사를 연구하고 귀향 후, 이
번에 주교리 주민과 함께 농사개량조합을 설립하고, 경성 중부 전동 민범식의 소유 밭
3정보를 차입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소채 등을 심게 하고, 지금은 이를 모범농장으
로 하기로 했다. (1913.05.07)

도청에서 고양군청에 유상배부한 과수는 배나무 1,650본, 채소와 과일 150본, 새우
나무(西木) 630본이다. (1914.04.01)

농사개량 실행회를 조직, 각 면에 지부 설치해 개량종, 보급, 주요 작물 선종, 묘 개량,
충해와 참새의 구제 등 농산물 증식을 도모하고, 위범자 제재 등도 규정해 엄중히 실행
할 것이다. (1914.04.30)

고양에서 농산품평회수상식이 열려 300여 명이 참관하였다. (1914.11.25)

4) 공업

고양군은 누룩 제조에 가장 적합하여 年年 산액은 약 1만 2천석, 가격 30만 원에 달
한다. 그러나 원료로 불량한 만주 소맥 등을 사용하는 까닭에 그 품질은 매년 저하
하여 주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27년 6월에 국자조합을 설
립하여 조합원 수는 32인에 달한다. 생산검사를 엄격히 하고 가격을 저렴하게 협정한
까닭에 종래 판로가 경기도 일부에 국한되던 것이 이제는 다른 도에서도 주문이 답지
한다. 지난 4월 경기도 국자 품평회에서는 고양 국자가 1, 2등의 대부분을 점했다. 조
합에서는 가을 박람회 출품할 예정으로 우량 조합원으로 하여금 우량품을 제조하
게 하고 있다. (1929.05.26)

5) 상업

고양군 신혈면장이 구파발리에 새 시장을 설립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여 경기도청에 청원했는데, 도청에서 농상공부와 협의하고 1월 26일에 설립 인가장을 발송했다. (1911.01.27)

고양경찰서에서는 부정 도량형기를 사용한 자를 검거하여 모두 즉결처분했다. 용강면 혈맥리 잡화상 최종묵(24), 용강면 토정리 포목상 최종완(37), 혈맥리 전당국 변성진(60)이 발각되었다. (1915.08.19)

8월 1일부터 경성부내 쌀가게에서 미터법(킬로그램)을 사용했다. 경성부 권업계에서 인접군인 고양군에 교섭하여 고양군에서도 백미 매매에 킬로그램을 사용하기로 했다. (1927.08.06)

6) 부업

고양군에서 고공조합을 조직하고, 새끼줄, 자리, 기타를 제조하기로 결정하고, 경기도청에 보조를 청원했다. (1911.09.23)

고양군 각 면리장의 지도로 고공조합을 설립했는데, 그 확장을 위해 도청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1911.10.24)

고양군 원당면 주교리 박순병 집에서 도급 전습소를 설치하고 10월 29일부터 각 면 대표로 농민 20명을 선정하여 전습을 개시했다. 1명에 대해 기계 1대씩을 대여 실습케 하고 시간은 매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군수와 헌병분견소장이 출장하여 사무 단속했다. (1911.11.03)

하도면에서 송병준이 잠업을 열어 난지도에 일본식의 가옥 2동을 지어 군마현에서 전문 종사자 십수명을 고용하였다는데 결과가 양호하면 부근 소유 땅 126만 평을 개간해 뽕나무 밭을 지을 것이라 한다. (1912.04.09)

고양군청에서는 잠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잠조합을 설립하고, 4월 3일 군청 내 광장에서 관하 각 면장 이장 및 유지를 모아 뽕나무 약 5백 본을 심었다. (1917.04.05)

7) 식림, 식목

고양군 사리대면 대자리 유생(정의현)은 십수년래 식림에 주의하여 묘목 3천 본을 양성하여 5반보의 제방에 심었다. (1913.04.06)

고양군에서는 조림을 장려하기 위하여 3월 군내 각면에 식목계를 조직케 하였는데, 3월 이래 5월까지 식재한 묘목은 13만 2,084본에 달하고, 식부^{樹付} 면적은 43,490평이며 묘목은 백양, 산●, 적송, 포플라이다. (1913.05.31)

동척회사 경성지점에서 3일부터 고양 신도면에 소나무, 상수리나무를 각각 8,500본씩 식부를 시작했다. (1924.04.06)

8) 소작

조선의 동양척식회사의 업무에 대해 각종 비난의 소리가 있다. 최근 고양군 송포면민은 동척회사에 대해 강경히 담판을 한다는데, 원래 동척은 권업 및 토지 개척 장려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그 내용이 일반 영리회사와는 거의 다를 것이 없고 도리어 더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 조선인 소작인은 물론이고 일본 이주민이라도 회사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근래 흉작으로 당연히 소작료 면세를 기대하였는데, 동척은 소작료를 억지로 받으며 납부하지 않는 자는 그 소작권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이에 농민 100여 명이 동척과 협상에 나섰다. 동척은 만주에서 두박^{豆粕}을 보통 2원 4~50전에 사들이면서, 조선에서는 5원 70전에 강제로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모든 물건과 곡식 값이 폭락했기 때문에 올 가을 수확으로는 비싼 비료값을 내지 못하겠기에, 가격을 내려달라고 동척과 교섭 중이다. (1920.06.25)

조선소작인상조회 고양지회는 3월 3일 고양군 원당면 주교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출석자는 천여 명에 달했다. 회장 정태후와 경성본부 이사 이창환이 연설했다. 4개 사항을 결의했다. (1923.03.14)

9) 교육

고양군 공립보통학교 경비는 기본금 이자로 충용하는데, 기본금 차용한 사람 중 몇몇

이 차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부금으로 생긴 이자라며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1914.06.20)

최국현, 이병철은 일산공립보통학교 학부형 대표로 10월 11일 고양군수 심방尋訪, 12일 도지사와 내무부장에게 진정했다. 학급 연장에 대한 것이다. 현재 4학년 4학급으로 생도수 330명이다. (1927.10.13)

10) 교화

고양군에서는 군수, 군주사, 헌병분견소장 등이 매일 순회 강화회講話會를 행하기를 정하고 이미 2회 실행했다. (1911.02.14)

견학단원이 단발하는 등 고양군에서는 4월 중에 단발한 자가 7백여 명에 달했다. (1911.05.19)

고양군 사포면장(경훈중)은 유지 등 170명으로써 견학단을 조직하여 4월 13일부터 4일간 경성을 견학했다. (1911.05.19)

고양에서 단발하기 위해 헌병분견소와 출장소에서 단발기를 빌려가는 자가 갈수록 증가했다. (1911.06.25)

경기도 고양군 김기택이 2월 2일에 북한산 리민들에게 백미 다섯 되씩 14호에 돌아다니며 기부했다(1916.02.10)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구한 사람들에게 금 삼원씩의 표창이 내려졌다. (1922.12.28)

3월 3일 고양군 원당면 주교리에서 소작인 상조회 총회를 개최했다. 정태후는 소비절약과 저축심 향상, 교육 급무 취지를 선전한 후 '소비절약 단연저금 선전문'과 '단연저금규약문'을 1천여 군중에 일일 배포했다. 면리를 단위로 단연회를 조직하고 흡연소모액을 매호 40전씩 매월 저축하여 교육비에 충용充用케 했다. (1923.03.12)

11) 선전

고양군 하도면 삼송리 이장 김종국(53세)은 총독부의 신정新政 방침을 요해了解하고 솔선하므로 군청에서 모범이장으로 표창하려 했다. (1911.01.20)

고양군수 서상면은 동척 일본 시찰단에 참가해 대정 박람회에 출품된 최신식 도급기 1대를 무역해 군청에 비치했다. 누구든지 와서 보면 직원이 간독히 설명해준다고 선전했다. (1914.06.16)

고양협찬회에서 고양군 명승고적을 각지에 소개하기 위해 고양안내라는 책자를 인쇄하여 경기도청으로 1,500부를 보내 각처 배부를 의뢰했다. (1915.09.05)

12) 동원

고양, 양주, 적성 등 지방은 작년 이래로 인심이 좋지 않더니 병합의 결과로 고양 일대 인민은 가가호호 일장기를 높게 걸고 명륜 학교 직원 이하 일반 학도가 모여 천장절 봉축식을 행했다. 군수 최항양은 천장절의 유래와 조선민족이 천황폐하의 은택에 곡했고, 지방 위원 경훈중(원래 동지에서 배일의 수창자로 지목하던자)은 축사를 낭독했다. (1910.11.08)

고양군 헌병분견소에서 1월 30일 효명孝明천황 제일祭日에 관내 일반 인민이 국기를 게양하여 경의를 표했다고 경성헌병 제2분대로 보고했다. (1911.02.05)

고양군 읍내리로부터 파주군에 통하는 도로를 확장 개축하기로 결정하여 10월 13일부터 착수 기공하였는데, 신혈면 인민 3백여명을 사역하는 중이다. (1911.10.19)

고양에서 고양 관민이 학교에 모여 전승축하회를 열었다. 관민 500~600명이 모여 축사를 읽고 노래를 불렀다. (1914.11.12)

고양군청에서는 작년 이래로 원산가도와 가오리가도를 부역에 맡겨 1등 도로로 완성했다. (1915.04.29)

13) 지방제도, 지방사무

고양군에서는 1월 18일에 제1회 면장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헌병분견소장 등이 참석했다. 조선의 면장회의는 이것이 효시이다. (1911.01.21)

부군폐합의 실시기에 임박해 종래 경성부청에서 관리하던 수개 면이 고양군청으로 부속되었다. (1914.02.25)

고양군청이 서대문 밖으로 이전된 후 새로 붙은 면리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 지난 10일 군청 직원, 각 면리장 이하 70여 명이 명월관에서 간친회를 설행했다. (1914.06.11)

고양군청에서 관내면리원 표창식을 거행해 상장과 상품을 수여했다. 내빈은 용산헌병소장, 군참사, 면리장, 직원, 학교위원, 기타유지자 수십 명이였다. (1914.07.07)

14) 통제

고양군의 박흥진, 김수영등의 집에서 총기류, 화약, 산탄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1910.11.25)

고양군 사리대면 벽제 사는 이황운이 집에다 화승총을 숨겨둔 것을 군 헌병분견소에서 압수하고 조사중이었다. (1911.03.01)

고양군 구파발리 주재 헌병분견소 상등병 1명과 보조원 2명이 원당면 원흥리 사는 김수업 집에 출장하여 화승총 1정을 압수했다. (1911.03.07)

고양군 구파발리 헌병분견소 헌병 1명과 보조원 1명이 구지도면 토당리 유진현 집에서 화승총을 압수했다. (1911.03.16)

구파발리 헌병분견소에서 관내 민가에서 황승총과 군도^{軍徒} 무기를 다수 압수했다. (1911.04.01)

고양군 헌병분견소에서 4월 2일 관내 지역에서 무기를 압수했다. (1911.04.05)

고양군 구파발리 헌병분견소에서 도난, 기타 화재,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시원소를 설치했다. (1911.06.02)

고양군 구파발리 헌병분견소에서 하도면 화전리 등지에서 중국총을 압수했다. (1911.06.03)

각 경찰서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불량자를 징계해왔는데, 이번에 고양에 특히 많다는 소문이 있어 형사들이 대활동을 개시하였다. (1914.12.17)

고양군의 이종원과 김장근 두 명이 국유림에서 몰래 벌목을 하다가 발각되었다. (1916.03.12)

고양군 조장산이 16일 고양군 석산리 민유산에 들어가 버들나무 한 지게 1원 30원 어치를 베었다. 그 후 남대문에 들어오다가 순사에 잡혀 경찰소에서 취조당했다. (1916.04.19)

고양군 이흥근과 최태운 2명이 경찰관현의 허가도 받지 않고 김입분의 개 한마리를 70전에 사서 임의로 도살한 사실이 발각되어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1916.06.07)

고양군수 민원식은 매일신보 3월 11일자부터 19일자까지 9차에 걸쳐 기고문을 게재했다. (1919.03.11)

고양군수 민원식은 4월 9일부터 16일까지 8회에 걸쳐 다시 '소요의 원인과 광구匪敎예안'이란 제목의 글을 매일신보에 연재했다. (1919.04.07)

경찰관제가 변경된 뒤 새로 설치된 고양경찰서는 그간 경성헌병분대가 취급하던 경찰 사무를 보게 되었다. (1919.09.26)

경기도지사는 고시 제69호로써 고양경찰서 소재지에 있는 헌병분대에 재근하는 직원의 경찰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함은 9월 24일 한때으로 할 취지를 발포했다. (1919.09.26)

고양군 벽제면 관산리 허금(50)은 9월 17일 경에 주조허가 없이 자기 집에서 탁주 1동이 가량을 밀조하다가 서대문경찰서 벽제주재소원에게 발각되어 벌금 20원의 즉결처분을 받았다. (1925.09.20)

15) 재해

고양군 헌병분견소 관내에 흑색 송충이가 발생하여 군청과 교섭하고 각 면장을 지휘하여 송충이 구제를 장려했다. (1911.05.28)

고양군에 6월 21일 오후 5시 30분에 폭우가 50분간 쏟아졌다. (1911.06.24)

고양군 하도면 동●리 부근에 9월 3일 오후 3시경부터 약 30분간 우박이 내려 야채류의 피해가 약 200원 내외이다. (1913.09.12)

고양군 신도면 북한산 아래 한 촌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여 17명의 촌민이 바위 아래에 죽고, 15호의 집이 물에 쓸려갔다. 이에 대해 송인면 청수동 김기택이 백미 6두 5승을 기증하고, 황금정 1정목 이민경의 장남 이우창은 돈 60원을 고양군 서기에게 주었다. 현재 구조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36명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7월 27일 50여원의 구조품을 사서 나눠주었는데, 한 10일정도 지낼 수 있다. 독립문에서 구파발까지의 도로는 비에 전멸된 모양이다. (1915.08.01)

고양군 송려면 대화리 김지삼의 소가 탄저에 걸려 12월 1일 죽었으므로 고양경찰서에 서는 동리 전부에 대해 대소독과 검진을 하고, 교통을 엄중 경계 중이다. (1919.12.07)

흘러넘친 강물이 전답 약 130정보 가량을 침수시켰다. 경관들을 다수 파견하여 방수 경계를 하는 중인데, 저번보다 홍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22.07.30)

이번 홍수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선로는 다시 쏟아지는 비에 복구하던 곳이 파괴되기도 하였다. 또한 고양군 경의선의 금촌역 부근의 선로가 파괴되어 회복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 (1922.08.03)

근래 가뭄이 심해 모내기 한 것이 겨우 2할 내외, 채소 같은 것은 발육이 불량한 상태

이다. 고양군수(오태환)는 6월 27일 관내 12면 백성을 원당면 신사리에 소집하고 기우제를 거행했다. (1923.06.28)

고양군에서 동경 진재구제를 위해 군내 관민 유지가 협의하여 동정금을 모집하기로 했다. 우선 3명이 250원을 냈다. (1923.09.16)

일산은 침수 가옥 25호, 침수 밭 100정보, 논 450정보에 달하고 교량 유실이 많다. (1924.07.27)

고양군 가뭄으로 인한 해충이 성해지며 석유를 뿌려 구제에 노력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한 독농가가 농작물에 담배가루를 뿌리자 니코틴을 머금은 이슬방울이 흘러내리며 해충이 모두 죽었다. (1924.09.03)

고양군 벽제면에도 침수 가옥이 50호요, 면사무소 앞 다리가 끊어져 손해 1천 2백 원이다. (1925.07.20)

7월 20일 오전 10시 현재 고양군 송포면 구산리 주민 156인 중 겨우 50인은 구조되고, 106인은 물속에서 서로 잡고 구원을 청하다가 잠겨 죽고 말았다. (1925.07.21)

16) 재해 구호

고양군 하도면 화회리 이명구는 같은 리에 사는 빈민 32호에 대하여 파종播種 대금으로 68원을 이자없이 대부했다. (1911.05.19)

김성권이 고양군 송산면, 사포면 극빈자에게 당미糖米 10석을 나눠줬다. (1911.06.01)

하도면 화전리 이장 이흥구는 100원을 차용해 벼 10섬을 사 빈민 43명에게 이자 없이 나누어 주었다. (1912.05.11)

지난번 사내 총독이 자동차를 몰고 벽제관에 갔을 때 빈곤자에게 돈을 조금 보냈는데 면장 등이 쌀을 구매해 급여해 빈민이 매우 기뻐했고, 면장 등은 편지로 감사의 뜻을 총독에게 올렸다. (1912.05.22)

고양군 박병준은 빈민 72명에게 벼 한 섬, 백미 석 되 썩을 나눠주어 구휼하였다. 이에 감명 받은 평전지혜인은 경성일보사로 돈 20원을 보내 빈민구휼에 써달라고 부탁했다. (1918.01.16)

고양군 박호상은 백미 28석을 모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고, 같은 마을 임종식은 빈민 280명에게 1원씩을 나누어 주었다. (1918.02.17)

고양군 현성구는 마을에 어려운 사람 45호에 대해 매호마다 좁쌀 5승씩 나누어 주었다. (1918.08.31)

일산공립보통학교의 교원 노병옥씨는 두 생도가 어려워서 수업료를 내지 못하자 자기가 수업료를 대신 지급하고 교과서까지 사주었다고 한다. (1926.05.19)

고양군 벽제면 지영리 이근배는 리틀 내 극빈자 45인에 대한 제1기분 호세戶稅 19원 18전을 자담自擔 대납했다. (1929.05.13)

17) 위생

고양군에서 위생조합소를 조직했다. 고양군 면리장과 기타 유지들이 건학단을 조직하여 경성을 관람한 후에 만반의 사업을 다른 군보다 솔선하여 일신케 할 목적으로써 위생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고양위생조합 규약은 15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규약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 조합은 고양위생조합이라 칭함. 제2조 본 조합은 청결방법과 소독방법 기타 전염병 예방에 관한 방법을 시행하고, 아울러 군내 위생상태의 개선으로써 목적으로 함. 제3조 본 조합은 본부를 고양군청 안에, 지부를 간면 면장사무소 내에 설치함. 제4조 본군 내에 거주하는 자는 당연히 본 조합원으로 함. 제5조 본 조합에 다음과 같은 역원을 둔. 단 역원은 명예직으로 함. 1 조합장 1명, 2 부조합장 2명, 3 상의원 158명, 4 조합지부장 9, 5 위생위원 150명, 간사 2명. 제6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본 규약에 기초하여 일체 사무를 총리함. 제7조 부조합장은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함. 제8조 상의원은 각 지부장 및 위생위원으로써 조직하고 본 조합의 사무에 관하여 조합장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 결정함. 제9조 지부장은 위생위원을 감독하여 그 구역 내의 사무를 분장함. 제10조 위생위원은 지부장의 추천推選에 의하여 조합장이 이를 명命하고 직접으로 각 리리의 위생

사무의 시행을 담당케 함. 제11조 간사는 조합장의 감독을 받아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함. 제12조 본 조합에는 위생상에 기능이 있는 고문 1명을 둘 수 있음. 제13조 본 조합에 관한 경비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함. 제14조 조합경비의 징수 지출에 관한 규약은 별도로 이를 정함. 제15조 본 규약은 상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개정할 수 있음. (1911.05.18)

5월 19일에 고양군 벽제관에서 고양위생조합 제1회 역원 총회가 개최되었다. (1911.05.25)

고양군 헌병분견소 관내 위생위원이 10월 3일 벽제관에서 추계총회를 개최하고 춘계 실시 위생검사와 종두법 시행에 대해 협의하였고, 4일에는 사리대면 문봉리 이성선 집에서 위생 환등회幻燈會를 실시했는데, 남녀노소 2백여 명이 참석했다. (1911.10.08)

고양군 위생조합소에서 각 헌병파견소장과 협의한 후 군 내 필요한 지점에 공동변소를 건설하고 내왕來往 인민의 편의를 주었다. (1913.01.16)

8~22일 고양군 읍내, 배교리, 구파발리 3개소에서 탄저예방주사를 실행함, 고양은 작년에 비교적 다수의 탄저병 발생이 있었다. (1914.02.08)

고양군 은평면 홍제원 외동 사는 정치진⁽⁶³⁾은 경성부 창기 윤목단이 매독으로 죽자 소관 경찰서에 매장 청원을 하지 않고 자의로 은평면 백련동 후작 이해승 소유 산판 안에 몰래 매장하였다가 처벌받았다. (1915.04.25)

고양군 용강면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용강면에서는 임시방역회를 조직하고 유력자 160인을 방역협의원으로 하고 각 이장으로 방역원을 정한 후 격리병사를 임시로 설치하기로 했다. 만일 환자가 발생할 때는 지체없이 그 병사로 보내서 치료하게 했다. 용강면은 경성 헌병분대장과 고양군수 서상면과 협의해 콜레라 치료에 있어 조선인의 한방 치료를 하기로 하고, 한방위생 황한주와 장두희 양씨에게 이 업무를 맡겼다. 이 둘의 경비 일절은 면내의 자선가에게서 기부받아 하기로 했다. (1916.10.14)

고양군 신도면 동산리 일본인 아이 2명이 19일부터 일시에 병이 들었으므로 20일 진찰한 결과 의사 콜레라로 판명되어 고양경찰서에서는 부근을 엄중 경계중이다. (1921.08.23)

고양군 신도면 진관내리에는 12월 20일경부터 발진티푸스가 발생하여 그 동리 170호 중 약 50호, 250여 명의 환자가 있는 것을 25일 오후 그곳 주재소에서 알게 되었다. 26일 아침 소관 서대문경찰서장은 위생계 주임과 경찰 의사와 여러 명의 부하를 체리고 자동차를 몰아 현장에 급행하여 부근 일대를 소독하는 동시에 병에 대한 계통을 조사 중이다. (1927.12.27)

18) 문화

고양군청에 설치된 벽제관 보존회의 기부 모집을 위해 군수(최항석), 서기宮坂重郎가 기부금 모집 인허認許를 총독부에 청원했다. (1911.03.02)

고양군, 파주군의 남부 지방에서 북한산을 지나 귀래한 사람에 의하면 그 지방은 파주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개 산간 지역으로 경운의 편리함이 없고, 각 집이 모두 연료를 채취하고는 무리지어 화로 주변에서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며 날을 달랜다고 한다. (1912.02.21)

조선의 성묘일인 관계로 각지에서 고양으로 성묘를 위해 모여들었다. (1914.10.03)

고양군에서 벽제관보존회를 조직하고 가을 안에 도로의 수축과 기타 수선 설비 등을 완성하고 대전大典 기념으로 앵楓, 풍楓을 식수하기로 하여 당국의 허가를 거친 후 기부금 8백원을 경성 고양 등지에서 모집한다. (1915.06.17)

청년남자 수백 명이 모여 석전을 시작하고 용기있게 격전하는 것을 파출소 순사가 보고 사상자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해산시켰다. (1922.01.07)

고양군 은평면으로부터 북한산 백운대에 이르는 길은 본래 좁고 험하여 교통이 불편했다. 요새 중국인 석공 수 명으로 바위를 쪼아 층계를 만들고 높은 바위는 구멍을 뚫어 굴을 만들고 굴 속에는 철봉을 세우고 쇠사슬을 매어 통행이 극히 편리하게 되었다. 지난 일요일에는 경성에서 6백 명의 등산자가 있었다. (1927.10.02)

송인체육회에서는 8월 4~5일에 경성전기 운동장에서 제2회 전췌 고양축구대회를 거행한다. (1929.07.28)

19) 저금

고양군 인민 등이 발기하여 저금조합소를 설치하고 매월 10전 이상을 저금하기로 규칙을 제정하고 경기도청에 청원하였다. (1911.03.05)

면장 협의회를 이용해 근검저축 사상의 함양에 노력한 결과, 신규 저금조합에 가입자가 850여 명에 달했고 금액은 180여 원이고 속속 가입자가 있다. (1912.11.01)

군청의 장려로 일반인민의 근검저축에 우량한 성적을 얻어 1등으로 3등까지 구분해 상품을 수여했다. (1912.11.14)

20) 소방

고양군 중면 일산리, 구지도면 행주리, 원당면 주교리 등에 소화구 연구龔口 각 5정과 신혈면 구파발리에 10정을 설비하고, 군청 지휘로 장정 50명을 선출하여 헌병파견소에 위탁 훈련하는 중이다. (1913.01.09)

고양군 용강면 아산현은 경성시가에 연접된 1대 도회지인데 소방 설비가 없어 소방조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소방기 구입을 고양경찰서에 의뢰할 것이다. (1914.06.20)

21) 종교

고양군 지도면 행구리에 위치한 예수교회에서 6일부터 16일까지 대거 전도회를 실행했는데, 동 경찰서에서 그 상황을 보고했다. (1910.12.24)

22) 야생동물

화정리 방면에 호랑이 한 마리가 동리에 종종 출몰하여 촌 사람들이 밤에 문 밖에 출입하지 못한다. 호랑이 출몰 시간은 오후 9시~12시로 시간도 꽤 잘 지키는 명랑한 호랑이라고 한다. (1912.03.07)

고양군 원당면 서삼릉에는 수 십년 전부터 맹수가 서식하여 부근 주민에게 해를 입혔는데, 12월 11~12일 이틀 밤에 늑대가 출현하여 돼지, 닭의 해를 입혔다. (1913.12.26)

늑대 두 마리가 출몰했는데, 며칠 전에 새끼돼지 한 마리를 물어간 사건도 있어서 경찰관 주재소에서는 늑대 토벌을 행한다고 했다. (1922.06.09)

십여 마리의 늑대가 매일 가축에 피해를 주며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되자, 주재소에서는 마을사람들과 사냥을 나눴다. 현재 두 마리를 잡았고, 사냥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1922.09.07)

23) 교통, 통신

5월 16일에 고양군에 우편소가 신설되어 사무를 개시했다. (1911.05.25)

경성과 고양 사이의 통신 속달을 위해 우편물의 직통차로 개발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우편물은 예정일 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22.01.22)

고양군 송포면 법관리민은 8월 14일 서대문경찰서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권농회사 농장의 터를 빌려 그 터에 50여 호의 집을 짓고 수백 명이 살아오던 중 요전 홍수 때에 가옥이 전부 침수되고 매우 위태한 중 그 동리 사는 도선업 김흥선이 수척의 배를 두고도 조금도 구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같은 부도덕한 자에게 도선업 허가를 주는 것은 동리 인민에게 불리하니 홍수 때에 동리 인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던 법관리 이덕창에게 도선업을 허가해 주라는 것이다. (1925.08.15)

24) 유치운동

고양군 벽제면 고양리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고양리주재소는 벽제면 중앙에 있지 않아 여러 불편이 많다고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벽제면의 중앙지인 관산리로 주재소를 옮기려 한다. 이에 대해 고양리 주민들은 반대하고, 관산리 주민들은 환영한다. (1927.02.16)

25) 재조일본인

동척회사의 제4회 이민은 지금 거의 도착하여, 고양군 내 4개소에 이주시켜 농업에 종사할 것이다. (1914.04.08)

일본인 한 사람이 조선인에게 사기를 치다가 법원으로 갔다. 사기의 내용은 일본농산 주식회사조선지점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자기에게 돈을 주면 판매원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으로 말했다. (1914.09.12)

4. 광주

1) 가축 전염병

대흥면 수소동 전석승(27세)은 3월 15일 나무를 팔고자 소를 끌고 경성으로 올라왔는데, 돈화문 앞에서 소가 죽어 경찰서에서 순사와 수의를 파송해 검열하니 우역이 확실해 동리 인민에게 내다 묻게 하였다. (1912.03.17)

2) 고리대

광주군 경안면 삼리 남경희는 온당치 못한 수단을 써서 빈민의 돈으로 부자가 되었다. 촌민에게 각각 25원씩을 강제로 쓰게 하여 그 변리(邊利)로 매년 벼 한 섬씩을 가져오라 한 바 원성이 많다. (1919.11.25)

3) 교육

광주군 중대면은 1개 사립학교만 있어 아동 교육 기관이 불충분하여 기성회를 조직해 기부금을 모집하는데 소작인에게도 정직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지주 김찬필은 기본금으로 300원을 기부했다. (1924.05.16)

7월 31일 중대면에 공립보통학교 설치가 허가되어 11월 1일부터 개교 예정으로 교사 건축 중이다. (1924.08.15)

4) 기부

광주 중대면 석촌리 백정길은 건축비 1,800원, 부지 200여 평을 면에 영구히 기부해 송파 경찰관 주임소를 신축케 했다. (1924.10.20)

5) 노동

광주군민 15명이 단체 노동하기를 청원하여 경기도청에서 주선하여 인천 주안 제염장 인부로 채용하기로 결정되었다. (1911.05.14)

6) 도급기

광주군에서는 농사장려회 지주 소작인에 대해 도급기 150정을 배부하고, 기타 농업자 희망에 의해 30정을 보급했다. (1913.10.08)

7) 연료

광주군 초월면 서하리와 무갑리 주민 사이에 땔나무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다. (1913.03.27)

광주군 광교산은 종래부터 의곡면, 과천군 상서면, 하서면 거주 인민이 나무를 하는데, 의곡면에서 작년 3월 산업계를 조직해 식림을 목적으로 도청에서 대부허가를 받은 후, 조합 미가입자는 나무를 베어가지 못하게 해 협의해 모두 계에 가입했다. 지난 5월 계의 부조장이 의곡면 인민에게 등산을 금지해 분쟁이 일어났는데, 헌병분견소의 설유로 무사히 해결되었다. (1914.01.16)

8) 마름

광주군에서는 관내 16개 면의 마름 6백 명을 3개소에서 농사개량에 관한 강화회를 개최하고 군의 권업방침 철저에 노력한다. 24일 경안면에서 8개면 마름 109명, 25일 구천면에서 5개면 마름 199명, 27일 동서면에서 3개면 274명. (1923.08.29)

9) 면장

구천면 면장 이용옥은 면내 인민을 지도하기 위해 언문으로 번역한 경찰범 처벌규칙을 다수 사갔다. (1912.05.26)

10) 문화재

요즘 광주군 동부면 선리에서 고구려 시대의 기와 수천 매枚가 발견되어 박물관에 운반중이다. 이번 홍수로 마을 전체가 전멸을 당하고 두 길 이상 흠이 떠내려갔으므로 자연히 발견된 것이다. 기와에는 일일이 고구려 시대의 경기도 군명郡名이 새겨져 있다. (1925.12.06)

11) 미신

함창국은 유행성 감기에 걸려 고통하였는데, 그의 모친은 기도사 2명에게 부탁하여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게 했다. 그러나 그 둘은 복숭아가지로 함창국을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때렸고, 헌병은 둘을 잡아갔다. (1918.11.17)

12) 부역

광주군수(강원남)는 인부 11,424명을 사역하여 도로 15리를 수축修築하였고, 77인의 인부를 사역하여 교량 4개소의 5칸을 가설했다. (1911.12.17)

13) 묘지

낙생면 하산운리 이승린은 고장신, 이주철의 양손으로 최근 4,5대조의 분묘, 소속 산판을 팔아 없애고 그 위토까지 전당 잡혀서 종중에서 문제가 되어 조치하기로 협의하는 중이다. (1912.09.06)

14) 불교

이번 전쟁(1차 세계대전)에 대해 평화를 회복하게 하고 군인들의 안녕을 기도하는 기도회가 광주 등 여러 절에서 열렸다. (1914.10.20)

홍정혜라는 승려가 꽃감을 먹다가 체하였는데, 꽃감 체한 것에는 적육탕이 최고라 적육탕을 가져다주었지만, 홍정혜는 수십 년 지켜온 불도를 깨뜨릴 수 없다고 하며 거절했다. 죽음을 택한 그는 끝까지 염불을 외우다 죽었다. (1918.04.24)

광주 봉은사 제4세 주지의 만기 해임 후 절의 법규에 의해 본말사의 공천으로 엄용해를 주지로 선거해 총독부에 신청했으나 신청서의 미비로 반환되었다. 승려 나청호는 제4세 주지 및 도제들과 공모해 총회를 열고 재투표로 본인이 당선되었다. 고양군 흥련사, 화계사, 개운사, 봉원사, 백련사, 진관사의 주지, 승려들이 이는 본말사법에 위반된다고 총독부에 진정하며 나청호 배척운동을 일으켰다. 나씨는 이전에 사무처리, 사재 관리 상 부족한 점이 많아 거액의 부채를 내고 일반 승려들의 신망을 잃은 자다. (1924.11.10)

15) 산업

2월 10일 광주군 산업 단체 총회에서 독농가에 대해 표창을 행했다. (1924.02.17)

16) 소송

유점순 씨는 병원에서 매독이라는 잘못된 진단을 받아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 그리하여 그 병원장에서 소송을 걸어 배상금과 위자료, 그리고 잘못된 진단을 했다는 광고를 신문에 실을 것을 요구했다. (1922.11.03)

17) 소작인

광주의 우응정이 유진위, 이중호, 한우근과 협의해 회를 조직하고 자본금 4백 원을 각출해 무이자로 각 소작인에게 대부해주고, 그 돈으로 농사를 짓게 했다. 소작인 115호를 합해 1계를 조성하고 매삭 3회로 각 20전 씩 각출 저축하게 했다. 금년에 이르러서는 매호에 송아지 1마리씩 기르게 해서, 115두의 밭가는 소를 가지게 했다. (1916.06.15)

18) 수리조합

3월 31일부로 광주수리조합 설치 인가가 있었다. 구역은 광주군 동부면, 구천면 각 관계 동리이고 면적은 686정보이다. (1927.04.06)

경기도 광주 수리조합은 설립후 설계공사의 변경을 할 필요가 있어, 수속 중에 있다가 근일에 인정을 받게 되었다. 용지매수와 기타 일절의 준비를 완료하였고, 금월 3일 경기도청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붙였는데, 한강통漢江通 11번 신차랑에게 13만 5천 원에 낙찰되어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의 공사감독아래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본 공사에는 매일 600명씩 인부를 사용할 예정이다. (1928.11.25)

3월 1일 오전 광주군 동부면 광천수리조합 공사장에서 폭발약이 잘못 터져 인부 3명이 중상을 입었다. (1929.03.06)

19) 시찰단

광주군에서 20명으로 조직한 산업 시찰단 일행은 27일 대전으로부터 대구에 도착해 종묘장 농학교, 원삼중 제조소, 가타쿠라 제사 방적 등을 시찰 후 28일 경성으로 향할 예정이다. (1924.05.27)

20) 열녀

대왕면 가락동의 조씨(17세)는 신병으로 남편 이갑중(19세)이 죽던 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장사를 지냈다. 뒤따라 죽을 작정인데 홀로 사는 시모에게 못할 짓이라 생각해 수원 친정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시모가 불쌍히 여겨 허락했고, 친정으로 간 지 수일 만에 하직했다. (1912.05.28)

21) 위생

대왕면 상적동에서는 지난 13일 경부터 어떤 병이 발생해 두 사람이 죽었다. 병의 근원은 아직 알 수 없는데 병에 걸리면 수삼일이면 죽어 치료가 극난해 백성들이 크게 근심하고 있다. (1912.03.24)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 길삼순은 1월 3일부터 발병된 것을 지송池松 공의에게 진찰한 결과 두창痘瘡으로 진단되어 경기도 위생과에서 즉시 임시 종두를 행하는 중이다. (1927.01.12)

22) 이주

광주군 돌마면 대원리 29번지 농업 이봉래 내외는 12월 20일 오후 11시에 시외 왕십리역을 떠나는 영차로 8살된 딸을 데리고 간도로 향해 떠났다. 여러 해를 두고 소작하던 농토를 마름에게 다 빼앗기고 생활 곤란에 쫓겨 망연한 길을 떠났다고 하더라. (1926.12.22)

광주군 인증면 청계리 김치상 외 7명의 한 가족이 25일 오후 11시 40분에 도시를 떠나 먹고 살 길을 찾고자 북간도로 이주했다고 하더라. (1928.05.27)

23) 인삼

광주군 돌마면 울리 사는 한필원, 임동호, 임동식 등 8명은 1914년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임동복의 집에서 임동식 소유 술과 병을 사용하여 홍삼 70근을 제조하여 그중 10근 160원 어치는 팔고, 또 다른 곳에 넘겨준 일로 체포되었다. 임동우는 벌금 100원에 처했으나 낼 능력이 없어 구류 50일에 처해졌고, 기타는 불기 90대에 처해졌고, 각각 추징금은 14원 54전 5리씩이다. (1915.07.16)

24) 잠업

7월 6일 광주, 평택에서 잠견 초반 교역이 있는데 출회수량 광주 30관, 평택 20관, 시세는 광주 고가 6원 60전, 저가 3원 89전, 평택 고가 6원 64전, 저가 3원 87전이다. (1924.06.08)

25) 재해

7월 20일에 광주에서 이천으로 통하는 2등 도로에 있는 경안교는 한강 상류 증수로 인해 동단東端의 일부가 파괴 추락되어 자동차의 교통이 불능하다. (1923.07.22)

광주는 한강 증수로 인해 광주, 이천 교통이 두절되었다. (1924.07.23)

26) 지주

광주군에서 거둔 벼 50석 이상 대지주들이 광주농사장려회를 조직하여 5월 31일 군청에서 발회식을 거행했다. 회원은 175명이고, 참석자는 118명이었다. (1913.06.05)

광주군 동부면에서 유지들이 발기하여 1913년 3월에 면내 농업자 115호로 조합하여 근검저축의 취지로 매호에 봄에는 보리 2말, 가을에는 벼 2말씩을 모아 기본을 삼고 또 경성 유지들의 찬조로 자본을 삼아 용달규칙을 정했다. 빈민 소작인에게 농량農糧과 농자를 제공한다. 기본금이 5~6백 원이고, 저축한 벼가 60석이며, 구우계를 설치하여 송아지 80여 두를 양성한다. 경기도의 모범농회(회장 유진행)이다. (1915.04.01)

27) 회사

윤치성尹致晟, 민대식閔大植이 천원의 자본금을 구취하여 자기주식회사를 경성에 설립하고 그 지점을 경기 광주군 분원등지에 설립하여 영업하고자 하니, 허가해달라고 경기도청에 청원했다. (1910.12.27)

윤치성 등이 광주군 분원 등지에 자기磁器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경기도청에 청원했다. 이에 경기도청에서는 다시 농상공부에 고쳐 보고했는데, 농상공부에서는 새로 반포한 회사령에 의해 다시 청원하라고 돌려보냈다. (1911.01.18)

윤치성 등 발기로 분원사기주식회사 설립 신청에 대해 도청에서 도 경무부로 하여금 발기인의 신용 여하와 재산 유무를 조사하게 했다. (1911.02.14)

5. 김포, 양천, 통진

1) 강습회

김포군농회에서 소양이 있는 청년을 선발하여 양동, 양서, 하성 3면사무소에서 산업 강습회를 개최한다. 특히 시비(施肥)에 관한 과목에 치중한다. 양동면은 2월 15일부터 5일간, 양서 하성면은 3월 초순이다. (1925.02.20)

김포군농회에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군내 각 산미증식조합원을 중심으로 퇴비제조와 기타 농사에 관한 강습회를 열었다. (1927.08.30)

2) 견학

매일신보사 김포분국은 4월 30일과 5월 1일(음력 4월 8일과 9일) 부인견학단원 모집 社告를 게재했다. 정원은 20명, 견학장소는 경성(특히 창덕궁 비원), 회비는 1인당 참가금 1원, 기타 경비는 분국 보조이다. (1925.04.23)

3) 교육

통진군 공립보통학교에서 얼마 전에 제3회 졸업식을 행했다. (1911.04.20)

공립보통학교에서 26일에 제1회 졸업식을 거행, 관아 직원, 부형, 관광객이 인산인해로 초유의 성황을 이룸, 유지자들의 기부금 총액이 48원여에 달함, 교직원들은 용도의 방책을 강구 중이다. (1914.04.05)

지난 달 21일 김포군 각 면 협의회에서 학교비 평의원을 선거했다. (1924.04.20)

4) 교통

지난달 24일 보구곶 연안에서 곡식 50석 실은 배가 풍파로 파선되어 인명피해는 없고 350여 원의 손해가 있었다. (1912.12.04)

김포군 고란대면 거주 금융조합 사무원 기충섭은 4월 6일 오후 12시경에 중부 전동 가로에서 등불이 없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가 순사에게 발견되어 ‘경찰범치벌규칙’ 위반이라 하여 북부경찰서에 벌금 50전을 내고 방송放送되었다. (1913.04.08)

1월 13일부터 강화도-김포 간과 강화도-인천 사이는 얼음이 흘러 교통이 막혔다. (1915.01.16)

김포자동차부에서 정기승합노선 영업구역을 김포에서 강화까지 연장코자 몇 달 전에 허가원을 제출했는데, 이번에 허가되어 10월 22일부터 하루 2차 정기 운전한다. (1927.10.27)

5) 구휼

김포군 양서면 개화리 한 마을은 수재로 농작물과 기타에 피해를 당해 기아에 빠졌다. 이 마을 지주 경성부 죽첨정에 사는 김홍수는 개화리 마름 유호성에게 맡겨주었던 자신의 춘맥春麥 6석 5두, 소맥 7두 5승을 분급分給했다. (1925.08.04)

6) 금융조합

김포 금융조합은 올해부터 거치저금에 노력해 현재 95구에 대해 35,000원의 많은 저축고를 달성했다. (1924.08.26)

7) 기부

김포에는 오래된 향교가 있는데, 풍우에 시달려 성한 곳이 없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러나 사람 몇이 돈을 모아 향교를 수리하기로 하였다. (1918.09.11)

8) 농사개량

김포 권업과에서 23일부터 10일간 면리를 순회해 농사개량에 대해 과장 이하 담임기수가 출장해 야간 강화를 시험 삼아 행한다. (1924.10.24)

김포군 양천청년단과 가양리 정풍회 주최로 개최한 양천농사개량 강습회는 2월 2일부터 14일까지 양천공립보통학교 내에 개최했다. 강습생은 양 단체 회원 약 80명이었다. (1925.02.16)

9) 농업

검단면 오우리 저명한 독농가 서상희는 퇴비 제조장을 설치하고자 도청에 신청함, 권업보조비 5원을 보조하고 모범퇴비장으로 경영케 하였다. (1914.03.31)

2월 17일, 19일 김포군 춘면 신곡리보(조성증 소유) 제방이 무너져 천여 정보의 논에 관개할 붓물을 전부 유실해 일반농가가 심히 우려하는 중이다. 노동자 일본인 1명, 중국인 몇 명의 소행인 듯해 취조중이다. (1924.03.01)

김포는 매년 일반농민에게 연부 탈곡을 권고하는데 실행 부락이 적어 이번 가을부터는 각 마을에 도작 연부 탈곡 조합을 설립해 3개년 내에 전부 실행할 것이다. 보조금 관계로 올해에는 3면을 실행해 도급기계 구입에 10원씩을 보조한다. 위반자는 5원 이하 과태료 징수의 조합 규약 준칙도 있다. (1924.10.26)

경기 김포군은 매년 수해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금년에 이르러서는 예상외의 풍작을 보게 되었다. 특히 각군의 수리조합구역내에는 1 또는 당당 3석 이상의 평균 수확을 얻었다. 그러나 양동수리조합구획은 큰 수해를 입었던 까닭에 수확이 거의 없다. (1926.10.31)

10) 동계

김포군 양동면 가양리에는 약 7~8년 전부터 동계洞契가 있었다. 이 동리는 100호 중 9할 이상이 무산계급이다. 계원 중 상층을 당하면 1명당 백미 1승 5홉, 현금 15전을 내고 계원 일동이 상가에서 야경夜警을 했다. 또 수년 전에는 상여를 구입했다. 그러나 금년 수해로 상여는 유실되고, 농작물도 전멸되어 전과 같이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동계 해산과 부활의 논의가 분분하다. (1925.11.13)

11) 무역

풍곡리 이회공 묘소 공사는 이왕직 감독 하에 지난번 200여인의 조선인을 사역해 주야점행으로 속행 중인데, 한강 왼쪽 언덕 계선장으로부터 묘소에 달하는 3간보 7정여의 신도로는 준공했고, 타 각종 건설물 등은 대개 7,8분통 준공했다. (1912.09.26)

12) 불경죄

김포공립보통학교 훈도 유명준⁽²²⁾은 수일 전 친구되는 김포군청원 아무개와 중국요리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요리점 벽에 붙은 천황의 진영眞影을 찢었다. 이 일로 8일 김포경찰서에 체포되어 10일 오후 인천경찰서에 송치되었다. (1927.06.12)

13) 사고

양천수리조합 복구공사를 하던 중에 산이 무너지며 인부 한명이 깔려서 죽었다. 사망한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동묘지에 묻었다. (1926.03.15)

14) 사회교화

군수 심중순은 관 내 인민의 지식 계발을 위해 매일신보를 구독하기 위해 청구함이 여러 차례 달했다. (1912.07.30)

김포군청에서는 5월 4일 일요일에 관내 명망가 100여명을 소집하여 '소요 경과'에 대한 군수의 연설을 듣고, 사민士民 정덕회 규약을 결정했다. (1919.05.12)

김포군 양동면 가양리는 원래 양천군청이 있던 1개 한촌이다. 호수가 120, 인구가 약 3백에 불과하다. 농업 인구가 약 6~7할인데, 3~4년 전까지는 수해로 인해 생활이 빈약하고 풍기風紀가 매우 퇴폐했다. 당시 보통학교장(역무녹태랑)이 면장과 구장을 위시하여 일반 유지와 협의하여 1919년 9월부터 가양리 정풍회를 조직했다. 11월부터 부업을 장려하여 5년을 계속하여 오프로 나태한 사람이 없고 풍기는 개선되었으며 1922년 4월부터 부인회를 조직하고 9월부터는 청년회를 조직하여 정풍단과 제휴했다. (1923.12.02)

김포 가양리 정풍회에서 9월 23일 총회를 열어 처벌 규약과 품평회 개최에 대해 협의했다. (1924.09.27)

15) 삼림

군내면 북변리 농민 박한봉(31), 4호 송성옥(33)은 13일 이성한(통진군 월전면 을산리) 소유의 군내면 걸포리 소재 상림에서 작은 소나무 몇 본을 도벌해 체포되었다. (1914.01.28)

김포 삼림보호조합에서 김포 농산품평회 개최에 즈음하여 삼림에 대한 현상 표어를 모집한 결과 투표건수 150건에 1등으로 다음이 선정되었다. “식수植樹하는 데 식수食數가 있다” 양천공립보통학교 반석원. (1925.12.02)

16) 소작인

윤택영 후작의 소유 흥도의 광야 수백정보에서 소작인의 보리, 잡곡 농작을 금함, 불가능한 일이라며 소작인 300여 명이 22일 상경해 후작과 면회하고 애원했다. (1914.01.25)

김포군 양동면 화곡리와 신당리에서 유지 3명의 발기로 화곡과 신당리를 구역으로 소작인조합을 창립코자 현재 관계 당국에 양해를 구하는 중이다. (1927.01.23)

김포군 화곡리와 신당리는 100여 호에 인구가 480인인데 거의 전부가 소작농이다. 전답 면적 120정보 중 수확 무능 지역이 50정보이고, 지주는 대개 경성에 거주하여 수확액의 6~7할 이상은 도조賸租로 징수하는 까닭에 소작인의 생활은 점차 빈궁에 달한다. (1927.01.24)

2월 23일 김포군 양동면 화곡리 유지 원세충 자택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202명의 가맹이 있다. 대표자 56명이 출석하고 내빈으로 각 관공서에서 대표 1인씩 열석했다. 김포 초유의 크고 새로운 소작인조합이 설립되었다. 농사개량과 소작인간 상호와 지주 대 소작인간에 의의 존중을 본지로 한다. 조합장 김형묵, 평의원장 원세충, 평의원 15명 등이다. (1927.02.15)

17) 수리조합

부평수리조합(조합장 송산상차량)은 29일 오전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의 수원지에서 기공식을 거행한다. (1923.06.29)

김포군 동면 마곡리 양천수리조합 현장감독(상호송태)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10월 18일 공판이 개정된다. 7월 31일 잔디심는 인부 임한수가 설계서와 같이 잔디를 심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명령했으나 감독되는 자의 평소 처사에 여러 가지 감정을 상했으므로 임한수는 듣지 않았다. 이에 몽둥이로 구타하고 결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1923.10.16)

김포군 양천수리조합 개량공사는 12월 초순 인가되었다. 공사비 18만 원에 대해 5할 국고보조 9만 원을 받아 곧 공사에 착수한다. (1927.12.19)

18) 시간

김포군에서 6월 10일 시의 기념일 당일 각 학교에서 일반 생도에게 교장으로부터 시간 여행(行)상 강연이 있었고, 특히 김포공립심상학교에서는 학예회를 개최하고 학부형 기타 유지 다수가 모여 성황을 이뤘다. (1925.06.14)

19) 시찰단

김포군 면장 시찰단 일행 9인은 김천 품평회를 시찰하기 위해 13일에 5일간 예정으로, 면서기 일행 13인은 권업과 담임 기수의 인솔로 광주 품평회를 시찰하고자 12일에 4일간 예정으로 출발했다. (1924.11.17)

20) 식목

김포군 양동면 가양리 정풍회 및 양천청년단에서는 부업장려와 양잠 보급을 위해 노상(路旁) 1만 4천 본을 심었다. 그동안 부지가 없어서 실행을 못하던 중 작년 7월 양천수리조합 공사가 완성되어 조합 제방 안팎으로 빈 땅이 약 5만평이 있어 두 단체에서는 수리조합과 교섭하여 이를 차입한 후 4월 3일 기념식수일을 기회로 정풍회에서 1만

본, 청년단에서 4천본의 대금을 분담하기로 하여 양 단체 회원 전부가 출동하여 식재 植栽를 종료했다. 장래에는 유망한 양잠부락이 될 것이다. (1925.04.07)

21) 신문

김포 군수는 군, 각 면, 기타 단체 각반 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해 19일부터 군 신문 ‘우리 군我郡’을 발행하고 매월 1회씩 면, 단체에 무료 배부한다. (1924.04.24)

22) 야학

김포군 양천청년단에서는 매년 10월 상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무산아동에 대해 교과서와 기타 학용품을 무료 급여하고 매일 밤 교수시킨다. 교원은 청년단 간부와 양천 보교 숙직 훈도이다. 금년은 수해로 예년보다 2개월이 늦어 12월 1일부터 개학했다. (1925.12.07)

23) 약수

경기도 위생과에서 관내 각군의 약수에 대해 2월 13일부터 세밀한 분석을 했다. 그중 김포군 4개 가운데 대곶면 쇠암리가 이상스러운 약물터이다. 삼월 삼짇날이면 물먹으러 오는 사람이 매일 4백명 이상, 천여명씩 모여든다 하며, 수백년 전에 발견되었다. 피부병과 위장병이 나으므로 김포군에서 제일가는 물이다. (1927.02.22)

24) 예산

김포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학교비평의회를 비롯한 여러 회의를 열었다. 각각 원만히 타결되었고 무사히 폐회하였다. (1926.03.18)

25) 우편

김포 영등포 간 우편물은 9월 하순부터 김포 자동차부에서 운송하기로 11일 영등포 국과 자동차부간 약속했다. 이제부터 우편물이 이전보다 약 3시간 가량 빠를 것이다. (1924.04.16)

26) 위생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에 권중희가 22일 오전 10부터 구토하기 시작했는데, 24일 오후 1시 콜레라로 확진되었다. (1916.10.28)

김포에서 최양섭은 아편 1만 4천 원어치를 비밀리에 팔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18.10.06)

10월 19일 기준 김포군에 콜레라 5명 발생, 1명 사망이다. (1919.10.21)

김포군 양촌면 김동근(53)은 7월 18일 발병하여 김포경찰서 공의가 출장하여 검변(檢便)한 결과 의사(疑似) 콜레라로 인정되었다. (1921.07.23)

김포군 양촌면 마송리 김동근은 얼마 전에 사망했으나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콜레라 음성으로 결정되었으나 재차 검사하기로 하였다. (1921.07.25)

김포군 하성면 원산리 매독환자가 의사가 아닌 자에게 15원을 주고 경성 종로 한약상에서 산 수은, 석류황 등 5가지 약품으로 치료를 받다가 죽었다. 경찰서는 의사가 아닌 자의 치료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약종의 판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1924.03.20)

김포에서 27일 위생전람회를 공립보통학교에서 개최해 위생 관련 강화가 있었고, 도경찰부에서는 활동 사진을 게재해 주민에게 관람을 시켰다. 29일 양동면에서 개최하고 일반에 관람하게 했다. (1924.07.01)

김포군에서 각처에서 광견(狂犬)이 출현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각 면에 순회하여 사육견에 예방주사를 행했다. (1925.06.10)

27) 유희

김포에서는 김포공회당에서 옷놀이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선일보로 속히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1926.02.13)

김포의 옷놀이대회는 참가자가 56인이고 구경꾼을 합하면 8~90명이 되는 대성황을 보였다. 이 대회를 위해 각 금 8원씩 기부를 했고, 순위권에 든 사람에게 수상을 했다. (1926.02.25)

28) 인구

김포군 각 수립조합의 성립을 따라 호수가 약 200호가 증가되었다. 금후에도 양동, 양서, 고촌, 군내의 4면은 다수 증가될 줄로 예측되는 중이다. (1925.05.13)

29) 일본어

김포군은 9면 88리로 총인구가 일본인 306인, 조선인 5,785인, 중국인 335인이다. 조선인 중 일본어 해득자는 인구 1만인에 비해 38인이 된다. 조금 아는 사람(稍解者)은 남자 1,054인, 여자 86인이다. 보통회화가 능한 자는 남자 807인, 여자 86인이다. (1925.05.12)

30) 일본인

김포 읍내 재향군인회 발기로 기본금, 유지들의 기부금 약 800원으로 무덕관을 건축하기로 하여 18일 관민, 유지 50여명이 참석해 상량식을 거행했다. (1924.11.24)

31) 잠업

잠업강습회의 김포의 50명은 90여명, 교하의 35명은 60여명에 이르렀다. (1912.03.01)

김포군 누에고치 공동판매는 해마다 실행하는데 작년 봄보다 50석이나 증가했으며 지난 달 중순부터 25일까지 취급한 석량이 170석 남짓이다. 그 외에는 교통 운반 관제로 경성, 인천에 이출된 것이 많다. (1924.07.05)

32) 재해

6월 11일 폭풍우, 우박으로 김포의 가옥 20여호가 허물어지고 40년 된 늙은 소나무 10여개가 부러졌다. (1924.06.14)

검단면에서 유지의 발기로 면장 김중혁의 10개년 근속 기념식을 5일경 거행하려 했는데 면장이 올해 재해로 어려운 때에 축하를 받을 수 없다 사절하고 기념품까지 반환해 사람들이 더욱 면장을 칭송했다. (1924.12.15)

김포군에 있는 양동, 양천, 부평 3수리조합과 장강長岡식산주식회사의 몽리구역 내 토지 5천여 정보 개답開墾한 것은 홍수로 인해 5할 이상 황폐, 사전沙田이 되고, 제방과 수로水路는 평면으로 되고 말았으므로 각 조합 간부 사이에 장차 복구의 선후책을 강구 중이다. 또 지주와 소작인 측에도 경지정리의 복구는 심히 곤란할 것이나 기근饑饉의 방지를 하려면 1일이라도 속히 공사에 착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1925.07.25)

김포군의 수해액은 250만원 예상이다. (1925.09.14)

김포군 양천수리조합 복구공사에 대해 경성 청수조에 낙찰되어 수일 전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그 임금에 대해 일반의 비난이 비등하다. 1일 임금으로 최상이 60전으로 심지어 20전까지 있어 평균 40전에 불과하다. 그래도 이재민 측에서는 물밀 듯 몰려온다. 그래서 자연히 임금도 저렴하게 되었다. 새벽 미명未明에 일어나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소위 십장什長들의 천대도 심하다. (1925.12.17)

김포군 내 3개 면 3천 이재민 구제에 대해 군郡 당국에서는 구조방침에 노력 중이다. 각 방면으로부터 수합된 구휼금으로 한편으로는 부업 장려를 겸하여 구조할 방침이 성안되어 추진 중이다. 내용을 보면, 1. 이재민으로서 양계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개량종 레그혼, 고-지를 호戶당 5마리씩 무료 배부하여 그 산란産卵은 군郡 공동판매부에서 상당한 시가로 매수할 것, 2. 이재민으로 1단보 이상 경지가 있는 자에게 감자 종자를 무료 배부할 것, 3. 이재민으로서 가족적 2인 이상에 제승 또는 제입에 소양素養이 있는 자에게 제승기 또는 제입기를 반액半額으로 배부할 것, 4. 이재민으로서 단독 생활하는 자에게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식량을 급여할 것이다. (1925.12.21)

12월 21일 오후 1시경 김포군 양천수리조합 복구공사 중에 돌연히 산이 무너져 일하던 인부 김포군 양동면 마곡리 이만동과 이홍용 2명이 중상을 당했다. 이들은 수해 이재민으로 하루 임금 50전으로 그날그날 생활하던 중 부상을 당해 치료에도 곤란하고, 가족들 밥줄도 끊어진 것이다. (1925.12.23)

김포는 양동, 양천 수리조합 공사가 준공되어 비교적 수해가 적었으나 24일 폭우로 산이 무너져 양천 수리 조합의 양수장이 파손되어 손해 약 천원에 달하고 침수 전답 약 200정보에 달한다. (1927.07.27)

33) 저축

김포군 양천면 부인저축회는 부업 장려와 자녀 교육의 학자금을 저축할 목적으로 설립한 지 4년이다. 저축방법으로는 1인에 계란 5개씩 음력 매월 보름과 그믐에 저축하기로 하고, 저축된 계란은 입찰에 부쳐 상당한 시가로 매각하여 다시 현금으로 예치한다. 현재 저축 총액이 9천여원이고, 회원수는 174인데, 장래는 유망한 경제기관을 개설할 계획이다. (1925.03.15)

김포군 양천부인저축회에서 일반 회원에게 저축 상 특히 편의를 도모하고자 저축회 경영으로 종계장을 설치하고 종계種鷄로 김포군 축산조합 알선으로 ‘아도강’종 20수羽를 구입하여 사육중이다. 앞으로는 산란을 각 회원에게 배부하여 일반에게 개량종을 보급하고, 그 산란으로 저축회에 저축케 한다. 전과 같이 잡종란, 개량종 혼합적 저축은 없을 모양이다. (1927.08.31)

34) 전기

부평수리조합, 선만개척회사 김포농장 등에서 경성전기를 이용함에 따라 8월 26일까지 가설공사를 종료하고 27일부터 점등을 개시했다. 총점등수는 412개에 달해 한산한 김포도 갑자기 도시의 기분이 충일充溢하다. (1927.08.29)

35) 지주

김포군 농사장려회에서 11일에 총회를 열어 1923년도 세입세출 경과 보고, 회칙 개정안 통과, 권업장려 사항 관련 20여 명에 대한 수상, 고촌면 향산리, 점단면 부노리, 대곶면 거물대리를 우량농촌으로 표창식을 행했다. (1924.04.14)

36) 청년회

김포 양천 청년단의 전보발행을 경찰 당국에서 승낙해 14일부터 창간호를 발행했다. 기재된 내용은 사회에 관한 것, 법규에 관한 것 등이다. (1924.12.19)

양천청년회는 양천공립보통학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단장의 사회 하에 창립 이래로부터 실행하던 세칙을 개정했고, 일반단원들이 결사적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1926.03.02)

37) 체육

김포군 내 각 보통학교에서 3일 체육데이에 각 학교에서 일반 생도의 경기가 있을 것이다. (1924.11.02)

김포정구구락부 주최, 조선일보 김포지국 매일신보 김포분국 후원으로 김포개인정구대회가 5월 17일 금릉 코트에서 개최되었다. 18조의 선수가 참여했고, 김포 초유의 대성황이었다. (1925.05.21)

김포군 옛 양천읍내에서 유지, 관공리, 양천공립보통학교 동창생 간에 현대 체육 향상의 발육을 시키기 위해 5월 22일 학교 내에 모여 정구구락부(부장 심동기)를 조직했다. (1925.05.25)

‘체육데이’를 기념하여 추기 대운동회를 개최했다. (1927.10.05)

38) 축산

김포 축산조합에서 계란 공동판매를 개시했다. 각 마을 구장에게 계란 10개에 수수료 2전을 지급해 계란을 모아 군내에 중개인 1인을 두고 경성까지 운반시킨다. 운반비는 중개인이 부담한다. 공동 판매 가액은 재래종 10개 평균 15전이다. 10개에 약 20전 차이로 개량종이 더 높다. (1924.07.06)

39) 친목회

1월 6일 성주승 집에서 김포군 금란학교 동창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발기인은 한 경석 등이고, 회원은 40여 명이다. 교장 기동식의 개회사 후에 기정섭을 임시회장으로 선거했다. 찬조금은 수백 원이다. (1921.01.18)

경성에 유학하는 김포 학생 친목회에서 고향 인사를 위해 23일 김포에 여름 학예강연회를 매일신보 김포 분국 외 기타 단체 후원으로 개최했다. (1924.07.23)

김포 친목회에서 강습부를 설립해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아동 50명을 교수한다. 경비는 회비와 유지의 기부로 이용하고 매달 30원 내외의 월급으로 전무 1인을 둔다. (1924.08.27)

친목회(경성에 유학하는 김포학생으로 조직한 김포학생친목회에서는 본사 김포분국 후원으로 순회강연과 연극대회를 연다. (1926.07.25)

40) 품평회

김포군에서 농사장려회 김포지회 사업으로 11월 30일부터 2일간 김포보통학교에서 소작 벼 품평회를 개최한다. 이번 가을 소작인으로부터 지주 또는 마름에게 납입한 벼 3홉씩을 지주, 마름으로부터 출품케 하여 심사한 후 우량품에 대해 소작인에게 수상하는 것이다. 소작농이 많은 김포군에 가장 적의適宜한 일이다. (1917.11.25)

김포군 농사장려회 지회會 주최 소작미 품평회는 11월 30일 개최되었는데, 출품 4백 수십 점, 참고품 약 2백 점, 관람인원 누계 8백여 명이다. 수상식은 12월 1일에 거행되었는데, 입상자 100여명에 상품 포상을 수여했다. (1917.12.05)

김포군 양천면에서 유력 2,3단체 주최로 관공서 후원을 받아 매년 봄철 농한기를 이용해 생산물 품평회를 하기로 하여 작년에 이를 실행하고, 금년에도 개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2월 22일부터 3일간 예정이다. (1925.02.16)

김포군 양천면 생산물품평회는 23일로 종료했다. 최근 드물게 보는 성황이었다. 총출품수 717점이었다. (1925.02.27)

김포군 축산동업조합에서 축산부락품평회를 개최하고 순회 심사를 행했다. 모범부락 36리 중 13부락을 1,2,3등으로 나눠 지방비 보조금으로 200원과 경기도축산조합연합회로부터 40원의 보조금을 얻어 3월 21일 김포공립보통학교에서 수상식을 거행했다. (1925.03.24)

김포군에서 군에서 지도하는 대로 위반이 없이 인정할 만한 묘대를 출품시켜 묘대품평회를 개최하고 순회 심사중이다. 그중 가장 우량한 것은 등급에 대해 농구를 시상한다. (1925.06.10)

김포 농사장려회에서는 소채蔬菜 품평회를 개최하고자 제반 출품물에 대한 준비를 하는 중이다. 11월 15일 금릉관에서 행할 예정이다. (1925.10.26)

41) 해충

김포군 일원에 야도충이 발생하여 옥도, 수수, 대맥, 소맥 등의 피해면적 120정보, 예상손해액 1,500원이다. (1917.09.04)

김포의 송충이 구제에 올해는 특별히 추첨제도를 실행한다. 구제 결과 200여 석으로 월내 추첨회를 개최할 것이다. (1924.08.21)

42) 행사

김포군에서 10월 31일 군청 뒤 대대 신궁神宮 앞에서 천장절 축하회를 개최했다. (1917.11.03)

6. 부천, 부평

1) 과수원

부평군 소사의 과수재배업은 유수한 원예업으로 저명하게 되었다. 1903년 경 일본인 濱田傳兵衛 등이 과수 재배를 개시한 것이 이곳 과수원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濱田傳兵衛가 개량 비료와 전지剪枝에 전심 분투한 결과, 1905년 송병준의 농원이 개시되어 소사는 과수업의 융성을 보게 되었다. (1913.01.30)

2) 교화, 교육

부평군수 정운구는 동부 호동의 류자후 부인 상점에서 발매하는 경찰범 처벌 규칙의 언문 번역 책자를 다수 사다가 일반 인민에게 설명했다. (1912.05.14)

부천군 소래면 뱀내장이라 하면 소문이 나기로 유명한 장터인데, 요사이 그곳에 가장 큰 기와집을 짓는 고로, 그 상황을 알아본 즉, 그 면내 유지들이 의논하여 학교를 짓기로 하여 돈이 4천 원이나 모금되고, 재목도 기부하고 부역도 많이 있어서 학교를 짓는 중이라고 한다. (1920.04.06)

부천군 영종면 영종 공립보통학교 4학년생 40여 명이 학년 연장 문제로 12일 동맹휴학을 행하여 당국은 선후책을 강구하는 중이다. (1924.02.26)

부천군에서 10일 계남면 소사역에 소사 공립보통학교 설치가 인가되어 9월 1일 개교할 예정이다. (1924.05.15)

3) 금연

생활 개선, 소비 절약 상의 자각으로 부천군 오정면 각 리에서 금연을 단행했다. (1923.01.25)

4) 농민조합

부평수리조합 소작인들은 10월 28일 소사역 앞 정미소 창고에서 농민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조합원 유자격자 387명 중 186인이 출석했다. (1927.10.30)

5) 농사장려

3월 2일 부천군청에서 각종 산업 단체의 성적 우량자 표창식, 우상기 수여식을 거행하고 농사장려총회를 개최해 1924년도 예산을 부의 가결한 후 명사의 강연회가 있었는데 모인 사람이 600여 명에 달한다. (1924.03.07)

6) 농업

부천군 금년도 제3회 도작^{稻作} 예상 조사 결과 7만 4천여 석이다. 전년 실수확량 약 5만 3천 석에 비하면 약 4할의 증수이다. 부평평야 일대는 매년 참화였던 한강 범람 피해가 올해는 적어 60년 이래 대풍이라고 고로^(古老)는 말한다. (1923.10.28)

7) 담배

인천 연초원매팔조합에서 조합 관내 연초 소매인에게 전매 시행 3주년 1기 갱신의 의미로 성적 우량자에게 표창식을 부천에서 22일부터 거행했다. (1924.09.23)

8) 모범촌

경기도에서 부천군에 모범촌을 설치하고자 후보지 관청리와 관교리를 3일간에 자세히 조사했다. 내달 초순 경 모범촌 사업 주뇌기관의 발회식을 두 마을 사람들이 환영해 양잠 장려로 유지로부터 토지 700평을 기부 받고, 여자 잠업 강습생을 용인 강습소에 파견해 강습케 한 후 모범촌 전속으로 장려를 지도하고자 사람을 뽑는 중이다. (1924.01.30)

9) 산업장려, 산업강화

부천군에서는 산업장려위원회를 조직하고 산업장려 방법으로 우승기(優勝旗)를 쓰기로 계획중이다. 각 동리에서는 신농단(新農團)이라는 그 동리에서 성적이 우수한 중등 이하의 소농민 10명의 단체를 조직하고, 한 면에 있는 여러 신농단 중에 성적이 우량한 곳에는 면에서 우승기를 주고 여러 면 중에서 성적이 우량한 면에는 산업장려위원회에서 우승기를 주어 이를 표창하는 동시에 제일 성적이 떨어지는 면은 주의기(注意旗)라는 전에 듣지 못하던 특종 기(旗)를 주어 장래를 주의시킬 터이다. (1923.09.22)

부천군 신농단에서는 창가를 제작하여 단원 일동에게 합창케 할 터이다. (1923.09.24)

부천군에서 군수 이하 산업 과원 총출동으로 20일부터 8일간 군내 6면 면사무소 또는 보통학교 교사에서 제1회 산업장려 강화회를 개최했고, 제2회로 조서면, 능지면에 개최할 것이다. (1924.01.31)

10) 소방

부천군 소사소방조에서는 20일 오전 소사역 부근에서 추계 소방연습을 거행할 터이다. (1923.10.16)

11) 소송

경기도 부천 문학면 이지영과 그의 장자 이규삼 두 명이 자작 이하영을 상대로 고소했다. 이지영에 따르면 자신이 40년 전 이하영과 먼저 혼인을 했으며, 이규삼은 그때 낳은 아들이다. 그런데 이하영은 첩을 더 사랑해서 본처인 자신을 버리고 민적법 시행 이후 그 첩을 본부인으로 등록시켰다고 이지영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원에 이하영을 대상으로 부부확인 소송을 냈다. (1916.02.22)

12) 수리조합

4월 9일 부평수립조합이 성립되었음이 13일자 총독부 고시로 발표되었다. (1923.04.13)

수리조합(경인선 소사, 부평 양 역의 북방 부천군 오정면 외 3면, 김포군 고천면 외 1면에 걸친 대 평야 중 그 실효면적 3천 6백여 정보를 구역으로 하는 부평수리조합은 경성부 반전선사랑 외 5명으로부터 신청 중이었는데, 인가 지령이 있었다. (1923.04.19)

4월 10일 소사공립보통학교에서 열린 부평수리조합 총대인회 석상에서 한 농부의 애소가 있었다. 그는 “작년의 대홍수로 수리조합 구역 안에 있던 논밭들에 뿌린 씨조차 잃어버렸는데, 제1기, 제2기의 수세를 납부하라기에 조합에 대해 사정을 들어 면세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1차의 조사도 없이 반각返却만 시키니 이 일을 누구에게 호소하오리까”라고 했다. 절실히 부평수리조합 몽리(?)구역 안에서 비열非孽을 저주하는 궁농의 절규를 대표함이다. (1927.04.13)

부평수리조합 보강공사가 5월 말에 준공되어 7월 12일 정무총감이 참석하여 준공식을 거행했다. 몽리면적 4,120정보로 1923년 6월 착공하여 1925년 3월에 준공되었고, 보강공사는 1928년 5월부터 개시하여 5월에 준공한 것이다. 총공사비는 291만원이다. (1929.07.12)

13) 일탈

부천군 계남면 소사리 김정수⁽²³⁾는 인천경찰서 소사순사주재소 순사보로 근무 중 1915년 10월 17일 그 관내 청결법을 시행하게 되어 그날 오후 2시경 고척리 문태협 집 앞을 통과할 때 고척리 양주의의 처 김성녀⁽⁶⁵⁾가 자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를 구타하여 급성 폐렴이 일어나 10월 25일 오후 2시경 사망하여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1915.11.21)

14) 승입

부천군의 승입^{繩入}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1922년 11월에 부천승입조합이 설립되었다. 조합이 직접 생산품^(畵)을 수요자인 인천 각 정미소 기타에 판매케 하여 1球^(100畵)에 17~8전에 불과하던 것을 27전씩에 공급하여 생산자의 이익을 가져왔다. 그 후 수요자 등의 격렬한 반대로 중지하고 요즘은 생산자가 임의로 판매한다. 최근 승입구매조합이 7인의 상인으로 조직되고 양 조합이 절대의 계약으로 부천군 사천장^(蛇川場)에

검사 및 매매사무소를 두고 일반 생산자를 이곳에 집합하여 전문기수로 품위 검사를 하게 한 후 양쪽이 5일 전기前期의 가격으로 사정한 후 이 표준으로 전부 구매조합에서 매수할 방침으로 12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1923.11.29)

지리상 관계로 부천군에서 생산되는 새끼가 팔리는 것은 인천뿐인데, 품질이 일정치 못하고 수용하는 곡물업자들에게 이익이 농단되어 지난 12월부터 부천군 승입조합에서 새끼와 가마니 구매조합을 6명의 상인으로 조직해 품질과 가격의 향상을 도모했다. 이에 수용지 곡물업자들이 폐물에 가까운 공식으로 새끼를 꼬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좋은 품질을 얻어 자작자급하고 힘이 남으면 멀리 대련까지 보내 부천군 새끼는 인천 시장에서 점차 구축당하게 되었다. 승팔 구매조합 창고에서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새끼가 근 삼만 두레로 날마다 늘어만 가고 팔리지 않아 구매 조합원은 눈이 뒤집힐 지경이라 한다. (1924.01.23)

부천군 승입조합은 재작년 당시 군수(강원달)의 의견으로 승입판매조합을 설치하고, 일반 생산자 제품을 강제적으로 이 조합에만 제공하게 하고, 소위所謂 검사 수수료를 징수하여 일반 생산자는 품위 검사에 대한 고통과 검사수수료 징수에 대한 불만으로 군의 방침을 피해 원로邊路를 우회하여 인천 수요자에게 밀매까지 했다. 최근 이 영향으로 인천 시내 각처에서도 제승업자가 속출하여 다액의 생산을 보였다. 2월 25일 인천부협의회석상에서도 이에 대한 산업장려론이 일어나 상당한 조사와 방침을 세운 후 생산자에게 상당한 보조와 장려를 행할터이다. 그 입안立案 여하에 따라 인천으로서는 불원간 자작자급을 볼 터이며, 부천승입조합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1925.03.01)

부천군에서는 수해 이재민을 위해 부천 수난구제 응모금 2천여 원과 도에서 하부될 희망이 있는 분배금을 합해 기금을 만들고 제입기 9백 대를 구입하여 4개면 이재민에 분급하고, 원료 값을 대부하여 가마니를 짜게 하고, 생산품은 군에서 인천 당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1925.10.23)

15) 시장

출원중이던 부천 소사시장은 9월 6일부로 인가되어 곧 개시할 모양이다. 개시일은 음력 2, 7일이고, 일용잡화에만 한하고, 문제중의 우시장은 인가받지 못했다. (1927.09.26)

16) 양잠

부천군에서는 시험적으로 농가 울타리를 수수깡 대신 뽕을 심어서 풍치도 돕고 겸하여 양잠에 이용코자 계획한다. (1923.09.22)

17) 우역

부천군 소사 사천장, 계남면, 오정면 등에서 소 20여 마리가 아구창에 걸렸다. 인천경찰서에서는 주재 경관을 독려하여 병원지의 교통 차단을 행하고, 당국과 축산조합은 협력하여 방역에 노력한다. (1919.03.22)

부천군 계양면 박촌리 김한덕의 소유 암소가 5월 6일 죽었다. 검진 결과 탄저로 죽은 일이 판명되어 소독한 후 태워버렸다. 이 동리는 작년에도 소 몇 마리 죽은 사실이 있다. (1921.05.15)

18) 우편국

1913년도에 신설한 우편국은 남은 것이 4개소인데 3월 1일부터 사무를 개시, 부천군 관덕리의 1개소는 본월 중 사무를 개시, 이로 1913년도 우편국 신설을 종료했다. (1914.03.01)

19) 운동회

6월 13일 부천 소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소사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군내 공립학교연합 운동회가 열린다. (1926.06.12)

20) 임야

부천군 임야소유권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사정공시케 되어 8월 1일부터 30일간 부천군청에서 일반에게 종람케 한다. 이번 사정된 것은 부천군에서 토지조사령에 의해 조사를 하지 않았던 토지의 전부이므로 임야에 한하지 않고 야지野地에 있는 전답 등도 포함한다. 면적 약 2만 7천 정보이다. (1921.07.29)

21) 재해

부천군 신도 동부 해안에 접근한 논의 3대 제방이 강우로 인해 출수가 증가해 작물 피해의 우려가 되어 도민들이 협력해 방수 공역에 노력했으나 제방 3개소가 모두 부서져 논 160두락에 해수가 침입해 전무한 큰 손해를 입고 본년 수확의 희망이 없다. (1914.08.15)

부천군 정주성은 자기 소유의 배에 이기춘과 이준필 2명 및 식염 60 가마를 싣고 인천항으로 가던 중 실종되어 경찰이 경비선을 동원해 수색중이다. (1916.04.21)

폭우로 경인 1등도로 오류동-영등포간은 7월 8일 저녁부터 침수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었다. (1925.07.12)

부천, 김포 2군에 걸쳐있는 부평평야에도 한강의 범람으로 인해 탁류가 빠른 속도로 밀려 기 시작하여 17일 밤사이에는 넓기로 이름 있는 부평평야가 별안간 진흙물로 일망—望 무제無際의 바다를 이루어 들에 살던 주민들은 빈주먹만 가지고 높은 등성으로 피난하여 기한飢寒과 싸우며 3 주야晝夜를 지내고 지금은 빈터만 남은 자기 집 근처에서 배를 주려가며 방황하는 중이다. (1925.07.22)

부천군 부평평야 일대 이재민을 위해 군수(김동완)와 육지 각 면장과 영종면장이 꺾기하여 부천 수난水難구제회를 조직했다.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를 인천부에서 널리 모집하는 활동 중이다. (1925.08.03)

폭주하는 호우로 소사 명물 수밀도水蜜桃가 전부 떨어졌다. 백여 명의 인부를 들여 떨어진 수밀도를 줍는 중이며 경인선 연선沿線에 세워둔 조선박람회 선전 간판도 전부 쓰러졌다. (1929.08.27)

22) 전기

경성전기회사에서 부천군 소사를 비롯하여 부내면 수개數箇 동리에 전등을 가설할 목적으로 수일 전에 사원을 파견하여 상세한 조사를 했다. (1927.06.28)

23) 조림

부천군에서 군내 경인선 철도 연선에 조림을 속성할 목적으로 2일 군청 회의실에서 경인 철도 연안의 산야 소유자 200여 인이 회합해 경인선 조림 ‘결창’ 입총회를 개최하고 규약 통과, 임원 선정, 묘포 설치, 상묘 공동 구입, 도별 취체, 성적 우량자 포상 등 규정을 설정했다. 완성까지의 계속 사업으로 올해 제1회로 137,000여 매를 식재할 것이며 전 회원은 경인5회에 이르러 230여 인을 모았다. (1924.02.03)

24) 품평회

부천군에서 농산물품평회가 22일부터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1920.11.20)

품평회(8군 연합물산품평회에 부천군의 출품은 417점이다. (1923.09.24)

품평회(부천군에서 관내 9개 면 주최로 상원^{桑園} 품평회를 준비 중이다. (1925.11.09)

25) 해수^{害獸}, 해충

부천군에 늑대가 출몰해 최성화가 기르는 돼지 한 마리를 물어갔다. 이에 순사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늑대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하였고, 인천군에서 유명한 사냥꾼 2명을 보냈으나 또한 잡지 못했다. 이에 지난 21일 부천에 사는 이창학, 이달송, 김종인, 김종의, 김윤배, 김상봉, 김승연등 10명을 독려해 계양산에서 늑대를 수색했다. 이때 늑대 3마리를 발견했으나, 다 잡지는 못하고 1마리 밖에 잡지 못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경무부는 상금 15원씩 각각 주고 늑대 박멸을 약속했다. (1916.06.24)

부천군에 황충^{蝗蟲}이 발생하여 모와 채소에 피해를 입히는데, 이를 천충^{天蟲}이라 하여 인력으로 잡는 것을 꺼리는 미신이 있어 당국이 그 구제에 고심하고 있다. (1917.07.10)

부천군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한 삼림법 위반자에게 대한 처벌에 송충^{松蟲} 구제의 노력^{勞力}을 대신케 하는 방법을 시험하는 중인데 성적이 자못 양호하다. (1925.06.19)

부천군 소래, 남동면 일원에 부진자가 발생하여 점차 만연하는 중으로 부천군 당국에서 구제에 노력하는 중이다. (1927.08.14)

7. 수원, 남양

1) 강화회

팔달산우회에서는 17일에 수원군 외 4연합농산물품평회의 포상수여식을 이용해 은사수산장 내에서 환등기, 축음기 등을 써서 농사와 양잠에 관한 강화회를 개최, 청강자가 약 300명에 달한다. (1912.11.27)

도·부·군 서기 80여 명은 총독부에서 개최한 강습회를 종료하고 수원 권업 모범장을 견학하기 위해 19일 오전 9시 40분에 열차로 수원에 도착했다. (1916.11.18)

2) 견학

경성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제2회 부인婦人 견학단은 4일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하여 수원으로 가서 권업모범장과 잠업시험소와 축산장을 참관하고, 서호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한 후, 화령전과 화홍문, 방화수류정을 구경한 후 오후 7시 12분 남대문역 착 열차로 귀경한다. 회비는 기차삿 1원 10전이며, 일본말 아는 조선 부인도 많이 참가하기를 희망했다. (1919.06.04)

3) 경찰

수원경찰서에서 11월 20일 순사채용시험을 시행한다. 합격자는 1주간 교습을 종료하면 관내 각 경찰관 주재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1919.11.11)

4) 공진회

수원군에서 공진회사업 협찬회 구성하고, 위원 72인을 선정했다. (1915.05.22)

수원협찬회는 공진회 관람자 흡수책에 노력하여 단체 관람자의 편의 제공, 여관 숙박, 식사 요금을 할인했다. (1915.09.03)

수원농림학교 생도 15명이 13일 공진회를 관람했다. (1915.09.15)

수원군 단체관람객 1,155명을 수원군수가 인솔하고 26일 오후 9시에 입경했다.
(1915.09.28)

12월 2일 수원군에서 공진회 상장 전달식을 거행했다. 금패가 2, 은패가 9, 동패가 11, 상장이 44이다. (1915.12.07)

5) 관동대지진

수원면에서는 면장과 각 리·구장의 발기로 의연금을 모집하기 위해 9월 10일 자 면장
(근등호지조) 명의의 선전문을 배포했다. (1923.09.19)

6) 교육

40여 호 되는 가난한 마을 남양군 송산면 포막동에 최재용, 곽응환, 권종억 등이 학
교를 설립한지 3년에 생도가 30여 명에 달했는데, 금년에 재정이 안 좋아 폐지할 지경
에 이르렀다. (1910.09.20)

공립 남양 보통학교에서 17일에 일반관리, 각 학교 교사, 각 면리장, 군내 유지인사, 학
부형 남녀 노소, 기타 관광자 합 150~160명이 운동장에 모여 산술, 습자, 도화 등의
학예회를 열었다. (1910.10.27)

남양군 보통학교생도 일동이 교육료에 보충하고자 짚신을 만들어 팔았다. 경기도장
관이 시찰중 그 광경을 보고 이를 가상히 여겨, 이를 칭찬했다. (1910.12.16)

수원군수는 심상고등소학교에 금전을 기부한 자의 성명을 조사하여 도청에 보고하고
특별포상을 요청했다. (1911.01.08)

외국어학교 졸업생(김용제) 17세로 수원군 보통학교 대용(代用) 교원으로 서임되었는데,
생도들이 어리다고 거부하므로 마전군 사립 보통학교로 전임되었다. (1911.06.07)

수원농립학교 생도들은 식목 교수의 인도로 도보를 통해 10월 5일 밤에 경성에 가서
6일에 독섬을 시찰했다. (1911.10.07)

수원농림학교 실습생 종료식을 10월 19일에 거행했다. (1911.10.20)

공립 보통학교 교직원 인솔 하에 생도들이 수학여행으로 상경해 도청을 관람한 후 경복궁을 배관하였다. (1912.05.18)

수학여행으로 지난 2일 전주군 농업학교 2년생 33명이 수원 농림학교 직원, 생도의 접대를 받아 지정한 여관에서 투숙하고 권업모범장에서 조선농업에 관한 훈시와 축산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각도 소산물, 농작물 기타를 관람함, 팔달문, 화홍문, 방화수류정, 용지, 연화 등 기타 수원 전경을 관람했다. (1912.10.13)

3월 28일 수원 농림학교 졸업식에 석총 농공상부 장관이 임석했다. (1914.03.29)

수원 공립보통학교는 10월 31일 교장에서 남녀 대운동회를 개최했다. 내빈과 관광객 2천명 이상이 회집했다. (1915.11.02)

수원권업모범농장 부속여자잠업강습소에서 제 6회 졸업증서수여식을 할 예정인데 당일 농상공부장관대리가 참가할 예정이다. (1916.01.28)

수원농림학교에서 25일 오전 10시 동교내에서 제 9회 졸업식을 거행한다. (1916.03.21)

수원군의 공립보통학교에서 24일 오후 2시에 제 8회 졸업식을 거행한다. 졸업생은 남녀 67명이었다. (1916.03.26)

안녕심상소학교는 25일에, 조산공립보통학교는 26일에 졸업식을 거행한다 (1916.03.26)

수원농림학교에서 제 9회 졸업식을 거행한다. 징서수여, 교장훈시가 있는 후 농상공부장관, 풍영중앙시험소장등의 축가가 있는 뒤 사진 촬영과 다과회를 가진다. (1916.03.28)

총독부에서 권업모범장부속 농림학교를 장래 전문학교로 승격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그 일정은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실황조사의 필요가 있어 관계학무국장이 8일 수원에 가서 학교의 상황을 조사했다. (1916.06.09)

수원에서 19일에 사립 31개의 남녀학교가 동교 내에서 가을 운동회를 행했다. 공립보통학교에서는 31일에 운동회가 있을 예정이다. (1916.10.21)

수원에서 각 학교 교장협의회가 17일 오후 8일까지 수원군청에서 열린다. (1916.11.21)

수원 농림학교 제10회 졸업식이 24일 오전에 거행되었다. 졸업생은 37명이다. 23일에 상업강습소 본과 및 보통과 졸업식이 있었다. 본과 졸업생 7명, 보통과 졸업생 8명이다. 24일 오전 삼일학교 남자 제4회, 여자 제5회 졸업식이 있었다. 남자 졸업생은 9명, 여자졸업생은 8명이다. (1917.03.27)

수원 삼일학교 남녀학생 60여 명은 18일 오전 열차로 시흥군 과구산에 원족하였다가 돌아왔다. (1917.05.20)

농림학교에서는 4월에 입학할 전문과 학생 48명을 모집한다. 그중 38명이 조선인 10명이 일본인이다. 입학자격은 조선인은 고등보통학교 졸업, 일본인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다. 시험 과목으로는 일본어, 한문, 수학, 물리화학, 동물과 식물 등이 있다. (1918.01.25)

여자잠업강습소에서 26일에 제 8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그 수는 23명이었다. (1918.01.29)

수원농림학교에서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부옥무관이 총독의 대리인으로서 고사를 낭독했다. (1918.03.29)

수원농림학교는 4월 1일부터 전문학교령에 의해 전문학교로 승격하게 되었다. (1918.03.31)

수원농림전문학교의 개교식이 15일에 총독의 참석하여 열렸다. 총독은 개교식 이후 이왕직목작을 시찰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1918.04.17)

수원농림전문학교에 입학시험을 받아 입학하여 졸업한 자들은 문관임용령 제 6항 제 1호에 의해 문부대신에게 인정되었다. (1918.10.20)

수원군 공립보통학교에서 21일 오전 10시에 남자 제10회, 여자 제5회 졸업식이 있었다. 졸업생 남자 50명, 여자 12명, 기타 강습생 1명이다. 사립 삼일학교에서 21일 제7회 졸업식을 했다. 남자 13명, 여자 8명이다. (1919.03.24)

수원농림전문학교에서 25일에, 농성고등보통학교에서 24일에, 중앙학교에서 25일에 졸업식을 거행했다. (1920.03.24)

수원의 부지상업 견습강습소는 11일에, 사립삼일학교는 22일에 졸업한다. (1920.03.27)

수원공립보통학교는 본년도부터 남녀 모두 6년제가 되어 금년에는 졸업생이 1명도 없다. (1921.03.26)

수원 삼일학교는 금년에 형편에 의해 경비가 2/5가량이나 감소케 되었다. 이에 7일 오후 교내에서 동서양 음악제를 설비하고 음악회를 개시했다. 관람자에게는 입장권을 판매하여 그 수입액으로 기본금을 삼기로 하고, 3일부터 입장권을 발행하여 유지들에게 찬성을 받았다. 음악회는 희소한 대회이므로 찬성자 다수할 모양이다. (1921.04.09)

남양청년회 문예부 주최로 제하製荷여학교 안에 노동야학회를 개최했다. 교과목은 조선어, 한문, 산술을 주요 과목으로 하고 수시 상식 수양에 필요한 학과를 교수한다. 강습생은 50여 명이다. 최선일, 강신흥 양씨가 명예로 교수의 임(任)에 당한다. (1921.12.18)

수원농림전문학교는 조선교육령개정의 결과 수원고등농림학교라 개칭했다. 입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으로 올해 모집인원은 농학과 약 50명, 임학과 약 30명 합 80명이다. (1922.02.24)

수원농림전문학교에서 제 3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졸업생은 13명이었다. (1922.03.21)

수원공립보통학교 아동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후원회를 조직할 뜻으로 창립총

회를 개최하였는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참석인원은 약 5~600여 명에 달했다. (1922.06.20)

수원 사립 삼일학교는 종로 예배당 내에서 교수하다가 교우들의 노력으로 올봄부터 복리(화홍문 아래)에 약 2만여 원의 공사비로 신축하던 중 준공되어 12일 낙성식을 거행했다. (1923.12.23)

25일 수원 고등농림학교 졸업식을 거행한다. (1924.03.15)

경기도에서 23일 수원군 안룡면 대항교리에 안룡 공립보통학교 설치를 인가해 9월 1일부터 개교 예정이다. (1924.04.25)

2월 4일 총독부령 제 9호에 따라 수원고등농림학교 학과목에 토지개량학 및 수학이 추가될 것이라 했다. (1926.02.04)

남양공립보통학교에서 수원군교육회를 개최하고 남자 6학년에 대한 체조과를 연구 교수 하였다. 수원군 관원 및 관내 학교 직원 50여 명이 참가하여 질문, 비평, 토론을 하였다. (1926.02.10)

조선 최초의 시험인 수원고농 부속 실업보습학교는 7월 25일 개교식을 거행한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가정의 실습 지도를 실행할 이상적 실업보습학교이다. 전임 교유 2인을 초빙하는 외에 고등농림 교수 몇 명도 순회 지도하기로 내정되었다. 생도는 학교를 중심으로 약 10리 이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제한하여 첫째 출원자 80여 명 중 18명을 선발하였다. 총독부에서는 실업학교 중 모범학교를 만들기 위해 제반 설비도 신중히 고려한다. (1929.07.25)

교통(일본에서 조선의 도로를 개량 완축하고자 각 지방에서 실행하는 중이다. 수원군수 김관현은 본년 봄 이래로 면민을 지도해 관내 조산-용인 간 2리 반, 마산-이동 간 17정 조산-금량장 간 2리 반, 병점-화동 간 칠정 16간, 수원-안양 간 5리, 수원-안산 간 1리 15정의 도폭 1간과 거리 2간을 완성했다. 군수와 경찰서장의 원조, 각 면리장의 협력에 도청에서는 찬사의 뜻을 표했다. (1912.07.16)

7) 교통

남양군 대부도 사는 흥원표와 최백일은 마산포의 도진渡津사업 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했다. (1913.09.23)

수원-여주간 매일 운전하던 자동차는 금번 차체車體 검사를 위해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운전 중지한다. (1917.02.03)

수원 이천간 교통이 점차 많아지고 승객이 격증하여 수원 용인 간 운행하던 수원자동차부에서 자동차 2대를 새로 구입하여 운전을 개시했다. (1919.10.08)

수원 시내 통행하는 차가 없더니 최근 성내 자동차부에서 5인승, 12인승 2대의 자동차로 수원역 기차시간을 맞춰 매일 5~6회씩 통행한다. (1921.07.25)

23일 경부선 수원역에서 제722호 기관차가 탈선했다. 타 지역에 복구 지원을 요청해 기다리고 있다. 탈선 원인은 아직 모르나 사상자가 없고 기관차도 파손된 곳은 없는 듯하다. (1924.12.25)

열차에 돌을 던져 객실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일이 있었고, 선로에 장난으로 돌을 쌓아 열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일이 있는데, 범인은 잡지 못하고 열차운행만 지체되었다. (1926.02.23)

수원 기점 여주에 이르는 경동철도는 12월 28일까지 건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자금관계로 수원-이원 간 및 이원-여주간의 2구로 분할하여 시행하기로 했으나 금년 내 착공은 불가능하다. (1929.12.07)

8) 교화

작 조중응이 10일부터 매일신보 수원지부에서 독자위로회를 개최한다. 일신정신 환영신춘一新精神歡迎新春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인이 살아가면서 힘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것이다. (1916.02.08)

수원농림전문학교에서는 1. 사회교화의 목적으로 표본실을 개방하여 일반민중에게

종람을 허용하여 농림업에 관한 지식보급을 꾀하고, 2. 강당을 이용하여 지방인사들을 위해 명사의 강연회를 열고, 졸업생을 주로 하는 농사강습회를 열어 모교와 졸업생과의 연락을 도모하며 시세의 관찰 사상경향의 비판 등에 관해 특히 강연을 청하여 청중자의 품성을 도야함과 동시에 건실한 사상을 기르기에 힘쓰고, 3. 학교소재 지방의 지식계급을 위해 학교의 도서관을 개방하여 열람을 허용한다. (1921.05.12)

9) 구휼

대부면 면장 노겸수는 빈궁한 인민 구제를 위해 35호, 춘추량 등 호세를 자기가 담당해 일체 판납했고 고유지, 전응운의 22호에 대해 1개년 채금을 판납했다. (1912.10.15)

수원군 안룡면 류평일이 불행히 죽었기에 그 동리의 사람들이 그를 측은히 여겨 미국과 금전을 모아서 적선해 주었다. (1916.02.24)

수원 서상호는 원래 가난하지 않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자선과 구휼사업을 행하여 왔다. 계속 해온 선행에 재산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계속 하겠다고 하여 주변에서 칭송이 자자했다. (1918.02.03)

수원군 수원면 남창리에 사는 우성현은 (일제의 3.1운동 탄압으로 생겨난-인용자) 수원과 안성군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해 벼 2백 석을 기부하겠다고 당국에 신청했다. (1919.04.23)

전 수원군 참사 우성현이 재작년 3.1운동시 송산면, 우정면, 장안면 인민을 위해 정조 2백 석을 기증했는데, 그 면장이 감사를 표하기 위해 안룡면 오목천리 3등 도로변에 비석을 세우고 5월 23일에 준공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1925.05.28)

10) 군대

추계연습에 참여했던 사단과 여단의 군인들이 복귀할 것이다. (1918.10.31)

11) 금융조합

남양군 인민 등은 금융조합은 구제救濟 기관이라 오인하여 각종의 부적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수십 원씩 차용한 뒤 상환의 생각이 없어 특별 단속하기로 목하^{目下} 제의중이다. (1911.10.15)

4월 15일부터 수원 공회당에서 연중행사로 매년 있는 화성금융조합총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1926.04.18)

12) 기생

옥반산인 윤화백에 난화제자 옥향명, 옥도, 홍명월 등은 이미 성공을 이루어, 선생을 기리기 위해 수원 기생조합소 일동이 지난 날 1시부터 해당 조합소에서 잔치를 열었다. (1916.07.26)

수원기생 김향화⁽²³⁾는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서대문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10월 27일에 가출옥했다. (1919.11.02)

13) 납량대회

매일신보 주최의 수원 서호 납량대회 단원을 환영하기 위해 수원 시민대표 몇 사람이 경성까지 가서 맞이하고 명물 과실을 갖고 가 기차 안 단원들에게 드리기로 했으며 모범장의 과실도 싸게 팔고, 맥주 50전, 사이다 25전 등의 염가로 제공할 것이다. (1924.08.16)

수원 서호 납량대회 단원 300여 명이 조선의 보트와 유선이 질주하는 서호의 야경을 관람했다. (1924.08.18)

향미정에서 만돌린연주회, 통소연주회, 하모니카 연주회를 개최했는데 그 중 가장은 통소연주회로 재청까지 받았다. 오리나무 숲에서는 매일신보 활동사진반에서 촬영한 사진을 연사했다. (1924.08.18)

서호 납량대회에서 수천 군중이 모여 뱃놀이하며 월색을 구경하다가 배가 충돌되어 익사자가 발생했다. (1924.08.19)

14) 농민데이

6월 14일은 '농업 국본'의 사상을 일반 국민에게 고취하는 제3회 농민데이이므로 조선농회에서는 오후 2시부터 수원권업모범장에 총독(산리) 이하 다수 참가하여 성대한 이양식을 거행했다. (1929.06.15)

15) 농업

수원공립보통학교 부속 농사보습학교 직원과 공립보통학교 직원의 발기로 학생의 실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소채 농원을 설비하고 직원과 학생이 시험적으로 소채를 재배하여 품평회까지 열었다. (1911.12.16)

수원군 남부 백평촌 일본인寺澤捨參郎은 수년 전 이주하여 보통 농작물을 위주하고 겸하여 과수재배 등에 종사하고 성공하여 경지가 수십 정보에 달했다. (1911.12.24)

삼양 이후 기후가 적절하고 때때로 강우도 있어 생육이 극히 양호하며 해충의 발생이 조금 있으나 구제해 예방해 피해가 극소함, 평년보다 풍작이다. (1912.11.03)

수원군에서 농민 희망에 따라 우량 종도種稻 및 타 종자를 공동구입해서, 본년 각 농지에서 생산했다. 그 합 207석을 구입해 농사순회교사에 검수하고 각지에 배부했다. 그 종목은 곡량도穀良都 93석이고 다마금多摩錦 32석이며 조신력早神稈 24석이고, 석백백石白白 2석이었다. (1916.05.03)

수원미곡시장에는 경기도 이천 방면의 새로운 쌀이 유통되는데, 그 품질이 양호하다 (1918.09.14)

수원에는 봄부터 강우가 거의 부족하다. 그중 동부지방에는 우량이 윤택하여 현재 전부 이양移秧을 종료하였으나 서부방면 우정, 장안, 서신, 송산 등 각지에는 소요사건의 영향과 최근 가뭄이 아주 심하므로 아직 지연되었는데 그곳 농민 등은 지금 관개灌漑에 분망 중이다. 금년 맥작 상황은 양호하다. (1919.07.01)

수원지방에서 올해 굉장한 풍년이었이나, 쌀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1920.11.30)

수원군은 작년에 패발(襪) 경진회규정을 제정했다. 안룡, 음덕, 매송 각면은 각 구장 농사독려위원 마름 등이 1단이 되어 각 리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집한 피가 산 적했다. 금년과 같이 면 구장 및 일반 당사자가 일치 협력하여 활동한 것은 종전에 보지 못한 현상이다. (1923.10.07)

16) 도급

수원군 관내 4개소의 여자 도급(稻穀) 전습소를 설치하고 1개소에 조선여자교사 2명씩을 배치하고 생도 20명씩을 전습케 했다. (1911.11.01)

경기도청에서 지방비 5백 원으로 수원에서 여자 160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도급전습회를 개최했다. (1911.12.07)

수원군에서 8개소에 여자 도급 전습을 하여 금후 일반의 탈곡 작업은 점차 여자의 손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1911.12.13)

음덕리 도급전습소원 수 43명, 조제고 12석, 마도면 출석원수 47, 조제고 10석, 화지면 출석원수 33, 조제고 17석, 저팔리면 출석원수 16, 조제고 13석, 어지곶면 출석원수 98, 조제고 25석이다. (1912.12.03)

17) 독립운동

박선태는 작년 3.1운동 이후 동지를 규합해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계속 실행하고자 이종상과 의논하여 상해의 김보윤과 연락을 하며 수원에서 비밀단을 조직하였다. 박선태는 경성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차인재라는 여학생의 알선으로 임효정, 이선경, 최문순 등과 만나, 예수교 계통 부속 사립 삼일학교에서 회합했다. 이 회합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과 상해에 연락하는 방법 등을 의논한 뒤, 상해의 지원 아래 독립신문, 한민보, 애국가 등을 유포하려는 계획이 세워져 수원경찰서에서 취조중이다. (1920.08.20)

수원군 고등농림학교에서 2~3학년 학생들이 '조선개척사'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일반 농민들에 대해서 불온사상을 선전하려다가 발각 검거되었다. 이 사건은 경남 김해군 공립보통학교 교원 김성원이 그 결사의 일원이 되어 생도들에게 불온사상

을 고취하던 것이 발각되어, 이것을 단서로 결사의 정체가 경찰에게 발로된 것이다. 수원 경찰서에서 검거 취조된 후 수원지청 검사분국을 거쳐 17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상전문검사에게 취조받는 피의자는 육동백, 김찬도, 김익주, 황봉선, 김매찬, 남영희, 고재천, 권영선, 우종휘, 김봉일, 백세기 등 11명이다. 이들은 금 여름부터 결사를 조직한 이래 계속적으로 있어온 이들로, 개정된 치안유지법으로 의해 문죄될 것이다. (1928.09.18)

18) 매일신보

매일신보 수원지국이 생긴 지 1년 만에, 날로 발전하고 달로 확장되는 발전을 거두고 있다. 이에 독자 위로회를 열고자 하는데, 일반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조선 명창 5명 및 26명을 불러 가무하게 할 것이다. 정월 초일부터 열흘 후에 나흘동안 위로회를 열 것이며, 낮에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풍화당에서, 밤에는 7시부터 11시까지 영창관에서 위로회가 진행된다(1916.02.04)

19) 동맹휴학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는 조선인 학생 전부가 4월 30일부터 동맹 휴교하였다가 5월 5일부터 등교했다. 조선을 방문 중이던 동경제대 교수(중정맹지진)가 학생들에게 한 강연 중 '식민지, 토민'라는 말에 분개하여 그동안 학교 당국으로부터 당했던 민족 차별을 철폐하라는 요구로 이어진 것이다. 교장 대리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식목(植木) 교수가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서 결말을 맞게 되었다. (1923.05.08)

수원고등농림학교 백여 명이 무기정학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18일에 전교 학생으로부터 선정한 22명의 위원이 돌연히 교수를 방문해 교칙 개정, 교사 개축 등 포함한 5개조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제도의 개정은 연구 고려한 후에 개정하여도 좋다고 회답을 하였다. 학생측은 23일에 다시 학교 당국에서 우리의 요구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5개 조건 후에 또 3명의 교수를 배척하는 조건을 걸어서 학교 당국에 제출했다. 학교측에서는 일이 중대하게 됨을 알고 졸업생 측의 원조를 얻어 학생측에 권고를 하였으나, 학생측은 강경히 듣지 않았다. 이에 24일에 학교측에서는 교사개축은 논의할 수 있으나, 교수 배척은 학생의 신분에 부적절하다며 거절했다. 25일에는 직원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태도를 고치지 않

는다면 전부 무기정학을 할 것을 결의했다. 25일 오후 2시에 교장은 전 학생을 강당에 모아 놓고 학생들의 요구들에 대해 학교의 입장을 설명한 뒤, 26일까지 전부 등교하지 않는다면 모두 무기정학을 내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26일 오전 10시가 되어도 등교한 학생은 불과 15~6명에 불과했고, 결국 교장으로부터 농과 3학년생 28명, 2학년 34명, 1학년 31명, 임업과 3학년생이 25명, 2학년생 18명, 1학년 23명 합쳐서 160여 명에 대해 정학처분을 내렸다. (1926.06.28)

수원고등농림학교 가등교장은 지난 29일에 상경하여 총독부 학무국장과 이번 동맹 휴학사건에 대해 해결책을 협의 중인데, 그 협의결과가 어찌될지는 자못 주목중이다. 아직도 학생들은 거리에 방황하고 학교는 문을 닫을지언정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여 수원 일대에는 불안한 공기가 있는 것 같다. (1926.06.30)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분규사건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그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는 듯하다. 가등교장이 지난 29일에 총독부 학무국과 장시간 협의한 결과, 학생들의 요구 3가지는 들어줄 수 있으나, 교수를 배척하는 건은 응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1926.07.01)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 발생한 분규는 학교도, 학도도, 당국도 모두 1일이라도 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가능 교장은 29일 학무당국과 선후책을 협의하였는데, 그 해결의 방책이 결정된 듯 하다. (1926.07.02)

한동안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수원고등농림학교의 학생 정학 문제는 그 후 수원군수와 학부형 측에서 무한히 조정에 노력을 하여, 지난 2일 오후 4시경에 학부형측의 사람과 학생측의 사람이 가등 교장의 관사로 방문해 긴 시간 논의했다. 그 결과 교장은 지금까지 학교측에서 대단히 오해하였음을 인정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온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희생자는 만들지 않기로 하고 학생측과 다시 회합을 하게 되었다. 교장은 말하기를 '학생들의 뜻을 잘 알게 되었으니 안심하고 등교하기를 바란다'고 하며, 학생측 요구 내용 중 교칙과 교사개측은 반드시 실현하겠으며, 학생측도 배척하던 교수들에게 다시 신뢰를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5일부터 학생들은 등교할 예정이다. (1926.07.02)

수원군 수원면 기독교회 경영 사립 삼일학교는 교원 간에 분규가 생겨 생도 간에 불

평이 많았다. 11월 11일에 4~6학년생 120명은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했다. (1927.11.14)

20) 모범

수원군 향남면의 송칠성은 수 년 동안 동민을 권유하여 가마니를 만들게 했는데, 그 간 400여 개의 가마니를 만들었다. 18일에 남문 외곽 도로에서 쌓아두고 9전에 팔았는데 품질이 뛰어나 전부 팔렸다. 그날은 날도 매우 추웠음에도 송칠성은 사십리를 오가며 술과 밥도 전폐하고 물건을 팔았는데, 그 근검사상을 청년들에게 권장되어야 한다. (1916.01.20)

수원군에 사는 원경녀는 7년 전에 양성관에게 차용한 금 백원을 갚지 못했는데, 그 재종손 원희본이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 주었다. 양씨가 이를 듣고 가상히 여겨 원금 40원을 덜어줬으니, 두 사람의 심성이 칭찬할 만하다. (1916.01.26)

수원군의 최석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교육시킬 때, 그 아들이 불미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아들이 교육받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나의 죄다”하여 두 아들이 품행이 단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1916.01.26)

경기도 수원의 가난하게 살던 유군이 사망했다. 김성환, 김영부, 김유진, 서기덕, 지운희池允禧 등 5인이 각출해 20여 원을 모아 가족에게 보내주었다. (1916.01.29)

경기 수원의 김석필은 고향을 떠나 상해의 회사에서 일하던 중, 병이 심해져 전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동포가 도와줘서 병원에 입원해 1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병은 낫지 않고 치료비는 점차 쌓이게 되었고, 조선으로 돌아올 처지도 되지 못했다. 임지선이 김석필의 처지를 듣고 직접 김석필이 입원한 병원에 가서 동포된 의리를 생각해 병원비와 여비를 변통해 주었다. (1916.02.24)

21) 문화

수원에서 뜻이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3일 오후 1시부터 서회회를 풍화당내에서 개최했다. 회원이 30여 명이였다. (1916.08.15)

수원과 개성에 1개씩 흥행장이 있다. 작년 총 입장인원은 수원 1만 5천 여명, 개성 4만 여명이다. (1924.02.14)

수원군 정남면 백리 응지곡산에 있는 고분에서 4월 10일 오후에 옛날 석관 1개와 엽전 798개와 도기 2개를 발굴하였다. 드물게 보는 진품으로 경복궁 안에 있는 박물관에 보내고자 수원경찰서에서 보관하여 두었다. (1925.04.12)

인부들이 땅을 파다가 오래된 조선식 관을 발견하였는데, 그 속의 시체는 사람의 모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백 년 전의 명문대가 사람의 관으로 보이며 관은 다시 그 자리에 묻어두고 조사중이라고 한다. (1926.05.25)

22) 부랑자

수원경찰서에서는 음력 세말歲末을 당해 1월 26일부터 부랑자 취제取締 활동을 하여 29일까지 약 40명을 검거했다. (1921.01.31)

8월 16일 수원경찰서장은 관내 무직업자 47명을 본서로 회동하고 본월내로 상당 직업에 각 귀歸하여 국민된 의무를 실행하라고 효유曉諭했다. (1915.08.19)

23) 삼림

이왕직 소관의 수원군 건원릉, 용릉 부속 화산 삼림은 광리가 2,000정보여에 이르고 수백 년 동안 나무를 베지 않은 대삼림으로 수간의 끈게 뻗은 장대함은 조선에서 드물다. 이왕직에서는 임상을 정리하고 새롭게 식림하기 위해 구역을 정하고 작년부터 수만 본을 벌채해 본년도 소나무 벌채 15,000본을 입찰에 부쳐 공매함, 희망자는 20일까지 이왕직에 진출해야 현품을 자세히 볼 수 있다. (1914.03.07)

국비경영에 관한 묘포의 이번 봄 작업은 수원 등 6개소에서 행하고 유묘 243만 본의 판갈이를 하기로 결정, 수종은 소나무, 곰솔, 아카시아, 밤나무 등, 판갈이 분은 오는 봄 조림용에 사용될 계획이다. (1914.03.10)

경성 및 수원 식림묘포에서 각 군으로 견습 인부를 소집해 묘포 작업을 교습하고 삼

각산 사방 공식 재작업을 습득, 4월 18일부터 25일간 현장에 출장해 각 주임 지도하에 일반 인부 등이 식재와 각종 사방 공법의 대체를 이해하고 습득했다. (1914.05.06)

수원군에서는 8월 30일 군내 국유림 차수인 100명을 군청으로 소집하고 대부 및 경영상에 관한 여러 종류의 주의 및 지시를 하고, 내년 봄 조림용 묘목의 수급에 대해 협의했다. (1923.08.31)

24) 상례

수원 남부 매향동 박상훈⁽⁵⁵⁾이 친상을 당해 베옷을 입고 있는데 천황이 승하했고, 집상할 수 없어 출입을 해야 하는데 방립을 썼더라도 홀두루마기에 상장을 붙여야 할지 말지 모르겠다고 매일신보로 질문했다. 기자는 오늘날 복제가 구한말시대와 달라 양복 입은 자는 왼편 팔에 검은 베 쪽을 두르고, 평복 입은 자는 검은 베 쪽을 나비모양처럼 접어 붙일 뿐이니 아무리 부모의 상중이라도 그것은 개인의 사복이고 국상은 일반신민의 의무이니 왼편가슴에 나비 모양으로 접은 베 쪽을 붙이는 것이 가하다고 답했다. (1912.08.10)

고종 타계가 발표된 이후 수원 화류계에서도 일체 가무歌舞를 정지하였다. 수원군 20여명의 기생들은 17일 성복에 참례하기 위해 깃당목의 소복과 나무비녀를 쫓고 오전 8시 수원발 기차로 직행하여 대한문 앞에서 망곡을 했다. (1919.01.29)

수원군 일반 인민이 다수 복상服喪함에 따라 1개 1원이던 백립白笠 가격이 급등하여 4~5원이라도 사기 어려워 심지어 검은 갓 위에 흰 종이를 붙인 사람도 부지기수이다. (1919.02.14)

인산일에 대여와 소여를 끝기를 담당할 경성상민 봉도단에는 수원상민 여사꾼 20명, 영술원 3명 합 23인의 한 단체가 새로 참가했다. (1919.02.25)

수원상민 이하 각 유지 인사 50여명이 수원인민봉도회를 조직하고 대표를 선정하여 인산일 장례식에 참여한다. (1919.02.28)

수원상민으로 조직하여 경성상민봉도단에 참가된 33명의 봉도단원이 27일 상경하여 28일 제3회 의례 연습에 참여했다. (1919.02.28)

수원군 유지 일동이 수원봉도단원 23명을 8일 화월관 요리점으로 초대하여 위로회를 개최한다. (1919.03.09)

수원공립보통학교 광장에서 고 이왕의 봉도식이 거행되었다. 참배자는 남녀노소 수천 명에 달했다. (1926.05.05)

25) 상업

남양군 대부도 면리장들이 자염(煮鹽)에 쓸 뿔감을 공급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무명세금을 징수했는데, 이를 폐지해 달라고 경기도청에 호소했다. (1911.07.27)

남양군 대부면에서 뿔감 장사에게 과세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1911.09.02)

상업가 김태진, 고정환, 황운선, 임석준 등 40인은 4,5년 전부터 형제를 맺고 상업강습소를 설립, 졸업생 수십인을 모집, 서로 자본금을 조급해 자본금 없는 자도 금전을 융통하고 사업이 없는 자도 흥산을 얻어 실업이 장차 진보될 희망이 크게 있다고 모두 칭송한다. (1912.12.07)

가뭄으로 수원시장에서 거래하는 정미, 대맥, 대두, 소두 등의 가격이 급등했다. (1915.07.09)

최상덕 군은 경기도 수원군의 저명한 실업가 최봉영의 장남이다. 최봉영은 개국 512년(1903년)에 경기도 수원군 관찰부 주사 등을 역임하다가 퇴임하고 실업계에 종사했다. 그 아들 딸 3형제 중 장남 상덕은 구한국시대 경성법관양성소에 입학했고, 수업을 하다가 실업을 겸무함을 알고 그 아들 딸로 하여금 상업에 종사케 한 후 4~5년 전에 경성에서 상업을 시작했다. 경성 종로에 한울왕(漢元王)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열었고, 상업에 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1916.07.22)

14일 수원시장에서 상백미 1석에 41원 60전의 고가인바 출회도 많지 않고, 매매도 부진하다. (1919.02.16)

수원 시내 각 상점이 (3.1운동으로-인용자) 폐점인데, 4월 2일 일반 신사(紳士), 상인을

군청으로 소집하여 군수와 면장이 권유한 결과 3일부터 일반 상점에서 개점했다.
(1919.04.06)

세금(수원군은 징수 성적이 양호한 편인데, 1915년에 지세가 2분기 총액이 3만 8천 3백 30원이었고, 1916년 연초매매세는 4백 팔십 원을 징수했다. 지세는 3만 8천 164원 걸었다. (1916.03.05)

26) 세금

수원군에서 토지소유자 중 세금을 체납한 사람을 엄중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1916.04.12)

수원군 수원면사무소에서는 나무장사들이 도로상으로 배회하며 매매하는 것은 도로 방해라 하여 시장을 정하고 시장 외에서는 매매치 못하게 하고, 나무 한 바리에 대해 시장세를 10전씩 팔든지 못팔든지 관계없이 받을 뿐 아니라 시장세 징수원들이 나무장사를 무단히 구타하므로 나무장사들은 동맹파업을 하여 시내 시장에는 나무 한 바리도 없다. 시내 거주민들은 동사할 지경이라고 원성이 자자하다. (1921.02.09)

27) 소방

수원경찰서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조(消防組)를 설치하고 규칙을 제정하여 경기도 경무부로 보고했다. (1911.01.10)

수원읍내 소방조합에서 1월 4일 정기 연습일로 정하고 소방단원들은 종일토록 구간수(九間水) 통(通)에서 연습을 성대히 거행했다. (1921.01.08)

28) 소송

수원군 일형면 고등리 윤달용은 안룡면 평리 사택사삼랑을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5,259원 30전) 청구 소송을 4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작년 9월 9일에 윤달용이 매산리 공립소학교 정문 앞에서 사택의 소유 하물 자동차(정현재 운전)에 치어 수원 길원병원, 경성 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했으나 완치가 되지 않아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이다. (1929.04.17)

29) 소작

수원 군수 김관현金寬鉉이 국유지의 소작료를 면제하고 그 액수를 조사해 보고했다. (1910.12.15)

지난 달 26일에 동산농장에서 수확한 우등소 작미 미체납 소작인 200명에 대해 체납 장려의 목적으로 상여품을 준다. 최우등 일등상 2명에게 농우 각 한필씩, 그 외에는 400원 가치의 물품을 분급한다. (1912.03.02)

남양군 국유지소작인조합에서는 국유지 소작료 차액으로 제공한 벼 122석 7두 5승을 매각하여 그 금액 773원 30전 5리 중에서 납세 입체立替(뒤에 상환받을 목적으로 대신 지급) 및 보관료를 제하고, 잉여금 300원 32전을 조합저금으로 예입했다. (1913.09.19)

땅 주인이 돈을 받고 소작인을 바꾸는 행위가 심했는데, 소작인이 이에 항의하자 자신의 가족을 대동해 구타를 했다. 이에 소작인은 경찰에 고소하였다. (1914.12.15)

수원군 동산농장에서 소작인 조합 30개소를 집합해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1916.04.03)

30) 수렵

수원군 산루리 이광현 외 30여 인의 실업가가 수렵단을 조직하여 16일 파주 등지로 노루를 수렵하기 위해 약 1주간 예정으로 출발한다. (1919.02.16)

31) 수리, 수리조합

본래 정부 역둔토 소관의 만석거, 만년제, 건방축(수원역으로부터 1리 정도, 북호라 칭함)을 방입했다. 동척에서 자비를 투입해 수축해 소유하기로 하고 공비 약 천원을 투입해 28일에 완성했다. 부근의 관개를 개시하면 만석거의 수량은 100, 만년제는 39, 건방축 10 정보에 이른다. (1912.05.30)

수원군 안릉, 고장 2면 및 용인군 일부에 걸친 수리관개사업은 관계 대지주인 동척, 동산東山농장, 국무國武농장 등의 주창으로 경기도에서 실시계획 중인데 최근 완료하

여 5월 17일 수원군청에서 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 성립을 고했다. 진행방법은 군수에게 일임했다. (1921.05.22)

수원군의 수릉수리조합(몽리면적 821정보, 공사비 약 50여 만원)은 8월 24일부로 설립 인가되었는데, 공사는 토지회사에서 대행할 듯하다. (1927.09.03)

32) 수산장

수원은사수산장에서 12월 2일 수업식을 거행했다. 수업생은 수원, 시흥, 용인, 진위, 안성, 여주, 이천 7군이다. (1915.12.07)

33) 시찰단

동래군 서면 구장 및 독농가 일행 20인이 관광단을 조직하고 수언권업모범장 관람을 위해 6월 7일 동래를 출발했다. (1921.06.09)

34) 식목

4월 3일 수원에서는 조일인 관민 약 100여 명이 오전 9시부터 동대문내 연무대 부근에서 식수植樹하고 화홍문 부근에 집합하여 오찬을 한 후 12시에 산회했다. (1921.04.06)

35) 신사

수원 신사神社 건축은 수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곧 준공되는데, 10월 29일 낙성식을 거행하고, 신령 천좌식 및 추계 대제는 30일에 할 예정이다. (1917.10.20)

2월 17일 오전 10시에 수원신사에서 기념 제식을 거행했다. (1919.02.22)

10월 4일과 5일에 수원신사에서 추계대제를 거행하고 여흥이 있었다. (1919.10.09)

36) 어업

지난 7월 5일 남양군 삼괴 해안에서 일본인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다가 4척 7, 8촌 되는 인어를 잡았는데 2척쯤 되는 어린 인어를 업었으며 18세쯤 되었고, 전신에 털이 많이 났고, 얼굴과 살과 사지가 사람과 같았다고 한다. 동리 사람들이 인어를 죽이면 동리가 함몰한다 하여 즉시 바다에 도로 넣었다고 한다. (1912.07.12)

인천항 및 남양군 연해^{沿海}는 굴 사육장으로 적합하여 도청에서 조선인에게 굴 사육 법과 종자 채취법을 실지 지도하기 위해 5월 15일에 수산 기수 1명을 파송^{派遣}하기로 했다. (1913.05.14)

37) 연료

수원군 화산 부근 주민에게 일정한 연료 채취처를 주어 도벌을 막았으나, 1913년 1월 중에 도벌이 수천여 주에 달하여 이왕가^{李王家}에서 경기도청에 대해 이를 단속하기를 촉탁했다. (1913.04.16)

2월 12일 오전 10시에 수원면에서 각 이장 및 기타 유력자를 면사무소로 소집하여 팔달산 시든 나무 수백 본을 각 이민에게 염가에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1919.02.24)

수원군 이왕직 산림보호구역 안에 밤마다 나무를 베어가는 사실이 있다. 그 원인은 산림 간수 수효가 적은 것, 수년 전 인근 촌민들로 구성된 산림보호단을 작년부터 해산하여 부근 촌민들의 땔나무 사정이 곤란한 것, 이왕직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 등이다. (1927.03.11)

38) 연직

수원군 북부면 지동은 경기도 관내에 제일 모범촌이므로 순회교사가 출장하여 연직^{筵織}을 교수하는 중이다. (1913.01.12)

39) 염업

송산면의 염업은 종래 조선인이 경영하던 전자염인데, 중국 재제염과 천일제염에게 압도되어 거의 폐멸하더니 근래 수요가 비상이 증가해 1석에 2원 20전 함, 제조가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1912.10.02)

남양군의 제염製鹽 호수는 441호, 인구 6,430명, 염전 73정 7반, 가마수 184개, 1년 생산 32,480석, 가액 66,025원, 전부 농업의 부업으로 종사한다. (1913.03.27)

남양군 소금이 궁경窮境인데, 그 원인으로 1.염가 하락, 2.매황 불량, 3.무 야채 등의 흥작으로 김치 담기 중지로 소금 수요 감소 등이 주요인이고, 날씨가 좋아 염전 채염 회수가 보통 12회이나 많은 것은 14회로 제염 산액이 전년보다 약 3할 증가한 것도 한 요인이고, 중국 소금의 판매 확장도 한 요인이다. (1913.12.21)

남양군에서는 제염 방법을 고치기 위해 작년에 약 1천 원의 보조금을 주어 개량 가마의 거치를 하고, 본년에 다시 5백 원의 보조금을 주어 사업의 완성을 기한다고 한다. (1915.06.17)

남양군의 소금은 1개년 산액이 3천만 근에 달하고 염정鹽井이 1,185개이다. 근년은 재제염과 중국 원염에 압도되어 해마다 산액이 감퇴하는 경향이 있다. 당국에서 염업장려를 위해 당업자에게 염업조합을 조직케 하고, 최초에는 1천 원의 보조금을 하부하고 이래 5년간에 걸쳐 매년 5백 원의 보조를 주기로 했다. 제조에 요필하는 연료는 종래 부근 산림의 수목과 송엽을 벌채하여 사용했다. 산림보호규칙이 발포된 이후에는 석탄을 사용한다. (1915.07.07)

경기도 수원군 면장 홍인유가 제염 사업을 개량 발달시키기 위해 각지의 조합장을 찾아다닌 결과, 김우권등 여러 면과 협력하고, 제염 개량 기술을 제염업 종사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1916.02.02)

40) 염직

수원염직조합과 이성의염직소가 합동하여 수원염직조합이 되었는데, 경기도 지방비로 1천 원을 보조했다. (1913.03.20)

41) 온돌

수원군에서는 경기도가 장려한 온돌 분구와 연돌에 덮개를 사용케 하기 위해 우선 시장 소재지인 수원, 오산, 발안, 남양, 송산, 반월 등 각 면면 민가에 대대적으로 실행시킬 계획으로 권업과장, 기술원, 경찰서장이 각지에 출장하여 지방 유지자 및 다수인을 시장에 집합시켜, 보통학교에서는 생도에 대해 각각 그 취지를 설명했다. (1923.05.15)

42) 위생

1910년도 9월 5일 수원에 자혜의원을 개업했다. (1910.09.11)

경기도 자혜의원이 수원군 남부면 전 관찰부觀察府로 이전했다. (1911.06.11)

자혜의원 수가 규정을 제정해 경기도청에 수보했다. 내복약 1일분 대인 20전, 소아 10전, 돈복약 1제 대인 10전, 소아 8전, 대수술료 5원 이상 30원, 중수술 1원50전 이상 5원, 소수술료 20전 이상 1원 50전, 입원료 특등 1일 3원, 1등 2원, 2등 1원, 3등 70전, 원장 1회 왕진료 1원 이상 5원, 의원 왕진료 반액, 산파왕진료 35전, 일반인민에게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1912.10.12)

본년도에는 구료의 은택을 균등케 하고자 도 자혜의원에 의원을 증치하고 각 부군에 순회 진료를 해 이미 다수 군은 제1회 진료를 마침, 의원 순회는 진료의 일할을 정해 미리 관계 부군에 통지하면 부군에서는 순회 진료의 취지를 일반인민에게 알려야 한다. (1912.10.23)

수원 자혜의원에서 14일부터 의원, 조제원 각 1명을 지방 순회하게 할 것이다. 약병자로 자력이 없어 치료가 불능한 자에게는 무료로 시료, 시약한다. 외에는 규정의 약값을 요구한다. (1912.11.07)

4월 1일부터 수원 자혜의원에서 양성 조산부, 간호부 각 3명씩에 대해 3월 27일 09시에 의원에서 시험을 봄, 희망자는 전 날까지 청원서 및 이력서를 제출해야 함, 자격은 17세 이상 30세 이하 조산부(간호부과), 졸업생도, 간호부과에는 소학교육은 보통학교졸업정도로 채용한다. (1914.03.25)

수원 자혜의원에서 본년 1,2월 의무성적표를 조사해 도청에 수보했다. 1월분 보통환자 일본인 343명, 조선인 19명 시료환자 조선인 1,512인, 환자의 입원료는 120원 55전, 수수료는 55원, 약값은 144원, 99전, 2월분 보통환자 일본인 290명, 조선인 33인, 입원료 170원 50전, 수수료 30원 5전, 약값 143원 1전(1914.05.03)

수원 자혜의원에서 출장한 순회진찰은 4~10일 인천 조선인 상업회의소 2층에서 일반에게 무료 진찰을 실행한다. (1914.05.05)

수원 자혜의원의 4월 의료 사무 성적은 보통환자 일본인 314명, 치료 일수 1,116일, 조선인 49인, 치료 일수 255일, 시료환자는 일본인 4명, 시료 일수 40일, 조선인 2,362명, 시료 일수 151,785명이다. (1914.05.17)

수원군 남수리 백성기의 집에서 발생했다. 수원경찰서에서 출동해 엄중히 소독해서 전염을 예방했다. (1916.03.09)

수원에서 콜레라 예방을 위해 임시청결법을 실시했다. (1916.08.29)

30일 밤 수원 정거장에서 콜레라 환자를 수원예다가 풀어놓는다는 유언비어가 돌아, 성난 민중들이 헌병대에 찾아가 “경성 사람만 사람이고 수원 사람은 죽일 생각이냐”며 달려들었다. 한편 송원(松元) 경찰서장은 콜레라 환자 수용소를 순찰하며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서장과 경부, 군수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서에서는 현재 수용소 억류자들의 대변을 검사하고 있으며, 억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구류하고 있기에는 힘이 부치기 때문에 대변 검사 후 해방하기로 결정하고, 그 검사 결과는 각지 경찰서로 통지하기로 결정했다. (1916.09.02)

각지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였기에 24일 오전 4시에 수원공립보통학교내 관민 수백명을 소집해 본군수, 경찰서장, 자전의원장의 위생 주의와 예방에 관한 강의를 한다. (1916.09.27)

수원군 자혜의원의 1917년 4~6월 순회 진료 상황은, 보통환자 일본인 2인, 조선인 1인, 시료환자 조선인 1,667인이다. (1917.08.05)

수원군 자혜위원의 1917년 4월부터 6월까지 외래환자 상황은, 보통환자 일본인 2,466인, 조선인 3,952인, 시료환자 5,822인이다. (1917.08.05)

수원자혜의원에서 조산부와 간호부와 생도를 모집한다. (1917.09.12)

수원자혜의원에서는 조산부와 간호부의 과생도를 모집한다. 각과 두 명씩은 학비를 주겠고, 지원 자격은 신체건강, 품행단정, 신분 확실한 17~30세 여자다. (1918.09.14)

각지에 독감이 유행했다. 수원의 경우 일본인 환자는 백여 명, 조선인 환자는 1500명에 달했다. 또한 매일 6~7명의 사망자를 보인다. (1918.11.07)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에서는 '수원사건'(3.1운동-인8자) 중·경상자 치료를 위해 총독부 의원에 교섭 위탁하여 21일 밤에 상원부 의관 외 적십자 간호부 5명을 임시 구호원으로 출동케 하여 주야로 부상 환자 진료에 종사하는 중이다. (1919.04.25)

수원경찰서는 12일 오전 관내 의사, 의생과 약제사 합숙 29명을 모아 서장이 전염병 예방에 대해 훈시를 했다. (1919.08.17)

수원군에 전염병이 유행하여 장티푸스로 사망한 자가 남자 2명, 여자 2명, 자혜의원에 입원한 자 3명, 발진티푸스로 입원한 환자가 5명, 이질 환자가 2명이다. (1919.09.26)

5일 오후 10시 53분 남대문발 대전행 38호 열차가 병점역에 도착했을 때, 30세 쯤의 조선인 여자가 천연두에 걸린 환자 한 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열차는 성환역에 도착하기를 기다려서 차안 및 승객을 소독하였고, 이로 인해 일대가 매우 혼잡했다. (1920.04.08)

수원군 음덕면 남양리에서 9월 3일부터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 사망자가 13명에 달하였다. (1920.09.10)

각종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임으로 이에 주의를 요하기 위해 사립 31학교 내에서 위생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922.04.23)

구한국시대 수원 유수 청사에서 경영하던 수원 자혜의원은 작년 5월 수원군 각 지방 유지의 노력으로 공비 78,000여 원의 거액을 들여 올해 5월 준공되었는데 신축건평 수가 244평이다. (1924.08.28)

2월 7일에 수원군 음덕면 장전리에서 장티푸스 환자 15명이 발생했다. (1925.02.15)

한 사람의 부친이 피부병에 걸렸는데,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먹였더니 나았다고 피 부병에 걸리면 인육을 먹이라고 전파를 하였다. 수원서에서는 이를 듣고 그 사람을 잡아들여 인육은 피부병에 효과가 없다고 과학적 설득을 하였다. (1926.05.10)

수원의 홍열환자는 현재 10명이다. 토문 기사土門技師의 조사에 의하면 병이 만연할 염 려가 있어서, 도의 위생과에서 수원 소재 학교 생도의 희망자 800명에 대해 2월 2일 부터 1개월간 예방주사를 접종하기로 했다. (1928.02.02)

43) 유치운동

수원군 양감면사무소는 서쪽 신왕리에 있는데, 경관 주재소와 함께 동쪽 사창리로 이전 신축기로 내정되었다. 사창리 등 4동 주민은 찬성하고, 신왕리 등 4동 인민은 반 대가 맹렬하다. 면장(이광우) 등 면 직원은 대부분 동쪽에 거주하여 이전에 찬성하며 민의 비난이 없게 총사직하겠다고 한다. (1927.07.15)

44) 유희

26일 철도국 주최의 수원관광열차는 승객이 1,500여 명으로 성황을 보였다. (1912.05.28)

수원 화령전 앞뜰에 작약이 만발하여 완상하기 좋은 시기이므로 수원군 풍화당 기로 耆老 등은 6월 13일 정오부터 작약회를 개설한다. (1915.06.13)

매일신보 주최로 4월 24일 500명의 일행이 수원에서 관앵회를 했다. (1921.04.26)

45) 인쇄-발명

수원 용주사 승려 이응섭(38)은 잡지 발간 중 동판 자급의 필요를 느껴 연구한 결과 각 신문사 동판부에서 쓰는 동판 제조 방법보다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이 덜 들며, 위험이 적고, 성적이 양호한 전사식轉寫式 동판술을 발명했다. (1927.09.05)

46) 일본어, 일선동화

수원군에서 최근 일본어 무료강습회가 열려 20여 명이 참가했으며, 각 면장의 권고 아래 매일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다. (1916.09.29)

5월 25일에 수원 풍화당에서 작약芍藥 관람회를 개최했는데 회원 244명이었다. ‘내선관민 간친회’를 겸행했다. 대정친목회 이사(최강)의 ‘금번 소요에 대한 일반의 오해와 내선인간 금후 융화에 대한 담화’가 있었다. (1919.05.29)

47) 자위단

수원군 송산, 서신, 우정, 장안 4면에 자위단을 조직했다. (1919.07.01)

48) 자작농

자작농민보호의 총독 훈령에 따라 수원군에서 자작농민보호장려조합을 조직했다. 수원군내 자작농과 자작할 소망이 있는 농민으로써 조합원을 삼은 이 조합의 조합장은 도참사 김정식이고, 이런 조합의 출현은 수원이 효시이다. (1913.01.01)

49) 잠업

수원권업모범장 부근에 사는 한 젊은 부인은 새로운 잠종蠶種을 사양飼養하여 수익이 18원이다. (1911.10.22)

덕리 면내에 양잠조합은 지난달 25, 26일에 공립보통학교에서 견품평회를 개최했다. 출품자 29명, 1등상 1명, 2등상 7명, 3등상 9명, 4등상 6명, 모두 개량종을 사육했고, 재래종 사육자는 수상하지 못했다. (1912.07.16)

저해가 많아 수건 중에 중하등의 건이 많고 4명부터 강우가 빈번해 자연 수건량이 감소했다. (1912.09.10)

팔달 산우회에서 지난 달 14일 은사수산장 내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함, 출석회원 70여명, 결의 안건은 회비로 주요 양잠도구 200매, 가지치기 가위 20개를 구입해 회원에게 분배했다. (1914.04.02)

용산에 있던 여자잠업강습소는 수원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강습소 직원들도 같이 떠나며 그것을 위한 송별회가 열린다. (1914.11.12)

수원, 남양 2개소에 잠견 공동판매소를 설치하고 도청 인허 상인 5명이 입찰하여 낙찰되었다. (1915.07.01)

수원에 있는 여자잠업강습소 12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졸업생 수는 25명이었다. (1922.01.26)

50) 재해

지난 9일 수원군 농림학교 기숙사에서 불이나 집 한 채가 타는 것을 다음 날 새벽에 잡았다. 집수리하는 중 온돌을 놓고 불을 때자 불기운이 기둥과 천장에 번진 것이 원인으로 손해는 2,000원에 달한다. (1912.08.15)

수원과 진위 2군의 남부는 금년 가뭄이 격심하여 소채蔬菜는 전부 고갈하여 수확이 거의 없고, 벼도 이삭이 나지 않은 것이 다수이다. 지방농민은 13년래 미증유의 가뭄이라 한다. (1913.09.30)

미증유의 호우로 인해 수원에서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어 올해 농황상황은 좋지 않다고 한다. (1916.09.17)

수원 화홍문 밖 잠업소에서 잠실 소독 중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소독약의 배합으로 추측하고 있다. (1918.05.10)

수원군에서는 군수, 서장, 면장, 군참사, 조일인 유지 수십 명이 성 밖 십 리 되는 사직당社稷堂에 가서 8월 21일 밤부터 24일 밤까지 기우제를 지냈다. 26일 새벽부터 5일 동안 내리 비가 내려 아주 흡족했다. (1919.09.03)

9월 3일 오후부터 일어난 폭풍우로 수원에서는 수목이 절도絶倒되고, 가옥 장벽 등이 약간 파손되고 별로 큰 손해는 없다. (1919.09.07)

오랫동안 가뭄이 심해 금년에는 조선 전도의 보리가 아주 큰 흉년인데, 특히 수원 이남은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모양이다. 보리가 흉년이면 쌀과 잡곡의 시세에도 영향이 미치는데, 쌀은 보리가 흉년이 들 거라 예상이 되어 시장에 많이 나와 가격이 조금 내려갔지만, 잡곡은 작년 흉년에 이미 영향을 받아 가격이 일절 내려가고 있지 않다. (1920.05.21)

경기도에서 종인種粃 중에 적미赤米 제각除却에 관해 장려중이다. 수원군에서는 그 선출한 적미량을 조사중인데, 현재 약 20석의 선출을 보았다. 이를 벼 1홉 중에 50개로 보면, 총량은 실로 1천 6백석에 달한다. 용인군도 현재 약 10여 석이고, 기타 안성, 진위군도 조사중이다. (1921.05.14)

4~5일간 쏟아지는 비로 인해 경부선의 수원으로부터 군포까지의 기차길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기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 (1922.07.30)

시흥군은 침수된 가옥이 25호로 인민들은 교회당으로 피난을 갔고, 수원은 26호가 침수되고 8명이 실종되었다. (1922.08.01)

수해를 입어서 파괴된 수원과 군포사이 선로를 복구하였으나, 다시 쏟아진 비에 또다시 파괴되었다. 이를 고치려면 8~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22.08.03)

이번 수해로 인해 각지의 농작물 피해도 적지 않은 모양인데 아직 교통과 전신의 불통으로 자세히는 알 수 없다. 한강 연안의 각 군과 수원, 평택 등은 밭과 곡물에 막대한 손해가 있었다 한다. (1922.08.05)

51) 저축

수원군에서 저축조합을 조직했다. 조합원으로 하여금 제승製繩, 제혜製鞋, 제립製笠, 제연製筵 사무를 실행하고 제조 물품을 매월 1회씩 매각하여 그 대금을 저축하는 것이다. (1911.11.29)

김정식 등이 발기해 여재를 저축했다가 산업자금, 재해구제에 쓸 목적으로 조직한 수원 저축조합 회원은 부업으로 노끈, 신, 대자리, 삿갓을 제조해 매월 1회씩 모아 판매한 대금을 우체국에 저금한다. (1912.01.13)

저축조합 조합원들은 집안일에 힘써 헛되이 쓰는 경비를 줄여 매월 초하루 20전 이상의 저금을 하며 조합장은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우편국에 저금하고, 조합원 중 저금을 찾아 쓸 필요가 생기면 조합장의 인허를 얻은 후 지용하게 한다. (1912.03.01)

공향면 발안장터에서 근검저축의 풍속을 양성하고 천재지변과 기타 운환에 대해 충용할 목적으로 저금조합을 조직한 후, 면장으로 조합장을 선거했다. (1912.03.01)

52) 적십자

수원군수의 노력으로 적십자사원을 모집했다. 신입 사원이 323명, 특별 사원은 김정식, 홍민섭, 양성관이다. (1915.09.02)

53) 전기, 전화

수원전등회사 전기공사는 근일 낙성되어 26일에 체신국 기사가 출장하여 공사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후 면장狀을 교부하면 연내 영업 개시할 것이다. (1913.12.27)

수원 전정회사는 기초공사의 불완전으로 지난달 9일 전기건조물의 사용을 정지, 고전상회에서 수리 중인데 거의 완성되어 어제 전기공무과장 등이 출장검사 후 22일부터 점등 허가했다. (1914.02.24)

수원전기주식회사는 수원에 거주하는 일본인, 조선인 유지가 30인이, 수원의 발전을 위해 건립한 회사이다. 자본금은 6만 원이다. 780주는 발기인에게 인수주引受株 하였

다. 1912년 3월 5일에 사업을 인가받았다. 주식 1주에 50원으로 주권발행에 착수했는데, 당시 경제가 부진하여 제사업에 대해서는 일장이 불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사의 기도企圖에는 다수의 찬동을 얻어 주식모집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확실하기 때문에 당지當地에서 그 대부분을 인수했다. 합자회사 고전상회高田商會가 제1 주주가 되어서 최근에 창립총회를 열었다. 최근에 사업이 잘되어 주식을 6주 이상 배정할 예정이다. (1916.02.29)

수원전기주식회사에서 연료 양등으로 종래 6촉광 80전, 10촉광 1원 10전하던 전등료를 11월 1일부터 각각 10전씩 증가增價하여 개정했다. (1919.11.11)

경기도 수원 우편소에서는 28일부터 전신전화 사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914.12.24)

54) 점원

수원성내 일본인 유력자들이 고인雇人장려회를 조직하고, 점원의 정신 교육, 오락 기관 설비를 도모했다. (1913.05.10)

수원군 성호면 가장동 박덕영은 1912년 경성 본정3정목 그리스인 경영 연초상점에 점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그만두고 단독으로 영업을 하게 되었다. 다년간 근로 위로로 5백 원을 받았다. (1917.03.17)

55) 종교

양상 경성 별원 포교사사의 소개로 수원부 용주사 법무원 김창해(36)는 일본 조동종 대학에 입학함, 매월 용주사에서 학비를 보냄, 한문 구독을 연습하고 고문은 대학 내 교수로부터 지도 받는다. (1914.01.27)

영국성공회는 수원 등 60여 곳의 교당과 부속 학교가 20여 곳, 조선인 남녀 합 교인 6,000여 명이다. (1914.01.28)

전승기도회를 각지에서 실행하였는데 수원의 용주사에서도 일본인과 함께 9월 1일부터 시작했다. (1914.09.14)

수원군 문묘에서 춘계 석전제를 거행했다. (1919.10.08)

수원에 있는 각 불교계는 ‘내선 융화’를 목적으로 불교청년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3월 5일 창립위원회를 개최했다. (1921.03.05)

수원 용주사 주지(강대련)는 포교하기 위해 수원 성내 남수리 92번지 1,130여 평되는 터를 매수하여 약 1만 3천여 원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상량은 4월 18일이다. (1921.04.16)

수원에서 춘계 석전제를 거행하였는데, 제사인원은 관민 약 10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1922.03.03)

수원성 남수리 대본산 용주사 포교당에서 수원 불교 여자회 총무, 포교사 외 다수의 발기로 9~11일 보살계단을 열었다. 남녀 신도 천여 명이 회집, 관민 유지 다수가 내빈하고 관중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924.06.14)

56) 지방제도, 지방사무

수여면 면장 정규한은 11일 기원절에 면 내 인민에게 일장기를 게양하게 하여 경축의 뜻을 표했다. (1912.02.13)

군청에서 읍내에 모범면을 창설해 제반 양식, 사무취급은 군청 사무를 모방해 서무, 세무, 민적으로 사무 종류를 나누고, 면장, 지역 관리원은 반드시 면사무소에서 사무를 집행해야 한다. 문서의 접수발송, 예규, 서류 정리 등은 일본 부역장을 모방해 면장 협의회, 각 면장 등이 해당 사무소를 시찰해 지도를 받는다. (1912.05.30)

부제 시행에 따라 개성, 수원 등의 시가지 정명을 변경하게 되어 4월 1일 부고시로 발표했다. (1914.03.31)

치장면 영통리 오덕영이 백미 60두를 마을에 기부해 마을 소유 재산의 기본이 설립되었다. (1914.06.26)

수원군에서 22일부터 3일간 군청 부근 풍화당 안에서 21면 사무의 각종 문부文簿를 진열하여 강평회를 개최했다. (1917.03.24)

수원군 각면 문부강평회 결과 1등은 성호면, 2등은 장안면이다. (1917.03.30)

수원군 음덕면장 김현준은 각 이장 및 여러 명을 불러 모아놓고 엄중히 경계하고, 기독교도와 천도교도를 불러 모아놓고 '만일 소요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선동한 줄로 관헌에게 급고하겠다'고 통고했다. 소요가 진정된 뒤에는 각 이장을 면역소에 불러 모아 '이번 납세기한 안에 납세를 안하는 사람은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납세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통고했다. (1919.05.03)

수원군 수원면은 지역이 협소하여 일형면, 안룡면의 일부를 편입하고자 하나 시가지 세 부과문제로 쉽지 않다. (1921.03.05)

22일이 수원군 도 평의원 개선기이다. 후보자 출마자가 20여인으로 유력자는 최남, 한상봉, 이한승 3인으로 최남은 각 면 협의원으로부터 유지들의 추천으로 공인 후보자로 지정되는 중이다. (1924.03.16)

57) 지주

수원농사장려회(지주회)에서 5월 19일 공립보통학교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3백여명의 참석자가 있었고, 회장 군수의 1920년도 사업보고가 있는 후 19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총액 5,361원에 관해 협의했다. 도기수가 임석하여 적미 및 직궤 제각에 대해 강연했다. (1921.05.24)

58) 청년

수원 남양청년회에서 이번 총회 결의에 의해 남양엠티청년회로 개칭했다. (1921.12.18)

59) 체육

수원군에서는 백중놀이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성내 시장에서 씨름대회를 연다. 어

큰씨름에 1등은 농우農牛 1마리, 총각씨름에는 광목 1통을 시상하기로 결정했다.
(1917.09.05)

수원군 공립 심상고등소학교에서 10월 17일 본교 운동장에서 추기秋期 운동회를 개최하고 40여 종의 운동을 거행했다. 관람자가 인산인해였다. (1917.10.19)

수원군 청년운동부에서 6월 28일 오후에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는데, 50여 인이 참여했다. (1919.07.01)

10월 18일 소원공립 심상소학교에서, 20일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 추계 운동회를 개최했다. (1919.10.24)

60) 축산

수원 권업모범장에서는 가축 중 양을 개량 번식을 위해 몽고양 51두를 구입, 전염병의 유무를 20일로 한정하고 검사, 기일이 25일이므로 26일에는 몽고양을 강원도 선포 목양장으로 송부할 것이다. (1914.04.25)

수원군청에서 축산조합원이 사양飼養하는 우량우 중 1개년간 사양 성적이 양호한 소 45두를 선택한 결과 도청 포상장이 있으므로 11월 30일에 상장전달식을 거행했다. (1915.12.07)

1917년 11월 수원군 축산조합 조합원수는 8,633명인데, 1916년도에 비해 169명 증가이다. (1917.11.21)

수원축산조합은 1월 23일 축산 공로자(2명), 면 수의생(2명), 종모우 사양자(3명)에게 상장과 기념품을 수여했다. 1월 26일에는 우시장 중개인 약 80명 중 우량한 자에게 표창했다. (1929.01.29)

61) 친목회

수원에 있는 기생 일동이 지난 20일에 봉녕사에서 친목회를 열고 노래와 춤을 추며 공연을 했는데, 관람객이 무려 수백 명에 달했다. (1916.03.23)

수원농림전문학교 교우회가 수원학보(제16호)를 발행했다. 선종選種 시비施肥와 학리學理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1921.11.04)

62) 태형

수원성 외시장 두감 유수업이 김갑수의 소지한 백미 5두 5승을 절취하다가 경관에게 발각되어 장형 90대에 처했다. (1916.02.04)

수원의 13세 된 김춘정은 지난 10월 17일 밤에 경찰서의 부속 건축물을 헐고 개를 훔쳐 1원 20전에 팔아먹은 일이 발각되어 태형 90대 처벌을 받았다. (1916.12.20)

63) 토지조사

수원의 토지조사는 45일 전부터 착수했는데, 서기관佐佐木이 2월 13일 수원에 출장하여 면·리·동장 등 약 2백 명을 소집하고 토지조사에 관한 일체 사항을 훈시했다. (1911.02.16)

64) 포상, 표창

수원군수 김관현金寬鉉이 일용면에 사는 권모의 부인 김소사金召史가 열행을 했으니 포상하라고 경기도청에 보고했다. (1910.12.22)

수원면장 박세양에게 도청에서 포상상과 은칙 시계 1개를 하부했다. (1914.06.27)

수원의 이계웅은 작년 3월부터 부친이 병이 나서 약도 듣지 않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에 그는 자신의 다리를 갈로 베어 아버지께 먹였더니 병세가 줄고 쾌차하였다. 이에 마을에서는 표창하였다. (1922.05.02)

65) 품평회

수원군 농사장려회 주최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 농림산물 품평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백일장을 뒀다. (1921.11.07)

8군 연합품평회를 앞두고 경성 철도국에서는 평택-토성 사이와 오류동-인천, 서빙고-연천은 각 정거장으로부터 수원으로 가는 왕복 승차권에 대해 2,3등을 통해 2할 인씩 한다. (1923.11.08)

수원군 등 8군 연합품평회가 11월 15일 수원공립보통학교 안에서 개막했다. 보통 출품물 4천 점, 그외 참고품 등이 진열되었다. 오전 중 수천명의 입장자가 있었다. 수원군교육회 주최 교육전람회도 같이 열렸다. (1923.11.17)

66) 해충, 해조害鳥

수원군 반월면과 일형면에 부진자浮塵子가 발생하여 면민을 다수 회집하고 응급 구제를 실시했다. (1915.08.20)

수원군지방에 까마귀가 떼를 모아 다니며 지저귀는데, 밤낮 구분이 없다고 한다. 그곳 노인들은 “갑오년(1894년)과 병술년(아마 1910년 경술년의 오기인 듯-인용자) 같은 해에 밤까마귀가 지저귀더니 금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다 한다. (1921.03.15)

수원 권업모범장 곤충부에서 주요 농작물과 과수류의 병충해와 살균·살충제의 연구에 치중했다. 최근 ‘싱크히’충과 ‘볼도’액 등에 관한 3연구를 마치고 근간 발표될 것이다. (1927.04.27)

67) 행사

이번 가을 행할 대상제에 조선에서는 신곡을 헌상하기로 결정함, 총독부에서 수원권업모범장을 헌곡 경작지로 지정함, 헌곡은 정미 1승 밤5합, 일반농작물과 동일하게 경작하고 제초는 4차, 5차까지 행하고 일정한 계절에 이를 베어 가을 후 1립씩 정선했다. (1914.02.27)

수원에서 천장절 축하회를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개최했다. (1916.11.02)

입태자식 당일에 수원에서는 공립고등, 소학교에서 오전 9시부터 관민 수천 명이 모

여 입태자식을 봉축했다. 참가인원은 백여 명에 달했으며, 조선인 기생 20여 명과 일반인민이 제등 행렬을 거행했다. (1916.11.05)

2월 11일 기원절을 맞아 수원공립보통학교 안에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영眞影 배하식을 거행했는데, 군수 이하 도·군참사, 유지, 학생 일반이 참석했다. (1917.02.14)

매일신보에서 수원관앵대회를 열었는데, 회원장은 각기 여러 처소에서 발매한다. 가격은 대인이 1원 20전, 4세 이상의 어린이는 60전이다. (1920.04.23)

1월 1일 수원 관민 3~4백 명은 공립심상소학교에서 신년 축하연을 거행했다. (1921.01.08)

수원군의 주최로 백일장이 개최된다. 관내 사람들은 물론 지방에서도 참가자와 관객의 수는 많을 것이다. (1922.10.24)

68) 현미

수원군에서는 지방비로써 현미 조제 기구 20조를 수원군 관내 독농가 중 1년에 현미 50석 이상 조제할 자에게 매갈이 구터, 당키, 만석萬石 각 1조씩 하부했다. (1917.02.11)

69) 회사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향산흥외 15명이 신청한 조선중부철도회사 설립의 건은 상호를 경남철도회사로 변경을 신청하고 허락받았다. (1920.03.29)

8. 시흥, 과천, 안산

1) 교육

교장 강인규 부교장, 대응 교사 김사순, 재교장 이수, 학감 이종현, 사교장 정교택

의 과천군 남면과학고는 해면산 본동에 옮겨 설치한지 10개월에 학도가 5명이다.
(1910.09.24)

과천군 사립 낙영학교는 부근의 면촌의 사람들이 기부하여 설립된 지 3년째인데 교장 정인흥(鄭寅興), 부교장 조동우(趙東宇)의 열성과 교사 한용구(韓用球) 조희용(趙熙庸)의 가르침으로 졸업식을 하게 되었다. 졸업식 참여자가 수백명에 달했다. (1910.12.20)

안산군수(조중은)는 안산공립보통학교 교사(校舍)가 좁아 곤란이 있으므로 향교를 교사로 사용하겠다고 도청에 품청(稟請)했다. (1911.01.07)

호계 내촌 이난현, 최●구는 일반 노동자의 지식 계발을 위해 노동야학교를 최●구 집에 설립, 노동자에게 한글과 한문을 수업한다. 일본어도 교수하고자 하며 경비는 이난현이 자담한다. (1912.01.09)

시흥군에서 교육에 관한 제반의 조사 연구 및 협의를 행하며 겸하여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군내 공사립학교 직원, 교육관계자 및 일반 유지로써 조직한 시흥군교육회는 16일부로 총독으로부터 인가되었다. (1921.12.25)

시흥군에서는 군자면 거모리에 군자공립보통학교를 설치코자 인가신청중 8월 6일 인가지령이 있었다. 10월 1일부터 개교할 예정으로 건축공사에 분망중이다. (1923.08.11)

2) 교화

면장 변정기는 관하 각 이장에게 권유해 선금을 일체로 보내고 매일신보를 청구했다. (교화)(1912.09.12)

과천군수(서상준)는 60명의 관광단을 조직하여 5월 18일부터 경성을 관광했고, 도장관이 연설했다. (교화)(1911.05.20)

시흥군에서는 26일 밤에 영등포에서 사회개량강습회를 개최했다. 청중은 7백 명에 달했다. (1923.10.31)

3) 세금

과천군 하서면 인민은 납세조합을 설립하고 규칙을 제정하여 참고 차로 경기도 재무부에 제출했는데, 재무부에서 이들 등본하여 각 부군에 발송하고 모범으로 삼도록 했다. (1911.09.30)

과천군 하서면 인민들이 발기하여 납세조합을 설치하고 현재 제2기 주세 및 소작료 납액 고지서를 교부한 지 4일에 전부를 완납케 하여 성적이 우량하다. (1911.11.19)

4) 농업, 둔토

동면 우면리의 이모씨는 일본도종 한충력을 식부했다. 일본의 경작한 재래종은 해충을 입어 큰 손해를 보았으나 한충력도는 피해가 적어 성적이 양호해 부근 인민들이 내년 일절 개량하기로 계획했다. (1912.11.07)

시흥군에서 고구마 2,500관을 수확했는데, 예년에 비하면 1반보에 대해 50관이 증수되었다. (1913.12.02)

고故 이용익이 내장원경으로 재임하던 때에 인천·안산 등지의 민유 전답을 국유지로 편입하여 석장石場 둔토屯土라 하고, 수년간 도조賸糶를 징수했는데, 그곳 인민들이 환추還推 청원을 하여 경기도 재무부에서 실지 조사하고 도로 출급하기로 협의하는 중이었다. (1911.02.17)

5) 동원

군수 한교서는 휴가로 개성군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가 지난달 30일 천황의 승하 전보를 접해 그날 곧 환관한 후, 부하 관리에게 근신 제계함을 명령하고, 각 면 인민에게 대상을 발표했다. 지난 2일에 수백명의 인민이 회하여 조사를 받치고, 각 관리를 회동해 고을 보통학교에서 봉조식을 거행했다. 관민 일동이 슬픈 울고 한 군수의 인도로 동편 하늘을 향해 요배례를 거행했다. (1912.08.06)

과천군 상서면 일동리장(이범환)은 저축 장려에 모범을 보여 약 250호 중 저축할 여유가 없는 호수를 제하고 197호의 실적을 거뒀다. (1913.01.12)

시흥군 참사 조중완은 남면 면장 이규응 외 기타 면장과 협력하여 면민에게 경거폭동(3.1운동-인8자)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설유하고, 매일 약 5백 명의 인부를 사역(使役)하여 군포장에서 수원군 반월면에 이르는 사이의 등외 도로 공사를 준공했다. (1919.04.25)

6) 관리 부정

상북면 면장 전봉오를 개차하기로 결의한 면내 인민 70여 명이 서명날장 후 면장의 불법행위를 들어 도청에 청원서를 제출함, 호수를 조사할 때 극빈자로 면제한 4호에 대해 증수를 계속하고, 천학봉(방배리) 토지 증명 1건을 신청했는데 면장 수수료라 가칭하고 4원을 징수, 공곡 사환미를 매년 각리에 쌀 2되씩 징수, 인민이 7되를 도로 찾았으나 그 나머지는 주지 않음, 관청 직원이 출장해 사무소에 유숙할 때는 밥값, 비용을 출자원에게 영수하고 또 면민에게 재징수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1914.02.24)

7) 해충

과천군에 해충(害蟲)이 발행하여 농작물 피해가 적지 않다. (1911.09.02)

8) 공진회

시흥군 관람단 270명은 13일 경성에 들어왔다. (1915.09.15)

9) 구휼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원곡리에 사는 전 판서 윤●가 같은 동네에 사는 50여 빈호(貧戶)들에게 양목(洋木) 10척과 차일(差日) 1척을 기부했다. (1916.02.06)

시흥의 조건호는 추석 명일을 계기로 마을과 이웃마을의 빈민 42호에 대해 매집마다 백미 5되씩을 나누어 주었다. (1918.09.29)

시흥군 군자면 초지리 이원황은 한해(旱害) 구제회 발기인에 자원하고, 조 50포대를 내어 빈민에게 나눠주었다. (1919.12.20)

10) 군대

안양근처에서 기동연습이 열렸다. 기동연습은 조선에 있는 군대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러 여단이 모여 진군하고, 대항하며 싸우는 연습을 보일 것이다. (1918.10.30)

11) 맹수

시흥군 동편 관악산에 11월 초순경부터 늑대 무리가 배회하여 아이 4명이 사상死傷당했다. (1917.12.11)

12) 미신

안산군 북방면 팔곡리의 김성녀(52세), 이성녀(51세), 김요한(60세), 황철연(18세)은 황씨의 아내가 실진한 것을 야소교에 기도하면 낫는다하여 황씨의 아내를 결박하고 나흘을 기도하다가 죽어 벌금 100원에 처했다. (1912.05.21)

북방면 예수교 신도 송철분(22세)이 지난달부터 미친 병이 들어 가족들이 다른 신자 이영운에게 부탁해 4일 동안 기도했더니 낫는 듯 하여 다시 그 신자 외 4명에게 위탁해 기도를 요구함, 이씨가 병자를 3일 동안 굶기고, 귀접했다며 몽둥이로 때려 죽었다는 말이 있어 경찰서에서 사실을 조사하는 중이다. (1912.04.07)

13) 부업

경기도 시흥군에서는 조선인들의 부업을 장려하고자 세공細工과 입연吹簫등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당초에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종래에는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전 호수 60호 내외 중 24개가 계를 맺어 7백여 원의 수익을 얻었다. (1916.03.15)

14) 산림

(시흥군수(나기정)는 양반 유생 은사금을 받은 자들을 인솔하고 향교 소유 산판山坂에 올라 백여평 되는 땅에 역목櫟木 5,340주를 기념으로 심었다. (1911.12.07)

15) 산업장려

시흥군 주최로 9월 26일부터 북면을 위시하여 산업강화회를 각 면 순회 개최 중이다. 강사는 군수, 권업과장, 각 과 기수拔手이다. 종목은 1. 임업공로자 표창, 2. 온돌 개량 강화회, 3. 농업강화, 4. 송충이 구제 추첨 시행, 5. 환등 영사, 6. 여흥 등이다. (1923.10.02)

16) 소송

시흥리 이관용은 조선, 일본인 변호사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하고 경성 무교동 운현궁 이준공 을 피고로 삼아 토지소유권 확인, 도급증명 말소 청구 소송을 제출했다. (1914.03.19)

1926년 11월 6일 시흥군 남면 금정리 한늬봉(32)이 군포장리에서 종로3정목 안상호의 마름(곡강마태랑)을 참살한 사건에 대해 2월 17일 재판이 개정되어 사실을 심리했다. 한늬봉이 안상호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그의 산림에 가서 나무를 베어가므로 곡강마태랑이 소작권을 빼앗아갔고 한늬봉이 여러번 애원했으나 죽인 것이다. 한늬봉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곡강마태랑이 때리려는 것을 낫을든 손으로 막다가 실수로 목을 찢려 죽이게 된 것이라 했다. (1927.02.19)

17) 송덕

시흥군 수암면 하상리 문영석(60), 능곡리 조덕준(46)의 공덕을 표창하기 위해 장상리 김성진 등 19동리 구장들이 각기 3원 50전씩 모아(합계 66원 50전) 능곡리에 불망비를 세웠다. (1921.06.17)

18) 식량

안산군 인민 5백여 명이 1911년 봄부터 식량이 떨어져서 나무껍질을 먹는 상태였다. (1911.05.17)

19) 신분제

시흥군 군자면 성곡리 윤종학(26)은 숙부(37)가 양반의 신분으로 무당 노릇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신당에 방화하여 100원의 손해를 입혔다. (1923.04.26)

20) 연초

시흥군 엽연초 경작자 1천 5백 명은 1920년 봄 파종 후 수해로 평년에 비해 3할 5푼의 감축을 보았다. 또 1921년에 들어 판로가 두절되고 가격이 점락하여 3만 남짓의 엽연초가 창고 내에 적치된 현상이다. 일반 경작자는 생활난과 기업난에 빠져 있다. 경작자 일동은 연초전매국 설치의 기회에 즈음하여 이를 상당한 가격으로 매상하거나 또는 기타 하등의 방법으로 1천 5백여 명의 생활난을 구제해 달라고 경작자 대표자의 명의로 총독부에 상제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1921.04.07)

21) 우역

시흥 동면 읍내에 지난 4일부터 ‘탄저’ 전염병이 유행해 며칠 동안 소 7, 8마리가 병사해 경찰부 위생과에서 예방주사를 실시할 것이다. (1924.08.15)

22) 자작농

시흥군에서 자작농 보호를 위해 각 면에 민산보호조합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 중 토지를 매각하려는 자가 있으면 그 이유를 조사하여 생계 곤란 또는 타인의 유혹에 인함인 경우에는 조합에서 저리자금의 융통과 기타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 구제하기로 했다. (1913.01.07)

시흥군 민산보호조합에서 호戶 경비제한규약을 제정했다. (1913.03.13)

23) 재산

시흥군수(나기정)는 관내 인민에게 소유 산판山坂의 지적地籍 보고를 기한 내에 하도록 고시하고 그 실행 결과를 경기도청에 보고했다. (1911.01.29)

24) 재해

시흥군 내서면의 안양천 하류가 관통해 매년 출수 때 부근 민가의 피해가 많아 천연 암에 나무를 심어 수해를 방지할 계책으로 면장이 면민과 협의한 결과, 각 호에 인부 1명씩 출역해 연장 2리 여의 천연암에 어린 소나무 1만 5천 본을 심었다. (1912.05.22)

호우에 의해 안양과 시흥 사이의 경부선 철도가 물에 잠겨 미증유의 피해를 입었다.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도저히 기한내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916.09.13)

호우에 의해 안양과 시흥 사이의 경부선 철도가 물에 잠겨 미증유의 피해를 입었다.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도저히 기한내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916.09.13)

시흥군의 가뭄 피해는 수도 6할, 육도 10할, 조 5할, 콩표 7할, 소채 5할, 면 3할이다. (1919.08.13)

시흥군은 침수된 가옥이 25호로 인민들은 교회당으로 피난을 갔고, 수원은 26호가 침수되고 8명이 실종되었다. (1922.08.01)

25) 지방제도, 지방사무

시흥군에서는 인민의 빈부에 따라 곡물穀物 몇 말 또는 몇 되씩 모아 비상시에 공공 상에 사용하기로 규약을 제정했다. (1911.04.20)

참사 이연철은 지방자산가로 학부형회를 개설해 학심의 진흥을 노력하고, 권업 장려와 도로수축 등에 대해 감독지도하고 지방인민에게 법령을 알려주고 경찰처벌규칙 2백부를 구입해 서면, 남면에 분급해 범과치 않도록 주의시켰다. 군내면 시흥리에 사는 김귀희⁽⁶⁷⁾는 가난했으나 중년 이래로 매일 일찍 일어나 초혜 1족씩을 만든 후 농업에 종사한 결과 지금 수천 원 자산을 이루었다. (1912.12.17)

시흥군 신북면장 강심수는 올해 3월에 피임한 이래로 재산만 탐하며 면 행정 사무에는 주의하지 않고 악덕한 행위가 많아 최근 면민이 일제히 대회를 열고 면장을 불러 성토했다. (1914.06.10)

오는 22일이 시흥군 제2회 경기도 평의회 선거기일이라 군 당국에서 14일 각 국장을 소집해 선거 준비를 협의했고, 이미 출마한 후보자 중 경성 흥업 신탁 주식회사 지배인 이해선이 최고 우세한 듯 하다. (1924.03.18)

26) 축산, 축산조합

시흥군 개량돈종 농가 사육호수 66호에 요크셔종, 바크셔종 암수 새끼 208두이다. (1913.05.30)

시흥 축산조합에는 관례상 국유초생지 또는 제방 등에 동민이 단체적 축우를 방목한다. (1914.05.01)

시흥군의 구우계購牛契는 계원이 1천여 명에 달했고, 이 계로 인해 자력이 없는 자가 소를 구입한 것이 100두에 달하므로 이를 감독지도하기 위해 축산조합을 조직하기로 계획했다. (1913.05.11)

27) 해충

9월 이래로 각 산림에 송모충이 번식해 온 산 소나무가 거의 말라 죽어 공립보통학교 학도들로 피해를 목격해 구제의 필요를 확실히 알게 하고 일반 인민에게 매일 약 1시간씩 전후 5회를 구제에 종사케 해 출동인원은 누계 813인, 송모충 17만3,846마리, 견 4,863개를 포획했다. (1912.10.01)

시흥군에서는 5월 22일 군내 보통학교 생도 운동회를 이용하여 소나무 해충 33만 필끈을 구제驅除했다. (1913.06.04)

28) 행사

신무천황제를 하는 날에 경기도 시흥에서 기념 식수행사를 하기로 했다. 여러 직원이나 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심는 나무의 종류는 적송 등이었다. (1918.03.30)

9. 안성, 양성, 죽산

1) 공동묘지

안성군 보개면에 공동묘지를 신설하는데, 적당한 곳이 없었다. 보개면 신당리 유면수가 보개면 적기리에 있는 자기 소유 산야 2만여 평(사가4백원)을 기부하여 면장의 손을 거쳐 군 당국에 의뢰했다. (1917.12.26)

2) 교육

양성군 사립적성여학교 설립자 오흥정이 교사 협소에 따라 객사를 교사로 사용하겠다고 경기도청에 청원했다. (1911.01.10)

교육칙어에 대해 사립덕산학교장은 일본 문명의 연원이 교육칙어에 있으니 이번에 일본인과 동양의 칙어를 공경하여 받들기 때문에 조선인의 건전한 발달이 기약된다고 감상을 이야기했다. (1912.03.06)

덕산면 정촌 사립덕산학교에서 금년 춘기운동을 정지했다더니 22일에 특별히 야외운동을 거행했다. 일반 직원, 학부형, 기타 관광자가 다수 참여해 생도의 교육진보를 칭송했고, 회비는 학부형이 일체 자담해 전무후무의 성황을 이루었다. (1912.06.29)

안성군내 소학교에서 대운동회를 개최했는데, 성황리에 마쳤다. (1916.05.26)

안성군의 관민, 선생등 여러 씨들이 발기하여 안성청년회를 설립했다. 실업상에 불가결한 법률, 일본어, 전기등 여러 과목을 야학으로 청년자제에게 교육할 예정인바, 교수는 안성의 명사들이 맡는다. (1920.04.06)

지난달 22일에 안성공립보통학교에서 제11회 졸업식이 열렸다. (1920.04.06)

안성공립보통학교 교장의 발기로 7월 9일에 교육연구회 조직에 양성 죽산 공립보교직원 일동이 참석하여 임시조직회를 개최했다. (1921.07.15)

안성청년회에서 불취학 아동을 위해 안청학원이란 야학교를 개설하고 남녀 생도 156명을 교육했다. 교원은 안법학교의 직원 5명이었다. 주민(면장의 첩)의 교원 협담으로 직원 5명이 7월 15일 총사직하여 안청학원도 휴교하게 되었다. (1927.07.20)

3) 교화

도일면 면장 현동녕은 매일신보를 청구해 면내 10여 동리가 읽게 하고 신문대금은 자담했다. 면장이 신병이 있어 면장 임무를 고사하자 면내 인민이 원류 신청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 (1912.05.25)

거곡면장 이구순은 각 동장을 권유해 매일신보를 구람케한 후, 신문 대금을 일체 자담해 우선 3개월 선금을 보내고 신문을 청구했다. (1912.06.01)

군청은 관내 인민 지식 계발을 위해 열심히 권유한 결과 각 면장이 본 신보를 청구했다. (1912.07.24)

4) 교통

안성 이택승이 경영하는 보준자동차부에서는 그 노선을 안성군 주천리까지 연장 신청했다. 6월 2일 허가 지령이 있어 5일부터 개통되었는데 성적이 매우 양호하다. (1919.06.08)

안성의 민성기가 경영하는 삼광자동차부는 안성 평택간 승합자동차 운임을 물가 앙등에 따라 종래 1원 20전을 1원 30전으로 인상 신청 중이더니 최근 허가가 있어 즉일 시행했다. (1919.11.13)

안성 대창자동차부는 이번 보개면장(이구순)이 인수하여 봉남자동차부로 상호를 바꾸고 7월 2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전 경영자의 전철을 거울삼아 승객에게 편의를 일층 도모한다고 한다. (1921.07.11)

5) 구휼

안성군 읍내 면장 민영선의 발기로 안성의 재산가들이 모여 한재^{韓在}로 고통받는 빈민을 구제할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중에 소개할만한 것을 말하자면, 이종병 씨는 본래 우수한 재산가는 아니고, 10여 년 전부터 과부로 지내는 여자인데, 현명하고 선하였으며, 공익심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혼자 백미 80두를 기부했다. 적빈자 228호, 총 944인에 대해 작년 연말과 이번 봄부터 구휼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20.02.22)

6) 군대

1월 24일 수원, 이천의 각 1개 중대가 안성군 양성면으로부터 전투를 개시하여 남진^{南進}하고 읍면 북단의 백병전으로 연습을 종료했다. 양^兩 중대에 많은 기증품이 있었고, 읍내면 실업가 박두병은 청주와 기타 기증을 했다. (1917.01.30)

동경 보병 제1연대 소위 홍사익(29세)은 가숙을 인솔하기 위해 4월 26일 고향 안성군 대덕면 소현리에 귀향했다가 5월 1일 아침 동경으로 출발했다. (1917.05.03)

7) 기부

박승욱은 공립보통학교에 밭 416평과 집터 278평을 기부하였는데, 학교에서는 이를 생도들의 실습용지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1918.01.16)

8) 기생

안성에서 근래에 인천과 경성 방면에서 부터 기생들이 이주해 그 수가 급증했으며, 기생들은 2~7명씩 조를 짜서 호객행위를 하는 중이다. (1916.08.15)

9) 납세

안성군 읍내면장(민영선)이 12월 8일 안성공원 안에 관내 인민 수백 명을 소집하고 납세 의무를 설명했다. (1917.12.12)

10) 농업

경내에는 금년에 도종을 개량해 초충력도를 파종했는데 이식한 후로 상해가 적고 생육이 빨라 명충에 저항력이 매우 강함으로 출곡 음지에도 발육이 좋아 본월 상순에 일매가 능히 24본으로 증번하고, 재래종은 겨우 14본에 불과하다. 오는 가을 농사가 잘될 것이다. (1912.08.21)

안성 군청내에서 농사강습회를 개최했다. 군청은 벼의 씨종인 다마금, 외 1종의 5승을 배부했다. (1916.05.13)

안성군 농사장려 삼립보호조합에서 26일 안성군 공립보통학교에서 총회를 개최해 전년도 사업 성적, 결산 보고 후 1924년도 사업 계획안, 세출 세입 예산안을 부의했다. 묘대품평회, 퇴비품평회 수여식, 수원군 외 4군 연합 수도 다수확 품평입상자 상품수여식을 거행했는데 모인 사람은 약 700여명이었다. (1924.02.29)

11) 대금업

안성군 시장 변화^{繁華}에 따라 타지 또는 거주자 중 소액 대금업자가 점차 증가했다. (1917.03.08)

안성 자산가 이한구, 정재● 등은 안성군 장터에 저축계를 조직하고 자금을 준비하여 극히 저리로 농업자금 및 상업자금을 융통한다. (1917.05.03)

12) 대서인

안성군 각지의 대서인^{代書人}이 18명인데, 읍내에 있는 대서인 몇 명이 발기인으로 조합을 조직했다. 조합의 업무는 대서서식, 기타 필요 사건을 연구하는 것으로 한다. 그 수 (1916.08.04)

13) 맹수

10월 5일 안성군 보개면 어년리 평야에 황소같이 큰 산돼지 두 마리가 나타나 촌민

수백 명이 쫓아가 오후 4시경에 한 마리를 때려잡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튿날 삼죽면 남풍리에서 잡았다. (1917.10.10)

14) 미신

안성군 일죽면 화봉리 부호富豪 양기원(42)은 4월 13일에 자신의 집에 찾아온 자칭 여운형呂云亨(양평군 설악면 설탄리)이란 사람의 말에 속아 120원을 주었다. 여운형은 차천자 등극시에 쓸 왕관 값을 바치면 대관大官을 시켜준다 했고, 이 말에 속은 것이다. 그러나 준을 준 사실이 발각되면 차천자에게 해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숨기고, 상해 임시정부원이 와서 돈을 강탈해 갔다고 가짜 영수증까지 만들어 허위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실이 밝혀져 취조를 받게 되었다. (1929.05.04)

15) 부랑자

안성경찰서에서 관내 부랑자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검거를 개시하여 2명을 잡았다. (1917.03.20)

16) 부역

경기도청에서 안성을 기점으로 죽산과 음죽에 개통하는 도로를 확장 수축하기로 결정했는데, 인부는 부근 인민으로 하여금 교체 응역케 했다. (1911.09.22)

17) 광산 사고

경기도 안성군 금광면 장죽리 광부 우재천은 금일 13일 오전 9시경에 금산 갱내 폭약 장치를 동굴 속에서 작업하는 중, 장치해놓은 폭약을 건드려 폭약이 폭발되었다. 우재천은 갱내에서 참혹히 즉사했다. 그날은 동굴 안에 폭약이 설치되어 있어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공지되었으나, 우재천은 남보다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해야 돈을 벌겠다는 열심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하다가, 이와 같은 참사를 당한 것이다. 또한 동일 그 광산의 여러 광부들은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며 하루 동안 휴업하고 장례식을 치러주었다는 눈물겨운 이야기까지 있다. (1928.08.18)

18) 산림

안성군 내에서 산림의 난벌을 막고 수목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보호계를 조직하기 위해 제1차으로 관내 산림 소유자들의 성명을 조사하고 규약문을 작성해 각 면리에 배부하고 설립 준비 중이다. (1916.05.21)

19) 상업

백암장에서 수일 전에 쌀값이 돌연히 폭등되어 1섬에 20여 원에 달해 민정이 극히 시끄럽더니 재작일내로는 3, 4원 가량이 떨어져서 점차 안정되는 모양이다. (1912.07.09)

안성경찰서 주재소 관내 주막의 간판이 일정하지 않아서 금번부터 음식점 또는 숙실 등의 간판을 고쳐 그 규모를 일정하게 하되, 간판을 필히 관내 또는 주재소에 검수를 받은 뒤 달도록 했다. (1916.05.14)

20) 소방

안성군에서 1월 4일 소방 출초식을 거행했다. (1917.01.10)

안성에서는 1월 4일에 소방대 출초식을 했다. 오전 9시에 경종警鐘 1성聲을 들은 소방대 일동은 일체의 소방복을 입고 안성경찰서로 집합하고 경관 일동과 함께 우전牛廐 거리에 가설假設한 화돌장火突場으로 향해 소화의 실습을 행한 후 12시에 공회당으로 가서 내빈 일동과 연회를 했다. 여흥으로 조선인·일본인 기생 등의 노래와 춤이 있는 후 오후 4시에 산회했다. (1921.01.09)

안성군 이죽면 죽산리에서 소방조를 설치하기로 되어 8월 3일 안성서장이 도道 보안과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1927.08.13)

21) 소작인

8월 27일 죽산군청에서 약 7백 명에게 국유지소작인허장 수여식을 거행했는데, 종래 소작권의 불확실함으로 면장 등의 방해점이 많았는데, 인허장으로 소작권이 확실해져서 소작인들이 기뻐했다. (1911.09.07)

1월 17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안성 국유지 소작인조합 총회가 개최되었다.
(1917.01.20)

22) 송덕

안성군 송죽면 이장 5명은 면장 송구현이 애민하고 봉공^{奉公}하여 면내가 평안하다며 매일신보에 칭송 광고를 실었다. (1911.01.13)

23) 수리조합

안성군 금광면 보개면 일대는 광활한 토지가 비옥하나 관개수의 부족으로 가뭄피해가 심하다. 경기도청에서 기술원을 파견하여 수리조합 설치의 적부^{適否}를 조사한 결과 가장 양호함을 인정하여 7월 9일 농무과장이 안성을 찾아 관계 지주를 군청에 초청하고 협의하여 불원간 설치 수속에 착수한다. (1921.07.18)

24) 순사

안성경찰서에서 5월 10일 관내 주재소 및 본서 조선인 순사를 소집하여 통역시험을 시행했다. (1921.05.15)

25) 식목

안성공립보통학교에서는 3일 오전 일반 직원과 생도 일동과 함께 비봉산 학교림에서 적송, 흑송, 아카시아, 밤나무 등을 심었다. (1917.04.05)

26) 농기 싸움

안성에서 두 마을의 농민끼리 싸움이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 이유는 서로의 농기에 대해 능욕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번진 것으로 보인다. (1918.07.24)

27) 야경

안성 군내 각 면리에서 절도와 화재 예방을 위해 각 리에서 2인 이상씩 야경단을 실시했다. (1917.01.10)

28) 여성

안성 여자교육회에서 8월 2일부터 5일까지 강연회를 개최했다. 손메리사의 '가정의 개선', 3일은 성경에 대한 설교, 4일 '여자교육', 5일 '사업 성취와 용기'이다. (1921.08.11)

안성군에서 일반 여자의 품성을 향상하고 지식을 계발할 목적으로 이미 여자교육회를 조직하고 경성 조선여자교육회장(김미리사)과 편집부장(조병화)을 청요講邀하여 3월 7일부터 10일까지 기독교 복음 전도관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매일 남녀 방청자 7~8백명이 참석했고, 일반 방청인은 본 교육회 발전을 위해 적지 않은 금전을 출연하여 찬조했다. (1921.03.16)

안성 군수 부인을 중견으로 한 부인회는 보통학교 여자 교원을 초빙해 야학을 개최, 한글, 일본어를 강습하고 부업을 장려해 경제적 원조, 정신적 원조를 행하며 회원 간의 친선을 계획한다. (1924.08.06)

29) 보건, 위생, 의료

안성 관내 경찰서 주재서에서 인원을 보내 각 면리를 순행하게 하며 처음 종두 주사를 맞는자들은 물론이고 이전에 맞았던 자들 중 불선감不善感자들도 재접종을 해주었다. (1916.05.10)

안성의 안흥의원은 수료手料와 약가藥價를 저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리의 극빈환자에게는 면장의 증명이 있으면 무료로 치료해주었다. (1916.08.20)

수원 자혜의원에서 안성 경찰소 외 건물 공회당 등 장소에서 순회 진료를 개시했다. (1916.09.08)

안성군에 의사疑似 콜레라가 발생되어 병가 부근의 교통을 차단하고 수원 자혜의원에

서 의관이 출장하여 검변檢便한 결과 콜레라가 아님을 판명하고, 15일부터 교통 차단
을 해제했다. (1917.07.18)

안성군 읍내 약방주인 김하춘은 유행성 감기에 걸렸지만, 치료가 어려운 빈곤자에게
약을 주어 구제하겠다고 군의 경찰서소에 청원했다. 경찰서는 약주는 방법에 대해 김
재순 등 두 명의 의사에게 진료한 뒤 병에 걸린 빈곤자에게 시약권을 교부하기로 했
다. (1920.01.16)

조선 각지에 호역이 시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안성에서는 예방을 위해 본월 8일부터
관내에 진조眞爪, 기타 부패한 과물果物등을 도매와 소매를 못하게 했다. (1920.08.16)

안성군에서는 격리병사가 없어 전염병 환자가 생기면 처치함에 곤란이 막심했다. 군
당국이 경찰서에 협의하고 격리병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5월 ●일에 안성읍내 면
역소에서 입찰을 시행했다. 620원에 낙찰되어 곧 공사에 착수한다. 그 재목은 읍내
면소유로 있던 동리東里 구舊 재판소를 파괴하여 석정리에 신축한다. (1921.05.15)

안성군에서는 7월 15일부터 2일간 예정으로 공회당에서 위생강화회를 개최했다. 경
기도청 위생과장 외 기수 1명, 각 면 및 경찰 당국 위생주임자를 소집하여 일반 위생
에 관한 사항을 강화했다. (1921.07.19)

안성군에 모루히네(모르핀) 중독자가 100여 명에 달한다. 안성청년회, 매일신보 안성분
국, 동아일보 안성분국 연합 주최로 8월 6일 안성공원에서 ‘모루히네 방독 대강연회’
를 하고, 방독防毒 선전문을 읍촌 각리에 가호마다 배부한다. (1921.08.04)

안성군 읍내면에서 위생조합을 조직하고 8월 18일에 면사무소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1921.08.22)

30) 일본어, 일본인

안성군에서 각 면리에 일본어와 한문이 통달한 자를 조사했다. 일본어는 능통한자와
초해稍解한 자를 구분했고, 한문은 통달한 자와 초해한자에서 부터 해문이 가능한자
를 구분했다. (1916.05.23)

경기도에서 일인 단체를 조사하라는 것은 허위보도이며 죽산군에는 일인 단체가 없다고 죽산군수 이윤영이 말했다. (1910.11.22)

3.1운동의 영향으로 안성의 조선인 자산가들은 일본인에게 빌려준 집과 땅을 내놓으라고 핍박하는 중이다. (1919.03.11)

4월 1일 안성군 양성면 소요 시에 읍내 거주 일본인의 가옥 파괴와 폭행이 있었는데, 이 손해에 대해 양성, 원곡 2면장과 피해자 등이 협의하여 그 면面 백성이 손해를 물어주기로 되어 군수 면장 등의 진력으로 손해금을 거두는 중이다. (1919.12.10)

31) 잔치

안성군에서 박승육은 4월 19일 62회의 진갑辰甲을 기하여 성대한 화갑연을 열었다. (1920.04.27)

32) 잠업

안성군 각 리에 잠종蠶種을 유상으로 배부했다. (1916.05.21)

33) 재해

안성군 관내 각 면의 농황을 조사한즉, 금년은 식부植付기부터 매일 비가 내려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었다. (1916.09.25)

7월 3일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려 4일 오전 3시경에 안성천 동대제가 파손되어 시가에 침수되었다. (1917.07.07)

연일 강우로 인해 교량 파손이 잇달아 안성-평택 간 자동차가 6일 오전 11시부터 불통이다. (1921.07.11)

안성-장호원 간 선로는 7일 오전 5시부터 파괴되어 당분간 자동차가 불통이다. (1921.07.11)

홍수로 불통이던 안성-평택간 자동차는 개통했다. (1921.07.13)

안성군에서는 6월 28일에 기우제를 지냈는데, 29일 오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익일 (30일) 오전 3시에 그쳤다. (1923.07.02)

매년 강우로 불안을 느끼던 안성천 호안공사는 읍내면 사업으로 5월 중순부터 착수한다. 호안 연延 칸수 420칸, 폭 9척, 장석張石 149칸, 도지방비 보조금 4,800원, 면민 부담 3,200원, 면민 부담액은 읍내 각 단체의 원조를 받아 잔액을 면 호별로 부역을 부과하기로 했다. (1925.05.08)

34) 저금

죽산군청에서 인민의 저축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저금조합을 설립했는데, 방법은 매월 짚신 하나씩 판 대금을 저축하는 것으로 하는데, 9월 이후 조합원은 1,244명, 저금은 33원 25전이다. (1911.10.05)

일반 농가의 부업이 없고 도식의 습관이 있어 지난해 말 이래로 읍내 8면 19동리에 초혜 제조 저금조합을 설치해 매월 10부 이상의 초혜를 제조하여 매월 말 조합장의 손을 거쳐 매각한다. 대금 반액은 본인에게 교부하고 잔금은 우편국에 저금하며, 저금은 납세 불시의 재해와 타처로 이전하는 경우 외에는 지불을 불허하기로 규약했다. 조합원은 254명, 저금액은 69원 20전임, 성적이 매우 양호하다. (1912.07.14)

안성군 각 면에 소작인들은 정기 저금을 시행하지만, 일반 인민들은 저축을 잘 안하기 때문에 군에서 각 면리장에게 전화하여 간절히 각 집에 근검절약을 권하였다. (1916.05.21)

35) 전기

지난 2월에 발전소가 소실되어 일시 영업을 휴지하였던 안성의 성남전기회사는 천안 전기회사로부터 25킬로의 송전을 받아 전등전력을 안성면내에 공급하기로 되었다. 체신국은 양 전기회사에 대해 송전送電, 수전受電을 허가했다. (1929.06.23)

36) 제사업

죽산군 남이면 하태리 이흥섭은 1910년 11월에 제사製絲 염직소를 설립하고 경 영중 안데, 최근 지방비 중 100원의 보조를 받았다. (1913.01.15)

37) 지방제도, 지방사무

양성군수 정영택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경기도장관 회원직우檇垣直右가 그의 사직을 거절했다. (1910.12.15)

경기도 죽산군수 이윤영李潤永이 도장관의 훈령을 이어 군내의 각 면동리의 각칭을 조사해서 도청으로 보고했다. (1910.12.20)

안성군청에서는 4월 10일 면서기 12명 채용시험을 실시했다. 각 면에 걸쳐 지원자를 모집하여 보통학교 및 동등 이상 학교 졸업 정도程度 자로 채용하고, 합격자는 군에서 1개월 사무연습을 마친 후 각 면에 1명씩 증파한다. (1917.04.12)

안성군 원곡면장이 해직되고, 면 상석서기로 근무하던 정종두가 임명되었다. (1921.01.05)

38) 지주

안성군 농사장려회에서 2월 26일 총회를 열었다. 참석자는 2백수십 명이었다. (1921.03.01)

39) 청년

안성군 기독교청년부에서 5월 1일 안성공원 내에서 춘기 대운동회를 개최했다. 안성 각 관공사립학교와 각 관서장 등 유지를 초대했다. 내빈들의 기부가 있었고, 관람자는 4~5백 명이었다. (1921.05.09)

안성군 청년회에서 5월 1일 동회관 안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규칙 중 회장 전제제이던 것을 간사제로 변경하고, 당천된 간사는 15인이다. 또 간사회를 열어 선행

자 표창과 대운동회 개최도 결정했다. 효자, 열녀 각 1인씩 택출^{擇出}하여 안성공원 안에 건비식^{建碑式}을 5월 15일에 하고 겸하여 운동회도 거행한다. (1921.05.09)

40) 체육

안성축구단은 장기리에 신축하고 8월 23일에 낙성식을 거행한다. (1921.08.18)

41) 품평회

농산물 품평회 참가자는 6,000여 명, 출품물 중 상품을 받은 것이 100점으로 대성황을 이룸, 홍재만은 직기를 구입해 일반청년에게 전습 후 각종 방직물을 제조해 품질이 양호하다. (1912.11.17)

경기도 농업장려회 안성지회에서 다가오는 11일부터 3일간 농산품평회를 개최한다. (1916.12.07)

경기도 안성군에서 11일부터 군청에서 농산품평회를 개최했다. 13일에는 출품 우량자에 대해 상품을 수여할 것이며, 이때 송영장관 및 차전 사무관 및 기타가 출장 온다고 한다. (1916.12.13)

11월 15일 안성 외 4군 연합 물산 품평회가 안성공립보통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관중은 1만여 명에 달했다. (1925.11.17)

42) 해충

양성군수 최태현은 본년도 수륙 양도의 상황을 조사해 경기도청에 수보했는데 양도의 작수반별은 250,950반인데 명충 피해반별은 16,000반, 백수 도집량은 1,440관이다. (1912.10.23)

명충으로 벼의 피해가 심해 극력 구제했는데 수전 2,500여 정보 내의 충해를 1,600여정보 충해를 피함, 포획한 멸충은 1,440관이다. (1912.11.09)

안성군에서 관내 각 면에 위치한 수목에 해충을 구제 장려 지시를 각 면장에 내렸다.
(1916.05.18)

43) 행사

안성에서는 읍내면장의 발기로 1월 1일 안성공립보통학교에서 명함교환회를 했다. 회원 80여 명 일동은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한 후 폐회했다. (1921.01.07)

44) 회사

이택승 등이 안성군 읍내에 본점을 두고 자본금 30만 원으로 안성상사 주식회사 설립 신청을 제출했다. (1919.10.19)

안성 이택승 외 6명의 발기로 설립 허가된 안성상사주식회사는 자본금 30만 원이다. 주식 6천 주 중 발기인 인수 주株를 제하고 2천 주를 일반에게 공모 중인데 희망자가 파다하여 개시한 지 23일에 이미 7천 주 이상의 신청이 있다. 발기인 측에서는 자본금을 50만 원으로 증자하기로 결정하고 12일 허가원을 당국에 제출했다. (1919.12.19)

안성상사주식회사는 12월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 1기 순이익금 14,048원 84전으로 법정, 별도 적립금을 제외하고 년 8%의 이익배당이 있었고, 사원 등에게 연말 상여금까지 비교적 풍부하여 드문 성황을 보였다. (1921.01.03)

안성군 이택승은 창고업에 착수하기 위해 안성창고 건축에 착수하여 4월 초순부터 개업한다. (1921.03.13)

안성군 이택승의 경영으로 창고업, 대금업, 해륙물산 위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창상회의 건축공사가 낙성되어 5월 9일부터 개업하므로 8일에 낙성식 및 개업 피로연을 개최했다. (1921.05.11)

10. 양주

1) 공진회

양주군 관람단 80명은 13일 청량리에 하차하여 경기도 지정여관(전 선관상업학교)에 투숙했다. (3일간 체재)(1915.09.15)

2) 관동대지진

매일신보 주최 의정부 습울拾粟대회는 서선西鮮 수해와 관동대지진으로 중지한다. 대신 9월 30일 일요일 5백명의 밤줍는 사람이 있어서 양주군 의정부 일대는 성황을 이뤘다. (1923.10.02)

3) 관리부정

어느 면장이 면 사무를 아들로 하여금 집행, 처리케 한다는데 이장 관직 출척 권한을 기화로 간주해 돼지 1두, 닭 1수의 뇌물을 받고 이장을 차출했다. 돼지를 내고 이장이 된 자를 돼지 이장, 닭을 내고 동장이 된 자를 닭 동장이라고 한다. 이외의 불법 행동과 민폐가 많아 사람들이 원통함을 하소연한다. (1912.02.03)

4) 교육

양주군 구 양주면 ‘자마장번갈’학교 임원 손태응, 연화선 등 7인이 교사 건축 등 청년 교육에 힘써 일대의 혼상계婚喪契 10여 곳에서 재산을 앞 다투어 기부했다. (1910.09.13)

공립 양주보통학교에서는 인민의 실업을 장려하기 위해 교내에 농업과를 특설하였다. (1911.02.10)

경원선 일부 개통식에 참석했던 총독이 공립 양주보통학교에 50원, 의정부 사립 신명학교에 30원을 기부했다. (1911.10.27)

공립 양주보통학교는 10월 15일에 총독이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월 15일에 간

화회懇話會를 열기로 하고 11월 15일에 제1회 간화회를 개최하여 직원과 학생이 일본어로 토론했다. (1911.11.26)

와부면 사립 시무의 임원이 제이 학년 아동의 보통 지식 계발을 위해 학생을 모집하는 중이다. 면장 김관배가 학생 모집에 찬성해 학부형을 수차례 순회 방문한 결과로 학생 모집이 100여 명에 달한다. (1912.03.26)

와부면에 있는 사립 시무의숙에서는 지난 8일에 제1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생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답사가 있는 후 일반 학생의 창가로 그 지방에서 처음 있는 성황을 이루었다. (1912.04.13)

5) 교통

양주 한탄강은 18일부터 결빙하여 경원가도 및 영평가도 기타 각지 통행자는 빙상으로 통행한다. (1913.12.26)

6) 교화

고양주면 면장 이정하는 면내 각 이장을 반복 권유해 본보를 구람하게 했다. (1912.08.25)

별비면 면장 남명희⁽³⁴⁾는 면장을 피임한지 4, 5년 동안 인민에게 권유해 각항 공전을 기한 안에 필납하고, 근처 내동면 면장을 점입하다가 양 면장을 일체 사임하기로 청원을 제출하자 양 면 22동 인민이 남면장의 원류 청원서를 제출해 환임 시무했다. 일반 관민에게 매일신보를 구람해 각종 법률 반포를 익히고 자제의 교육을 발전시키라고 권유했다. (1912.08.09)

7) 구휼

와부면 문곡의 남작 홍순형은 사환 노비 등 남녀 50여 명에게 신, 구 등급을 정해 상등의 100원부터 하등의 6원까지 나누어 준 돈이 1,600원이고, 일공동리 700여 호 인민의 올해 두 기간 호세를 자담 상납했다. (1912.05.14)

군수는 헌병대장과 협의해 백미 1석 8승을 구입해 빈민 11호에 분급했다. (1912.05.15)

총독이 지난 5일 양주군을 순찰할 때 해당 군읍 내 극빈자에게 20원을 기부해 구휼케 했다. (1912.05.15)

양주군 남시면 백석리의 유모 씨의 미망인 이소사는 지난 4월 12일에 화재를 당해 집이 모두 타버렸는데, 이장 윤홍섭이 동리 인민과 함께 재목과 기타 재료를 준비해 집을 지어주고, 유진항은 집 짓는 역부 100여 명의 점심을 담당했다. (1912.05.16)

양주군 상도면 석수대의 전봉시 여남식(경성출신)은 동리 46호에 대한 춘추 호포를 자담 상납했고, 간혹 동종의 경비가 부족하면 다수의 전지로 자담하고, 매일신보를 청구해 동민에게 구람케 했다. (1912.05.26)

서산의 김석영은 가세가 넉넉지 못하나 빈한한 사람을 구제하기로 사업을 삼아 봄부터 쌀값이 오르자 김씨가 곡식을 내어 빈민에게 무대금으로 분급, 또는 이자 없이 꾸어주며 가을에 힘 내는대로 갚으라고 하여 인민들이 김씨의 말이라 하면 다 듣는다고 한다. (1912.08.25)

구지면 사노리 이장 박완식은 200호의 호포전을 자담하고 빈민 60여 호를 가리어 구휼해 총독부에서 포상함, 극히 어려운 빈민 20여 호를 실지 조사해 과세할 준비를 해주었고, 마을회의를 열어 40 이상 된 백성을 일제히 모아 폐풍에 대한 일장연설, 엄절한 동규를 세웠다. (1914.03.19)

양주군 구리개리 사노리 이장 박완식은 매년 빈민을 구제, 병자에게 약을 지어주고 올해 춘기 마을에 할당된 30원을 전당할 일에 대해 일반 동민이 나무 비석을 세웠다. (1914.07.03)

8) 군대 훈련

9사단에서는 16일부터 19일까지 고양 및 양주의 별판에서 사단 대항연습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1914.10.17)

10) 금융조합

금융조합을 설립해 일반 농민에게 농량비를 주어 농사짓게 하고 추수 후 갚게 한다. 동양척식회사와 교섭해 역둔토 소작인의 도조를 대전으로 받치게 하고 곡식은 소작인이 본인이 보관했다가 내년 봄 곡가가 오르면 방매해 갚으라 했다. (1912.09.04)

석우리는 인구가 많지 않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금융기관이 없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의 돈을 모아 '기업사'라는 것을 설립했고, 그 지방 산업발달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로 융통했다. (1918.06.08)

11) 농업

양주군 망월면 사는 농민(황윤일·황윤조)이 2월 21일 공동변소에서 비료를 절취하다가 체포되었다. (1911.02.23)

양주에서는 농가 일반 모판 설치기간 전에 관내 면장에게 단책형 모판 설치법을 일반 농민에게 시달하게 하고, 그 설치 기간에는 경찰관의 원조 아래 농사 순회 교사, 계원을 파송해 하나의 부에서 전 부에 이를 방침으로 우선 철도선, 춘천 가도 치도의 각 면에 전력을 쏟게 한 결과, 1,032개소와 그 면적은 약 16정보에 달했고 이외의 각 면에도 설치를 진행했다. (1914.05.08)

12) 담배

연초경작자에게 농공은행으로서 1,500원을 낮은 이자의 대금으로 주었으므로 장래의 실효가 적지 않으리라 예상하며 1,500이 유통한 결과로 빈민의 생활도 양호해졌다. (1912.06.06)

13) 맹수

양주군 계금면 평목리 민선봉의 딸(4세)이 5월 15일 오후 8시 경에 집 부근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었다. (1921.05.18)

양주군 노해면 상계리 이희정의 장남이 26일 오후 8시에 늑대에게 물려죽었다. (1925.05.30)

14) 문화재

지난 달 12일에 접동면 봉영사의 나무로 만든 부처 두 개를 도난당해 수색 중이다.
(1912.04.11)

15) 미신

양주의 박씨는 이웃집에서 전염병 환자 3명이 앓다가 2명이 사망하였는데, 변소를 태워버리면 전염을 막을 수 있다는 미신으로 방화하였다. (1918.06.30)

16) 보조원

양주군 헌병분대에서 11월 20일 오전에 헌병보조원 채용 시험을 행하기로 예정했다.
(1911.11.09)

17) 부역

퇴계원부터 광릉 내 주막거리 앞길은 북관으로 통하는 두 번째 큰 길이고 우마로 나 무장사가 오고감이 끊이지 않는 대로로 동네 다리를 다른 동네에서 와서 놓는 폐풍이 있어 인민의 힐난이 해마다 일어나더니 올해 억울하게 교량을 수축하던 백성이 폐습을 교정하고자 군청에 호소했는데, 아직 조치는 없다. 여태 교량을 수축하지 않아 행인이 찬물에 발을 넣고 건너다녀 위생에 방해가 되고 있다. (1912.10.26)

17) 산림

8월 11일 양주군 화도면 거민 약 30명이 이우 공저公邸에 출두하여 진정한 바 있고, 이튿날 12일에는 창덕궁에 출두했다. 그 면내에는 이우 공저 소관의 시장柴場이 있는데, 1910년 측량 시에 부근 거민들의 분묘 소재지로 다년 금양禁養하여 오던 산림이 다수 섞여 들어가 부지중 운현궁의 소관이 된 고로 이전에 관계자 30여 명이 연명하여 간원서를 제출했고, 이번에도 진정한 것이다. (1919.08.16)

18) 장수

양주군 고읍면 옥천리 이병륜의 모친 김해자는 102세로 1월 초순에 세상을 하직했다. (1915.02.13)

19) 상업

미가가 등귀해 일반 생활이 곤란하더니 지금 벼의 수확을 보니 본년은 평년보다 2할 5분의 증수를 보여 새로운 쌀의 출회와 함께 미가가 하락해 백미 1승에 18전으로 매매했다. (1912.10.05)

양주군 시둔면 의정부리 상업가 일동은 상업조합을 설립하고, 분업적 전문상의 제도를 취하여 포목, 곡물, 잡화 등 각각 분담 경영하기로 했다. (1927.11.29)

20) 생활개선

양주군 갈산면 공흥리에서 이민씨들이 자발적으로 금주단련회를 조직했다. 또 노동 청년을 위해 야학회를 개최하며 1개월에 20전씩 금전을 내서 송아지 한 마리씩을 구입하여 추천한 결과 이것을 회원에게 배부한다. 이 촌락은 경기도 동부의 산간지대로 총 호수가 80호 내외이며 부유치 못한 촌락이다. 유지 수명의 출생 전력으로 입회자가 110명에, 자가용 주류제조 면허증과 자가용 연초경작 면허증 반납자가 28호이며, 야학회 입회자도 79명에 달한다. 자각이 적은 산간 촌락에서 이같은 현상은 한 가지 미담이다. (1923.01.25)

21) 세금, 조세 징수

양주군 재무서에서 조세 징수를 발령했는데 11월 12월 2기로 배납하되 초기에는 5분의 1을 감하고 2기에는 전납하라했다. (1910.10.02)

22) 소송

풍양조씨의 선산이 양주군 독정리에 있는데 종손 조병승이 10여 년 전 선산 내 송추

를 베어내고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해 종회를 열고 금지했더니, 최근 조병승이 자기 소유라 주장하고 변호사 박만서에게 위탁해 남작 조정구를 피소했다. 조정구는 변호사 조정구에게 위임해 어제 제2회 재판을 개시했다. (1910.11.09)

광주군 구준서가 양주군 상도면 상내리 구필서의 재산을 탐내 억지로 자기 아들 명회를 양자하게 하고 양주, 광주, 공주, 노성에 있는 토지를 양자에게 상속함, 필서의 아들 이길이가 송사를 시작함, 준서는 필서의 유언서를 위조한 고소당할 지경이다. (1914.03.19)

죽은 구필서(상도면 장내리)의 친생자 리길과 양형의 생부 구준서 사이에 상속권 다툼이 송사로 이어졌다. 계묘년 4월 25일 구필서가 종제 준서 및 삼종숙 연승에게 적자가 없어 준서의 둘째아들을 입후하기를 바라는 뜻을 유언으로 의탁, 준서의 아들 명회는 필서의 제사를 받들어 4,5년 지냈는데 근래 리길의 모친이 리길로 하여금 부친의 뒤를 잇고자 함, 상속권을 법정에서 서로 다투었다. (1914.04.02)

경기도 양주군의 박경천은 1904년 음력 3월에 임치순, 김영준, 강경엽 네 명과 나무장사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4명이 공동으로 빚을 얻어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장사가 안돼 1906년에 폐업을 했다. 폐업 후 6백 11원 96전의 손해가 났기 때문에 이를 4분해서 감당해야 했다. 김영준, 강경엽 두 명은 다 갚았고, 임치순은 28원만 갚고 나머지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을 당했다. (1916.03.19)

김태식은 조합을 설립할 때 돈을 대어주면 회계원을 시켜주고 매 샅을 15원씩 준다고 하였고, 이에 응낙한 이두학은 돈을 대주었다. 그러나 김태식은 조합 설립 후 약속을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두학이 김태식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소에 서는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1918.01.12)

23) 소작인, 소작료

양주군 국유지소작료 추가건을 개정 반포했는데, 100평에 대해 3등전 1원, 4등전 90전, 5등전 80전, 6등전 8전, 1등답 1원 40전이다. (1911.10.20)

양주군 구리면 내 유지 3명의 발기로 1월 31일에 면내 신사 30여 인이 모여 소작인상조회 양주지회 발기총회를 열고 취지 선전 또는 회원 모집을 협의했다. (1923.02.05)

양주군 구리면 상봉리에서 2월 4일 조선소작인상조회 양주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출석 인원은 각 이장, 구장, 유지 신사 수백 명이였다. 임원 선거 결과 회장 최승모 외 여러 임원이 당선되었다. (1923.02.11)

24) 송계

전주이씨, 안동권씨, 경주김씨의 선산이 양주군 송산면 고산리에 있는데 3성이 연합해 송계를 조직하고 면내 송추를 베어내는 자를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1910.11.09)

25) 송덕, 송덕비

경성부 조봉승^(68세)이 자비 7천 원을 들여 양주 퇴계원 지나 포천에 이르는 왕숙천에 돌다리를 건설했다. 넓이 2칸, 길이 60칸이다. 1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7월 31일 준공검사를 했다. 이장 김제창은 다릿가에 송덕비를 세웠다. (1917.08.09)

양주군 주내면 고읍리 홍종선은 오랫동안 선행을 베풀어 원근 동민들은 송덕비를 세우기로 했다. (1927.11.09)

26) 수산장

양주군 외 3군 공동 은사수산장이 5월 14일 양주군 하도면 시우치리에 설치되었다. (1911.05.24)

양주군은 은사수산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양주, 포천, 가평, 고양 등에 있는 국유지 1만 878평을 대부하라고 경기도청에 청원하여 도청과 계약했다. (1911.05.31)

27) 시찰단

18일 양주 금융조합원 53명은 은사수산장 기타를 시찰하기 위해 입경한다. (1912.09.17)

28) 식목, 식림

각 면에서 200여 원을 모집하여 각종 과일나무 수백 매를 식부하여 성육이 좋다. (1912.06.06)

각 면 이장과 유지들이 경성관광단을 조직하여 독오원에 모범장을 관람할 때 각종 과목 4백여 매를 청구해 기념적으로 식부함, 송병국, 송종헌은 자금을 투입해 모범전을 설치하고 초충력을 파종했는데 발육이 극히 좋고 예상 외 수확을 얻었다. (1912.06.06)

양주군에는 식림 사상이 발달하여 민둥산이 거의 없고, 이 사상은 가평 포천 등지에 까지 파급되었다. (1913.05.08)

경기 양주군 백석면 소재 팔일봉과 은봉산 국유임야 면적 합 331정 1반 1무 10보를 원주민 이달순 외 30여 명이 빌려 숲을 만드는 데 성공하여 전부를 무상으로 양여 받았다. (1924.07.06)

29) 신분

9월 24일에 양주군 하도면 배대리와 동면 광암리 사이 밤나무 밑에서 각동에 사는 양반 70여 명이 회집해 헌병파견소에 헌병이 출장해 조사했다. 자래로 양반은 공공사업에 부역 면제의 관례가 있는데 가을 도로 수축에 상민과 동일하게 부역하게 되었는데 지난 13일 도로 수축 중 반상 간 싸움이 나 양반들이 분한 마음에 회집해 1.종금 이래로 양반은 독립을 주장해 상민으로 하여금 소작인을 삼지 말고 2.양반 소유 산림에 상민이 나무를 못해 가게하고 3.양반의 소유지에 상민을 살지 못하게 하고 일정한 처소로 쫓아 보내기로 결의하여 파견소에서 양반 대표 정기선과 상민대표 김복룡 등 여러 명을 불러들여 융화하게 지내라고 설유했다. (1912.10.04)

30) 양잠조합

양주군에서는 도의 권유에 따라 4개소에 양잠조합을 설립했다. (1913.08.14)

31) 운동회

고양주면 신천리의 유지 신사들이 연합 대운동회를 조직해 24일에 설행했다. 각종 경기와 다수한 상품이 있었으며 경기 우등은 광명학교, 최우등은 전진학교이다. (1912.06.01)

32) 위생

양주군수 박영대가 위담증에 걸려 치료를 위해 이번 달 18일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치료받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경기도청에 청유서를 보냈다. (1910.11.29)

양주군 양반 유생 등 30여 명이 단발했다. (1911.05.28)

양주군에서 3월 4일부터 19일까지 소 945두에 탄저 예방주사를 놓았다. (1913.04.01)

지난 7일 콜레라 환자로 발표된 송수만은 순사가 와서 소독을 하는데 겁을 집어먹고 틈을 봐서 자기 집에서 나와 도망을 갔기에, 관할 경찰서에서 이것을 알고 대단히 놀라 각 경찰서로 전화 전보를 하고 사방으로 수색을 하였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아마 고향인 양주로 간 듯 보이는데, 양주 경찰서에서 수색 중이다. (1920.08.10)

33) 유희

10월 17일 매일신보 주최 의정부 습률(뱀줄기)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는 수백 명이다. (1921.10.19)

34) 일본어

공립 양주보통학교 직원과 군청 관리들이 일본어 강습회를 열었다. (1911.12.16)

양주공립보통학교 직원 기타 각 관청 직원 등의 발기로 일본어 및 조선어 강습회를 개설했는데, 회원이 25명이다. (1911.12.24)

35) 잠업, 잠업 강습회

군청에서 지난 19일부터 잠업 강습회를 설행했다. 농가 청년을 모집 교육해 지난 22일 실습생의 증서 수여식을 설행했다. 일반 관람객이 잠업을 경영코자하여 지금 준비하는 중이다. (1912.04.02)

군수의 설유로 일반민이 농가부업 중 잠업이 필요함을 깨닫고 백여 명이 단결해 조합 설립, 제반 경비는 조합원이 분배 지용하고 도청 보조를 받아 백여 간의 누에를 사육 중임, 성적이 극히 양호하다. (1912.06.06)

광동면 송승국은 면화를 키우며 교육계에 열심히 종사하고 송종헌은 자기 소유 가옥을 은사 수산장에 무가 대부하여 잠실에 이용하게 했다. (1912.06.06)

경기도 지방비 사업으로, 양주군은 원잠^{原蠶} 종제조소를 신설했다. (1916.04.25)

36) 재해

지난 16일 양주군 초부면 삼봉리에 있는 원야에서 불이 나 민유산림 14만 평, 국유산림 5천 평이 피소했다. 원인은 화전을 개간하는 데서 났고 손해는 대략 1백 원 이상에 달한다. (1912.04.23)

그저께 밤 폭우로 인해 어제 오후 경원선 초동, 의정부 간 고장이 생긴, 어제 경성행 종착열차는 의정부에서 정체됨, 어제 용산에서 인부 약 70명을 보내 복구공사 중이다. (1914.03.08)

3월 13일, 4월 2일 적은 비가 내린 이래로 지금까지 가뭄이 극심해 출수해야 할 보리는 발육이 충분치 못하고 말라 죽은 것도 있고 또 콩, 팥, 조, 기타 파종은 거의 종료했으나 발아하지 못하거나 말라 죽어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1914.05.17)

양주군 전천면장, 이장 등이 19일에 천보산 아래 제단을 쌓고 3일간 기우제를 지냈다. 26일 새벽부터 3일간 단비가 내렸다. (1919.09.03)

비로 인해 양주군 구리면 중랑천이 6일 오후부터 물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4척 5촌이

증가했다. 청량리와 망우리 사이 임시 가설 다리가 떠내려가고, 자동차·마차 등 모든 우마차는 교통이 두절되었다. (1921.07.08)

양주군 미근면 가운리와 삼소리 사이 한강 연안은 약 20척의 증수^{증수}로 길 위에 5자 이상 물이 흘러 교통이 끊어졌다. (1925.07.12)

이번 비에 양주군 와부면 팔당리 주민 4명이 흙 또는 집이 무너져서 죽었다. (1927.07.19)

37) 저축

인민 중 지식이 초유한 자 5백여 명이 단합하여 저축조합을 설립, 지난 5월 1일부터 개시했는데 매월 31일 1회에 1원 또는 5전씩을 저축하기로 규약을 편성했고, 장래 자금에 수용할 계획이다. (1912.06.06)

38) 전기

의정부로부터 포천으로 가는 가도에서 시체 한 개가 발견되었는데, 금강산 전기주식 회사의 전선을 훔치려 전선주에 올라갔다가 고압 전기에 감전되어 죽은 것으로 다른 전선 일부를 부근에 운반해 내 버린 흔적이 발견되어 공범자도 있는 듯해 수사 중이다. (1924.01.22)

39) 지주

2월 18일에 양주 농사장려회 지회 및 농우회 총회를 개최한다. (1917.02.14)

40) 진정

경원선로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경원선의 기관차로부터 뿜어내는 연기로 지붕에 불뚝이 떨어져 전소된 집이 5호, 반소된 집이 7호나 되어 위험하니 살 수가 없다고 하였다. 철도국에 이진료를 청구하였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건이 매년 십 수건이 발생한다. (1926.05.17)

양주군 시둔면 가능리는 중랑천 상류가 하계 강우 시에는 왕왕 침수 피해를 당해 가옥까지 유실하는 예가 없지 않다. 군에서는 의정부리와 가능리 사이에 제방을 쌓아 중랑천 상류의 침수를 예방하는 중인데, 가능리 앞뜰의 하수구는 구경 몇 치에 불과한 토관을 삽입했으므로 가능리 주민과 토지소유자는 원래 침수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하수구를 협소하게 함은 토지와 가옥이 침수될 것이 확실하다 하여 군鄑 당국에 탄원했으나 설계 변경의 수속이 번거롭다 하여 듣지 않으므로 이제 도道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929.10.05)

41) 총기 압수

양주군 호원면장 송신묵은 조선인 총기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고 총 1정, 탄약 13발을 갖고 있다 현병대에 압수되었다. (1910.09.09)

42) 태형

망우리 김일석⁽²³⁾은 8일 마차에 나무를 싣고 중부 수표교 등지에서 마차를 놓고 일반의 통행을 방해해 순사가 경찰서로 잡아가 불기 다섯 개를 때려 방송했다. (1912.12.11)

43) 토지수용

경원철도는 양주군 의정부 등지에서 부설공사에 착수해 일정 인민의 가옥을 매 간 10원씩에 매입했고 분묘 이장비는 2원 50전씩 지급했다. (1910.10.28)

44) 퇴직, 파면

양주군 구 재판소에 조선인 서기 여러 명이 사면 권고를 당했다. (1910.09.28)

현병분대에서 통역으로 근무하던 이무택은 일반 인민에게 행악한 사실이 발각되어 파면당했다. (1912.04.18)

45) 품평회

양주, 포천, 영평 연합농산물품평회 수상자 포천 가산면 김기묵 소맥4등, 군내면 전덕배 현미4등, 강재록 대맥 4등, 외북면 허변 대맥 4등, 청양면 임헌재 마령서4등, 영평 하리면 김재현 대두 2등, 읍내면 이보근 조4등, 이원군 조4등이다. (1912.12.04)

46) 해충

양주군 관내에 야도충이 발생하여 조의 피해면적이 1천 정보이고, 손해예상액은 5천 원이다. 황해도 봉산군 관내, 재령군 관내에도 야도충이 발생했다. (1917.09.03)

금곡 홍릉 부근 사유림에 송충^蠶이 발생하여 능원과 산 보호원은 수일 전부터 송충이를 없애는 중인데 점점 만연되어 능 구역 한쪽에까지 침입했다는 정보가 있어 이 왕직에서는 이원^院을 파견하여 부근 산림감수와 감수보를 소집하고 또 군청당국과 면장, 헌병 등의 진력으로 부근 주민 3백 명을 모집하여 8일부터 구제에 착수했다. (1919.06.08)

11. 양평

1) 관광

양평군수는 면장 6명, 수산생 13명, 기타 유지들을 인솔하고 10월 14일에 경성에 가서 식림묘포 등을 관광했다. (1911.10.15)

2) 관리부정

양평군 북하도면 면장 신태진이 년도의 역둔토 도조 30여석을 써버리고 충용이 불가해 면내 인민에게 매호 8전씩을 수렴해 민원이 낭자하다. (1910.10.11)

3) 교육

양평군 문산소학교 생도 80여 명은 최근 일체 단발斷髮했다. (1911.01.21)

하부면 여물리에서 4, 5년 전 개진학교를 설립했다가 분하더니 금년 봄 이진영, 노영수, 허옥, 김원식, 노재수가 다시 발기해 교무를 확장하고 교사 10여 간을 건축했다. 교비가 부족해 건축비는 노영수, 허옥이 자담함, 상북면 장정운은 학도를 권고 모집해 생도가 70여 인에 달함, 각 이장이 민에게 설유해 민호에서 베 두말씩을 의연해 교사 수당금을 나누어주었다. (1912.12.14)

참사 이모는 일본어 보급 목적으로 일본어야학회를 공립보통학교에 설립, 청년자제를 모집 교수 중이다. (1912.12.17)

양평군 하북면 여물리 개진학교에서 11월 30일 제1특별회 졸업시험을 거쳤는데, 우등생 4명, 급제생 5명이고, 23년 진급생 5명이다. (1913.12.27)

이번 봄 50명의 공립보통학교 생도 모집에 지원자가 100여 명에 달함, 4월 1일 신입학 부형 50여 명이 열석해 입학식을 거행, 학업연세 등을 조사해 70명에 한해 입학을 허가했다. (1914.04.14)

양평군에 실업보습학교 설립 준비가 한창인데, 산간 임야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중요 목적으로 한다. (1927.03.18)

4) 교통

양평 동면으로부터 상동면을 통하는 구순산의 비탈길은 면민이 개수해 근래 통행하는 자가 매우 증가했는데 오른쪽에는 강원도지방으로부터 경성에 이르는 상약사리가 가까이 있다. (1912.01.14)

5) 교화

양근 지방에서 매년 음력 4월 8일에는 제전을 행하고 다음 날 도박을 행하는 습관이 있는데, 분전소에서 최근 환등기를 구해 다음 날 밤 환등회를 열었다. 처음있는 일이라 모인 사람이 수백에 달해 풍속 개량에 적지 않은 이익이 있다. (1912.05.31)

6) 구휼

북상도면 엄소리 민 80호는 이재국의 가옥이 소실한 일에 대해 각 호에서 5전을 내어 가옥 1좌를 구입해 이씨에게 시여하는 미풍이 있었다. (1912.01.30)

하서면의 부호가 양인환은 세민 구조의 방법으로 120원, 현미 50석을 추수기에 상환하기로 하고 무이자 대여를 행했다. (1912.06.19)

양평군 고읍면 옥천리 이중익은 해마다 그 동리 220여 호의 춘추春秋 호세戶稅 60여 원을 자담自擔한다. (1917.03.13)

7) 기부

양평군 설악면의 면사무소 증축에 대해 이●세는 금 60원을 기부하였다. (1918.01.12)

8) 농업

양평군은 산간 마을이 많아 가을에 상해霜害가 많으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농사를 시작하는데, 5월 30일부터 모내기를 시작하여 현재 대부분 작업을 마쳤다. (1913.06.07)

9) 맹수

양평군 양근내면 마산리에 6월 18일에 3마리의 이리가 출현하여 돼지 1마리를 물어 죽이고 미망산으로 들어갔다. (1913.06.27)

양평군 갈산면, 고읍면, 양서면 등지에서 호랑이가 출몰해 개와 돼지 등의 피해가 심각한 까닭에, 해당 군의 인심이 대단히 나빠지고 있다. 아직 사람이 피해를 입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1920.02.26)

10) 미신

양평군 단월면 여물리 박장성(35)의 집에 4월 상순부터 전염병이 발생해 차례로 부모

가 하직하고, 몇일이 지나 박씨와 다른 가족들도 모두 알아 놓고 동리에까지도 두 세 집에 그 병이 전염되었다. 병이 발생한 집의 뒷간을 집주인 모르게 불질러 태우면 병이 없어진다는 풍속이 있는데, 박씨의 모친이 임종 때에 며느리에게 그것을 유언해 며느리가 이웃 사람과 불을 질렀다가 방화범으로 잡혔는데 불쌍하므로 처벌하지 않고 방면했다. (1914.05.15)

양평군 설악면 선촌리 농업 김수대⁽⁶³⁾는 6월 12일에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오른 눈을 나뭇가지에 찔려서 양약^{良藥}을 탐구하던 중 동네 사람들이 회충을 눈에 몰아넣으면 곧 낫는다고 말하여 그 말대로 그날 저녁 회충 한 마리를 눈에 몰아넣고 싸매 두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한 눈은 아주 멀고 말았다. (1919.07.16)

11) 부역

교하, 홍천 도로 수해 복구공사 사역 인부 총수 교하군 역부 6,716인, 홍천, 양평군 합 13,526인이다. (1912.12.03)

양평군 서시면 신원리 이장 여죽현은 도로 수축 공역 때 인부의 고가^(품삿)라 칭하고 동리 민 28명에게 23원을 취한 행적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1912.02.04)

12) 상어

양평군 읍 앞 한여울^{寒灘}이라는 한강 상류에서 수일 전에 바다에 있는 상어^鱈 세 마리가 올라와서 여울에서 그 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어부들이 작살로 찍어 잡았는데, 한 마리에 80원씩의 시가로 팔았다. (1927.06.16)

13) 소방

서중면 면장 이운형은 유지자의 기부금을 얻어 소방기계를 사서 화재를 예방하고자 노력 중이다. (1912.09.15)

14) 소송

경기도 양평군 민윤식이 변호사 김정목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목미지조木尾之助와 곽응철 두 사람에게 1천 100원의 금광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했다. 목미지조와 곽응철은 여주군 북면리에 있는 민윤식의 금광을 이용하였으나 3년 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가 고소당했다. (1916.04.12)

15) 식량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거주 5백여 농민들은 동리 뒷산에서 백토를 파다가 좁쌀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다는 소문을 듣고 양평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에 보내어 분석 중이다. (1927.06.08)

16) 식목, 식림조합

명치 천황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 양평군 고읍면 옥천동 양반 이병륜의 발기로 대월 교촌 동막리 등지에 사는 유지인사 202명이 식림조합을 조직했다. 용문산 한 모퉁이 730정보되는 국유지를 청원하고자 4일 군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총독부에 인허를 요구했다. 자본금 160원으로 소나무, 참나무, 백양목 등의 묘목을 사고 천연적으로 난 나무를 보호 양성할 것으로 4년 동안에 완전히 성공하고자 한다. (1912.09.14)

17) 우피

양평군 양근시장에서 종래 우피牛皮 1근 매매시세가 35~36전이었는데, 10월 23일 개시에서 양평위생조합의 개량 건조피는 1근 50전으로 매매 성립했다. (1913.10.31)

18) 위생

읍내면 서부리 이평준⁽⁴⁸⁾은 쌀과 소금장사로 읍내 제일가는 재산가인데 작년 9월 읍내에서 위생조합을 설치할 때 공공사업을 위해 40원을 기부했다. (1912.07.27)

양평군 지평읍내 주민이 탁수濁水를 음용했는데, 군내면 일하동 거주 지평위생조합장

이강년이 사비 50여 원으로 자택 구내에 깊은 우물을 파고 인근 인민에게 음료를 공급했다. (1913.04.16)

수원 자혜의원에서 3월 중순부터 12일간 양평에 의사를 파송해 관공리, 일반 병환자를 순회 진료 했다. 그 수가 552명, 1일 평균 46인, 진료 중 하루는 공립보통학교에서 일반 인민을 회집해 위생 주의사항을 설명, 제1 음료수 선택에 특별 주의를 주었다. (1914.04.02)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에서는 10월 25일에 안우남⁽¹⁹⁾이란 소년이 천연두에 걸려 11월 2일에 사망한 후 그 이웃집에도 전파되어 4명도 감염되었으며 환자 5명 중 1명은 사망한 이외에 또한 만연하는 상태이다. 경찰서에서는 검병적^{檢病的} 호구조사와 검역, 그리고 임시 종두를 시행한다. (1923.11.28)

19) 잡업

양평에서 생견 10관에 백견 교잡종 최고 64원, 최저 34원으로 총수량 444관의 교역이 있었다. (10일)(1924.06.16)

서종면 각 면장, 동장과 기타 유지자들이 일본의 개량한 누에 종자를 사서 춘잠을 사육했는데 성적이 양호하고, 그 중 반죽 유흥준은 수산장 졸업생 2명을 연병해 사육했다. (1912.07.03)

20) 재해

양평군 서시면 식곡리 사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냇물이 강우 시마다 복포리와 반장리 사이 경성가도에 범람하고, 민가 침수 등의 피해가 있어 연장 480칸, 높이 5척의 돌제방을 쌓았다. (1913.05.16)

양평군 읍내에서 강원도 횡성으로 통하는 도로는 지금 토목과 감독으로 개수 중인데 17일 폭우가 와 일하던 인부 등은 산 밑으로 비를 피해 들어서는데 갑자기 산이 무너져 사망 4명, 중상자 5명이다. (1914.04.19)

21) 저축

북상도면의 일반민은 부업으로 저축 자본 위해 공동저금을 규약, 실시하고 있다. 곧 저축 물품(조선 2,886부, 미투리 30부, 조선지 6천 매 등, 그 외 물품의 총가액 160여 원)을 판매, 저금할 것이다. (1912.01.28)

북상도면에서는 미원장 파견소의 권유로 부업으로 저축 재산을 만들 것을 규약했다. 최근 저축액이 160여 원에 달하고, 곧 매각 저금할 것이다. (1912.01.30)

군청에서 관내 일반 인민의 저금 결과, 남면 5원 20전, 북상도면 40원 56전, 상동면 30원 21전, 남종면 24원, 남시면 6원 55전이다. (1912.03.07)

22) 일선 동화

양평군에서 실업가, 자산가, 군서기 등 유지 관민 40여 명의 발기로 회원의 친목 도모, 미풍 양성, 일반 군민의 제반 업무의 발전을 목적으로 이번에 빈양돈수회를 조직하고 지난 20일 읍내 공립 보통 학교에서 발회식을 거행했다. (1912.03.21)

양평군 고읍면 옥천리 이병륜의 모친 정경부인 김씨의 백세 잔치에 조일인 회원 40여인의 빈양돈수회(濱陽惇修會) 회원이 3월 29일에 찾아와서 축하를 했다. (1913.04.05)

양평군 빈양돈수회(濱陽惇修會)는 경내 조일인 신사 일동이 조직한 조직이다. 3월 28일 춘기총회에서 협의사항을 의결했다. (1913.04.06)

23) 지방사무

(양평군 북상도면과 북하도면에 면역장(面役場)을 개설했다. (1911.05.28)

24) 청년회

양평군 청년회는 천황 즉위 대전을 축하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3일간 대축하회를 개최했다. (1915.11.27)

양평군 청년 유지가 발기하여 청년회를 조직하고 군내 민풍 시설 기타를 향상하여 중외에 모범을 보이려 한다 하며 회장 이하 역원을 선정하였다. (1923.02.08)

25) 총기 압수

6일 새벽에 상동면 창촌리 안교영의 집, 동면 이산리 이진한 집에 강도 3명이 침입해 총, 조선 칼로 협박, 금품 강탈하고 원주 방향으로 향해 헌병대가 삼산리를 지나는 산길에서 1명을 체포, 원주 방향으로 향하는 길에서 수령 최영우를 체포했다. 춘전식 소총 2정동, 실태 20발, 조선칼 1구를 압수했다. (1912.01.12)

26) 토지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군청과 토지소재면 사무소에서 과세지 견취도 열람을 허가했다. 토지관계자는 도면 열람 후 기재사항의 정정이 필요하면 편의한 처소에서 신청, 타인의 토지에 대한 이의 주장은 반드시 지주의 위임장을 휴대,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오류가 없음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912.11.21)

27) 효부

북상도면 음방리의 염금산의 아내 천소사(25세)가 그 남편을 극진히 공경하며 시부모에게 효도로 봉양하여 일반 부인계의 모범이 될 만하다고 남녀를 물론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1912.04.30)

염선이가 병으로 병석에 누워 세월을 보내 가난해지자 효부 천소사가 나물을 해다가 판 돈으로 반찬을 장만하고 남의 빨래도 해주고 돈을 얻어 공양하며 시부를 업고 호정에서 바람도 쏘이며 봉양해 시부의 병이 쾌차했는데, 모두 천소사의 효성이라 하여 경찰서에서 도청에 보고하고 특별히 포상했다. (1912.04.30)

12. 여주

1) 교육

길천면 번두리의 전 군수 문수현은 근검저축을 열심히 하고 사립 광동학교에 100원을 기부해 학교를 수리했다. 학교 주무 정재기, 교원 이철현, 박재호는 교육에 힘써 학도가 40여 명에 달한다. (1912.05.21)

여주공립보통학교에서 21일 제4회 졸업식을 했다. 졸업생 24명이다. 여주공립간이농업학교에서 21일 졸업식을 했는데 졸업생은 14명이다. (1919.03.24)

여주군 북내공립보통학교 설치건은 10월 23일부로 인가 지령이 있었다. (1919.10.25)

여주군에서는 점동면에 공립 보통학교 신설 계획을 준행하던 중 7월 7일 설치 인가가 있어 9월 1일 개교 예정으로 교사 건축에 분망중이다. (1923.07.12)

2) 교통, 교통사고

7일 여주군 읍내 사는 농민 조귀화(28)가 동부 어의동 전차 정류장 앞에서 정차없이 달리던 막차에 치어 즉사해 친족에게 시체를 찾아가라는 급보가 내려가 사촌 조수환이 상경했다. (1912.06.13)

조수환이 전차에 치어죽은 사촌 조귀화의 시체를 찾으러 상경해 그에게 동대문경찰분서에 출두해 일장통곡 했다. 福田서장이 불쌍히 여겨 전기회사 지배인을 불러 교섭했고, 장비 100원을 해당 회사에서 주기로 결정해 운구를 준비해 내려갔다. 서장은 어제 여주군 헌병 분대로 통첩해 유족과 장례의 보호를 의뢰했다. (1912.06.13)

여주 관내 남한강은 지난 12월 26일 이래로 결빙되어 빙상 교통을 해왔으나 최근 일기가 풀려 일부 얼음을 깨버리고 2월 27일부터 각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부리기 시작했다. (1917.03.07)

3) 구휼

소개면 삼신동의 사립 개신학교 교감 김동진은 빈민구제로 하여 지난 음력 사월 3일 경에 동리 빈민 31호에 대해 민호에 쌀 닛 되씩 분급구제하고 쌀 석 섬은 이자 없이 추수할 때까지 꾸어주었다. (1912.07.13)

여주군 최영락씨가 근검저축한 돈으로 빈민들의 구휼에 나섰다. 빈민 190호에, 매 호 당 백미 2두, 돈 2원씩을 기부했다. (1920.02.26)

여주군 주내면 상리 최영락은 1920년 8월 면내에 콜레라가 창궐할 때 빈민 환자의 치료할 돈으로 100원을 기부하고, 작년 겨울에 걸인, 불구자 70여 명에게 솜옷을 해주고, 12월에도 환과고독 40여 호에 쌀 한 말과 나무 한 짐씩을 나눠줬다. (1921.03.09)

여주군 내면 상리 최영락은 3년 전부터 춘추 2회에 매회 수십여 석의 미곡으로 일반 빈민을 구제한다. 구력 세말에도 ‘환세비換歲費’로 금곡金穀을 대가 없이 진시賑施했다. (1921.06.08)

4) 국유지 개간

일본인 몇 명이 ‘국유지 대하법貸下法’에 따라 여주군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밖 해자 안의 진황지를 개척하기 위해 농상공부에 청원하였다. (1911.01.05)

5) 금융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외사리 거주하는 이민응은, 미전糶 경기도지사의 추천으로 정무총감이 이를 알게 되었고, 경무총감은 다시 총독에게 이민응을 소개하였다. 총독은 이민응에게 은배를 하사했다. 이민응은 구한국 정부시대에 학부의 고등관으로 요직에 있었으며, 박학다식하고 자산도 많았다. 이민응은 각 지방의 금융이 원활하지 않으며 고리高利의 차금借金에 고통받는 자가 많은 것을 동정하여, 금융기관을 설립해 그들을 구제하고자 지방 유지들과 의논한 뒤, 자신과 그 가족들이 앞장서 자본금 5만원의 식산조합을 설립했다. 금융조합과 동척의 이율로서 농촌의 금융을 개시하고, 1926년 4월에는 조직을 공고히 하고자 자본금 2만 원의 주식회사로 회사를 고쳐 농

촌금융의 원활과 금리 저하에 공헌했다. 한편으로 병들고 약값이 없는 사람, 장례식을 지낼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해 연민의 정을 금하지 못해 가족으로부터 2만 원의 돈을 내어 국민구제기관을 조직하고 국민들의 구제에 나섰다. (1928.07.22)

6) 농업, 농민회

여주군에서는 각 면장을 위원장으로, 동·리장을 위원으로 하고 각 동리에 1명 내지 3명의 감사원監査員을 두고 피뽕기를 열심히 한 결과 경작면적 4,903정 8반 중 피가 7,693관에 달했다. (1911.09.27)

여주군 주내면 우만리 농민회원은, '사소한 일로 당파를 지어 부락민 쟁투를 연출하여 굴압리민에게 마음대로 폭력 행위'한 혐의로 폭력행위 위반죄가 적용되어 7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등의 선고를 받았다. (1929.06.20)

7) 도급

군청에서 도급전습소를 제4구로 구분해 실행했다. 전습생, 견습생, 개최지 농민 등은 기존 정곡법과 지금의 도급법의 이해득실을 깨달아 작년도 1종 아재의 종류에 불과 하더니 본년에는 실천적, 경제적 농구류를 환영하는 형세를 보였다. (1912.12.06)

지방금융조합의 주창으로 개최한 도급전습소는 제 4구로 나누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습했다. 전습원 72인 내에 조합원 22인, 소작인 조합원 4인, 전습원 중 도급성적이 우등이고 장래 도급기 사용과 개량종 재배를 희망하는 자 28명을 선택해 상품수여식을 거행함, 1등상 도급기 일좌, 2등상 개량도조 신력종 벼 한말, 3등상 개량한 조선 낫 한 자루, 솥 돌 한 개다. (1912.12.11)

8) 맹수

여주군 북내면 오계리 김현만의 집에서 8월 8일 밤 11시쯤 장남 명배(3)가 사라져 수색했으나 집에서 2정 가량 떨어진 산 밑에서 사지를 발견했다. 먹은 모양으로 보아 늑대의 소위로 밝혀졌다. (1929.08.13)

9) 사방공사

여주 부근은 임야 황폐가 심해 해마다 토사가 흘러내려 매몰되는 전답이 31정보나 되고, 도로, 교량 붕괴로 부역이 1,600여 이다. 가옥과 기타 피해도 많았다. 이번 국비로 써 사방공사를 하려 약 8만 원의 공비로 4개년 동안 계속하려는 바이다. 공사가 완성 되면 여주읍내 별거벗은 산이 장차 삼림으로 변해 토사 방출 근절, 황무지 개간, 인민의 부역 근절과 동시에 산업발달에 진전을 볼 것이다. (1927.09.02)

10) 상례

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전홍준은 고을 시장관리인을 겸임하는데, 이번 국상에 고을 장날에 장군 중에 상장을 안 맞춘 자가 많아 전홍준이 이유를 물으니 장군들의 돈이 없어서 붙이지 못했다는, 전홍준이 몇 원을 내어 상장을 사서 붙여줌, 일반의 모범 인물이라 군청에서 경기도 장관에게 보고했다. (1912.08.11)

읍내 시장 관리인 전홍준은 이번 대상에 시장에 출입하는 상장을 미부착한 빈민에게 자비로 나비 모양 상장 2,500개를 조제해 붙이게 한 사정을 군수가 도청에 수보했다. (1914.05.09)

11) 세금

여주군 각 면장이 수수료로 춘·추곡 각 1두씩과 세금 매 결두(結頭)에 50전씩 받던 것을 1911년 봄부터 각 면장의 급여금을 실시하여 매호 금 30전씩과 세납 매 결두 50전씩을 받고, 춘·추곡은 받지 못하게 했는데, 여주군에서는 여전히 춘·추곡을 수납하여 민원이 있다. (1911.12.16)

12) 위생

한성 성인당 의원 주무 장기문이 3년을 종증으로 고생한 가난한 곽종상(여주군)을 무료 치료해주었다. (1910.09.21)

지내면 모안리 원명상의 머느리 신씨⁽²⁰⁾는 5,6년 전부터 오른팔이 불편하더니 점점

대중이 되어 3,4년을 고생하다가 한약으로 몇 개월을 치료해도 효험이 없어 총독부 병원 내 자혜과로 4월에 입원해 일본 의사 神岡과 조선 의사 피병준의 치료로 불과 몇 개월 내에 완치되었다. (1912.08.30)

경기도 여주군의 배 타는 일을 하는 정기환은 경성을 출발해 본월 6일 병으로 인해 원주군에 상륙했는데, 검진 결과 의사는 콜레라로 추정 중이다. (1916.10.11)

13) 재해

한강 상류 양평, 여주지방에는 7월 19일 이래 큰 비가 계속해서 와서 20일 오후 6시까지 여주방면의 한강 증수량은 20일 오전 10시 반에 12척 3촌, 정오에 18척 1촌, 6시에 23척이다. (1923.07.22)

여주에는 7월 11일 오전 11시에 16척 9촌 가량 증수되었다. (1925.07.12)

여주에는 7월 17일 오전 9시에 23척이 증수되었다. (1925.07.18)

여주군의 남한강은 수일 이래 내린 비로 인해 3일 오전 9시까지 5미터 반의 증수가 있었다. (1927.05.04)

한강 상류 가평, 여주 방면 수량이 점차 줄어 27일 가평 19척 1촌 4부, 여주 17척 8촌으로 한강 수량도 감소할 것이므로 용산, 마포 등지에 더이상 위험이 없을 것이다. (1927.07.28)

14) 저축

각 면에서 재앙, 흉년 등에 서로 구제하기 위해 저축조합을 조직했다. (1912.01.12)

15) 전화

경기도 여주 시내 전화는 교환국 개설과 시내 전선 가설, 기타 모든 준비가 완성되어 금월 26일부터 개통사무를 개시한다. 가입자는 벌써 35명에 달한다. (1926.12.23)

경기도 장호원 시내전화는 11월 6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11월 하순에 교환 개시할 예정이다. (1927.11.11)

16) 지방사무

여주 군수 신씨는 4년 전 고흥 군수로 3년 동안 재근했는데 고흥 군민이 신군수에게 군민 일동의 이름을 기록한 기념 병풍을 제조해 군민 대표가 증정했다. (1924.09.14)

17) 학회

중앙학회 정리위원 정영두가 여주 여행 때 여주 인사에게 학회를 설명함. 유지 송문현, 김홍제, 홍원식, 전홍준, 김복규, 백낙환, 권중, 최영락, 김정순, 조병길, 황학순, 채승진이 가입하고 회비를 교송했다. (1914.02.21)

18) 해조害鳥

근래 농작물에 참새의 피해가 심해 구제를 장려해 각 면 민 학교생도에게 담당케 했더니 결과가 양호해 6월 중 포획은 어미참새 613, 어린참새 24,558마리, 알 29,284개에 달한다. (1912.08.14)

19) 행사

여주 관민 일동은 10월 31일 오전부터 군청 누문櫺門 앞 광장에서 천장절 축하회를 열었다. 회장會場 부근에는 만국기로 장식하고, 여흥으로 씨름, 제등행렬, 골계 연극을 행했다. 국기와 둥근 등을 각 호에 걸었다. (1917.11.02)

20) 현상공모

미국에서 온 귀여운 인형 환영하는 노래를 대판조일신문에서 현상 공모하여 1등상은 여주공립보통학교 4년생 정옥조(12)양이 당선되어 2월 28일에 대판大阪으로 떠났다. (1927.03.02)

13. 연천, 삭녕, 적성, 마전

1) 관리부정

연천군 영근면 은대리 권기채(56)는 면장으로서 1915년 1월 경부터 3월까지 보관해 두었던 1915년도 면경비 261원을 자기 생활비로 써버렸다. (1915.11.28)

2) 교육

적성군 공립보통학교 훈도 3명이 야학과를 설립하고 경비를 자담自擔하여 매일 번갈아가며 교수중인데, 생도가 70여 명이다. (1913.01.14)

기존 삭녕공립보통학교 제1회 졸업식을 26일 거행함, 유지신사 6,7인이 다소 물품을 기부했다. (1914.03.31)

연천군 북면 동변리 이종구는 이번 봄 삭녕 공립보통학교 졸업식에 많은 물품을 기부했고, 생도 전부에게 모자 160개 대금 51원 80전을 기부해 교장, 면장이 이를 표상하기 위해 연천 군수에게 보고했다. (1914.07.15)

연천군 남면의 상수리 흥씨, 매곡리 백씨, 신산리 이씨, 두곡리 이씨, 한산리 송씨, 입암리 윤씨 그 면에서 6대 성씨라 한다. 그러나 남면 내에 학교 시설이 없어, 자손 교육의 길이 없자 6대 성씨의 수치라 개탄했다. 이에 작년 봄에 동군 군수 김연상이 남면에 출장을 왔을 때, 6대 성씨 대표자들과 회합해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다행히 남면에 학교가 생기게 되었다. 6대 성씨 대표자들은 각 1천원 씩 모금을 해 학교기본금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흥씨, 백씨는 어쩐 일인지, 기부금 1천원을 내어놓지 않았다. 이에 지난 2월에 학교 창설에 대한 개회가 있을 때, 두곡리 이한인씨가 흥, 백 양씨의 행동을 꾸짖었다. 이씨는 곧 자기집 가산을 팔아서 흥, 백 양씨가 기부해야 할 천원을 대신 내놓기로 했다. 그런데 이씨가 천원을 내어놓으면, 자기집 부모를 봉양하기 매우 어렵게 될 터였으니, 이씨의 형되는 이한철씨가 동생을 뜻을 장하게 여겨 돈 2천원을 내어 주어, 학교는 무사히 창립될 수 있었다. (1920.04.01)

연천 공립 보통학교 생도는 1~2학년 때 수공으로 집에서 새끼꼬기와 싸리로 바꾸니

같은 것을 만들며, 3~5학년생은 농사 실습을 하여 그 얻은 바를 팔아 저금한다. 수공 만드는 재료는 모두 학교에서 준다. 그리하여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생도 52명(인솔교사 3명)이 경성을 견학했다. 그간 모은 돈 110원으로 여비에 보태 견학한 것이다. (1921.03.25)

연천군 왕징면 유지 면민이 1만 원을 모아 보통학교를 세우고 1월 27일 개학식을 거행했다. 왕징면 이외 경성 장단 파주, 일본 강산(剛山)현 출신 인사들도 금액을 기부했다. (1925.03.19)

3) 교통

연천 부근 임진강은 12월 12~3일경부터 점차 결빙하여 빙상 도보를 개시하였으나 우마(牛馬)의 교통은 아직 위험할 염려가 있다. (1913.12.24)

연천군 관내 임진강과 한강은 12월 25일 이래의 한기(寒氣)로 결빙(結氷)되어 각 도선장은 결빙과 동시에 인마의 통과가 안전하다. (1917.01.11)

4) 구휼

고랑포 유지자 유해림은 지역 빈민을 위해 신식 직기 십수대를 구입해 지난달부터 3명의 교사를 초빙해 직조하여 개성 방면으로 이출한다. 지역 빈민은 유씨로 인해 생활하는 자가 많다. (1912.01.30)

5) 농업

연천군수 정용한(鄭容漢)이 연천군의 풍작을 조사해 경기도청으로 보고를 올렸다. (1910.12.23)

은사수산장과 농업실습소, 작잠업실습소 등의 졸업생 13명에 대해 은전을 기리고 수업한 기술 실행의 장려와 사업을 일반 보급할 목적으로 군청 주관 하에 보은회를 조직했다. 매년 1회씩 회집함, 지난 23일 읍내 명륜당에서 제1회 보은회를 개최함, 생도, 조선일본 관리, 군참사, 각 면장, 기타 유지자 약 50명이 참석, 군수와 내빈의 훈시와 연설, 다과회 등을 실시한다. (1912.10.27)

12월 2일 연천군농회 주최로 백학면과 적성면 일부 산품 대두를 집합하여 장단군 고랑포시장(장단군농회 창고 안에서 공동판매를 실시했는데, 총수 1,500여 가마를 출시했다. 이를 경쟁 입찰에 부친 결과 경성공익사의 최고 입찰인 3등 1석(10두들이) 14원 10전에 낙찰되었고, 당일 현지 시세 평균 1석 11원 80전에 비해 2원 30전의 이득을 보았으므로 이를 1석에 대한 포장 가마, 새끼줄 대금, 검사수수료(가마, 새끼 대금 85전, 수수료 10전) 95전을 공제해도 당업자의 순익금 1석당 1원 35전의 이득을 보게 되었다. 연천전곡역에서도 장날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계속 시행하고 있다. 현재 총 판매량이 2천 7백여 가마이다. 판매일마다 현지 시세보다 석당 1원 20~30전의 순익을 얻는 중이다. (1929.12.07)

6) 맹수

관인면과 군내면 일대 보개산중에 호표류가 출몰해 오봉산 중에 그물을 설치해 모표 1마리를 포획했는데, 체량이 12관이다. (1914.01.09)

7) 상업

연천군 이근명 등 3명이 발기하여 관인면 중리에 새로운 시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에 인허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은 경찰서에 지휘하여 인민의 이해 여하와 발기인의 신용 여하를 조사하게 했다. (1911.03.05)

연천군 우시장 설립건은 이번 경기도로부터 인가 지령이 있어서 7월 29일부터 개시했다. 당일 끌고나온 소가 160여 두에 달했다. 면당국에서는 매매 장려를 위해 당분간 도매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1927.08.02)

8) 소송

연천군 동면 어적리 박동형은 이봉익을 상대로 분묘발굴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22년 음 10월 12일 밤에 이봉익은 그 부근 공동묘지에 매장했던 처의 분묘를 파서 그 동리 무당산 박동형의 소유 산림에 이장하여 연천서의 처벌을 받았다. 그후 아직까지 분묘를 발굴치 않는다고 제소한 것이다. (1925.01.08)

9) 수리

공익수리조합은 연천군 관인면의 민유지 약 300정보에 관개공사를 계획해 흥천에 제언을 건축함에 약 1만 원이 필요할 것이고 준공 후에는 관개지 약 반분을 조합의 소유로 약속했다. (1912.09.05)

10) 우편소

1911년 10월 15일에 삭녕우체소가 폐지되고, 10월 16일에 삭녕우편소를 설치하여 그 사무를 계승했다. (1911.10.06)

11) 위생

연천군 왕징면 고왕리 이정월⁽⁵⁵⁾은 개성 동본정에 고용되어 있던 중 9월 3일 토사^{吐瀉}를 하므로 주인이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도중에 7일 사망하여 사위 3명과 장례식에서 일한 1명에게 감염하여 공의 진단 결과 의사 콜레라로 결정되었다. (1919.09.14)

연천군 왕징면 고왕리 이태창⁽²⁴⁾은 13일에 발병하고, 곽기영⁽²⁷⁾은 14일에 발병했는데, 모두 의사 콜레라 환자로 격리시켰다. 처음 발생 이후 합계 6명에 달했다. (1919.09.17)

연천경찰서에서 콜레라 예방을 위해 22일부터 나루터에서 검역을 개시했다. - 북면 우화정 도선장, - 왕징면 등리 도선장, - 남면 마탄 도선장, - 미면 당해 도선장 (1919.09.24)

1919년 장단군 임진강 연안, 1922년 10월 연천군 마산면 마전리에서 발진티푸스가 유행했었다. 연천군 적성면에 병이 또 발생해 경기도 위생과에서 의사를 파견해 검진케 했다. 이미 환자는 12명, 사망자는 4명이다. 임진강 연안에 예방의 계획을 진행하고자 본부에서 사람을 파견할 것이다. (1924.01.19)

연천군 내 발진티푸스의 창궐로 14일까지 26명의 전염자 중 3명이 죽어 위생과에서 주요 원인인 ‘빈대’ 박멸을 위해 발생지 임진강 연안에 지정구역을 정하고 일본으로부터 씨를 가져와 집집마다 제충국을 제배하기로 했다. (1924.01.26)

연천군 적성면 구읍리 불의의원장 이영우는 의술이 고명해 도규계에 가장 명예가 있고, 완전한 설비, 친절한 진료, 정밀한 약품 시용으로 이미 세간의 정평이 있는바 환자가 끊이지 않고 호평이 많다. (1924.03.29)

1월 15일 연천군 왕징면에서 의사疑似발진티푸스 환자 3명이 생겨 그중 1명은 혈청 검사 결과 진증眞症임이 판명되었는데, 소관 경찰서는 즉시 호구조사를 행하고 환자검색에 노력하여 다시 7명의 환자를 발견했다. 2월 9일에는 미산면에서 5명의 환자를 발견했다. (1925.02.15)

12) 잠업

도청 경영에 관계한 연천 풍혈은 지난해 말부터 공사를 개시, 정밀한 온습도 관측 결과 양호함, 2월 8일 신잠중 1,265매를 시험적으로 저장, 양호하여 도청에서는 이를 점차 확장할 계획이다. (1914.04.01)

13) 재해

1월 13일 밤 강우로 인한 경기도 관하의 피해 상황은, 임진강 약 3척 증수, 도선 두절, 연천-포천 간, 연천-금곡리 간 교량 2개소 파손, 영평 남대천 3척 증수, 교통 두절, 영평 읍내-양문리-포천-금곡리로 통하는 교량 유실, 양주군 한탄강 증수로 얼음덩이가 떠내려 오고, 도선 중지, 우편물은 미도착, 도로가 침수해 주민은 간신히 철도로 교통한다. (1912.01.16)

연천-포천 간, 금곡리-연천 간 교량 2개소, 양문리-포천-금곡리로 통하는 교량, 양주군 한탄강의 도선 중지 등을 모두 주민이 협력 수리해 15일부터 복구되었다. (1914.01.18)

4월 13일 비가 내린 이래로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보리는 지금 출수 때라 악영향을 크게 받고 콩, 조 등은 파종 시기이나 토지가 건조해 거의 발아하지 못하고 모판의 관개수가 가물어 모두 우려하고 있다. (1914.05.17)

8월 11일 호우로 연천군 수레울내車漚川가 30척이나 증수되어 다섯 집이 흘러가고 6명이 죽었다. (1917.08.14)

쏟아지는 비로 인해 연천과 삭녕 사이의 교통이 두절되었다. (1922.07.29)

연천군에도 9월 25일 같은 시간에 적성면 가월리에 같은 바람이 불어 전파 20호, 반파 14호, 지붕 벗겨진 집 14호, 바람으로 불이 일어나 소실된 집이 7호, 부상자 4명, 그 피해액이 2,570원이다. (1925.09.29)

연천은 유실가옥 25호, 무너진 가옥 80호, 마루 위까지 260호, 마루 아래까지 침수된 가옥 400호이다. (1927.07.27)

14) 지방사무

경기도 연천군수 정용한이 군내 사람들에게 교육과 식산등의 사항을 권장하며 납세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순시했다. (1910.12.14)

15) 토지

북면 횡산리 권중문은 작년 4월 개성군 남문 밖 최계열에게 소유토지가옥을 전당하고 450원을 빌림, 10월 본전 중 350원은 갚고 나머지와 변리를 갚을 수 없어 토지는 나중에 다시 무르기로 계약해 최씨에게 매각, 권씨가 변통 후 토지를 물려달라 했는데 최씨가 응하지 않아 그 집에 불을 놓아 체포되었다. (1914.01.19)

16) 행사

4월 3일은 진무천황의 제일이기 때문에 악기후를 무릅쓰고 군청원 일동과 보통학교 생도, 면서기원 등이 모두 모여 기념식수를 심었다. (1920.04.06)

17) 저축

적성군 공립보통학교장과 훈도가 생도들을 독려하여 나무를 하고 신발을 만들어 팔아 저축한 돈이 170원이다. (1913.01.14)

18) 수산장

은사수산생 14명에 달한다. 지시와 주의사항을 주고 상호 의견 교환, 산업 지식 증진을 위해 본월 제1회 협의회를 개최했다. (1912.12.25)

14. 용인, 양지

1) 교육

사립 용인보통학교에 일본인 교장이 경기도청 학무계에서 실지 견습한 후 부임했다. (1911.06.11)

2) 교화

군수 윤필구는 12면 면장과 기타 유지자를 권유해 매일신보를 다수히 청구하고 각 면장과 기타 인민에게 열람하게 했다. (1912.03.12)

지난 4일 공립보통학교 내에서 읍내 일반인민을 회동해 환등회를 개최했는데 청중자가 50인에 달했다. 5일에는 강화대회를 개최, 군참사, 면리장, 학무위원, 독농가, 기타 유지자 등 860여인이 참집했고 환등회를 개최함, 청중자가 1,000여 명이 그 날 밤 저축의 의지를 결의했다. (1912.10.20)

3) 구휼

용인군 내사면 창리 심동억은 동리 빈민 중 40명에게 정월 초하룻날에 백미 2섬을 내주었고, 이동면 어버리 이희덕은 동리 빈민 16명에게 음력 12월 30일에 백미 5되씩을 주었고, 내사면 추계리 송종언은 자기 소작인 중 빈민에게 정월 초하룻날에 쓰라고 백미 1말씩을 주었다. (1921.02.23)

4) 기부

양지군 고북면 하가리 상민 김경제는 가세가 넉넉하지 못하나 공익, 기타 인민 개발 사업에 뜻이 있어 봄에 양지공립보통학교 교사 증축비에 30원을 기부했고, 지난 명치 천황 대상에 상장 60여만 개를 빈민에게 무료로 나누어주었다. (1912.10.01)

5) 노동 쟁의

용인군 수지면 용인수리조합 인부 200여 명이 27일 오후 8시에 조합에 몰려가 감독監督, 조두組頭 등에 폭행을 가해 조두 1명이 중상을 입히고 폭행이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이 급보를 접한 수원 경찰서는 10명의 경관을 현장에 파견해 겨우 폭도를 진압 및 해산시켰다. 폭동의 원인은 수리공사중 암석 폭파공사의 임금이 본래 1원 50전이었던 것을, 27일부터 반값인 75전으로 내려,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것이었다. (1928.05.30)

6) 농업

용인군의 맥작은 평년에 비하면 2할, 작년에 비하면 1/3가량의 증수였다. (1911.06.28)

용인군청에서 각 동리장, 지주, 당업자를 각 면리의 장소에 소집해 농업순회교사를 파견해 모대를 개량해 단책형을 설치할 것을 설명하고 실시하게 했다. 5일부터 군 직원, 농사순회교사가 각 면에 출장해 검사를 종료할 것이다. (1914.05.19)

7) 무역

연엽초의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총독부의 알선으로 용인 등의 연엽초 약 13,000방을 삼정물산회사를 경유해 이번에 영국에 시험 수출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운송할 짐을 꾸리는 중이다. (1914.03.10)

8) 부업

양지군 군수 민원식은 고을 현병소장과 협의하고 군내 부녀의 부업을 장려한 결과, 고

북면 염치 사는 부녀들은 이전부터 떡서리(짚으로 만든 그릇) 제조를 개시하여 1년 동안 제조한 액수는 350원의 수입에 달한다. (1912.06.22)

농업의 부업을 장려하기 위해 양지군 관내 부녀로 하여금 떡서리를 만들어 생활의 보조를 삼으라 훈유한 바 고을 고북면은 집집마다 떡서리를 제조에 종사하여 그 제조한 것은 안성군 시장으로 갔다 판다. (1912.08.09)

9) 상례

동아일보 편집 감독 유근의 장의는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동아일보사 광장에서 거행했다. 동아일보 대표, 대종교 대표, 기타 유지 약 3백 명이 모여 생전의 공로와 사후의 낙원을 축복했다. 고등보통학교 학생, 중앙학교 학생, 휘문의숙 학생 등 다수가 참례하였고, 오전 8시에 동아일보 광장을 떠나 용인군 선영으로 향했다. (1925.05.26)

10) 소송

용인군 모현면 원촌리의 이간과 정의열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 능동에 있는 산판 415정 1반 15보는 이왕 국유지로 정몽주와 이석형이 각각 문혀 있다. 양쪽에서 사용하여 그 수익의 권리를 가지고 분묘를 수호하고, 나무를 벌채하며 화전을 개간하여 각기 소작인에게 도지(墾地) 벼를 받는 등 공동 사용해왔다. 정의열은 공동이 아니라고 부인하여 이간이 제소한 것이다. 경성복심법원에서 화해가 되었다. 그 산판은 정씨문중 산판으로 확인하며, 연안이씨의 집 분묘 있는 곳은 일정한 구역 내에 영구히 사용 수익하기로 승인한다는 조건이다. (1915.07.13)

용인군 원삼면 죽릉리 오항선은 작년 9월 13일에 충남 논산군 광석면 신당리 오유선에 대해 진출지(발행지)와 지불지는 경성으로 하고, 지불 기일은 작년 11월 11일로, 지불장소는 한일은행 남대문지점으로 액면금액 2,300원의 약속수형 한 장을 진출(발행)했다. 작년 9월 13일에 오유선이 남대문통 4정목 대동상회 이사 유인하에게, 또 유인하는 용인군 원삼면 죽릉리 오맹선에게 각각 거절증서를 작성하여 의무를 면제한 후 각각 이서(稟書) 양도했다. 이것을 한일은행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불기일이 당도하자 이수형을 오항선에게 보이고 그 지불을 청구했으나 지불해 주지 않으므로 그날로 오유선, 유인하, 오맹선에게 각각 환상(尙還)함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

자 한일은행 지배인 김윤진 명의로 4명을 피고로 하여 9월 14일에 지방법원 민사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21.09.16)

11) 소작

양지군에서 국유지소작인조합을 설립했는데, 회원이 275명이다. (1913.07.30)

12) 수산장

양지군 은사수산장의 요청으로 경기도청에서 기수(技手) 1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1911.06.07)

13) 여성

용인 김량장 재산가 나경석의 딸로 동경 여자미술학교 서양 그림과에서 공부하는 규수(18)는 어려서부터 필재가 기이함, 지금 학업성적이 일본여자보다도 빼어나다고 한다. (1914.04.07)

14) 연초

주서면 반정리 유장근 등 100여 명이 발기해 연초경작 조합을 조직, 규칙을 제정해 군청에 인가신청을 제출했다. (1912.01.13)

양지연초경작조합은 금년부터 조합원 경작 연초의 위탁판매를 12월 중에 약 5천 관을 3회에 할 계획이다. (1913.09.18)

용인연초조합에서는 8월 25일부터 사무소 소재지에 엽연초 및 기구 격납고格納庫 건설에 착수하여 10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1913.10.02)

용인군 연초경작조합에서 조성한 창고와 부속건물은 10월 6일 경기도청원과 용인군 청원의 입회로 준공을 검사 영수하여 조합에 교부하는 절차를 행했다. (1913.10.21)

양지 용인 2군에 걸친 용인엽연초는 제1회 공동판매에 16,119관을 평균 1관에 74전 9리로 동아연초회사에서 매수하였고, 다시 제2회 현품을 수집중인데 2월 24일에 광강상회에 총액 10,211관을 평균 75전 8리로 판매계약을 성립했다. (1915.02.25)

용인군청은 4월 17일 용인군 및 광주군의 일부로 구성된 연초경작조합 모범경작인 19명에 대해 상품수여식을 용인군청에서 거행한다. (1917.04.12)

15) 온돌

용인군에서는 8월 15일부터 26일까지 각 면에서 면장 당업자 및 유력자를 모아 온돌 강습회를 개최했다. (1923.08.30)

16) 위생

의사의 진단결과, 용인과 용산에서 재귀열로 의심되는 환자 5명이 식별되었고, 그 중 사망자도 있었다. (1918.04.14)

어떤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 죽었는데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유행성 감기라 보고하고 그냥 매장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전염되어 죽거나 위독한 상황이 되었고, 또한 아편도 밀매한 사실이 발각되어 조사 중이다. (1922.08.20)

1923년 1월 이래 용인군내 천연두는 점점 만연하여 환자 54명을 냈다. 2월 7일에는 직삼면 외 다른 면 환자를 합해 9명의 새 환자를 발견했다. 용인경찰서에서는 군민 5천여 명에 대해 종두를 놓아 주느라 바쁘다. 경기도 위생과장이 현장 시찰에 나섰다. (1923.02.09)

17) 잔치

기곡면의 종2품 이세지(90)는 평생에 적선해 인근 읍 사람들이 경기도 내의 신선이라 칭송한다. 아들이 5형제, 손자가 16명, 종손이 9명으로 남녀 혈속이 100여 명이다. 올해 3월 13일 만아들 환갑날에 일본인이 사진을 찍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여러 천명에 달했다. (1912.05.31)

18) 잠업

양지군 여자잠업전습소에서 여자의 잠업^{蠶業}을 장려했다. (1911.09.20)

은사수산장의 양잠은 6월 23일에 전부 상족했는데 성적이 좋은데, 뽕나무 밭은 수회 제초해 표토 4, 5 마디를 낫질하여 작은 모를 재식하고 모포는 잡초를 제거했는데 면 적은 총 1정 몇 보이다. (1912.07.24)

용인군에서 잠업자 68명에 대해 설유^{說諭}한 결과 자기 소유 재래 잠종 전반을 소각하고 개량종으로써 교체하여 군 전체에 개량종의 보급을 보았다. (1913.05.17)

경기도 지방비 사업으로, 용인군은 잠업 강습소를 신설해 조선인들에게 원잠의 제조 방법을 배우게 했다. (1916.04.25)

19) 재해

이번 수해로 용인과 경성 사이의 교통이 두절되었고 침수 가옥이 십여 호이며 사람과 가축의 사상도 다수 있었다. (1922.08.24)

용인에서는 7월 22일 오전 9시에 김량장천이 약 3척이나 증수되어 시구개정의 제방이 약 10칸통쯤 무너져 금달리에 이르는 1등 도로는 자동차가 일시 불통되어 우편연락도 지연되었다. (1923.07.24)

용인 김량천, 갈천, 석성천 등의 증수로 연안 가옥 60여 호가 침수했고 경부간 1등도로는 기흥면 구갈리에 약 10여 칸이 유실되어 교통이 두절되었다. (1924.07.27)

20) 저축

양지군의 근검저축조합원 총수는 2,086명, 금액은 2,661원 2전이고, 그중 국유지소작인은 1,523인, 금액은 1,479원 46전이다. (1913.01.09)

21) 지방사무

전 표훈원 기사 김우식金宇植이 양지 군수로 발령된 지 1달이 지났으나 잔무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다가 12월 16일에야 겨우 부임하였다. (1910.12.17)

지내면 면장 안종태는 면장 피임 4년에 총독부에서 발포하는 신법령 기타 제반 규칙을 인민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일준 시행하며 행정을 극력 보도해 일반이 찬송했다. 안씨가 사면하고자 해 인민 등은 재작일 도청에 원류를 제청하고 안씨가 환임하게 해달라고 했다. (1912.09.13)

22) 청림교

용인군 수여면장(이용호)은 도덕을 펴 제세할 목적으로 청림교에 입교한 후 지부장이 되었다. (1921.05.03)

23) 체육

경성 유학 용인학우회 하계 순회강연단 일행과 용인청년단이 8월 5일 용인 김량장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정구시합대회를 개최하여 순회강연단 일행이 우승했다. 6일에는 축구대회를 열어 무승부를 기록했다. (1921.08.18)

24) 토지

용인에 위치한 역둔토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부속되었는데, 역둔토에서 거둔 쌀은 여전히 세금으로 내게 되어있어 군수 윤필구가 그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속결로 교섭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1910.11.27)

용인군 상동면에 있는 역둔토를 현지 거주민 중에 민유지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으니, 경기도 재무부에서 군수에게 사실인지 조사하여 지급하고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1910.11.29)

25) 학우회

경성에 유학중인 용인학우회 순회강연단 일행은 8월 1일에 용인에 도착하여 청년 유지 및 매일신보 수원지국 후원 하에 용인공립보통학교 등 용인군 5개 공립보교에서 성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청중이 매일 5~6백여 명에 달했다. 학부형 측의 의연금인 3백여 원에 달했다. (1921.08.18)

경성에 유학하는 용인학우회에서는 지식개발의 목적으로 순회강연단을 조직하여 순회강연을 할 예정이다. (1922.08.19)

26) 해수

용인군 읍3면 부근에서 늑대가 출몰해 부민이 불안해 떨어 했는데, 수일 전 밤에는 용인 구읍내 농가에 늑대가 돌입해 돼지 3마리를 죽이기도 했다. 이에 김량 헌병대에서 이민들과 협력해 늑대의 퇴치에 나섰다. (1916.08.23)

27) 형평사

십만 명의 백정이 단결하여 세력이 점점 커지는 형평사의 사원들과 일반 민중사이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둘 사이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으며 경찰은 이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1926.03.29)

15. 이천, 음죽

1) 관광, 견학

사립 이천군 보통학교 생도 중 신체 건강자 10여 명이 수원군으로 수학 여행했다. 관람한 곳은 권업모범장, 농림학교, 자혜의원, 기타 각 정거장 등이었다. (1911.06.22)

실업과 교육 상황을 실지 견학하고자 군수 주영환이 20여 명의 경성관광단을 인솔

하여 김량장에서 숙박하고 수원 권업 모범장과 농림학교, 경성을 관람하기로 했다. (1912.04.25)

이천 관광단원 20명이 지난 1일 출발해 지난 2일에 수원군 권업모범장, 기타 명소를 관람 후 상경해 도청의 각계 집무 상황을 시찰하고, 본일 매일신보사와 경성일보사의 정황을 시찰한다. (1912.05.03)

군수 주영환이 인솔한 이천 견학단 남녀 52명이 입경해 4일간 체류하고 각 방면을 관광할 것이다. (1912.05.04)

2) 교육

음죽군 장호원에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1천여 원을 모금하고, 도비 5백 원을 지원받기로 했으며 교사 건축에 착수하여 9월 1일에 개교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1911.06.06)

대면의 사립대성학교에서 제2회 졸업식을 행했다. 졸업생 박창환이 여러 생도를 입회하고 ‘각기 세상에 나서서 상당한 직업을 얻은 후에는 이 학교를 잊어버리는 것을 우려된다, 학교의 재정에 대한 근심이 없지 않아 졸업생들에게 금전을 모집해 이번 졸업 경비에 보충하고, 학교 재정을 만분의 일이라도 보조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여 당장에 모집한 금액이 7원 70전이다. (1912.04.03)

이천군 사립 특신학교에서는 24일에 제7회 졸업식이 있었다. (1919.03.28)

이천공립보통학교에서 22일 제7회 졸업식을 했다. 졸업생은 35명이다. (1919.03.28)

이천공립보통학교는 개축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23일 낙성식을 거행한다. (1923.11.15)

3) 교통

동면 현암 사는 김병옥은 경성에서 북부 제동에 사는 인력거 일꾼 진명석에게 5원만 빌려주고 시골로 태워주면 집에 가서 5원과 인력거비를 준다고 하여 인력거를 끌고 이

천군으로 내려가다 김병욱이 도주했고, 진명석은 몇일을 굶어 상경했다. (1912.06.02)

이천-수원, 이천-여주 자동차 운전은 매일 1회씩 왕복, 근래 승객이 증가해 3월 26일부터 매일 2회씩 운행하기로 했다. (1914.04.02)

4) 구휼, 기부

음죽군 남면 남천동 이장(이현재)이 8백 원을 차입하여 추수 후에 상환 조건으로 빈민에게 나눠주었다. (1911.05.27)

이천군 신둔면 마교리 이영화는 동리 거민 중 극빈자 11호에 대해 매호 인 5두씩을 시급했다. 이천인으로서의 희귀한 일이다. (1919.05.20)

이천군 울면 산성리 송순권(53)은 약 20년 동안 농업에 힘을 써서 근근이 모인 돈이 수만 원이다. 춘궁을 당해 조석(朝夕)을 굶이지 못하는 동리 90여 호에 대해 지난 1일에 조1되씩을 나눠주었다. (1927.06.17)

이천군 읍내면 관고리 구장 이근영은 음력 연말에 백미 3석 5두, 가격 83원 50전 어치를 매입하여 동리 적빈자 70명에게 나누어 주었다. (1929.02.20)

사립대승학교 교감 박봉채는 박창환의 부친으로, 임원제로부터 의논해 통문 한 장을 만들어 윤람 후에 각기 날장하여 기부한 금액이 46원 50전에 달한다. (1912.04.03)

5) 농업

농작물 피해 상황은 가장 심한 곳은 근화면, 원화면, 상요면 등, 수도 피해고가 5,284원가량이다. (1912.11.02)

재래면의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이천군 각 면에서는 농가에 면(綿)의 종자를 보존하여 경작기에 유감이 없도록 장려했다. (1919.02.17)

이천군에서 고래(古來) 재배하던 진상벼는 도내 가장 조성(淸城)하는 종류로 대개 8월 상순

이면 성숙하나 아직 세상에서 그 존재를 인정치 않는다. 경기도에서 미곡주사로 하여금 출장케 하여 군청과 협력한 후 3석을 조제하여 8월 17일에 대판大阪 및 신호神戶로 이출케 하고, 그 외 일부는 수원검사소를 거쳐 인천에 반출하여 22일에 조선정미 인천지점으로 1석 35원가價로 계약했다. (1921.08.26)

이천 쌀(진상 벼)에 대해 신호神戶미비시장일보 8월 25일 자에 소개되었다. 신호 미비시장 외국 미곡 조사원이 평가한 결과 품질은 양호하여 신호 두곡 정미소에서 1석 40원으로 거래되었다. (1921.09.02)

6) 도박

청국인 9명이 지난 달 21일에 음죽군 운설성산 기슭에서 조선인 70~80명을 요합해 채표(雀牌)를 발매하여 체포되었다. (1912.02.04)

7) 무역

경기도 이천의 남한강 유역에는 최근 이출입이 발달해 조사에 따르면 그 수는 914,300에 도달하고 이출 물품으로는 쌀, 대두, 보리, 소가죽 등이 있고 수입 물품으로는 소맥, 석유 등이 있다. (1914.10.21)

8) 미신

이천군 백사면과 부발면에 30세 가량의 승려복색을 한 사람이 나타나 겨울에 날씨가 따뜻해 괴상한 병이 유행할 텐데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속이고 금품을 편취騙取하는 일이 있다. 이에 이천경찰서에서 체포를 위해 수색 중이다. (1925.11.21)

9) 부역

이천군 공립보통학교 신축에 매일 수십명의 인민이 교대로 자원 응역應役했다. (1911.10.11)

이천 군내에서는 읍내를 비롯하여 각 리별 모두 부역이나 또는 타 법령 주지케 할 때에 그 리 가도로 두루 다니며 고성을 발하여 출역^{出役}하라고 고창^{高唱}하는 재래 풍습이 있다. 지금은 소요 중임에도 이를 단행하여 민간의 잠시적 놀람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소리는 ‘만세’라는 음과 흡사하여 놀람이 없지 않으므로 면 당국은 극히 주의, 개량할 일이다. (1919.04.16)

10) 상례

동면 면장 김제인은 상장을 다수 제조해 일반 인민에게 나누어주었다. (1912.08.24)

남면 면장 김석제는 상장을 다수 만들어 면내 인구의 수요를 따라 분급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사람이 상장을 붙이지 않고 있으면 분급했다. (1912.09.05)

국장^{國葬} 배관을 위해 상경하는 사람이 극도 다수에 달해 이천군 자동차부에는 대차 혼잡이 있었는데 내객의 순차가 다르게 승차표를 발매했다. (1919.03.09)

국장 당일 이천군에서는 애도를 표하기 위해 읍내 관고리 ●산에 식장을 설치하고 유지 인민 다수가 참석하여 거행했다. (1919.03.09)

11) 상업

이천군에서는 최근 시장에 출회하는 곡물이 희소하여 세민^{細民} 생활에 곤란이 있다. 그 원인은 곡류업자가 장날이면 중매인을 각 길가에 세웠다가 매수하기 때문인데, 시장세의 탈세, 몇 말의 쌀을 바라는 세민이 곤경에 처하게 된다. (1919.02.17)

12) 소방대

이천군 읍내 조선인, 일본인 45명으로 소방대를 조직했다. (1911.05.19)

13) 소작인, 소작료

경기도 재무부에서 이천군 국유지소작인조합에 대해 보조금 5백 원을 기부했다. (1911.07.04)

이천군 설성면에 남작 이근호의 토지가 있는데, 왕년에 수차 도조賭租를 증가했으나 작년 지세 증가될 때는 도조를 늘리지 않겠다 하여 수백 소작인이 송덕비까지 세웠는데, 마름이 바뀌자 도조가 격증되었으므로 소작인들의 원성이 창천漲天한다. (1919.03.28)

사립 양정고등보통학교 이사가 5월 11일 이천군에 가서 그 학교 소작인 중 수십 명을 선발하여 농구農具 등의 상품을 수여했다. (1919.05.18)

이천소작인상조회가 부진함에 따라 청년회 및 노동조합이 협력하여 3월 4일 임시총회를 이천 노동조합소 안에서 개최했다. 군수, 경찰서장, 11면 면장, 137리·구장, 소작인 약 3천 명이 참석했다. 경성본부 이사(장문환 이창환)가 취지를 설명했다. 8개 조의 '소작제도 실시사항'을 실행하기로 공포했다. (1923.03.24)

14) 수리조합

미리 신청 중이던 이천 수리조합은 8일부로 인가되었다. 그 구역은 이천군 신원리부터 고백리까지다. (1926.03.11)

15) 야학

공립보통학교 교장은 이천 야학회를 조직해 일본어, 일상 생활의 필수 지식, 기능을 교수하고 근검 저축의 정신을 양성할 뜻으로 실과, 임학상업 3과목을 교수하기로 결정했다. (1912.05.29)

공립보통학교 교장은 이천 야학회 회원은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로 조직하고 군수, 학교장, 금융조합장, 군서기, 우편국장, 헌병파견소장, 군참사, 면장 등을 역원으로 추천해 규약을 제정했다. 일선 용화를 도모하고 생도, 지방 유지자로 일요담화회를 조직해 일본어로 담화를 연습해 지식을 교환하기로 했다. (1912.05.29)

16) 양조-밀조

이천군 마장면 모 구장은 하급행정의 책임이 있음에도 밀조密造하다가 발각되어 벌금 처분을 받았다. (1919.02.21)

17) 위생

이천지방금융조합 이사高橋眞治가 신병이 발생하여 수원군 자혜의원에서 치료할 목적으로 도 재무부에 신청하여 즉시 인허를 받았다. (1911.07.09)

이천헌병분견소 관내 각 면에는 4월 10일 읍내면을 비롯하여 15일까지 춘계 청결법을 시행하고 20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춘계 종두법을 행한다. 관내 인민은 지정장소에 집합하여 접종함이 가하겠다. (1919.04.12)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에서는 지방 인민의 위생사상을 선전하고자 이천군을 위시하여 전람회를 개최한다는데, 특히 활동사진까지 있어 매우 재미있을 것이라 하였다. (1922.10.22)

이천군 백송면 송말리에서 2명이 지난 30일 천연두에 걸려 경찰서에서 경찰의를 파견해 약 50여 호 되는 동리 전체에 대해 검병 조사를 행한바 다른 환자는 없었다. (1924.03.18)

이천군 신둔면 수광 주재소에서는 하기 위생 사상을 일반 면민에게 독려하기 위해 우승기를 만들어 파리 잡기를 경쟁시킨 결과 약 40일 간에 1석여餘에 달했다. 지난 음력 5월 5일 신축주재소 낙성식 겸 우승기 수여식을 거행했다. 1등은 지석리 2두 3승이다. (1925.06.30)

18) 은행

조선상업은행에서는 경기도 이천에 지점을 개설하고자 하였는데, 4월 29일부로 허가가 떨어져서 가능하게 되었다. 동대문출장소장이 지점장을 맡게 되었다. (1918.05.03)

19) 일본어

마면 오천리 일본어강습소에서 음력 10월 15일 제3회 수업시험을 보았다. 3년급 최우등생 박상록, 동우등생 최상필, 최상찬, 2년급 최우등생 천주동, 동우등생 민영태, 박상렬 등이다. (1912.12.03)

20) 재해

이천군은 2개월간이나 비가 없어 초목과 곡물이 황폐하여 민심이 흉흉하더니 기우제를 지낸 후 26일 희우가 내렸다. (1919.08.30)

이천군에서는 가뭄피해 지역 지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코자 준비 중이다. (1919.10.15)

장호원은 홍수로 촌락이 전부 침수되었으나 거주민은 산으로 피난하였으므로 한명도 사상자가 없었다. 촌락의 인민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자 협의 중이다. (1922.08.08)

21) 전승

만 10년간 이천금융조합 이사로 재근하다가 도서기로 영전된 高橋辰治를 위해 조합원 일동이 각금 醴金하여 금시계 1개를 특제特製하여 증정했다. (1919.05.20)

22) 전화

이천에 공중전화교환을 개시하기로 하였고 체신국으로부터 공사에 착수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1926.03.14)

23) 일선영화

대정친목회 이사(최강)는 5월 11일에 이천에 가서 군수(김용제)의 안내로 각 면장과 면내 유력자 다수를 모아 '소요에 관해 민심 귀안책'을 장시간 강연했다. (1919.05.18)

이천에서는 5월 25일 이천공원에서 '내선인 간친회'를 열고 회원 3백여 명이 모여 정답을 하고 하루 동안 청유淸遊를 했는데, 구경꾼이 무려 수천이며 이천에는 기왕에 없던 상황이었다. (1919.05.31)

24) 종교

경기도장관은 이천군 사면 영원암 주지에 김인찬을 인가했다. (1913.09.27)

25) 지방사무

이천군 읍내면 갈산리 구장(서광봉)은 원래 자산가로 농사개량에 특히 열심(熱心)하여 경기도의 5개년 계획으로 농사증식사업에 특별한 성적을 거두어 모범구장에 추천되었다. (1919.02.21)

이천군수(김8제)는 11일부터 각면에 출장하여 구장과 지방유력자를 소집하고 시국에 관해 훈유했다. ‘유언비어를 믿지 말고 총독 유고에 흠준(欽遵)하여 안업(安業)하고 망동(妄動)이 없게 하라’는 내용이다. (1919.03.28)

이천군 청미면장 황영수는 공무에 열심하며 승관(承官) 접민(接民)에 진력하므로 저번 소요(3.1운동-인용자) 시에도 각 면 중 제일 안온히 경과하였는데, 이번 경기도로부터 은배(銀杯) 1대(臺)를 수여하여 그 공을 포창하였으므로 5월 16일 군청에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1919.05.23)

26) 체육

이천군 읍내를 동서로 나누어 본월(3월) 9일 오전 9시에 고리연병장에서 줄다리기를 개최했다. 관람자가 인산인해였다.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있다가 오후 여섯시에 서부에서 승리했다. (1920.03.23)

이천군에서는 6월 28일 이천군 주최로 정구대회를 이천공립보통학교 코트에서 개최했다. 여주, 용인, 장호원, 이포, 가남, 충북 진천 등 각 군면의 7개 군(軍)이 참가했다. 오후 2시까지 예선을 하고 3시부터 결선을 했다. (1925.07.04)

27) 친목회

사립대성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기억하고, 임원들은 학생에 대한 같은 마음을 유지할 목적으로 기념 참동회를 조직해 학교를 영구히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912.04.03)

28) 태형

호법면 유량곡동 이용민⁽²⁵⁾은 근일 경성으로 올라가 유련하다가 중부 황토현 신작로 건너편에 심은 버드나무 한 그루를 꺾다 순사에게 발견되어 경찰서로 잡혀가 불기 열대를 때려 방송되었다. (1912.06.23)

29) 품평회

지난 7일에 이천군 내에서 8개면연합 농산물품평회가 개최 되었다. (1916.11.09)

이천군에서 농산물품평회가 11월 16일부터 3일간 열릴 예정이다. (1920.11.13)

이천군 산업단체 주최의 산업품평회가 이천읍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출품물은 산업, 양업, 잠업, 축산업 등 전부에 관련된 수천 점이 있고 운동회도 할 계획이다. (1922.10.08)

이천시에서 농산물품평회를 오는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천공립보통학교내에서 개최한다. (1926.10.18)

30) 행사

9월 13일 음죽군청에서 명치천황의 봉도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21명의 준비위원을 선거했다. 적당한 처소를 선정해 장래 명치천황 제일에 요배의 처소를 정하고 또는 명치신사를 건축하기로 협의한 바 있어 남작 이근호의 소유 산판에 정하고 11,12일에 인부 100명을 들여 터를 닦는다. (1912.09.26)

2월 11일 기원절에 이천군 각 공사립학교에 의식이 있었고, 군에서도 10시 배하식^{拜賀式}을 했다. (1919.02.17)

16. 장단

1) 광업

해풍부원군 윤택영은 장단군 등지에 금광을 개채할 계획으로 목하에 준비 중인데 곧 착수한다. (1910.10.07)

2) 교육

장단의 사립화성학교에서 27일 오전 12시에 졸업식을 거행했다. 화성학교의 재학생은 60여명이고 졸업생은 9명이다. (1916.03.30)

장단 공립보통학교에서는 1917년 봄부터 여자부를 신설하고 1학년생 약 60명을 모집하여 사립 한영우韓英友서원 옛터에 분교실을 설치하고 교수할 계획이다. (1917.03.20)

장단군 읍내 공립보통학교 여자부는 신입생이 50여 명이다. (1917.04.17)

장단 대남면 사립명성학교에서는 3월 31일 전교내에서 제 6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1920.04.11)

사립명성학교에서는 제 9회 졸업식을 학교 교실에서 거행하였다. 학생과 직원이 참석 한 가운데 개회사, 축사, 졸업생 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922.04.18)

장단군 진남면 도라산리에 진남공립보통학교 설치지령이 9월 6일 있었다. 12월 1일부터 개교예정이다. (1923.09.13)

3) 교통

12월 18일 오전 10시경에 경의선 장단역을 출발한 제133열차가 경성 기점 44마일 부근을 지날 때 나이 10세된 아이가 돌을 던져서 3등차의 유리창이 깨어지며 승객 1명이 머리에 경상을 당했다. 열차가 정거한 후 아이를 체포하여 관헌에게 넘겼다. (1927.12.21)

4) 교화

장단군 읍내 ‘국어야학회’ 주최로 1월 15일 오후 7시부터 제1회 통속강화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360여 명에 달했다. 강연 제목은 조선인 유희(遊戱) 중 금지할 사항이다. (1917.01.21)

5) 기부

장서면 고랑포에 근일 지화가 종종 있어 동민이 매일 밤 5,6명씩 순행함, 재산도 여윌롭고 망명이 자자한 한응두, 김영섭이 추운 밤에 야순의 곤란함을 생각해 20여원을 김상근에게 출급해 야순하는 제원의 요기비에 보용하게 했다. (1912.12.13)

송서면 면장 윤홍구는 다리를 수축할 때 24원을 기부했고, 가난한 10집의 세금을 자담 상납했고, 도로 수축할 때 자기의 토지를 기부했다. (1914.02.20)

6) 기후

장단군에 10월 17일에 첫서리가 내렸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10일이 늦었다. (1917.10.19)

7) 농업

장단군의 맥작은 3할 이상의 증수이다. (1911.06.28)

8) 대두

장단군에서 강원도 철원에 이르는 평야에서 나는 유명한 장단 대두는 산액(産額) 다량이고 품질이 양호하다. 종래 임진강 선편으로 인천으로 수송했으나, 철원까지 경원선 개통 결과 경성 상인의 상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1913.01.29)

장단군 대두 생육상황은 금융조합 직영전, 감독전, 조합경작지가 모두 양호한데, 직영전 감독전은 과린산석회 1반보 3관 혹 4관을 주고, 조합경작지는 1반보 5관을 사용했다. (1913.09.27)

일본 이출물 중 저명한 장단 대두의 재배 구역은 장단군 외 7군으로, 작부 반별은 전체 대두 작부 면적의 8할, 수확고는 전체 수확고의 8할 5분을 점함, 총 작부 반별은 6,476정인데 수확은 48,428석이다. (1914.04.01)

장단금융조합에서 새로운 대두를 보였는데, 각 지역의 금융조합에서 들여갔다. 그 양은 25,000석이고 작년에 비하면 3배 증가한 것이다. (1914.10.06)

장단대두는 최근 폭락해 5원 20전이 되었다. 처음에 비하면 3원 이상 떨어졌고, 지금도 하락세다. 원인은 불경기 때문이다. (1914.11.08)

대두의 우량품종(장단대두)의 개량 보급을 위해 1921년도부터 장단군의 3개면에 채종전 20정보를 경영했다. 추수기에 강우와 불량한 날씨로 조제가 지연되었으나 연내에 이를 종료했다. 112석 1반당 수량 5두 6승을 5월 파종 전에 교환해 실행할 예정이다. (1924.01.09)

9) 도량형

장단군에 농상공부 촉탁원이 출장하여 강화講話를 한 결과 이번 양기量器 614개, 도기度器 438개, 형기衡器 170개의 구입 신청이 있었다. (1913.07.08)

10) 부역

고랑진간 2리 34정의 도로 개수는 장단군청 감독 하에 부역에 의해 지난달 말일에 공사를 시작해 공사를 급히 시설하는 중이고, 또 개성군 토성 장단군 벽란도간 1리 12정의 도로도 부역으로 지난 달 1일부터 기공하여 곧 준공한다. (1912.07.11)

11) 산림

장단군 군내 경영의 면유面有 모범림에 사방공사를 착수했다. (1917.04.13)

장단 임야조사를 시행하고 정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임야 조사서 및 도면을 관청에 비치하고, 불복한 사람은 공시할 예정이니 총독부 임야조사계원에게 불복 신립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22.07.05)

12) 세금

장단군에서는 각종 세금과 부가금까지 완납했다. (1911.12.10)

장단군에서는 1915년도 제2기 주세와 연초경작세, 역둔토 소작료 등 전부 전액을 11월 29일 완납했다. (1915.12.04)

장단군 군수의 순회 설유 결과 1915년도 제1기분 지세가 12월 15일에 완납되었다. (1915.12.17)

13) 소방조

장단군에 소방조가 독일식 펌프 1대를 사 가지고 8월 15일 조직되었다. 그 동기^{動機}는 장단역 앞 여관하는 차원실⁽⁵²⁾의 공간에 7월 30일 불이 났는데, 차원실은 소방조 없음을 유감으로 여겨 40원을 소방기구 매입비로 제공하여 이를 기본으로 조직된 것이다. (1917.08.23)

14) 소송

일본인이 같이 사는 조선인의 돈을 조금 속여먹고 싶어 도장을 훔쳐 조선인 명의로 돈을 빌렸다. 이를 알고 증거를 제출해 소송했지만, 조선인은 패소하고 말았다. (1914.11.17)

15) 신분제

장단군 대강면 독정리 고명룡^(농업, 38)은 같은 동리 허걸^(양반, 39)과 함께 구화리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반상^{班常}의 다름으로 계급쟁투가 생겨 허걸을 살해했다. (1923.06.28)

16) 위생

9월 29일부터 5일간 자혜의원의 순회의원이 진료를 시행했다. 진료 받은 환자가 일본인 2명, 조선인 201명 내에 남자 174명, 여자 27명, 위장환자가 제일 많다. (1912.11.01)

장단군 진남면 도라산리 무녀巫女 전영희(56)는 8월 30일 오후 토사병에 걸려 콜레라 의심이 있어서 조사중이다. (1919.09.03)

9월 17일에 장단군 장도면에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1919.09.20)

17) 유치운동

장단군 경찰서는 현재까지 동내면에 있었는데, 청사가 협소하여 지난 5월부터 청사 확장한다는 말이 있었다. 군내면 주민들은 기지를 기부하고 인부를 기부하여 경찰서 신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그 후 상사의 명령이 있어서 진남면 동장리 장단정거장 근처로 이전한다고 하여 진남면민들은 9백 호 면민에게 2원가량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2천원을 기부할 터이니 경찰서를 이전하라고 운동중이다. 군내면민들은 경찰서가 이전하면 군청도 장차 이전할 것이므로 군내면은 필경 농촌에 불과하게 되겠으므로 군내면장 유용준 등 9명이 상경하여 경기도 내무부장, 경찰부장에게 진정했다. 그러나 상사의 명령이라 목적을 달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1921.08.21)

18) 인삼

부군 폐합 실시의 결과 행정구획 기타에 변경이 생겼다. 홍삼전매법 5조에 의해 인삼의 특별경작구역을 경기도에서는 개성, 장단으로 결정, 3월 1일부터 실시할 것으로 총독부 고시 제52호로 발표했다. (1914.02.26)

홍삼전매법 제8조에 의해 1914년 수삼 수확 조정의 기일을 개성 8월 10~31일, 장단 8월 20~31로 정해 어제 관보로 발표했다. (1914.08.11)

19) 일본어

장단군 사립 화성학교에서 하기 휴업을 이용해 사립계몽학교와 연합해 일본어 강습을 하기 위해 제1회 연설회를 계몽학교에서 개최했고, 제2회 연설회는 화성학교에서 개최할 것이다. (1914.08.02)

장단 국어(일본어)야학회에서 교수 결과 일본어를 조금 이해하는 자가 70~80명 증가했다. (1917.03.06)

20) 일선윙화

장단군 진서면 사인^{士人} 우종익, 이희덕, 이우현 등의 발기로 신해^{辛亥} 금사^{金社}의 예를 모방하여 개성, 장단, 기타 부근의 사람들을 연락하고 을묘금사를 결성했다. 8월 31일(천장절)에 문제(월출어동산자상)로 시문을 창수하고, 소수의 상품과 약간의 오찬으로 할 계 획인데, 참가자 파다하다. (1915.08.17)

장단 보통학교 안에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군내 유지 및 일반 인민을 모아 충 군애국하는 정신과 국민적 사상 계발을 위해 ‘기미가요’ 창가^{唱歌}를 교수하게 했다. (1917.02.03)

21) 잠업

군청에서 지난 12일부터 군내 유지를 회동해 잠업 강습회를 열고 실지 교수한 후 15 일에 잠업 강습원에게 증서 수여식을 행했다. 실습생이 50여 명에 달하고 일반 인 민들도 잠업을 각기 경영하기로 준비 중으로 경내 잠업이 대발전을 보이고 있다. (1912.03.23)

22) 재해

장단에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천둥 번개 먹구름 소나기와 콩알 만한 우박이 쏟아 졌다. (1919.09.26)

1929년장단 방면에 임진강이 증수되어 문산역 철도선로 약 1마일에 1척 5촌 가량 이 침수되어 1일 오전 경성으로 향하는 열차는 다시 장단역으로 돌아갔다. 임진강의 증수는 46척에 달하여 극히 위험한 상태이고, 고랑포에는 침수한 가옥이 다수이다. (1923.08.03)

1929년장단은 교통 두절되고 유실가옥 4채, 이수된 가옥 169호, 통남 수리조합 제방 이 파괴되었다. (1924.07.23)

1929년장단군 진남면 수해 의연금이 끊이지 않아 누계 243원 20전이다. (1924.08.12)

1929년봉동-장단 사이 경의선 중 수해로 파손되었던 곳에서 12일 화물열차가 탈선되어 열차 불통이 되었다. (1924.08.13)

23) 저축

장단군에서 작년 3월 체신국의 계획과 경기도의 장려에 의해 관내 각 학교(8개 학교, 6개 공립보통학교, 2개 심상소학교) 아동의 저축을 극력 장려한 결과 금년 3월 말 현재 성적이 441명, 689.84원에 달했다. (1927.05.21)

24) 조선어

장단군청 일본인 직원들이 선어연구회를 조직하여 매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회의실에서 공부했다. (1917.03.06)

25) 종교

장단군 화장사에서 청년 승려를 교육하기 위해 학식이 뛰어난 한용운을 교사로 모셔왔다. 학교의 이름을 화산 강숙華山講塾이라 이름 붙이고 1910년 9월 23일에 개학했다. 숙장은 이경재, 숙감은 김지순이 맡았다. (1910.11.27)

장단군 화장사 승려 20여 명의 관광단은 그저께 밤에 입경해 어제 총독부를 방문했다. (1914.04.30)

장단군 청림교도 윤지형은 4, 5년 전부터 개성, 장단 등지로 배회하며 갑자년에 정도령이 충청도 계룡산에 나타나 불비를 내려 세상을 전멸을 시킬 것인데 청림교를 믿으면 재앙을 면하고 정도령이 천자가 될 때 고관대작에 임명한다며 속이고 금전을 취해 징역 1년을 받았다. (1924.11.21)

26) 지방사무

장단군 동도면 인민들이 면장 이윤원이 공사에 어둡기 때문에 자격이 부족하니, 지금 면장을 개차하고 덕망 있는 자를 새로 면장으로 임명해달라고 경기도청에 청원했다. (1910.12.08)

고랑포 김병직은 1년 전에 동장으로 시무하다가 경비로 자기 소유 140원을 임시 사용했다가 동장 해면 후, 신임 동장과 일반 동민에게 그 금액을 수렴하여 달라했으나 조치가 없어 변호사 川內卯市에게 위임했다. 위임한 변호사가 인민에게 41원을 빼앗아 김씨가 현병 분대소에 고발했다. (1912.02.18)

장단군 진동면 면장 김준은 납세의무, 농사개량, 법령 등을 열심히 지도해 모범이 될 만하다. (1914.05.03)

장단군 각 면서기 제1회 연구회를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군내면 사무소에서 실시했다. 군수 이명환이 문부文簿상 처리와 민적취급 수속을 일치하도록 설유했다. (1915.12.04)

27) 체육

장단군 유지들이 체육장려회를 조직하고 각 면에 지부를 설치했다.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각종 운동을 한다. (1917.05.04)

28) 축산

장단군 가금家禽품평회가 고랑포공립보통학교에서 20~21일에 열렸다. 표창식은 20일 회장 앞뜰에서 개최되었다. 닭 출품은 70점, 계란의 출품은 50점이었다. (1927.03.25)

29) 행사

2월 11일 장단군 보통학교 안에서 학생 및 일반 인사 3백여 명이 모여 (기원절-인용자) 축하식을 거행했다. (1917.02.14)

장단군에서는 31일 오전 (천장절-인용자) 축하회를 마친 후, 남녀학도의 운동을 하다가 오후 8시부터 제등행렬을 시작했다. (1917.11.04)

17. 파주, 교하, 문산

1) 공산당

파주가 고향인 김정환(36)은 1927년 8월경 소련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귀향하여 표면 단체인 농인사를 조직하고, 다시 개성의 계몽학원 관계자와 비밀리에 공산당 결당식을 했다. 이후 평소부터 압박을 받아오던 성씨 중계의 서원에 1928년 10월 26일에 방화하고, 또 파주 우계(성환) 종손 성흥경의 집에 방화하여 천여 원의 손해를 냈는데, 공산당으로서 이같이 직접 행동(계급타파)하기는 처음이다. (1929.06.30)

2) 광업

금광에서 석탄 원료가 발견되어 1일 1만 근 이상을 채굴하고자 한다. (1912.05.05)

3) 교육

교하군 일본인 서기 저오무부(猪俣武夫)는 임명 이후로 교육을 협찬하여 매일 사퇴여가로 사립 선성학교에서 일본어과를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의 성취에 도움을 주고 있다. (1910.12.02)

교육칙어에 대해 파주 피남학교 교사 윤원혁은 생도에게 열심히 베끼게 하고 과업전에 봉독시킨다. (1912.03.06)

파주군 문산공립보통학교에서 12월 10일 신축 낙성식을 거행했다. (1917.12.14)

파주군 탄현면에서 5월 16일 탄현공립보통학교 설립총회를 열었다. (1921.05.18)

파주군 광탄면에서 4월 1일부터 융화회를 설립한 후 교육부, 서무부, 운동부를 설치했다. 면내 서당 개량을 위시하여 일반 민의 산업에 이르기까지 대개혁을 할 것이다. 7월부터 학계를 설립하여 교육자금에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1921.06.25)

파주군 천현면에 학교가 없어 면내 유지의 발기로 보통학교기성회를 조직하고 기부금을 모집하던 바 현재 2천 원의 응모가 있었다. (1921.08.30)

파주군 와석면 교하공립보통학교 교사는 옛 교하군 관아 건물을 사용했으나 최근 교실의 협소, 기타 사세로 인해 학교 및 군 당국으로부터 개축의 의논이 일어나 그 경비를 현재 통학구역인 와석 아동^{衙洞} 및 청탄면의 일부 인민에게 부담키 위해 수차 관계 각면장, 면협의회원, 학교평의원 기타 유지 인사를 회집하여 협의했다. 서부인 청석면 인민은 그 면의 남반부가 현재 위치에서 20리 이상의 원거리에 격하여 아동의 통학이 불능하므로 이 개축 기회에 와석, 청탄 양면의 중앙 지점을 택해 이축하기를 희망하고, 그 동부인 아동면 인민은 와석면과 일대의 하천을 격하여 아동의 통학이 불편하고 또 본 면은 본군의 제2 요충인 금촌역 부근의 신^新 발전지대를 공^公控하여 본면의 전 부, 월릉면의 반부^{半部}, 탄현면의 일부와 접하여 호구의 배포와 교통의 편리 등 제반 형편에 의하여 이 땅에 보통학교를 설치함이 시세의 요구상 급^急절^切 불가^不可^可緩^緩의 사정이라고 하여 근^近일^日에 금촌보통학교 설립기성회를 조직하고 면민이 일치 협동하여 본년도 호별^{戶別}할^割 10배의 표준으로 각 그 설립비를 담당하기로 하고 한편으로 공립허가의 수속을 군^郡당국에 요청했다. 군 당국도 이 사정을 요해하나 목하 경비 부담, 기타 형편상 신설 또는 이전이 모두 시기상조라 하여 당분간 현재 위치에 개축하여 공동 유지함이 가하다는 뜻으로 설명했다. 인민 측에서는 현재 위치를 청탄, 와석 양면 중앙에 옮기고 아동면 금촌에 1교를 신설하기를 간^懇願한다. (1921.12.07)

파주시에서 교실부족으로 40여 명의 입학을 미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 중이다. (1922.01.29)

파주공립보통학교는 올해 새로 학교를 건축하기로 했는데, 비용은 마을사람들이 나누어 내기로 했다. 그러나 가난한 집이 내는 비용은 면제시켜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추가로 기부해 그것을 부담하기로 했다. (1922.02.26)

파주군 재산가 박만용은 청년 자제를 독려해 월릉면 제일학교에 학교 건물 1동을 기부했고, 교사의 일가족 생활비용을 전부 자담했다. (1924.03.18)

파주군 아동면 금촌학교 기성회와 금촌금융조합 사이에 학교건축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기성회장(정영진)이 실제적 사람이 없는 허위의 성명을 면^面호적부에 등재하고 이들의 명의로써 수천원의 금액을 부당대차한 결과 면장까지 파면되고 취조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이제 확실한 소식통에 따르면, 기성회에서 금융조합에 대해 자금융통의 임시적 수단으로 면내 거주자로 하여금 금융조합에 다수 가입케 하여 그 명의로써 금전을 차입함은 사실이나 기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1925.04.22)

4) 교통

파주군수는 대규모로 군내 옛 도로를 수선하고 새 도로를 개착開鑿할 계획으로 조사했다. (1911.01.13)

5) 교화

파주군 관민 유지의 발기로 교풍矯風 장려계를 조직하기 위해 5월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20여 명이 출석하여 발기인회를 개최했다. (1917.05.17)

6) 구휼

(파주군 진림면의 도성학이 빈민 약 1백 50명에게 백미 2승과 나무 1바리씩 기증했다. (1916.02.17)

경기도 파주군 이증혁씨는 그 선대로부터 가산이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자선심이 있어 흉년을 당하면 미곡을 빈민에게 적선하였더니, 이증혁씨도 그 부조의 풍도風度를 물려받아 흉년에 자선을 자주 하였고, 그 동생 이증●씨와 공동으로 자기 집의 토지를 팔아 미곡을 동리의 빈민들에게 적선하였다. (1920.05.26)

문산 이재민에 대한 구제의 연금은 28일까지 모금된 것으로 약 900원이 모였다. (1922.08.31)

7) 금융조합

4월 23일 문산포금융조합에서 제11회 정기총회가 있었다. 조합원 250여 명과 군수, 경찰서장 외 다수의 내빈이 임석했다. 업무성적은 창립 이래 초유의 기록을 짓고, 흡집吸集한 예금은 21만여 원을 웃돌았다. (1921.05.08)

8) 기업전습소

교하군에서 1910년 11월부터 여자 기업機業 전습소를 개설했는데, 성적이 양호하여 더욱 열심히 하는 중이다. (1911.03.18)

9) 농업

군청에서 일반 농민의 농업지식 계발을 위해 농담회를 설행할 것이다. 도청에서 흥미를 위해 순회교사를 파송, 축음기를 사용하게 한다. (1912.11.29)

농사강화회를 개최한 후 즉시 독농가의 집담회를 개최해 농사에 관한 의견 또는 종래의 경험담을 교환할 예정이었다가 중지했으나 농사강화회에 참집자 일동이 협의 후 개량도종 보급, 패발^{稗拔}, 해충구제와 백수발취, 연제조와 사용의 보급, 도급기의 사용을 장려, 육축우의 개량증식, 잠업과 식림의 장려, 부업을 장려해 근검저축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1912.12.27)

10) 농한기

고양군, 파주군의 남부 지방에서 북한산을 지나 귀래한 사람에 의하면 그 지방은 파주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개 산간 지역으로 경운의 편리함이 없고, 각 집이 모두 연료를 채취하고는 무리 지어 화로 주변에서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며 날을 달랜다고 한다. (1912.02.21)

11) 맹수

집에서 기르는 소가 산짐승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했다. 근방에 표범도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헌병에서는 구제를 실시했다. 헌병 10명, 보조원 10명, 조선인 25명이 실시했는데, 잡은 것은 새끼늑대 1마리와 노루 1마리뿐이었다. (1918.11.07)

12) 모범부락

파주군 임진면 남동, 인정풍곡은 모범부락이다. 공동 뽕나무밭, 공동 저금 시설이 있다. 지주 경성의 이상옥은 소작인의 자발적 개량을 환영해 우량 소작인을 표창하고 순후회의 취지를 찬성해 논을 공동 경지로 기부, 내년부터는 도급기를 소작인에게 대여해 성적이 우량한 마을에 급여할 예정이다. (1924.11.30)

13) 백동화

파주 문산포금융조합에서 관내 유통하는 백동화 조사 결과 250원 가량이었다.
(1911.06.21)

14) 부업

파주군 입승생산판매조합에서 입승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5월 7일 입승제작판매자현상추첨회를 열었다. 추첨자가 34명이고, 현상품은 소미 3석 8두 5승이다. 1등 2인 5두, 2등 5인 2두, 3등 10인 1두, 4등 14인 5승씩이다. (1921.05.12)

15) 부역

교하, 홍천 도로 수해 복구공사 사역 인부 총수 교하군 역부 6,716인, 홍천, 양평군 합 13,526인이다. (1912.12.03)

교하군에서 도로를 확장 수축하는 중인데, 사립 보통학교장이 매 일요일에 학도들을 이끌고 응역應役했다. (1911.11.29)

교하군의 군도郡道, 면도面道 개수된 것이 연장 약 11리 15정 남짓인데, 이에 요절한 인부는 36,400명에 달하고, 일반 인민은 노동자에게 술, 떡, 담배, 기타 음식물을 기증했다. (1911.12.23)

교하 학생 부역에 대해 경기도장관은 각 부윤 군수에게 통첩하기를 각 학교장에게 이첩하여 모범으로 삼도록 했다. (1911.12.12)

4월 24일 파주공립보통학교에서 학생 전부가 통학생과 통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문산리-파주간에 파괴된 교량을 가설했다. (1921.05.08)

16) 삼림

파주군 삼림보호 조합은 재작 24일 문산 공립보통학교에서 총회를 개최해 1924년도 조합 세입세출을 결의하고, 소나무 켜기벌레 구제 공로자의 표상 수여식을 거행했다. (1924.02.27)

17) 소방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각출하여 즐통(躑躅)을 구입하고, 장정을 소방수로 모집하여 비상 소방에 종사케 했다. (1911.12.05)

18) 소송

파주군 천현면 가좌리 자운산에 울곡 이이의 묘소가 있고, 그 산판 안에는 울곡의 친형 죽곡 이선의 분묘가 있는데, 근래 삼림령 실시 이후 죽곡 자손이 산판 소유권을 점득(占得)코자 하여 울곡 자손이 그 산판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15.04.28)

조병덕은 그물을 산 뒤 백근삼에게 매일 돈을 받으며 그물을 빌려 주었는데, 이재선이란 사람이 그 그물을 빼앗아 갔다며 소송했다. 이재선은 백근삼이 돈을 갚지 않자, 그물을 대신 가져간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소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1918.01.13)

19) 소작

경기도 파주군에 사는 김익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간지를 개척해 논으로 만들면, 30여 년간 영구 소작권을 주고 1/10씩 소작료를 받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김익환은 그 땅을 최석범에게 인계했고, 최석범은 소작료를 1/4로 올려버렸다. 이에 우학명, 우덕영의 20여 명이 김익환을 피고로 경성지방 법원합의 2부에 고소했다. (1916.01.22)

20) 수리조합

파주군 임진면 사아리, 마정리, 장산리를 구역으로 한 임진수렵조합은 4일 성립으로 8일 관보(官報)로 고시한다. (1921.11.08)

21) 시찰단

파주군 지방자치회는 6월 4일 문산공립보통학교에서 발회식(發會)을 거행했다. 참석원이 50여 명이었다. 지회, 분회 조직 방법을 결정했다. 6월 7일부터 18일까지 11면에 지회 분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1921.06.11)

파주군내 일본시찰단이 대분^{大分}연합공진회 등을 시찰하고 4월 28일 귀선했다. 4월 30일 문산공립보통학교에서 단원 대표 2명이 감상을 강연했다. 청강자는 군내 각 구장 및 유지 수백 명이였다. (1921.05.06)

파주군 시찰단이 귀래한 후 5월 15일 시찰단 일행이 문산공립보통학교에 집합하여 파주지방자치회를 조직했다. (1921.05.18)

22) 양계

파주군에서는 종래 장날을 이용하든지 혹은 지방 출회 닭 상인과 거래하여 경성의 시장가에 비해 가격차가 있어 개량란과 재래란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거래되었다. 이에 개량란의 사양을 장려할 목적으로 4월부터 경성을 표준으로 하고 공정 근량^{斤量}가격으로 판매를 실시했다. (1923.08.31)

23) 연초

파주군수가 관내 농민 중 면허 없이 연초를 경작하는 사람 수를 조사하여 도청에 보고했는데, 그 수가 1,229명이였다. (1911.10.10)

24) 우역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에서 우역이 발생하여 경찰서에서 소독방법에 진력 중이다. (1911.09.30)

1월 상순 이래 각지에 아구창이 발생하여 무서운 속도로 전파하는 우역은 1월 26일에 파주군 탄현면에 병든 소 한 마리가 발생하여 드디어 경기도에도 전파되었다. 이곳은 사방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교통 차단에 편리한 지점이니 방역^{防疫} 상에 다행이다. 발병원인은 발생때부터 약 1주일 전에 정거장에 끌고 간 일이 있었으니 아마 평북 방면에서 부산으로 통과하는 병우^{病牛}의 병독이 전염된 듯하다. (1919.02.20)

25) 우편

파주군 유지의 발기로 군내 통신시설에 관한 청원서를 5월 10일부로 당국에 제출했다. 그 항목은 1.문산우체국 시외배달 증회, 2. 교하우편소 이전, 3.관할 구역 변경 (1921.05.13)

26) 위생

수원 자혜의원에서 의원을 각 부군에 파송해 5일부터 5일간 파주에서 일반 환자를 진료했는데 환자 134명 (남자 117명, 여자 17명)이다. (1912.10.20)

파주경찰서에서 7월 3일 파주의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선했다. (1921.07.08)

경기 위생과에서 ‘페디스토마’(토질) 근절을 위해 계와 가재가 ‘페디스토마’ 병균의 매개물이 된다는 것을 선전했다. 오는 1~3일은 관내에, 5~9일은 계, 가재가 가장 많은 파주 지방에 부원을 파견해 계, 가재 박멸을 실시할 것이다. 매 호에 20마리 이상 씩 무조건 잡게 할 것이다. (1924.08.26)

임진강 쪽에 발진병이 만연하여 20일 아침까지 여자 14명 남자 11명 합 25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고통 중이었다. 소식을 들은 위생과에서는 토문기사를 대동하고 현장에 급히 내려와 방역에 노력 중이다. (1926.01.21)

발진병 환자중 두 명은 사망하였고 아직 부군에 전염될 염려가 적지 않다고 한다. 토문기사는 발진병이 전염되기 쉬운 병이고 방역도 어려우므로 경성 사람들도 안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1926.01.22)

파주지방의 발진병은 갈수록 만연하여 파주는 4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1926.02.02)

발진병이 발생하여 파주의 문발리에 심히 만연할 것이라는 소리가 있었으나, 이 마을에는 빈민부락이 없었고, 발생 당시부터 관민이 힘을 합쳐 예방작업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만연되지 않았다. (1926.02.11)

오랜 장마로 전염병이 염려되는데 파주 문산 지방은 100여 명이 위장병, 각기에 걸렸

고 부근에 적리, 기타 전염병이 다수 발생했다. 경찰부 위생과는 수해가 있는 각지에 임시 청결법을 시행해 주택, 하수구 등을 소독하고 특히 우물은 ‘구로 루석’(석회)라는 표백분을 넣어 약 3시간을 넘두어 소독한다. (1927.07.29)

27) 유희

매일신보 파주분국은 11월 3~4일에 걸쳐 양주군 보광사 단풍놀이를 계획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1917.10.30)

28) 일본어

파주 공립 보통학교에서 유지의 기부로 12월 1일부터 일본어 및 산술 야학회를 부설 附設했다. (1911.12.24)

파주군 조리면 죽원리 사립 보명학교 교감 이병규, 교원 심의학, 조리면 서기 송문숙은 학교 내에 국어(일본어) 보급야학회를 설치하고 10월 10일부터 매일 밤 3시간씩 일본어 산술, 한문 기타 식림의 필요한 것을 교수한다. (1913.10.29)

29) 잠업

잠업강습회의 김포의 50명은 90여 명, 교하의 35명은 60여 명에 이르렀다. (1912.03.01)

파주군청에서 11월 3일 도 기술원이 출장하여 식상植桑 장려계획에 관해 강화했다. 출석원은 각 면, 학교, 현병소장, 각 구장, 양잠조합, 금융조합원, 기타 주요 소작인 등이다. (1917.11.08)

30) 재해

경기도청에서 농작물의 가뭄 피해 정도에 대해 각 군 보고 중 파주군의 피해는 수도 7할, 육도 3할, 조 6할, 콩(豆) 8할, 소채 9할, 면 3할이다. (1919.08.13)

파주는 호우로 20여 척 증수해 수백 가옥이 마루까지 침수했고 계속된 증수 예상으로 전 주민이 피했다. (1924.07.22)

문산역 구내는 22일 전부 복구되었고 문산 천철교 부근이 23일부터 개통될 것이다. 300여 척의 마정리천 철교는 교량이 파괴되어 복구가 오래 걸리므로 응급책으로 24일부터 도선, 도보로 연락하도록 시설하고자 한다. 전신, 전화 불통으로 아직도 북부 지방의 피해는 불명해 전신대가 활동 중이다. (1924.07.23)

수해로 경의선이 두절되어 기자는 21일 만철회사의 호의로 매일신보 사진반과 같이 '모타츄로리'에 편승해 문산역에 향했다. 수해지 중 문산만 소식이 판명되고 북쪽은 통신이 두절되어 전혀 소식을 알 수 없다. 문산역과 부속건물이 탁류 위에 점점히 나타나 있었다. (1924.07.23)

문산 압사자 6명, 익사 6명, 죽은 가축 다수로 법원리에서는 2집 가족 6명이 전멸을 당하고 무너진 가옥이 40여 호에 달한다. (1924.07.23)

문산과 장단 사이의 도보, 도선 연락은 25일부터 개시될 듯하다. (1924.07.24)

군청, 면사무소, 경찰서는 즉시 양식, 연료를 준비해 학교 등 안전한 곳을 개방했으나 수용이 불가할 정도로 피난민이 많았다. (1924.07.24)

문산은 20일 36척이나 증수되어 경찰서, 소방대가 즉시 경종을 울렸으나 주민들이 집을 못 떠나고 가산을 운반해 구조선이 강제로 끌어내다시피 하여 전부 피난시켜 1명의 실종자도 없었으나 가축의 피해는 심하다. 하정통 가옥은 지붕 위까지 침수 40여호, 마루 침수 100여 호, 피난 이재민 1,300여 명이다. (1924.07.24)

7월 22일 파주군청에서 서무과장 이하 청원들이 밥을 지어 이곳에서 밥 먹은 사람이 2,200여 명으로 한 번에 2섬씩 밥을 지어주며 밥을 크게 만들어 1인당 1개씩 주었다. (1924.07.24)

수해로 파주군 진남면 수리 조합의 관개 구역이 황무지로 변해 면내 유지의 발기로 수해 구제회를 조직해 이재민 구조에 노력 중이며 각 방면의 동정이 끊이지 않아 합 115원 70전을 모았다. (1924.08.08)

임진강에도 47척 5촌의 증수가 되어 파주군 내 연안 일대의 어촌 125호는 물속에

잠겨 면역소, 경찰서에서는 피난민을 강 언덕에 수용하고 밥을 지어 먹이는 중이다.
(1925.07.15)

파주군 내에도 침수 가옥 5백 호, 사망자 3인이다. (1925.07.21)

31) 저축

파주군 파평면에서 헌병출장소장과 면장, 이장들이 야업장려회를 조직하고 면민들로 하여금 새끼꼬기를 시작하여 판매한 돈이 천여 원에 이르렀다. 그 돈을 면 저금으로 보관하였다. (1915.01.12)

32) 전신전화

23일 전신, 전화가 전부 개통되었다. (1924.07.24)

33) 종교

교하군 유생 정대선, 송희효 등이 은사금 이자로써 향교를 유지하여 유학을 일으키기로 통문을 발송했다. (1911.02.05)

파주군 마장리에서 공자의 영전影殿을 건축하고 10월 12일 영정 봉안식을 거행했다. 이 영정은 4백여 년전 조선왕실에서 이종구의 선조에게 하사한 것이다. 당일 참배자는 부근 유림과 파주공립보통학교 직원, 생도 등 천여 명에 달했다. (1917.10.20)

34) 지방

교하군에 '부군회'가 조직되었는데, 새끼줄을 꼬아 팔아 2백 원을 만들고, 이것으로써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삼고, 인민이 순회 경작하여 수확 중 2/3는 소작인에게 지급하고, 1/3은 공유재산의 기본금을 만들기로 했다. (1911.03.15)

조용숙⁽⁴⁰⁾은 파주군 광탄면 호미리와 구룡리 이장을 겸했는데, 광탄면장 백남홍의 명으로 이민에게 길담는 공사 부역 대납금 징수에 종사하던 중 1913년 동진달부터 1915년 7월 초순까지 징수한 돈 40원 58전을 횡령했다. (1915.08.20)

35) 지주

2월 18일에 파주 농사장려회 지회 및 농우회 총회를 개최한다. (1917.02.14)

36) 축산

파주군청에서 축산조합을 조직하여 봉일천에 우시장을 경영할 방침으로 4월 11일부터 사무를 개시하고 종래 봉일천리 경영의 우시장 부지 기타 건물 등의 양여를 교섭하니 이민^民측에서 거절하던 중 군수 조정으로 시장에서 매매수수료 50전 내에 20전을 리에, 20전을 중매인으로, 10전을 조합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리^里 부채 543원을 조합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5월 16일부터 조합에서 시장을 경영하기로 결정했다. (1913.04.23)

축우 장려 결과 증식이 빨라지고 축우조합설립지의 축우의 수가 점점 정확하고 “우적”도 정리됨, 파주군은 1912년 말에 2,054두, 2년 말에는 2,844두로 800두 증식했다. (1914.01.30)

파주 축산조합에서는 축산 강화회와 강습회를 설행해 지도하고 각 면에 출장해 각 호에 설명했다. (1914.05.01)

37) 태형

파주군 강희연은 본년 음력 7월 6일 동군 유산림에서 인부를 사역해 소나무 30그루를 도벌한 일이 산림 간수 이덕유에게 발각되었다. 강희연은 함께 도벌했던 김선태와 공모하고 돈 1원을 이덕유에게 뇌물로 주었는데, 이덕유는 이 돈을 받고 김선태와 강희연을 봐주었다. 이 사실이 들통나 이덕유는 징역 6개월에, 나머지 두 명은 태형 90대에 처했다. (1916.10.04)

38) 품평회

파주군에서 농산물품평회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다. (1920.11.14)

파주군에서 18일부터 3일간 경의선 금촌 역전에서 농립산물품평회를 열었다. 개최지 금촌은 협찬회를 조직해 심상순을 회장으로 추대해 관람자 접대로 경성 일류 기생을 초대해 연주대회를 열고 활동사진, 각력, 궁술대회, 불꽃축제 기타 각종의 여흥으로 대성황 중이다. (1924.11.21)

39) 해충

교하군 지식면 읍내리 부근에 7월 말에 논 약 5정보에 이화명충이 발생했다. 군청 직원 및 경찰관리 독려 하에 일반 농민으로 피해 벼 줄기를 꺾어 면역소에 집합 소각했다. (1913.08.08)

40) 행사

5월 31일 문산에서 황태자 성혼 기념 축하식을 거행할 예정인데 청양사정 주최로 궁술대회를 거행하고 우승자에게 상품 수여식이 있고, 기생 연주, 여광대 줄타기가 있을 것이다. (1924.05.26)

18. 평택, 진위

1) 3.1운동 시찰

조선총독부 총무과장은 민정民情 시찰을 위해 15일 평택에 와서 가납관에 투숙했다. (1919.04.19)

2) 관광단

군청에서는 건문을 계발을 취지로 남자 70명 여자 60명으로 경성 관광단을 조직했다. (1912.04.11)

3) 교육

평택 사립 동명의숙은 이번 공립학교로 변경되고 4월 1일부터 교사를 이전함에 따라 종래 부채 4백여 원을 상각償却하기 위해 경성 유수의 기생과 가객歌客을 빙래聘來하여 교재校債 상각 연주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917.04.01)

평택 사립학교 동명의숙 채무 상각 음악회는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약 1천 평의 공지空地를 이용하여 임시극장을 건설하고 경성 기생 20명과 명창 박춘재 일행과 여배우 등을 초빙한다. (1917.04.14)

평택공립보통학교에서는 25일 제4회 졸업식을 했다. 졸업생은 16명이다. (1919.03.29)

3월 19일 평택공립보통학교에서 학예회를 개최했다. 공업부 제조품은 교묘巧妙, 견실했다. 각 과목을 통해 여자가 남자보다 우승함을 보였다. 당일 내빈 및 부형을 합해 관람자가 700인 이상이였다. (1921.03.23)

평택공립보통학교에서는 5월 15일 춘기 운동회를 계획 중이다. 이에 1일 군수(주영환)은 시내 유지들을 자택으로 초치하여 그 계획 및 경비를 강구 중이다. 또 학교당국자와 교섭하여 준비중이다. 당일 경성으로부터 일류 악대를 초빙하며 참신 기발한 과목으로 대성황을 계획한다. (1921.05.04)

5월 15일 일요일(음력 4월 8일) 평택공립보통학교 교사 일부의 낙성일이다. 당일 동교 운동장 구내에서 당지 청년단과 연합대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른 아침 청년단 일행 80명은 악대를 선두로 하고 자동차 6대를 분승하여 운동장에 향할 때 부근 연로沿路에 쇄도하는 남녀 관람객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165종의 과목으로 공전절후의 대성황을 보였다. 당이 관람객은 1만인 이상이다. 평택 초유의 대집회이다. (1921.05.18)

평택공립보통학교에서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6학년 과정을 졸업한 남자 4명, 4학년 과정을 졸업한 여자 9명 총 13명이 우등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고 한다. (1922.03.28)

4) 교통

진위경찰서는 인력거꾼이 무례한 행동과 부당한 임금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자, 당
서 관할내에 인력거꾼 전부를 소집해 지금 이후로는 인력거 임금을 60전으로 지정하
고 그 이상 받을 시 처벌할 것이라고 공포했다. (1920.06.21)

평택 대창자동차부(김현철 경영)는 형편으로 당분간 휴업 중이었는데, 이구순이 인수하
여 4~5일 전부터 평택-주천간 운전을 개시했다. (1921.03.25)

5) 구휼

진위군 마산면 우종철, 이치준, 우삼현, 권정규 등이 5월 19일에 각 백미 2석씩을 출
연하여 면내 빈민 22명을 구휼했다. (1911.05.27)

평택군 읍내면장(김준식)이 빈민에게 벼 2말과 조 1되씩을 나눠줬다. (1913.02.14)

진위군 송재면 독지자를 포함한 1,014명에게 다수의 백미와 쌀로 빈민을 구제하고 공
적인 용무에 소유 토지를 기부한 것에 대해 각기 은배 1조씩 하사했다. (1914.05.15)

진위군 청북면 서변곡 양재근⁽⁴³⁾은 매년 1천여 석 추수하는 자산가로 면내 채권이 2
천 원가량 되는데, 각 채무자들이 형편이 어려워 빚 갚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지난 음
력 보름날 채무자 일동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 대접하고, 모든 부채를 탕감한다고 선
언하고 장부를 불태웠다. (1917.02.13)

김명기는 빈민들의 생활을 많이 생각 해 쌀 수십 석을 나누어 주었는데, 마을 사람들
은 이를 기리기 위해 비석을 세워 은덕을 칭송했다. (1918.01.20)

진위군 고덕면장 이두종은 빈호를 위해 추기 호세 208호분을 자담^{自擔} 납세했다.
(1919.12.29)

경기도 진위군 중추원 촉탁 양재근씨는 자래로 자원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금년 한
재^(旱災)로 전군 일대의 농작물은 전멸상태이다. 이에 양재근은 농민의 우려가 매우 심
한 것을 동정하고 정조^(正租) 40석을 농민 중 빈곤한 사람에게 분급했다. (1928.09.17)

6) 군대

금번 소요 사건으로 진무鎭撫에 종사기 위해 육군 보병대위 인솔 하에 1개 중대는 평택의 전 만월요리점 자리에 주둔하였다. (1919.04.19)

7) 금융조합

평택금융조합은 1914년 9월에 설립한 이후 금년까지 제7회 결산을 행했다. 본년에는 보조금을 요했지 않고도 일반공중예금을 취급하며, 이 조합의 특장은 식산은행 매개 대부금에 거액을 대출하며 예년 총회에 출석하는 조합원이 9할 5푼에 달한다. 현재 조합원은 880명인데, 1921년에는 1천인 이상에 달하기로 계획한다. (1921.04.07)

8) 노동조합

평택에서는 종래 노동 임은賃銀이 일정치 못하고 또 무리하게 너무 높아 일반 운수의 필요가 있는 사람은 곤란이 막심했다. 진위경찰서에서는 노동조합조직의 필요를 보아 5월 14일 평택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그 취지는 임금을 일정히 하며 동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한 자는 노동에 종사치 못할 것 등으로 편성했다. 조합장은 곡물보관원 삼고기개이다. (1919.05.21)

9) 농기싸움

진위군 서면 노양리와 신성리의 농기農旗사이에 선생과 제자 다툼으로 종래 시비를 해 오던 바 7월 28일 한 들에서 일을 하다가, 역시 그 문제로 맹렬한 편싸움이 시작되어 농꾼 60여 명이 서로 격투하며 농기와 풍물을 파괴했다. 이에 진위경찰서에서 출동하여 설유했다. (1917.08.01)

10) 쌀이출

평택에서 미곡검사를 개시하였다. 현미 14,781입, 백미 6,512입, 찰벼 1,559입, 대두·소두·들깨·녹두 2,385입에 합계 25,237입이고, 이중 불합격을 제외하고 24,906가마가 수출입 되었다. (1914.12.13)

평택에서는 작년 11월에 약 3백 차^車의 미곡 반출액이었다. 본년은 도작^{稻作}의 숙실^熟實이 늦고, 날씨가 험악했던 영향으로 약 3~4주간 지연하는 작금에 이르러 겨우 미곡의 출회가 조금 왕성하여 작금 3~4차 전후의 출회를 보았다. 각지 미^米상인도 다소 평택에 들어왔고, 최성기의 소위 ‘미산^米’을 볼 때는 12월 중순으로 관측된다. (1921.11.30)

11) 농업

평택에서는 강우가 없어, 보리가 죽게 될 것을 우려했지만, 비가 내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으로 낙관하게 되었다. (1922.04.30)

12) 농회

진위농회 춘계총회가 5월 4일 개최되었는데, 참석자는 4백여 명이다. 회원은 모두 1,766명이고 1년 회비는 1인 5전이다. (1913.05.08)

13) 대서인

진위군 관내에는 종래 대서^{代書} 영업자가 20명가량인데, 이번 사법대서인법이 실행됨으로써 4월 30일 5명을 사법대서인으로 결정하여 인가증을 교부했다. (1925.05.02)

14) 도량형

조선의 도량형이 일치하지 못해 매매나 여러 가지로 불공평해 당국에서 새로 도량형을 마련해 일체 사용하게 함, 진위군에서 간세배가 신향이 아닌 구두를 사용하며 위로 관령을 위반하고 아래로 민원이 낭자하다. (1912.10.31)

15) 맹수

진위군 북면 동원리 근처에 6월 7일과 15일에 늑대가 출몰하여 평택경찰서는 용인 헌병분대와 협력하여 부근 인민 약 천명 가량을 풀어 늑대사냥을 시작하려 한다. (1915.06.23)

16) 모범농촌

진위군 송탄면 도일리는 호수 140호가량 되는데 원래 원씨 일족과 그 관계자의 촌락이다. 약 120년 전부터 한 동리가 한 가족같이 원만히 지내오며 애경<哀慶> 상조의 목적으로 동계<洞契>도 있다. 이번에 이를 도일리 공조회로 조직하고 11월 26일 성대한 발회식을 거행했다. 경기도 사회과장, 군수, 면장, 경찰서장을 비롯해 7백 명이 참여했다. (1923.12.01)

17) 산미개량

진위 군에서는 오성면 외 6면에 산미개량조합을 조직하여 면기수 및 서기에게 곡물검사원을 명하여 그 조합에서 생산하는 미곡은 1차 검사 후 시장에 반출하는 생산개량의 실을 기하고자 노력 중이다. 10월 28일부터 5일간 평택곡물검사소지소에 오성면, 고덕면, 청상면, 포승면, 현덕면, 부용면, 서면 기수와 서기를 소집하여 곡물감정법에 대해 강습을 했다. (1923.11.16)

18) 상례

평택 사민<士民> 다수는 23일 오후 1시 통북리에 모여 망곡식을 거행했다. (1919.01.29)

진위군 오성면 양교리에서 거민 29명은 부근 용복산 상산봉 제일 청결한 곳을 태해북향 망곡식을 거행했다. (1919.02.19)

진위군에서는 봉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신상<紳商> 20여 명이 3월 2일부터 3일간 휴업했고, 국장 당일 오후 6시에는 유생 10여 명이 비전산에서 망곡식을 거행했고, 시민 일반은 반기<半旗>를 게양했다. (1919.03.09)

19) 상업

연말을 당<當>해 진위군 각 미곡상점 및 포목상점 기타 잡화상 등에 금전<金錢> 유통이 곤경<困境> 중 보조화가 결핍하여 물품 매매가 불능함은 유감할 바이다. (1917.12.28)

평택역 부근에 사무소를 두고 자본금 2만 5천 원 예산으로 평택미곡상매매조합을 설립하여 일반 매매의 시장 또는 창고업을 경영한다. 매매수수료는 1가마에 매매 양편이 각 1전이다. (1919.11.05)

20) 세금

경기도 재무부 서기(백낙삼)가 3월 11일 진위 등지의 세무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출장했다. (1911.03.12)

21) 소작인

진위군 병판, 여방 2면 국유지소작인조합 창립회가 12월 2일에 개최되었고, 농산품평회도 개설했다. (1911.12.05)

각처에 어느 심정승 집 전답이 있는데, 추수관이라는 자가 원래 한 말씩 받던 말목을 답주 몰래 자의로 두 말씩 받아 개인의 욕심을 채워 작인들의 원망이 크다. (1912.11.01)

12월 20일 진위군 경기도농사장려회 진위우회감시총회에서 소작인 표창식을 개최했다. (1916.12.24)

22) 수리, 수리조합

경기도 진위의 면장 박세보가 곤궁한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 수리사업을 계획하고 당국에 신청한 일이 있었으나, 결재가 되지 않아 시기를 놓쳤다. 이에 지주회를 열어 공사비를 분담하자고 권유하였으나, 지주중에는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에 박세보는 소작인과 협의해 공동으로 공익사업을 실시했는데 자신의 사비도 들였다. 1925년 8월 20일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안성천에서 사면 도두리에 이르는 수로 6천을 개설하고 또 보가 천안군 성환면 안궁리에서 안성군 공도면 중보리에 이르렀으니, 실로 상을 줄 만한 사람이다. (1916.03.30)

진위흥농회사가 발기인 총대가 되어 진안수리조합 기성회를 조직했다. 1월 21일에 제 1회 평의원회를 개최한다. (1923.01.18)

23) 시찰단

진위군 주최 대분현大分縣 공진회 시찰단 일행은 4월 16일 출발했다. (1921.04.22)

경기도 진위군 주최 먼 직원 일본 시찰단 일행 14명은 4월 5일 평택을 출발하여 동경東京, 대판大阪, 경도京都, 내량奈良 등지를 관광하고 4월 19일에 돌아온다. (1923.04.03)

24) 연료

평택의 석유는 재고품은 없고 소매상에는 약간의 잔품이 있을 뿐이므로 송표松標 1상자에 20원 내외의 고가이다. (1919.01.29)

25) 위생

(평택에서 위생 청결을 행하여 봄철 이래로 가옥을 소제하고 도로와 도랑을 청결히 했고 우물물을 검사하고, 식수 우물 두 세 곳을 팠다. (1911.06.20)

평택에는 배수 설비가 없고 중앙에 3개의 진흙 연못이 있어 예부터 전염병이 많으므로 신임 경찰서장이 제1 착수로 연못을 매립하고 새로 우물을 신설하려고 한다. (1915.04.30)

평택에 악성 감기가 유행하는 중인데, 그 위험이 심한 편이며, 평화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환자가 벌써 10여 명이나 있다. 이 중 사망자는 아직 없으나, 전염병이 대단히 창궐하는 모양새이니 강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920.01.11)

금월 초부터 평택에서 콜레라가 창궐했다. 경찰서에서는 비상한 노력과 함께 예방주사를 실시하며 음식의 주의와 청결의 장려를 해왔다. 그런데 평택에서 곡물상을 영업하는 서상복이라는 사람이 수일 전 부산 방면을 여행했다가 지난 15일에 집에 들어와 즉시 사망했다. 부산에서 전염병에 걸려 온 것이 사실인 듯 하다. 평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음식과 거처의 청결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다시 필요로 하다. (1920.08.20)

26) 일본어

평택에서 일본어 야학강습소를 개설했는데, 보통학교 설립 인허가 되면 보통학교로 개칭하고 교사도 객사로 이전하기로 했다. (1911.07.01)

진위군 현덕, 포승 양면兩面 유지들이 발기하여 한문 사숙私塾을 폐지하고, 강습소 5개소를 설립하여 한문, 일본어, 산술 등을 교수한다. (1917.05.27)

진위군 청북면 신아무개의 발기로 국어강습을 설립하고 일본어 외외 각 과목으로 교수하는데, 생도가 60여 명이다. (1917.05.31)

27) 잔치

진위군 청북면 독농가 박명훈은 부친 화갑을 축하하기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자 약 5백 명, 관광객 1천 인의 성황을 보였다. (1917.02.06)

28) 잠업

6일 광주, 평택에서 잠견 초반 교역이 있는데 출회수량 광주 30관, 평택 20관, 시세는 광주 고가 6원 60전, 저가 3원 89전, 평택 고가 6원 64전, 저가 3원 87전이다. (1924.06.08)

29) 재해

진위군 일원에 10월 29일에 우박이 내려 벼 견적가액 1만 6천 7백여 원의 손해가 있었다. (1917.11.23)

10월 11일 오후 7시경에 서해안에 해수가 창일하여 진위군 청북면 현덕면 포승면 일부, 오성면 창내리, 당거리, 서면 도두리, 대추리 등지가 특히 심하다. 도두리에는 지상으로부터 약 2척 5촌 내지 3척의 바닷물이 넘쳐 침수가옥이 수백 호戶요, 가축 사상이 적지 않으며 가구 유실이 많았다. 그 뒤로도 해일이 그치지 않아 평택 시가지에까지 범했다. (1919.10.19)

진위군 청북면 삼계리 야판^{野坂} 농장에서 부근 거주자로 금년 가뭄으로 생활상 곤란한 자를 간접 구제할 의사로 미리 대부허가를 얻은 간석지 1천여 정보에 대한 공사를 금년도 안에 착수하려 한다. 소요 인원은 10만인, 경비는 7만 2천 원이다. 이재민에게 적지 않은 소득이 되고, 세민에게 활로가 될 것이다. (1919.12.14)

지난 4일 오후 4시경부터 시작된 비는 금일까지 계속 내려, 평택시가에 홍수가 났다. 시가 전부는 적막하고 참담한 광경이며, 사방에 피난 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평택이라는 도시는 발전된지 불과 10여 년에 경부선을 통하여 미곡이 집산되는 유수한 도시라 한다.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장래의 영원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매년마다 물난리가 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 제방 공사를 하고 수목을 기르며, 하천을 준설하여 배수를 할 수 있게 하면 어찌 도시가 물에 잠길 것인가. 이번에 가옥이 붕괴한 것이 세채이고 익사자가 3명에 달하였으며, 시내가 전부 물에 잠겼다. (1920.07.09)

이번 수해로 인해 각지의 농작물 피해도 적지 않은 모양인데 아직 교통과 전신의 불통으로 자세히는 알 수 없다. 한강 연안의 각 군과 수원, 평택 등은 밭과 곡물에 막대한 손해가 있었다 한다. (1922.08.05)

진위천, 안성천의 약 18척 증수로 고덕면 80여 호, 서탄면 50여 호가 침수되고 교통이 전부 두절되었다. (1924.07.27)

경부선 평택지방에도 안성천이 범람하여 평택-둔포 사이 자동차길이 끊어졌다. (1925.07.12)

30) 저축

국유지소작인 등이 저금조합을 설립, 매년 소작료 납부시 국민소작료 차액을 표준으로 저금, 통장은 조합장이 보관, 매년 1회 각 간사에게 교부해 일반 조합원에게 열람시킴, 저금은 장래 유익한 자금에 충용할 계획이다. (1912.12.04)

평택군수(임연상)가 절미^{漸米}저금을 하게 했다. (1913.01.08)

31) 전기

평택, 안성, 천안, 진천 등의 유력자가 발기하여 수력전기회사를 설립하고, 인접^{人接}, 정미 기타 공장의 수요에 응할 계획으로 당국에 출원^{出願}중인데, 인가 후는 각지 번영회에서 주식을 인수하고, 바로 창립할 터이다. 수력전기의 여력으로 평택-안성 간 전차도 계획한다. (1921.04.18)

32) 지방제도, 지방사무

경기도 관하 각 군에서 일본인 관료를 충원하였는데 진위군에서는 행정 관료가 더 필요하여, 이에 행정관리 증원을 청구했다. (1910.11.26)

진위군 13면 면장들이 매일신보 구독을 신청했다. (1911.06.06)

평택군에서 사무에 근면한 읍내면, 남면, 동면장에게 포상하고 상여금을 급여했다. (1911.06.20)

진위군청에서는 면제^{面制} 시행에 따라 각 면에 면서기 결원 및 증원을 보충 증가할 계획으로 9월 27일에 시험을 집행했는데, 수험인원이 20인 이상이었다. (1917.10.02)

총독부령의 발표로 수원의 관할구 중 여러 면이 진위군으로 변경되었다. (1922.05.04)

11월 1일 평택발전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1919.11.05)

33) 지주

진위농사장려회에서 6월 21일 군청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마지막에 독농가의 표창을 했다. (1921.06.27)

34) 청년

평택에 거주하는 청년 유지는 청년구락부를 조직코자 준비하더니 6월 11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출석한 회원이 50인에 달했다. (1921.06.14)

35) 체육

진위군 청년 등은 신체를 건강케 할 목적으로 야구부를 조직 중이다. (1917.03.17)

진위 청년체육구락부에서 5월 27일 일요일에 운동회를 개최한다. (1917.05.27)

진위에서는 활쏘기가 유행했다. 처음에는 음식과 기예 등에 대한 내기였지만 결국 돈 내기 까지 이어져 경찰은 활을 압수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1918.07.04)

36) 축산

17일~18일 탄저예방주사를 시행함, 축우의 폐사가 많고 재발할 수 있어 예방주사 하는 주민이 많다. (1914.01.10)

37) 태형

진위군의 방태영은 각종 약을 가지고 자칭 의사인 채 하며, 8월 23일경에 개성군 박 의현의 장남 영독이 정신병이 있는 것을 자기가 고쳐준다면서 약을 쓰다가 탄로나 잡혀서 태형 50대에 처했다. 경찰서는 요사이 의사를 사칭하고 각 지방으로 배회하며 돈을 편취하는 자가 많아 엄탐중이라고 했다. (1916.09.12)

38) 행사

진위군 관민 일동은 1월 1일에 공립 소학교 안에 모여 명함 교환회를 개최했다. 출석 회원은 약 200명에 달했다. (1917.01.07)

39) 회사

평택 곡물무역상회에서 11월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곡물 매입소를 신축하여 자영사업을 허용했다. (1917.12.01)

평택 상업가들이 발기하여 미곡수출상회를 조직 중이다. 1주를 백원으로 하고, 1천주를 희망한다. (1917.12.05)

평택상업조합은 1917년 10월부터 자본금 3만 원을 모집하여 수년래 대금영업을 해왔는데, 이번 무역판매부를 신설하고 자본금을 5만 원으로 증자하여 면사, 저포, 주단, 지류, 어류 등을 판매하고, 위탁판매부도 설치하고 20일부터 개업했다. (1921.09.06)

19. 포천, 영평

1) 관광단

포천군 참사와 각 면리장과, 지역 유지자의 발기로 경성 관광단을 조직해 군수, 군서기가 인솔해 경성 내 각 명소, 수원, 인천을 관람할 예정이다. (1912.05.18)

관광단원 남녀 76명(여자 8명)은 매일신보사와 경성일보사의 편집기지, 공장 등을 관광한 후 다화의 향응을 받고 수원, 인천으로 간다. (1912.05.21)

관광단 일행 66명은 수원, 인천에 가서 관측소, 전기회사, 각국 공원을 순람한 후 경성으로 향한다. (1912.05.24)

2) 관리부정

영평 헌병 파출소에서 강도에게 공금 324원을 빼앗긴 북면장 이범식을 취조하니 돈을 횡령할 생각으로 스스로 두부에 상해를 가하고 강도에게 전탈당한 척 꾸민 것으로 확인되었다. (1912.01.30)

3) 교육

포천군 사립청성제일학교(전 신야의숙)는 다수한 졸업생을 양성하였으나, 경비 문제로 군청에서 1개 공립학교만 두기로 하여 폐지되었다. (1911.09.17)

포천군 이동면 구장 흥원표는 면장 이경현과 협력하여 자택을 교사로 개방하고 이광선을 초빙하여 60여 아동을 모집한 후 그 교양에 주력한다. (1923.05.23)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에 영북공립보통학교 설치 인가가 8월 25일 있었다. 10월 1일부터 개교 예정이다. (1923.09.03)

포천군 유지 8명의 발기로 포천유치원 기성회를 조직하고 당국에 설립 인가 신청을 제출했는데, 11월 22일 인가되었다. (1927.12.01)

포천 공립보통학교에서 지는 22일 오전 12시에 제15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생 수는 남자가 577명(원문에 577명이라 써져있음), 여자가 4명이다. 상급학교 입학자는 5명이었다. (1928.03.26)

4) 교통

연천-포천 간, 금곡리-연천 간 교량 2개소, 양문리-포천-금곡리로 통하는 교량, 양주군 한탄강의 도선 중지 등을 모두 주민이 협력 수리해 15일부터 복구되었다. (1914.01.18)

포천군청에서는 6월 14일부터 4곳 면사무소에서 차량의 감찰鑑札을 교부한다. 차량 사용자는 기일 안에 출두해야 한다. (1927.06.17)

5) 교화

4월 17일 포천군농회 건전장 2층 누상樓上에서 개최한 포천금융조합 제14회 정기총회를 이용하여 매일신보 포천분국에서 독자와 조합원을 위안코자 활동사진을 무료 관람케 했다. 입장자는 6백여 명, 내용은 특히 지방발전을 위한 산업교육에 대한 것이 많았다. (1927.04.25)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포천군청 구내 회의실에서 제1회 지방교화강습회를 개최했다. 각면의 중심인물로 선발된 강습생들은 소정所定 과목을 예정대로 마치고 증서도 수여받았다. (1927.06.05)

6) 금융조합

포천금융조합 송우출장소는 1927년도 3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3월 31일까지 마쳤다. 연도 말이므로 일반은 이미 식량 부족과 잔곡殘穀이 없어서 금융상황이 불경기로 용통이 곤란한 중에 종료했다. (1927.04.17)

7) 맹수

내북면 신장리에서 7살 여자아이가 산중에서 죽었는데, 헌병분견소와 영평 파견소에서 출장해 수색해보니 2치 5분 되는 호랑이 발자국이 발견되어 수비대와 협력해 근처 산중에서 호랑이를 사냥했다. (1912.06.09)

포천군 가산면 금현리 황석주⁽³²⁾는 1월 23일 오후 3시쯤 가산면 남쪽 죽엽산 밤숲에서 땔나무 부리를 캐던 중 신장 5척^尺이 넘는 맹호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고자 하므로 황석주는 놀라 옆에 있는 몽둥이를 집고자 할 때 호랑이는 황석주의 어깨죽지를 한번 물고 그대로 도주한 데 대하여 그 촌에서는 호랑이 사냥을 하고자 의논 중이다. (1919.02.01)

포천군 일동면 금수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여러 사람이 목격하고, 돼지 3마리도 잡아먹었다. (1923.03.08)

8) 묘지

정규석, 정태남은 조부모의 묘가 가평에 있었는데, 위치가 습하여 이장하기로 했다. 그러다 포천의 산에 위치를 찾아 묻었는데, 관청이나 산 주인에게 허락을 얻지 않고 몰래 묻은 것이 발각되었다. (1914.09.10)

9) 미신

포천군 영평리에 이상한 미신적 병^病 치료법이 유행한다. 학질을 앓는 사람을 치료함에는 달걀 껍질 속에다가 사람의 똥을 집어넣어 그것을 불에 태워서 환자가 알지 못하게 머리맡에 놓아두었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환자에게 먹이면 곧 낫는다 한다. 장암면

에서는 장티푸스와 유행성 감기 등과 기타 모든 열병에는 소, 돼지, 개의 똥을 까맣게 태워서 물과 함께 마시면 곧 땀을 낼 수 있게 되어 낫는다고 한다. (1921.03.13)

10) 민족갈등

포천군 영증광산의 광부감독 소전도가 같은 광부 감독 윤창환을 절도로 의심해 창환이 소전도를 탓하자 도리어 언행이 불순하다며 창환을 구타했다. 창환의 동생 세환과 같이 일하는 수백여명의 광부들은 일본인이 조선인을 업신여긴 것이라며 분하여 소요를 일으켰다. 주재소 순사가 제지했으나 듣지 않고 순사까지 폭행해 큰 소요를 일으키고 결국 포천서 경부보 이하 다수의 경관이 현장에 급히 가서 해산한 결과 겨우 진정되었다. (1924.10.27)

11) 비행

포천군청과 각 방면 유지의 발기로 특별히 신진비행가 이기연 방문 비행 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각지에 선전하고 이군의 우편 비행까지 계획하고 지금 당국에 신청 중이다. (1924.02.03)

오늘 9일 신진비행가 이기연은 경원선의 궤도를 쫓아 의정부에 이르러 기체를 돌려 포천을 향할 것이다. 10일에는 포천군에서 하루 동안 비행해 매일신보, 경성일보와 그 곳의 부탁을 받은 뼈라를 지상에서 뿌리는 독특한 묘기를 발휘한 후 11일 다시 경성으로 귀환한다. (1924.02.09)

12) 산업조합

포천군 서면 선단리에서 4월 19일 3명의 발기로 산업조합을 조직했다. 회원은 15명이다. (1927.04.24)

13) 삼림

포천군 소흘면 무림리 이명수와 고영순은 삼림령 위반으로 8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각 벌금형에 처해졌다. 고영순은 8월 1일 오전 4시에 직동리 광릉의 국유림에 들어

가서 적송 1대(가격 7원 42전)을 도끼로 채벌 절취했고, 이명수는 2일 오전 5시에 진접면 장현리 광릉 구역 국유산림에 들어가 적송 1대(가격 1원 48전)를 채벌 절취하여 불을 땀다. 이들에게 삼림령 제20조를 적용하여 각각 벌금 20원씩에 처한 것이다. 시골 사람 으로서는 입맛이 쓸듯하다. (1923.08.29)

14) 상업

포천군 사는 20여 명이 장시를 신설하기로 도청에 청원하여 인가를 얻었는데, 개시일 자는 27일이다. (1911.03.15)

포천 송우시장은 원래 유명한 시장이나 부적당한 위치로 2개소로 분립해 그 통일이 오랜 현안이었는데 두 시장을 폐지하고 중간에 새로운 시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7일 도지사로부터 허가되어 총면적 6,000평으로 약 1개월 후에 개시된다. (1924.07.13)

15) 세금

포천군 군내면에 윤병현이 면장이 된 지 몇 달 만에 완고한 양반들을 호별 방문하여 면 행정의 취의趣意를 철저히 한 결과 본년도 제1기분 호세 징수는 법정 납세기한이 4월말임에도 4월 22일에 완납하여 군내면의 초유한 성적을 거뒀다. (1927.04.29)

16) 소년회

포천군 소년회에서 1착 사업으로 1일부터 신읍에서 시간종時間鐘을 타고打告하는데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를 타고한다. (1928.04.09)

(경기도 포천 소년회에서는 14일 오후 8시부터 월례회를 개최했다. (1928.04.23)

17) 양봉

영평군 이동면, 일동면, 서면, 하리면, 남면도 종래 양봉이 성행한 곳이다. (1913.01.21)

포천군 산내면, 동촌면, 내동면 등지는 산림이 많아 종래 상당한 양봉養蜂을 사양하였다. (1913.01.21)

18) 위생

포천에 발진병이 출현했다. 1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성대학부 치업^{齒業} 박사가 송강^{松岡} 의사와 대동해 지난 21일 오전 10시에 포천에 도착해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순찰했다. (1928.01.27)

발진병은 갈수록 만연하여 포천은 3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1926.02.02)

포천군 청산면 덕둔리, 산북면 신반리, 일동면 사숙리에 전염병이 유행해 발생 환자수가 62명에 달하였다. 이에 포천 경찰서는 오는 12, 3일에 대소독을 실시한다. (1928.02.11)

19) 은사금

경기도 포천 내북면의 서기 조달원은 40살인데, 이번 양반 유생의 기로를 조사할 때 본인의 나이를 73세로 속여 보고해서 은사금 30원을 받았음이 경찰서에 발각되어 사령장을 환수 당했다. 조달원은 또 자신의 58세 아버지를 60세로 올려 보고했다. (1910.12.09)

20) 일본어

영평공립보통학교에서는 11월 14일부터 일본어 야학회를 개설했는데, 경비는 회원이 각자 부담하고, 교수 일수는 매주 월화목금토일로, 교수시간은 매일 밤 2시간 내지 3시간이다. (1911.12.24)

21) 잠업

군청에서는 제2회 양잠수산자를 회동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의안은, 개량종 사육의 호성적에 대한 주의, 내년도 수산자의 권유, 수산자계 설립과 상호간 의사소통, 읍내 부인에게 규조법 전습, 수산자 상호간 원조 또는 공동 일치, 내년도에 배부할 상묘 식부, 기타 중요한 것이다. (1912.11.29)

포천군에서 일본 잠업시찰단을 조직했는데, 단원 20명 이상이다. 단원 일동은 18일 경성에서 모인 후 군기수가 인솔하여 기후岐阜, 아이치愛知, 사이타마埼玉, 나가노長野 현 등의 잠업을 시찰하고 돌아온다. 왕복 3주간의 예정이다. (1919.08.17)

자가 복제 잠종은 병독으로 사육중 실패하는 것이 많고, 간신히 산견産繭을 얻어도 품질이 조악하고 산견율이 낮아 사육자에게 불리하므로 이의 금지는 조선잠업령의 명시한 바이다. 범칙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절치 못하여 포천군에선 춘잠기 복제잠종 취체 선전문 30매를 관내에 배부하고, 경찰관헌과 협의하여 그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 (1921.05.02)

포천군 관내는 고래古來로 양잠이 왕성한 지방으로 명주의 주산지이다. 포천공업조합은 개량 기계의 기업강습회를 3주간 예정으로 개최 중이다. 강사는 도청 기술원에 의촉하고 강습은 옥견玉繭 설견屑繭으로부터 취한 견사緞絲로 직조하는 실지 강습이다. 강습원은 최초 12인이었으나 희망자가 16인에 달한 상황이다. (1923.08.18)

포천에서 생견 10관에 백견 교잡종 최고 63원, 최저 37원으로 총수량 207관의 교역이 있었다. (10일)(1924.06.15)

포천에서 생견 10관에 백견 교잡종 최고 59원, 최저 35원으로 총수량 1,048관의 교역이 있었다. (13일)(1924.06.16)

6월 15일 포천군농회 공동판매소에서 금년 봄 잠견蠶繭 가격을 발표했다. 포천판매소의 특등 1관은 6.56원, 1두는 5.58원, 영평판매소의 특등 1관은 6.48원, 1두는 5.51원이다. (1927.06.18)

22) 재해

1월 13일 밤 강우로 인한 경기도 관하의 피해상황은, 임진강 약 3척 증수, 도선 두절, 연천-포천 간, 연천-금곡리 간 교량 2개소 파손, 영평 남대천 3척 증수, 교통 두절, 영평 읍내-양문리-포천-금곡리로 통하는 교량 유실, 양주군 한탄강 증수로 얼음덩이가 떠내려오고, 도선 중지, 우편물은 미도착, 도로가 침수해 주민은 간신히 철도로 교통한다. (1912.01.16)

1929년 5월 4일 2동면장의 민유 삼림에서 발화해 50정보가 연소해 피해액은 150원, 같은 날 2동면 부평 국유림에서 발화해 30정보가 연소해 손해가액은 60원, 운산 흥용사 소유 삼림에서 발화해 50정보가 연소하고 가액은 100원에 달했다는데 부근 경관과 면 직원의 지휘로 인민 등이 모두 출동 진화했다. (1914.05.17)

1929년 4월 15일 오전 8시 경에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약사당산에서 화재가 일어나 17일 오전 11시 경에 겨우 진화가 되었다. 소실燒失 정수町數는 약 3백 정보이다. 다행히 산림은 무사하고 잔디만 태워 손해도 의외로 적다. 원인은 실화이다. (1925.04.21)

1929년 9월 25일 포천군 신북면 계류리에 오전 6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회오리바람이 맹렬히 불어서 전파全破 가옥 2, 반파半破가옥 2, 지붕 벗겨진 집이 10 여호, 소나무와 밤나무 꺾어진 것이 5백주이고 그 손해가 5백 원 가량이다. (1925.09.29)

1929년이던 호우로 포천군 영중면 성동리교가 유실되어 포천-운천 간 자동차 통행은 7월 21일부터 약 1개월간 휴업한다. (1927.07.26)

23) 저축

일반인민들은 근검저축한 결과 절미저축을 시행하는 자가 약 천명에 달해, 절미는 매 호 저축이 각 5승, 보리는 합 41석 7두 5승, 금전저축은 36원 30전이다. (1912.11.09)

국유지 소작인 등은 소작료 상납액 중 1할씩을 우편국에 저축, 7일부터 4일간 저금 액수 260이다. (1912.11.20)

현병분견소와 우편국이 국유지소작인에게 공동저금을 권유한 결과 저금액 485원56전, 인원 1,799인이다. (1912.12.06)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용환은 일반 면민의 생활상 금융핍박을 염려하여 근검 저축의 목적으로 창업을 조직할 취지를 면내, 면외에 배포했다. 조직 규율은 1주에 5전씩 결정하고 입참자의 자금 유무에 따라 매삭每朔 주금을 저축케 하여 현재 주수株數가 2천여 주에 달한다. (1923.01.15)

24) 전기

포천군 포천읍의 수력발전지에 대한 각종의 조사는 대략 완료되었다. 이를 민간 전기 회사로 하여 경성, 춘천, 기타에 제공, 송전할 목적으로 곧 포천수력전기회사 창립발기인회를 개최한다. (1923.04.08)

25) 종교

포천군 영중면 거사리 이갑증과 이지동은 4월 2일 같은 동리 김인배를 죽인 혐의로 포천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태을교 신자로 김인배의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작은 방 안에서 한편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몽둥이로 구타한 것이다. (1923.04.05)

포천군 영중면 거사리 태을교도 2명은 4월 14일에 경성지방법원 형사부 심리에서 각 벌금 2백원을 선고받았다. (1923.04.15)

5월 23일 포천군 앵뵤청년회에서 포천군 구읍리 예배당에 강연회를 개최했다. 연사 윤치호가 강연을 했다. 또 윤치호 20원 등 의연금에 있었다. 윤치호는 익일 용상동 예배당에서 다시 강연회를 개최하고 20원을 기부했다. (1925.05.27)

26) 지방제도, 지방사무

지난 17일 일본인 1명이 포천군 소면 광릉 등지에서 사냥총으로 사냥하다가 근처 거민 박영종을 쏘아 죽였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의원을 지도해 치료하게 하는 것이 면리장의 정당한 책임인데, 그 면리장들은 아무 지도가 없었다고 민원이 낭자하다. (1912.03.27)

4월 7일 포천군 산업품평회 폐회 후 군수(홍순●)는 신북면사무소에서 임시구장회의를 열고, 지시사항(1. 도로수선, 2. 노동자 이주, 3. 양잠 종자대 선납, 4. 호세납입, 5. 퇴비이용)을 말하고 폐회했다. (1927.04.14)

6월 15일에 포천군에서 농사장려회 지회를 설립하고, 묘대(苗臺) 품평회를 개최했다. (1915.06.17)

27) 지주

경기도 포천군의 모범 지주인 경성부 서대문에 거주하는 이응균은 포천군 소흘면 부근에 경지 약 50정보 소작인 68명이 있어, 아우 이경균씨를 동지에 거주 관리하게 하는 중인데, 금년으로 부터 계속 사업으로 평소의 경작 성적이 뛰어난 소작인을 표창하는 동시에 농사 개량상 필요 사항을 지시하기로 정하고 본년에는 지난 17일 오후 1시에 우량 소작인 표창식을 개최하고 20명의 소작인을 표창했다. 농사개량에 대해서 격의가 없는 간담을 행했는데, 실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하여 일반으로부터 상찬을 마지않는다 하더라. (1926.11.27)

포천군청 주최로 포천군 내 산재한 지주를 집합하여 지주간담회를 개최했다. 11월 29일 포천군청 구내, 12월 1일 영평이다. (1927.12.02)

28) 청년

포천군 서면 신읍리는 산업 기관이 없어 10월 18일 매일신보 포천분국에서 청년 20여 명이 집합하여 포천산업청년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1927.10.26)

11월 13일 포천산업청년회원은 시중을 순회하며 산업선전 피라를 산포散布했다. (1927.11.20)

지난 17일 포천군 서면 신읍시장에서 산업청년회원 일동이 빈민 과세위문대를 조직하여 그날 9시부터 동일 오후 5시까지 회원들이 총 출동하여 군내 빈민들을 조사하고, 극빈민 9명에게 금 4원 90전을 나눠주었다. (1928.01.22)

29) 체육

7월 3일 포천 신송친목회에서 친목 정구회를 열고, 이어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양주, 연천과 더불어 3군 연합 정구대회 개최 추진을 결의했다. (1927.07.09)

10월 1일 '체육데이'를 기하여 포천군에 산재한 각 공립보통학교는 각자 운동장에서 추계운동회를 개최했다. (1927.10.08)

포천에서 매일신보 포천국과 동아일보 지역국 후원하에 목궁대회가 다음 달 4일부터 3일간 열린다. (1928.04.22)

30) 축산

본년도 신설할 축산조합의 예정지는 포천군이다. (1914.04.08)

31) 품평회

양주, 포천, 영평 연합농산물품평회 수상자 포천 가산면 김기묵 소맥4등, 군내면 전덕배 현미4등, 강재록 대맥 4등, 외북면 허변 대맥 4등, 청양면 임헌재 마령서4등, 영평 하리면 김재현 대두 2등, 읍내면 이보근 조4등, 이원근 조4등이다. (1912.12.04)

4월 7일 포천군 신북면사무소에서 산업품평회가 개최되었다. 상기賞旗와 상우賞牛는 심곡리에 수여했다. (1927.04.12)

포천군 농회에서 지난 7일 오후 1시부터 군청 회의실에서 흥회장의 사회 아래 대두, 퇴비, 상전粃田 3개 항목으로 품평회를 개최하였으며, 상품과 상장 수여식, 심사보고를 마쳤다. (1928.03.28)

32) 해조海鳥

포천군에서 농사에 해를 끼치는 참새잡이에 나서 1912년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 30,590마리를 잡았다. (1913.03.02)

일제강점기 경기도민의 생활 I

초판 1쇄 발행 2020년 09월 30일

발 행 처 경기문화재단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생생1990)

기 획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편 집 디자인 구름 (전화 031-949-6009)

인 쇄 디자인 구름 (전화 031-949-6009)

ISBN 979-11-965669-3-7

-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 담긴 내용 및 자료에 대해 경기문화재단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독립운동사와 일제의 정책사 중심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물론 독립운동사와 정책사도 알아야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당시 이 땅에 살았던 대부분의 민중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떠오른다. 오늘날 대중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당대 생활사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경기도 지역 생활사를 서술하기 쉽지 않다. 연구도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마저도 정리된 것이 없다. 이 책을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당대 자료를 모아 지역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것을 시간 순서에 따라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당대 생활사에 대한 감증을 우선 해결하도록 하는 일이 이 자료집의 역할이다.

1부. 주제 분류

1. 인구
2. 농민과 농업
3. 상인과 상업, 시장, 물가
4. 공업, 공산품
5. 축산업
6. 임업, 산림
7. 부업
8. 어업, 수산업, 제염
9. 교육
10. 보건, 의료, 위생
11. 자연재해, 가축 전염병
12. '교화'와 이재민 구호
13. 세금과 예산
14. 교통, 통신
15. 금융과 금융기관
16. 지주와 농회, 소작인과 소작료
17. 통제와 선전
18. 지방제도, 지방사무
19. 인력과 자금 동원
20. 종교
21. 문화와 체육
22. 수도, 난방, 전력
23. 토지
24. 민족운동

2부. 지역 분류

1. 가평
2. 개성, 풍덕
3. 고양
4. 광주
5. 김포, 양천, 통진
6. 부천, 부평
7. 수원, 남양
8. 시흥, 과천, 안산
9. 안성, 양성, 죽산
10. 양주
11. 양평
12. 여주
13. 연천, 삭녕, 적성, 마전
14. 용인, 양지
15. 이천, 음죽
16. 장단
17. 파주, 교하, 문산
18. 평택, 진위
19. 포천, 영평